6·25戰爭史 6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서 문



전쟁의 아픈 상처를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비극과 교훈을 역사로 남기는 작업은 어쩌면 살아남은 자들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이러한 뜻을 모아 지난 2003년부터 6·25전쟁의 실상과 교훈을 담은 『6·25전쟁사』 편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년에 걸쳐 총 11권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6·25전쟁사』 제6권입니다. 여기서는 1950년 9월 15일 단행된 인천상륙작전으로부터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격하여 중공군 제1차 공세에 직면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핵심내용은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된 인천상륙작전과 이어서 전개된 서울탈환, 낙동강선에서의 반격과 연결작전, 38선 돌파와 북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의 진격작전에 대해 기존자료와 함께 새로운 사료를 근거로 자세히 수록하고 있으며, 이때 한국정부와 미국의 전쟁목표와 지도, 정책변화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본서가 군 및 학계의 연구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며, 국군장병 및 국민들에게는 국가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59년의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그때의 전투상황을 생생하게 되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작업을 그 동안 훌륭히 수행해온 군사편찬연구소장과 집필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본서의 발간을 통해 군사편찬연구소가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국방사와 전쟁사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더욱 성숙되어 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59년 전 그 날, 한반도의 찢겨진 산하에서 오로지 조국 수호와 민족 생존을 위해 산화하신 전몰장병과 무명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 흘렸던 자유 우방 참전국 16개 국가의 장병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7월

국방부장관 이 상 희

발 간 사



올해는 6·25전쟁 발발 5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 1990년대에 접어들어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었고 한반도에서도 평화정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위협 등의 수단으로 끊임없는 도발적 행위를 구사함으로써 벼랑끝 전술을 통한 자신들의 전략목표 추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적 교훈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 얻어진다는 점을 소중하게 간직해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편찬연구소는 1967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6·25전쟁사』 전집을 발간하였으며, 또 국내외적으로 6·25전쟁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25전쟁사』 전집은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제반 상황의 변화로 인해 군을 비롯한 참전원로 및 관련학자 등으로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군사편찬연구소는 기존의 『6·25전쟁사』 전집을 총 11권 규모로 증보한다는 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다섯 권의 결실을 보았으며, 이번에 여섯 번째 결실인 『6·25전쟁사』 제6권(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반격작전을 실시함으로써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사』 제6권은 전쟁의 주요 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으로부터 38선 돌파와 북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의 진격작전까지의 전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 낙동강방어선의 완강한 저지선을 돌파하기까지의 작전과 반격시의 부대별 작전상황, 38선 돌파와 북진시의 국군 및 유엔군의 연합작전, 해상 및 공중작전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추진하는『6·25전쟁사』편찬은 미·소와 남·북관계에 관한 역사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에서, 그리고 당사국의 새로운 비밀문서들이 공개된 시점에서 추진되어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분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고 끝에 출간되는 본서가 군내는 물론 국내외 관계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본 전쟁사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자유수호의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우방국들의 지원,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상 등 전쟁의 실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불비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최선을 다해 준 집필자 여러분과 자료지원과 원고교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자료실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원고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고견을 내어주신 백선엽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호, 정용근 위원님, 한용원, 유재갑, 온창일, 정토웅, 허남성 교수님, 하재평, 안병한 전소장님, 그리고 군 원로 및 관련학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 7월

군사편찬연구소장 김 홍 영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2.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 ) 안에 넣었다.

3. 한자 및 외국어로 표기하는 인명·지명·직위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였다.
   (1) 각 절에 처음 나올 경우에 ( ) 안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2) 지명의 경우, 저명한 지명은 한자 표기를 생략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만을 ( ) 안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3) 외국 인명·지명은 이를 한국 음으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4. 주기(註記)는 인용된 원문의 전거(典據)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어 각 장 말미에 실었으며,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붙였다. 또 각장 마지막 부분에 담당 집필자명을 명기하였다.

5.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평이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6.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완결된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린 표시
   『 』 : 저술이나 서명을 표시

7. 이 책의 부록으로 연표・관계 자료 목록을 책 끝에 실었다.

8. 이 책에서 상황도는 1950년대 1 : 5만 군사지도 및 상황도를 사용하였으며, 독도법과 군대부호 등은 종전의 방식을 따라 작성하였다. 개요의 상황도는 개요 마지막 부분에, 본문의 상황도는 해당 부분에 각각 넣었다.

9. 북한군과 관련한 용어는 군의 ‘정신교육지침’과 국방부의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공산군, 인민군 등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목 차

▌장관 서문

▌발간사

▌일러두기

제 1 장 총 개요 / 1

제 1 절 양측의 상황 ····· 3
제 2 절 지상 작전 ····· 7
제 3 절 해 · 공군 작전 ····· 10

제 2 장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전쟁 지도 / 15

제 1 절 국내외 정세 ····· 17
제 2 절 전선 상황 ····· 29
제 3 절 유엔군의 전쟁 지도 ····· 39
제 4 절 정부의 전시 조치 ····· 49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75

제 3 장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 / 85

제 1 절 작전 개요 ····· 87
제 2 절 작전 준비 ····· 92
제 3 절 인천상륙작전 ····· 115
제 4 절 서울탈환작전 ····· 144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190

제 4 장 낙동강선 반격작전 / 203

제 1 절 작전 개요 ····· 205
제 2 절 작전 준비 ····· 209
제 3 절 낙동강선 돌파 ····· 214
제 4 절 38도선으로 진격 ····· 283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330

제 5 장 38도선 돌파작전 / 339

제 1 절 작전 개요 ····· 341
제 2 절 작전 준비 ····· 345
제 3 절 38도선 돌파 ····· 355
제 4 절 원산-평양탈환작전 ····· 404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440

제 6 장 압록강과 두만강으로의 진격 / 449

제 1 절 작전 개요 ····· 451
제 2 절 작전 계획 ····· 453
제 3 절 서북부와 동북부 지역의 진격전 ····· 460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561

제 7 장 해군작전 / 571

제 1 절 작전 개요 ····· 573
제 2 절 한국해군 작전 ····· 577
제 3 절 유엔해군 작전 ····· 595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642

제 8 장 공군작전 / 655

제 1 절 작전 개요 ····· 657
제 2 절 북한공군 능력 ····· 660
제 3 절 한국공군 작전 ····· 663
제 4 절 유엔공군 작전 ····· 677
제 5 절 분석 및 평가 ····· 725

제 9 장 총 평 / 743

제 1 절 전쟁지도 측면 ····· 745
제 2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 751

부 록 / 759

1. 특수 용어 및 약어 해설 ····· 761
2. 국군 작전명령 ····· 764
3. 연 표 ····· 776

■ 참고문헌 / 783
■ 찾아보기 / 793

〈표 목 차〉

<표 2-1> 1950년 9월 북한군 예·배속부대 ····· 29
<표 2-2> 1950년 9월 북한군의 편성 및 병력상황 ····· 31
<표 2-3> 1950년 9월 초 경인지역 북한군 부대 ····· 32
<표 2-4> 1950년 9월 초 미군과 한군군 전투편성 현황 ····· 33
<표 2-5> 1950년 9월 초 피아 병력 및 장비 비교 ····· 35
<표 2-6> 각 부대별 야전우체국명(1950. 9. 22) ····· 57
<표 2-7> 형기별 통계 현황 ····· 57
<표 3-1> 상륙군의 지휘계통표 ····· 88
<표 3-2> 제7합동기동부대 세력 ····· 89
<표 3-3> 북한군 부대 및 지휘관 ····· 96
<표 3-4> 아군 참가 부대 및 지휘관 ····· 103
<표 3-5> 상륙군의 지휘 체계 ····· 115
<표 3-6> 승합단 배치부대 및 함정명 ····· 117
<표 3-7> 상륙부대 출항상황 ····· 120
<표 4-1> 낙동강전선의 북한군 전투편성표(1950. 9. 15) ····· 210
<표 4-2> 미 제8군 전투편성표(1950. 9. 15) ····· 211
<표 4-3> 국군 제1사단 지휘관 현황 ····· 215
<표 4-4> 미 제1기병사단 지휘관 현황 ····· 227
<표 4-5> 미 제24사단 지휘관 현황 ····· 228
<표 4-6> 린치특수임무부대 편성표(1950. 9. 22) ····· 237
<표 4-7> 미 제2사단 지휘관 현황 ····· 246
<표 4-8> 미 제25사단 지휘관 현황 ····· 254
<표 4-9> 국군 제6사단 지휘관 현황 ····· 259
<표 4-10> 국군 제8사단 지휘관 현황 ····· 265
<표 4-11> 국군 제3사단 지휘관 현황 ····· 269
<표 4-12> 국군 수도사단 지휘관 현황 ····· 270
<표 5-1> 유엔군 전투편성표 ····· 357
<표 6-1> 북한군 및 유엔군의 전투력 비교 ····· 465
<표 6-2> 진격작전 시 유엔군 전투편성 ····· 470
<표 6-3>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 475
<표 6-4> 전과와 피해 ····· 488
<표 6-5> 전투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 491
<표 6-6> 전투에 참가한 국군 부대 및 지휘관 ····· 500
<표 6-7> 국군 및 북한군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 512
<표 6-8> 전투의 전과 및 피해 ····· 521
<표 6-9> 전투에 참가한 국군 부대 및 주요 지휘관 ····· 522
<표 6-10>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 532
<표 6-11> 전투의 전과 ····· 535
<표 6-12> 전투의 전과와 피해 ····· 547
<표 6-13> 전투의 전과와 피해 ····· 548

<표 6-14> 국군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 551
<표 7-1> 문산호 피해현황 ····· 580
<표 7-2> 제7 합동상륙기동부대 세력현황 ····· 600
<표 7-3> 해군 작전편성(1950년 9월 12일 재편성) ····· 601
<표 7-4> 제7합동상륙기동부대 기동편성(원산상륙작전) ····· 612
<표 7-5> 완편된 진남포 소해전 부대 조직 ····· 632
<표 8-1> 공군 주요부대 및 지휘관(1950. 10. 31 기준) ····· 659
<표 8-2> 1950년 6～10월간 북한군 항공기 손실 현황(미공군역사연구소 자료) ····· 661
<표 8-3> 북한 공군 항공기/조종사 손실현황 ····· 662
<표 8-4> 항공기지사령부 예하 항공관구편성 ····· 666
<표 8-5> 탄약 소모 현황(1950. 9. 23～10. 13) ····· 672
<표 8-6> 정찰전대본부 및 파견대 항공기보유 현황 ····· 675
<표 8-7> 미 제49전폭전대 항공기 월별 가동률 ····· 685
<표 8-8> 공군 주요 전술기 성능 및 제원 ····· 688
<표 8-9> 유엔 공군 비행활동(1950. 6～10) ····· 689
<표 8-10> 유엔 공군의 항공차단 작전현황(1950. 6～10) ····· 693
<표 8-11> 북한군 1개 사단 1일 평균 보급량 추이 ····· 731
<표 8-12> 포로 심문 결과 북한군 사기저하 원인 ····· 732
<표 8-13> 아군 무기별 적 병력 및 장비 손실현황 ····· 733

〈상황도 목차〉

<상황도 1-1> 유엔군의 반격 및 북진상황도(1950. 9. 15～10월말) ····· 13
<상황도 3-1> 인천상륙작전계획 ····· 90
<상황도 3-2> 낙동강전선에서의 반격 ····· 91
<상황도 3-3> 인천 해역 ····· 92
<상황도 3-4> 1950년의 인천 ····· 94
<상황도 3-5> 상륙군 출항 ····· 116
<상황도 3-6> 월미도(Green Beach) 상륙 ····· 128
<상황도 3-7> 돌격계획 ····· 130
<상황도 3-8> 적색해안(Red Beach) 상륙 ····· 133
<상황도 3-9> 청색해안(Blue Beach) 상륙 ····· 135
<상황도 3-10> 인천 시가지 전투 ····· 140
<상황도 3-11> 부평 부근 전투 ····· 145
<상황도 3-12> 김포비행장 전투(9. 18) ····· 148
<상황도 3-13> 김포 부근 전투 ····· 150
<상황도 3-14> 영등포 부근 전투 ····· 153
<상황도 3-15> 한강 도하작전(9. 20) ····· 156
<상황도 3-16> 영등포 전투 ····· 161
<상황도 3-17> 연희고지 부근 전투 ····· 165
<상황도 3-18> 서울 외곽 포위 ····· 170

<상황도 3-19> 서울 시가지 전투 ····· 174
<상황도 3-20> 인천상륙부대와 낙동강선 반격부대의 연결작전 ····· 188
<상황도 4-1>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선 반격작전 ····· 207
<상황도 4-2> 국군 제1사단의 가산-팔공산 전투(1) ····· 219
<상황도 4-3> 국군 제1사단의 가산-팔공산 전투(2) ····· 222
<상황도 4-4> 미 제1기병사단의 다부동 전투 ····· 231
<상황도 4-5> 미 제5연대전투단의 왜관 탈환전 ····· 242
<상황도 4-6> 미 제2사단의 창녕-영산 돌파 ····· 248
<상황도 4-7> 국군 제6사단의 신녕 돌파 ····· 261
<상황도 4-8> 국군 제3사단의 형산강 돌파 ····· 272
<상황도 4-9> 국군 수도사단의 안강-기계 돌파(1) ····· 278
<상황도 4-10> 국군 수도사단의 안강-기계 돌파(2) ····· 279
<상황도 4-11> 상륙부대와 낙동강선 반격부대의 연결작전 ····· 286
<상황도 4-12> 미 제24사단의 대전 진격전 ····· 294
<상황도 4-13> 국군 제1사단의 추격작전 ····· 298
<상황도 4-14> 미 제9군단의 서남부지역 추격작전 ····· 302
<상황도 4-15> 국군의 중동부지역 추격작전 ····· 309
<상황도 4-16> 국군의 동부지역 추격작전 ····· 320
<상황도 5-1> 국군 및 유엔군의 북진작전 ····· 343
<상황도 5-2> 국군 제1군단의 동부지역 돌파작전 ····· 365
<상황도 5-3> 국군 제2군단의 중동부지역 돌파작전 ····· 380
<상황도 5-4> 미 제1군단의 서부지역 돌파작전 ····· 390
<상황도 5-5> 국군 제1사단의 시변리 진격작전 ····· 398
<상황도 5-6> 국군 제1군단의 원산탈환작전 ····· 406
<상황도 5-7> 국군 제1사단의 평양탈환작전(1) ····· 426
<상황도 5-8> 국군 제1사단의 평양탈환작전(2) ····· 427
<상황도 5-9> 국군 제7사단의 평양탈환작전 ····· 436
<상황도 6-1> 유엔군의 한·만 국경선으로 북진 작전계획 ····· 455
<상황도 6-2> 서북부지역 진격상황 ····· 462
<상황도 6-3> 동북부지역 진격상황 ····· 463
<상황도 6-4> 숙천·순천 공수작전 ····· 487
<상황도 6-5> 영변-운산 진격전 ····· 498
<상황도 6-6> 순천-개천-희천 진격전 ····· 510
<상황도 6-7> 초산 진격전 ····· 520
<상황도 6-8> 북창-덕천·영원-희천 진격전 ····· 526
<상황도 6-9> 영흥-함흥-성진 진격도 ····· 549
<상황도 6-10> 원산-함흥지역 후방작전 ····· 560
<상황도 7-1> 동해안 원산-성진 진격 항로 ····· 589
<상황도 7-2> 서해안(진남포) 진격 항로 ····· 592
<상황도 7-3> 인천 상륙돌격 ····· 607
<상황도 7-4> 원산항 소해 ····· 621
<상황도 8-1> 1950년 9월 15일~10월 31일 유엔군공세도 ····· 658
<상황도 8-2> 한국 및 유엔공군 배치도(1950. 11. 1 기준) ····· 684



제1장 총 개요

제1절	양측의 상황
제2절	지상 작전
제3절	해·공군 작전

제 1 절 양측의 상황

『6·25전쟁사』 제6권(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은 제5권(낙동강선 방어작전)에서 한국군 및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과 북한군 양측이 낙동강선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내용을 수록한데 이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한국군과 유엔군이 서울탈환, 낙동강선에서의 반격과 연결작전, 38선돌파, 압록강과 두만강으로의 진격작전을 실시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작전기간은 1950년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다.

본서(本書)의 내용은 정책과 지도 부분에 한국전란 1년지, 국방사(國防史) 및 국방부사(國防部史), 후방전사, 미국 합동참모본부사, 극동군 사령부 자료, 중국의 항미원조전쟁사, 소련 군사고문단장이었던 라주바예프의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한국정부와 미국 및 유엔군사령부의 전쟁지도, 후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기술하였다. 아울러 전투 부분에서도 기존 『한국전쟁사』를 기초로 이후 새로이 연구된 각 지역별 전투와 비밀문서 해제에 따라 공개된 양측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내용을 수정 보완했고, 시점별로 피아 전력비교, 부대, 지휘관 등을 도표로 정리하였다. 또한 작전상황도, 전투상황도 등은 본문내용을 따라 읽기 편리하도록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1950년 6월 29일 한강방어선을 시찰했을 당시 한편에서 적의 주력을 저지하는 사이 또다른 한편에서 적의 배후를 강타하여 적에게 2개의 전선을 강요한다는 내용의 대담한 상륙작전을 구상하였다. 이 최초의 구상은 「블루하트(Bluehearts)작전)」으로 명명되어 미 제1기병사단으로 하여금 7월 하순에 인천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당시 전선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미 제1기병사단을 전선으로 긴급히 투입하게 됨으로써 7월 10일에 계획은 취소되었다. 작전의 실행은 취소되었으나 맥아더의 상륙작전

구상과 계획은 합동전략기획단(JSPOG)에 의해 계속 연구 발전되어 「크로마이트(Chromite)작전」으로 발전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었다. 이때 가담한 총병력은 75,000여 명이었고, 함정은 261척이었다.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은 인천 일대에서 저항하는 북한군을 소탕한 후, 9월 18일에는 김포공항을 탈환하고, 19일부터는 서울탈환작전이 실시되어 행주-능곡-연희동, 영등포-마포, 노량진-서빙고-남산의 3개 방면에서 서울로 진출함으로써 28일 서울을 완전탈환하였다. 또한 미 제10군단의 일부인 미 제7사단 제31연대는 수원-오산 방향으로 진출하여 26일 낙동강전선에서 북상 진격한 미 제1군단 선발대와 오산북방에서 연결을 이루었다.

낙동강선 반격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미 제8군 예하 지상군 4개 군단(미 2개 군단, 국군 2개 군단)이 각 축선별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낙동강선에서 38선까지 북진하는 작전을 말하며, 이는 인천상륙 다음날인 9월 16일 09:00를 기하여 총반격과 함께 개시되었다.

이 무렵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은 왜관(倭館)에서 남해안(南海岸)에 이르는 전선을 맡은 제1군단(6개 사단 : 제2, 4, 6, 7, 9, 10사단), 왜관(倭館)에서 동해안(東海岸)에 이르는 전선을 맡은 제2군단(7개 사단 : 제1, 3, 5, 8, 12, 13, 15사단) 등 1개 전차사단으로 증강된 13개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병력은 약 7만여 명으로 전투력은 완편대비 약 30% 수준에 불과하였고, 사기도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다.

반면에 낙동강선의 국군과 유엔군은 4개 군단(창설 미 제9군단 포함) 예하에 10개 사단과 1개 여단으로 증강되어 총병력은 14만 7천여 명(국군 약 73,000명, 유엔군 약 74,000명)으로 북한군의 2배 이상 규모였으며, 화력(火力)도 6 : 1로 우세하였다.

그러나 반격 초기에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약 1주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치른 후에 9월 22~23일에는 낙동강 방어선으로부터 반격의 발판 마련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추격전의 양상을 띠는 작전이 전개되었고, 국군과 유엔군은 신속한 추격으로 북한군이 저지선을 형성할 여유를 주지 않았으

며, 26일 인천상륙부대와 연결을 이룸으로써 북한군 제1군단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권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9월 30일에는 서부전선의 미군 2개 군단이 대전·전주·군산을 탈환하였으며, 중동부 및 동부전선의 국군 2개 군단은 원주·단양과 38도선 남쪽의 서림·인구리까지 진격하여 북진태세를 갖추었다.

이때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자 순식간에 지휘체제(指揮體制)가 붕괴되어 지리멸렬되는 모습을 보인 이후 13개 사단은 완전히 분산되었다. 그중 6개 사단은 38선 북쪽으로 철수하지 못하고 포위망 속에 고립되어 수많은 병력이 포로가 되었고, 일부 부대와 패잔병은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 산악지역으로 도피하여 그후 그곳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였다.

북진태세가 갖추어진 시점에서 38선 돌파문제는 유엔의 궁극적 목적인 한국의 통일 달성을 위해 북진을 감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북진 반대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토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0월 1일 국군의 선두부대가 38선을 돌파하였다. 미국내에서도 유엔군의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정책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미 합참은 9·27훈령(訓令)을 통해 유엔군의 작전목적이 북한군을 격멸하는데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승인하였다. 다만 중·소의 개입의사나 행위에 따른 문제를 고려하고, 중·소접경지대에서의 작전은 정책적으로 한국군이 전담하게 한다는 작전상의 제한을 두었다. 또한 유엔군이 북한전역을 점령할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 실현을 승인하기 위하여 유엔총회는 10·7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하기에 이르렀다.

38선 돌파 및 북진이 결정된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전쟁재발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북한군을 완전히 격멸할 목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간에 군단별로 각각 38도선을 돌파하여 북한지역으로 총진격하였다. 기동계획은 미 제1군단(미 제1기병사단, 미 제24사단, 국군 제1사단, 영연방 제27여단)이 주공으로서 서부지역의 개성-사리원-황주를 경유하여 평양을 목표로 진격하고, 국군 제1군단(국군 제3, 수도사단)이 중동부 전선 및 동해안 지역에서 원

산방향으로 공격하며, 국군 제2군단(국군 제6, 7, 8사단)은 중부지역에서 철원-평강-양덕을 경유하여 청천강선으로 진격하고, 미 제10군단(미 해병 제1사단, 미 제3사단, 미 제7사단, 한국 해병 제1연대)은 원산에 상륙한 다음 그 일부를 서진시켜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때의 북한군은 서해안방어사령부와 전선사령부가 38도선 북방에 방어선을 설정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하면서 그들의 철수부대를 수습하고 있었고, 평양과 원산에는 평양방어사령부와 원산방어사령부를 두어 후방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전력은 빈약하여 조직적인 방어대책도 수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동부의 국군 제1군단은 10월 10일에 원산, 17일에 함흥을 점령하였으며, 서부의 미 제1군단은 10월 19일에 평양을 탈환하였다. 또한 중부의 국군 제2군단은 10월 18일 양덕을 점령한 후 평양탈환작전에 기여하기 위해 성천·강동으로 서진하였다가 다시 북상하였다. 이때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계획은 기뢰제거작전이 지연되어 원산 외항(外港)에서 상륙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양과 원산선까지 진출한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21일부터 한·만 국경선을 향해 총공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당시의 북한군 전력으로는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며, 북진단행 시 우려했던 소련이나 중공의 개입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북진 시 설정하였던 군사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0월 25일 국군과 유엔군이 박천·운산·온정리·희천선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을 때 중공군으로부터 불의의 기습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의 상황은 제7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제 2 절 지상 작전

국군과 유엔군은 성공적인 낙동강선 방어작전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자 낙동강 전선에서 총반격작전을 단행하였다. 이때의 진격로는 북한군이 남침한 경로의 반대방향이었다. 유엔군은 서부지역에서 경부축선과 호남우회로를 따라 진격하였으며, 국군은 중부와 동부지역에서 중앙선 축선과 동해안로를 따라 진격하였다.

본서(本書)에서는 지상작전 상황을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 낙동강선 반격작전, 38선 돌파작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의 진격작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제3장)에서는 해군작전(제7장)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상륙준비과정, 상륙부대를 탑재하고 기동하는 과정 등은 제7장에서 다루고, 이 장에서는 상륙작전 관련 주요 정책적, 전략적 의사결정과정과 논쟁, 상륙 이후 서울탈환작전까지의 지상작전 위주로 기술하였다. 특히 북한군 관련 단대호, 병력규모, 전투관련내용을 「라주바예프 보고서」를 근거로 수정하였고, 상륙작전 준비과정과 작전에 관한 내용은 「합동참모본부사」, 「정책과 지도」 등 미 공간사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서울탈환까지의 각 전투내용을 새로이 연구된 전투사를 근거로 보완하였다.

「낙동강선 반격작전」(제4장)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미 제1, 9군단 및 각 사단의 전투일지(War Diary)를 분석하여 미군 작전상황을 대폭 보완하였다. 특히 미 제8군, 각 군단 및 사단 작전명령을 수록하였고, 반격작전 시 특수임무부대들의 조직 및 작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미 공간사의 일부 오류 등을 수정하였다. 또한 국군의 전투상보 및 증언록을 분석하여 제1사단의 가산-팔공산 작전과 제8, 3사단의 중동부, 동부지역 작전 보완 등 아군 작전상황

을 크게 보완하였다. 미 제8군은 국군과 유엔군 10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4개 공격집단으로 편성하여 주공인 미 제1군단(미군 2개 사단, 국군 1개 사단)을 경부축선으로, 남서부전선에 미군 2개 사단(9월 23일부터 미 제9군단이 지휘)을, 중·동부전선에 한국군 2개 군단을 전개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대의 전투상황에 대해서는 상기한 자료를 근거로 보완하여 기술하였다.

「38선 돌파작전」(제5장)에서는 38선 돌파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입장과 유엔군사령부의 입장, 미국내에서의 38선 돌파 논의, 유엔의 한국통일 결의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38선 돌파 및 북진이 결정된 이후 기동계획은 미 제8군이 주공으로서 미 제1군단을 서부지역에서 평양으로, 국군 제2군단은 중부지역에서 청천강선으로, 국군 제1군단은 중동부 및 동해안지역에서 원산방향으로, 그리고 조공인 미 제10군단은 주공의 공격개시후 1주일 이내에 원산에 상륙한 후 원산-평양 축선을 따라 서진하여 주공과 연결하며,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이 기간중의 평양탈환작전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중부지역으로 진격한 국군 제2군단의 작전상황, 동해안지역의 국군 제1군단이 일일 평균 26㎞라는 놀라운 속도로 진격했던 상황과 10월 10일 동해안 최대의 군사요충지 원산탈환까지의 작전을 다루었다.

「압록강과 두만강선으로의 진격작전」(제6장)에서는 38선 돌파작전 이후 10월 21일부터 시작된 총진격작전 상황을 중공군 1차공세 이전까지로 제한하여 기술하였다. 평양-원산선을 점령한 국군과 유엔군은 이후 작전을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서부지역은 주공으로서 미 제8군이, 동부지역은 조공으로서 미 제10군단이 북쪽으로 진격하여 정주-군우리-영원-함흥-흥남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고, 이 선 이북지역에 대한 작전은 국군이 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10월 17일 미 제8군이 평양 부근까지 진격하였을 때 유엔군사령관은 유엔군의 진출한계선을 한·만 국경선에서 남쪽으로 48㎞~64㎞ 떨어진 지점을 연결하는 선천-고인동-평원-풍산-성진선(일명 신맥아더라인)으로 북상시켰다. 이후 10월 24일에는 이 한계선마저 철폐하여 모든 지상군 부대들이 가용한 최대한의 전투력을 동원하여 한·만 국경선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10월 21일 총진격작전을 개시한 국군과 유엔

군은 10월 23일 국군 제2군단이 청천강선까지 진출하고 10월 26일에는 박천-태천-운산-온정리-희천-이원까지 진출하였으며, 이날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는 압록강변의 초산을 점령하였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서부전선에서 이때까지의 작전상황을 기술하였으며, 동부전선에서는 원산을 점령한 이후 국군 제1군단의 풍산, 성진 진출상황과 원산 및 함흥지역 후방작전, 미 제10군단이 10월 26일 원산에 행정상륙하는 단계까지의 상황을 기술하였고, 중공군의 1차공세가 시작되었던 10월 25일 이후의 상황은 제7권에서 다룰 것이다.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작전기간 중 특이사항은 중공외상 주은래(周恩來)가 9월 30일 공식적으로 "중공인민은 절대적으로 외국에 의한 침략행위를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중공의 우방이 노예화되는 사태를 결코 묵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10월 2일에는 "만일 유엔군이 북한으로 침공하면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정보당국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한 탓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북진작전의 재고(再考)를 건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작전기간 중 유엔 회원국들의 참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9월 19일에 필리핀군 제10대대 전투단이, 9월 27일에는 호주군 연대 제3대대가 도착하였고, 10월 7일 태국군 대대 주력이, 10월 17일 터키여단 주력이, 10월 23일 네덜란드 대대가 부산에 상륙하여 북진작전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의 지상부대 참전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네덜란드 등 9개국이 되었다.

제 3 절 해 · 공군 작전

본서에서는 1950년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의 「해군작전」(제7장)과 「공군작전」(제8장)을 정리하였다. 해 · 공군 작전은 해군과 공군의 단독 고유임무수행 영역과 지상군에 대한 지원작전을 총괄하여 기술하였다.

낙동강 방어작전 시에는 한국 해군과 유엔 해군이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한 가운데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국해역에서 해상활동을 주도하며 지상작전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작전 책임지역을 북위 37도선을 경계로 그 이북지역은 유엔 해군이, 그 이남지역의 봉쇄 및 연안작전은 한국 해군이 담당하도록 하여 전쟁기간 중 그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명확한 작전지역의 구분없이 6 · 25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뒤바꾼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하여,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陽動作戰)인 장사동 상륙작전, 그리고 원산상륙작전, 진남포 소해작전, 목포상륙작전, 남한기지 탈환전 및 북한해역 진격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은 8월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미 제7함대사령관인 해군중장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제독이 상륙기동부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제7합동기동부대(JTF7)가 편성되었다. 이 합동기동부대는 D일인 9월 15일 이전에 항공기 및 함포지원사격으로 인천 월미도 등을 무력화시키고 L시(9월 15일 06시 30분)부터 상륙돌격을 실시하여 인천을 탈환하고, 이어 서울탈환, 미 제8군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 대해 제7장에서는 제3장(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상륙준비 및 실시까지의 주요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7합동기동부대는 D일을 10월 20일로 한 원산상륙작전을 수행하게 되며, 이때 북한군은 원산 앞바다에 소련에서 지원받은 기뢰 3,000여 개를 부설함으로써 상륙군은 기뢰제거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기뢰제거작전은 영흥만 소해작전으로 제7합동기동부대 소속 제95기동부대의 상륙에 대비하여 편성된 소해전대(TG-95.6)에 의해 수행된다. 이 작전에서 소해전대는 한국 해군 소해정(YMS-516호)을 비롯한 소해정 3척을 잃는 등 악조건에 봉착하여 5일간으로 계획하였던 작전을 15일만에 완료하였다. 또한 38선을 돌파한 지상군(국군 제1군단)이 이미 원산을 장악하였고, 이로 인해 미 제10군단 제1해병사단의 원산상륙은 10월 26일에야 행정상륙으로 마무리 된다. 그러나 이때의 경험은 이후 실시된 진남포 소해작전에서 완벽한 작전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공군은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동시에 낙동강선에서의 반격이 개시되자 지상군 근접지원작전과 북한 주요 도시에 대한 전략폭격, 전선확장에 따른 수송비행 등에 치중하게 되었다. 「공군작전」(제8장)에서는 이 시기의 한국 공군과 유엔공군의 작전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 공군은 유엔군의 반격을 지원하면서 부대확장 및 기지이전을 단행하였다. F-51기 10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군비행단은 9월 23일 여의도기지로 이동하여 지상군 지원 및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0월 24일 미림(美林)기지로 전개하여 지상군 진격작전을 지원하였다. 정찰비행전대는 14대의 L형 항공기로 본부 및 육군 3개 군단 파견대를 운영하면서 지상군에 대한 정찰, 연락 및 포사격관측 등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또한 공군본부는 10월 17일 부대개편 및 확장을 단행하여 본부에 병참감실을 신설, 전시 병참지원을 강화하였고, 기존 항공기지 사령부 예하 3개 기지부대를 5개 항공관구로 승격 확대하여 북진 시 확대된 활동공역에 대한 원활한 통제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유엔공군의 활동은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인천상륙작전 개시(9월 15일) 이후 38선을 돌파하기 직전(9월 30일)까지의 시기로 이때는 미 제8군의 근접지원작전에 치중하면서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도시에 대한 전략폭격을 실시하였다. 2단계는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맹렬한 북진을 감행하는 시기로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의 기간이다. 이때의 유엔공군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작전과 함께 연장된 병참선에 따라 지상군의 병력 및 물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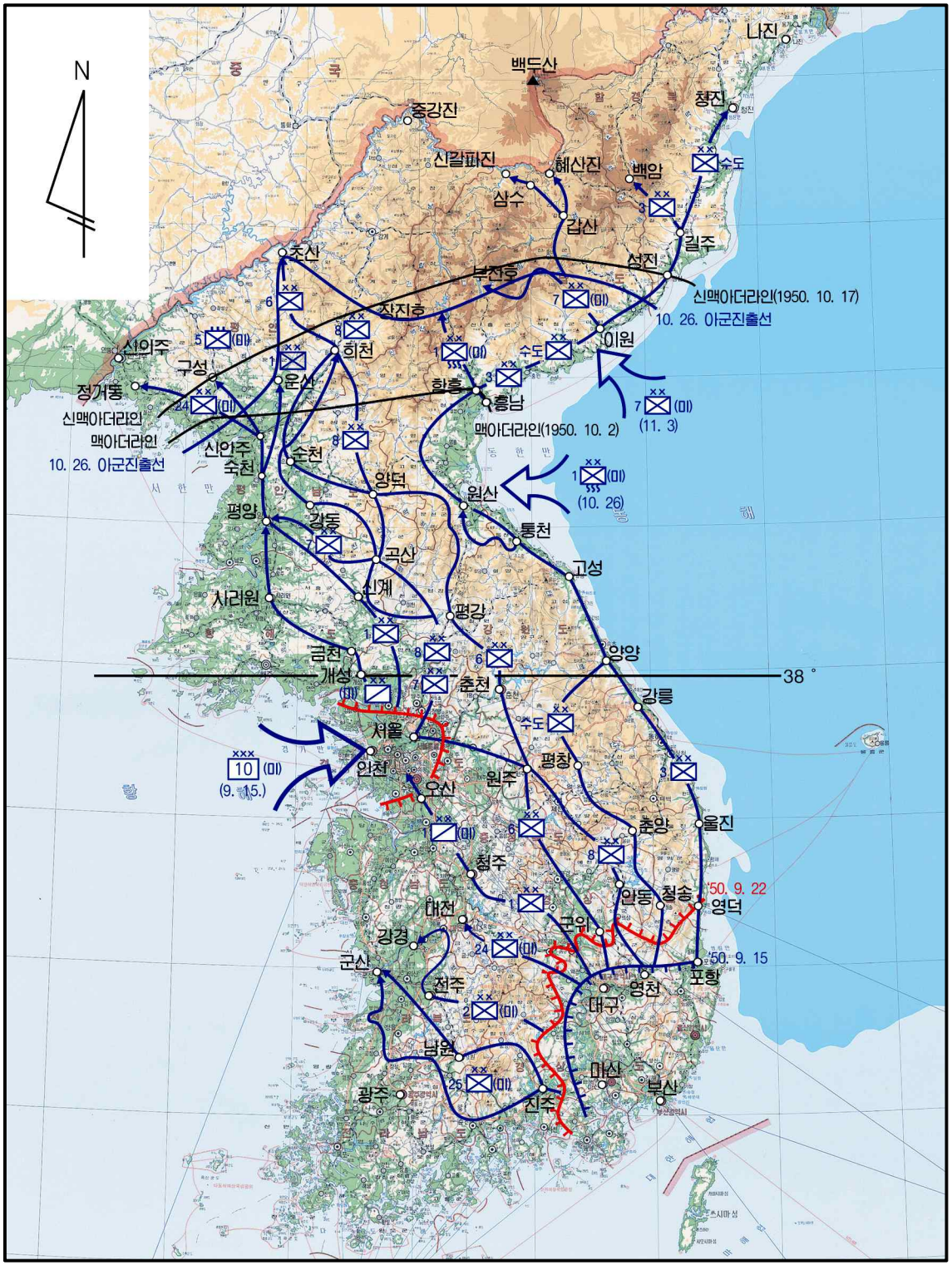
비수송비행에 치중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때의 작전상황을 비행기지의 이동과 전개실태, 보급품, 연료, 병력수송실태, 환자이송 관련사항, 폭격기의 활동, 10월 20일 실시된 숙천과 순천에서의 공정작전 시 공군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10월 중 제5공군 예하 4개 전투비행전대와 2개 정찰대대, 기타 많은 지원부대들이 일본으로부터 한국 영토로 전개하였다. 유엔군은 원산, 신막, 평양, 신안주 지역 비행장을 점령하였으며, 극동공군의 사용이 가능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전략표적 감소에 따라 22 및 92폭격전대 소속 B-29는 미 본토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극동공군의 압록강 이남지역 교량에 대한 차단작전 종료로 전투기와 폭격기의 일일 비행횟수는 감소하였고, 수송기의 일일 비행횟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제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시점에 새로운 전쟁을 의미하는 중공군의 개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집필 : 민항기)

<상황도 1-1> 유엔군의 반격 및 북진상황도(1950. 9. 15~10월말)





제 2 장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전쟁 지도

제 1 절	국내외 정세
제 2 절	전선 상황
제 3 절	유엔군의 전쟁 지도
제 4 절	정부의 전시조치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국내외 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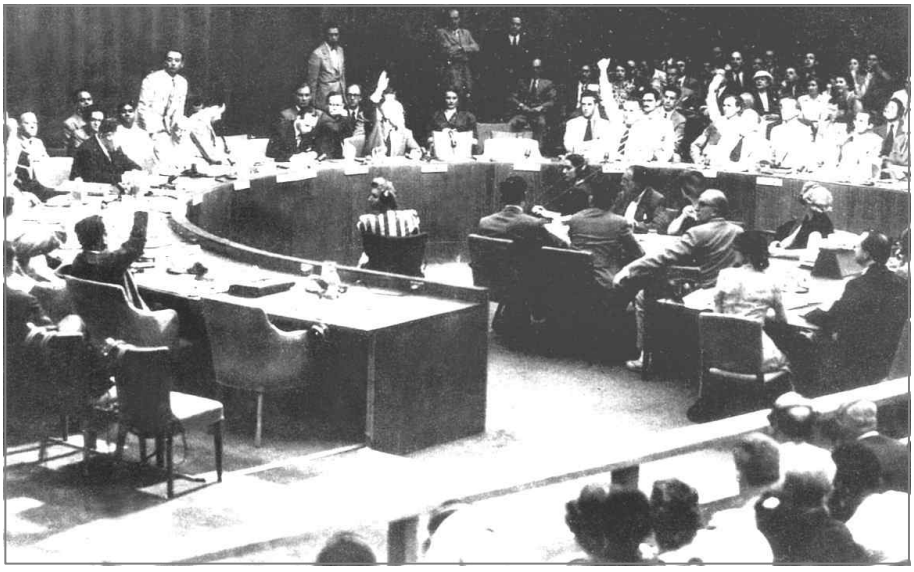
1. 국제 정세

낙동강(洛東江)전선에서의 공세이전(攻勢移轉)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 통일방안에 대한 새로운 노선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에 자극된 중공은 "중국은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전문(電文)을 유엔에 발송한 데에 이어 미군 항공기가 국경을 넘어 만주(滿洲)지역을 폭격하였다고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하였다.[1)]

이 성명은 중공의 당 기관지나 공공기관 선전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앞을 다투어 그 동안 중공인민들에게 고취시켰던 반미감정을 부추기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공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으며, 당정(黨政) 간부들이 잇달아 미국에 대하여 위협적인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2)]

인천상륙작전 전후 중공군은 3개 군이 만주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거나 준비를 갖추었다. 그 외의 많은 중공군 부대들이 상해(上海)와 심양 중간지역인 산동반도(山東半島)로 이동하여 한반도에 대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었다. 중공의 외상 주은래(周恩來)는 9월 30일 공식적으로 "중공인민은 절대적으로 외국에 의한 침략행위를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중공의 우방이 노예화되는 사태를 결코 묵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10월 2일에는 "만일 유엔군이 북한으로 진공하면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였다.[3)]

그러나 이때까지도 미국은 이러한 중공의 움직임이 중공군의 개입이라는 심각한 사태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의 경고는 결과적으로 유엔군의 북진 결정 정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결의 모습

이에 반하여 유엔군사령부의 정보당국자들은 주은래 외상의 공식성명으로 중공이 북한군을 지원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10월 5일 최소한 중공군의 9~18개 사단이 만주에서 북한지역으로 월경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 중의 일부병력이 이미 북한으로 진격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그러므로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할 경우 중공군이 공공연하게 한국전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정보당국자들은 중공군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이유나 근거를 찾지 못해 북진작전을 재고하도록 건의하지 못하였다.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중공의 이와 같은 동향으로 보아 이들이 군사행동을 취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유엔군사령부에 "만약 중공군이 개입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북진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중공영토내의 군사목표에 대한 작전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요지의 새로운 훈령을 하달하였다.[4)]

그러나 이와는 달리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는 중공이 미국과의 승산 없는 대결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소련의 충분한 해·공군의 지원 없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된다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일은 피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공이 한국전에 개입할 가능성은 있으나 소련의 전면전쟁에 대한 정책결정 때문에 최소한 1950년 중에는 중공의 참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한편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은 승리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대로 단순히 침략자를 38선 이북으로 격퇴시킨다는 내용을 변경해야 했다. 유엔으로서는 새로운 침략행위를 방지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차제에 38선을 돌파하여 북한군 전력을 섬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유엔으로서는 정치적으로 38선 돌파문제와 한국의 통일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5]

그런데 이 무렵 유엔총회가 개최되고 나서 이틀 후인 9월 21일 소련 외상 비진스키(Vishinsky)는 갑자기 한국문제에 있어 38선을 중심으로 정전하자는 이른바 "평화선언"을 제안하고 나섰으나, 유엔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6]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는 미국의 38선 북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비공산국가로서 유일하게 인도가 반대하고 나섰다. 인도가 반대한 것은 중공을 국가로 승인한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국가 승인을 했던 영국 대표는 9월 26일 "이 기회에 38선을 돌파하지 않으면 유엔관리 하의 전 한국의 선거나 통일한국의 실현도 불가능하다"라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38선 돌파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기초하여 7개국(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네덜란드, 노르웨이, 브라질, 쿠바, 파키스탄)의 지지를 얻어 8개국 공동결의안에 서명을 얻어내었다.[7]

이에 대해 소련이 즉각 38선 돌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6일의 안보회의에서 소 대표 말리크(Yakov Malik)는 회의 의제에 한국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소련측의 방해와 거부권에도 불구

하고 8개국 공동결의안이 9월 29일 총회에 상정되었다.[8)]

유엔총회의 제안 설명에서 필리핀의 로물로(Romulo) 대표는 6월 27일 안보이사회가 결의한 'The Area'를 전 한국이라고 해석하면서 "유엔군의 38선 돌파의 권한은 이 결의안의 채택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이 안보이사회의 결의로 인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북진을 기정사실화 하였다.[9)]

이때 유엔총회에 상정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유엔은 전 한국에 걸쳐 안전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둘째, 한국에 통일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유엔 관리 하에 총선거를 실시할 조치를 취한다. 셋째, 한국의 급속한 부흥을 도모한다. 넷째,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이상으로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섯째, 한국통일과 부흥을 위하여 새로운 유엔 한국위원단을 임명한다"는 등이었다.[10)]

이와 같은 제의에 대하여 영국외상 베빈(Bevin)은 29일 "인위적으로 남북을 분할하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하였다. 다음날 인도수상 네루(Nehru)는 기자회견에서 전날 유엔총회에 상정된 8개국 공동결의안에 대해 논평하기를 "38선을 돌파해서는 안 된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통일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10월 3일에는 애치슨(Acheson) 미 국무장관과 베빈 영 외상에게 서한을 보내 중공의 개입을 경고하는 동시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11)]

한편 8개국 공동결의안에 대응하여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측(우크라이나, 백러시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10월 2일 제안하였다. 그 요지는 "한국에 있는 교전당사자는 즉시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 미국 및 각국은 한국에서 즉시 군대를 철퇴시킬 것, 외국군대가 철퇴한 다음 통일독립된 한국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한국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가능한 조속히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를 구성할 것" 등이었다.[12)]

이와 같은 자유진영측과 공산진영측은 한국문제에 관한 2개 결의안을 놓고 정치적 논쟁을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10월 4일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2개안을 표결

에 부쳐 38선 돌파를 승인하는 8개국 공동결의안이 가결되고, 소련안이 부결되었다. 이에 총회에서도 10월 7일 8개국 안을 47 대 5(기권 7)로 가결함으로써 38선 돌파문제는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유엔총회는 이 결의안에서 통일의 실현을 위한 절차와 방안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13]

1. (a) 전 한국의 안정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b) 한국의 통일, 독립,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유엔의 후원 하에 선거 실시를 포함한 모든 합헌적 조치를 취한다.
   (c) 남북한의 모든 파벌과 주민대표를 평화의 회복, 선거의 실시 그리고 통일정부를 수립함에 있어 유엔의 기구와 협조하도록 초청한다.
   (d) 유엔군은 상기 2개항에 명시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한국의 어느 곳에도 잔류해서는 안된다.
   (e) 한국의 경제부흥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a) 호주,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 터키로써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설치하며, 이는 (1) 현재의 유엔위원단이 행사해 오던 모든 기능을 담당한다. (2) 전 한국이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함에 있어 국제연합을 대표한다. (3) 한국에 있어서의 구호 및 부흥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수행한다.
3.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협의하여 전쟁종결 시에 구호 및 부흥계획을 작성한다.
4. 경제사회이사회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달을 촉진시킬 장기적 대처를 조속히 연구한다.

이것이 이른바 유엔의 '10·7 통한(統韓) 결의'이다. 이것은 9·27훈령과 마찬가지로 역시 힘의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서 미국과 유엔이 군사적으로 우위를 확보한 후 앞선 결의의 연장선에서 유엔의 주도 하에 한국의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 결의안을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 통보하면서 이 결의안이 38도선 북쪽에서의 군사작전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고려한다

고 덧붙였다. 이로써 유엔군은 38도선 돌파와 관련된 군사적 목표인 북한군의 격멸과 정치적 목표인 한국통일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결정과 유엔의 결의를 모두 확정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10월 9일 유엔의 '10·7 통한 결의'를 라디오방송과 전단 등으로 김일성(金日成) 북한군최고사령관에게 알리는 동시에 "무기를 버리고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최후통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은 38선 돌파와 관련된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었다.[14]

2. 국내 정세

북한군은 남한지역 점령 3개월 동안 외부적으로 침략의 죄상을 은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수법으로 무고한 양민들을 학대하는 잔학상을 보였다. 이들은 이미 전투부대와 함께 침입한 치안대로 하여금 점령 지역을 행정 조직화하고 현지 당원과 적색분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인민위원회 조직과 그 활동사업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각 마을과 각 직장의 하부단위까지 세포망을 확대해 놓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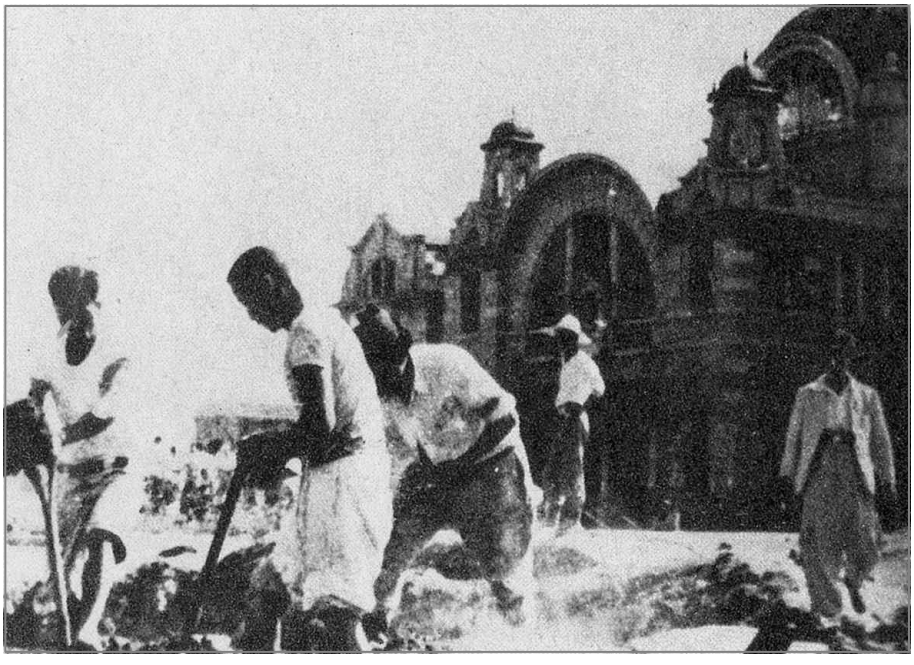
북한군은 전시동원령(戰時動員令)을 선포하여 18~36세까지의 전체 남한 주민을 강제 동원하였다.[15] 이들은 당원과 용공분자들을 핵심으로 하여 안동, 대전, 광주여단 등을 편성하여 그 일부는 전선에 몰아넣었고, 나머지는 이북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또한 소위 반동분자나 비협조자로 30만여 명을 투옥시켰고, 병사, 아사, 행방불명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21만여 명을 납치 또는 학살하였다.[16] 이들은 식량과 가구, 그리고 의류 등의 생필품까지도 약탈하였다.

이러한 악행은 아군의 반격작전 직후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들은 퇴각에 앞서 1950년 9월 20일 전선사령관 김책(金策)의 지령에 의하여 우익인사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17] 이들은 도시를 비롯한 읍·면·리·부락

등지에서 인민위원회의 책임자를 통해 대상자를 집결시켜 처형하였으며, 또 형무소와 내무소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살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살은 낙동강전선에서 점차 북쪽지역으로 연쇄반응을 일으켜 자행되었고 북한 전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들은 저명인사들과 국군 주요 인사들을 북송(北送)시키는 과정에서 낙오자들을 빈번히 총살시켰고, 미군 포로들을 터널 등에 가두어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한편 인천상륙작전과 9·28수복 이후 점차 남한 전 지역이 탈환되고 한국정부의 정상적인 행정이 복구되어가자 이른바 부역자(附逆者) 처단 문제가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부역자란 북한군의 점령 하에 있어서 자진하여 혹은 위협과 강요로 적을 도운 자를 의미하였다. 정부로서는 적에게 점령된 지역을 수복함과 동시에 부역자에 대한 방침을 정하여 민심을 진정시키는 것이 긴급한 과제였다.



북한군의 강제 부역에 동원된 서울 시민들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쟁초기 한강을 건너 피난한 사람들은 도강파(渡江派), 피난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을 비도강파(非渡江派)라 하여, 도강파는 애국자시하고 비도강파는 무조건 역적시하는 갈등을 겪기도 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잔류한 시민들은 정부가 환도할 때 그동안의 실책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등 정책을 쇄신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9월 17일 '부역행위특별심사법안'과 함께 '사형금지법안'을 서둘러 상정하였다.[18] 전자는 부역자의 처벌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었으며, 후자는 개인이나 권력기관이 부역행위를 빙자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민심의 동향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여 사태수습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10월 8일 국회 의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인책사표를 제출한 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부 기관에서는 법을 남용하여 무리하게 처벌함으로써 민심을 크게 동요시켰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국회는 점차 첨예하게 대립하였다.[19]

한편 반격과 북진작전기간 중 군 인사법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국군 임시계급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84호 1950.9.10), 비상향토방위령(非常鄕土防衛令) 중 개정법률(법률 제158호, 1950.9.16),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146호, 1950.9.25) 등의 다양한 법률이 공포되었다.[20]

9월 17일 조병옥(趙炳玉) 내무장관은 각 도·시·군의 행정복구를 앞에 두고 일단계로서 치안유지를 강조하면서 "국군과 국제연합군의 작전방침에 순응하고 관에 협력하여 법과 질서를 준수할 것이며, 법을 초탈하는 복수 행위는 엄중 처단할 것이다. 강압에 의하여 적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관대히 임할 것이며 협력자에 대한 사적 제재는 엄금한다"는 내용의 요지를 발표하였다.[21] 그는 26일에도 재차 치안회복에 관해 국민들의 협력을 공지하였는데, 특히 양곡을 위시한 생활필수품을 매점매석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였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9월 30일 국군이 적을 추격하여 38선 일대에 도달하자,

"유엔군과 우리 국군은 맥아더 장군의 고명한 지휘 하에 후방 700리나 되는 인천에 상륙하였고 공산군이 드디어 함몰의 지경에 이르러 적색제국주의가 전복될 날이 당도하였다. (중략) 정부와 국민은 국군의 영광스러운 공적과 커다란 역량과 빛나는 정의를 믿음으로써 오직 이와 같이 성공한 것이니, 이는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날까지 영구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격려하였다.[22]

이어 이 대통령은 10월 2일에는 국민들에게 질서유지를 강조하여 "전재민 중 가옥파손으로 엄동(嚴冬)을 앞두고 다 같이 살아야 하므로 빈 방들이 있으면 모두 들게 하고, 그 전에 공무원들이 관사로 쓰던 것은 다시 쓰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공무원들 중 민간인에게서 뇌물을 주고받는 자는 엄벌할 것이며, 원조물자나 정부재산이 암시장에 나가는 것을 즉시 경찰에 알려서 범죄자를 다스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10월 20일 평양이 수복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질서안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정 지침을 발표하였다.[23]



이승만 대통령의 이선근 정훈국장 격려

국군이 승승장구 며칠 안에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서 국토를 완전 회복할 것이니 (중략) 극렬분자들은 국법대로 처리될 것이며, 수복된 도에 지사를 임명하였으니 우선 도내의 민심이 정돈되는 대로 각 도민들은 자유분위기 속에서 유엔감시하에 지사 선거를 할 것이며, 그 후에는 국회의원을 인구비례 10만 명에 한사람씩 선거해서 국회의 자리를 채울 것이다.

금년에 추수되는 식량은 이남에서 실시하는 법안에 따라 2~3할은 지세로 정부에 수납하고 기타는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추수 후에는 농지개혁법을 실시하여 농지는 이전농주(農主)에게 돌려주되, 농주는 적당한 가격으로 정부에 팔고 정부는 농민들에게 분배한 후 공정가격으로 값을 갚은 뒤에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밖에 금융, 상공 및 귀속재산은 이남에서 행하여 온 정책과 동일할 것이다. 우리가 합해지면 살고, 나누어지면 쓰러진다는 것이니 남북동포가 서로 협조하는 정신으로 성심껏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 이 대통령은 평양시민대회에 참석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총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당분간 군정(軍政)이 실시될 것이며 그동안 법과 질서를 유지하여 살인이나 방화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24] 그는 이어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여 "한국정부는 10월 7일 채택된 국제연합총회결의에 쫓아서 행동할 것이며, 국제한국통일 및 부흥위원단과 적극 협력할 작정이다. 북한에서 시행할 선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양심에 따라 아무 위협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자유분위기가 생길 때 실시되기를 바란다. 전쟁이 끝난 후 몇 주일이 지나면 사태가 안정될 줄 아는데, 그때 남북을 통하여 각도에 총선거를 시행하되, 도지사를 정부나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할 작정이다. 정부는 새로 도착한 유엔위원단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25] 이 대통령은 거듭 "하루 속히 이북5도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함으로써 현재 국회 안에 100여 석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며, 이를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26]

한편 국회에서는 '후방 잔적소탕을 위한 국군증설 및 무기강화에 관한 국회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27] 그 주요 내용은 "정부 및 유엔군총사령관에게

지리산을 주로 한 호남지구 잔적토벌을 위한 국군 3개 사단 증설과 경찰의 무장을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는 것이었다. 후방공비를 시급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지리산을 주로 한 호남지방을 시찰한 결과 현 상황은 3~4만여 명의 북한군이 전남, 전북, 경남의 3도에 걸쳐 지리산을 근거로 호남 일대에서 활동 중이어서 종전상태라기 보다 마치 지금 개전(開戰)된 듯하다. 국군주둔 후 호남 각지의 경찰지서, 면사무소의 소각을 대부분 종료하고 이제는 부락 가옥소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었다.

국회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제11사단 1개 연대로는 전남북, 경남, 충남북 등 5개 도의 토벌작전은 물론 치안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3개 사단을 증설하는 동시에 향토방위대와 의용경찰, 그리고 대한청년단 등을 무장시켜 조속히 잔적소탕을 위한 방책을 정부와 유엔군총사령관에게 건의하였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자, 낙동강전선의 아군은 여세를 몰아 북진을 결행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한국경찰도 국군과 유엔군의 긴밀한 협조 하에 수복지구 치안확보와 잔적 소탕은 물론 철도 및 주보급로 경비임무에 임하였고 또한 전투임무도 병행하였다.

9월 28일 수도탈환으로 낙동강전선에서 최후 공세를 전개하던 북한군은 지휘계통이 마비되어 무질서하게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으로 퇴로가 차단된 일부의 적과 지방공비들은 인근 산악지대로 도피하였거나, 혹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위장하거나 피난민 속에 잠입하여 소도시와 산간마을을 기습하였다. 이들은 경찰의 토벌작전에 대응하면서 우익인사 학살, 철도 및 주보급로에 대한 기습과 파괴를 기도하였으며, 공산당원과 공산부역자의 수뇌들은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당을 조직하기도 했다.

북한군의 지도체제는 와해되었으나 9월 30일부터 전국 경찰국장들로부터 비상경비총사령부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적의 병력은 북한군 패잔병과 지방공비 중 완전무장 병력이 아직도 56,432명이나 되고 비무장병력이 4,000여 명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다.[28]

한편 북한군 제10사단은 철의 삼각지 주변 산악지대에 잠복하여 철도와 아군

의 주보급로와 소도시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었고, 그밖에 지리산, 덕유산, 태백산 지구에서 준동하고 있던 패잔병들은 일부가 국립경찰의 귀순공작에 점차적으로 호응하고 일부가 소극적인 게릴라로서 준동을 계속하였다.

당시 남로당계 빨치산의 주요 지도자였던 이현상이 소위 '남반부인민유격대총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임명받고 낙동강전선의 붕괴이후 남부군단을 거느리고 이천까지 후퇴하였다. 10월 하순 김일성으로부터 "남한에 있는 빨치산을 총지휘하여 교란작전을 단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시 남하하여 태백산-속리산-덕유산-회문산-지리산-모후산-황매산 등지에서 후방을 교란하고 있었다.[29]

특히 지방공비들은 도당, 군당, 무장빨치산부대로 개편하여 훈련하였으며, 당기관은 지하당을 조직하고 무장부대는 아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교란작전을 전개하였고 보급투쟁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 같은 적의 활동은 10월 하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적의 활동 중에 특기할만한 것은 지방공비 대부분은 자기 출신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내의 기상, 지형, 민심, 풍습, 언어, 혈연 등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북한군 패잔병들보다는 유리한 입장이었다. 도당, 혹은 군당의 지도자들은 모두 철저한 공산주의자들로서 조직 활동에도 능하였으며,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분 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호남과 영남에서의 공비들의 작폐는 전체 작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피난민을 가장하여 잠입한 공산주의자와 공비들은 혼란한 치안상태를 이용하여 후방교란과 잔학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들의 잔학행위는 군경출신이나 그 가족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전국에 걸쳐 자행되고 있었다.[30]

제 2 절 전선 상황

1. 북한군 상황

1950년 9월 초 북한군은 낙동강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제5차 작전을 감행하였으나, 각 지역의 전투에서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들은 승리의 전망이 극히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의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혹독한 독전 하에 최후 공격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북한군은 제5차 공격작전에서 공격집단이 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한 다음, 포항(浦港)-안강(安康)-영천(永川)-다부동(多富洞)-왜관(倭館)-현풍(玄風)-창녕(昌寧)-영산(靈山) 등지를 점령하고, 이어 경주(慶州)-대구(大邱) 및 밀양(密陽)을 향하여 공세를 계속 확대하고자 하였는데, 이미 공격의 예봉은 꺾이고 전투능력마저 상실되었다.

<표 2-1> 1950년 9월 북한군 예·배속부대[31]

직 책		계급	성 명	예속 및 배속 부대
전선 사령부	사 령 관	대장	김 책(金 策)	제1·제2군단·제105전차사단·독립전차연대
	참 모 장	중장	강 건(姜 健)	
제 1 군단	군 단 장	중장	김 웅(金 雄)	
	제2사단장	소장	최 현(崔 賢)	제4(대좌 이승호)·제6(?)·제17(대좌 김관대)·포병연대(?)
	제3사단장	소장	이영호(李英鎬)	제7(대좌 김창봉)·제8(대좌 김정동)·제9(대좌 김만익)·포병연대(대좌 안백성)
	제4사단장	소장	이권무(李權武)	제5(대좌 최인덕)·제16(?)·제18연대(?)
	제6사단장	소장	방호산(方虎山)	제1(대좌 김후진)·제13(대좌 한일래)·제15(대좌 김현기)·포병연대(중좌 박해민)
	제10사단장	소장	?	

직 책		계급	성 명	예속 및 배속 부대
제 2 군단	군 단 장	소장	김무정(金茂亭)	
	제1사단장	소장	김광협	제2(대좌 김양춘)・제3(대좌 이창권)・제14(대좌 황석)・포병연대(대좌 현학봉)
	제5사단장	소장	김창덕(金昌德)	제10(대좌 박정덕)・제11(대좌 김봉문)・제12(대좌 왕휘)
	제8사단장	소장	오백룡(吳白龍)	제81(총좌 이영래)・제82(총좌 사세)・제83(중좌 오충섭)・포병연대(중좌 김명항)
	제12사단장	소장	최춘국(崔春國)	제30(대좌 최학훈)・제31(대좌 이성진)・제32(대좌 황동화)・포병연대(대좌 마동결)
		소장	최 인(崔 仁)	
	제13사단장	소장	최용진(崔鏞鎭)	제19(대좌 김승국)・제21(대좌 이승준)・제23(대좌 태병열)・포병연대(중좌 정봉욱)
	제15사단장	소장	박성철(朴成哲)	제45(대좌 이철룡)・제48(대좌 김치규)・제50(대좌 이을설)・포병연대(대좌 김연섭)
예비	제7사단장	소장	이익성(李益成)	제51(대좌 강치복)・제52연대(대좌 한일해)
	제9사단장	소장	박효삼(朴孝三)	제85(?)・제86(?)・제87(?)・포병연대(?)
지원 부대	제105전차 사단장	소장	유경수(柳京洙)	?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북한군은 피아의 상황을 왜곡 판단하여 목전에 있는 경주-대구를 점령하고 마지막 목표인 부산에 이르자면 새로운 증원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조치로 9월 13일 경인지구 방어부대인 제18사단과 제87연대, 그리고 독립 제849반전차포연대를 낙동강전선으로 급히 전환하도록 하여 대구북방에 집중적으로 전투력을 보강하였다.[32]

이와 같은 적의 작전지도는 최후 총공세를 위한 결론이었지만 지극히 현실을 무시한 것이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단순히 경주와 대구북방의 전선 돌파에만 급급하여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9월 15일 미명 유엔군이 인천 월미도에 기습상륙을 감행하자, 낙동강전선으로 남진하고 있던 선두부대가 이미 김천에 이르고 있었으나, 수일전의 결정을 변경하여 다시 이들 부대에 대하여 반전 명령을 내리는 등 작전지도면에서 일관성 없는 혼란상을 노출하고 있었다.

<표 2-2> 1950년 9월 북한군의 편성 및 병력상황

구 분	공격 집단	전투 편성	공격 축선
제1군단 (마산-왜관)	• 제1공격집단	• 제6・제7사단 • 제104치안연대	• 마산-김해-부산 축선
	• 제2공격집단	• 제2・제4・제9・ 제10사단	• 영산-밀양-부산 축선
	• 배속 부대	• 제105전차사단(-) • 제16기갑여단	
제2군단 (왜관-포항)	• 제3공격집단	• 제1・제3・ 제13사단	• 왜관/다부동-대구 축선
	• 제4공격집단	• 제8・제15사단	• 영천-대구/경주 축선
	• 제5공격집단	• 제5・제12사단	• 안강/포항-부산 축선
	• 배속 부대	• 제105전차사단(-) • 제17기갑여단	

부대 명칭	병 력	부대 명칭	병 력
제1사단	5,000명	제10사단	7,500명
제2사단	6,000명	제12사단	5,000명
제3사단	7,000명	제13사단	9,000명
제4사단	5,500명	제15사단	7,000명
제5사단	7,000명	제104치안여단	2,000명
제6사단	10,000명	제105전차사단	1,000명
제7사단	9,000명	제16기갑여단	500명
제8사단	6,500명	제17기갑여단	500명
제9사단	9,350명		
합 계	97,850명		

북한군 지휘부는 유엔군이 인천에서 서울로 신속하게 진격을 감행하자, 우선 서울 지구의 방어력을 강화하면서 아군이 원주와 수원방면으로 진출할 것을 예측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낙동강전선의 각 군단에 대하여는 유리한 진지를 확보하여 방어선을 계속 고수하도록 독전하였다. 한편 이들은 일부의 병력을 후방으로 추출하여 금강이북의 자연 장애물에서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양 전선에서 서로 제휴하면서 아군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했다.

<표 2-3> 1950년 9월 초 경인지역 북한군 부대

서울지구방어사령부 · 제18사단 · 독립 제25여단 · 제9사단 제87연대 · 독립 제849전차연대 · 제226독립해병연대 · 제22연대 · 제226연대 · 제107연대 · 제877항공연대 · 독립 제78연대 등

이와 같은 작전방침에 따라 이미 반전시킨 경인지구 방어부대 외에 또 다시 철원에서 새로 편성을 끝낸 독립 제78연대를 경인지구에 증원하였고, 그래도 불안해서인지 낙동강전선의 제105전차사단 예하부대를 서울지구로 급히 북상하도록 조치하였다.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일거에 역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전선 공격부대에 대하여 인천상륙 사실을 감추고 계속 낙동강전선을 유지 또는 돌파하고자 기도하였다. 그들은 9월 16일부터 전 전선에서 한미 양군의 반격을 받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격심한 전력 격차 앞에는 혹독한 독전도 별반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8일에는 드디어 전선에 균열이 생겨 서서히 붕괴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부동 북방에서 국군 제1사단이 북한군 제1, 제13사단 진지를 돌파한 후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무너지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김일성은 마침내 낙동강의 주공전선을 금강선과 소백산맥선으로 철수시켜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전선사령관 김책은 우선 제2군단장 김무정에게 낙동강방어선을 확보하도록 강조하였다. 특히 제1군단으로 하여금 먼저 금강선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 축이 되는 왜관지구를 사수할 것을 엄명하였다. 그리고 제1군단장 김웅에게는 남쪽에 있는 부대부터 먼저 후퇴시킨 후 축차적으로 북쪽 부대들을 반전시켜 지정한 금강선을 점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적은 9월 18일 야간 마산 서측의 북한군 제6사단이 후퇴를 시작하여 진주로 향하였으나 19일 제1군단의 기동축인 왜관지역의 적 제3사단 전선이 붕괴되었고, 20일에는 다부동과 포항 등이 한국군의 수중으로 들어감으로써 제2군단 전선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더구나 21일 전 전선에는 인천상륙의 소식이 전달

됨으로써 병사들의 전의는 급격하게 상실되어 독전대나 상부지시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

2) 아군 상황

유엔군사령관 명의의 인천상륙작전 작전명령이 하달되자, 한국군과 미 제8군도 본격적으로 반격준비를 개시하였다. 아군은 작전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제에 봉착하였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 병력부족 문제였다. 공세에 있어서는 새로운 병력을 증원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증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미 제1해병여단과 한국군 제17연대 및 해병대가 낙동강전선에서 차출되어 더욱 병력부족의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표 2-4> 1950년 9월 초 미군과 한군군 전투편성 현황

제대별 지휘관	계급	성 명	예속 및 배속부대
제8군사령관	중장	워커 (Walton H. Walker)	한국군・미군・유엔군 제2군수지원사령부・주한미군사고문단
제1기병사단장	소장	게이 (Hobart R. Gay)	제5기병연대・제7기병연대・제8기병연대・제61포병대대・제77포병대대・제99포병대대・제82포병대대
제2사단장	소장	카이저 (Laurence B. Keiser)	제9연대・제23연대・제38연대・제15포병대대・제37포병대대・제38포병대대
제24사단장	소장	딘 (William F. Dean)	제19연대・제21연대・제34연대・제13포병대대・제52포병대대
	소장	처치(1950.7.21부) (John H. Church)	
제25사단장	소장	킨 (William B. Kean)	제24연대・제27연대・제35연대・제8포병대대・제64포병대대・제90포병대대 * 배속 부대 제5연대전투단(1950.8.3~9.9) 제29연대 1・3대대(50.8.4~9.4)

직 책		계급	성 명	예속 및 배속 부대
육군총참모장		소장	정일권(丁一權)	제1군단・제2군단・육본직할부대
제1군단	군단장	소장	김홍일(金弘一)	수도사단・제8사단
		준장	김백일(金白一)	수도사단・제8사단
	수도사단장	준장	김석원(金錫源)	제1・제18・기갑연대
		대령	백인엽(白仁燁)	제1・제17・제18・기갑연대
		대령	송요찬(宋堯讚)	제1・제17・제18・기갑연대
	제8사단장	대령	이성가(李成佳)	제10・제16・제21연대・포병대대
		대령	최덕신(崔德신)	
		준장	이성가	
제2군단	군단장	준장	유재흥(劉載興)	제1사단・제6사단
	제1사단장	준장	백선엽(白善燁)	제11・제12・제15연대・포병대대 * 증원/배속부대 : 미 제23・제27연대, 국군 제10연대
	제6사단장	준장	김종오(金鐘五)	제2연대・제7연대・제19연대・포병대대
육본직할	제3사단장	준장	이준식(李俊植)	제22・제23・기갑연대
		준장	김석원	제22・제23・제26연대
		대령	이종찬(李鍾贊)	제22・제23・기갑연대
특수임무부대	포항지구 전투사령부	대령	이성가	제17・제26연대・민부대・해병육전대
	대구방위 사령부	대령	이한림(李翰林)	경찰병력, 청년방위대, 후방부대 병력
		대령	송요찬	경찰병력, 청년방위대, 후방부대 병력
		경무관	조준영	경찰병력
		대령	민기식(閔機植)	경찰병력, 군 후방병력

아울러 미 군단의 재편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반격작전에 있어서 미 제8군이 한국군만이 아니라 미군 4개 사단을 동시에 지휘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8월 초 이미 2개 사단 단위로 제1군단과 제9군단을 편성하였으나, 지휘관, 참모, 통신 등의 준비 관계로 아직 발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33] 때문에 반격이 시작될 무렵에는 제1군단만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제9군단은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워커 중장은 우선 제1군단을 주공의 공격군단으로 삼고, 9월 10일 제1군단장에 밀번 소장을, 제9군단장에는 쿨터 소장을 각각 임명하였다. 이와 같이 군단장을 임명한 이유는 미 제1군단장 밀번 소장이 그의 전력으로 보아 공세작전에는 쿨터 소장보다 더 적극성이 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34] 공세를 앞둔 9월 중순 피아의 병력 및 장비의 비교는 <표 2-5>와 같이 판단되었다.

특히 적 병력 9만 7천여 명 가운데 1개 사단이 평균 5,000명 정도였으며, 각 사단 병력 가운데 70%는 점령지에서 강제 동원한 의용군들이었다. 이들은 전선에 투입되기 전 1~2주간의 도수훈련 정도를 받은 신병들이었다. 이들의 사기는 극도로 낮은 편이었으며 그 가장 큰 원인은 식량부족이었다. 이 무렵 북한군은 1일간 잡곡으로 된 주먹밥 한 덩어리가 보급되는 정도였다.

더구나 북한군 내에는 미 공군의 폭격과 기총소사로 말미암아 전장공포증이 만연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주야로 휴식 없이 독전대의 총부리 밑에서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틈만 생기면 전선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 사령부는 낙동강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마지막 독전을 재촉하고 있었다. 당시 미 제8군의 정보부서는 적의 전력과 작전기도 등 적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 제8군은 적의 병력을 과대평가하여 10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사기도 현재 접적 중인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전의가 오히려 왕성하다고 오판하고 있었다.

적이 부산까지 점령하겠다는 의지로 결사적인 공격을 계속 감행하는 이상, 아군이 적의 전선을 쉽게 돌파한다는 것은 당시 전력으로 미루어 보아 결코 쉬운

<표 2-5> 1950년 9월 초 피아 병력 및 장비 비교

구 분	병 력	포	전 차	항공기
한·미·영군	157,000	400	600	1,200
북한군	97,850	100	60	
비 율	1.5 : 1	4 : 1	10 : 1	1,200 : 0

일이 아니었다. 미 제8군은 일부병력이 인천으로 차출된 가운데 아군 전선을 지탱하면서 반격작전으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출혈이 예상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워커 장군은 아군이 동시 반격으로 전환하여 전선을 돌파한 다음, 북상하여 미 제10군단과 연결하고 또 적의 주력을 포착 격멸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미 제8군은 장비와 탄약도 상당수 부족한 실정이었다. 적의 전선을 돌파하여 퇴각하는 적을 추격, 섬멸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을 비롯하여 각종 장비들이 필요하였으나, 상당부분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미 제8군은 도하용 부교자재를 2조밖에 확보하지 못하였고, 수송차량에 있어서도 상당수 부족하였다. 한국군은 연대의 보유차량이 20여 대에 불과하여 겨우 보급품과 탄약을 수송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군은 개전초기에 보유하고 있던 27대의 장갑차량 중 불과 1대만이 남아있었다. 따라서 수송력의 부족은 추격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아군은 8월 중에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포탄을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하다시피 하여 일본의 비축량마저 모두 사용함으로써 반격에 있어서는 사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돌파작전에 있어 전면적인 동시공격은 곤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9월 초 북한군은 전면공세를 통해 포항-안강-영천-가산-유학산-왜관-현풍-창녕-영산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는데, 아군은 겨우 창녕과 영산만을 회복하였을 뿐이었다. 더구나 대구 정면에 대한 적의 압박은 여전히 강한 편이었고, 동해안 방면에서도 적이 경주를 점령하고자 공격을 계속함으로써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다.[35]

물론 미 제8군사령부는 미 제10군단이 인천상륙작전으로 제2전선을 형성하면 적이 낙동강전선에서 일부병력을 차출하여 경인지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만 적은 여전히 낙동강전선을 유지하면서 부산으로 공격을 계속할 전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당시 미 제8군이 9월 초에 수립한 공세이전 계획에 의하

면, 공세이전 일시는 9월 16일 09:00시, 공세선은 현재 접촉선으로 각각 정해졌다. 또 공세방향은 제1안이 대구-대전-수원선, 제2안이 마산-진주-전주-대전-수원선, 제3안이 대구-문경-충주-수원선, 제4안이 제1안~3안 중 수개 경로를 동시에 돌파하는 안 등을 설정해 놓고 있었다.

공세방향은 최종적으로 제1안이 선정되었다. 그 이유는 미 제8군이 공세이전을 단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은 현재의 방어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대구의 확보는 필수적인 선행조건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을 확보한 연후에 공세로 이전한다면 기동력의 발휘와 병참지원의 용이성 등의 면에서 미 제10군단과의 연결을 다른 방향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미 제8군의 반격계획은 9월 7일 동경사령부의 인가를 받아 15일 미 제8군 작전명령으로 하달되었다. 즉 "제8군은 현 접촉선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9월 16일 09:00시 주공을 대구-김천-대전-수원을 연하는 축선을 따라 공세로 이전한 다음, 축선상의 적을 격멸하는 동시에 신속히 제10군단과 연결한다"는 것이었고, 각 군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36]

"미 제1군단은 군의 주공이 되어 다음과 같이 돌파를 담당한다. 제1기병사단 및 제5연대전투단은 당면한 적을 격파하여 왜관 대안에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24사단으로 하여금 왜관 하류에서, 그리고 한국군 제1사단으로 하여금 그 상류에서 각각 보조 도하를 감행하도록 한다. 교두보를 확보하면 제24사단은 김천을 거쳐 대전으로 공격한다. 이때 제1기병사단은 제24사단의 후방을 엄호하면서 보급로의 경비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2사단과 제25사단 그리고 한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은 각기 당면의 적을 공격하여 적을 전선에 교착시키고, 상황에 따라 국부적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면 이를 확대하여 주공정면의 공세를 용이토록 한다. 특히 제2사단은 미 제1군단의 도하작전을 용이하도록 보조 도하를 실시하라. 돌파가 완성되면 군은 신속하게 제10군단과 제휴하는 동시에 38선으로 추격을 계속하여 남한에 침공한 적을 격멸한다. 이를 위해 추격방향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예정한다.

미 제1군단은 김천-대전-수원가도를 따라 추격하여 신속하게 제10군단과 연

결하는 동시에 적 제1군단의 퇴로를 차단하고 미 제2, 제25사단은 지리산 부근을 거쳐 금강 하류선을 향해 추격한다. 한국군 제2군단(제6, 제7, 제8사단)은 원주를 거쳐 춘천을 향해 추격하고 제1군단(수도, 제3사단)은 동해안선을 따라 38선을 향해 추격한다"는 것이었다.[37]

한편 기간 중 유엔이 회원국들의 참전을 적극 권고하였고 이에 유엔회원국들이 호응하여 참전하였다. 이 시기 각 국가별 참전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월 19일 필리핀군의 제10대대전투단 1,367명이 부산에 도착,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대구-김천간의 보급로를 경비하다가 11월 1일 평양방면으로 이동하였다. 9월 27일에는 호주군 연대 제3대대가 부산에 도착하여 10월 1일에 영 제27여단에 배속되었으며, 그 뒤에 청천강선에서 정거동으로 북진하는 여단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10월 7일 태국군 대대의 주력이 부산에 상륙하여 11월 28일에 평양으로 진출하였으며, 10월 17일 터키여단 주력이 부산에 상륙하여 미 제9군단에 배속된 다음, 대구-대전간의 주보급로를 경비하다가 11월 26일 군우리로 진출하였다. 또 10월 23일 네덜란드 대대가 부산에 상륙하여 대구로 이동한 다음 정비훈련을 하면서 전선투입에 대비하였다.

이와 같이 기간 중 유엔 참전군의 지상부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태국, 호주, 필리핀, 네덜란드 등 9개국이, 해군부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7개국이, 공군부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공화국 등 4개국이 각각 참전하였다.

제 3 절 유엔군의 전쟁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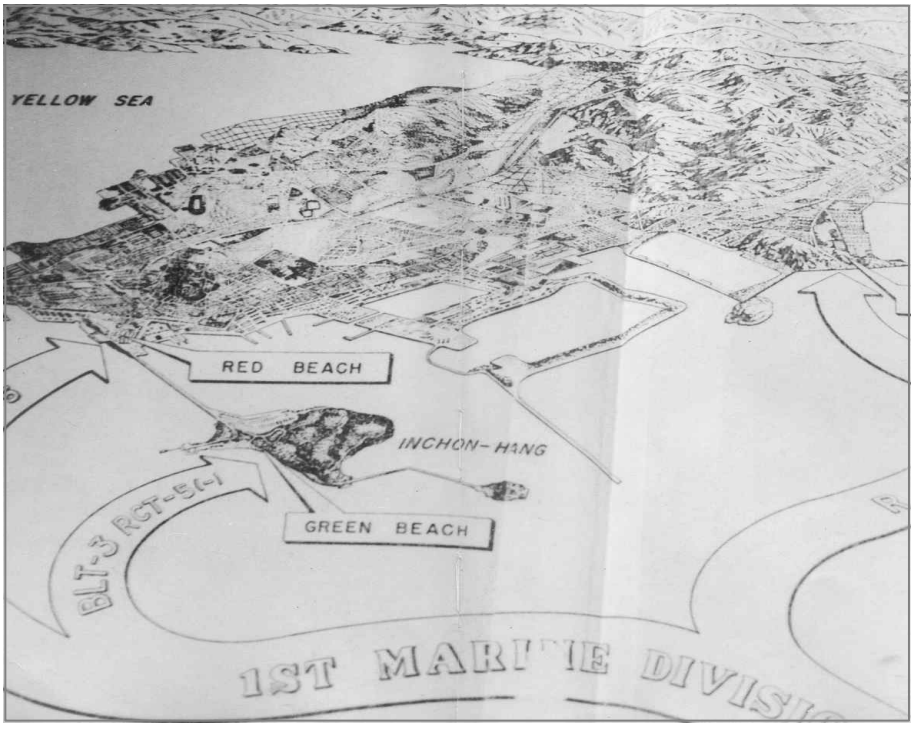
1. 유엔군사령관의 작전구상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낙동강전선에서 총공세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6·25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을 일거에 포위 격멸한다는 전략목표 하에 전쟁초기부터 비밀리에 추진해 온 인천상륙작전을 단행하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은 남침이 발발한 지 불과 1주일만인 1950년 7월 초부터 검토되었다. 즉,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그의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에게 "서울의 적 병참선 중심부를 타격하기 위한 상륙작전계획을 고려하고 상륙지점을 연구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38]

이 계획은 작전참모부장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이 이끄는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JSPOG)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블루하트(Blue Hearts)'라는 암호 명칭이 부여되었다.[39] 상륙작전의 대략적인 개념은, 남부전선에서는 미 제24·제25사단이 정면에서 반격을 가하고, 이와 병행해서 해병연대 전투단과 육군부대가 돌격부대로 인천에 상륙하여 내륙으로 진출, 서울을 포위함으로써 적을 38도선 이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7월 4일 맥아더 장군 참석 하에 상륙작전에 관한 첫 작전회의에서, 공격부대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미 승인 받은 해병 1개 연대전투단 외에 주일 미 제1기병사단으로 결정하였고, 상륙일자는 합동작전의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7월 22일로 정하였다. 이리하여 미 해병기지에서는 7월 7일 제1해병사단 예하 제5해병연대를 주축으로 제1임시해병여단을 창설하고 제1기병사단이 훈련에 들어가는 등 지상군의 상륙준비가 진행되었다.



크로마이트작전 계획서(맥아더기념관 소장)

그러나 블루하트 계획은 7월 10일 무렵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전선 방어부대들이 적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상륙작전보다는 현 전선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급박하였기 때문에 상륙부대로 예정된 미 제1기병사단을 방어전선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40]

북한군의 신속한 전진으로 블루하트 계획은 일단 취소되었지만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집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선 상황이 악화될수록 적의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상륙지역으로 인천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를 재개하게 된 합동전략기획작전단은 인천, 군산, 해주, 진남포, 원산, 주문진 등 해안지역을 상륙 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크로마이트(Chro-

mite)라는 이름 아래 인천상륙계획(100-B), 군산상륙계획(100-C), 주문진상륙계획(100-D) 등 3개 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을 7월 23일 미 극동군사령부의 관계참모부에 회람하였다.[41] 이중에서 인천을 상륙지역으로 하는 계획이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계획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이동 중인 미 제1임시해병여단과 미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미 제2보병사단을 상륙공격부대로 운용하고, 이들 부대의 상륙과 동시에 지상군이 남에서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작전개념으로 되어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같은 날인 7월 23일에, 9월 중순 계획대로 상륙작전을 실시하겠다고 미 육군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8월 초, 인민군의 공세로 낙동강방어선의 서측이 붕괴직전에 이르자 상륙부대로 지정한 2개 부대가 도착과 동시에 낙동강전선에 투입됨으로써 상륙작전 계획의 실현은 다시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합동전략기획작전단은 미 제1해병사단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일본에 남아 있는 마지막 사단인 미 제7보병사단을 가용부대로 하여 작전계획 100-B(인천상륙)를 완성하였고, 그 내용을 8월 18일 예하 및 관련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상륙작전의 기본개념과 동일하지만 미 제1해병사단이 돌격상륙부대로, 인천-서울을 목표지역으로 결정하고 상륙부대와 낙동강전선의 미 제8군과의 협조된 작전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만 이 계획은 후속상륙부대가 명시되지 않은 채 미 극동군사령부 예비 병력이라고만 언급되었으며 잠정 상륙일을 9월 15일로 결정하였다.

곧이어 맥아더 장군은 계획된 상륙작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러프너(Ruffnur) 소장 주도 아래 특별계획참모단본부(Headquarters Group of the Special Planning Staff)라는 새로운 참모진을 구성하였다. 이 기구는 크로마이트 작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미 극동군사령부의 훈령을 작성, 하달하기 위한 작업을 전담하였으며, 후일 미 제10군단사령부 창설시 핵심 참모요원이 되었다.[42]

2. 유엔군의 북한 군정

1) 북한 군정 결정과정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미 워싱톤 당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81/1에 의거하여 소위 '9·27훈령'을 맥아더 장군에게 하달함으로써 '북진과 북한군의 격멸'이라는 유엔군의 군사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의 등장으로 유엔안보리를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지자, 영국으로 하여금 유엔총회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결의안을 얻어내도록 하였다.[43] 이에 영국과 기타 7개국은 9월 30일 한국문제에 관한 8개국 공동제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 이 8개국 공동제안은 10월 7일 유엔총회를 찬성 47, 반대 5, 기권 7로 통과하였다.[44]

또한 이 결의안에서는 영국 이외 호주,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터키 등 7개국으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이전의 유엔한국위원단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위원단은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유엔소총회를 구성하고, 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하여 한국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권한 또한 부여받았으며,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전쟁 종결후의 구호와 부흥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여 이 결의안이 채택된 후 3주 이내에 이 내용을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결의안에 따라 구성된 유엔소총회는 10월 12일 회의를 개최하고 호주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즉, 첫째, 대한민국의 권리를 38선 이남으로 제한하고, 둘째, 맥아더 장군은 수복된 이북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하며, 셋째, 이러한 조치는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유엔한국통일부흥단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등이었다.

이 결의안은 통일정부를 위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서 주권 및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맥아더 장군이 북한에서 군정을 실시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으나, 결국에는 한국정부의 북한군정 개입 금지조치가 결정되었다.

10월 7일의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반면, 10월 12일의 유엔소총회의 결의는 유엔이 독자적으로 북한군정을 실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는 중공과 소련의 전쟁 개입으로 인한 확전을 우려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의지가 담겨있었지만, 이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0월 7일의 총회결의에 따라 종전 후의 한국재건 및 부흥에 관한 회의를 10월 12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유엔사무총장 리의 개인 대표인 카진 대령의 현지 시찰보고가 있었다.[45] 이 이사회는 17일 회의를 속개하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재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재건위원회는 총 7개국으로 구성되며, 구제에 필요한 한도를 결정하거나 각국의 기여물품을 입수하고, 원조물자의 구입, 수송, 분배 및 이에 대한 이용을 감독,



유엔의 물자 지원

그리고 구제물품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해 한국정부의 자문에 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46]

한편 미국정부는 10월 9일 미 경제협조처(ECA)가 최대한 한국 경제자립을 위한 경제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즉 경제협조처가 구제, 원조에 관한 재정적 책임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을 통해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소련이나 중공의 개입으로 인한 확전을 방지하고,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에 의한 정부구성이라는 유엔총회의 일관된 결의로 인하여, 38선 이북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47] 이들은 38선을 돌파하여 북한군을 괴멸시킨다는 군사적 목표에 대한 정치적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영국을 통해 유엔총회에서 10월 7일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 따라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북한에 대한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2) 유엔군의 북한 군정 실시

미국은 확전으로 인한 세계대전을 방지하면서 군사적 및 정치적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군사적 목표는 북한군을 섬멸한다는 것이었으며, 정치적 목표는 한반도에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목표는 10월 7일 유엔총회의 통한 결의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군이 북한에서 군정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 소총회는 10월 12일 결의를 통해 한국정부의 주권이나 통치권이 남한으로 한정된다고 결의하였고. 이로써 한국정부는 북한에서의 군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앞서 결정된 9·27훈령에서는 38선 이북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중략) 38선 이북까지 확장하는 정치

적 문제는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하려는 유엔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48]

미 국무부는 유엔군사령관에게 북한을 점령할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과 이를 협의하여 이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국무장관은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현재 한국에 있는 유엔한국위원단이 참모진과 장비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북한을 점령할 경우 당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북한을 점령할 경우 당면하게 될 세 가지 문제, 즉 원조와 재건, 정치적 통합, 그리고 안정 등의 문제를 다룰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받았다.[49]

국무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유엔에서 채택할 결의안을 작성한 후 우방 회원국들과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이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영국 등 8개국이 공동 결의안을 지지함으로써 유엔총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한편 미 합참은 북한군에게 항복을 촉구하는 국무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북한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맥아더에게 보냈고, 맥아더는 이를 기초로 하여 항복권유 방송을 내보냈다. 맥아더 장군은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것을 예상하여 참모들로 하여금 북한에서의 군사적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북한에서의 작전개요를 합참에 보고하였다. 마셜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이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합참은 이를 맥아더 장군에게 최종 승인내용을 통보하였다.

미 육군부는 북한 점령정책을 구상하여 이를 극동군사령부에 보냈다. 이것에 의하면, 점령의 목적은 북한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인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들은 자신이 해결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었고, 점령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제1단계에서는 군사적 활동이 강조되고, 제2단계에서는 치안유지, 전재(戰災) 구호활동, 법과 질서 확립에 치중하며, 제3단계에서는 국가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이었다.[50]

맥아더 장군은 이러한 지침에 기초하여 작성된 북한 군정계획인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2호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군정에 대한 지침은 육군부 구상을 기초로 작전명령 제2호 부록 I 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하달되었다.

미 제8군은 이를 기초로 하여 10월 9일 북한에서의 행정명령 제26A호를 하달하게 되었다.[51] 즉, 유엔군은 통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북한 당국이나 유엔군이 임명하는 현지 민간인을 통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미 제8군사령관과 미 제10군단장은 군사위원회와 군사법정을 포함하여 점령 법정을 설치 및 유지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 등이었다.

또한 이 명령서에는 유엔군이 보복을 하는 군대라기보다는 해방시키는 군대의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유엔군은 점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해야만 하였다. 이들은 한반도의 일부지역에 대한 유엔군의 점령이 일시적이거나 침략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불가피하게 전쟁에서 피해를 본 한국인들의 보복을 방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군정계획 하에 미 제8군과 제10군단은 북한을 동북부와 서북부로 나누어 미 제8군이 서북부를, 그리고 미 제10군단이 동북부를 각각 점령하게 되었다. 서북부 지역인 황해도 및 평안남북도에서는 미 제8군의 예하부대가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인 군정이 시작되었다. 동북부 지역인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서는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원산을 점령한 10월 10일부터 국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으나, 10월 26일부터는 미 제10군단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유엔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자생적인 치안대가 구성되었다. 이들은 주로 한청, 서청, 기독청년회 소속이었거나 반공사상이 투철한 인사로 구성되어 주로 적색분자들을 색출하고 공공시설을 보호하면서 치안유지에 주력하였다. 예를 들면, 평양 시내의 1개 동에는 약 10여 명으로 구성된 1개 치안대가 있었는데, 이들 치안대들은 유엔군의 진주 후 군정에 흡수되었다.[52]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는 미 제1군단 민사참모가 중심이 되어 군정이 실시되었다. 10월 21일, 미 제1군단은 평양에 군정기구를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하기 시

작하였다. 그 후 유엔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속속 이러한 군정기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현지의 유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덕망 있는 인사들을 행정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53]

당시 국군은 미 제8군의 작전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고, 우리 정부가 임명하여 파견한 요원들 또한 이러한 군정기구에 흡수되어 군정을 지원하거나 남한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동북부 지역에서는 국군이 미 제10군단보다 약 보름 앞서서 북진하였기 때문에 국군 제1군단 민사처가 중심이 되어 군정이 실시되었다. 민사처는 임시 행정지침인 북한 시정요강(施政要綱)을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대민행정을 실시하였다.[54] 민사처는 이 요강을 근거로 하여 치안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양곡, 비료 등 공산치하의 물자들을 주민에게 분배하였고, 파괴된 전기나 수도시설 등의 복구에도 진력하였다.

10월 22일 함흥으로 이동한 국군 제1군단 민사처는 수복지역의 행정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함남자치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도지사에 해당되는 위원장에는 이귀하를 선출하였다. 이 위원회는 예하에 조사, 상공, 농림, 문교, 보사, 경찰, 건설, 재무 등 8개의 부를 두었고, 각 부 밑에는 과와 계가 있어 완전한 행정기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55]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 대표와 유엔군사령부 공중보건 및 복지과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긴급구조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민간구조 소요량을 조사하고 있다고 국방부에 통보하였다.[56] 유엔군은 북한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수두, 발진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에서는 12,000명의 현지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유엔사령부는 11월 17일에는 38선 이북의 도시들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적절한 인물들을 지명하여 민간정부들을 재구축하고 있고, 임시 지명된 민간 관료들은 유엔군사령부 민간지원팀들의 감독과 지침 하에서 민간행정 및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유엔회원국의 구호품이 절실하다고 통보하였다.

이와 같이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전재민의 범위와 구호품의 소

요 등을 파악하고 질병예방에 노력하였으며, 군정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지의 저명인사를 선발하여 현지 민간당국을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려고 힘썼다. 이처럼 유엔군사령부의 북한 점령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맥아더 장군은 태평양 웨이크(Wake)도에서 열린 트루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군사정세를 요약하면서, "나는 북한과 남한전역에서 적의 조직적인 저항이 추수감사절까지는 종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하고, 평양이 점령되면 나머지 적군은 포위되고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어 그는 "크리스마스까지 미 제8군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미 제2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일부 유엔군 부대를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남겨 둘 것을 제안하였으나,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가 가능한 한 빨리 실시된 이후 점령군이 철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57]

그 후 미 합참은 미군의 재배치를 계획하면서 극동군사령관에게 미 제2사단과 제3사단을 극동에서 가능한 빨리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58] 따라서 10월 말까지만 해도 맥아더 장군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위정책당국도 전쟁을 크게 낙관하고 있었고, 최소한 1951년 4월 말까지는 북한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한반도에 통일정부가 수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내각, 국회 등에서 이 소총회의 결의를 수용할 수 없으며 위원단에도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유엔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11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를 통하여 그동안 유엔의 참전 및 지원에 대한 은혜에 거슬리지 않기 위하여 이 결의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위원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단이 중국군 참전한 이후인 11월 말경에서야 한국에 도착하게 됨으로써 통일정부 수립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제 4 절 정부의 전시 조치

1. 정부의 북한 점령정책

1) 유엔군과의 정책 협의

유엔군의 북진으로 북한에서의 점령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통치 방안과 통치 주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영토도 대한민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점령의 통치주체가 당연히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유엔군은 유엔의 결정에 따라 유엔군이 군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이 오랜 역사를 가진 독립 국가이고 주권국가이므로 국가의 운명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총선이 전 한국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한국정부를 탄생시킨 것으로 해석하였고, 유엔과 우방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인정을 받았으므로 북한에 대한 통치권 행사는 당연한 주권국가로서의 권리행사로 판단하였다.

국회에는 북한의 대표를 위해 100석의 의석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북한의 도지사들을 임명해 놓고 있었다.[59] 따라서 북한의 점령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재빨리 북한의 행정체계를 조직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조병옥(趙炳玉) 내무장관은 10월 12일 북한에 대한 시정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북한에 파견할 각종 행정관들을 임명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치안확보에 필요한 경찰관들을 비롯한 각종 행정관들을 군대의 진격에 뒤이어 속속 북한으로 진

출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이와는 달리 10월 7일의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조직된 유엔소총회의 10월 12일 결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권은 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북한에서는 유엔군의 관할 하에 임시적으로 군정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었다.[60]

이에 우리 정부는 유엔이 이미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이상 유엔의 결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부당성과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끝내 유엔의 방침을 변경시키지는 못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AP통신과의 회담에서 유엔소총회의 결정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유치한 일이라고 비난하였고, 정부내각도 성명을 통해 유엔소총회의 결정은 유엔총회와 각국으로부터 승인한 나라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처사이고, 한국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협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61]



평양에서 이승만 대통령 환영식

이 대통령은 "남북 동포는 협조하여 국토통일에 매진하라"는 담화에서 영토의 통일보다는 민족적 마음의 통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서 실시될 정책들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들을 발표하였다. 요약하면, 북한에서의 행정체제, 선거문제, 치안문제, 농지세, 농지개혁법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조를 발표함과 동시에 남북한 동포의 단결이 국토통일의 큰 관건이라는 소신을 피력하였다.[62]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담화를 발표할 당시까지도,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소신과 주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주미대사 장면(張勉)은 국내동포에게 전하는 공표문에서 유엔총회에서 60개국의 대표들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정부가 당연히 한국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하고, 북한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국회에 공석으로 되어 있는 100석의 의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여야 하며, 전화로 파손된 국토를 위해 구호와 장기적인 복구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63]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결의는 변경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월 30일 통일문제에 관한 담화에서 한국정부가 10월 7일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유엔한국통일 부흥위원단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에 대한 통치권 및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입장에서 한걸음 양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담화에서 북한의 공산당원이나 공산당이 세운 기관들의 활동에는 강력히 반대하였고, 북한에서의 직무에 맞는 인사들을 조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이러한 인사들이 파악되면, 북한의 군정을 위해 맥아더 장군에게 이들을 추천할 계획이고, 가능하다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게도 이들의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64]

정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유엔소총회의 결의를 아무리 반대하여도 결국은 이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서는 유엔군의 군정이 실시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유엔군의 군정에 많은 정부 인사들을 추천하여 유엔군 군정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정부의 점령정책 실시

국군은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북진을 개시하여 10월 10일 원산을 탈환하였으나, 미 제10군단은 26일에서야 행정적인 상륙을 실시하였다. 한반도 서부 전선에서는 미 제8군 예하부대들이 10월 19일에서야 평양에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북한 군정은 미 제8군의 서부와 미 제10군단의 동부가 이원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서부지역에서는 미 제8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군정이 실시되었고, 동부지역에서는 국군을 중심으로 하여 군정이 실시되다가 미 제10군단이 원산에 상륙한 후부터 미 제10군단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65]

국군이 원산을 탈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 장병을 치하하고 속히 북진을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통일을 완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신성모 국방장관 명령도 하달되었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들은 북한에 대한 점령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조병옥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남한 내의 경찰서는 3개 경찰서(연백, 옹진, 개성서)를 제외하고 전부 업무를 재개하였다. 본관은 현재 북한에 주재시킬 경찰관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38선 이북에 민간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국민의 근면과 협조로 인해 복구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66]

구영숙 보건부장관은 다음 날 약 2천여 명의 의사 및 간호사들이 포함되는 의료구호반을 500개 반으로 편성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미 150여 개 반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 이재민과 북한 동포에 대한 의료 활동에 투입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유엔 소총회가 대한민국 주권을 38선 이남으로 제한하고, 유엔군이 북한에 대해 군정을 실시한다는 결의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결의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국적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한 단계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 월드 리포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자동적으로 통

일될 것이며, 전후 유엔이 한국에 걸쳐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우리가 북한을 통치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유엔소총회의 결의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같은 날 평양을 방문한 조병옥 내무부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사정으로 인해 민주주권이 발동하지 못하여 행정방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평양이 무정부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북한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였다. 그는 또한 한국과 유엔이 원만한 타협을 이룩하여 건전한 민간행정기구가 조속히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하였으며, 기존의 북한 정치기구들이 전부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67]

정부는 북한군이 소멸단계에 있으므로 이후 북한 통치의 주도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은 파괴된 도시와 촌락, 그리고 교통 통신시설 재건 및 복구에 전력할 때라고 판단하였다.

사회부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부흥건설은 우리 손으로 한다는 취지 하에 부흥건설을 위한 국민총동원령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기초하여 법제처에 회부하였는데, 16~55세의 남녀를 동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철도경찰대 대장 전득수는 이북지역의 철도를 경계하기 위하여 10월 18일에 철도 경찰관을 북한으로 파견하였고, 앞으로 상부기관인 내무부의 지시가 있으면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각 정부부처들이 이러한 북한 수복지역에 대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정부는 북한행정을 위해 북한행정대책위원회를 각 부처 장관 및 처장으로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조직, 법정, 공보, 내무, 재무, 상업, 보건후생, 교통체신 등 9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 및 선임위원들을 선출하였다.

국방부 정훈국은 북한 주민들을 순화시키기 위하여 대량의 선전문서를 작성, 배포에 착수하였다. 군은 청년단체와 학생들 가운데 우수한 인물 500명을 선발하여 1개월의 훈련을 거친 후 6개 도에 각각 1개 중대씩 파견할 목적으로 관서와 관북으로 구분하여 2개 문화대대를 파견하였다.

2. 후방 지원

1) 인사 지원

(1) 병력증강과 인사기구의 성장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에서의 반격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자, 국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이미 재정비를 마친 상태에 있었고, 유엔군의 지원에 따라 최신의 장비를 갖추었으며 강력한 통일 의지로 무장되어 있었다.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유엔군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통일을 위한 북진작전이 전개되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국군이 낙동강 전선에 2개 군단 6개 사단, 인천상륙작전에 국군 제17연대와 해병 제1연대 등이 참가하고 있었고, 유엔군은 미 제8군과 제10군단 예하부대였다.

국군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규모면에서나 전투력 면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육군은 제7사단을 재창설한데 이어 제11사단을 신편 하였고, 10월 중 제5사단을 재건하고 제9사단을 신편 하였으며, 아울러 세 번째 군단인 제3군단도 창설하였다.[68] 이에 따라 육군은 전쟁 이전 8개 사단을 복원한 것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단으로 증강되었으며, 병력도 223,950명으로 증가되었다.

해군은 서해의 제1정대를 모체로 제1함대를 창설한데 이어 10월 23일에는 제1함대 예하의 제1소해정대를 창설하는 한편 PC함 3척으로 서해전대를 창설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의 4개 정대를 전대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0월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함정들로 제1함대를 증강하였다. 해병대는 9월 1일 제1, 제2대대를 기간으로 제1연대를 창설한데 이어, 독립 제5대대를 제1연대에 통합 증편하였다.

공군은 전쟁 초 미 극동공군사령부로부터 F-51전투기 10대를 인수하여 비행단을 발족한데 이어 10월 17일에는 정찰비행대를 정찰비행전대로 개칭하고 L-4 11대, L-5 2대, L-10 1대 등으로 증편하였으며 미 극동공군으로부터 F-51전투기 부족분을 추가로 인수하여 전력을 보강하였다.



국군의 병력 증강(1950년 10월)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 본부는 이러한 북진작전에 맞추어 인사지원상의 문제로 인해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인사지원의 목표는 적절한 병력을 적당한 시기와 정상적 상태로서 일선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는 신속한 인사지원을 통해 군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군 섬멸과 조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 기간의 국방부 인사기구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제1국인 군무국은 인사업무 전반을 계속 담당하였고, 제2국은 정훈업무를 그리고 제3국은 국군의 복지와 후생(厚生) 업무를 담당하였다.[69] 병무행정체제 역시 본격적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9월에 시도 병사구사령부가 다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병사구사령부는 곧이어 제2국민병 등록을 실시하여 2,389,730명의 장정을 등록시켰다. 이는 병역법이 실시된 직후에 실시한 해당 인원의 4,762,639명의 50%에 불과하였다.[70]

징집과 소집 업무는 내무부 지방국 및 치안국과 긴밀히 협조되어 운영되었다. 제2국민병의 소집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특별시장 및 각도 지사에게 요청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71]

육군 인사조직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육군본부의 기구들은 인천상륙을 계기로 진격부대에 대한 기동성 있는 지원을 계속하였다. 진격부대들이 적을 추격하여 북한으로 진출해 나가게 됨에 따라 자연 인사지원의 활동범위도 확대되어 갔다. 기간 중에 육군본부 인사국과 고급부관실은 인사관리 업무를 통해 공격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즉 엄격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계획 하에 인사국내에 진급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72]

인사국은 수복지역에서의 군기확립을 통해 대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사 제도를 통한 인사 군기확립에 주력하였다. 고급부관실은 계속되는 부대확장에 따라 군의 기간이 되는 장교 육성에 전력하였으며, 인사국 충원 지시에 의거 전 장병의 기능, 능력 등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의 인사배치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 기간 군인가족신보가 발행되어 후방 가족과 장병이 계속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육군의 군인가족 신분 보장을 위하여 군인가족증명서가 발행 교부되었다.[73] 고급부관실은 9월 중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행정과에 군사우편계를 설치하여 군사우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그 후 전군의 우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체신부와 협의하여 13개 야전우체국을 창설하여 체신부로부터 53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업무를 시작하였다(<표 2-6> 참조).[74]

헌병감실은 국군의 진격과 더불어 임무도 확장되었다. 즉 후방치안 확보, 보급로 경비, 포로의 후송 등의 기본 업무와 더불어 북한의 수복지역의 치안유지 및 대민 지원활동의 임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월 중 대구에서 제2헌병대대를 창설하여 후방치안 확보, 주보급로 경비, 군사고문단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범법자 수감을 위해 제1형무소를 대구에 창설하였다. 또한 계속 증가되는 적 포로를 수용, 경비하기 위하여 제31포로경비대대를 부산에서, 제32포로경비대대를 인천에서 그리고 제33포로경비대대를 평양에서 각각 창설하였다.[75]

<표 2-6> 각 부대별 야전우체국명(1950. 9. 22)

설치 부대명	위치	야전 우체국명
육군본부	부산	육군중앙야전우체국
제1군단사령부	〃	제11야전우체국
제2군단사령부	〃	제22야전우체국
수도사단사령부	〃	제7296야전우체국
제1사단사령부	〃	제5816야전우체국
제3사단사령부	〃	제2913야전우체국
제6사단사령부	〃	제9861야전우체국
제7사단사령부	〃	제1692야전우체국
제8사단사령부	〃	제7169야전우체국
제주도경비사령부	제주	제100야전우체국
육군종합학교	동래	제101야전우체국
대구방위사령부	대구	제102야전우체국
육군중앙훈련소	〃	제103야전우체국

<표 2-7> 형기별 통계 현황

연도	사형	무기	15~20년	10~15년	5~10년	1~5년	1년 미만	파면, 불명예 제대	무죄	계
1950	1,902	408	183	451	562	476	283	35	591	4,891

감찰감실은 전투부대의 전투임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의 제거에 주력하면서 감찰업무를 수행하다가 서울 수복과 더불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였다.[76] 계엄군법회의를 설치하여 전쟁 중의 후방 군기단속 및 일반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를 전담하고 있던 법무감실은 9월 28일에는 서울지구 계엄군사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였다.[77]

장병의 후생복지 활동과 군인가족 보호 및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던 후생감실은 전세의 호전에 따라 인천분실, 대구분실, 평양분실을 각각 설치하여 휼병업무에 주력하였다.[78] 이밖에도 위문품 수집, 군 체육행사 및 체력 향상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였다.

해군작전본부에 예속되어 있던 인사 관련 부서들은 긴급사태가 완화되자 다시 해군본부 예하가 되었다. 해군본부는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일반참모부를 국으로, 특별참모부를 감실로 환원하였다. 따라서 해군작전본부 인사참모실로 개편되었던 인사국도 해군본부 인사국으로 다시 개편되었다.[79]

행정참모부장실 예하의 고급부관실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와 행정관계 제 규정 수립, 해군 간행물, 인쇄물 등의 검열 및 등록 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법무감실의 인원은 전쟁초기 전투병으로 차출됨에 따라 법무행정이 일시 중단되었다.

해군 정훈감실은 행정, 보도, 정훈과로 구성되어 있다가 9·28수복 이후 서울분실을 설치하였고 10월에는 해군 정훈음악대를 창설하였다. 정훈감실은 해군에 대한 홍보와 해군 장병에 대한 사상교육 및 정훈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군의 북진작전으로 북한의 수복지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훈업무도 활발히 전개되었다.[80]

해병대사령부는 자체 부대편성을 완료하였는데, 헌병과 정훈참모부가 참모부서로서 인사국의 인사업무를 지원하였다.[81] 공군본부 인사국은 군 편제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이에 맞는 인사지원을 하기 위해 인사국 기구를 개편하였다.[82]

(2) 병력 충원과 교육

반격과 북진 기간의 인사 정책은 이전의 인사제도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초기의 혼란기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국군의 병력확보는 첫째, 제2국민병의 소집에 의해서이고, 둘째, 미군 부대에 배속되어 있던 카투사들의 원복에 의해서였다. 제2국민병 소집도 7월 이후 행정 절차의 미비로 중단되었다가 9월 시도 병사구사령부가 다시 설치되어 등록을 실시하였다.[83]

전쟁초기 카투사 제도가 시작된 이후 미군부대에 한국군을 배속시키는 조치가 계속되어 카투사 병력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다. 중요 변화중의 하나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의 병력부족 상태가 점차 해결된 것이었다. 주한미군은 10월부터 충분한 보충병들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84] 국군은 제2

국민병의 소집과 카투사의 원복으로 점차 안정적으로 병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사지원도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각 군의 간부양성 교육기관도 크게 성장하였다. 먼저 육군종합학교는 사관학교와 각 병과학교가 임시 폐교되자, 긴급히 소요되는 초급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어 이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초급장교들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10월 중 제1기생과 제2기생이 6주간의 기본교육과 병과교육을 마치고 각각 졸업하였다. 제5기생부터는 6년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민간인 출신을 선발하여 입교시켰다.[85]

해군사관학교는 10월 2일 다시 개교하였다. 당시 제4기생이 실습 도중 10월 중순 귀교하였고 제5기생이 입교하였다. 공군사관학교는 10월 초 진해 공군기지에서 다시 서울로 이동할 때까지 생도 제1기생 총 80명이 약 2개월 동안 미 공군 이동정비 교육반에 의해 교육을 받았다. 그 후 서울이 수복되자 사관생도들은 진해를 떠나 서울의 성남중학교로 이동하였다.

각 군의 병과교육과 신병교육도 발전을 거듭하였다. 육군 포병병과교육은 제1포병단이 해체됨에 따라 포병학교가 포병교육대대로 개칭되고, 9월 15일에는 제7훈련소에 편입되어 포병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교육대대는 서울로 이동하였다.[86] 헌병은 부산 제2훈련소로부터 1,669명을 인계받아 헌병 제7기생 입교식을 거행한 후 10월 4일 졸업시켰다. 제8기생은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모집한 568명과 신병 400명을 대구의 제1훈련소에서 기초교육을 시킨 후 대구로 이동해 온 헌병교육대에 입대시켰다.[87]

공병기술교육의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공병 하사관교육대를 기술공병단 예하의 제301교육대로 창설함으로써 기술교육을 계속하였다.[88] 통신병과교육은 육군종합학교 내에 분교로서 통신병과가 설치되었고, 이때 조직된 통신학교 교육본부는 부산 대신동에 위치하였다.[89] 육군군악대는 신병에 대한 군악교육을 실시하면서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였다.[90]

여군의 발전은 여군교육대가 창설된 이후인 9월 28일 최초로 제1기생 491명이 졸업하였다. 그 후 제2훈련소에 예속되어 있던 여자의용군교육대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육군본부 직할로 여자의용군훈련소가 되었다. 또 특과병으로 여군 기술병 교육이 결정됨으로써 여군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91]

신병 교육기관인 제1훈련소는 10월 2일 대구에 보충대를 창설하였고, 9개 교육대를 3개 연대 편제로 편성하였으며 보충대대 장교 86명과 사병 1,678명을 서울로 이동시켰다.[92] 10월 중 육군중앙훈련소가 해체되어 제1훈련소가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 변경되었으며, 제2훈련소는 여자의용군교육대를 해체하고 제1훈련소에 예속되어 있던 보충대대를 편입시켰다.[93]

해군 기관학교는 10월 11일 내연보통과에 제6기생 28명을, 기기과(汽機科)는 제1기생 38명을, 전기과는 제2기생 35명을 입교시켜 다음해 졸업시켰다.[94] 포술(砲術)학교는 장포 고등과 제1기생 17명, 제2기생 21명, 그리고 장포 보통과 제2기생 110명을 10월 중 입교시켜 배출하였다. 항해학교는 갑판보통과 제6기생 52명, 조타과(操舵科) 제2기생 95명을 배출시켰다.

해군신병훈련소는 해병 제18기생 1,126명을 입소시켜 1,112명을 졸업시켰고, 해병대 신병과 17기와 18기 잔여 병력을 다시 제18기로 610명을 입교시켜 595명을 졸업시켰다. 또한 해군신병훈련소는 해병대로부터 여군 126명을 인수하여 특별 분대를 편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병대는 자체 교육기관이 없었으므로 육군과 해군에 위탁 교육하였다.

공군의 정보교육은 특무교육대가 창설되기 이전까지 미 특무부대 지휘 하에 부대 실무교육으로 실시되었고, 통신교육도 정보교육과 함께 부대 실무교육으로 실시되었다. 전폭항공기에 대한 폭약, 폭탄 등의 장진에 관한 교육인 무장교육도 미 공군의 지휘 하에 공군기지에서 실무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며, 비행기 정비교육도 미 공군이동교육반에 의해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이 실시되었다.[95]

(3) 인사 제도의 보완

국방부와 각 군 본부는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장병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국군장병들은 경쟁하다시피 북진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후방 교류를 실시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장교 근무평정 등과 같은 인사제도도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96]

전투 손실과 부대의 신편과 개편 등으로 군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많은 신병과 보충병을 필요로 하였다. 인천상륙과 낙동강전선 돌파로 인하여 제2국민병 소집을 남한 전 지역, 그리고 북한 수복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이러한 병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신병을 보충함으로써 군의 소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었다.

이 기간 병력확보는 부대 증설이 많았던 관계로 어려움이 컸다. 당시에는 기존 부대에 대한 보충보다 신편부대로 인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다. 예를 들면, 신편부대 소요와 소모병력 충당이 7 : 3 정도였다. 연말까지 병력 보충은 장교 10,483명, 사병 202,573명이었으며, 손실은 장교 2,886명, 사병 84,426명이었다.[97]

이러한 신병들의 군번부여는 장교의 경우 각종 다양한 임관제도에 의한 장교 군번부여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사병 역시 기간별, 형태별로 여러 종류의 군번이 부여되어 많은 혼란 양상을 띠었다.

인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진급제도의 실태는 사기진작을 위해 그리고 상훈의 필요에 의해 일정한 진급기준이나 선발규정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운용되었다. 육군의 진급은 편제표상의 90%를 확보한다는 원칙하에 임시진급령에 의거 실시되었다. 또한 사병 진급도 실시되어 그 대상이 169,337명에 이르렀다.

이 시기 임시계급 부여제도가 실시되었다. 장교의 임시계급은 상급자가 결원이 될 경우 1계급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었다. 국군임시계급 제도에 의하면, 임시계급에 의해 근무한다 할지라도 원래 계급에 의한 복무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는 현지임관제도도 활발히 시행되었다.[98]

장병들의 정기휴가는 중지되었지만 임시 및 특별 공로휴가는 부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상훈(賞勳)도 부대 전체 및 장병 개인에 대한 공로 표창과 군 작전에 기여한 사회단체 및 개인 또는 외국군에게도 활발히 실시하였다. 무공훈장령에

의해 1등~4등 무공훈장을 제정하였으며, 각 무공훈장에는 정장과 약장을 수여하였다.[99]

(4) 전쟁포로와 민간인 억류자(抑留者) 관리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낙동강방어선 돌파작전이 전개되자, 남한지역에 고립되어 이미 전의를 상실한 북한군에게는 투항하여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험준한 산악을 이용하여 북으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낙동강 돌파에서 북진작전기간에는 대량의 북한군 포로가 발생하였다.

북한군 포로는 9월에 10,829명, 그리고 10월에 62,04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100] 이렇듯 9월 하순부터 10월에 이르러 북한군 포로가 확대된 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지역을 수복해 나아가자 더 이상의 희망을 포기한 북한군이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투항하여 왔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포로수용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통합을 위해 동래 거제리에 미 제8군 포로수용소를 통합 설치하였으며, 국군측이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미군측이 시설 및 보급, 포로관리를 담당하였다.

부산의 수용본부는 9월 29일 본소 제3수용소를 설치하였고, 10월 중 제4, 제5수용소, 동래포로수용소를 신설하였으며, 대구의 포로수용소 본부가 본소로 이동해 왔다. 수영수용소에는 소위 대밭 제1, 제2, 제3수용소가, 가야리에는 가야 제1, 제2, 제3수용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10월 중 제32포로경비대가 인천에서, 제33포로경비대대가 평양에서 각각 창설되었다. 제32포로경비대는 인천소년형무소에서 장교 11명, 사병 468명, 카투사 225명 등 총 704명으로 창설되어 미군 제59헌병대대와 함께 평양 및 각 전선의 국군과 유엔군 부대에서 후송해 오는 적군 포로들을 수용하였다.[101]

평양시에는 이미 평양지구포로수용소가 설치되어 제1, 제2수용소가 운용 중이었고, 제3수용소가 건설 중에 있었다. 그리하여 평양 선교리에 제33포로경비대대가 창설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제32, 제33대대는 거제도로 이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미군의 적 포로문제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다.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 포로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미 제8군사령부는 적 포로의 관리를 위해 부산군수사령부를 제2군수사령부로 개편하였다. 제2군수사의 임무와 기능에는 전투부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산군 포로 및 피난민에 대한 적절한 관리도 포함되었다.

미 제8군은 점차 포로수용시설을 확장하여 제2군수사령부가 10월 중 7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미 제10군단이 인천에 1개의 수용소를 건설하고 서울의 마포형무소에 포로수집소를 설치하였다. 포로수집소는 적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를 수용하여 분류한 후 군 포로들은 인천의 포로수용소로 이송하였다.[102]

10월 중 미군의 포로수용소에 있는 포로는 민간인억류자를 포함하여 인천수용소의 33,478명, 평양수용소의 20,647명, 부산수용소의 62,697명 등 총 116,822명이었다. 여기에는 국군이 보호하고 있는 포로와 독립된 소부대가 보호하고 있는 포로의 숫자는 제외되었다.

미 제8군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의 숫자가 계속 증가되자 이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10월 25일 유엔군사령관은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정부가 이들에 대한 처리를 정당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38도선 이남에 거주지가 있는 포로들을 석방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한국정부도 늘어난 포로 및 민간인억류자로 인해 일선 전투부대의 작전에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포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였다.[103]

한편 인사 지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존해 있었다. 교육기관의 발전과정에서 헌병병과의 경우, 급격하게 늘어난 헌병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간의 교육을 거쳐 많은 헌병을 양성하였다. 이러한 단기간의 교육은 업무 수행에 원활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또한 각 병과학교의 경우, 여전히 육군종합학교의 부설 과정에 설치되어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었고, 단지 소요인원은 부대자체에서 신병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형편이었다.

북한지역으로 진격해 가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전후방 교류를 실시할 수 없었고, 이는 장병들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결과적으로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포상제도는 사기를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공적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부정적인 측면도 노출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국군과 유엔군은 대규모로 발생한 전쟁포로의 수용과 경비를 위해 포로경비대대를 설치하여 지원하였고, 또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들이 부산지역으로 대거 집중되자, 이들을 거제도나 제주도로 분산시키는 등 지원체제를 갖추어 갔다.

2) 군수지원

(1) 군수 기구의 정비

군수지원도 점차 남한 전 지역과 북한 수복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국방부 군수국은 먼저 국군 병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의 피복을 미 극동군사령부와 협조하여 원단을 군사원조로 들여와 가공비만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였고, 해군과 공군의 피복(被服)은 특수복만을 제외하고는 국내생산으로 소요량을 전량 확보하도록 하였다.[104]

국방부는 현안문제였던 피복 원단의 품질 향상과 절약 차원에서 종래의 업자가 직접 제도하던 것을 각 군별로 제조하도록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육군은 부산과 대구에, 해군과 공군은 대구에 각각 제단소를 설치하고 각 원단을 생산 공장에 할당하여 제조하였다.[105]

육군의 군수관련 기구들도 작전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소요가 크게 증가되었다. 후방지역의 범위 확대와 주보급로 연장으로 인한 보수 및 신설, 통신망의 확장, 수송수단의 확보, 보급소의 추진, 중간보급소의 증설 등의 활동이 요구되었다.

육군 군수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근무지원부대를 독려하여 지원계

획을 수립하였다. 또 군수국은 후방지원에 대한 기록 및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후방 전사편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각 근무지원부대로 하여금 정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후방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106]

보급 관계는 부산보급창(補給倉)에서 국군 장비를 보충하기 위한 각종 병참물자의 출납, 저장, 보관 등의 업무에 주력하였다. 피복 보급품은 연말까지 작업복 770,000벌, 훈련화 1,090,000켤레 등을 보급하였고, 이밖에 작업모, 방한 작업복, 방한화, 속내의, 방한장갑 등의 피복 보급품도 다수 보급하였다.

전쟁발발 이후 지금까지 가장 부족하였던 차량은 시민들로부터 징발 사용하였으나, 임시조치로 9월 16일부터 일본산 트럭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탄약보급은 탄약보급소를 일선으로 전진 배치하여 가능한 가장 근거리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병기감실은 각 부대의 일일소요량을 파악하여 보급을 추진하여 수송과 소요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공병 보급품은 대전차지뢰, 폭약 등이 많이 필요했던 방어작전 시기와는 달리 아군의 전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교, 도로 보수와 연장된 주보급로의 보수와 신설에 필요한 장비였다. 통신보급품으로는 무전기 SCR-193, 694, 300, 536 등이었고, 유선기재로는 TS-10 등, 동력기재로는 PX-75 등, 시험기로는 SCR-211 등, 야전선으로는 W-110 등이었다.

의료품은 안동, 함안, 영동지구의 전투지구보급소를 통하여 각 의무부대 및 각 군 병원에 보급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의료품은 미 군원품(軍援品)이었으나, 가제, 붕대 등 일부의 품목은 국내 조달품이었다. 당시 미 군원품에는 의약품이 대부분이었고 의료기구나 장비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육군본부 군수국은 일본으로부터 의료장비와 기구를 구입하여 조달하기 시작하였다.[107] 이 무렵 공급된 의료품의 종류는 약 500여 종에 달했다.

군수 보급은 정기적 또는 매일 소요량을 수송수단을 통해 공급하였지만, 공격, 방어, 시가전, 철수 등 전투형태에 따라 그 방법이 달랐고, 또 기상 변화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군수국은 육군본부에 접수된 각종 작전 및 정보보고서, 후방정기보고서, 피아의 병력상황과 이동, 기상, 지형 등의 상황을 분석

하여 보급방법을 결정하였다. 군수국은 각 병과감실(兵科監室)로부터 매일의 수입재고 현황을 파악한 후 미 제8군과 협의하여 사용부대에게 필요한 보급품을 보급하였다.[108]

미군 지원 보급품은 미군 군단지역 보급소에서 직접 보급을 받은 후 미 군사고문단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국내 조달품목은 한국군의 각 기술병과 보급소를 통해 지원되거나 작전이 급박할 경우 현지 지휘관의 재량에 의거, 민수물자를 동원한 후 사후에 결산 처리하였다.

제1종 보급체계와 절차는 사용부대의 청구를 종합하여 병참감실이 군수국에 신청하고, 군수국은 이를 국방부에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제3종 보급품은 군수국이 병참감실의 현황보고를 근거로 보급소요를 미 제8군 군수처에 신청하였다. 제4종은 사용단위부대의 청구량을 종합하여 각 기술병감실이 군수국에 신청하면, 군수국이 국내 조변물품을 조달감실에게 구매 의뢰하였고 군원물품에 대해서는 국방부 또는 미 제8군에 신청하였다.

조달감실(調達監室)은 부산과 대구 조달분실에서 보급 작전을 지원하다가 수복 이후에는 선발대를 파견하여 전쟁 이전의 군수공장에서 파괴되지 않은 시설이나 원료를 부산지역으로 반출하여 군수품 생산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109] 조달감실은 구매과와 행정과 등 2개 과가 있었고 구매과는 예산, 의무, 병기, 통신, 공병, 양곡, 피복계 등 총 8개 계로 구성되었다. 조달감실 예하에는 대구와 부산에 지방분실이 있었고, 야전구매대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긴급긴요 물자와 군량, 탄약, 유류 등의 일부 품목은 사용부대가 미군 시설을 통해 직접 구입하기도 하였다.

해군의 군수업무는 경리국에서 담당하였다.[110] 피복 보급업무에 관해 해군본부 군수국은 예산부족으로 전투병에게 우선 피복을 공급한다는 원칙 하에 업무를 추진하였고, 해병대에 대한 피복 공급업무도 담당하였다. 군원 유류는 소요량을 책정한 다음 미군에 통보한 후 미군으로부터 매월 공급받아 사용 단위부대에게 보급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111] 해군 장비는 대부분 특수장비로 군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공군 군수국은 공군본부가 서울로 이전되자 10월 3일 대구를 떠나 서울로 이동하였다. 군수국은 보다 원활한 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하에 병참감실을 창설하였다.[112] 군수국은 군원으로 공군의 모든 보급품이 해결되지 못하자 피복, 소모품, 병참물자 등은 국내에서 조달하여 사용부대에 공급하였다.

(2) 각 지원부대의 활동

북진작전기간 군의 병참선이 크게 신장되고 많은 신편부대들이 창설되고 또 계절적 변화에 따라 추동절기에 접어들게 되자, 각 지원 부대들의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각 군의 기술병과 지원부대들의 활동과 지원체계도 초기의 미숙 단계를 벗어나 원숙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육군의 기술병과 부대들은 초기의 혼란기를 벗어나 미군의 지원 하에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점차 성숙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군수지원 병력도 전쟁발발 당시의 10,321명에서 이 시기 28,637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113]

병참(兵站) 지원부대는 부대창설과 개편을 수시로 지원하였다. 이는 전방전투부대를 근접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를 창설 및 개편하였기 때문이었다. 병참감실 예하에는 제1, 제2정비대대로 구성된 병참단, 피복창, 제1병참집적소, 제1병참보급소, 부산기지보급창 및 묘지 등록대 등이 있었으며, 반격작전을 근접지원하기 위해 9월 18일 부산기지보급창이 제1기지창고중대로, 제1병참보급소가 제1보급중대로 각각 개칭되었다.

병참부대의 보급실적 가운데 병참물품은 국내 조달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피복류와 군량은 국내생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유류는 전량 군원에 의존하였다.[114] 국내 생산량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미 군원으로부터 피복, 장비의 보급을 받아 공급하였다.[115]

병기(兵器)부대는 1개 병기단 본부와 3개 대대 체제로 개편한 후 크게 발전하였다. 지원 기능분야는 특히 탄약보급과 처리기능이 발전하였으며 기존의 일반정비와 보급기능은 지원부대 숫자의 증가와 함께 지원능력이 향상되었다. 이 기간 병기부대의 발전과정은 병기단 본부중대가 제1병기단으로 개칭되고, 병기공

창 중대, 병기하사관학교 및 병기감사단이 창설되는 성과가 있었다.

병기부대는 기간 중 육군 병력의 증강에 따른 병기보충과 수송수단인 차량 보충과 정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총포의 실적은 카빈소총 77,099정, M-1 소총 98,165정, LMG 1,846정, HMG 1,677정, 2.36″로켓포 2,117정, 3.5″로켓포 2,546정, 105㎜ 곡사포 235문 등을 전투부대에 공급하였다.

육군본부는 제1공병단을 제1201건설공병단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새로이 제1101야전공병단과 제1102야전공병단을 창설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각 제1군단과 제2군단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육군은 전쟁발발 4개월 만에 비로소 공병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통신부대들도 전선부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한다는 원칙을 수립해 놓고 전방보급소를 전선 가까이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통신장비 소모품에 대한 공급선이 매우 단축되어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통신장비의 수리 및 보급을 담당하는 통신공창은 9월 29일 안동으로 이동하였다가 원주를 거쳐 서울로 이동하여 보다 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었다.

기술 집약장비인 통신장비는 거의 군원에 의존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군원도 11종 96개 품목에 불과하였으며 주요 통신장비는 거의 없었다. 육군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지의 시중에서 구매하거나 대한전신전화공업주식회사, 수도전기통신기기제작소, 중앙전기제작소, 한국전기통신공업주식회사 등에서 통신장비와 기자재를 조달하여 통신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육군본부 의무감은 북진작전과 더불어 더욱 확대된 전·부상자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구의 확대 개편을 실시하였다.[116]

한편 해군의 기술병과부대들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해군본부 통신감실 예하의 해군본부 통신대는 이 기간에 군 통신 기밀유지를 위해 최고의 비도를 가진 암호의 창안과 인원 확보를 위해 암호계(暗號係)를 신설하는 등 해군작전 및 정보활동에서 연락의 중추를 담당하는 육해상의 통신망 건설에 노력하였다.[117]

병기감실은 10월에 병기 증강에 따라 부속품 국내 조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함정수리를 위해 부산진철공소를 지정 공장으로 확보하고 소해정 및 함정에 장비된 37㎜ 대전차포를 37㎜ 대공포로 대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9월에는 해병대사령부 의무대를, 10월에는 서울 주둔 해군 의무대를 발족시켰다.

공군은 9월 24일 비행단이 여의도 기지에 복귀한데 이어 10월 중순에는 공군제 부대가 서울-김포지역에 도착하고, 그 후 북한지역 기지로 공군력을 전개하였다. 공군은 한반도의 전 공군기지를 운용하기 위해 10월 17일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때 공군은 항공기지사령부를 5개 항공관구, 24개 기지대로 증편하는 한편 북한지역 기지까지 부대를 전개하였다.[118]

공군의 각 기술병과부대들도 많은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10월 16일 통신대가 공군본부 작전국 예하로 편입되고, 통신업무의 확대로 신규 통신장교 후보생 및 하사관의 모집을 실시하였다. 통신파견대는 공군본부, 진해, 제주, 모슬포, 부산, 대전, 사천 등 7개소에 파견되었다. 공군시설지원업무는 공군 군수국 시설과가 대구, 군산, 대전, 평택, 김해, 사천, 제주비행장의 시설을 보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공군본부 의무처 소속의 공군병원은 김포비행장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여 공군 환자를 치료하다가 10월 13일 서울로 이동한 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119]

(3) 군수산업의 재건

그동안 침체되었던 군수산업도 북진작전기간 전반적인 분야에서 정착되어 갔다. 국군은 대부분의 장비와 부품 등을 군원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점차 국내 조변물자의 획득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군수산업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국방부의 병기행정본부는 주로 부산에서의 시설을 이용하여 수류탄 생산과 적노획병기 정비에 주력하다가, 전세의 역전으로 서울로 이동하였다. 이때 제2조병창은 제주도로, 본부와 과학기술연구원은 부산으로 각각 이동하게 되었다.

급양(給養)관련 군수산업은 공장시설과 인력 그리고 자금 등으로 곤란을 겪는 업체가 많았다. 국방부는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설 및 원자재

의 수입을 알선하고 종업원의 징소집을 연기해주며, 운영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조변품목의 확보에 노력하였다.

피복관련 군수공장은 합성공장 등 75개 공장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반 공산품은 대부분 국방부와 각 군 본부가 시장에서 구입하였으나, 일부 공장을 군수공장으로 지정하여 원자재를 공급해준 다음 제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무연탄은 장성, 도계, 함백, 경주, 영월, 은성, 문경, 화순, 단양탄광 등이 군수산업체로 군에게 생산량을 공급하였다.

통신관련 군수공장인 유선공장은 대구의 대한전신전화공업주식회사뿐이었고, 무선 관련공장은 대구의 수도전기통신기계제작소 등 3개 공장 정도였다. 의무관련 군수공장은 제약공장이 부산의 계림화학, 유한양행 등이었고, 대구의 보건제약과 세브란스약품회사가 있었다.[120]

(4) 미 극동군의 군수지원체제의 정립

인천상륙작전 직후 9월 19일 미 극동군사령부는 전투부대의 증가에 따른 군수지원 책임이 증가됨에 따라 부산군수사령부를 C형의 군수부대인 미 제2군수사령부로 증편하였다. 또한 미 제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제3군수사령부를 인천에 신설하였다.

미 제10군단이 원산상륙작전을 위해 이동하자 제3군수사령부는 미 제8군에 예속되어 북으로 진격함에 따라 평양에 전방사령부를 설치하고 미 제8군의 군수를 지원하였다. 반면 제2군수사령부는 원산으로 이동하는 미 제10군단에 대한 군수를 지원하였다.[121]

국군에 공급되는 미군의 군원품은 미 제8군 군수지원부대를 통해 사용부대에 직접 전달되거나 국군의 기지창에 공급되면 사용부대가 기지창이나 보급소를 통해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북진작전기간 서부전선의 부대들은 미 제2군수사령부를 통해 군원품을 지원받았고, 동부전선에 배치된 국군 부대들은 미 제10군단의 군수지원부대인 미 제3군수사령부로부터 군원품을 지원받아 사용하였다.

(5) 군수지원의 문제점

전투부대의 책임지역이 북한으로 확대되자 무엇보다도 전투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기술병과부대들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각 지원부대는 전투부대를 가장 근거리에서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부대를 따라 각 기술병과 보급소 및 중간보급소를 추진 또는 증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각 기술병과들은 북진작전기간 크게 성장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 갔으나, 한편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부대에서 실무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조달과 보급체계도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으나, 대부분의 주요장비와 무기는 미국의 군원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비 및 비품 소모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 군수산업의 조달 품목은 제1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군수품의 주요 장비나 무기는 모두 군원에 의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빈약한 시설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의 지원을 받은 군수산업은 점차 안정적으로 군수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군에 필요한 물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3) 민사 지원

(1) 대민 지원

반격작전기간 대민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추진되었다. 하나는 적치 하에서 3개월 동안 고초를 겪은 남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점령지 주민에 대한 지원이었다. 남한 주민 지원은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북한 주민 지원은 정부 조치나 군 작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남한지역에 대한 대민 활동을 위해 먼저 정부는 법률 제148호의 공무원임시등록법을 10월 15일 발표하여 공무원들이 근무관서로 복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복구하여 민생안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또한 군사원호법(援護法)의 시행세칙을 10월 29일에 발표하고 군사원호를 받고자 하는 해당자들의 신고를 촉구하였다.[122]

국방부 정훈국은 군 내외 지도층 인사들을 동원하여 신문, 방송, 강연회 등을 통하여 일부 군경의 폐단을 제거하거나 북한군이 남기고 간 상처를 치유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민회의 청년들로 구성된 특수공작대와 한국노총의 조직을 동원하여 가두와 집회장에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고, 군 기관지인 승리일보, 정훈주보, 국방지 등을 속간하여 계몽과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국군이 북진을 개시하여 원산을 탈환하자 북한 수복지역에 대한 대민활동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내무부는 북한지역으로 파견할 경찰관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부는 의료구호반을 편성하여 전쟁 이재민과 북한 동포에 대한 의료 활동을 준비하였다.[123]

정부와 유엔군사령부 공중보건 및 복지과 대표들은 10월 16일 중앙긴급구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와 앞으로의 민간구조에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하고 이에



신성모 국방장관의 대국민 연설 모습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하여 전재민의 범위와 구호품 소요를 파악하고 질병예방에도 전력하였다.

반격작전기간에는 특히 사상과 정신 무장이 강조되었다. 국방부 정훈국은 북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대량의 선전문건을 작성, 배포하였다. 군은 청년단체와 학생들 가운데 우수한 인원 500명을 선발하여 이북 6개도에 1개 중대씩 파견할 목적으로 1개월간 훈련시킨 뒤 관서와 관북으로 구분하여 2개 문화대대를 파견하였다. 또한 정훈국은 평양분실을 설치하여 초기 공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124] 이에 따라 정훈 제1대대는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제2대대는 평안남북도를 담당하여 활동하였다.

(2) 피난민 지원

반격작전기간 발생한 피난민은 주로 북한지역의 주민이 월남하는 것이 주류였다. 북한 주민들은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의 수복지역을 확대해 가자 일부가 월남하였고, 나머지 주민들은 중공군의 개입 이후 가족단위로 또는 단신으로 월남하였다.

피난민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군과 유엔군의 북한지역 철수 시 월남(越南)한 북한 주민의 숫자는 약 150여만 명으로 집계되었다.[125] 그러나 정부는 북한 피난민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나 그 이후에 개정된 법률 등을 근거로 임기응변하고 있었다.

처음 정부가 피난민에 대한 조치를 내린 것은 법률 제145호인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다. 이 법은 사회부로 하여금 귀속 재산을 피난민 수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 후 9월 25일에는 법률 제146호로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내용이 발표되었다.[126] 이러한 조치와 법령은 북한 피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지역에서 탈출해 온 피난민들이 선박을 이용해서 부산으로 집중하자, 부산의 미 제2군수사령부로 하여금 피난민을 분류 수용하도록 조치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피난민들이 늘어나자 피난민을 태운 선박을 제주도와



피난민들의 생활모습

거제도로 분산시켰다.

유엔의 민간인 구호는 반격작전기간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식량류는 유엔군 민사처 방침에 의하여 20%는 무상으로 그리고 80%는 유상으로 분배되었다. 이밖에 미 경제협조처(ECA)를 통해 구호 및 구제물자들이 들어와 정부를 통해 피난민에게 공급되었다.[127]

피난민 구호와 아울러 작전지역에서는 피난민에 대한 통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칫 피난민이 전투지역을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군 작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피난민의 생명과 재산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때문에 군은 헌병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전에 강력하게 전투지역에 대한 주민 소개와 더불어 피난민소개 작전을 전개하였다. 전투지역을 통과하는 피난민들에 대해서는 오열방지를 위해 엄격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반격작전과 북진작전의 의의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방어선에서의 반격작전으로 공세 이전하자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엔군사령관은 참전초기부터 북한군을 남한지역 깊숙이 끌어들여 공격 예봉을 둔화시키는 한편, 전력이 정비 되는 대로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단행하여 적의 후방을 차단한 후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작전을 구상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의 지세적인 특징과 한국국민들의 서울에 대한 전통적인 애착심 등을 고려하면 수도탈환이 갖는 정치적 심리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으로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서울을 탈환하게 될 경우, 낙동강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국군과 미 제8군이 낙동강전선에서 반격을 감행한다면 북한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고 한국국민의 침체된 사기를 북돋워 주게 되는 활력소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과 미 제8군이 낙동강전선에서 격전을 치르고 있는 동안, 합동전략기획단을 편성하여 상륙 작전계획을 세우고 상륙부대를 편성하는 한편, 8월 말에는 미 극동공군과 미 극동해군을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들게 함으로써 지휘체제를 일원화시켰다.

미 제8군의 반격준비의 일환으로 8월 하순부터 낙동강전선에 배치된 미군 4개 보병사단과 지원부대의 재편성에 착수하여 9월 초순에는 이들 부대의 전투력을 대폭적으로 증강시켰다. 한국군은 장교와 사병의 양성기관인 종합학교와 훈련소를 설치하여 병력보충의 기반을 다졌으며, 2개 사단을 새로 창설하여 그 중의 1

개 사단은 낙동강전선에, 나머지 1개 사단은 지리산 지구에 배치하였다.

미 육군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에 증파하게 될 유엔 지상군의 작전지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개 군단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이들 중 미 제1군단사령부는 9월 6일 한국에 도착하여 미 제8군에 배속되었으며, 미 제10군단사령부는 인천상륙작전부대를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창설시일이 다소 지연되었던 미 제9군단은 9월 23일부터 반격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인천상륙과 반격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9월 29일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시달된 훈령에 따라 북진작전계획을 수립하여 10월 2일 각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명령은 유엔군의 작전지역을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 양분하고, 동부지역에 투입될 미 제10군단을 미 제8군에 배속하지 않고 유엔군사령부가 직접 통제하며, 미 제10군단으로 하여금 원산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북진작전을 조기에 매듭지으려고 한 것이었다.

유엔군사령관은 북진작전에 박차를 가하여 10월 17일 미 제8군이 평양 부근까지 진격하였을 때, 유엔군의 진출한계선을 한·만 국경선에서 남쪽으로 48㎞~64㎞ 떨어진 지점을 연결하는 선천-평원-성진선(일명 맥아더선)으로 변경하였으며, 10월 24일에는 이 한계선마저 철폐하여 한국군과 유엔군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지상군부대들이 가용한 최대한의 전투력을 동원하여 국경선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마침내 초산을 점령하고 압록강변에 최초로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이때가 1950년 10월 26일 14시 15분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25일 국군 제1사단은 운산 북쪽에서 중공군 한 명을 최초로 사로잡은 데에 이어, 다음날에는 국군 제2군단 정면에 수 미상의 중공군과 치열한 교전을 치르게 됨으로써 처음으로 중공군의 출현을 확인하게 되었다.

2. 유엔군과 한국정부의 전쟁 지도

1) 유엔군의 북진 결정과 통한(統韓) 결의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에서 38도선 돌파와 북진에 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한 것은 1950년 7월 중순 무렵이었다. 낙동강전선의 전황이 점차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인천상륙작전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전세 역전의 전망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유엔 미국대사는 8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군의 침략을 물리친 다음에는 북한 주민들도 유엔의 감시 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이는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포석이었다.

이어 미국의 안보보장회의에서는 9월 1일 각 부처의 전쟁지도에 관한 견해를 종합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를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되어 있었다. 안보회의는 유엔군의 작전목표를 북한의 전력을 무력화하는데 두기로 합의하고, 유엔안보리의 6월 27일 및 7월 7일의 결의가 곧 유엔군의 38도선 돌파를 허용한 법적 명분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이나 중공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공군이 참전할 경우에는 정황이 허락하는 한 전쟁을 계속하며, 소련이 개입할 때에는 수세로 전환하면서 세계대전에 대비한다는 조건부의 북진정책을 세우고, 미 합동참모본부를 통하여 9월 15일 유엔군사령부에 예비 훈련훈령을, 9월 27일에는 정식 훈령을 각각 하달하였다.

이때 미 합참은 이 훈령의 내용이 정황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유엔군의 북진작전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통제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이 훈령 속에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권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유엔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규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유엔군이 북한에서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 길을 터놓았다.

이렇듯 전세의 호전으로 고무된 미군은 유엔군의 최초 참전 목표인 한반도의 원상회복이 아닌 유엔군의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유엔 회원국 중 대다수의 국가들이 미국의 북진결정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을 비롯한 8개국은 한반도의 인위적인 분단을 없애고 유엔의 권능을 확립한다는 기조위에서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하였다. 이 결의안은 10월 7일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른바 10·7 통한 결의안이었다.

10·7 결의안은, 6월 27일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군 격멸을 위한 유엔군의 북진을 승인한 조치라면, 군사작전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통일의 절차를 규정하는데 역점이 주어진 내용이었다.

2) 한국정부의 점령정책

유엔군사령부는 낙동강방어선에서의 총반격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이 38도선 부근까지 진출한 9월 29일 모든 전투부대에 대하여 일단 진격을 멈추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오직 북진을 단행하여 그들의 재남침 능력을 말살하고 북한 전역을 되찾아 국토를 통일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유엔군의 진격 중지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유엔군이 어떻게 결정하든 한국군은 진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만일 유엔군이 이를 반대한다면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했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마저 환원시키겠다고 하였으며, 그날로 한국군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에게 북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일권 소장은 군 지휘체제상의 혼선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과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전술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동해안전선의 한국군으로 하여금 38도선 북쪽 기사문리 부근의 감제고

지를 점령하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리하여 동해안 전선의 서림과 인구리 일대에 전개한 한국군 2개 사단은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므로 북한지역의 통치권은 의당 한국정부가 행사해야만 한다는 확고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유엔의 한국통일 결의에 따른 유엔입법조치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정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10월 10일 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점령한 것을 계기로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곧 북한 점령지역에 대하여 독자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조치였다.

이 대통령은 유엔의 결의 내용을 통고받자, 10월 16일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의 계엄사령관이 이북지역에 계엄령 포고문을 발표하였고, 정부가 평양시장을 임명하는 등 유엔결의에 불복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지역에는 한국정부가 파견한 기관과 유엔군사령부의 행정기관이 병존하여 활동하는 형국이었다.

유엔군사령관과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몇 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유엔군이 군정요원을 임용할 때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마침내 마무리 지었다. 그 후 한국정부는 경찰관 4천여 명을 북한지역에 파견 중이라고 발표하여 적극성을 보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북한 통치문제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3. 후방지원 체계의 정립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시기 후방지원 체제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체계를 갖추어갔다. 인사・군수・민사지원은 전쟁초기 초보적인 체제를 수립하

는 단계에서 벗어나 크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부대의 증개편에 소요되는 병력을 충당할 수 있었으며, 피난민 구호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반격작전 시기 남한지역의 수복과 더불어 실시한 제2국민병 등록은 병력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해 주었고, 카투사의 국군 복귀도 전투와 복무의 경험이 있는 병력이 국군에 보충되어 새로이 창설되는 부대의 기간요원이 되었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기간 급박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됨에 따라 업무능력의 효율성을 약화시킨 측면도 있었다.

이 기간에는 군수지원부대의 노력이 특별히 요구되었다. 전투부대의 책임지역이 북한으로 확대되자 무엇보다 전투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기술병과부대들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공병부대들은 도로의 보수와 신설에, 통신부대들은 부대간의 연락에, 그리고 병기와 병참부대들은 전선 부근의 전투부대 지원에 각각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의무부대들도 사상자를 근접지원하고 후송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전국적으로 야전병원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의무부대 역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었다. 조달과 보급체계도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전쟁기간 내내 이 시기에 마련된 체제로 운용 유지될 수 있었다.

한편 민사지원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지원으로 크게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남한 주민 지원은 안심하고 생업에 돌아가 자유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고, 북한 주민 지원은 자유체제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정부의 조치나 군의 작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북진작전기간 중 사상적, 정신적 무장이 강조되었다. 북으로 진격하는 부대들은 승리감에 도취된 장병들이 자칫 점령군을 자처하여 대민피해를 끼칠 우려도 있었고 또 북한이 국군에 대한 온갖 불온한 선전공작을 할 가능성도 농후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신 무장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정훈업무가 어느 때 보다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집필 : 양영조)

주 (註)

1)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 MacMillan, 1960)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1989, p. 98 ; 軍事科學院,『中國人民志願軍 韓國戰爭史』 1(北京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 2000) ; 오규열(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1권,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129.
2) 중공군 총참모장 대리 섭영진(攝榮臻)은 주중 인도 대사 파니카(Sardar M. Panikkar)에게 "중국은 미국이 38도선을 돌파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軍事科學院, 위의 책, pp. 202-206.
3) 軍事科學院, 앞의 책, pp. 206-208 ;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USGPO, 1972), p. 197.
4)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Vol. Ⅲ Part, 1978, USGPO,, 전사편찬위원회 역,『미 합동참모본부사』(상), 삼아, 1990, pp. 189-191.
5)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pp. 192-193.
6) Allen S. Whiting, 앞의 책, p. 279.
7) 대한민국 외무부,『한국외교의 20년 부록』, 외교연구원, 1966, pp. 336-338 ; 軍事科學院, 앞의 책, pp. 211-212.
8)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필리핀 등 8개국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5차 유엔총회에 상정되었다.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93-194.
9)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pp. 188-189.
10) 위의 책, p. 188.
11) 軍事科學院, 앞의 책, pp. 209-210 ; 위의 책, p. 189.
12) 軍事科學院, 앞의 책, p. 212 ; Allen S. Whiting, 앞의 책, p. 154.
13) 정일형,『유엔과 한국문제』, 신명문화사, 1961, pp. 25-26.
14)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p. 188.
15) 국사편찬위원회,『북한관계자료집』 제16권, 1989, pp. 162-166.
16)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한국전쟁』 제2권, 명성출판사, 1987, pp. 80-81 ; 북한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조선전사』 제26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207-229.
17)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제4권, 보진제, 1971, p. 19. 김책은 1950년 7월 4일 북한군 전선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1951년 1월 4일 평양에서 미 공군 폭격의 의해 폭사하였다.
18) 대한민국 국회,『국회 50년사』, 1981, p. 152.
19) 위의 책, pp. 156-161.
20) 병무청,『병무행정사』(상), 병무청, 1985, pp. 152-159. 그 외에도 기간 중 전재 지역의 국고금 조치에 관한 건(9. 27) 등이 공포되었다. 국방부 정훈국,『한국전란 1년지』, 1951, pp. C47-C85.
21) 조병옥 내무장관, '공비지역의 동포에 고함'(1950.9.17),『한국전쟁사』 제4권, p. 39.
22) 국방부 정훈국, 앞의 책, pp. C85-C87.
23) 이승만 대통령, "남북동포는 협조하여 국토통일에 매진하라"(1950.10.21), 위의 책, p. C18.
24) 국방부 정훈국, 앞의 책, pp. C29-C31.
25) 위의 책, p. C31.
26) 위의 책, pp. C31-C33.

27) 대한민국 국회, 『국회 50년사』, pp. 162-164.
28) 유관종, 『한국경찰사』, 현대경찰문고, 1982, p. 105.
29)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제26권, p. 101.
30)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서라벌인쇄, 1988, pp. 104-105.
31)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52(Unpublished), pp. 147-146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pp. 370-387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 명지출판사, 2000), pp. 120-135.
32)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28.
33)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1980, p. 424.
34)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 382.
35)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398.
36)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398.
37)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 398. 국군 제8사단은 육본의 영천전투 지휘권 일원화 조치에 따라 1950년 9월 6일부로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었다.
38)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 (New York : McGraw-Hill, 1966), pp. 349-350.
39) JSPOG는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의 약어이다.
4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USGPO, 1972), pp. 82-85.
41) 위의 책, pp. 141-146 ;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pp. 489-490.
42) 미 극동군사령부는 일본에 있는 모든 부대와 장차 도착예정인 여러 부대들을 그의 예속 하에 넣게 되었다.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57-158.
43)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p. 184. 미국은 1950년 8월 1일 소련의 말리크가 복귀하여 유엔안보리 의장직을 맡음으로써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더 이상 안보리를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되었다.
44) 대한민국 외무부, 『한국외교의 20년 부록』, pp. 336-338.
45)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p. 185.
46) 「동아일보」 1950년 10월 19일자.
47) 유엔군의 북한지역 군사작전은 중공과 소련의 군사적 개입의 의도나 징후가 없다는 전제 하에 허락된 것이었고, 10월 2일 유엔군의 북진한계선을 설정한 것도 중공과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p. 179.
48)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82-183.
49)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 194.
50) 서동구 편역, 『한반도 긴장과 미국』, 대한공론사, 1977, pp. 167-173.
51) GHQ UNC, *UNC Operation Order NO.2*, SN100(SN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이하 같음) ; EUSAK, *Administration Order NO.26*, SN1358.
52)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3권, 을유문화사, 1972, p. 129.
53) 국방부 정훈국, 앞의 책, pp. B57-58.
54) 한국군 제1군단 민사처장 유원식 소령이 <북한시정요강>을 작성하였다. 「유원식 소령 증언록」.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55)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제3권, pp. 130-133.
56) GHQ UNC, *Office of the Commander in Chief, 16 Oct. 1950*, NO.7, SN100. 이 보고서는 유엔군사령부가 15일마다 유엔사 작전결과를 미 국방부에 보고한 내용이다.

57)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앞의 책, pp. 202-203.
58) 위의 책, pp. 206-207
59)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30년사』, 1981, pp. 220-221.
60) 국방부 정훈국, 앞의 책, p. A77.
61) 위의 책, pp. C17-18.
62) 위의 책, p. C18.
63) 위의 책, p. C22.
64) 위의 책, pp. C23-24.
65)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에서 군사정부를 수립하지 않았고, 행정관도 군인들 대신에 민간인을 임명하였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 군정은 아니었으나, 여기에서는 민간 정부의 점령정책과의 차별을 위해 군정이라고 하였다.
66) 「동아일보」 1950년 10월 14일자.
67) 「조선일보」 1950년 10월 29일자.
68)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 p. 334.
69) 국방부 정훈국, 앞의 책, p. C66.
70)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 p. 303.
71) 국방부 정훈국, 앞의 책, p. C66.
72)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1956, p. 6.
73) 육군본부, 『육군인사역사』 제1집, p. 483.
74)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p. 39.
75) 육군본부, 『병과별부대역사』, 1959, p. 190.
76) 육군본부, 『육군인사역사』 제1집, p. 318.
77) 위의 책, p. 331. 연말까지 법무감실이 처리한 사건은 사상법 4,103명, 도망범 209명, 재산범 8명, 기타 571명 등 총 4,891명이었다.
78) 위의 책, p. 379.
79)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 행정편』 제2집, 1958, pp. 24-34.
80)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제1권, 1970, pp. 1-7.
81)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 제1권, 1961, p. 223.
82)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p. 265.
83)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는 육본 직할로 1950년 9월 26일에서, 경남지구 병사구사령부는 9월 20일 부산에서, 제주도지구 병사구사령부는 12월 16일 제주에서 각각 창설되었다. 기타 지구 병사구사령부는 1951년 4월 20일에 창설되었다.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pp. 164-165.
84) Terrence J. Gough, *US Army Mobilization and Logistics in the Korean War : A reserch Approach* (USGPO, 1987), p. 48.
85) 육군종합학교, 『실록 6·25한국전쟁과 육군종합학교』, 1995, 종합학교전우회, p. 130.
86)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p. 180.
87) 헌병사에서는 헌병교육대의 개교 일자를 1950년 8월 15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이 시작된 것은 8월 28일부터였다. 헌병사령부, 『한국헌병사』 제3편, 1953, pp. 22-32.
88) 육군본부, 『병과별 부대역사』, p. 71.
89) 통신감실, 『통신병과사』 제1집, 1982, p. 446.
90) 육군본부, 『군수변천사』, 1995, pp. 1004-1107.
91) 「육본 일반명령 제85호」(1950.10.12), 육군본부, 『육군인사역사』 제1집, 1969, p. 473.

92) 「육본 작전명령 제217호」(1950.10.23), 위의 책.
93) 부산 구포의 제3, 제주의 제5 그리고 삼랑진의 제6훈련소 등에서 각각 훈련이 실시되었다.
94)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 제2집, p. 269.
95)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pp. 278-280.
96) 육군본부, 『육군인사역사』 제1집, p. 148.
97) 위의 책, pp. 595-596.
98) 「대통령령 제384호」(1950년 9월 16일), 『육군인사역사』 제1집, p. 596. 1950년도에 현지 임관한 장교는 5,049명에 이르렀다.
99) 1951년 8월 10일 1등이 태극, 2등이 을지, 3등이 충무, 그리고 4등 무공훈장이 화랑무공훈장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대통령령 제385호」(1950년 10월 18일) ; 국방부 정훈국, 위의 책, p. C62.
100) Hq US Army Forces,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 1950(Unpublished), pp. 11-49.
101) 헌병사령부, 『한국헌병사』, p. 383.
102) USA Army, Military History Office,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San Francisco, California : 1960), p. 6.
103)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 1985, p. 91.
104) 전사편찬위원회, 『국방부사』 제1집, 1954, pp. 153-154.
105)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 p. 291.
106) 육군본부, 『6·25전쟁 후방전사, 군수편』, p. 54.
107) 육군본부, 『6·25전쟁 후방전사, 군수편』, p. 87.
108) 육군본부, 『군수변천사』, 1995, pp. 1004-1055.
109) 육군본부, 『6·25전쟁 후방전사, 군수편』, p. 295.
110)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제1권, pp. 1-8.
111)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 제2집, pp. 96-104.
112) 공군본부, 『공군 발전 약사』 제1권, pp. 81-82.
113) 육군본부, 『군수변천사』, pp. 1004-1006.
114)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 p. 367. 초기전투에서 군량 66%를 유기 방치하였기 때문에 연말까지 백미 573,847가마, 정맥 1,588,522kg을 국내 조변해야 했다.
115) 육군본부, 『6·25전쟁 후방전사, 군수편』, pp. 170-173.
116) 육군본부, 『육군의무약사』 제1집, 1970, pp. 43-44.
117)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행정편』 제2집, pp. 55-56.
118)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 p. 383.
119)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pp. 375-376.
120) 육군본부, 『6·25전쟁 후방전사, 군수편』, p. 368, p. 374.
121) Hq US Army Forces,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 pp. 17-24.
122) 국방부 정훈국, 앞의 책, pp. C62-C63.
123) 「동아일보」 1950년 10월 12일자.
124) 국방부 정훈국, 앞의 책, p. A77.
125)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 30년사』, p. 74.
126) 국방부 정훈국, 앞의 책, p. C61.
127) 위의 책, pp. D39-D40.



제 3 장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작전 준비
제 3 절	인천상륙작전
제 4 절	서울탈환작전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부터 수도탈환에 이어 의정부 탈환에 성공한 10월 3일까지 미 제10군단(미 제1해병사단, 미 제7사단, 국군 제1해병연대, 국군 제17연대 등)이 북한군 서울지구방위사령부 예하 부대들을 격퇴한 작전 내용이다.

1950년 6월 29일 한강방어선을 시찰한 맥아더 원수는 북한군이 남진을 계속할 경우 장차 인천으로의 상륙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미 지상군의 참전이 결정된 나흘 뒤에 이미 일본에 주둔한 미 제1기병사단으로 7월 하순에 인천상륙작전을 단행할 수 있도록 상륙훈련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한국군과 미군이 금강-소백산맥 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는데 실패하자 일단 최초의 계획을 보류시키고, 대신 본격적인 준비를 위하여 합동전략기획단(JSPOG)을 편성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때 크로마이트(Cromite) 작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상륙계획은 목표가 인천이라는 점에서 계획 초반부터 미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미 해군의 상륙작전 전문가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논란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원수는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지적된 인천의 자연적인 장애요소가 오히려 북한군으로 하여금 인천에 대한 방비를 허술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허점을 역이용할 경우 기습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소신을 관철하여, 급기야 미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아내었다. 이에 따라, 유엔 해군과 공군은 9월 7일부터 14일까지 동해와 서해에서 양동작전을 펼쳤으며, 이 기간에 유엔 공군은 총 3,250여 회나 출격하여 전략·전술 표적을 강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제7합동기동부대는 미 제7함대 세력을 주축으로 한 유

엔 해군 261척의 함정과 미 제10군단 예하 한국군 2개 연대를 포함한 미군 2개 사단 등 7만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지상군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9월 15일 02:00시에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때 북한군의 저항은 미약하였다. 다음날 새벽 미 제10군단은 인천 일대에서 저항하는 북한군을 소탕한 후, 18일에는 김포공항을 탈환하고 영등포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었다.

19일, 서울탈환작전으로 전환한 미 제10군단은 행주-능곡-연희동, 영등포-마포, 노량진-서빙고-남산 등 3개 방면에서 서울로 진출하여 시가전을 치른 끝에 9월 28일 서울을 완전 탈환하였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의 일부 부대는 수원-오산 방향으로 진출하여 26일 낙동강전선에서 북상 진격한 미 제1군단 선발대와 연결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29일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유엔군사령관이 임석한 가운데 서울 수복을 경축하는 행사가 거행되었으며, 한국정부는 이날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하였다.

<표 3-1> 상륙군의 지휘계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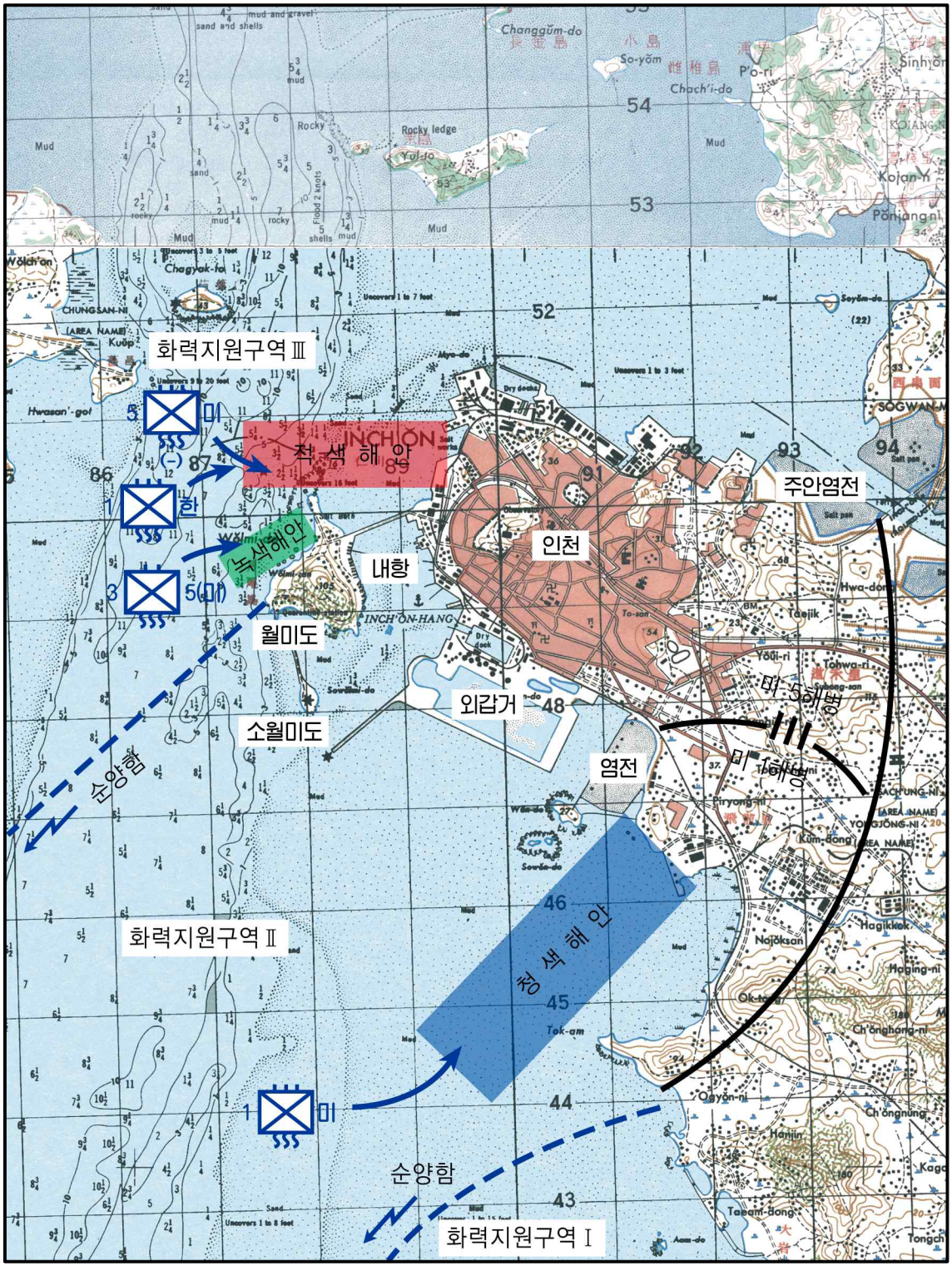
<표 3-2> 제7합동기동부대 세력

함대 및 참여부대	지휘관
제7합동기동함대	해군중장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제90기동함대(공격함대)	해군소장 도일(James H. Doyle)
제91기동함대(봉쇄 및 엄호함대)	영국 해군소장 앤드류스(William G. Andrews)
제77기동함대(고속항공모함대)	해군소장 이웬(Edward. R. Ewen)
제99기동함대(공격함대)	해군소장 핸더슨(George R. Henderson)
제79기동함대(군수함대)	해군대령 오스틴(Barnard L. Austin)
제10군단	육군소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제1해병사단	해병소장 스미스(Oliver P. Smith)
제7해병비행단	해병소장 해리스(Field Harris)
제7보병사단	육군소장 바아(David G. Barr)
한국함대(총참모장)	총참모장 해군소장 손원일
한국해병대	사령관 해병대령 신현준
한국육군 제17연대	육군대령 백인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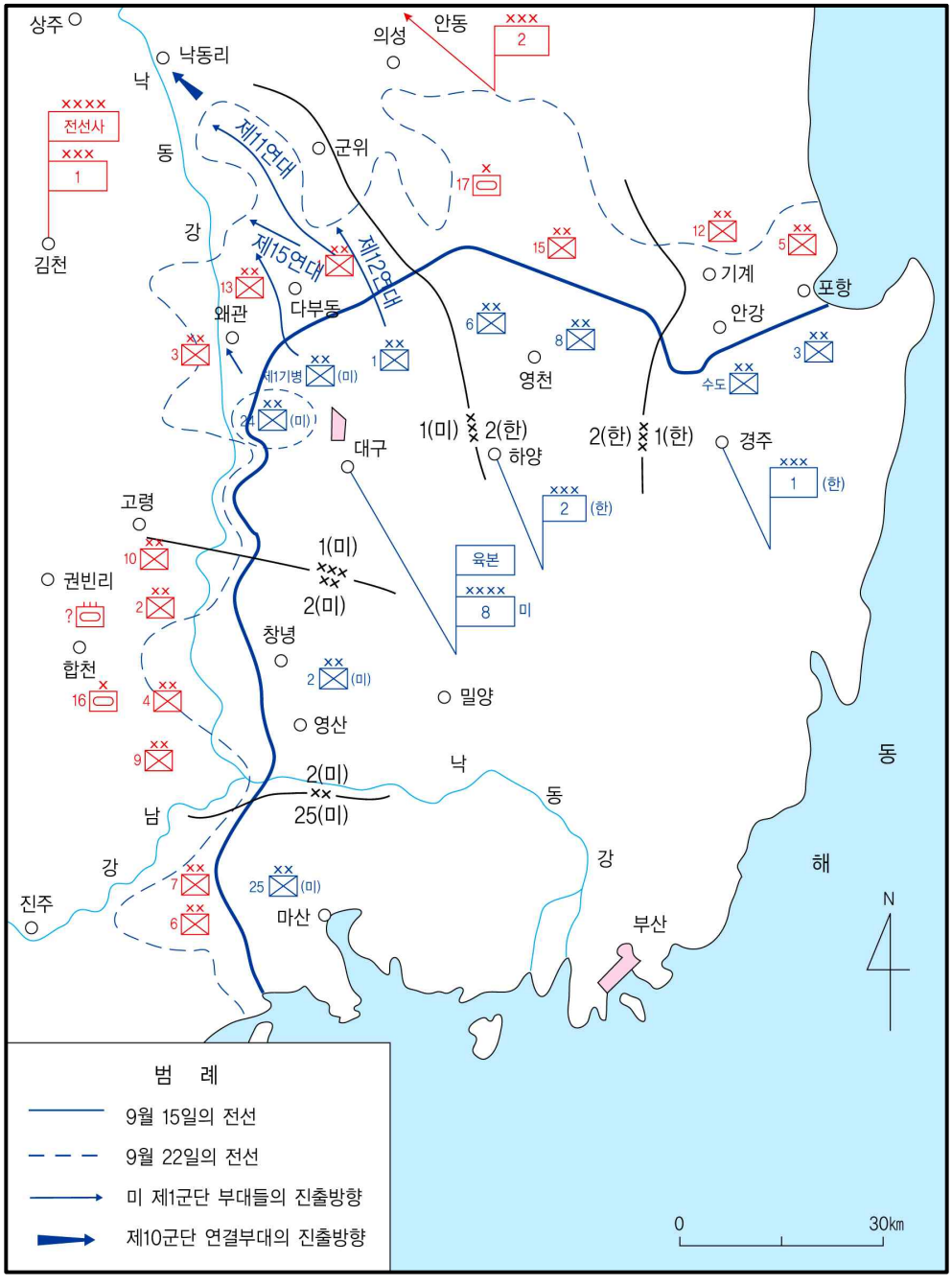
지상군 총병력	함정세력
75,000명	총 261척(미국 226척, 한국15척, 영국 12척, 캐나다 3척, 호주 2척, 뉴질랜드 2척, 프랑스 1척 등)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기습을 달성하여 낙동강전선에 집중 투입된 북한군의 주력을 포위할 수 있게 되었고, 개전 이후 수세일변도의 방어 작전에서 벗어나 이때부터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세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이 작전은 유엔과 자유우방국가들이 38도선에 의한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타파하고 통일의 실현을 위한 유엔군의 군사작전을 지지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한 의미 깊은 작전이었다.

<상황도 3-1> 인천상륙작전계획



<상황도 3-2> 낙동강전선에서의 반격



제 2 절 작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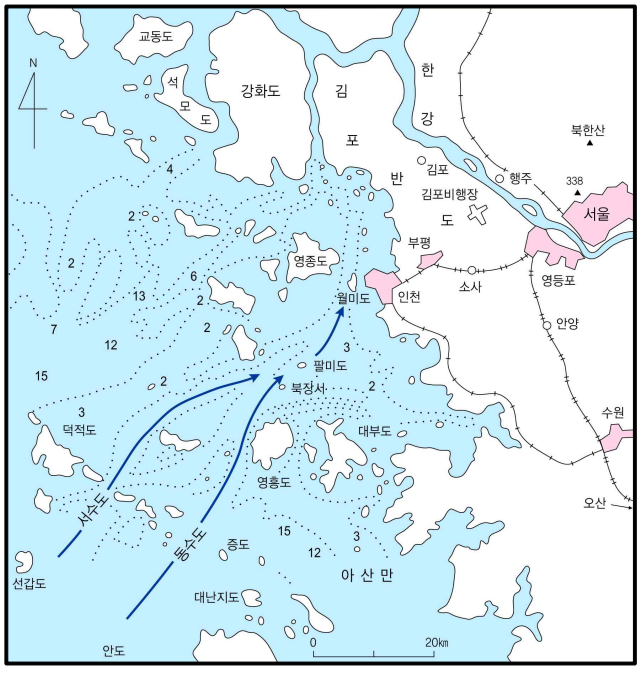
1. 작전지역과 전선 상황

1) 작전지역의 특징

서해로부터 인천으로 접어드는 해상 접근로는 크고 작은 섬들과 암초, 그리고 해저에 산재해 있는 모래톱이나 갯벌로 인해 지형이 험한 편이다. 접근로상의 초입에 해당되는 덕적도(德積島)와 영흥도(靈興島)에는 좁고 굴곡이 심한 동서 수로 2개만이 있을 뿐이다. 동서 수로는 인천으로의 길목을 확인시켜 주는 팔미도(八尾島) 전방에서 합류되므로, 결국 거기서부터 인천항에 이르기까지 약 15㎞에는 넓은 갯벌 사이로 뻗어있는 단 하나의 수로가 있을 뿐이다.[1)]

따라서 인천으로 향할 유엔 해군의 대형 함정들은 안도에서 시작하는 동수로에서부터 큰 위험을 감수하고 접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좁은 수로는 간만에 따라 3~5노트의 조류가 가속 또는 감속한다.[2)]

<상황도 3-3> 인천 해역



이러한 수로를 통해 가까스로 인천항에 접근하면 눈앞을 가로막는 월미도(月尾島)가 나타난다. 방파제로 인천 본토와 연결된 월미도는 남쪽의 소월미도와 이어져 그 후방에는 소규모의 내항(內港)을 형성한다. 해상으로부터의 항만 접근로를 가로막고 감제하는 월미도는 당시 동굴 속의 무수한 북한군 포진지와 참호들로 요새화되어 있었다. 월미도의 제압여부는 상륙군의 상륙작전 개념, 즉 기동계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천 본토에 대한 주 상륙을 사실상 분산 상륙의 형태로 적색 및 청색해안에 실시하는 데에는 해안문제 때문이었으나 월미도의 존재도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인천에는 상륙전에 적합한 해안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작전에 있어서 부족하나마 적색, 청색, 녹색 해안으로 각각 지정되었다. 월미도에서는 인천 본토로 연결되는 방파제가 대체로 직각을 이루며 북쪽으로 뻗은 이 섬의 꼬리 부분에 서쪽으로 약 200m 폭의 해안(녹색해안)이 있다. 인천 본토 쪽에서는 월미도와 방파제가 이어지는 곳으로부터 북쪽에 암벽이 있는 약 300m 길이의 해안과, 그리고 당시의 인천 시가지 남쪽 염전, 즉 원도의 동쪽 제방으로 이어지는 작은 해안이 각각 적색과 청색 해안으로 지정 사용되었다.



1950년 9월 14일 월미도와 인천

<상황도 3-4> 1950년의 인천



적색해안에서는 돌격상륙부대가 상륙주정(LCVP)으로부터 높은 안벽을 기어오르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사다리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 안벽의 배후에는 지금은 자유공원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응봉산[3]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사이의 공장지대와 뒤섞여 형성된 주택가는 다시 산허리를 양쪽으로 감싸고 내륙의 시가지 쪽으로 발달해 있었다. 간조 때 해안에는 검은 갯벌이 약 2㎞까지 드러난다.

청색해안은 만조 때에도 그 수심이 낮기 때문에 상륙주정 운용상 제한을 받아 수륙양용차(LVT)를 사용해야만 했는데, 염전 남쪽으로 이어지는 벌거숭이의 작은 야산과 암벽으로 이루어진 이 해안 역시 내륙 쪽에는 공장지대가 가로놓여 있어서 출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간조 때는 이 해안에도 약 5㎞ 정도의 갯벌이 바다 쪽으로 펼쳐졌다. 만조 때에 물속에 잠기는 갯벌들을 지나 상륙함선들이 해안에 접안하려면, 상륙주정은 최소 7m, LST는 8.8m의 수심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수심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하다는 인천의 경우에는 월 1회 정도에 길어야 3~4일 밖에 안 되는 기간에, 그것도 만조 때에만 기대될 뿐이었다.[4]

이러한 자연적 악조건으로 말미암아 인천해안에서 상륙작전이 가능한 일자라고는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과 이 날짜들을 포함한 2~3일 뿐이었다. 계절적으로 10월은 작전시기로서는 너무 늦은 편이어서 9월 15일이 당시로서는 최

선의 일자였다. 공교롭게도 9월 15일의 조석표는 시간상의 제약까지 있었다. 즉 이날의 만조시간은 일출 45분 뒤인 06:59분, 그리고 일몰 37분 뒤인 19:19분이었다. 더구나 약 3시간 정도의 만조 시간 중에 돌격부대와 그들의 장비 및 보급품을 최대한 양륙시켜야 하며, 그 뒤로는 다음날 새벽 다시 만조가 되기까지 모든 함선들의 접안이 일체 불가능하게 된다. 녹색과 적색해안에서는 그런대로 만조 중 LST접안이 가능하나, 청색해안에는 소형선박만이 접안이 가능할 뿐이었으므로 군수지원 면에 큰 부담이 있었다.

또한 인구 25만의 인천 시가지는 상륙군의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해안에 발판을 구축하고 목표를 탈취하여 야간전투에 대비한 진지편성을 하기에는 일조시간이 너무나 짧았다. 작전이 내륙으로 진전되면, 김포비행장이 조기에 확보되어야 하며 수도탈환에 앞서 한강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다. 인천은 상륙작전에서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5)]

2) 전선 상황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1950년 8월 초 한국에 도착하는 미국의 증원부대를 거의 전부 마산 정면에 집중시켜 진주를 탈환하기 위한 일대 반격작전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이무렵 대구 북쪽에 가중되던 북한군의 압력을 분산시켜 보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미 제25사단 예하 2개 연대, 미 제5연대전투단 및 미 제1임시해병여단을 주축으로, 미 제25사단장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킨 특수임무부대가 8월 6일 편성되었다. 진동리를 출발한 해병여단은 8월 12일 최종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상륙군 부대편성을 위해 갑작스럽게 철수명령을 받았다.

이 무렵 워커 장군은 숙고한 끝에 적의 위협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낙동강 돌출부(영산, 창녕 지구)에 가장 강력한 예비대의 투입을 결정하였다. 영산 동쪽의 밀양이 적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대구-부산 사이의 주보급로는 물론, 유엔군의 전선이 양단될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표 3-3> 북한군 부대 및 지휘관

제대별 지휘관	계급	성 명	예속 및 배속부대
서울지구방위사령관	중장	최용건	제226독립해병연대・제22연대・제226연대・제107연대(한치한 대좌)・제877항공연대(소궁진 소좌)・제18사단・제9사단 제87연대・독립 제849전차연대・독립 제25여단(최기찬 소장)・독립 제78연대(박한린 대좌)

9월 초 미 극동군 정보판단에 의하면, 북한군은 거의 모든 전투역량을 부산교두보 확보를 위해 낙동강전선에 집중하고 있었고, 서울을 비롯한 후방지역에는 지역 경비부대와 병참선 경비부대 그리고 훈련이 미숙한 신편부대를 배치해 놓고 있을 뿐이었다.

북한에서 발행된 공식 전쟁사인『조선전사』에 의하면, 인천상륙작전에 대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김일성 동지는 적이 상륙을 시도하는 목적은 전선과 후방을 끊으려는 데 있으며 상륙지점은 인천-서울지구라는 것을 폭로하였다. (중략) 상륙기도가 확실해졌을 때 이 지역의 방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서해안 방어사령부를 조직하고 인천-서울 방어부대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게 하였다. 그리고 군산-인천 사이의 서해안 지역에 배치된 경비대, 보안대들을 여기에 소속시키고 그 지역의 전투역량과 기재를 인천-서울지역에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서해안 방어사령관으로 민족보위상 최용건 동지를 임명하였다"고 하였다.[6]

당시 인천지역에는 월미도에 제226독립육전연대 제3대대 소속의 400여 명과 제918해안포연대 예하부대로 하여금 방어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인천 시가지에는 신편 제9사단 예하 제87연대(연대장 대좌 김태모)가 8월 12일부터 인천지역 방어임무를 인계받아 담당하고 있었다.[7]

인천 시가지 중 월미도 제방으로부터 북동쪽 주안 염전까지 5~6㎞의 해안방어는 단대호 미상의 여단인 제884군부대 예하 1개 대대가 배치되어 방어하였다. 북한군 제884군부대 제5대대 대대전투명령(1950. 8. 2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확인된다.[8)]

① 적은 공화국 인민군대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퇴각을 하다가 다시금 군사적 모험으로 인천에 상륙 점령하고 계속 전진하여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점령할 목적으로 덕적도, 용유도(40-80), 영흥도 일대에 함선들을 입항 체류하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 인천항의 기습상륙을 기도하고 있으며 항공으로 인천시 상공을 위협하고 있다.

② 본 대대는 (중략) 해안 일대에 상륙하는 적을 해상에서 결정적으로 격퇴 분쇄하며 방어 구역 우측은 염전으로부터 좌측은 월미도 제방까지이다.

이러한 북한군 작전문서를 분석해 볼 때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2주일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에 배치된 적의 병력규모는 이때만 하더라도 지역경비부대를 포함하여 약 2,000여 명 정도였다. 또한 서울지역에서 경계 중이던 제9사단(-)은 8월 12일에 낙동강전선으로 이동하였으며, 제18사단도 9월 중순경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전에 서울을 출발, 낙동강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때 서울지역의 적 병력은 김포지역의 500명을 포함하여 약 5,500명이었다. 그밖에 9월 4일까지 추가로 증원된 2,500여 명을 합하면 서울-인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적의 총병력은 약 10,000여 명으로 판단되었다.[9)]

낙동강전선에서 미 제8군과 대치하고 있던 전투부대가 인천-서울지역에 증원될 가능성은 경부국도 가까이 대구 주변에 배치된 인민군 제3, 제10, 제13사단이 가장 빨리 증원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었다. 미 극동군사령부는 북한해군이 인천상륙작전을 방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당시 정찰함정 수척으로 구성된 5개 전대가 있었으나 이중 1개 전대만이 진남포 부근에 있었고 나머지는 동해안 원산에 배치되어 있었다. 북한 공군은 성능이 저하된 19대의 소련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륙작전에 영향을 주리라고는 판단되지 않았다.[10)]

북한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확실히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인천항이 지닌 심한 조

수간만의 차이로 대규모 부대의 상륙작전에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사실과, 그들의 계속된 공세로 낙동강전선을 지탱하기에 급급한 한국군과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만큼의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무렵 북한군은 9월 공세를 치르는 동안 낙동강전선에 투입된 부대의 전투력이 거의 소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만 점령하게 된다면 이 전쟁을 승리로 종결지을 수 있다는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들은 다시 한 번 총공세를 감행할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전투부대를 낙동강전선으로 급파하면서 공격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때 북한군은 이를 위해 6개 보병사단과 5개 보병여단 및 2개 기계화여단을 창설하여 지상군병력을 대폭 증강시키기는 했으나, 이들 신편부대의 전투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정황 하에서 9월 초부터 동해와 서해안에 대한 유엔군의 양동작전이 전개되자, 북한군은 비로소 해안경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군이 인천 또는 군산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할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북한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해안지구 방어사령부를 설치하였으나, 이들은 새로운 총공세를 위해 낙동강전선에 병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었던 만큼 전투부대를 서해안에 배치할 만한 여력을 갖지 못하였다.

2. 초기 작전 구상과 경과

1) 상륙작전의 최초 구상

1950년 6월 29일 새벽 맥아더 장군의 기상 시간은 바로 4일 전에 북한군이 기습남침을 개시했던 그때만큼이나 이른 시각이었다. 이는 맥아더 장군이 한국의 상황을 직접 살피고 장차 미국이 지원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스스로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서였다.[11]

맥아더 장군의 전용기인 바탄(Bataan)호가 전투기들의 엄호를 받으면서, 방금 미군 수송기 1대가 적기의 공중 공격을 받아 불타고 있는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것은 이날 11:15분경이었다. 맥아더 장군의 한국전선 시찰은 한국국민의 항전결의를 공고히 하려는 조치인 동시에, 미국의 지원을 즉각적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표였다.[12]

비행장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무초 주한미국대사, 그리고 처치(John H. Church) 장군의 영접을 받은 맥아더 장군은 수원 농업시험장에 위치한 전방사령부 상황실에 들러 처치 장군과 그의 참모들로부터 최근 전황을 보고 받았다.[13] 약 1시간에 걸친 브리핑이 끝난 뒤, 맥아더 장군은 한강방어선을 시찰하면서 대처 방안들을 생각했다.[14] 그는 약 1시간 동안이나 한강변 언덕 위에 머물면서 작전을 구상했다. 주일 미군의 가용한 수송수단,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의 획득방법, 일본의 방위문제, 그리고 한국군의 재건과 그 사기의 진작 등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그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인천상륙작전이 그려졌고, 그것은 패배를 승리로 일변시킬 수 있는 반격작전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15] 그는 한강변 언덕위에서 구상했던 작전에 대하여 훗날 그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 공군과 해군을 지원해도, 거세게 남진하는 적을 한국군이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가능한 방법이라고는 우리 지상군의 즉각적인 투입뿐이었다. 여기서 내가 얻고자 한 해답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난국에 대처하는 길은 내 휘하의 주일미군을 투입하는 것이다. 설사 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열세에 놓일지라도, 전략적 기동방법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역경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절망에 빠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선택이었다.[16]

맥아더 장군의 생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수원으로 돌아와 이승만 대통령과 요담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기본구상을 발전시켰다. 그는 전선 시찰결과 보고와 함께 현 전선을 고수하고 최근의 실지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미 지상군의 한국전선 투입으로만 보장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1개

연대전투단을 즉각 투입하고 그 뒤에 있을 조기반격을 위해서는 주일 미군 중의 2개 사단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6월 30일, 미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하였다.[17]

2) 블루하트 작전계획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이 한강전선을 시찰하고 복귀한 직후인 1950년 7월 첫 주에 그의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에게 하달한 "서울의 적 병참선 중심부를 타격하기 위한 상륙작전계획을 고려하고 상륙지점을 연구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조기에 계획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맥아더 장군의 작전참모부장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이 이끄는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JSPOG)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블루하트(Blue Hearts)'라는 암호 명칭이 부여되었다.[18] 연구된 상륙작전의 대체적인 개념은, 남부전선에서는 미 제24·제25사단이 정면에서 반격을 가하고 이와 병행해서 해병연대전투단과 육군부대가 돌격부대로 인천에 상륙하여 내륙으로 진출, 서울을 포위함으로써 적을 38도선 이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한강전선 일대에서 상당기간 적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처음부터 인천을 상륙 대상지역으로 고려한 최초의 상륙작전 기본계획에서는, 불완전하게나마 상륙전 훈련을 받은 주일 미 제1기병사단을 상륙부대로 내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선 상황이 급변하여 적전상륙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보다 숙련된 상륙부대인 해병부대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어쨌든 당시 극동지역에는 미 해병대가 전무하였고, 하와이 진주만의 미 태평양함대 해병대사령부가 극동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그 예하부대인 제1해병사단이 캘리포니아주 펜들턴(Pendleton) 기지에. 그리고 그 근처에 제1해병항공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7월 2일 조이 제독의 조언을 받아, 해병 자체 항공부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는 미 해병 1개 연대전투단의 극동파견을 워싱턴에 건의하였으며,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7월 3일에 승인받았다. 이를 계기로 구체적인 상륙작전 개념이 형성되었다.

7월 4일에는 미 극동군사령부에서 상륙작전을 위한 최초의 공식 회의가 소집

되었다. 이 회의에는 상륙전 전문가인 도일(James H. Doyle) 제독과 미 해병대의 포니(Edward S. Forney) 대령, 그리고 몇몇 해군 및 해병장교들이 참석하였다. 당초 미 제8군의 상륙전 훈련을 위하여 파견되어 있던 미 제1상륙전대와 항공함포 연락중대(ANGLICO : Air and Naval Gunfire Liaison Company)는 한국으로 파병되는 미 제8군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임무에 이미 전용되고 있었다.

미 해군·해병대 장교들은 추진 중인 상륙작전에 대하여 구체적인 윤곽을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듣고 나서, 그 계획의 대담성에 한동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들 특유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작전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도일 제독과 그의 제1상륙전대는 해군계획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여야 했고, 포니 대령과 그의 교관들은 미 제1기병사단에 준비명령이 하달되자, 이 사단의 계획수립 및 상륙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였다.[19]

그러나 당시 블루하트 계획은 북한군을 38선 너머로 격퇴시키려고 기도하고 작전일자를 7월 22일로 하였으나 적의 남진을 저지할 미군과 국군의 힘이 부족하여 7월 10일경에 이르러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의 필요성이 근본적으로 사라졌다거나 그 작전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이 작전의 연구결과는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작전계획에 기초가 되었다.[20]

2. 크로마이트 작전계획의 발전

1) 크로마이트 기본계획

맥아더 장군의 상륙작전 구상은 미 해병사단의 증파를 거듭 요구하는 동안 미 극동군사령부 안에서 극비리에 다시 추진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상륙지역으로 인천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작업을 다시 맡게 된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은 인천, 군산, 해주, 진남포, 원산, 주문진 등 가능한 모든 해안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검토하고

상이한 몇 개의 계획을 발전시켰다. 이들이 마련한 크로마이트(CROMITE) 작전계획의 초안이 7월 23일 극동미군 사령부의 관계 참모부서에 회람되었다.[21]

맥아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을 계획하게 되자 미 극동군사령부는 계획 100-B, 계획 100-C 및 계획 100-D의 세 가지 안을 내놓게 되었다. 계획 100-B는 서해안 중 인천에 상륙하는 것이고 계획 100-C는 군산에, 그리고 계획 100-D는 동해안 주문진 근방에 상륙하는 것이었는데 계획 100-B는 또한 인천상륙과 동시에 미 제8군이 낙동강방어선 정면에서 반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계획안 중 계획 100-B가 최종 채택되었다.

스트러블(A. D. Struble) 해군중장, 도일 해군 소장과 스미스 소장이 작전계획 수립과 그 실행책임을 맡게 되었다. 스트러블 중장은 남태평양부대 사령관의 참모로서 상륙작전의 경험을 쌓았던 것이다. 당시 미 해군에서는 상륙작전에 대하여 그 이상 경험을 가진 고급장교는 없었으나, 도일 소장의 참모들이 7월 초순부터 상륙작전을 연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그 후 관계지휘관과 참모들은 사세호(佐世保), 고오베(神戶), 도쿄(東京) 등지에서 일련의 회의를 거쳐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천상륙작전계획은 대체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각 부대의 활동에 관한 세부계획은 조속히 수립되어야 했다. 스미스 소장의 지휘전대와 선견부대 계획 참모들은 8월 22일 즉시 캘리포니아 펜들톤 캠프(California Pendleton Camp)에서 도쿄로 와서 미 해군함정 마운트 맥킨리(Mount MacKinley) 함상에 전진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세부계획을 포함한 복잡한 작전계획은 23일간이라는 짧은 시일 안에 완성을 보았다. 그리고 사실상 많은 함정이 9월 10일까지는 출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 작전 계획은 23일보다도 더 짧은 기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었다.[22]

2) 상륙군 부대 편성

(1) 미 제10군단사령부 창설

인천상륙작전은 작전지역의 규모와 작전 여건들에 비추어 보면, 작전에 투입된 2개 사단 병력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었다. 맥아더 장군은 상륙작전의 기본

계획을 확정한 후 즉각 상륙군 부대의 편성에 착수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8월 15일에는 계획된 상륙작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러프너(Clark L. Ruffner) 소장 주도 아래 '특별계획참모단본부'라는 새로운 참모진을 구성하였고, 상륙부대를 제10군단으로 편성하기로 결심하고 8월 21일에 육군부의 승인을 받았다.[23] 특별계획참모부는 '크로마이트' 작전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미 극동군사령부의 훈령을 작성, 하달하기 위한 작업을 전담하였으며, 이들은 후일 미 제10군단사령부 창설시 핵심 참모요원이 되었다.

어느 날 작전에 관한 대화 끝에 알몬드 소장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묻기를 "이번 상륙군 부대의 지휘관에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고 하자, 사령관은 서슴지 않고 "바로 당신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서울을 탈환한 다음에는 다시 극동군 참모장으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하였으며,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알몬드 소장과 주요 참모요원들을 제10군단에 임시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24]

<표 3-4> 아군 참가 부대 및 지휘관

제대별 지휘관	계급	성 명	예속 및 배속부대
미 제10군단장	소장	알몬드 (Edward M. Almond)	
미 제1해병사단장	소장	스미스 (Oliver P. Smith)	제1연대(Lewis B. Puller 대령), 제1대대(Allan Sutter 중령), 제3대대(Thomasv Ridge 중령) 제5연대(Raymond Murray 대령), 제1대대(George Newton 중령), 제2대대(Roise 중령), 제3대대(Rovert D. Litzenberg 중령) 제7연대(Homer L. Litzenberg 대령)
			한국군 제1해병연대(신현준 대령), 제1대대(고길훈 소령), 제2대대(김종기 소령), 제3대대(김윤근 소령)
미 제7사단장	소장	바르 (David G. Barr)	제31연대(Richard P. Ovenshine 대령), 제32연대(Beauchamp 대령), 제1대대(Don Faith Jr. 중령), 제2대대(Charles M. Mount 중령)
			한국군 제17연대(백인엽 대령), 제1대대(유창훈 소령), 제2대대(함성열 소령), 제3대대(노의순 소령)

군단 참모장에는 러프너 소장이 임명되었으며, 그는 8월 6일에 도착하여 이틀 늦게 계획단과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10군단의 주요 지상군부대는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보병사단이었다. 제7사단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해병사단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채 7월 25일부로 스미스 소장이 사단장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제1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이 상륙군으로 선발되었으나 과연 이들이 상륙기일까지 완전한 전투부대로서 충원되고 장비를 갖출 수 있을 지 의문이었다. 이밖에도 제10군단의 주요 지상군부대에는 한국 해병대와 한국 육군 제17연대가 있었는데 이 당시 미국으로서는 1950년 여름까지 극동에서 완전편성의 1개 해병사단을 집결시킨다는 것은 그다지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미 제10군단은 상륙작전의 기본 성격이나 이 작전이 감행될 지역적인 위치로 보아, 미 제8군과는 별도의 지휘계통을 필요로 하였다. 실제로도 워커 장군은 그의 관심이나 노력을 낙동강방어선 이외의 지역에 돌린다거나 그의 참모들을 분산시킬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정된 미 제10군단의 지휘계통은 이 작전 이후에도 계속 미 제8군과는 별도로 유지되었다.[25]

(2) 미 제1해병사단의 편성

미 캘리포니아주 펜들턴 기지에 위치하고 있던 미 제1해병사단은 7월 초에 제1임시해병여단을 편성하여 급히 전선으로 출동시키고 남은 병력 3,386명으로 사령부와 예하 각종 근무지원부대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었다.[26]

맥아더 사령관은 공군과 해군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지를 회복하는 데는 지상군이 개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미 해군참모총장 셔먼 대장((Forrest P. Sherman)은 극동 해군사령관 죠이(C. Turner Joy) 중장에게 1개 해병전투단을 신속히 편성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해병대는 각 기지 수비병력과 약간의 함대해병대 교육요원을 제외하고는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1개 사단도 없었다. 미 해병대에서는 자체병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한국에의 참전을 열망하였고 맥아더 장군 역시 해병대를 원하였던 것이다.

7월 10일 회의에서 맥아더 사령관은 셰퍼드(Lemuel C. Shepherd) 중장으로부터

해병대 투입 사실을 들었다. 세퍼드 중장은 먼저 1개 전투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나머지 사단병력은 단 1개 전투단의 병력도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단의 병력을 완전히 충원하려면 전 함대 해병대를 차출할 수밖에 없었다. 미 합참은 이 문제를 해병대사령관 케이트스 대장에게 모두 위임하였고, 그는 곧 그의 참모들에게 필요한 연구 및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였다. 해병 예비병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것이었다.

이 동안 세퍼드 중장은 죠이 중장과 도일 소장, 그리고 알몬드 소장 및 스트레이트메이어(G. E. Stratemeyer) 제5공군 사령관 등과 회담하며 도쿄방문을 거의 끝내고 있었다.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은 일본의 이다미 비행장을 해병 항공대에 양도할 것이며 해병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해병항공대가 수행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였다.

한편 해병대를 한국전에 참가시키기 위해 여단편성을 서두르는 동시에 제5연대를 중심으로 한 제1임시해병여단을 한국으로 급파하게 되었다. 본래 6월 30일에는 7,789명이었던 것이 여단편성으로 인해 3,386명으로 감소되었다. 제1임시해병여단은 크래이그(Edward A. Craig) 준장의 지휘 하에 7월 14일 샌디에고를 출발하였으며 132명의 장교와 2,452의 사병으로 구성되었다. 3개 전투기대대로 편성된 제1해병전투비행단과 44명의 장교와 484명의 사병으로 구성된 1개 대대의 포병과 약간의 수송, 의무, 공병, 전차, 수륙양용차, 통신, 병기, 수색, 헌병 및 8대의 정찰기, 4대의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으며 한국전에 참가하였다.[27]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 급작스럽게 제1해병사단장으로 임명된 스미스 소장은 펜들톤(Pendleton) 기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첫 임무가 사단을 완전 충원하여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제1해병사단은 한국에 파견된 전투단까지 포함하여 완전한 전투능력을 가진 사단이 되도록 조치되었으며 한국으로의 출발일자는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로 예정되었다. 이리하여 부대편성은 한국에 파견된 제1임시해병여단을 제5해병연대로, 펜들톤 기지에서 편성된 제7해병연대 및 제1해병연대와 더불어 3개 보병연대를 구성하고, 포병으로 된 제11해병연대와 해리스 소장의 해병 제1비행단 등으로 동원부대의 근간을 이

루었다. 8월 7일 맥아더 사령관은 사단병력의 승선과 사단장 및 작전계획수립단의 신속한 공수를 요청하였다. 이날부터 9월 9일까지 미 제1해병사단이 일본의 고베와 부산에서 각각 출동준비를 갖추었다.[28]

(3) 제7보병사단의 편성

미 제7사단은 일본 점령부대로서 1950년 7월 중 제24, 25사단 및 기병사단이 한국으로 출동할 때 장교 140명과 사병 1,500명을 보충해주었기 때문에 인가 병력의 절반도 안 되었다. 특히 화기중대의 초급장교들과 하사관, 기술병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7월 26일에 극동사령부는 제7사단장에게 한국전에 투입할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8월 23일부터 극동군에 전입된 전 장병을 제7사단에 우선 충원시켰다. 부족 병력에 대해서는 한국청년 8,637명을 선발하여 일본에서 미군과 함께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카투사(KATUSA)의 실질적인 시초였다.[29]

이들의 훈련은 포트베닝(Fort Benning) 보병학교와 포트실 포병학교에서 보내온 고참 하사관들에 의해 단기교육을 끝마친 다음 즉시 인천상륙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상륙을 위해 승선할 당시 병력은 한국인을 포함하여 총 24,854명으로 겨우 보병사단의 면모를 갖추었다.

(4) 한국군 부대 편성

한국군으로서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지상군은 제1해병연대와 육군 제17연대였다. 제1해병연대는 제주도에서 약 3,000명의 신병을 모집하고 또한 김성은 부대 2개 중대로 보강하여 1개 연대를 편성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9월 6일 부산에 집결한 다음 미 제5해병연대와 합동으로 상륙전을 위한 단기간의 특수훈련을 받고 9월 11일까지 모든 출동준비를 완료하였다.[30]

육군 제17연대는 수도사단 예하이며 안강, 기계 방면에서 전투 중이었으나 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다. 제17연대는 수도사단에서 배속 해제되고 육본직할이 되었으며 9월 14일부터 양일간 부산으로 이동하였다.[31]

이상의 부대 외에도 각급 미군부대에는 통역, 정보 및 기타의 특수분야에서 상당수의 한국군과 경찰, 그리고 민간인들이 활동하였다. 화랑부대라고도 호칭되던 전투경찰대가 미군부대에 배속되었다. 미 제1임시해병여단에는 낙동강전선에서부터 100여 명 규모의 1개 전투경찰중대가 배속되었으며, 미 제7사단에는 한국군이 충원되던 시기에 100여 명의 전투경찰중대가 3개 보병연대에 각각 배속되어 훈련을 받은 뒤 작전에 참가하였다.[32]

3) 상륙작전 최종 논쟁

(1) 동경회담 논쟁

미 합동참모본부는 8월의 전선 상황에 대한 불안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몇 명의 실무진을 대동한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과 미 해군 참모총장 셔먼 대장 일행이 직접 맥아더 장군과 전황 및 작전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8월 21일 도쿄로 날아왔다. 미 합참은 되도록이면 인천상륙작전을 포기시키려 하였다.

8월 23일 도쿄의 제1생명 빌딩에서는 맥아더 사령관을 위시하여 콜린스 대장, 셔먼 대장 외에 세퍼드 중장,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과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하게 될 제 10군단장 알몬드 소장 및 죠이 중장, 스트러블 중장, 도일 소장 및 기타 참모와 보좌관, 그리고 합동전략기획단(JSPOG) 요원과 해군의 브리핑 장교들이 모여 있었다. 이 브리핑에서 맥아더 사령관에게 명확히 인천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으나 다만 위험한 문제점들을 들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해군고위층 전문가들은 조수 간만의 차와 지형의 두 가지 문제를 들어 인천 상륙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관은 인천 상륙을 실시하려는 이유부터 시작하여 45분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요지로 설명을 하였다.

즉, 그는 "먼저 서울 외곽 15마일밖에 있는 인천이 상륙작전에 의해 점령되고 서울로 진격하여 이를 탈환하게 된다면 서울 이남의 적 보급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다. 전쟁의 역사는 지상군부대 대다수가 보급로가 차단됨으로 인하여 패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만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다면 전쟁을 단축시키게 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많이 감축시키는 반면 동계작전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심리적으로도 이 작전의 성공은 지금까지의 전쟁을 역전시켜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의 패전을 회복하여 극동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고 공산주의를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는 인천상륙작전이야말로 아군이 적의 점령지구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 가장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유엔군 부대가 낙동강방어선에서 적을 몰아내고 북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리고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다른 지역은 전선에서 너무 원거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근거리여서 적 부대의 후방보급로를 차단시키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인천은 군사적 가치 면에서나 지리적 면에서도 가장 유리하고 또한 적이 강력하게 방어되어 있지 않으며 그런데다가 적도 인천상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리라고 믿고 있는 틈을 타서 기습을 감행한다면 성공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견지에서 이 사람은 단호하게 인천에 상륙하는 방안을 세웠다"라고 역설하였다.[33]

(2) 미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승인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사령관의 단독 아이디어이며 작전의 실행을 설득해 나간 과정은 맥아더 사령관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의 하나였다. 조이 중장에 의하면, 셔먼 대장이 인천을 상륙목표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반대한 이유는 인천의 극심한 조수 차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죠이 중장을 포함하여 누구도 인천상륙이 불가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다만 큰 위험이 내재된 것이라고 했다.

죠이 중장은 처음 작전의 성공가능성을 1/5,000라고 생각하였으나, 맥아더 사령관의 설명을 듣고 난 후 개인적인 우려가 사라졌다고 했다. 셔먼 대장은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며 작전이 실시되지 못하거나 또는 실패되었을 때의 대안으로 군산 작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34]

대안문제가 나오자 상륙전 전문가인 도일 소장은 오산 서해안에 있는 남양만

포승면을 제안하였고, 해병대의 셰퍼드 중장도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의 결심에는 변동이 없었다. 결국 셔먼 대장도 맥아더 사령관과 만난 후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였다.

이와 같이 합참에서도 어느 정도 한국전에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다만 인천상륙만은 끝내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9월 5일과 7일 재차 전문을 보내왔으나, 맥아더 장군은 "계획 불변"이라고 회신하였다. 이때 전세는 9월 초의 마지막 집중공세로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형편으로 보아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신속히 38선까지 진격하려면 정면 돌파보다는 우회전술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미 합참은 9월 8일 맥아더 사령관이 보낸 간곡한 전문을 보고는 다음날 즉시 이에 대한 해답으로 "귀하의 계획을 승인하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하여 드디어 인천상륙작전을 승인하였다. 이리하여 맥아더 사령관의 초지일관된 결심을 관철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방장관 존슨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35]

미 극동군사령부와 미 합동참모본부 사이에는 전략전술적인 차원에서 상륙작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었으나, 8월 23일의 역사적 논의에서 일단 인천상륙작전계획 자체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제 비로소 인천상륙의 계획수립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셈이었다.

3. 세부 작전계획 수립

1) 작전계획

미 제7보병사단은 제1해병사단이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상륙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먼저 제1해병사단을 중심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그리고 공중투하 예정이던 제187공수연대가 D-Day까지 극동에 진출할 수가 없게 되어 취소되었고, 인천 해안의 수심과 조수의 조건을 고려하여 상륙용 주정과 수륙양용차

의 발진 시각을 17:00시에, LST함정은 19:00시로 각각 결정하였다.[36] 먼저 월미도에 대한 공격은 미 제5해병연대의 1개 대대가 여명에 실시키로 하고, 그 나머지 2개 대대는 오후에 적색해안에 상륙하는 동시에 포병연대 2개 대대는 월미도에, 그리고 미 제1해병연대는 청색해안에 각각 상륙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 육군의 제17연대는 인천 시가지를 완전 점령한 다음 적을 색출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후일 한국 제1해병연대와 임무를 교체하게 되었다. 당시 상륙에 앞서 최근 적정 및 제반 수로조건에 관한 정보와 사진 등을 검토하여 다음 요지의 상륙군 작전계획을 작성하였다.[37]

1. 미 제5해병연대의 제3대대는 D-일 H-시에 녹색해안에 상륙하여 월미도를 점령하고 그 밖에 각 대대는 H-시에 적색해안에 상륙하여 목표 O-A를 점령하는 동시에 미 제1해병연대와 상호 연락하며 해안교두보선(FBHL)을 점령키 위하여 동쪽으로 진격할 준비를 한다.
2. 미 제1해병연대는 청색비치에 상륙하여 목표 O-1을 점령하고 FBHL을 점령키 위하여 미 제 5해병연대와 협력한다.
3. 미 제7해병연대는 H-시에 제1, 2대대를 청색해안에 상륙시켜 월미도를 점령한 다음 미 제1해병연대를 지원하고 잔여부대는 지원을 요청할 시 상륙한다.
4. 사단 예비대인 한국 제1해병연대는 명령이 있을 때에 적색해안에 상륙하는 즉시 미 제5해병연대와 협동하여 인천 시가지 점령 작전을 실시한다.
5. 제1전차대대는 명령에 따라 LST함정으로 1개 중대를 청색해안에 상륙시킬 준비를 갖추고 그 나머지는 명령이 있으면 상륙할 준비를 하여 둔다.
6. 제1공병대대는 적색해안 또는 명령에 따라 항구에 상륙하여 중대들을 통제하고 지시된 해두보 점령을 지원한다.
7. 제1해안대는 명령에 따라 청색해안 또는 항구에 상륙하여 적색해안과 청색해안에서의 활동을 통제한다.
8. 제1LVT대대는 블루비치에 미 제1해병연대를 수송하여 상륙시킨 다음 철수할 때까지 이를 지원토록 한다.
9. 육군 제2공병여단은 명령에 의하여 함정소대를 수송하여 사단 해안대의 병력을 증강시키고 상륙 후에는 명령에 따라 사단 해안대의 작전통제와 모든 항구

작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또한 미 제1해병사단의 군수지원을 실시한다.

이 무렵 9월 초 낙동강방어선에서는 적이 13개 사단으로 총공세를 취하여 전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전선에서 미 제5해병연대를 차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제10군단 참모장에 새로 임명된 포니 대령은 스미스 소장에게 "알몬드 군단장은 상륙부대가 인천상륙 기일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제7보병사단의 제32연대를 참가시킬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 당시 제7보병사단은 제1이동훈련단에 의하여 상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약 12,000여 명의 제7보병사단의 병사들은 상륙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알몬드, 러프너, 라이트 장군과 스트러블, 도일 제독 및 스미스 소장 등이 회합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 제7보병사단 제17연대와 미 제1해병사단 제5해병연대를 반드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세부계획상의 문제]

어떤 작전에서든 통상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부록들이 작성된다. 상륙작전에서는 행정계획과 탑재계획이 별도로 마련된다. 작전적 측면에서 함안 이동을 위한 상륙계획과 모든 지원화력을 협조시키기 위한 화력지원계획이 작전계획의 부록들 중에 특히 정밀함을 요한다.

함안 이동 간 돌격 부대의 화력지원은 주로 항공 및 함포에 의존하게 되는데, 필요시에는 D일 전으로부터 이후의 작전기간 중에도 많은 항공, 함포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인천상륙작전의 경우와 같이 보조상륙을 필요로 하고, 더욱이 일몰시간을 전후한 시기의 작전에서는 화력지원의 비중이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함포사격의 개시 시기는 상륙작전의 경우, 기습 효과와 관련하여 계획수립 시 우선적인 고려 요소이다. 항공폭격과는 달리 사전 함포사격은 적으로 하여금 작전을 예측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천상륙작전에 있어서는 요새화된 월미도 작전 제압이 중요한 과제였다.[38] 스트러블 제독이 소집한 9월 1일 회의에서 사전포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 함포 지원 관련 부대의 해군지휘관과 상륙군 대표들도 참석하였다.[39]

목표지역 전반에 대한 항공폭격은 D-4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나 월미도에 대한 함포사격은 기습효과를 고려하여 D-1일에 실시하기로 하되,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긴 순양함들이 오전에, 그리고 사거리가 짧은 구축함들이 오후에 네이팜 항공공격에 이어 실시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그 뒤 현지 첩보 수집요원들의 보고에 의해서 월미도의 방어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기 때문에, 9월 8일 최종 회의에서는 월미도에 대한 사전 포격을 D-2일에 개시하되 필요시 D-1일에도 계속하기로 결정되었다. 사전포격 세부계획은 관계 부대들이 목표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완성된 것이었다.

해안교두보 안의 표적은 월미도에 2개소, 소월미도에 1개소 등을 포함하여 모두 52개소로 분할되었다. 상륙지역 근해에는 3개 구역으로 나누고, 남쪽으로부터 화력 지원 구역 Ⅰ·Ⅱ·Ⅲ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D일 이후의 함포 지원사격에 대한 시기와 윤곽까지도 구체화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항공지원은 미 해군, 해병부대에 편성된 자체 항공부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작전상 혼란을 방지하고 항공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각각의 작전영역과 임무를 구분하였다. 상륙장소로부터 반경 55㎞로 구획되는 상륙 목표지역 안에서의 항공작전은 제7합동기동부대 예하의 고속항모기동부대가 전담하고 극동 미 공군은 목표지역 밖에서의 차단작전을 담당하기로 합의되었다.[40]

상륙 시의 근접항공지원은 그동안 항모 시실리호와 바동 스트레이트호를 모함으로 하면서 미 해병여단을 지원하고 있던 미 제33해병비행전대의 2개 대대들이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부가하여 공격함대사령관은 필요시 고속항모기동부대의 항공기들로부터 근접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41] 미 제33해병비행전대는 항공작전 통제권이 상륙군 지휘관에게 이양되면 미 제10군단장 작전 통제하의 미 제10군단 전술항공지휘관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되며, 김포비행장이 확보되면 미 제1해병항공사단이 전반적인 육상작전을 지원하게 되었다.

2) 정보수집 활동과 보안 유지

상륙작전은 적과의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므로 적에 관한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거리에 있는 목표지역의 적정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적정은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상륙작전의 계획수립 기간 가변성이 많은 편이다. 미 제1상륙전대가 블루하트 작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집했던 자료는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목표지역에 대한 항공사진과 포로 신문결과가 수집되고 미 군정 시 인천지역에 익숙한 미 육군과 해군 장병들을 불러오기도 했다.

인천상륙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천지역에 대한 수로, 해안 조건, 방파제, 그리고 적 상황에 관한 정보수집 문제였다.[42]

제1상륙단에서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항공기는 매 시간마다 수백 매의 사진으로 조수상태를 촬영하고 해도를 연구하였다. 또 과학적인 사진의 분석을 위하여 전문가들을 초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1상륙단에서 수집한 정보는 제1해병사단의 G-2에도 보내졌다. 여기에는 제163군사정보 파견대와 제441방첩대가 배속되었으며 연락과 통역 그리고 번역 등에 종사하는 한국인도 많이 참여하였다.

한편 미 CIA 혼(Kluck Hohn) 요원과 한국육군 계인주 대령, 해군 연정 중령, 그리고 미군정보부서인 잭슨(Trudy Jackson) 첩보대에서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계 대령은 한국인 첩보요원 22명을 모집하여 인천지구에서 약 90개소에 파견하여 첩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250명의 공정대원을 투하시켜 많은 정보를 얻었다.[43] 인천항 조사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1945년 미군의 한국점령에 관한 브리테인(Thomas F. Brittain's Report) 보고서였다.

제1해병사단 G-2에서는 해벽의 높이가 상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촬영 사진에 의하면 상륙용 주정에서 바로 상륙하기가 곤란하여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리하여 일본 고베에서 일부를 조달하고 그 나머지는 목재 사다리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는 8월 26일 정확한 적정과 해안정보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위해 특수요원의 침투를 구상했다. 그러나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임무에 비추어 적임자가 흔치 않았으나, 다행히 클라크(Eugene F. Clark) 대위가 있었다. 클라크 대위는 극동군사령부 안에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태평양전쟁 시기 호주, 필리핀, 오키나와 등을 거쳐 수많은 남태평양전선에 참가하였고, 항해, 통신, 포술 등 대전 이후의 다양한 함상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병조장이 되기까지 오랜 사병경력도 소지하고 있었다.

그가 8월 26일 정보수집의 임무를 부여 받게 되자 서해지구 책임자인 앤드류스 소장의 주선으로 2명의 한국인 통역과 함께 영국해군 구축함 쳐리티(H. M. S. Charity)호와 한국 해군함정 PC 703함과 함께 9월 1일 저녁에 영흥도에 도착하였다. 클라크 대위는 주민들의 우호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정보 수집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먼저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해안 감시반을 조직하고 적 포대의 위치와 수, 해벽의 높이 그리고 경인간의 부대집결소와 이동 등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는 인천 남쪽 해역에서 야간활동 중 작은 선박 30여 척을 나포하기도 하고 북한군과 내무서원이 타고 있던 선박 1척을 나포하여 많은 정보를 획득하였다. 특히 그는 팔미도 등대의 항해등을 점화하여 아군함선들이 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하였고 적이 아군의 상륙전을 예상하고 있는지 혹은 방어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정보를 수집하였다.[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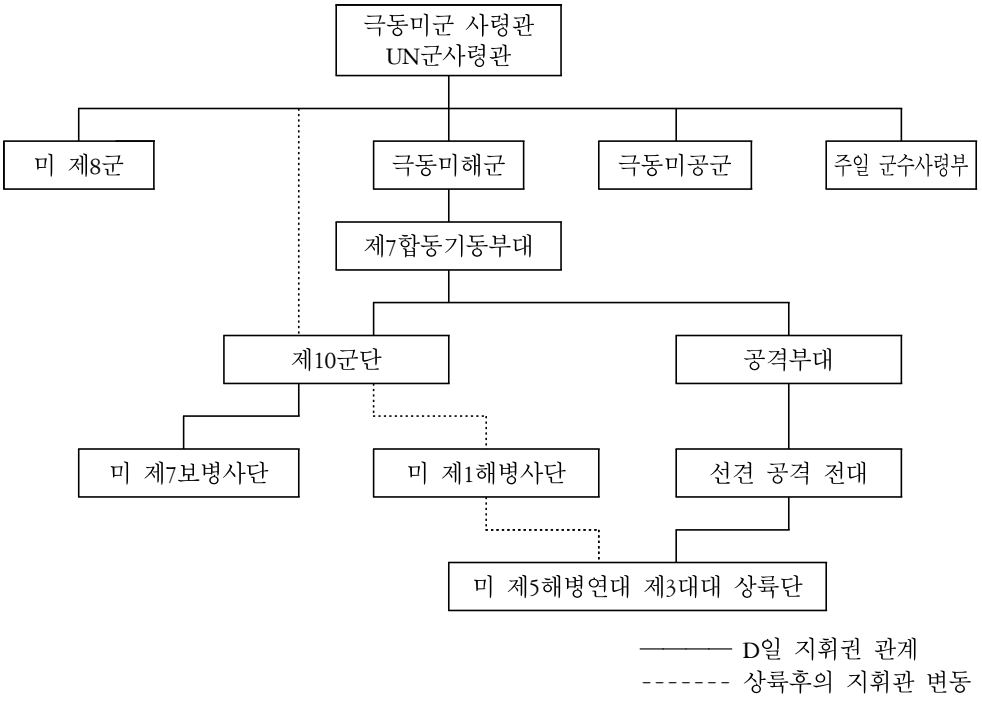
제 3 절 인천상륙작전

1. 인천으로의 항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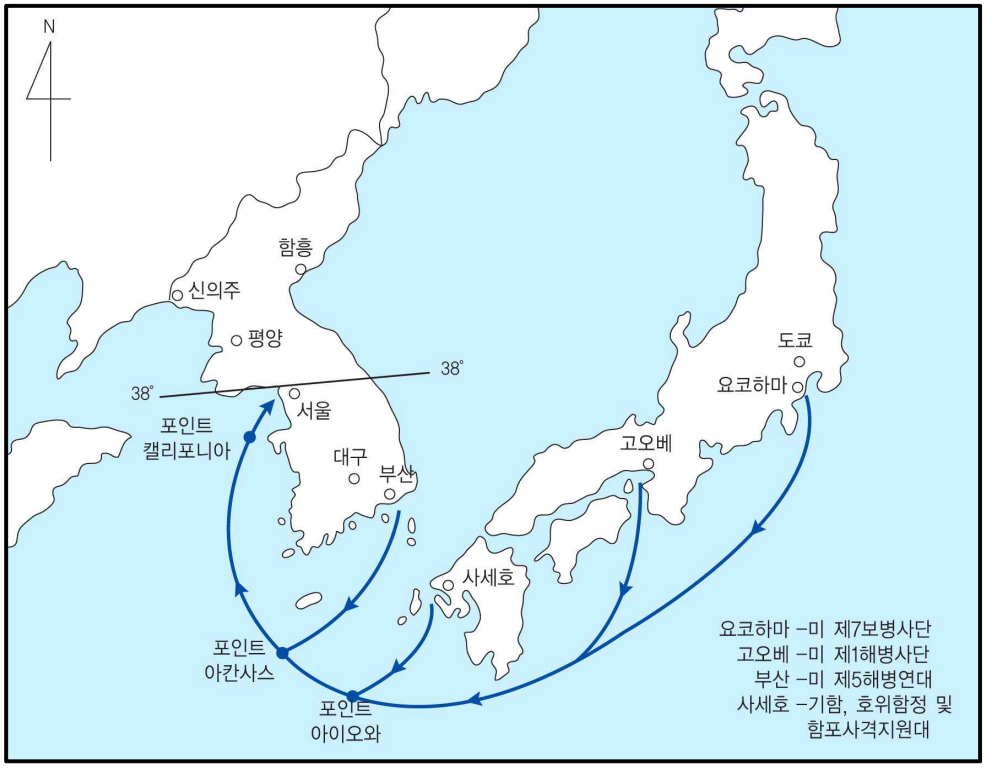
1) 제7합동기동부대의 발진

상륙작전 단계에 들어가면 해군부대의 책임 하에 부대를 해군 함정에 탑재하여 목표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육상에 전개시키는 일련의 작전을 실시한다. 인천상륙작전의 지휘관계는 <표 3-5>와 같다.[45]

<표 3-5> 상륙군의 지휘 체계



<상황도 3-5> 상륙군 출항



미 제1해병사단의 주력부대들은 8월 중순 미국 본토의 서해안을 출발하여 8월 말 일본 고베(神戶)항에 도착하였다. 미 해병사단은 최초 이동시 전술상황을 고려할 필요 없이 함정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부대와 화물을 최단시간 내에 적재(積載)하는 행정 적재방식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고베에 도착하여 일단 모든 화물을 양륙한 다음, 작전을 위한 전투 적재방식으로 재탑재하였다.[46]

그리하여 8월 말 일본의 고베, 사세호(佐世保) 및 요코하마(橫濱)와 부산항은 인천상륙작전의 최초단계에 있어서 상륙부대를 탑재하는 긴장된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미 제1해병사단은 고베에서, 제5해병연대는 부산에서, 그리고 미 제7보병사단은 요코하마에서 각각 승선하였고 대부분의 호위함정과 함포사격지원대 및 기함은 사세호에 집결하고 있었다.

2) 제1해병사단의 출동

미 제5해병연대 주력은 9월 6일부터 7일 오전까지 전 부대가 부산으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부산으로 이동한 미 해병은 각 대대가 그동안 2개 중대 편성만으로 전투를 수행해 오다가 비로소 제3중대가 보강되었다. 이들 앞에는 장비를 재정비하고 손실병력을 보충하여 재편성하는 일과, 장차 작전을 위한 탑재 편성 및 훈련 등의 중요한 과업들이 산적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1주일도 안되는 기간 중에 한국 해병대의 재편성과 사격훈련 등을 도와야 하는 과업도 부과되어 있었다.[47]

일본 고베에서의 제1해병사단의 승선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막대한 양의 보급품들이 창고의 부족으로 일본인 소유의 대소 선박에 실린 채 함정에 적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항내는 시일이 지나갈수록 협소한 항내조건과 태풍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1해병사단에 위임된 함선은 상륙전기함(AGC) 1척, 공격인원수송함(APA) 6척, 공격화물수송함(AKA) 8척, 상륙선거함(LSD) 3척, LSM 1척,

<표 3-6> 승합단 배치부대 및 함정명

승합단	부 대	함 정
에이블(Able)	사단직할부대 제1전투근무단(CSG)	1 상륙전기함(AGC), 2 인원수송함(APA), 5 AKA (화물수송함), 9 전차상륙함(LST), 1 로켓포함(LSM), 2 대형상륙정(LSU)
베이커(Baker)	제1해병연대 제1상륙용트랙터대대	1 APA, 12 LST
차리(Charlie)	제5해병연대 제73전차대대	3 APA, 12 LST, 3 APD, 3 LSU
도그(Dog)	제11해병연대	1 AKA, 6 LST
이지(Easy)	제1전차대대	2 상륙선거함(LSD), 6 LST
폭스(Fox)	제2특수공병여단 제96야포대대	1 AKA, 4 LDT

고속수송함(APD) 3척, 대형상륙정(LSU) 12척, 전차상륙함(LST) 17척, 일본선박관리국 소속 함정 30척 등이었다. 상륙병력 약 29,000명은 부산, 요코하마 등지에서 6개의 승선단에 각각 분승하였다. 그리고 미 제5해병연대와 한국 해병대가 승선한 부산항은 인원수송함 3척과 화물수송함이 정박하기에 양호한 편이었다.

미 해병사단의 기동편성에 의하면, 한국 해병대는 1개 대대를 미 제5해병연대 예비대로 배속하고, 그 1개 대대를 제외한 잔여 부대로 미 해병사단의 예비대가 되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미 해병사단에서는 장교 1명, 통신병 3명, 그리고 운전병 1명으로 구성된 연락반을 한국 해병대에 파견하였고, 최초의 연락장교인 해그나(Edward R. Hagenah) 중령은 훈련에서 사격성적이 뛰어난 제3대대를 선정하였다.[48]

3) 한국 해병대의 출동

극동해군사령관은 8월 30일 제7합동기동함대에 공격상륙으로 해두보를 점령하라는 「작전명령 제108-50」을 하달하였으며, 제10군단의 「작전명령 제1호」(1950.8.28)를 통해 31일 제1해병사단의 승선명령을 하달하였다. 또 9월 3일에는 한국군 배속명령을 변경하여 제1해병사단에 한국군 제17보병연대 대신에 한국군 해병대를 배속하였다.

상륙에 앞서 미 제8군은 미군의 표준장비와 화기를 한국 해병대에 지급하였다. 보병에게는 M1소총이, 자동소총 사수에게는 자동소총(BAR)이, 그리고 기타 병사들에게는 카빈 소총과 단발식 소총이 각각 지급되었다.[49] 소총 중대는 공용화기로서 구경 30경기관총과 60㎜ 박격포를, 그리고 사실상 이름뿐이었던 화기중대들은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81㎜ 박격포, 2.36인치 또는 3.5인치 바주카포, 그리고 구경 50중기관총 등을 갖추게 되었다.

새로 장비를 지급받은 한국군들에게 각종 화기의 숙달 및 사격 훈련을 돕기 위하여, 미 제5해병연대의 각 대대에서는 우수한 하사관들이 교관으로 차출되었다. 공용화기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 미처 개인 화기의 사격훈련을 받지 못한 병사들은 함상에서 오륙도를 표적으로 시험사격을 실시하였다.

제3대대의 주축을 이룬 기간요원들은 주로 사병 제1기 출신들이었고, 제2대대의 기간요원들은 주로 사병 제2기 출신들이었다. 제2, 제3대대장 김종기, 김윤근 소령은 해군사관학교 제1기였다. 신편 제1대대장에는 해병대 최초의 군산지구 출동부대를 지휘하였던 고길훈 소령이 임명되었다.[50] 이와 같이 대대 단위에 있어서는 그런대로 기본적인 전술편성을 갖추었으나, 헌병대와 탄약, 식량의 보급을 주로 담당하던 부서를 제외하면, 이들 대대에는 지원 부대가 전혀 없었다. 미 해병사단에서는 이때부터 한국 해병대를 편의상 '한국 해병대 제1연대'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51]

한국 해병대에 부여된 상륙초기의 임무는 최초 사단 예비가 되며, 대기파로 적색해안에 상륙하여 인천 시가지 작전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한국 해병대의 상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미 제5해병연대는 D일 오전 월미도 상륙을 위해 선견부대에 1개 대대를 차출하고, 남은 2개 대대로 D일 오후 적색해안에 상륙을 감행하므로 별도의 예비대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하여 미 해병사단의 기동편성에 의하면, 한국 해병대는 1개 대대를 미 제5해병연대 예비대로 배속하고, 그 1개 대대를 제외한 잔여부대로 미 해병사단의 예비대가 되도록 편성되었다.[52]

이리하여 한국 해병대(신현준 대령)는 미 제1해병사단의 제4연대로서 배속되었다. 한국 해병대 1개 연대 병력은 부산에서 모든 승선준비를 완료한 다음, 9월 11일 제2대대의 일부가 미 해군 LST 306호에 승선하고 기타는 12일 11:00시에 공격수송함 피카웨이(Pikaway)호에 승선하여 다음 날 부산을 출항하였다. 이때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소장도 같이 승선하였다. 한국 해병은 9월 13일 피카웨이 함상에서 비로소 인천상륙작전을 알게 되었다.

4) 탑재단계와 목표지역으로의 이동

탑재 단계는 통상 상륙부대의 장비와 보급품의 탑재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화물이 지정된 함정 안의 할당된 공간에 양륙의 역순으로 적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때에 차량들은 후진으로 적재해야 하는 만큼, 다른 병력의 탑재에 비하여 훨씬 더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탑재 단계가 끝나면 잡다한 함선들은 그 유형과 항속의 정도에 따라 몇 개의 이동전대를 형성하여 목표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동계획은 대다수 함정들이 전술적으로 소산해야 하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비닉의 필요성과 제한된 시간 때문에 세심하고도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했다.

미 해병사단의 주력이 탑재되는 일본 고베에서는 LST를 주축으로 하는 수송함선이 9월 10일에, 공격인원수송함(APA)와 공격화물수송함(AKA)은 12일에 출항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부산에서 LST들이 9월 12일에, 그리고 APA 등은 13일에 출항 예정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을 위하여 제7합동기동부대에 소속된 대소 함정의 총수는 261척에 달하였다. 여기에는 미 해군을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해군함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국 해군에서도 4척의 초계함(PC)과 7척의 소해정(YMS) 등 다수의 함정들이 참가하여 작전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결국 낙동강 전선의 측방지원을 담당하고 있던 약간의 포함들을 제외하고는 극동지역에서 가용한 전투 함정이 모두 동원된 셈이었다. 그 중에서 고속항모부대, 초계 및 정찰부대, 그리고 군수지원부대에 할당된 52척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도일 제독의 지휘를 받는 공격부대, 즉 제90기동부대(TF-90)에 소속되었다. 공격부대가 한국군을 포함한 제10군단 예하 총 70,000여 명의 병력과, 장비 및 보급품을 수송하는 데는 무려 120척 이상의 함정이 소요되었다.[53]

<표 3-7> 상륙부대 출항상황[54]

부 대	함 선	항 구	일 자
부교이동단	2 예인함(ATF), 3 대형상륙정(LSU), 1 YTB, 1 YW	요코하마	9월 5일
상륙로켓트함대		요코하마	9월 9일
트랙터 이동대 A	1 로켓포함(LSM), 1 소해정(AMS), 1 AM, 1 ARS, 2 LSD, 36 LST	고베	9월 10일
트랙터 이동대 B	1 ARL, 1 RF, 1 PCEC, 12 LST	고베	9월 10일
수송이동단	5 APA, 8 ALA, 1 AP, 2 호위함(PF)	고베	9월 10일
전방공격단(월미도)		부산	9월 13일

상륙부대를 수송할 함정과 장비 및 보급품은 8월 말까지 지정된 적재항에 도착하였으며, LST 함정들은 9월 10일 그리고 수송화물선은 이틀 뒤인 12일에 각각 고베를 떠나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 공격부대만이 전투용 적재를 하였고 일본인 승조원들은 47척의 LST 중에서 37척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9월 3일 아침에는 50여 척의 함정이 집결된 고베항에 태풍경보가 발표되어 모든 적재작업이 36시간동안 중단되었다. 이 날 06:00시부터 태풍 제인(Jane)이 동쪽에서 휘몰아치고 방파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런 까닭으로 7척의 미국 선박은 닻줄이 끊어졌고 200톤급의 기중기 1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그러나 스트러블 중장은 고베항에서 예정보다 하루 전에 상륙부대를 승선시켰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일부 선박은 수리를 위해 건선거(乾船渠)에 들어가고 그 밖의 수척은 배수작업을 하였다. 고베항의 미 제1해병사단은 10일과 11일에는 이미 66척의 화물선을 인천으로 출항시켰으나 그들 앞에는 또 다른 태풍이 있었다. 태풍 케지아(Kezia)가 9월 12일과 13일에 한국해협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로서 남방에서 이동하고 있었다.

부산에서는 한국 해병대와 미 제5해병연대가 탑재 중이었다. 부산항은 비교적 만족할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55] 부산에서 상륙선견부대인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를 고속수송함(APD)과 상륙선거함(LSD)에 탑재시켜 11일~12일 출항하였다.[56]

함대기동사령관 스트러블 중장의 기함 로체스터(Rochester)함은 9월 12일 15:30분 사세호에서 인천으로 향하였고, 마운트 매킨리호는 맥아더 사령관 일행을 태우기 위하여 사세호로 항진하였다. 그날 오후 맥아더 사령관과 알몬드 소장 그리고 라이트(Wright) 준장과 폭스(Alonzo P. Fox) 소장 및 윗트니(Courtney Whitney), 그리고 해병대 세퍼드 중장을 포함한 고급장교들이 도쿄에서 이다츠케(板付) 공군기지를 거쳐 21:20분 사세호에 도착하였다.

원래 맥아더 사령관은 제7합동기동부대 사령관 스트러블 중장의 기함인 로체스터(Rochester)호에 탑승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상륙상황을 보다 가까이에서 관측하고자 했던 맥아더 장군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도일 제독의 기함 마운트 매킨

리호에 탑승하게 된 것이다. 매킨리호는 태풍으로 인해 맥아더 장군 일행보다 2시간 늦게 겨우 도착하였다. 맥아더 장군 일행을 태운 매킨리호는 어둠을 뚫고 격랑을 헤치며 나아갔으나 항로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57]

맥아더 사령관 일행이 탑승한 지 반 시간 후에 상륙함대는 목표지역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13일 이른 아침 일본 구주 남단을 지나가면서 거친 항해를 면치 못하였다. 그날 오후 태풍 케지아가 비켜감으로써 상륙함대가 항해할 수가 있었다.

110대의 항공기를 싣고 캘리포니아 서해안을 출발한 항공모함 복서(Boxer)호는 14일 일본 사세호를 거쳐 인천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하여 9월 14일까지 모든 참가 함선들이 전부 집결지에 집결할 수 있었다.

한편 9월 13일 09:00시 피카웨이호의 사관실에서는 다시 한미해병부대의 작전회의가 개최되었다. 작전을 불과 이틀 앞둔 이날 함상회의에서는 작전계획과 지도가 배부되고, 장차 작전을 위한 구체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58]

공격 부대의 돌격함선들은 9월 14일 한반도 남서쪽의 해상에서 하선망 훈련을 실시하였다. 통상 목표지역으로 이동 중의 연습단계는 시간제약 때문에 애당초 고려되지 않았던 만큼, 함상생활 중 승조원들과 함께 실시하는 전투 배치 및 퇴함 훈련을 제외하면 하선망 훈련이 한국 해병대가 실시한 사전 상륙훈련으로서는 유일한 것이었다.

5) 일련의 지원 작전

(1) 양동작전

맥아더 장군은 극비리에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준비시켰으며, 심지어 그 준비기간 중 미 합참본부에 대해서까지도 보안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막상 상륙작전의 계획 및 제반 준비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정보가 비교적 개방되어 있어 완벽한 보안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보안문제의 초점은 상륙작전 자체보다는 상륙작전이 '언제' '어디서' 실시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적으로서도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모든 해안을 방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바

로 여기에 인천상륙작전 계획의 기습의 의미가 있었다.

인천은 목표로서의 개연성이 크게 희박했으며, 맥아더 장군이 노린 핵심 또한 거기에 있었다. 스트러블 제독의 항공계획도 이 점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마지막 일격이 어디에 가해질지를 적이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북으로는 평양에서부터 남으로는 군산까지,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의 상륙작전 가능지역에 고루 폭격을 실시하되, 객관적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군산에 특히 적의 관심이 쏠리도록 기만하였다. 인천에 대한 본격적인 함포사격을 D-2일부터 실시하도록 계획한 것도 그때 적이 설사 상륙지역을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응할 시간을 놓친 뒤가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7합동기동부대 산하 항공기들은 9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는 대체로 인천-서울 지역에 약 40%를, 그리고 나머지로 그 북쪽과 남쪽의 목표들에 반반의 비율로 폭격을 실시하였다. 이때 미 공군기들은 군산 일원을 강타하고 있었다. 9월 초까지도 낙동강전선에서 미 해병여단을 지원하던 미 해병항공기들은 9월 10일 월미도에 총 43톤의 네이팜탄을 퍼부어 남쪽과 서쪽 숲들을 거의 태워버렸다. 태풍 때문에 일시 대피하였던 고속항모부대의 함재기들은 9월 12일과 13일, 월미도와 인천 일원에 다시 출격하였다.

이 무렵 서해상에서는 앤드류스 소장의 지휘 하에 구축함들이 9월 5일 인천에, 그리고 6일에는 군산에 포격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태풍 케지아의 영향으로 항공작전이 일시 중지된 동안에는 한국 해군 함정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연안봉쇄와 초계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9월 12일 밤에는 미 육군 엘리 대령이 지휘하는 미·영 혼성 기습부대가 군산에 양동작전을 감행하였다. 이 작전은 상륙돌격의 일환인 것처럼 해안정찰까지 시도한 양동이었으나, 적에게 발견된 후 함포와 항공기가 가세하여 적을 맹타하였다. 부대는 3명의 미군 사상자를 내고 13일 새벽 큰 성과 없이 철수하였다.

이어 동해안 전대는 9월 14일과 15일 삼척 일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15일 포격에는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 바로 전날 오후 도착한 전함 미주리

호가 가세하여 16인치 거포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14일과 15일의 삼척 포격은 적을 당황하게 하고 서울 방향으로의 적의 증원을 견제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14일 영덕 장사에서는 육본 독립 제1유격대대(일명 명부대)가 양동상륙작전을 전개하여 북한군을 기만하였다.[59]

(2) 사전 포격과 폭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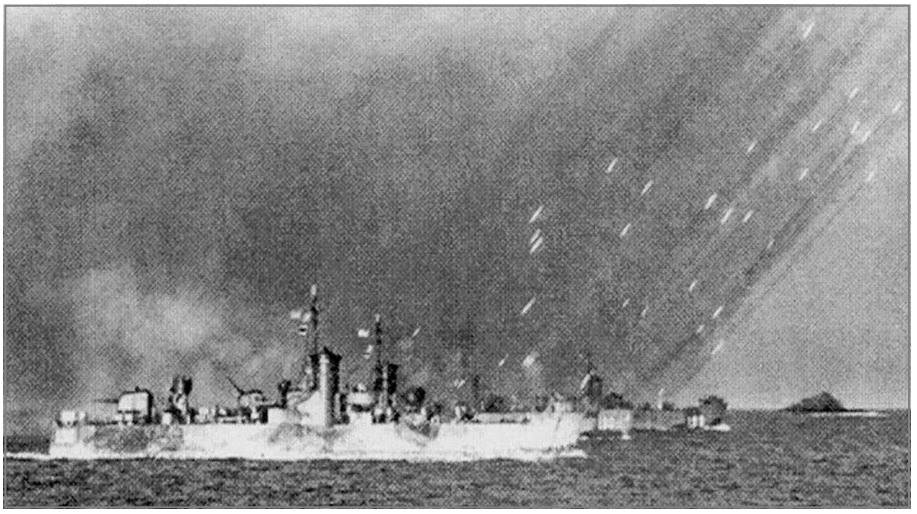
유엔군사령부는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 극동공군으로 하여금 인천-서울간의 항공사진 정찰을 면밀히 실시하도록 하였고, 9월 4일부터 경인지구를 고립시키기 위해 해병비행대대 함재기(VMF)를 투입하여 폭격을 집중하였다. 목표는 인천 반경 50㎞ 이내의 도로와 교량 그리고 터널과 조차장 등이었다.

이어 9월 9일부터 공군은 철도망 폭격을 시작하여 매일 B-29 1개 연대로 원산-서울간의 경원선과 평양-서울간 경의선 정거장 등을 폭격하였고, 다른 2개 연대로 하여금 철도 선로를 폭격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게 했다. 9월 11일 신막비행장을, 12일에 평양비행장을 폭격하여 야크(YAK)기를 파괴하였으며, 상륙전일인 14일에는 폭격기 60대를 투입하여 경인지구로 향하는 모든 철도망을 파괴하여 적 병력과 보급품 등의 수송을 일체 불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12일부터 인천의 관문인 월미도를 제압하기 위한 폭격이 개시되었다. 이 작전은 해병대 항공기들이 네이팜탄을 투하하고 이어 D-Day 아침에 다시 폭격하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서해안의 다른 지역인 군산과 평양 부근을 기만 폭격하는 것이었다.

월미도는 해발 105m의 작은 섬으로 인천과 약 900m의 제방으로, 소월미도와는 서남단에서 역시 같은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섬은 유엔군의 주요 상륙목표의 하나였으며, 인천상륙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기도 하였다. 당시 이 섬에는 북한군 독립육전연대 예하 2개 중대가 민간인을 강제 동원하여 지하 깊이 호를 구축하는 한편 2문의 대공화기와 20여 종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미리부터 굳게 방어하고 있었다.[60]

소월미도에도 적이 기관총 25정과 박격포 2문으로 인천 앞 해상을 경비하고



1950년 9월 15일 05:00시, 월미도 함포사격

있었으며, 인천항 입구에는 기뢰가 부설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이에 구축함 핸더슨(Henderson)함에게 만조 전 전부 폭파시킨 후 기타 함정들이 인천수역에 진입하도록 명령하였다.

9월 10일 해병 비행대대 항공기 14대가 월미도를 공격하고 12일부터는 제77기동함대 해군기들이 월미도를 공격하였으며, 기동함대는 히긴스(Higgins) 소장의 지휘 하에 13일 07:00시 월미도 전방까지 진격하여 정박하였다. 이어 로체스터호와 톨레도(Toledo)호, 그리고 영국 해군 자메이카(Jamaica)와 케냐(Kenya)호 등 순양함들이 전투기들의 호위 하에 수로에 진입하였다. 투묘(닻을 내림)한 함선들은 13일 13:00시부터 일시에 포문을 열어 함포사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적은 모든 병력을 해안으로 전진 배치하였으며 월미도와 인천항에 배치된 북한군 포대가 대응사격을 해왔다.[61] 적의 포화는 주로 스완슨(Swanson), 콜렛트(Collett), 걸크(Gurke)호에 집중되어 장교 1명이 전사하고 사병 8명이 부상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평양방송은 유엔함정 13척을 침몰 또는 파손시켰고,[62] 인천 상륙에 대비해 10척의 함정을 급파하였다고 허위 보도를 흘렸다.

유엔군 구축함들이 약 1시간에 걸쳐 5인치 포탄을 1,000발이나 포격한 후 수

로를 빠져나오고, 이어 13:52분부터 순양함들이 공중폭격과 아울러 다시 포격을 집중하였다. 간조를 따라 수로를 빠져 나오던 화력지원전대는 도중 8개의 기뢰를 폭파시켰다. 적의 기뢰가 작전에 미친 영향은 이것이 전부였다.

다음날 9월 14일에도 항공 및 함포사격은 계속되었다. 적의 반격도 예상보다는 강력하였으나,[63] 아군은 재차 공중폭격을 위시하여 아군의 구축함과 순양함이 월미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함포사격을 총집중하였다. 전날 피해를 입은 콜레트호가 제외되고 대신 헨더슨호가 가세하여 다시 5척이 된 구축함과 순양함들이 인천수로로 다시 진입하였다. 월미도와 인천항에 대하여 10:50분부터 시작된 약 20분간의 항공 폭격에 이어 순양함들이 포격을 개시하였다. 이날도 적 포대에서는 약간의 응사가 있었으나 아군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64]

마침내 9월 15일 00:00시 선견공격전대가 일군의 구축함을 선두로 인천수로로 진입하였다. 선견공격전대(APD 3척과 LSD 1척) 함선에는 최초 상륙돌격을 감행할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을 선도 호위하는 구축함과 순양함 외에도 로체스터호와 맥아더 장군이 동승하고 있는 도일 제독의 기함 마운트 매킨리호도 여기에 합류하고 있었다. 얼마 후 이들은 클라크 대위가 밝혀주는 팔미도 등대의 안내를 받아 무난히 인천항에 접근하였다.

월미도를 다시 강타할 미 해병 항공기와 내륙의 정찰 및 폭격을 담당할 고속항모부대의 함재기들이 새벽 상공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하였다. 모든 함정들은 전투 배치를 완료하였고, L시는 06:30분으로 확정되었다. 드디어 선견공격전대가 목표지역으로 이동을 완료하여 월미도 상륙을 위한 돌격단계로 들어갔다.

(3) 월미도 상륙

미 해병 항공기들이 멀리 사라진 뒤 15일 05:45분 구축함의 첫 포탄이 월미도에 작렬하였다. 이미 전날 엄청난 항공 및 함포 사격을 받아 앙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월미도가 다시 포연에 휩싸였다. 상륙주정들은 주파(Boat Wave)를 형성하여 대기구역에서 원을 그리며 대기하였으며, 06:15분 월미도 북쪽으로 바짝 다가간 3척의 로케트 포함들이 1,000여 발의 5인치 포탄을 집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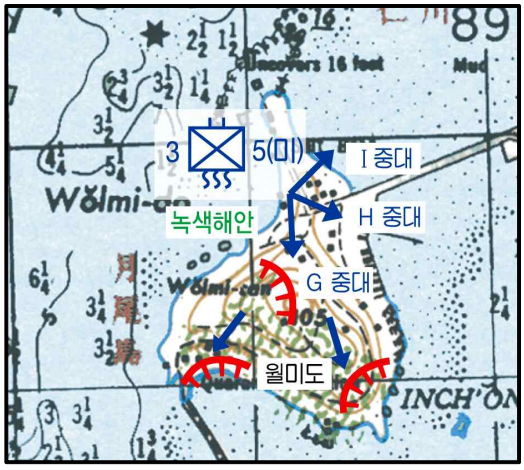
로켓트 포함이 월미도의 녹색해안을 강타하는 동안, 상륙주정(LCVP) 7척으로 구성된 제1파가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였다. L-2분 모든 포격이 일시에 중지되고, 돌격파들이 해병 항공기의 엄호 하에 전속력으로 전진하였다. 돌격 제1파는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적 해안에 예정보다 3분이 늦은 06:33분에 상륙하였다.


월미도 상륙작전 개시(1950. 9. 15. 06:20)

제1파로 상륙한 G중대는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며 최초 목표인 105고지를 공격하였다. 좌전방 H중대는 인천 내항 쪽의 해안을 따라 건물지대로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어 전차대대 A중대로 구성된 제3파가 해안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6대의 M26 퍼싱전차, 2개의 도자 전차, 그리고 화염방사기 전차와 구조전차 각 1대 등 10대의 전차로 편성되었다. 06:50분 예비대에 앞서 상륙한 대대장 태플리트(Robert D. Teplett) 중령은 약 5분 뒤 G중대 선두소대가 목표 정상에 도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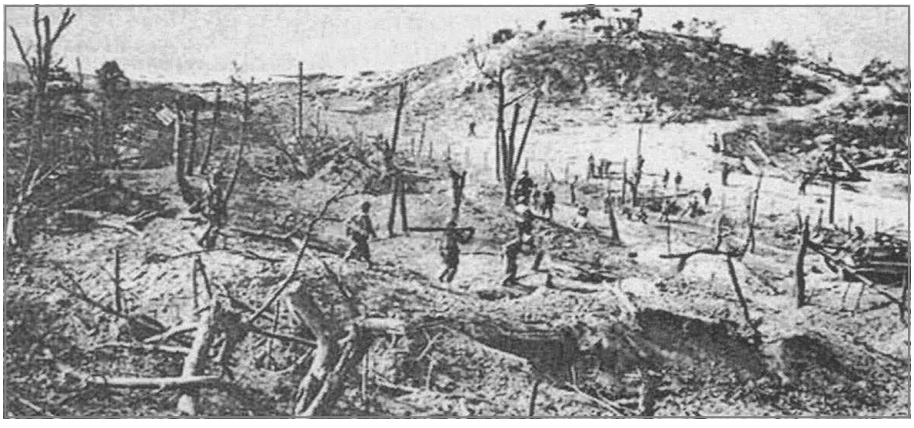
대대장은 07:45분 마운트 매킨리호에 "포로 45명, 적의 저항 경미함"이라고 보고하고, 잠시 후 "08:00시 현재 월미도 확보"라고 보고하여 작전의 성공을 알렸다.[65] 스미스 소장과 맥아더 장군은 새벽부터 함교에 올라와 있었다. 망원경으로 돌격상황을 지켜보던 맥아더 장군이 월미도 확보소식을 듣고 우선 피해상황을 궁금해 했으나, 전사자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대대장 태플리트 중령은 적의 역습에 대비하면서 소탕작전을 계속하였다. 대대 관측소가 설치된 105고지 주변에는 많은 동굴과 교통호가 있었으며, 특히 서쪽 경사면에는 포진지와 무수한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

<상황도 3-6> 월미도(Green Beach) 상륙



이어 소월미도에 대한 공격은 10:00시 전후해서 시작하였다. 소월미도에는 대공포와 자동화기로 장비된 약 1개 소대의 적 병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G중대 제3소대장이 이끄는 1개 분대에 3대의 전차, 공병 등으로 증강된 공격부대가 방파제를 따라 전진하였고, 적들은 필사적으로 대항하였다. 대대장의 항공지원 요청에 코르세어 8대가 네이팜과 20㎜ 기총사격을 가하였고, 이어 공격부대 공병들이 지뢰를 제거하며 전진하여 11:15분에 점령하였다. 공격부대는 적 17명을 사살하고 19명을 포획하였다.[66]

미 해병의 총 피해는 부상자 17명인 반면, 적 사살 108명, 포로 136명이 확인되었다. 적 포로진술에 의하면, 월미도와 소월미도에는 적 제226연대 예하부대 및 제918해안포연대 제2대대 등 약 400명이 있었으며, 이들 중 150여 명 이상이 도자 전차가 밀어 붙인 참호 안에서 사살되거나 생매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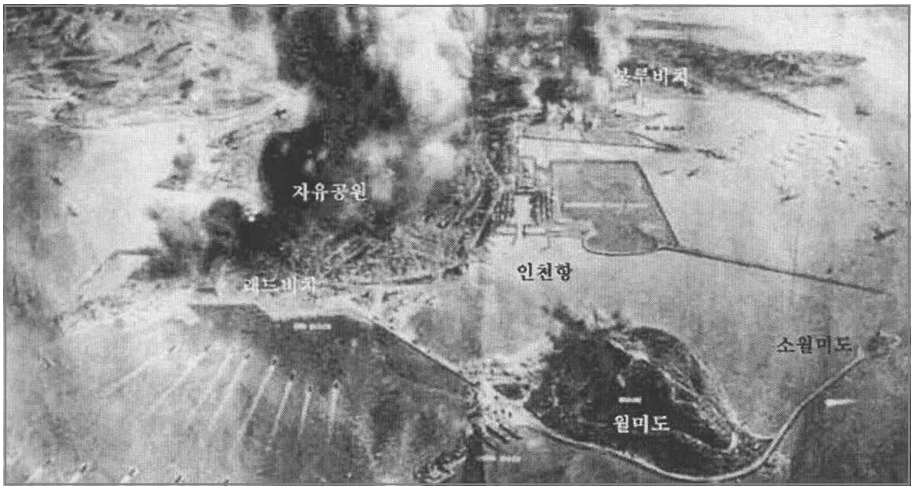
월미도 정상 토벌

2. 돌격단계와 상륙군 상륙

1) 돌격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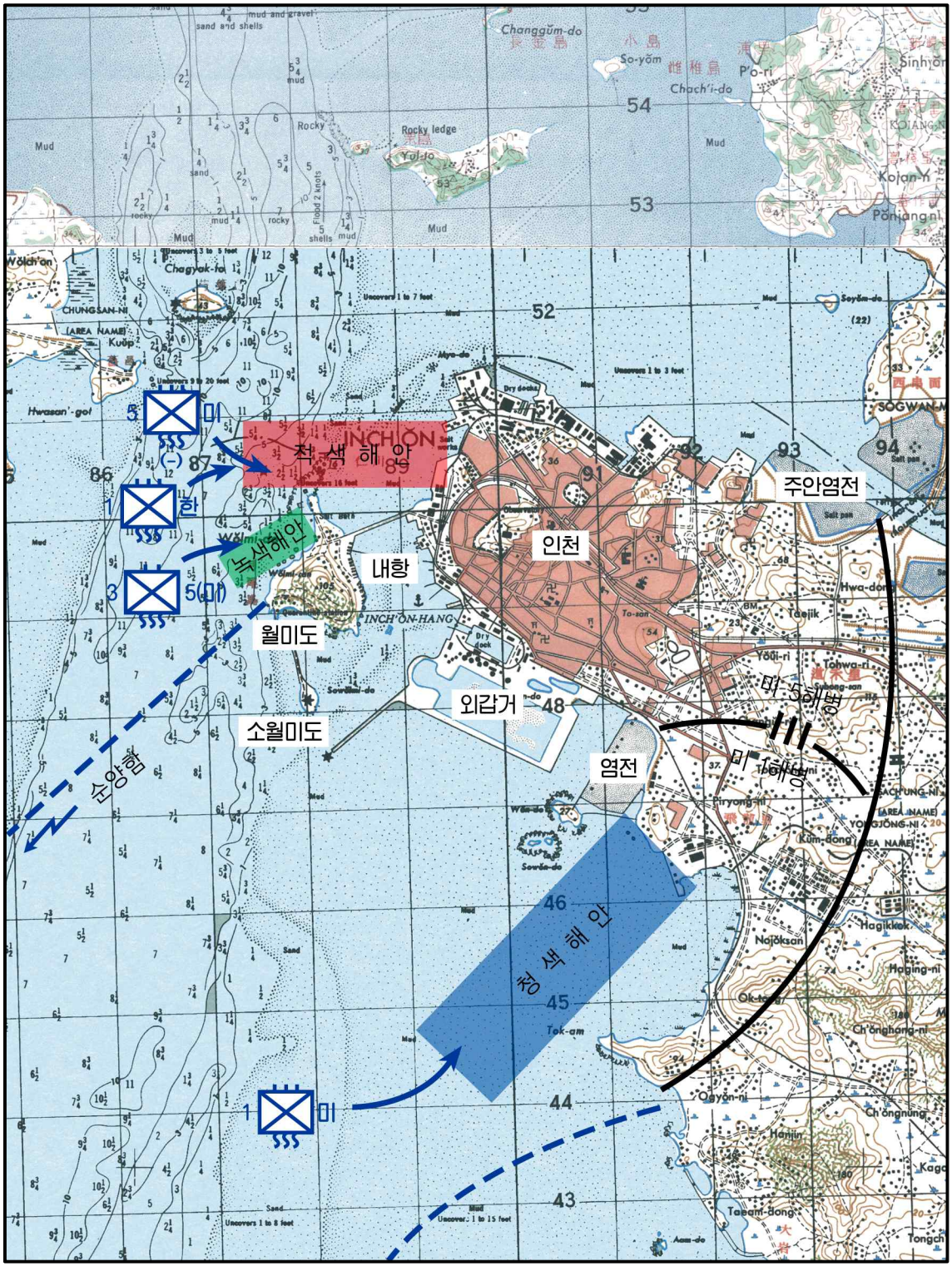
월미도 상륙이 바쁘게 준비되고 있을 무렵인 9월 15일 새벽, 선견전대를 제외한 모든 공격함대의 함선들은 대부분 인천 수로 입구의 해역에 집결하고 있었다. 인천항의 진입로는 동쪽 수로의 두 개가 있으나 서쪽의 것이 공격군의 사용로로 선정되었다. 상륙부대가 자정을 지나서 수로에 진입하였고 맨스필드(Mansfield)호를 선두로 19척의 함포 지원선단이 서쪽 수로로 진입하였다. 클라크 대위가 복구한 팔미도 등대는 휘황한 불빛으로 수로 진입을 인도하여 무난히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오후 만조가 되자 LST와 기타 수송함정들이 다시 물위에 뜨고 화력 지원함들도 배치를 완료하였다. 17:30분으로 확정된 H시가 전 함대에 전달되자, 화력 지원함들은 14:30분을 기하여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이어 마침내 공격부대 사령관 도일 소장이 '상륙군 상륙!'이라는 상륙 명령을 하달하였다. 상륙군 상륙이란 함안이동 개시의 신호인 동시에 돌격함선에서 떠나라는 명령이었다.



1950년 9월 15일 17:30분, 돌격 단계

<상황도 3-7> 돌격계획


적 색 해 안
INCHON
인천
내항
월미도
소월미도
외갑거
염전
주안염전
북색해안
청 색 해 안
미 5해병
미 1해병
5
(-) 87
86
1
한
3
5(미)
1
미
INCH'ON-HANG
Changgŭm-do
So-yŏm
Ch'ach'i-do
Yŏl-to
Kojan-ni
Ponjang-ni
Hwasan'-got
CHUNGSAN-NI
Kuop
Chagyak-to
Soyŏm-do
SOGWAN-NI
Hwa-dong
Taejik
Yŏŏi-ri
Tohwa-ri
Kŭm-dong
Hagikkok
Najŏksan
Haging-ni
Ch'onghong-ni
Ogyŏn-ni
Ch'ongnŭng
Hanjin
Taegam-dong
Tongch
Tok-am
Sowŏl-do
Aeu-do
Wŏlch'on
Mud
Rocky
Rocky ledge
Uncovers 1 to 7 feet
Uncovers 1 to 3 feet
Uncovers 9 to 20 feet
Uncovers 16 feet
Uncovers 1 to 15 feet
Uncovers 1 to 8 feet
Dry docks
Salt pan
Salt works
Quarantine station
Dry dock
Sand
Mud
52
51
93
94
92
91
54
53
48
46
45
44
43

미 제5해병연대 예하 2개 대대와 예비대인 한국 해병 제3대대는 수송함(APA)에서 하선망을 타고 내려와 상륙주정(LCVP)으로 옮겨 탔다. 거의 같은 시간 미 제1해병연대의 돌격대대를 태운 LVP와 월미도에 행정 상륙할 2개 대대의 포병을 실은 수륙양용트럭(DUKW)들이 쏟아져 나왔다. 순식간에 500여 대가 넘는 상륙주정과 수륙양용차량들이 넓은 수송 함정구역을 뒤덮었다. 이들 상륙주정과 수륙양용 차량들은 약 200척의 LCVP를 비롯하여 중형상륙정(LCM) 70척, 대형상륙정(LSU) 12척, LVT(A) 18대, 수륙양용차(LVT) 164대, 그리고 수륙양용트럭이 85대에 달하였다.[67]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미 해군 및 해병의 항공기들이 폭탄과 로케트탄, 그리고 기총사격으로 해안을 강타하였다. 고속항모부대는 항공기 12대로 반경 약 40㎞ 이내의 모든 적의 활동을 제압하는 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마침내 상륙주정과 수륙양용차량들이 공격개시선(LD)으로 이동하였다. 적색해안의 공격개시선은 해안으로부터 약 2㎞의 거리에, 그리고 청색해안에는 약 5㎞ 거리에 설정되어 있었다. 16:45분 미 제1해병연대의 제1파로 구성된 18대의 LVT(A)가 청색해안을 향하여 공격개시선을 통과하는 동시에 포격은 그 양과 빈도에 있어서 더욱 증가되어 갔다. 17:05분 로케트포함 3척은 순양함과 구축함들의 포격에 이어 1분당 100여 발의 로케트탄을 발사하여 20분 동안 6,000여 발을 인천에 집중하였다. H-8분, 미 제5해병연대의 제1파는 적색해안의 LD를 통과하여 전속력으로 해안을 향해 돌격하였다. H-5분, 로케트포함의 사격이 멈추자, 돌격파들의 머리 위로는 항공기들이 해안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였다.[68]

2) 적색해안 상륙

미 제5해병연대의 임무는 2개 돌격대대로 적색해안에 상륙하여 통제선(O-A)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약 3㎞의 통제선은 적색해안의 응봉산을 중심으로 그 북쪽 공동묘지는 물론, 남쪽 내항까지도 모두 에워싸는 것이었다. LST 제1진이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여 해안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함안이동의 장엄한 광경은 절정에 달하였다. 상륙주정(LCVP) 8척에 제5해병연대 병력이 분승하여 적색해안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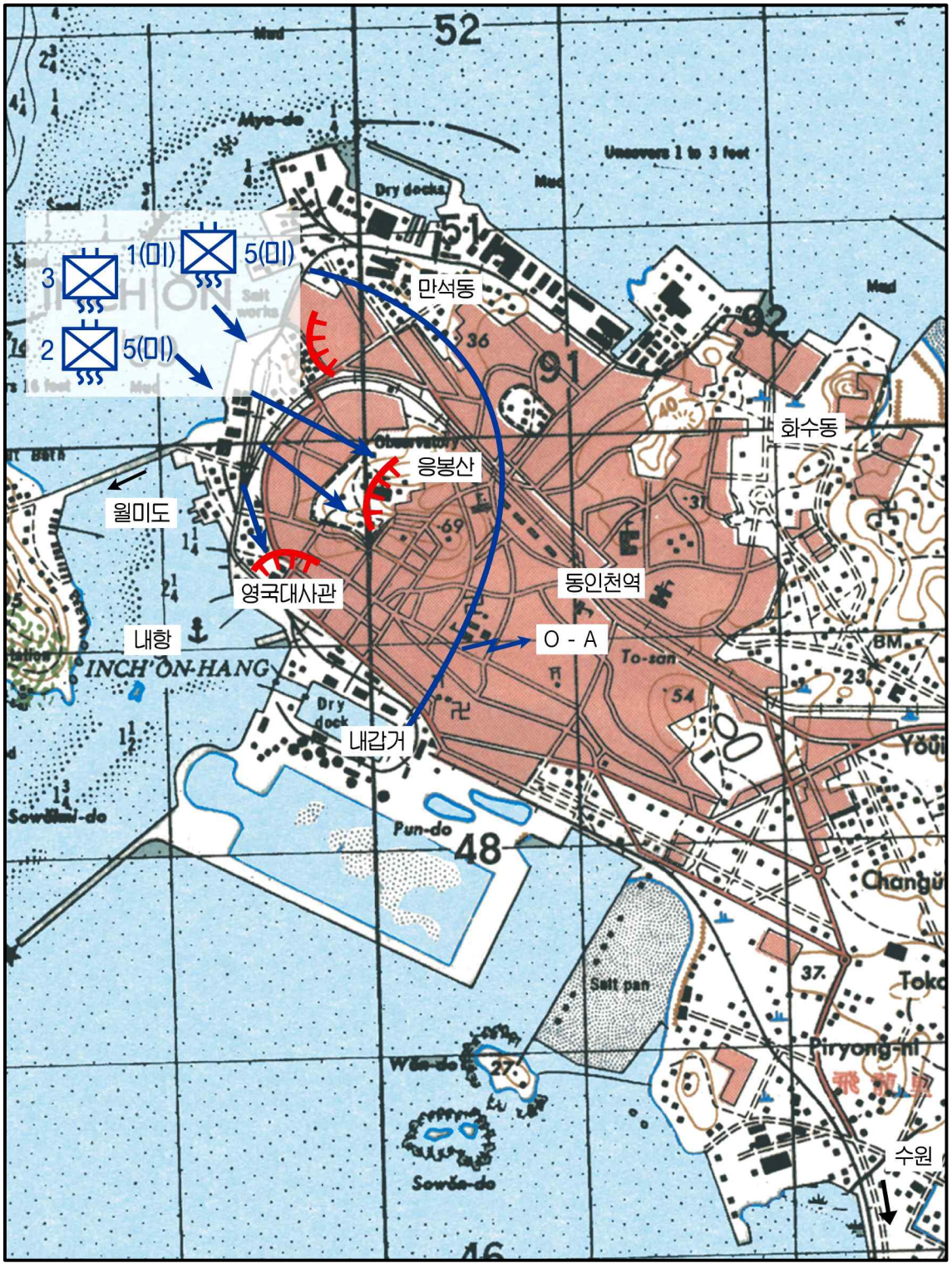
1950년 9월 15일 17:33분, 적색해안 상륙

돌진하였다. 이때 월미도의 타프레트 대대는 기관총과 박격포 등으로 상륙을 엄호하고 로켓트포 공격에 이어 공중공격이 시작되었다. 상륙군들은 해벽에 다다라 수류탄을 투하하면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상륙을 개시하였다.[69]

적색해안 북쪽에 진출한 A중대는 전방 적의 참호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았다. 중대는 화염방사기로 이들을 제압하고 이어 적 제226연대 박격포 중대를 격퇴하고 묘지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3소대장 로페즈 중위가 잘못 투척된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쳐 장렬히 전사하였다.[70]

우전방 제2대대에서는 H+10분 제1진으로 상륙한 E중대가 대한제분 근처에서 잔여중대를 재편성하여 내륙으로 전진하였다. 중대는 철로를 따라 남쪽으로 계속 전진하여 18:45분 영국 영사관에 이어 시가요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감제고지인 응봉산 봉우리들은 그때까지도 적의 수중에 남아 있었다.[71]

<상황도 3-8> 적색해안(Red Beach) 상륙



공격이 다소 늦어지면서 한숨을 돌린 응봉산 정상의 적들이 사격을 가해왔다. 18:35분 미 해군 LST 859호는 적의 자동화기와 박격포 사격을 받았으며, 그 뒤를 따르던 LST 975와 857호도 적의 사격목표가 되었다. LST에서는 기관포 사격으로 응사하였으나, 이때 내륙으로 진출하고 있던 제2대대가 전사 1명과 2명의 부상 등 3명의 피해를 입었다.

뒤늦게야 돌발 상황의 원인을 알고 각 부대간에는 신속한 접촉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8척의 LST들은 만조의 절정인 19:00시 전후하여 양륙을 위한 철야작업에 들어갔다. 이 무렵 20:00시경 B중대는 적의 저항을 받아 6명의 부상자를 낸 끝에 목표 A의 정상(기상대 고지)을 점령하였다. 제2대대 D중대는 목표를 확보하기까지 1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D일 자정 무렵, 제2대대의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미 제5해병연대의 통제선 확보는 일단 전술적으로 마무리되었다.[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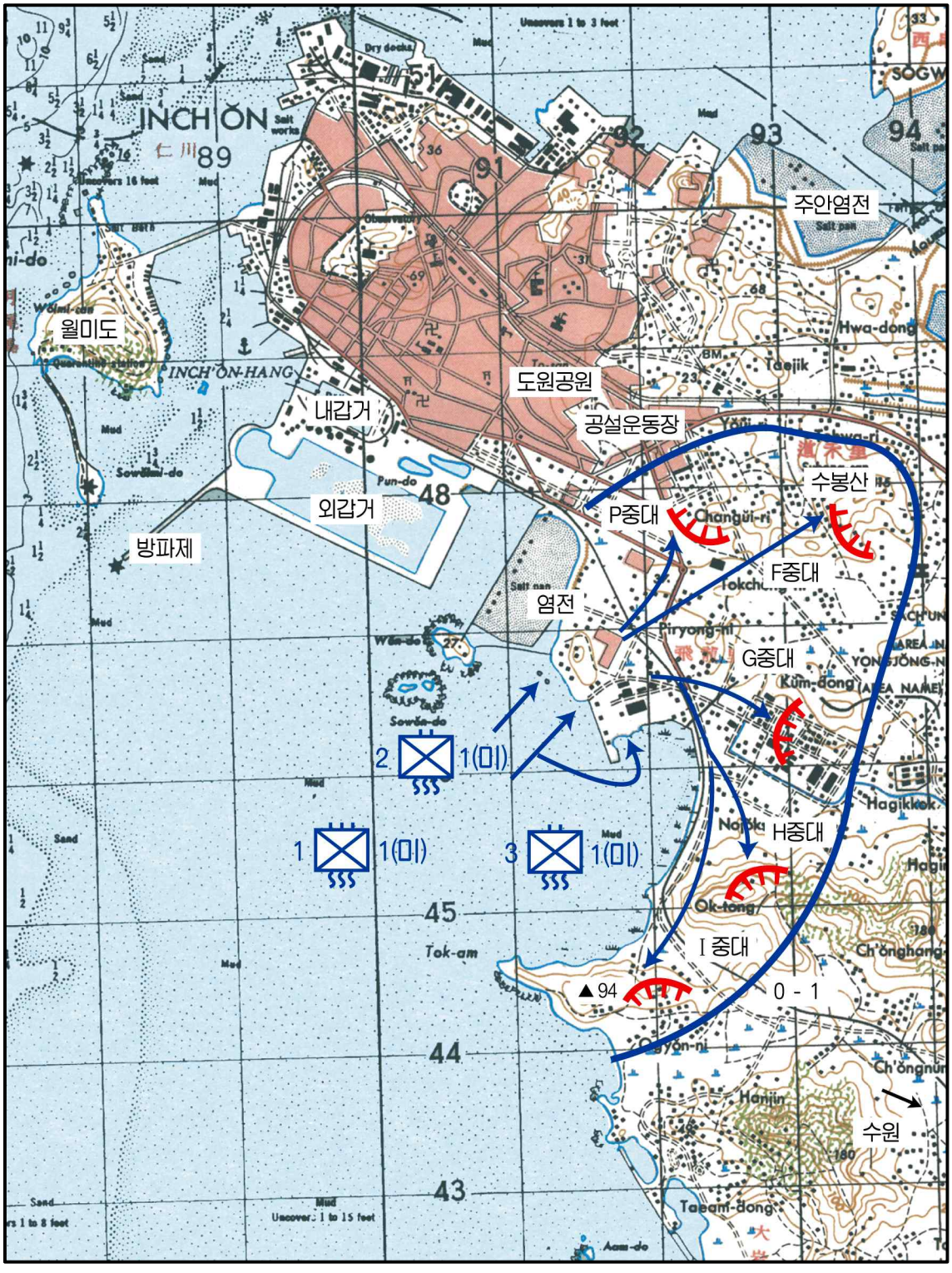
3) 청색해안 상륙

미 제1해병연대가 상륙할 청색해안은 400m 폭의 개천 남과 북쪽 해안으로 자연스럽게 구분되었다. 미 제1해병연대의 기동계획에 의하면, 2개 돌격대대가 남쪽과 북쪽해안에 병행 상륙하고 좌측 2대대가 해안으로부터 북동쪽 목표지점과 수봉산을 확보하는 동안, 우측 제3대대가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진출하면서 감제고지들을 탈취하도록 되어 있었다.[73]

미 제1해병연대 공격군 제1진의 장갑수륙양용차(LVT)들이 H-50분 공격개시선에서 통제함 주위를 선회하고 있을 때 적의 박격포탄이 주변에 떨어져 혼란을 빚기도 했다. 제1진은 제2대대 2개 중대가 17:30분경 별다른 저항 없이 청색해안 1에 상륙하고 진격하였다. LVT들은 북쪽 염전과의 경계지대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진출이 지연되었다.[74]

제2진은 LVT 11척에 제2대대 2개 중대를 승선시켜 해안에 상륙하는데 성공하였다. 제2대대장은 해안이 번잡했기 때문에 후속파를 염전 제방쪽으로 유도하였다. D중대는 연대 목표로 향하고 F중대는 북서쪽의 목표 117고지로 진격한 다음 경인가도를 장악하였다. 제2대대는 이날 전사 1명, 부상 19명의 피해를 입었고

<상황도 3-9> 청색해안(Blue Beach) 상륙



적 사살 50명, 포로 15명의 전과를 올렸다.[75]

제3대대를 선도한 제1파인 장갑수륙양용차(LVT) 9대는 H-시 직후 적의 사격을 받으면서 청색해안에 상륙하였고, 제2진인 G중대와 I중대는 상륙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10분후에 제3진의 LVT와 함께 착안하게 되었다. 각 중대는 신속히 하차하여 내륙으로 전진하였으며, 우측의 I중대는 준비해온 사다리를 타고 안벽을 걸치고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이 동안 통신의 불통과 매연 때문에 상륙지점을 발견치 못한 LVT들은 지휘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자의로 상륙하게 되었다. 대대장은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잔여 후속파들을 우측해안 돌출방파제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 같은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청색해안에서의 상륙에 한층 박차를 가하였다. 이날 제3대대가 입은 피해는 상륙초기 내륙 공장지대 탑에서 날아오는 적의 기관총에 의한 것이었다. 이날 연대 예비대인 제1대대는 H+45분에 상륙하였다.[76]

4) 지원부대들의 상륙

상륙초기 육상작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수송선의 신속한 접안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서울진격작전을 위해서는 인천 항만시설의 조기 확보가 무엇보다 긴요했다. 전투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전투지원과 전투근무지원이 요구되었다.

월미도 상륙 시에도 상륙군은 돌격단계를 위한 지원화력으로서 자체 지원화기인 포병의 조속한 활용을 기대했다. 그리하여 신속하게 월미도에 수륙양용트럭(DUKW)으로 2개의 105㎜ 곡사포 대대를 상륙시켰다. 또 전차상륙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월미도 상륙부대에 배속된 10대의 전차를 제외한 A중대가 적색해안에 상륙하였으며, 전차대대의 다른 중대들은 D+1일 이후 녹색해안과 내항을 통해 상륙하였다.

인천 해안 교두보의 확보와 함께 가장 난제중의 하나는 군수지원 문제였다. 돌격단계 중 해안을 개척하여 부대와 장비 및 보급품의 상륙을 돕고 이들의 내

륙이동을 지원하는 것이 해안부대의 임무였다.[77] 해안부대의 정찰요원들이 먼저 돌격부대와 함께 적색해안에 상륙하여 해안표지를 세웠다.[78] 뒤따라 A해안단의 부대들이 상륙하여 양륙준비를 갖추었다. 청색해안에서도 B해안단이 돌격부대의 상륙에 이어 19:30분쯤 상륙하여 지원 준비를 갖추었다. 해군 해안단장 싱거 대령은 H+70분에 상륙하여 적색해안에 지휘소를 설치한 다음 철야 하역을 지휘하였다.

이리하여 해안단은 D+1일 21:00시까지 병력 약 15,000명과 차량 1,500대, 그리고 군수물자 1,200톤을 양륙시켰고, D+2일에는 제79기동함대사령관 타크래이(Lyman A. Thackrey) 제독이 항구작전의 책임을 맡음으로써 해안단의 하역작업과 군수지원이 더욱 활발해졌다. D+2일에는 월미도에 중장비용 기중기가 도착하였고 D+3일에는 53,883명의 병력과 6,629대의 차량, 그리고 25,512톤의 군수물자를 양륙하였다. 이것은 제10군단이 처음 기대했던 양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양이었다.[79]



월미도에 접안하여 물자를 하역 중인 LST함들

이밖에 의무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적색해안에 돌격부대를 뒤따라 접안한 LST 가운데 898호는 임시수술실을 갖춘 병원선이었다. 의무사령관은 병원중대 3개 팀을 차출하여 적색해안에 상륙시켜 부상자들을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해안두보의 확보와 인천 시가지 작전

1) 해안두보 진격

미 제1해병사단은 해안두보의 확보와 차후 내륙 진격작전을 위해 경인국도를 축선으로 하여 2개 연대가 병행 공격하는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D일 부대전개 형태는 전혀 다르게 제1연대가 공격전면에, 그리고 제5연대가 그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D+1일의 공격재개를 위해서는 제5연대의 신속한 전방진출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미 제5해병연대는 배속된 한국 해병 제3대대에게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을 맡기고, 미 제1해병연대와 나란히 공격을 재개할 수 있는 위치까지 시가지를 우회 전진하도록 계획하였다.

D+1일, 미 제1연대와 제5연대가 확보할 통제선은 인천반도를 에워 싼 남북쪽의 바다에서 내륙 저지대 주안 염전과 남동 염전의 양끝을 연결하는 길이 약 4㎞의 최단거리였다.[80] 이러한 전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실상 해안교두보선은 고지군 외곽에 설정되었다.

제일 먼저 활동을 개시한 것은 해상의 함재기들이었다. 9월 16일 05:48분, 항모 시실리(Sicily)호에서 발진한 9대의 미 해병 항공기들은 국도를 따라 인천으로 접근중인 북한군 T-34 전차 6대를 간석동에서 폭격하였다. 적 전차는 모두 파괴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미 해병 항공기 1대가 적의 대공포에 피격되어 조종사 심프슨(W. F. Simpson) 대위가 목숨을 잃었다.[81]

미 해병 항공기들이 적 전차들을 강타하고 있을 때, 미 제5해병연대 제2대대

가 출발하였다. 대대는 경인국도를 따라 09:30분경까지 별다른 저항 없이 연대목표들을 점령하였다. 제2대대 뒤에 제1대대와 연대 예비인 제3대대가 종대대형으로 후속하고 있었다. 미 제1해병연대 좌전방 제2대대가 국도에 연하여 순조롭게 전진하는 동안, 우전방 제3대대는 문학산과 그 남쪽의 많은 고지군과 마을들을 수색하는데 지체되었다.

전반적으로 적의 저항이 대단치 않다는 것을 예견한 미 제1해병사단은 같은 날 10:45분 해안두보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전명령(4-50)을 하달하였다.[82] 이날 오전에 상륙한 사단 수색중대를 제1연대 우측방으로 진출시켰으며, 오후부터 제1연대는 제1, 제2대대로 병행공격을 계속하게 하였다. 제5연대는 제3대대가 전방으로 진출하여 제2대대와 협조된 공격을 개시하였다.

2) 인천 시가지 소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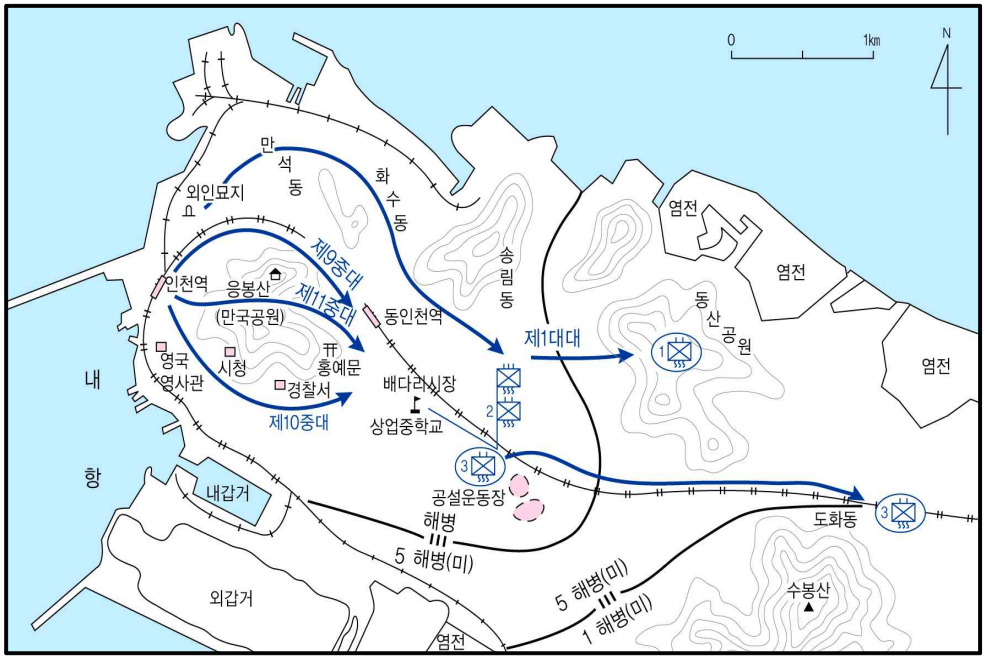
한국 해병 제3대대는 미 제5해병연대 예비부대로서 D일 오후 적색해안에 상륙하여 대한제분 쪽으로 철로 건너 응봉산 서쪽에 숙영지를 마련하였다. 한국 해병대 잔여 부대들은 야간에 상륙하여 공동묘지 부근 북쪽해안에 숙영하였다. 이때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 소장도 수도탈환의 전열에 끼려는 충정에서, D일 오후 해병대와 함께 인천에 상륙하였다.[83]

D+1일 아침 미 제5해병연대가 행동을 개시한 직후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은 제3대대뿐만 아니라 제1대대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는 한국 해병대 사령관 지휘로 실시되었다. 시가지에 가로 놓인 경인철도를 경계로 그 남쪽의 응봉산 일대와 도심지역



9월 16일 한국 해병들의 인천시가지 소탕

<상황도 3-10> 인천 시가지 전투



소탕을 제3대대가 맡고, 그 외곽인 경인철도 북쪽의 공장지대를 제1대대가 담당하였다.[84]

전날의 항공 및 함포와 상륙부대의 돌격작전에서 살아남은 적의 대부분은 이미 인천지역을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보였으나, 상당수가 민간인으로 변장하여 주택가에 숨어들어 있었다. 소탕작전 중 많은 적이 무기력하게 투항 또는 생포되었으나,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저항 또는 도주를 시도하다가 사살되기도 했다.

제3대대는 좌측의 철로 연변, 응봉산의 공원 일대, 주택가 등 일대를 소탕하였다. 경찰서에 진입한 해병들은 다수의 시민들이 적에 의해 구치소안에서 학살당한 참상을 목격하였다.[85] 대대는 이날 오후 소탕작전을 마치고 미 제5연대와의 다음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경인국도를 따라 도원공원에 집결하였다. 제1대대의 공장지대 소탕작전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대대는 해안선 철도를 따라

오전 중 송림동까지 진격하여 소탕작전을 마무리하고, 오후 동산공원 일대에서 야간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86]

해병대사령부와 제2대대는 이날 16:00시 인천상업중학교로 이동하였으며, 제3대대는 18:00시 경인국도를 따라 다시 행군하여 도화동 일대에서 야간 숙영지를 정하였다. 해병대는 시내의 주요 공공시설을 장악하고 야간에는 시내외 주요지역에 대한 경비와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소탕작전 첫날 해병대의 전과는 포로만 181명이었으며, 다수의 적을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하였다.[87]

3) 해안 교두보의 확보

D+1일 미 해병사단 포병연대 제4대대가 적색해안으로 상륙하여 포병 제1, 제2대대와 합류하였고, 전차 대대는 상륙조건이 순조롭지 못해 19:00시쯤 완료하였다.



인천으로 하선한 맥아더 장군(중앙)과 스미스 장군(우), 스트러블 제독(좌)의 모습

의무대대 병력도 이날 새벽부터 상륙하였으나, 장비들은 다음날에야 양륙되었다. 공병들이 적색-청색해안 사이 주보급로를 개통시켜 수송대대가 운용 가능하게 되자 16일 21:00시 청색해안은 폐쇄되었다. 이날 21:00시까지의 양륙 현황은 병력이 약 15,000명, 차량 1,500대, 그리고 화물이 1,200톤에 달하였다.[88] D+3일 이후의 양륙작전은 제2공병특수여단 통제 하에 황색해안(인천항 내항)으로 예정되었다.

미 제1해병사단 전방 공격부대가 해안두보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을 재재하는 동안, 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비로소 도일 제독, 맥아더 장군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운트 매킨리호를 떠났다. 미 제5해병연대는 이미 해안두보선의 북쪽에 도달하여 조병창이 있는 부평 일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주변 고지들을 장악하였다. 미 제1해병연대는 제5연대보다 약간 뒤로 처져 136고지를 점령하기까지 많은 손실을 입었다. D+1일 미 해병사단의 총 손실은 전사 4명, 부상자 21명 중 전사 4명, 부상 10명이 제1연대 제1대대 손실이었다.

미 해병사단의 새로운 지휘소에 도착한 스미스 소장은 이날 18:00시 공격부대 사령관 도일 소장으로부터 육상작전의 지휘권을 인수했으나, 이미 예하부대가 해안두보선상의 감제고지들을 점령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륙군 돌격부대가 인천 해안에 첫발을 디딘지 거의 24시간 만에 상륙목표는 확보되었으며, 이로써 인천 상륙의 돌격단계는 완료되었다.[89]

4) 인천 수복

한국 해병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천 일원은 질서와 안정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 인천은 상륙작전 과정에서 피해가 적지 않았고 적에 의한 약탈과 방화, 학살도 극심하였다. 게다가 긴급 복구와 구호를 주도할 행정기관은 적의 점령통치 하에서 마비된 상황이었다.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인천에 상륙한 다음날 인천의 시정을 조속히 복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 해병사단은 해안두보가 확보되는 대로 수도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곧장 내륙진격 작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인천시정을 복

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90]

스미스 소장은 우선 인천시장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시정의 복구문제를 손원일 제독과 상의하였고, 손 제독의 추천으로 임시시장에 표양문을 임명하였다. 이로써 시정을 복구하기 위한 제반 준비는 속속 진척되었다. 9월 18일 오전 시청광장에서 시장 취임식이 거행되었고 국문과 영문으로 된 상륙군 사령관 명의의 임시시장 임명장이 낭독되었다.[91]

미 해병사단의 내륙 진격작전이 진행됨에 따라 작전적 측면에서는 측방 경계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미 제1해병연대의 경우 측방에 대한 경계부담이 공격속도를 둔화시켰다. 남쪽측방으로 진출할 계획인 미 제7보병사단의 상륙이 시급히 요청되었으나, 점점 악화되는 조수조건으로 여의치 않았다. 그리하여 9월 18일 오후, 상륙군 후속부대로서는 최초로 미 제7보병사단 제32연대가 인천에 상륙하였다. 연대는 우선 미 해병사단에 배속되어 즉시 소사방향의 군단통제선까지 진출하여 미 해병사단 우측방을 엄호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제 4 절 서울탈환작전

1. 경인가도 진격

1) 부평지역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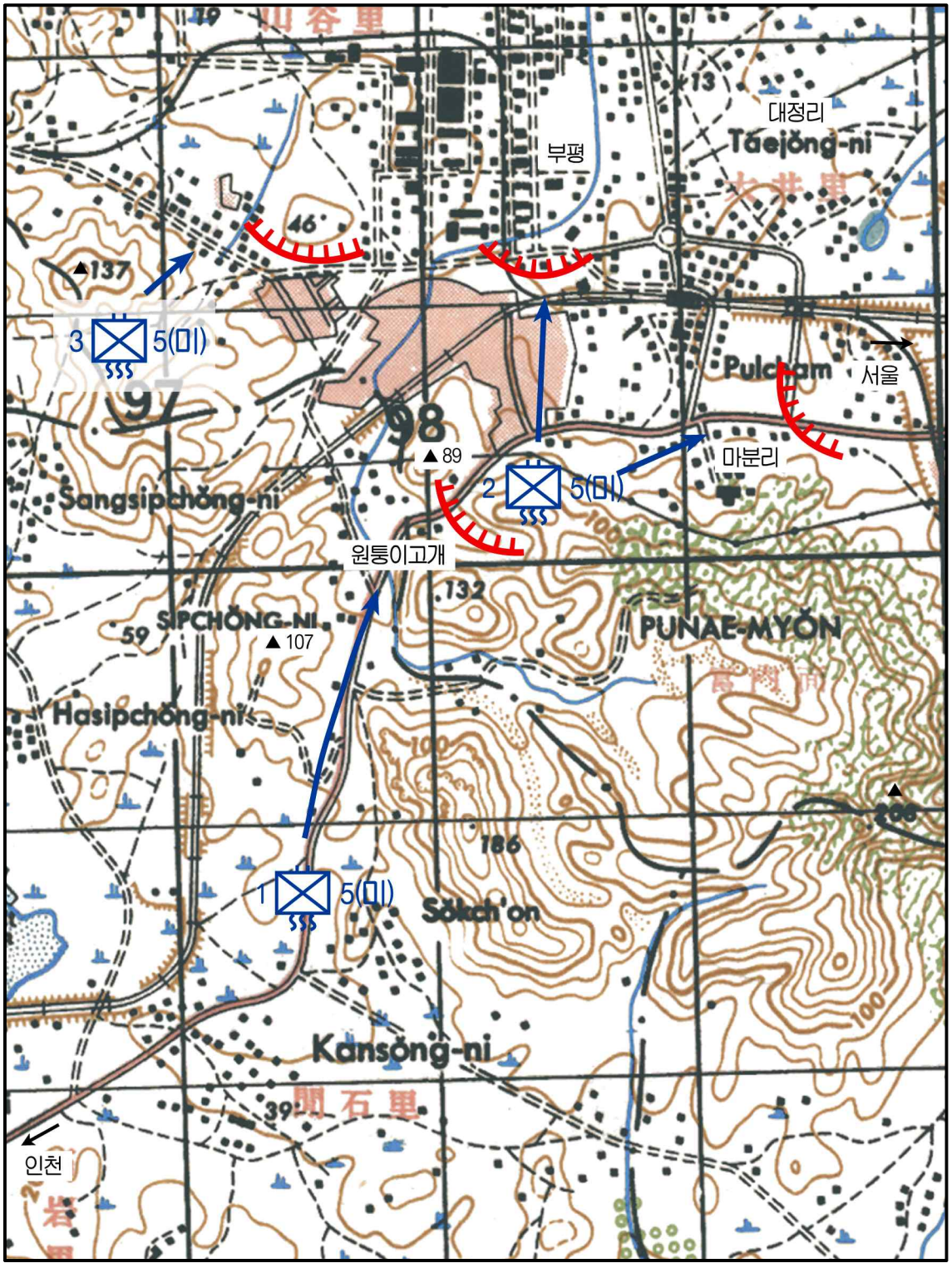
1950년 9월 16일 오후 맥아더(MacArthur) 장군은 인천으로 상륙하려는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Smith) 장군에게 "김포비행장을 가능한 조기에 탈취하라"는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92] 이 무렵 북한군은 제107연대와 제18사단 분산 병력을 모아 4개 대대로 재편성한 후 김포(金浦)-부평(富平)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하고 있었다.[93]

서울을 향하여 해안교두보선을 넘어서는 한미 해병부대들 앞에는 중간목표로서 장악해야 할 김포비행장과 영등포, 그리고 자연장애물로서 극복해야 할 한강 등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김포비행장의 조기 확보였으며, 아울러 영등포 탈취를 위해 경인(京仁) 국도가 중요한 공격축선으로 설정되었다.

이날(16일) 16:00시에 하달된 미 해병사단의 「작전명령 5-50」에 의하면, 9월 17일 07:00시 군단 통제선을 향해 동시공격을 하게 될 2개 연대 중 제5연대에 김포비행장이, 제1연대에 영등포 지역이 각각 목표로 설정되었고, 경인 국도를 횡단하는 소사(素沙) 동쪽에 제1연대의 목표 고지가 있었다.

미 해병대의 돌격부대는 인천-서울 가도를 중심으로, 제1연대는 가도 남쪽을 제5연대는 가도 북쪽지역을 할당 받아 공격 전진하고 있었다. 상륙군의 돌격 연대는 D일에는 해안 사정으로 중장비 양륙이 늦어 포병과 전차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적의 저항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다.

<상황도 3-11> 부평 부근 전투



이날(16일) 밤 미 제5해병연대와 제1연대는 부평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까지 진출하여 부평지역의 서방 경인가도를 통제하게 되었다. 미 제5해병연대 제2대대는 진지 부근으로 통과하려던 북한군 트럭 1대를 노획하고 북한군 장교 1명과 10명의 병사를 생포하였다. 제2대대장 로이스 중령은 상륙군이 교두보선을 넘어 부평방면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에 걸친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위중대로 하여금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94]

다음날(17일) 새벽 경인가도의 오른쪽 186고지 상에서 전초부대가 도로상에 북한군 T-34 전차 6대와 200여 명의 적이 서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적들은 미 해병대의 진지를 알지 못하였다. 적 전차는 대대 전초진지 앞을 지나 원통이고개를 내려갔다. 대대는 적의 마지막 전차가 90도로 굽은 큰 길을 돌 때 첫 포탄을 발사하여 후미 전차를 명중시켰다. 이에 대대 지원화기들이 일제히 집중되어 적을 섬멸하였다. 대대는 적을 제압한 후 급속 전진하여 17일 오후 이미 부평을 지나 김포비행장 서쪽 효성동까지 진출하였다.

미 해병 선두대대가 전진하고 있을 때 한국 해병 제3대대는 17일 06:00시경 부평역 서남고지에 진출하여 미 해병대대를 지원하였다. 그 후 국군 대대는 미 해병들이 진출하기에 앞서 07:00시부터 부평지역 탐색전을 개시하였다. 대대 선두는 부평역 바로 북쪽 언덕(37고지)과 조병창 서쪽 고지(46고지)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대대는 미 제5해병연대의 지원을 받아 즉시 적을 소탕하였다. 미 해병 대대는 09:00시 인천-서울가도에서 좌측방향 김포로 향하는 도로로 접어들었고, 국군 대대는 오전 중 소탕작전을 전개한 후 오후 늦게 진출을 재개하였다.[95]

이날 적은 육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인천 앞 해상에서도 야크(Yak)전투기 2대를 출동시켜 순양함 로체스터(Rochester)호와 자메이카(Jamaica)호를 폭격하여 약간의 피해를 주었다. 이들 중 1대는 아군 대공포에 격추되고 1대는 도주하였다.

한편 9월 17일 이른 아침 맥아더 장군이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 마운트 매킨리호를 떠나 미 제1해병연대 지휘소까지 방문하였다. 이날 맥아더 장군의 일행으로는 스트러블 중장과 세퍼드 중장, 그리고 알몬드 소장을 비롯하여 극동미군사

령부와 제10군단의 많은 장군들과 또다른 참모장교들, 신문특파원과 사진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들은 연대 지휘소로 이동 중 아군 항공기에 의해 파괴된 5대의 적 전차를 시찰하였고, 곧 원통이고개에까지 당도하여 전선을 둘러보았다. 맥아더 장군 일행이 떠난 뒤, 미 해병들은 길가 한 도랑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적병 7명을 체포하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96]

2) 김포비행장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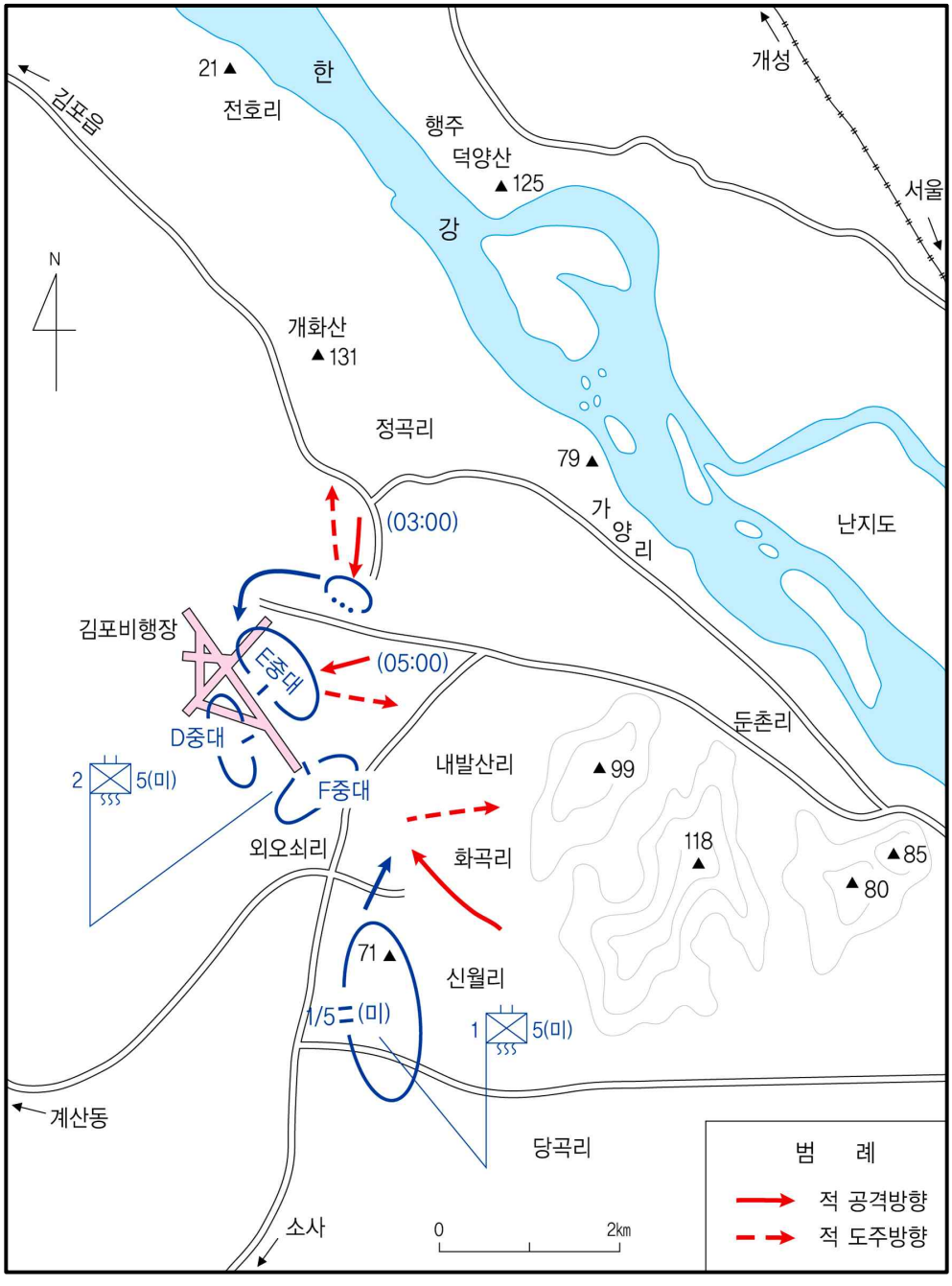
미 제5해병연대는 9월 17일 09:00시 김포비행장 탈환을 위해 진출을 재개하였다. 연대는 김포비행장 남쪽 몇 개의 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김포공항에는 북한군 제877항공대 소속 공항경비대대, 제226연대 및 제107연대 병력 등 약 400여 명이 방어하고 있었다.[97]

제2대대는 연대 목표를 손실 없이 점령한 후 오후 늦게 비행장의 남단 1km까지 접근하였다. 대대는 적의 소화기 공격을 전차포로 제압하고 18:00시 비행장 주활주로의 남단을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비행장의 외곽 포위를 위하여 E중대는 동쪽(오른쪽), D중대는 서쪽(왼쪽), F중대와 대대본부는 남쪽과 도로를 각각 포위하였다. 연대 우일선 제1대대는 비행장 동남쪽 목표고지를 점령한 다음, 야간에 제2대대 진지 1,500m 동남쪽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미 해병은 활주로 남쪽 외곽지대에서 적의 사격을 받자, 보전 협동으로 제압하였다. 제1대대는 18:00시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비행장으로 돌격하여 적의 공항경비대대장 소궁진 소좌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을 사살하였다. 미 해병대가 김포로 진입할 무렵 김포비행장 방어를 지휘하던 북한군 제107연대장 한치한 대좌는 이미 한강을 넘어 도주하였다.[98] 이날 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기습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전멸되었다.

한편 국군 제1대대는 19:00시 저항 없이 목표인 71고지와 주변 일대를 확보하였다. 대대의 방어진지는 비행장과 김포-소사 간선도로를 감제하는 높은 지대였고 남쪽의 미 제1해병연대와 연결하는 지점이었다. 연대 예비인 제3대대는 16:30분 부평역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상황도 3-12> 김포비행장 전투(9. 18)



9월 18일 03:00시, 미 제1대대는 비행장 북동 개화산에서 전차 1대를 앞세워 접근하는 중대규모의 적을 격퇴하였다. 날이 샐 무렵 비행장 남동쪽에서 비행장으로 침투하려는 적 200여 명을 격퇴하였고,[99] 적의 집결지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여 적을 섬멸하였다. 이로써 이날(18일) 08:00시 김포비행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는 서울 공격을 위한 공군력을 전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의 적을 격퇴하는데 매우 긴요한 기지였다.

미 제5해병연대 제1, 제2대대의 각 중대들은 비행장과 그 주변 마을들에 대한 수색을 완료하였으며, 미처 도망하지 못한 적 패잔병들을 포획하였다. 공격부대는 북쪽으로 계속 공격하여 131고지와 공항 동북방 99고지를 점령한 다음 한강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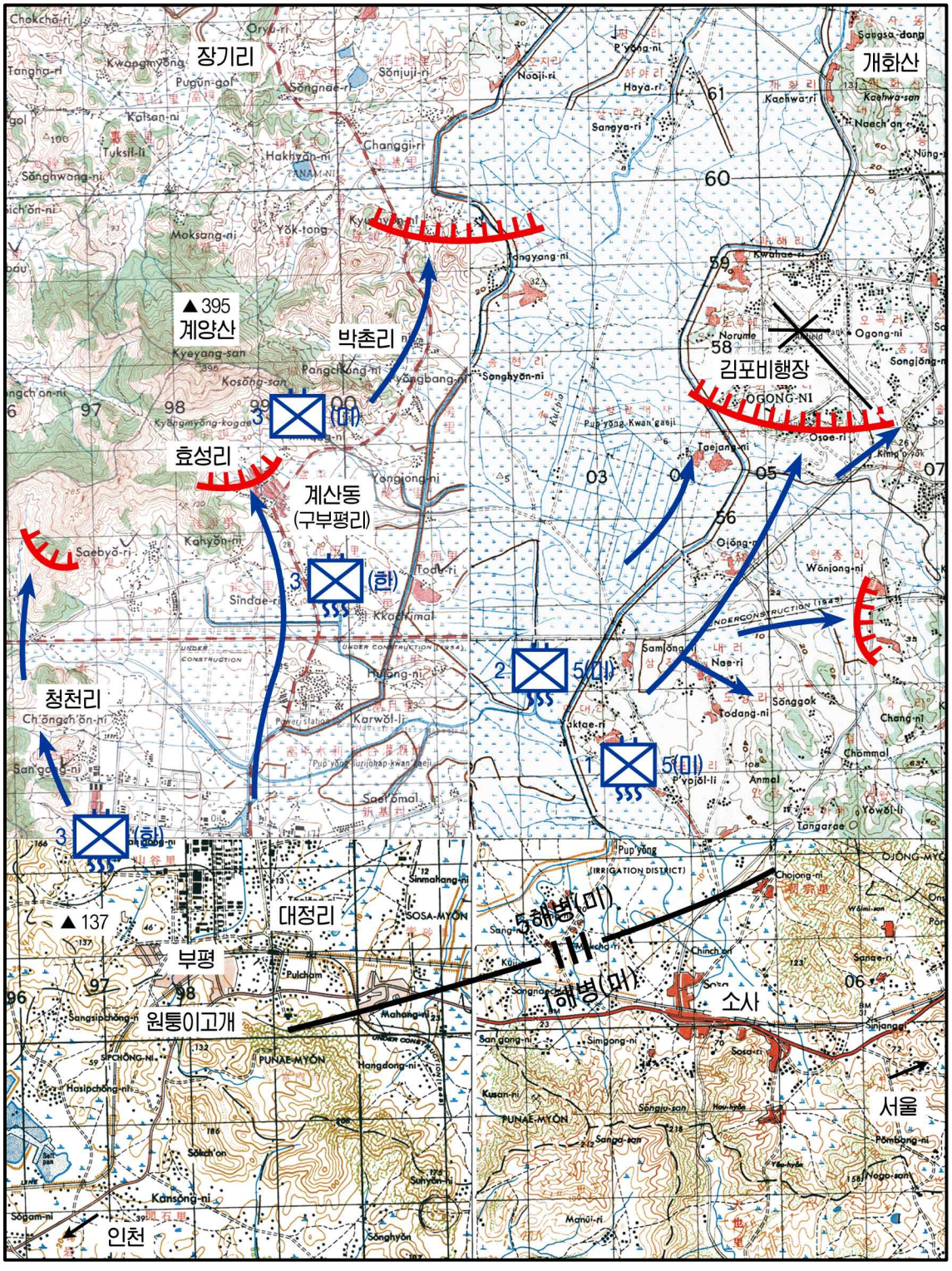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이미 확보된 김포비행장에는 이날 10:00시 「VMO-6」(미 해병 제6비행관측대대)의 헬리콥터 1대가 6월 이후 처음으로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여기에는 태평양함대 해병대 사령관인 세퍼드 중장이 탑승하고 있었다. 14:09분에는 일본에 있는 미 해병 제33비행단 예하부대(MAG-33)가 도착하였고, 이어 다음날 C-54 수송기와 기타 항공기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20일부터는 거의 모든 항공기가 김포에서 출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100]

3) 김포 부근 전투

미 제5해병연대가 김포비행장을 향하여 공격작전을 진행 중이던 9월 17일, 연대장 머레이(Murray) 중령은 사단 좌측방의 경계책임을 사단에서 맡아주도록 사단장 스미스 소장에게 건의하였다.[101]

이에 따라 9월 17일 17:00시 한국 해병대는 새로운 작전임무를 부여받았다. 제1대대는 계속 인천치안을 담당하며, 사령부는 18일 계산동으로 진출 제3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미 해병사단의 좌측 방어를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사단의 조치에 따라 2개 해안사격통제반(SFCP)을 미 제5해병연대로부터 지원 받아 각 대대에 배치하였다. 사격통제반은 지원부대와의 직접 통신망을 가지고 통상 피지원부대의 최전방에까지 나가 함포사격 지원을 통제하게 된다.[102]

<상황도 3-13> 김포 부근 전투



한국 해병대는 미 제5해병연대와 같이 인천시가 전투를 마치고 경인가도를 따라 진격하여 부평을 점령한 다음 계속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이날 해병대 사령부는 구 부평에 지휘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때 미 해병대 일부는 효성리를 경유하여 한강변에 있는 정곡리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북한군 패잔병들이 측방으로 도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포 일대가 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김포비행장에 대한 엄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 해병 제3대대는 9월 18일 독립적으로 김포와 부평간의 모든 지역을 경비하고 잔적을 색출 격멸하는 임무를 맡았다. 대대는 당일로 기동하여 17:00시에는 박촌리까지 진출하였다. 같은 날 인접부대 한국 해병 제1대대는 연희리를 거쳐 정곡리로 진출하였고, 한국 해병 제2대대는 부평에 진출하여 미 제5해병연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진지를 점령하였다.

9월 19일 오후 해병대사령부 정보참모실 소속 정보대가 김포로 진출하여 적정을 수집하였으나 이날 야간 한강 하류의 나루터로 김포반도에 건너 온 적으로부터 기습을 당하여 4명의 전사자 외에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103] 김포반도 쪽에는 약 3개 대대의 적 병력과 부평지구에서 퇴각하여 온 잔적들이 합류하여 다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포에 파견된 항공장교의 보고에서도 해병 제3대대 전방에 약 2개 대대로 추산되는 적이 집결중이라는 것이었다. 적은 아군이 한강을 도하하여 문산가도로 진격할 경우 퇴로가 차단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포지구 패잔병으로 하여금 신리를 거점삼아 한국 해병대의 진격을 끝까지 막아보려고 하였다.[104]

한국 해병 제3대대는 김포지역의 잔적섬멸을 위하여 김포 수로제방 북서쪽 지역을 목표로 우선 일차적으로 부평-김포읍간 지역을 탐색 격멸한 다음 제2단계로 김포 이북지역에서 강화도까지 평정하기로 작전계획을 세웠다.

다음날(20일)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제3대대가 김포반도의 잔적 섬멸작전을 하기에 앞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첩보부대 70명을 부평과 강화도 지역에 출동시켰다. 첩보부대는 이날 새벽 김포읍에 침투하여 정찰하던 중 돌연 약 150명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았다. 이들은 적과 교전하여 부대장을 비롯하

여 4명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으면서 고전하였다.

제3대대는 첩보부대를 구출하고 잔적을 섬멸하기 위해 김포읍 남쪽 157고지로 진출하였고, 때마침 주민이 제공한 정보로 적이 신리에 집결해 있으며 김포비행장에 약 1개 대대 병력이 역습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대는 즉시 신리 일대의 적을 기습 공격하여 많은 적을 사살하고 120명을 포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대대는 신리 일대의 적을 섬멸하고 계속하여 김포시가의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대대는 김포시가에서 180여 명을 포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2중대장이 생포한 북한군 제107연대장 한치한 대좌를 심문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카빈소총을 빼앗겨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다.[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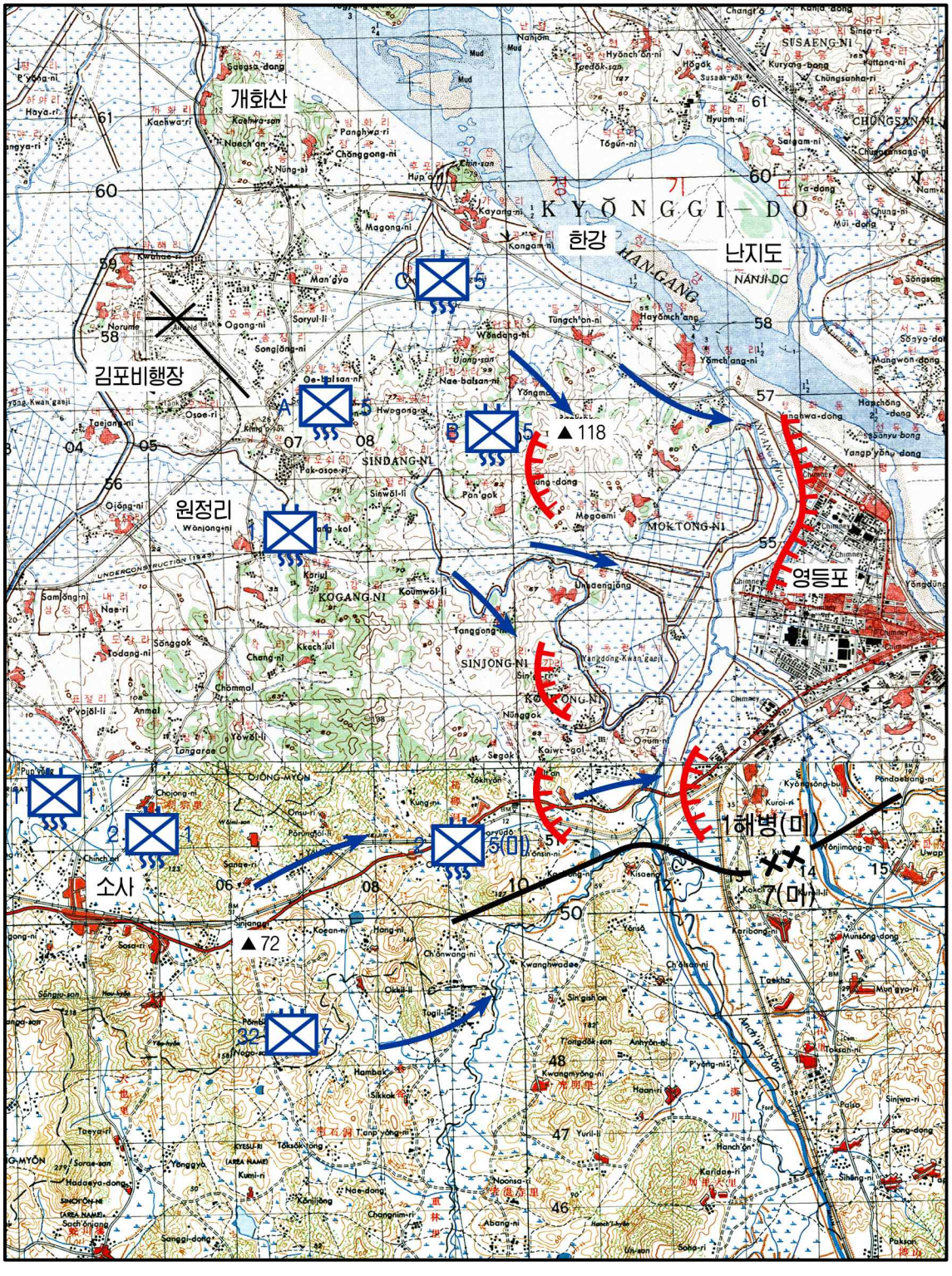
한국 해병대는 9월 21일까지 김포반도의 적 주력부대를 거의 소탕하여 제1단계 작전을 완료하였다. 이어 제3대대는 제2단계 작전에 따라 김포읍 이북에서부터 한강 연안지역, 그리고 강화도에 이르기까지 평정과 잔적 소탕을 담당하였다. 제3대대는 문주산과 성동리 그리고 한강하류 일대의 적 패잔병을 소탕하여 김포반도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날 미주리호를 비롯한 다수의 미 해군함정들이 김포 일대의 적 집결지를 강타하여 한국 해병을 지원해 주었다.[106]

4) 영등포 부근으로 진출

미 제10군단장 알몬드(Almond) 소장은 점차 적의 조직적인 저항이 예상되자 9월 19일 상륙기동부대의 도일 제독과 협의하여 20일 예정된 미 제7사단의 상륙을 앞당기도록 명령하였다. 상륙기동부대는 그간 주야로 양륙작업을 강행하여 18일까지 미 보병 제7사단 제32연대를 포함한 25,606명의 인원과 4,547대의 차량, 그리고 14,166톤의 화물을 양륙하여 상륙군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107] 미 제32연대는 17일 저녁 상륙하자마자 상륙군 우익인 미 제1해병연대 제1대대 진지를 인계 받았다. 이날 저녁까지 미 제1해병사단은 소사-영등포간 도로 북쪽 한강연안의 모든 고지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미 제1해병연대의 영등포 진입은 여전히 난관이 있었다. 적은 수도방위를 위해 교통과 보급의 중심인 영등포를 사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황도 3-14> 영등포 부근 전투



적의 어느 지휘관이 "만약 영등포가 함락되면 그 즉시 서울도 함락될 것이다"라고 한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제18사단의 1개 연대로 영등포를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영등포는 전술적으로 방어하기 부적당한 곳이었으며 또 당시 적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108]

하여간 미 제1해병연대는 김포방면으로 공격한 미 제5해병연대와 한국 해병대보다 고전하였다. 소사를 벗어나 경인가도를 따라 공격하던 미 제2대대는 적의 지뢰지대에 걸려 선두의 전차가 정지되었으며, 공병소대의 지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전진하던 중 도로우측 146고지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이 고지는 작전계획에 미 제32연대 지역이었다. 제2대대는 고지를 공격하여 17:30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제3대대와는 동남 1.6㎞에 있었다. 미 제1해병연대 우측은 미 제7사단 예하부대가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한편 미 제1해병연대 제1대대는 미 제5해병연대 제1대대가 위치한 85고지와 117고지의 진지를 교대하기 위하여 진격하였다. 미 제5연대 제1대대는 다음 작전을 위해 85고지를 비운 채 이동하였다. 미 제1연대 제1대대가 미처 진지를 점령하기 전에, 적이 85고지를 점령하고 이어 117고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항공근접지원으로 적을 격퇴하였고 이어 85고지도 탈환하였다.

이 무렵 미 제1해병연대 제2대대 지역에서는 적의 대규모 역습부대가 전차를 앞세워 접근해 오고 있었다. 적은 아군의 위치를 알지 못해 아군진지를 통과하여 포위망으로 뛰어들었다. 결국 이들은 아군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고 섬멸되었다. 새벽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적은 300여 명의 시체와 파괴된 전차와 차량, 그리고 각종 장비가 도로가에 흩어져 있었다.

미 제1해병연대가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미 제32연대가 우측으로 진격하여 영등포 남쪽 도덕산(182고지)을 확보하였다. 이어 국군 제17연대와 미 제7사단 잔여부대들이 18일 상륙하여 19일 전선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영등포를 공격하는 아군 총병력은 국군 제17연대 1,873명을 포함하여 총 5,114명이었다. 미 제7사단은 경인가도의 남쪽인 미 제1해병연대 우측을 책임지게 되었으며, 경인지역에 마지막으로 상륙한 미 제31연대는 수원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2. 한강 도하와 영등포 부근 전투

1) 한강 도하작전

(1) 도하 준비와 최초 야간도하

미 제1해병사단이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미 제7사단의 일부부대가 육상으로 전개하여 있었기 때문에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었다.[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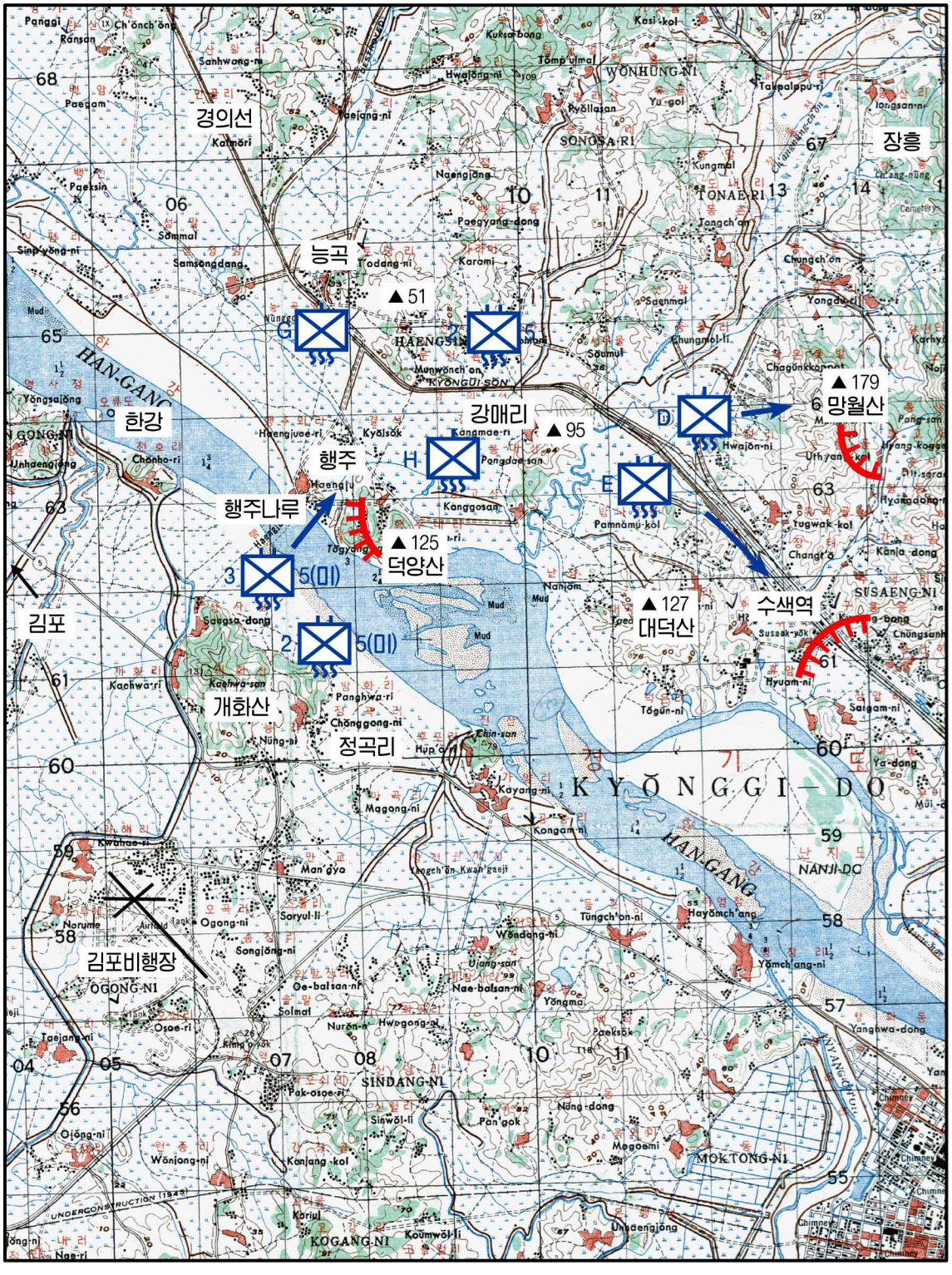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9월 18일 오후 미 제1해병사단에 대하여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북쪽고지를 점령하라는 작전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고, 미 제1해병사단은 예하부대에게 도하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110] 이 명령의 요지는 미 제1해병연대가 국도를 따라 영등포를 향해 계속 진격하고 미 제5해병연대가 19일 도하지점을 선정하고 준비를 갖춘다는 것이었다.

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9월 19일 아침 제10군단장에게 미 제5해병연대의 상륙지점으로 행주나루를 선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111] 지금까지 사실상 도하 작전부대는 미 제1 및 제5해병연대와 한국 해병대, 그리고 미 제32연대뿐이었다.

미 해병사단의 좌측을 경계하던 한국 해병대는 D+3일 김포 수로제방 서북쪽을 점령하는 임무를 완수하였다. 미 해병사단의 전투지원부대인 제1수륙양용차(LVT)대대도 미 제5해병연대의 도하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행장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미 해병 제1해안지원단은 LVT와 수륙양용트럭(DUKW)을 통제하고 도하 후에는 보급소 운영임무를 수행하였다.

행주 도하작전에 참가한 부대는 미 제5해병연대와 한국 해병 제2대대, 미 해병사단수색중대, 미 해병 제1전차대대 A중대 등이었고, 미 해병 포병 제11연대가 도하를 직접 지원하기로 되었다. 미 제5해병연대장 머레이 대령은 김포비행장 지하실에서 참모들과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112] 연대 작전계획은 한강을 도하하는 즉시 대안의 행주 125고지를 점령하고, 이후 철로를 따라 서울 남동쪽으로

<상황도 3-15> 한강 도하작전(9. 20)



진격하여 간선도로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미 제5해병연대의 도하계획은 다음과 같다.[113]

1) 정찰중대는 먼저 대안을 정찰한 후 적이 없으면 주력을 LVT로 도하시켜 행주와 125고지를 점령하고, 이후 도로상의 지뢰를 제거하고 문산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다.
2) 제3대대는 20일 오전 4시 도하를 개시하고 정찰중대를 초월하여 서울을 향해 진격하는 동시에 95고지, 25고지를 점령한다.
3) 제2대대는 오전 6시 한국 해병대 제2대대와 같이 도하를 개시하여 제3대대를 초월한 다음 서울을 향해 진격한다.
4) 제1대대는 오전 6시까지 병력을 도하지점에 집결시켜 별명에 의해 도하하고, 전차와 연대 중화기 역시 문교[114]가 설치되는 대로 별명이 있을 때 비로소 작전행동을 개시한다.

도하정찰반은 호톤(K. J. Houghton) 대위가 지휘하는 사단 수색중대 14명(장교 2명, 사병 10명)과 통역장교, 정훈장교 등 미 해군 예비역 장교 2명이 동반하게 되었다. 당시 통역장교로 동행했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대위는 1885년 내한하여 현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던 언더우드에 이어 3대째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어 원일한이라는 한국명으로 유명하다.[115]

도하정찰반이 대안에 먼저 건너가 안전하다고 신호한 다음 도하가 개시될 예정이었다. 행주나루 부근은 부대 전진이 용이하고 지반이 견고하여 중장비를 양륙하기에 적합하였다. 또 강 너비가 550m에 불과하였고 대안의 목표고지인 125고지는 주력도하의 엄호와 진출 거점으로 양호하였다.

행주 일대에는 19일 저녁부터 이미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125고지는 과거 임진왜란 시 전라감사 권율이 적은 군사로써 많은 왜적을 물리친 곳이었다.[116] 이날 밤 125고지에 대하여 공격준비사격이 집중되었고, 사단수색대 도하정찰반 14명은 20:00시 대안을 향해 최초 도하를 감행하였다.

정찰반은 적에게 발견되지 않고 도강하는데 성공한 후 도하지점 부근과 125고

지 경사면을 정찰하였으나, 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호톤 대위는 곧 사단 수색중대에게 도하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사단 수색중대는 21:00시경 수륙양용차(LVT) 8대에 분승하여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125고지로부터 적의 기관총과 박격포 사격을 받았다. 수색조가 정찰한 고지는 125고지 서쪽 1,000m나 떨어져 있는 고지였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선두 LVT 4대는 모래사장에 좌초되었고 대안에 있던 정찰반도 사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수색중대는 더 이상 전진이 곤란하게 되어 다시 남안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정찰반은 호톤 대위 등 3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실종되었다. 이 작전은 적을 경시하고 야간 정찰활동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데 실패원인이 있었다.

(2) 한강 도하작전

미 제5해병연대장은 기습 도하계획이 좌절되자 부득이 강습 도하할 것을 결심하였다. 아군의 도하기도가 폭로된 이상,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대안의 적은 약 1개 중대로 추산되었다.

9월 20일 04:00시 미 해병포병연대는 15분간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고, 제3대대에 도하공격 명령이 하달되었다. 당시 연대 지휘소인 개화산에는 미 해병 대사령관 세퍼드 중장을 비롯하여 알몬드 제10군단장, 스미스 사단장,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운집해 있었다.[117] 06:45분 도하 선두부대는 125고지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뒤이어 도하한 중대들도 5~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공격제대가 기동하는 동안 함재기(VMF-214) 편대가 125고지의 적을 맹타하였다. 이 일대의 적은 제45사단 예하 제76연대와 제513포병연대 일부 병력이었다. 이들은 이날(20일) 02:00시 이동하여 미 도하부대와 조우하였던 것이다.[118]

125고지를 공격한 제1중대는 적의 사격을 받고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09:40분 드디어 2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목표고지를 점령하였고, 후속부대들도 각각 95고지와 51고지를 점령하였다. 연대 선두인 제3대대는 제1중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교두보를 구축하였다. 이날 대대의 사상자 43명은 주로 공병중대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지난밤 기습도하에서 실

종되었던 정찰반도 생환하였다.

이날 08:30분 미 해병 제2대대가 도하하고 이어 한국 해병 제2대대가 미 해병 제56수륙양용차(LVT)대대 A중대와 함께 도하하였다. 한국 제2대대의 임무는 미 해병 제5해병연대의 측방과 후방을 엄호하는 것이었다. 대대는 12:30분 행주 동북방 2㎞ 지점인 홍매리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여 경계에 임하였다. 대대는 토당리 동북 국조봉에 적 1개 대대병력이 집결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지를 강화하였다. 이날 밤 예상한 대로 적이 중기관총사격의 엄호를 받으면서 공격해 왔다. 정면의 제5중대가 일제히 사격을 집중하였고, 대대의 모든 화력이 집중되었다. 적은 몇 차례 공격을 재개하였지만 대부분이 전멸되었다.

미 해병 제2대대는 연대 선두부대인 제3대대를 초월 진격하여 13:45분 적 30명을 포획하면서 화전리로 진출하였다. 이날 연대본부와 12대의 전차, 그리고 미 해병 제1대대가 도하를 완료하였으며 공병대가 도하지점에 교량을 가설하기 시작하였다.

서울 서측방의 미 제5해병연대는 적이 서울을 고수하기 위해 약 2개 연대의 병력을 새로이 급파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고전이 예상되었다.[119] 9월 21일 08:00시 한국 해병 제1대대는 미 제5해병연대 제1대대와 합동하여 최전방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미 제7해병연대가 인천에 상륙하자 서울탈환 시까지 사단 좌일선을 맡고 제5해병연대를 사단예비로 삼을 계획이었다.[120] 그러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한국 해병 제1대대와 미 제5해병연대가 한강 북쪽의 적의 강력한 저항을 물리치고 영등포의 미 제1해병연대의 도하지점을 타개해 준다는 것이었다.[121] 서울탈환의 주공부대를 한국 해병대로 지정한 것은 비록 전투경험과 장비 면에서는 미약하였지만 정치적 고려와 심리적인 면에서 한국군과 한국민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21일 17:00시부터 정식으로 작전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그는 제7합동기동부대 사령관 스트러블 제독을 통해 간접 지휘를 하였던 것이다. 이날 아군은 미 제1해병연대가 영등포방면에서 악전고투

중이었고, 미 제5해병연대가 215고지와 68고지 등을 점령하였으며 한국 해병대가 104고지까지 진출해 있었다.

이날 맥아더 장군이 경인지구 전선시찰을 마치고 김포비행장을 통해 일본으로 복귀하였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미 제5해병연대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또 소사 방면의 미 제7사단을 격려하고 돌격작전에 큰 공로를 세운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 소장에게는 미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122]

2) 영등포 전투와 서울 남측방 진출

(1) 영등포 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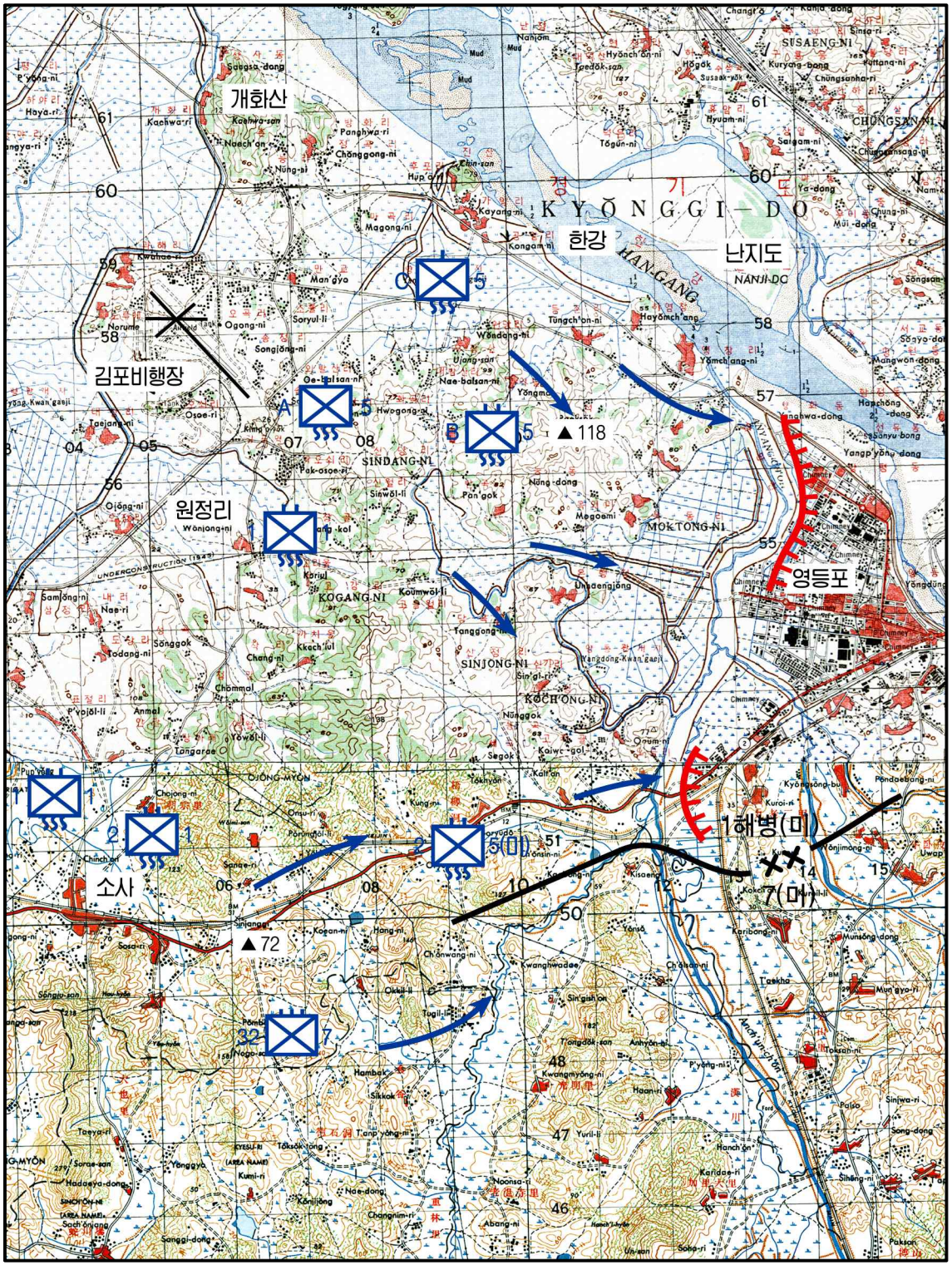
행주나루에서 미 해병사단 수색중대가, 그리고 김포에서는 한국군 해병대가 한차례 고전을 겪었던 9월 20일 영등포 방면의 미 제1해병연대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북한군 제9사단 제87연대와 제18사단 예하부대 병력이 미 제1해병연대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123]

미 제1해병연대는 좌측방 118고지에 제1대대, 우측방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제2대대를 배치하고 있었으나, 20일 새벽 적의 역습을 받았다. 특히 제2대대 정면의 적은 5대의 전차를 앞세운 1개 대대규모로 추산되었다. 적의 역습부대는 아군의 화망에 걸려 초전에 분산되었으며 덕고개 일대에 적의 시체 300여 구가 널려져 있었다.[124]

그 후 미 제1해병연대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적들은 저지대의 폭넓은 개활지와 연대전방의 안양천 제방을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영등포 시가지를 요새화하고 있었다.

미 제1해병연대와 포병들은 20일 야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포격을 집중하였다. 21일 06:30분 1,800여 발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연대는 제2대대를 주공으로 경인가도를 따라 영등포의 서북쪽과 서남쪽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때 연대 우측의 미 제32연대도 동시에 공세를 취하였다. 미 제1해병연대 좌일선 제1대대는 전차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양천을 건너 영등포의 서쪽 일각으로 돌진

<상황도 3-16> 영등포 전투



하였다. 대대는 양화교 뒤 제방에 배치된 1개 중대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전진하였다.

연대 주공인 제2대대는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저녁때까지도 목표고지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대대는 전사 11명, 부상 24명의 피해를 입었으며, D일 이후 총 28명이 전사하고 226명의 부상자를 내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풀러 대령은 21일 15:00시를 기해 예비 제3대대와 임무를 교대시켰다. 이때 전선 우측방을 담당한 미 제32연대는 예정대로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안양 부근으로 진출하여 서울-수원간 도로를 차단하였다.

미 제1해병연대의 공격은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답보상태였지만, 영등포 시가는 화염에 쌓여있었다. 제3대대는 아군의 강력한 포격지원 하에 제2대대를 초월 공격하여 일부 주요 거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영등포를 공격하기 시작한 21일 아침 미 해병 제1대대 A중대는 118고지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완전한 대형을 유지하며 영등포 시가로 돌입하였다. 중대는 적의 후방지역까지 진입하여 좌측에서 경인가도를 따라 행군하는 적의 대열을 발견하고 기습하여 격멸하였다. 중대는 정오 무렵 영등포 시가를 통과하여 동북단에 진출할 수 있었다.[125]

중대는 여의도가 내려다보이는 영등포 동북 한강 뚝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적은 요지를 확보하기 위해 5대의 전차를 앞세워 5차례에 걸쳐 공격해 왔으며, 중대는 대전차포로 적 전차 3대를 격파하면서 대응하였다. 적은 야간에 중대 북쪽으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격퇴되었다. 다음날(22일) 아침 중대는 진지 앞에 225명의 적 시체와 많은 장비가 흩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미 제1해병연대의 주력은 22일 08:00시 영등포 시내의 제1대대 A중대를 선두로 전면 포위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상당수가 사살 또는 포로가 되었으며 대부분 각개로 분산 퇴각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23일 노량진을 경유하여 한강인도교까지 진출하였다. 적 제87연대는 제9사단이 낙동강으로 남진 시 인천에 잔류하였다가 9월 15일 김천으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다시 열차를 이용하여 20일 영등포에 도착한 부대였다.[126]

미 해병사단은 서울탈환에 대한 작전명령을 어제 공격연대에 미리 하달하였다. 한강을 이미 도하한 미 제5해병연대와 한국 해병대 제1, 제2대대는 서울 서북쪽에서 공격하고 있었다. 이날(23일) 작전에 참가한 미 제7해병연대는 사단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북방에서 서울에 이르는 적의 진로를 차단하고, 미 제1해병연대가 사단 우측방으로 영등포방면에서 한강을 도하하여 압박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미 제1해병연대는 영등포를 완전히 장악하였고 제3대대가 노량진으로 진출하여 한강 교량의 감제고지들을 확보하였다.[127]

(2) 서울 남측방 진출

미 제7사단은 9월 20일 새벽에야 인천-안양간 도로를 중심으로 작전에 돌입하였다. 사단은 미 제1해병연대가 영등포에 진출하고 있을 때 그 우측을 방어하면서 적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 수원비행장을 조기 확보하도록 임무를 받았다.[128]

안양을 공격하던 미 제32연대는 도로상에 매설된 지뢰지대를 제거하며 전진하였기 때문에 진출이 다소 지연되었다. 미 제32연대 제1대대의 공격을 선도하고 있던 제73전차대대 A중대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3대의 전차가 지뢰 때문에 궤도가 끊어지게 되었다. 후속부대들도 차단된 도로 때문에 진출이 전체적으로 지연되었으나, 공병부대가 전력을 다하여 지뢰 발굴 작업을 강행한 결과 150개의 지뢰를 제거하였고, 다행히 적의 저항은 경미하였기 때문에 저녁 무렵 도덕산 일대를 점령하여 경부선을 제압하였다. 미 제32연대는 9월 21일 미 제1해병연대의 영등포공격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 공격을 속개하여 저녁 무렵 제1대대가 안양북방 2㎞의 300고지를 점령하고, 제2대대가 영등포 남쪽고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미 제7사단장 바르(David G. Barr) 소장은 정찰중대에 전차소대를 배속시켜 수원비행장을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정찰 중대는 16:00시경 전차를 선두로 수원으로 남진하였으며, 이때 사단 작전참모도 전차 1개 소대와 18전투공병대를 끌고 도착하였다. 이들은 수원비행장 부근에서 북한군 소좌 이하 37명을 포획하고 그 남쪽능선에 전면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들과 연락이 끊긴 사령부는 다시 핸넘(C. S. Hannum) 특수임무부대를 수원비행장으로 투입하였다.[129] 이들 중 4대의 아군 지프차가 안양에서 적 전차를 아군으로 잘못 판단한 결과 적의 공격으로 헨넘 중령 이하 23명이 전사 또는 부상당하였다. 핸넘 부대는 22일 새벽 정찰중대와 합류하였고 이어 미 제31연대의 주력도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였다.

미 제7사단 제32연대는 제1대대가 안양동북방 14㎞ 지점에서 적을 격퇴하고 한강 철교와 인도교 남쪽 2~4㎞ 지점까지 진출하여 목표고지(290고지)를 확보하였다. 다음날 아침 제2대대는 한강남안에 접근하는 일부의 적을 격퇴하였다.

이와 같이 미 제7사단 예하부대들은 안양에서 남진한 사단 정찰중대와 미 제31연대가 9월 22일 수원비행장을 점령하여 중요한 항공기지를 확보하였으며, 미 제32연대는 한강 남안으로 진출하여 서울시내에 배치된 적을 격퇴시킬 준비를 갖추었다.

3. 서울 탈환전

1) 104고지 전투

수도탈환의 제일선 부대인 국군 해병 제1대대는 9월 21일 오후 미 제5해병연대와 함께 서울 북서쪽 외곽에 진출하였다. 한미 해병대의 진지 전방인 신촌 일대에서는 적의 화차 기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130] 이 일대의 북한군은 1개 보병연대와 서울 치안연대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적 치안부대는 전선에서 도주하던 병사들을 모두 모아 방어진지에 투입시키고 아울러 시가지에 바리케이드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다.[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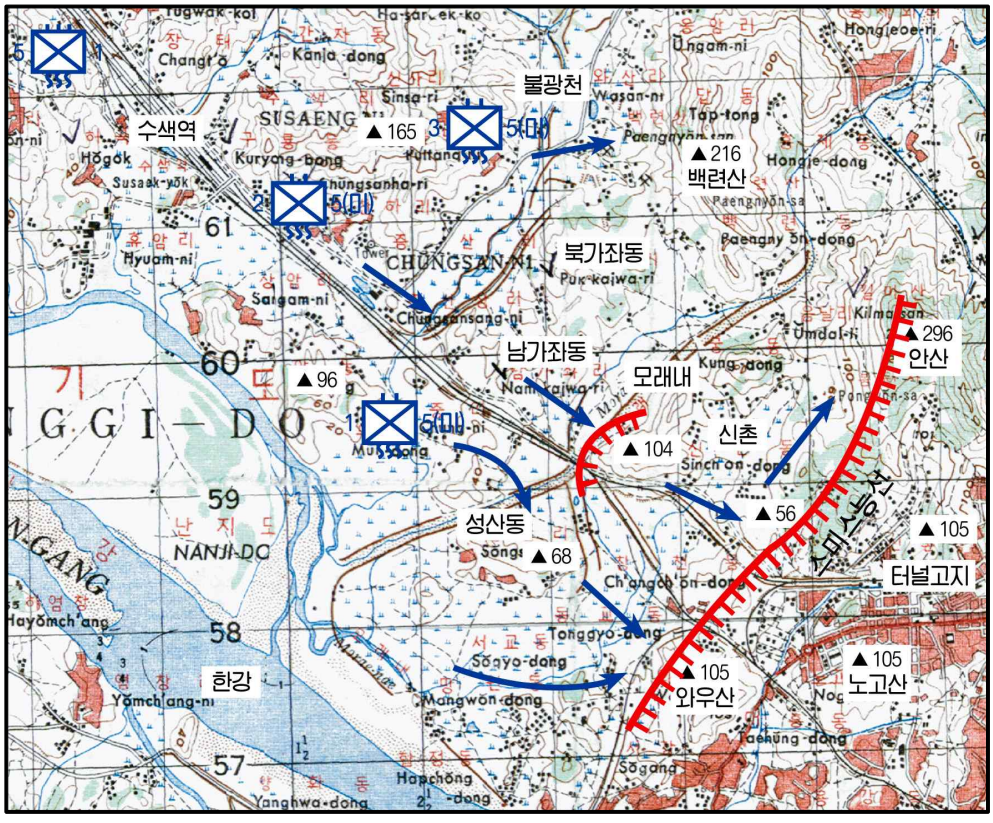
미 제5해병연대와 한국 해병 제1대대는 미 제1해병연대가 영등포 시가를 확보할 무렵 수색 방면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와 철로를 따라 본격적인 공격준비를 갖추었다. 한국 해병 제1대대가 중앙을 담당하였고, 미 제5해병연대 제1대대

가 좌측, 미 제3대대는 우측방의 공격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 지역의 공격 목표들은 홍제동에서 서교동쪽으로 뻗어 야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북쪽 105고지(의령터널 고지)와 중앙 105고지(노고산), 그리고 남쪽 105고지(와우산) 등 3개의 105고지로 형성되어 있었다. 한국 해병 제1대대는 20일 00:30분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수색을 무혈점령한 후 모래내의 104고지(염산) 전방까지 진출하고 있었다.[132]

21일 미 제5해병연대 좌일선 제3대대는 안산(296)으로 향하고 미 해병 제1대대는 105(S)고지를 향해 공격하였다. 곧이어 한국 해병 제1대대도 14:00시경 104고지를 공격하였다. 104고지 앞에는 하천과 개활지가 있어 적에게 유리하고 아군의

<상황도 3-17> 연희고지 부근 전투



기동에 상당히 불리한 지형이었다. 적의 저항은 유례없이 치열하여 모든 화력을 총동원하여 저지사격을 집중하였다. 2시간 동안의 혈전에서 대대는 8명의 전사와 20명의 부상자를 내고 마침내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104고지에서 패주한 북한군은 다음날 22일 04:00시 다시 역습을 감행하였다. 적은 약 600명이 120㎜ 박격포와 기타화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3시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공격해 왔다. 한국 제1대대는 화력을 집중하고 진내전(陣內戰)까지 치루면서 적을 격퇴하였다.

한국 해병대는 104고지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외국신문기자와 통신원들이 다수 전투광경을 원거리에서 참관하였기 때문에 한국군의 용감성을 세계에 널리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104고지는 아군의 서울 돌입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제고지로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요지였다.

2) 연희고지 전투

연희고지 주변의 지형은 서울 북쪽 인왕산(338고지) 남서로 296고지(안산)가 위치해 있으며, 고지 남동쪽에 3개의 105고지와 연세대학을 중심으로 한 좌우 전후에 나지막한 능선이 있다. 이 일대의 능선은 외곽공격을 방어하는데 유리한 지형을 제공하였다.

적은 방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296고지 능선에서 한강 연안으로 뻗은 남쪽 105고지까지 서울 방어를 위한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적은 이미 9월 18일부터 안산선과 와우산을 연하는 방어선에 총력을 집중하여 보강하고 있었다.[133] 이들은 주요 방면의 도로와 교량에 장애물과 지뢰를 매설하고, 연희고지 일대에는 화망을 구성하고 있었고, 전방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예비진지도 구축되어 있었다.

안산선의 적은 제18사단 예하부대와 인천에서 후퇴한 부대들이었으며, 연희고지 방면의 적은 제78독립연대와 제25교육여단이었다. 제78독립연대는 약 2천여 명이었으며, 제25교육여단은 보병대대 외에 포병, 공병, 중화기 대대 등 지원부대를 갖추고 있었다.[134] 북한군 제25여단은 철원 북방 2㎞ 지점에서 낙동강 전선

에 참가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있었으나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자 서울 방어를 위하여 17일에서 21일 사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은 연희고지 능선을 넘어 좀 더 진출해야 적의 주저항선 진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도탈환을 위해 넘지 않으면 안 될 사선은 해병들의 바로 눈앞에 있었다. 104고지를 점령한 한국 해병대의 제1대대는 계속 105고지(의령터널고지)를 목표로 향해 진격의 기세를 멈추지 않았다. 좌측 미 제5해병연대 3대대는 296고지(안산)를 목표로, 그리고 우측의 미 해병 제1대대는 철로를 횡단하여 서교동의 105고지를 목표로 하여 각각 공격을 강행하였다.[135]

22일 07:20분 한국 해병 제1대대가 중앙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동시에 미 해병 제3대대와 제1대대도 좌우측에서 각각 목표고지를 공격하였다. 상륙 이후 심각한 저항을 받아 보지 못한 대부분의 해병들은 서울이 바로 눈앞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었다.

한국 제1대대는 105고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m도 안 되는 연희고지를 향해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적으로부터 치열한 저지사격을 받았다. 대대는 개활지를 건너는 동안 사격에 노출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대대는 지금껏 전투에 참가한 이래 가장 치열한 적의 저항에 부딪쳤고 종일 반복된 공격에서도 선두가 불과 100m도 전진하지 못하였다. 미 해병 제3대대가 안산 일대를 제압하여 한국 제1대대의 공격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급한 경사면에 구축되어 있는 적의 진지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적이 오히려 포격을 가해 왔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려웠다.

북한군은 이날 새벽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해 제25여단 2개 대대와 제45사단 전차연대 전차 9대를 투입하고 있었다.[136] 적은 120㎜ 박격포를 비롯하여 중기와 경기 등 각종 화기를 총동원하여 저지사격을 집중하였다. 아군은 항공 및 포의 지원 사격도 여의치 못해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한국 제1대대의 연희고지 공격은 다음날(23일)까지 계속 되었으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서울 돌입을 목전에 두고 감행된 피아간의 공격에서 한국 해병대

는 명예를 걸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날 오후 예비인 미 해병 제2대대와 임무를 교대해야 했다. 이날 한국 제1대대는 전사 11명, 부상 45명에 달하였고, 북한군 제25여단도 이날 무려 40%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다.[137]

한국 해병 제1대대가 105(C)고지에 이르는 중간 목표인 연희고지를 2일간이나 공격하고 있을 무렵, 서울 서측방 우일선에서 105(S)고지를 공격하고 있던 미 해병 제1대대는 역시 치열한 적의 저항을 받고 있었다. 대대는 미 제1해병연대의 도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지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전력을 집중하여 23일 17:30분에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고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영등포의 미 제1해병연대는 도하를 준비하고 있었고, 미 제7사단 제32연대는 한강교 남쪽 고지를 탈취하고 또한 서울 동남쪽에서 한강 남안으로 진출하였다. 제1대대는 290고지와 동쪽의 고지를 탈취한 끝에 남쪽으로의 도로를 차단하였고, 제2대대는 한강 남안의 서빙고 대안인 신사리를 공격하였다. 이날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는 안산 산정에서, 제1대대는 105(S)고지에서 각각 하루 종일 적의 반복되는 역습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이틀 동안 한국 해병대의 진출이 부진했던 상황은 미 항공과 포 지원, 그리고 인접부대의 엄호사격으로 겨우 타개할 수 있었다.[138] 한국 해병 제1대대와 임무를 교대한 미 제5해병연대 제2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이들 역시 적의 탄막사격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우측에서 공격한 F중대의 한 소대는 이날 저녁 총원이 7명에 불과할 정도로 손실이 많았고, D중대는 악전고투한 끝에 56고지 후사면으로 겨우 진출하였다.[139]

미 제2대대는 24일 06:10분 20분간의 준비포격을 실시한 후 목표능선 후사면에서 다시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전진하지 못하였다. 10:30분경 안개가 걷힌 후에 D중대가 공중지원과 야포지원하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남은 병력은 불과 44명이었다. 중대는 적탄이 빗발치는 정상을 향해 돌격을 감행하여 마침내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대장 스미스 대위가 전사하는 등 병력 중에 26명만이 생존

하였다. 후일 미 해병들에 의해 스미스 능선이라 이름 붙여진 안산에서 56고지로 이어지는 능선이 확보됨으로써 서울 서측방 적의 주진지를 돌파하게 되었던 것이다.[140]

미 해병 제2대대가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면서 얻은 전과는 예상보다 막대한 것이었다. 능선상의 호 속에는 무수한 적 시체들이 있었고 56고지와 그 능선에는 1,500구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다. 미 해병사단은 296고지(안산)를 연한 전투전과를 종합한 결과 1,750명의 적을 사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적 보고서에 의하면, "적의 공격은 14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방어진지와 포병 지역에 네이팜탄 등 항공폭격이 집중되어 결국 진지가 붕괴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141]

이와 같이 최초 미 해병사단이 적의 가벼운 전초진지 정도라고 판단했던 연희고지 능선은 사실상 적의 서울 서측방 방어의 최후보루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해병 제1대대와 미 제5해병연대 제2대대에 의해 수행된 연희고지 일대의 전투는 서울 돌파전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였으며 서울 서측방의 적 방어선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전투였다.[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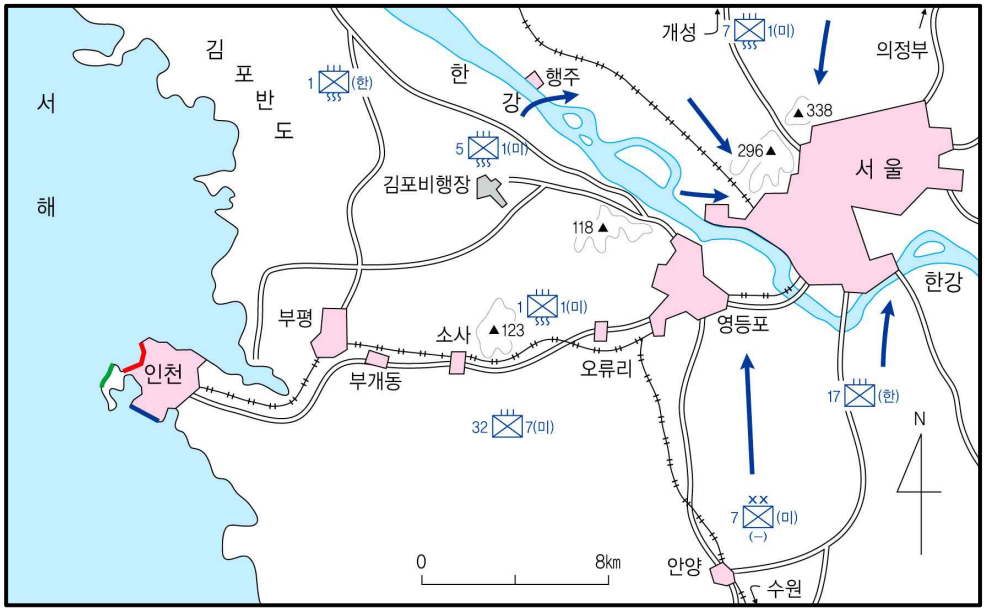
2) 서울 외곽 포위

(1) 계획의 변경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을 계획한 이유 중의 하나는 수도 서울을 조속히 탈환하려는 것이었다. 상륙군에게 있어서 서울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나 심리적으로 중요한 목표였다. 맥아더 장군은 알몬드 장군에게 9월 25일까지는 서울을 탈환하도록 당부하고 있었다.[143]

최초 미 제10군단의 서울 공략계획은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를 기간으로 삼아 서울을 탈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월 23일 지금까지 적의 저항으로 미루어 보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 서측방에서 미 제5해병연대와 한국 해병 제1대대가 23일 현재까지 4일째 적에게 맹렬한 공격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아 차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상황도 3-18> 서울 외곽 포위



스미스 소장이나 알몬드 소장 역시 각기 서울 공략의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스미스 소장의 공격계획은 해병사단 단독으로 전력을 집중하여 서측방을 강타한 다음 뒤이어 서울에 돌입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몬드 소장은 해병사단의 중요한 전력인 미 제1해병연대를 해병사단의 주력방면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울 동남쪽에 배치하여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스미스 소장은 "미 제1해병연대로 하여금 서울을 포위해도 적은 결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니, 한쪽 방향으로 공격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파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다.[144] 결국 알몬드 소장은 "해병사단은 전력을 다해 측방에서 공격을 계속하되 24일 진전이 없을 경우 대신 미 제32연대와 한국 제17연대를 서빙고로 도하시킬 것"이라는 안을 결정하였다.[145]

이제 미 해병사단은 공격을 서둘지 않을 수 없었다. 9월 23일 22:00시 미 제1해병연대로 하여금 다음날 한강을 도하하라는 사단작명 10-50을 하달하였다.[146]

9월 24일 아침 미 제1해병연대는 미 제5연대 제1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도하를 개시하였다. 이날 09:45분부터 이미 선발대로 도하한 미 제2대대는 미 제5연대 제1대대와 함께 전투를 개시하였다. 미 제1연대의 도하는 지뢰제거 작업과 도하 주정의 부족으로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었다.

제2차로 도하한 미 제1대대는 진출도중 적의 사격을 받으며 계속 진격하여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다. 연대 예비인 제3대대는 79고지에서 적 정찰대를 야포와 박격포 사격으로 격퇴하였다. 미 제1해병연대는 도하를 마치고 제1대대가 사단 좌측를 엄호하고 주력이 토당리에 집결하여 공격을 준비하였다.

한편 전날 연희고지 공격에서 일단 후방에 집결한 한국 해병 제1대대는 재편성을 마치고 이날(24일) 09:00시부터 제2대대와 함께 수색 일대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였다.[147] 그 결과 적 사살 57명과 포로 30명 그리고 그 밖에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였고, 적의 군수창고 2개소를 발견하여 접수하는 개가를 올렸다.

김포반도의 잔적을 소탕하던 한국 해병 제3대대는 세교동으로부터 도하하여 마포로 향하고 있었다. 다음날(25일) 대대는 작전계획의 변경으로 08:00시 다시 한강을 건너 김포비행장으로 향했다. 또한 이날 김성은 부대인 제5대대가 인천에 상륙하여 다음날 수색의 해병대사령부에 도착하였다. 이 부대는 9월 21일 잠정 편성부대인 방위대 제1대대에 통영방어임무를 넘기고 인천에 도착하였다.[148]

한국 해병대는 전 병력을 모아 서울탈환에 앞서 진영을 재정비하였고, 제1대대가 미 제5해병연대에, 제2대대가 미 제1해병연대에, 제5대대가 미 제7해병연대에 각각 배속되어 서울 돌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9월 24일 09:30분 알몬드(Almond) 장군은 미 제7사단을 방문하여 바르(Barr) 소장에게 서울 남동쪽 도하작전 계획을 알려주었다. 미 제7사단은 수원비행장에 전개했던 제31연대가 수원-오산간 차단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제32연대는 과천과 우면산을 점령하여 당일 한강변에 도달할 수 있었다.[149]

알몬드 장군은 백인엽 대령에게 한국군 제17연대를 다음날 도하할 미 제32연대에 배속시킬 예정임을 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 제17연대는 이날 인천에 상륙하자 곧장 열차를 이용하여 영등포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다음날 새벽 전

부대가 신사리 부근에 집결 완료하였다.[150]

(2) 서울 남동쪽 도하작전

9월 24일 아침 알몬드 소장은 미 제7사단을 방문하고 제32연대로 하여금 서빙고로부터 서울에 돌입할 것과 한국 제17연대를 동 연대에 배속시킨다는 것을 지시하였다. 미 제32연대 제2대대는 여명을 이용하여 서빙고 남안 신사리의 적 진지를 공격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이날 제187공정연대 제3대대가 일본에서 김포에 도착하여 제10군단 예비대로 편입되었다.[151]

알몬드 소장은, 이날 정오까지도 서울 서측방을 강타하고 있는 미 해병사단의 공격이 지지부진하자, 남쪽으로부터의 포위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미 제7 및 제1해병사단장과 함께 작전계획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미 제7사단과 해병사단의 전투지경선을 변경하여 미 제32연대에 한국군 제17연대를 배속시켜 이날 한강을 도하한 다음 그 즉시 서울시가 남쪽 고지대(남산)를 점령하도록 했다.

미 보병 제7사단은 16시간의 여유밖에 없었으므로 즉시 도하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더구나 서울 서측방 적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남쪽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으리라 판단되었다. 미 해병사단은 미 제7사단의 한강 도하와 때를 맞추어 상호연계를 위해 한강 북쪽 연안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9월 25일 06:00시 미 제32연대와 한국군 제17연대는 서빙고로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미 해병사단의 시가지 공격을 도와 먼저 남산을 점령하고 여기에 동남쪽 매봉(121고지)과 뚝섬의 348고지를 연이어 점령하는 것이었다. 미 제32연대의 공격은 야포대대의 엄호 화력 밑에 진행되었다. 공격제대는 06:30분 해병사단에서 지원한 LVT에 탑승하여 안개로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선두 제2대대는 적의 저항 없이 신속히 도하하여 남산 경사면에 도달하였다. 07:30분경 안개가 걷히자 금호동 121고지에 대하여 공중공격이 전개되었다.

미 제2대대의 뒤를 따르던 제1대대는 121고지를 향해 강안을 따라 이동하였고 13:00시에는 제3대대가 추월하여 121고지를 점령하였다. 미 제32연대 선두부대인

제1대대는 후속부대가 도하하는 동안 정상을 공격하면서 많은 적을 격멸하였고, 오후 무렵 사주방어를 위한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152]

다음날 26일 04:30분 예상한대로 적의 역습이 있었다. 적 1천여 명이 미 제2대대 전면으로 두 차례 공격을 시도하였다. 대대는 진지 일부가 돌파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예비대를 투입하면서 분전하여 적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대대는 적을 진내에서 100여 명, 진전에서 284명 도합 384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다음날(26일) 다른 대대들도 계속 전진하여 제3대대가 120고지로부터 348고지를 향해 적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진격하였다.

한편 한국군 제17연대는 25일 14:00시경 미 제32연대의 뒤를 이어 신사리에서 서빙고로 한강을 도하하였다.[153] 연대는 도하 즉시 적의 저항 없이 남산으로 진격하였다. 남산은 미 제32연대 선봉부대에 의해 이미 점령되었으나 아직 적의 저항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 연대는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남산 동쪽능선과 보광동 일대와 매봉(174고지), 그리고 무학여고가 내려다보이는 고지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이미 적의 저항이 눈에 띠게 약해졌으므로 아군의 진격속도는 상대적으로 가속이 붙었다. 제17연대는 미 제32연대가 매봉을 점령한 이후 서울 남동측을 포위하기 위해 중랑천 우측 일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밤 한국 해병대는 삼각지 쪽으로 서울에 돌입하였다. 한국군 제17연대는 제3대대가 망우리에, 제2대대가 광장리, 그리고 제1대대가 면목동 방면으로 각각 진출하여 서울 남동측 외곽선을 포위 차단하였다.

3) 서울 시가지 전투

(1) 시가지 전투의 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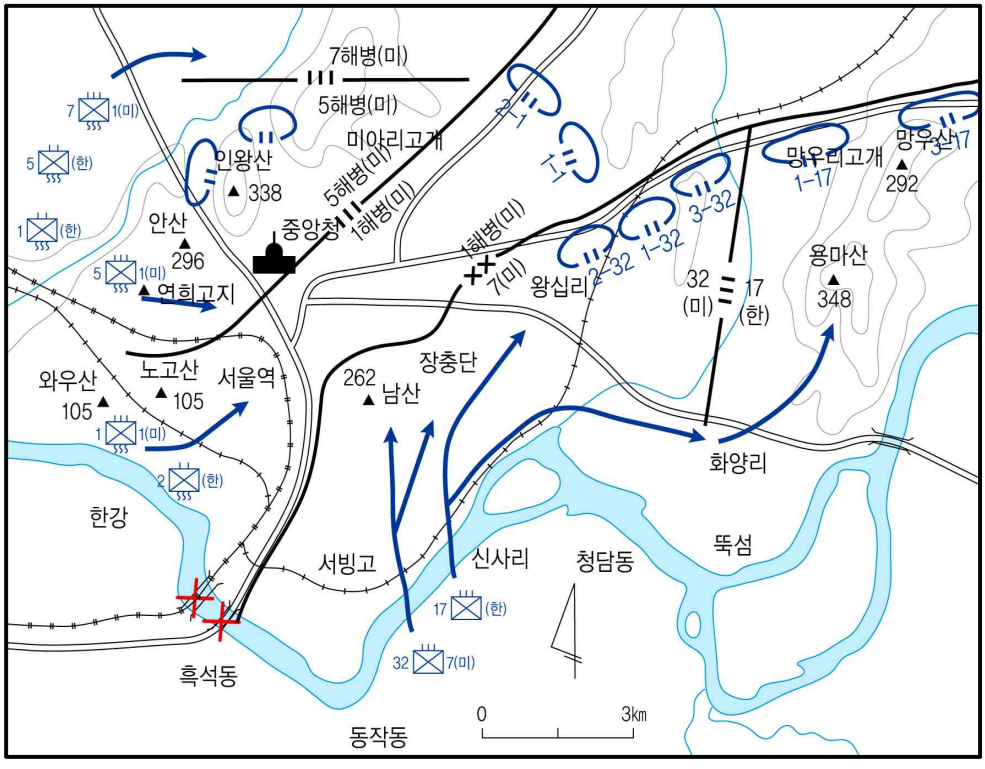
9월 25일 서울 서측방의 미 제1해병사단은 서울 진공작전을 재개하였다. 사단은 이날 비로소 편제상의 3개 연대를 완전 편성할 수 있었다. 우측방 제1연대는 서울 서측에서 동쪽으로 도심지역을 지나 고려대 방면으로, 제5연대는 서울 북

서쪽으로 진출하여 미아리고개로, 제7연대는 사단 좌측방 개성-서울간 국도를 장악하여 서오릉 동쪽고지 일대로 각각 진출하도록 하였다.[154]

해병사단의 공격정면에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인접 미 제7사단과의 경계선은 대체로 한강인도교에서 용산까지 도로를 따라, 그리고 남산과 동대문에서는 경춘도로를 따라 정해졌다. 즉, 서울 도심 지역은 대부분 미 해병사단 전투지대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날 아침 미 제5해병연대는 이미 점령한 연희고지상의 56고지를 거점으로 삼고 계속하여 88고지와 105(C)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오전 중에 항공 및 포병의 공지합동의 집중 사격을 실시한 후에 제2대대는 56고지를 출발하여 88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적은 거의 저항하지도 못하고 105(N)고지와 105(C)고지로

<상황도 3-19> 서울 시가지 전투



퇴각하였다. 제2대대는 퇴각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여 목표고지인 105(C)고지의 서북쪽 일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포로 진술에 의하면, 이날 대대의 공격으로 적은 500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제5연대는 이날 저녁까지 서측 고지 일대의 소탕작전을 완료하고, 제3대대 일부가 서울 서북으로 돌입하여 서대문교도소에서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였다. 적은 야간에 전차를 앞세워 수차례에 걸쳐 역습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격퇴되었다.

한편 미 제1해병연대는 전차의 지원 없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적을 공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155] 뒤늦게 도착한 전차중대의 지원 하에 공격을 재개하여 마포와 용산으로 돌입하였다. 연대는 시가지의 밀집한 가옥들을 이용하여 간간히 저항하는 적을 물리치면서 전진하였고 용산역과 서울역 남쪽으로 진출하였다. 사단 좌일선 제7해병연대는 사단명령에 따라 한국 해병 제5대대와 함께 녹번리에서 신촌 쪽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여 경의선을 따라 북으로 퇴각하려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2) 미 제1해병사단의 서울 진출

미 해병사단은 9월 25일 서울탈환에 필요한 각 연대의 전투지경선과 점령하여야 할 주요목표를 명시한 작전명령 「11-50」를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의하면 미 제1해병연대(한국 제2대대 배속)는 시가 중심부를 거쳐 미아리고개를 점령하게 되었으며, 미 제5해병연대(한국 제1대대 배속)는 중앙청을 포함한 지역을, 그리고 미 제7해병연대(한국 제5대대 배속)는 북쪽의 높은 지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156]

미 제10군단 사령부는 서울 탈환 부대가 서쪽과 남쪽 벽을 넘어 그 일부가 시내에 이미 진입하였기 때문에, 다음날 26일에는 서울을 완전히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알몬드 소장은 북한군이 속속 북쪽으로 퇴각하고 있다는 항공정보를 입수하자, 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정찰을 명령하는 한편, 군단 포병으로 하여금 북으로 통하는 미아리고개와 동대문 통로에 대하여 차단사격을 집중 실시하고 공군에 대해 야간공격을 요청하기로 조치하였다.[157]

군단장은 적의 퇴각을 확인한 후 곧 해병사단에 야간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당시 해병사단장은 이날까지도 적의 퇴각 징후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적이 서울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26일 야간 모든 부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야간공격을 중지시키고 있었다. 제10군단사령부와 제1해병사단사령부는 야간공격 문제를 놓고 서로 상이한 의견이 오고 갔으나, 결국 확실한 적정을 파악하고 있던 군단의 야간공격 계획이 결정되었다.[158]

이에 스미스 사단장은 22:00시에 풀러 대령과 머레이 중령에게 계속 공격하도록 명령하면서 상호 식별할 수단을 강구하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159] 그런데 아군의 야간공격에 앞서 적 200여 명이 서대문형문소 방향에서 먼저 역습을 감행해 왔다.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는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역습을 제압하였다. 연대는 공격을 계속하여 다음날 04:45분까지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날 제5연대 전투지대에서만 적에게 입힌 인명손실이 1,750명에 달하였다.

25일 밤 제5연대는 제1연대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북쪽의 제7연대도 제5연대와의 접촉을 위해 정찰대를 보냈으나 역시 이루지 못하였다. 미 제1연대는 미 제5연대가 적의 역습을 물리치는 동안 더 규모가 크고 필사적인 적 부대로부터 역습을 받았다. 미 제1연대는 26일 01:30분부터 15분간의 포병준비사격을 가한 다음 제3대대가 마포 전차길을 따라 공격하였다. 제3대대 정찰대가 약간 전진하였을 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적으로부터 역습을 받았다. 적의 증강된 대대가 14대의 전차와 자주포 등을 앞세우고 역습을 개시하였다. 01:53분에 연대장은 포병 탄막사격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대대 주력으로 적을 격멸하도록 했다.

연대는 3.5인치 로켓트포와 박격포, 그리고 전차 및 자동화기를 총동원하여 적에게 탄막사격을 집중하였다. 적은 12대의 전차와 2문의 자주포, 그리고 120㎜ 박격포로써 엄호된 보병 1개 대대였다. 적의 선두 전차는 지뢰 폭발로 파괴되었고 후속하던 전차들은 75㎜와 3.5인치 로켓트포에 의해 파괴되었고, 전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미 제1해병연대는 전투지역을 조사한 결과 적 전차 7대와 자

주포 2대를 파괴하고 500여 명을 사살하였으며, 83명의 포로를 잡았음을 확인했다.[160]

9월 26일 04:30분, 적의 역습은 남산의 미 제32연대 지역에도 있었다. 거의 1천여 명에 가까운 수로 추산되는 적의 부대가 미 제32연대 제2대대 진지를 공격하였다. 남산 정상의 제2대대는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내었으나, 장충단공원 쪽으로부터 접근하는 적에게 진지 일부가 유린되었다. 대대장은 예비대를 투입하여 2시간 격전 끝에 진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 대대의 진지에는 110구, 그리고 진전에서 284구의 적 시체를 확인했으며 174명의 포로를 잡았다.[161] 이날 밤 포병사격은 발사속도가 최고기록을 수립할 정도로 치열하였으므로, 포병대대장은 계속 그 속도로 포격하다가는 포신이 모두 녹아버린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뜻하지 않게 적의 역습과 연대 간에 접촉을 유지할 수 없었던 미 해병사단은 계획대로 전진할 수 없었다. 이날(26일) 아침까지도 각 대대 위치는 전날 저녁과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이 무렵 적의 상황은 크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적의 사령부는 서울 서측과 남산 일대의 방어력이 약해진 것을 감지하고 서울 확보방침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적은 일부 부대로 아군의 전진을 지연시키면서 그 사이 주력부대를 철수시키기 시작하였다.

적의 주력부대는 영등포 지역을 방어한 제18사단이었다. 이들은 사단의 일부 부대를 남겨 놓은 채 25일 저녁 약 5,000여 명의 주력을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철수시켰다. 적은 서울-의정부간의 방어를 위해 제31서울여단을 사단으로 증편하여 투입하였고, 제17기계화사단 제33연대를 서울로 투입하고 있었다.[162]

남산을 점령한 미 제32연대에 대하여는 적 1개 대대의 병력이, 그리고 미 제1해병연대 제3대대에 대하여는 증강된 대대병력이 역습을 감행하였고 또한 미 제5해병연대에 대하여는 또 다른 1개 대대의 적이 최후 공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적의 이러한 모든 공격이 완화된 아침까지 크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9월 26일 12:30분 미 해병사단은 예하 연대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동안 북쪽 측방경계를 담당하고 있던 제7연대도 마침내 공격작전에 투입되었다.[163] 미 제1연대는 사단 작전명령에 의하여 12:30분에 공격을 재개하여 마포에서 시

내 쪽으로 통하는 가도를 따라 하루 종일 공격하였다. 적은 이때 요소요소에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놓고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오후부터 점차 약화되었다. 제2대대는 아현동 삼거리 전방에서 적으로부터 맹렬한 사격을 받았다.

이날 연희고지 일대에서 시내에 돌입한 미 제5연대는 미 제1연대보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서울 북쪽 포위명령을 받은 미 제7해병연대는 개성-서울 국도를 따라 남진하여 미 제5연대와 연결하고 북악산을 거쳐 서울 동북쪽 미아리 고개를 향해 전진하였다. 그러나 미 제5해병연대와 연결을 위해 D중대가 독립문을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 서대문형무소 부근에서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순식간에 40명의 전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날(26일) 저녁까지 미 제10군단이 탈환한 지역은 서울시가의 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미 동경의 맥아더 사령관은 이날 14:10분 서울을 탈환했다는 유엔군 성명서 제9호를 발표하였다. 즉, "한국의 수도 서울은 다시 주인의 손에 돌아왔다. 한국군 제17연대와 미 제7사단 그리고 미 제1해병사단을 포함한 유엔군 각 부대는 서울을 포위하고 완전히 탈환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164]

유엔군총사령부의 서울탈환 성명에도 불구하고 27일 시내에서는 여전히 바리케이드를 둘러 싼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바리케이드는 도심부에 가까워질수록 그 간격은 좁아져 300~350m마다 횡단하여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은 포대 속에 흙을 넣어 가슴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그 전면에는 대전차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 또한 건물은 요새화되어 측후면에 대전차포와 기관총이, 옥상에 박격포 진지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이날 한미 해병의 전투양상은 적의 바리케이드를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전진하는 것이었다. 먼저 아군 항공기가 바리케이드에 폭격을 가한 후 전차 2~3대가 1개조로 대전차포와 자동화기를 격파하였으며, 공병부대가 박격포의 엄호 하에 접근, 지뢰를 폭파시키는 식이었다. 보병부대는 전차의 엄호를 받으면서 적을 사살했다. 바리케이드 하나에 1개 대대가 1시간 이상 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165]

미 제1연대 제2대대는 마포에서 서울시가 중심부로 진격하여 프랑스 대사관을 거쳐 (27일) 15:37분 미국대사관에 비로소 성조기를 게양하였다. 미 제1대대는 심

한 격전 끝에 오전 중 서울역을 점령하고 남대문 가도를 따라 북상하는 도중 적의 바리케이드로부터 여러 번 저항을 받았다.

서북쪽에서 공격하고 있던 미 제5해병연대는 순조롭게 진격하였다. 제2대대는 적의 저항 없이 서대문형무소를 점령하였고, 제3대대는 서울중학까지 진출하였다. 15:08분 선두 전차부대가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격파하고 한국 해병대 제2대대에 이어 중앙청을 점거하고 성조기를 올렸다. 이날 제1대대는 제3대대를 따라 서울중학교에 도달하고 338고지를 확보하였다.

미 해병사단 좌일선 제7연대는 성화동 북쪽 343고지와 북악산의 적을 공격하였다.[166] 미 제7연대는 9월 23일부터 이날(27일)까지 적 사살 775명, 포로 34명의 전과를 올렸다. 연대는 서울북쪽의 고지들을 확보하면서 세검정의 깊은 골짜기를 통해, 그리고 북한산 남쪽으로 뻗어 내린 험준한 산허리를 타고 넘어, 서울 북동쪽의 서울-의정부간 국도를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3) 한국 해병대의 시가지 전투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과 함께 9월 25일 서울 서북 및 남서쪽에서 점차 약화되는 적의 저항을 분쇄하면서 서울 시가지에 돌입하고 있었다. 제1대대는 미 제5해병연대와 함께 연희고지를 지나 북아현동으로 돌입하였고, 제2대대는 능곡과 수색 등지의 작전을 마치고 미 제1해병연대와 함께 진격하여 서강 당인리 발전소를 경유 마포로 진격하였다.[167]

미 해병사단 작전명령 11-50에 한국 해병대의 작전지역과 임무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즉, 제1대대는 미 제5해병연대 구역으로 할당된 목표 B(Baker)와 중앙청을 포함한 효자동, 인왕산 지역, 제2대대는 미 제1해병연대 지역인 목표 A(Able) 133고지와 시가 중심부, 제5대대는 목표 C(Charlie)와 부근 지역 일대였다.

한국 해병대는 이날(25일) 밤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라는 공격명령에 따라 행동을 개시하였다. 미군과의 거리는 통상 500~600m의 간격을 둔 협동작전이었다. 이날 제1대대는 북아현동 쪽으로 돌입하여 진격하던 중 서대문 일대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고전을 거듭하였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적은 마포와 신

촌으로 통하는 아현동 사거리에서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대대는 경기공고 옥상에 기관총을 설치하여 사격하던 적을 미 해병전차의 도움을 얻어 섬멸하였다. 이날 13:00시경 계속 진격 중이던 제1대대는 한성중학교 일대를 장악하였으며 뒤이어 제5대대도 이곳으로 진출하였다.

제1대대가 실시한 시가전은 주로 건물 내에 숨어서 저항하는 적을 소탕하는 것으로 3인 1조로 우선 한 사람이 건물 입구를 경계한 다음 한 사람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이들의 엄호 가운데 건물 안을 수색하는 방식이었다.[168] 각 중대가 공격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중대장급 간부들은 장병들을 환영하는 시민들을 배려하여 전황의 진전을 알려주었고 또한 적 치하에서 굶주렸던 시민들에게 적으로부터 탈취한 양곡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한편 마포로 돌입한 국군 해병 제2대대는 이날(25일) 밤 전차 길이 있는 큰 거리에서 미 해병대가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이미 한강 연안을 따라 용강동을 거쳐 청파동, 원효로로 진출하였다. 시가지에서 야간 합동작전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고 사격하는 일도 있었다.[169] 이들이



시가지 전투

용산경찰서를 점령하였을 때 그 지하실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손발에 철사가 묶인 채 무참히 학살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9월 26일 미명 제2대대 각 중대는 공덕동과 청파동을 거쳐 원효로와 삼각지 부근을 다시 소탕하였다. 이들은 시민들의 신고에 따라 미처 도주하지 못한 적을 삼각지 미군 막사 부근을 수색하여 소탕하였다. 대대는 남영동과 후암동 그리고 동작동 일대를 수색하면서 미 제1해병연대와 같이 전진하여 서울역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길 가에는 적의 시체들로 악취가 코를 찔렀으며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의 환호소리가 오히려 처량하고 측은하기만 하였다.

서울역 구내에는 아직도 퇴각하지 못한 일부의 적들이 잔류하고 있다가 곧 투항하였다. 대대는 서울역을 무난히 탈환하였으나, 서울역 맞은 편 건물 안에는 다수의 적들이 숨어 창구마다 총구를 거치하여 집중사격을 가하여 왔다. 대대는 세브란스 병원 주변 일대의 건물 안에서 끈질기게 대항하는 적에게는 화염방사전차의 지원을 받아 화염으로 소탕하였다. 그러나 시가전에서 미군과 한국 해병대가 치렀던 손실도 결코 적지 않았다. 서울역 일대를 완전히 확보한 제2대대는 남대문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이때 첨병으로 제2대대와 교대하여 선두에서 전진하던 미 해병 제2대대는 강력한 바리케이드에 부딪쳐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국군 제2대대와 교대하였다. 75㎜ 직사포 등 중화기 사격을 받게 된 대대 첨병중대는 일시 고전에 빠졌으나 화염방사기와 전차 지원으로 적을 섬멸하였다.

한국 해병 제2대대는 미 해병대 전차가 항공지원 하에 선두에서 하나씩 적의 바리케이드를 제거하면서 전진하는 동안 잔적 소탕작전을 수행하였다.[170] 대대는 공지합동의 입체공격으로 계획대로 전진하여 전선을 압축하였다. 서대문 방면으로 공격한 제1대대는 이날 하루 종일 적을 소탕하고 야간에는 북아현동 구세군 본부 뒷산에서 미 제5해병연대 제3대대와 합동하여 부대를 정비하였다. 북쪽에서 공격한 제5대대는 미 제7연대와 협동하여 홍제동에서 서울-문산 가도를 서에서 동쪽으로 횡단하면서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338고지(인왕산) 1㎞ 북쪽과 북악산(△342)의 1㎞ 북쪽의 산악지대를 모두 장악하였다.

이날(26일) 저녁까지 한국 해병대와 미군은 서울시의 1/3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유엔군사령부에서 기대한 날짜보다 약 1주일이나 지연된 것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적이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특히 아군의 주공 방향인 서울 서측방 고지 일대에서 격렬한 저항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더욱 지연된 것이었다.

한편 제6중대 제1소대는 중앙청에도 태극기를 게양하기 위해 대대의 통제를 벗어나 계속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 앞까지 전진하였다. 당시 소대장 박정모 소위는 종군기자 박성환으로부터 대통령이 중앙청에는 우리 국군이 태극기를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고 상금도 3,000만원이나 걸려있다고 들었다.[171] 다음날(9월 27일) 미명 제6중대 제1소대는 태극기를 지참하고 03:00시에 중앙청을 향해 출발하였다. 소대는 사주를 엄히 경계하면서 조선일보사 앞을 지나가고 있을 무렵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으나, 적 2명을 사살하고 중앙청 전면에 도달하였다. 정면으로 건물 안으로 돌입한 제1소대는 즉시 수색에 착수하였다. 박정모 소위는 양병수 2등병조와 최국방 견습수병 등과 함께 건물옥상으로 올라갔으며, 소대 병력 중 약 3분의 2를 건물 내에 배치하고 중앙청 돔에 올라갔다. 박 소위와 3명의 소대원은 06:10분 태극기를 12개의 돌기둥 중앙에다 게양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중앙청에는 적의 방화로 화염에 휩싸인 채 90일 만에 다시 태극기가 휘날리게 되었다. 이 공로로 양병수 2등병조가 소대장의 추천으로 은성훈장을 수여받았다.[172]



중앙청 태극기 게양

중앙청 지역은 원래 미 제5연대와 국군 제1대대의 목표였으나, 박소위가 중앙청에 도착할 때까지 아직 공격을 하지 않고 있었다. 미 제5연대에 배속된 한국 제1대대는 이날 새벽 안산 능선 돌출부를 공격하여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서대문으로 돌입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대대는 서대문 일대의 잔적을 섬멸하면서 미 해병대와 같이 계속 전진하여 10:15분에 서울중학교와 부근을 장악하였다.

한국 제1대대는 이날(27일) 12:00시 중앙청을 목표로 공격하여 15:07분 미 제7해병연대 제3대대와 함께 중앙청 안으로 일시에 돌입하였다. 대대는 이날 15:00시까지는 광화문 십자로에 도달하였으나 사거리 바리케이드에서 저항하는 적의 사격 때문에 잠시 지연되었다. 시가전은 적의 최후 저항으로 인해 이날 밤까지도 계속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해병대는 미 제1해병사단과 함께 서북쪽에서 공격을 개시한 9월 21일 이후 1주일 만에 비로소 서울 중심부를 장악하였다.

한국 제1대대는 종로와 그 북쪽지역을 담당하고 제2대대는 남산 서쪽, 청량리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북쪽의 제5대대는 서울 북쪽의 산악지대를 점령하면서 북악산을 장악하였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도 이날 한성중학교로 이동하고 서울시가지의 잔적 섬멸은 이날 24:00시까지는 거의 모두 완료하게 되었다. 9월 28일 국군 해병대는 국군 제17연대에게 중앙청 및 경무대 경비임무를 인계하였다. 국군 해병대는 이 작전에서 25일 이후 적 1,000여 명을 사살, 500여 명 포획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크고 작은 다량의 장비를 노획하였다.[173]

(4) 미 제7사단과 국군 제17연대의 진출

미 제7사단의 전투는 미 해병사단과는 달리 서울 동쪽 외곽도로를 따라 퇴각하는 적과 조우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예하 제32연대는 9월 26일 새벽 남산 일대에서 적의 역습을 격퇴한 후 종일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였다.[174] 미 제32연대는 이날 장충동 일대까지 진출하여 왕십리 방면으로 패주하는 적의 대열을 발견하자 곧 공중지원을 요청하였다. 제3대대는 공습으로 적의 대열이 분산되자 전차를 앞세워 섬멸하면서 계속 동대문 방향으로 진격하였다. 미 제32연대는 이날 전투에서 적 500여 명을 사살하고 전차 5대와 차량 45대, 그리고 포 3문을

노획, 탄약집적소 2개소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 연대는 전사 6명과 부상자 92명, 그리고 실종 3명 등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다.

한편 미 제7사단에 배속된 한국군 제17연대는 미 제32연대와 병행 진격하면서 서울 동쪽의 외곽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진하였다.[175] 한국군 제17연대는 이날(26일) 면목동 일대의 지역을 확보하였다. 연대는 26일 첫 전투에서 망우리-면목동 일대에 진출한 제1대대가 경춘 가도를 따라 퇴각하는 적의 전차 10대를 노획하였고 광주 방면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트럭 한 대를 공격하여 노획하였다. 이날 야간에는 제1대대가 배치된 정면으로 적의 역습기도가 있었으나 무난하게 격퇴하였다. 대대는 적의 대대규모 병력이 진전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열이 화망 속에 들어설 때 일제 사격을 가하였다. 대대는 다음날(27일) 새벽까지 예비 제3대대와 미 제7사단 기갑부대의 증원을 받아 적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적 포로들은 17세~18세의 연소자들로 서울에서 강제로 끌려갔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28일 아침 국군 제17연대는 서울시가 서쪽에서 동진하여 중심부의 잔적을 완전히 소탕하고 계속 동부외곽 왕십리로부터 서울 중심지로 입성하였다. 이날 12:00시경 백인엽 연대장은 해병대 사령관인 신현준 사령관을 만나고 24:00시를 기하여 중앙청 및 경무대 경비임무를 해병대로부터 인계 받았다.

(5) 서울 수복과 환도식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동경으로 귀환하자마자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메시지를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의 고위각료, 그리고 유엔 한국위원회 등을 하루빨리 서울로 입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서울은 28일까지도 수복행사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서울이 완전히 탈환된 28일 낮부터 시정을 재개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시설을 급속히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 제10군단도 이날 긴급 수송된 50톤의 미곡과 적이 압류하였던 많은 양의 양곡을 풀어 시민에게 배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임시 수도였던 부산역 광장에서는 수도탈환의 경축식이 거행되었고 이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서울 탈환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수복된 서울에 앞을 다투어 들어온 관민들은 자진하여 수복준비를 하기 위해 불도저를 동원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입성 주공부대인 미 제1해병사단 본부도 이날 오후 서울로 입성하여 현 미 제8군사령부가 있는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9월 29일 10:00시 맥아더 사령관과 일행이 동경에서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으며, 알몬드 소장과 제10군단 고급장교들이 이들을 영접하기 위해 먼저 대기해 있었다. 잠시 후 이 대통령 일행도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여 맥아더 원수와 함께 서울시내로 향하였다.[176] 이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일행이 통과하는 연도에는 건물과 도로들이 파괴되어 있긴 하였지만,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호하였다. 환도식이 거행될 중앙청 식장주변은 한국 해병대와



서울 환도식

한국 육군 제17연대 그리고 미 해병대 일부병력이 배치되어 경비에 임하였으며, 또한 미 제1해병연대 3대대는 한강 교량부터 서울 시가를, 그리고 미 제5해병연대 2대대는 국회의사당 주변을 경비하고 있었다.

마침내 역사적인 수도 서울 환도식이 29일 12:00시를 기해 거행되었다. 식장에는 선출된 각 부처 관리와 시민대표 그리고 서울을 탈환한 전투부대 지휘관들로 가득 메워졌다. 맥아더 사령관은 이 대통령 및 영부인과 함께 식장에 들어와 귀빈고관들이 있는 단상에 자리 잡았다. 거기에는 워커 중장과 맥아더 사령관의 초청으로 서울에 오게 된 수명의 미 제8군 장교들도 참석했다. 맥아더 원수는 곧 유창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하였다. 즉 그는 "대통령 각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이 한국의 수도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라고 하였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된 한국을 원조하기로 다짐한 53개 국가의 정당한 분노 그리고 공산국가에 대한 정신적 반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 대통령을 돌아다보며 말을 계속하였다. "나는 각하에 대하여 귀국 정부 소재지를 회복하고 이에 따라 각하가 헌법상의 책임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177]

정숙과 감격이 넘치는 식장분위기 속에서 맥아더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포성이 때때로 들려오고 있었다. 그 포성의 진동 탓인지 식장 천정 유리조각이 떨어져 일반사람들을 놀라게도 하였으나 맥아더 사령관이나 연설을 경청하는 이 대통령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가끔 소총소리도 들려오는 가운데 맥아더 사령관은 맨 나중에 드린 기도로써 약 5분간에 걸친 연설을 끝마치게 되고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감격에 벅차있던 이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손으로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청중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그 서두에서 이 대통령은 "나 자신이나 한국 국민의 끝없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런지"라고 전제하고 말을 이어 갔다. 그는 맥아더 장군의 지도력을 찬양한 다음, 유엔군의 노고에 감사하고 전사한 장병들의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내며 승리자로서 적에게 관용을 보일 것을 바란다고 하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식이 끝나자 맥아더 사령관은 13:35분에 김포 공항을 통해 동경으로 떠났다. 역사적인 수도 서울의 수복식에는 식전을 빛낼만한 의장대와 군악대도 없었다.[178] 식이 끝난 이날 오후부터 정부는 곧바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정부의 환도에 뒤이어 정부 관하의 각 기관과 모든 피난민들도 속속 서울로 귀환하게 되었다.

당시 적이 침입했던 도시와 촌락지역의 민심은 회복된 주권에 감사하고 해방된 기쁨에 넘치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 치하에서 공산당의 학대를 받은 것에 대해 정부를 원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납치인사 가족들의 심경은 매우 복잡하였다.[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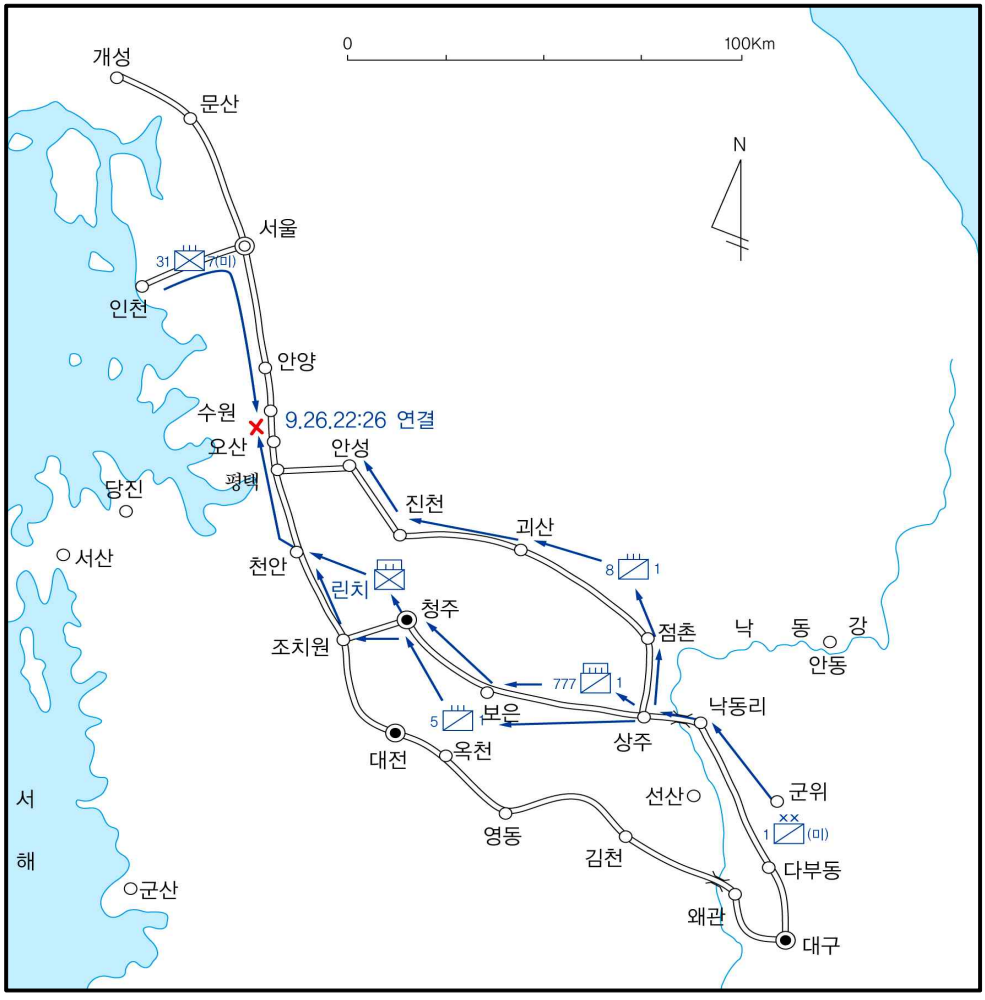
한편 서울 탈환에 대한 높은 공적에 대하여 미국 정부와 맥아더 사령관 사이에는 축하서신과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귀하의 부대가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한 지연작전이나 서울을 해방시킨 찬란한 기동작전 등은 실로 전사상 유례없는 것이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180]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방어 작전으로부터 공세로 이전한 귀하의 계획은 훌륭하였고 적시적절 하였으며 또 훌륭히 수행되었습니다. (중략) 우리는 국제연합이 귀하에게 부여한 커다란 임무를 완전히 수행한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181] 이에 대하여 맥아더 사령관은 미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들 격려 메시지는 각각 예하 전 부대에 공포하겠다고 아울러 전하게 되었다.

경무대와 중앙청 경비를 인계받은 국군 제17연대는 미 제7사단 제32연대와 함께 계속 서울시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기간 중 국군 제17연대는 지금까지 노획한 적의 무기들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전시회를 열었으며, 서울시는 수도극장(스카라)에서 국군 제17연대의 서울입성을 환영하는 시민대회를 열어 장병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이 탈환되자 헌병대사령부는 치안유지를 위해 헌병 1개 대대(송효순 소령)를 편성하였다. 이들은 해군 함정 편으로 인천을 거쳐 10월 1일 서울에 들어와 치안확보를 담당하였다.

4. 미 제8군과의 연결 작전

인천상륙작전은 최초 계획과정에서 상륙군의 일부부대로 원주까지 탈환하여 북한군의 후방을 차단하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서울과 수원 지구를 탈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상황도 3-20> 인천상륙부대와 낙동강선 반격부대의 연결작전



제10군단 주력이 서울을 공략하기 시작한 22일 국도를 따라 영등포 지역에서 남진하고 있던 미 제7사단 제31연대는 수원비행장 남쪽능선을 확보하여 적의 퇴각을 차단하였다. 연대는 낙동강 전선에서 북상한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1개 연대가 18일경에 조치원에 도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대전차전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24일 낮까지 북상하지 못하였다. 수원비행장 남쪽능선의 미 제31연대 제2대대는 23:00시경 전차를 동반한 병력 미상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대대는 예기치 않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한 보·전·포화력을 집중하여 전차 4대를 격파하면서 적을 격퇴하였다.[182]

대대는 또한 25일 새벽 수원비행장에서 이미 퇴각한 것으로 판단한 적으로부터 박격포탄의 집중사격을 받았다. 이때 비행장은 이미 대형수송기의 이착륙을 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미 제7사단장은 제31연대로 하여금 즉시 적을 격퇴할 것을 명령하였다. 연대장 파버샤인 대령은 제2대대에게 수원비행장 남쪽 고지(118고지)를 점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음날(26일) 새벽 제2대대가 적 정면에 진출하여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완강한 저항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미 제31연대는 해군 항공기 8대와 포병 2개 대대의 지원하에 공격을 재개하여 목표고지를 장악하였다. 연대는 전투가 끝난 후 100여 구의 적 시체를 확인하였으며, 고지에서 저항하던 적들은 모두 분산 퇴각하였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미 제7사단은 이날 22:26분 오산 북쪽으로 북상한 미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린치(Lynch) 특수임무부대와의 연결을 이루었다. 즉, 인천에 상륙하여 남쪽으로 진출한 미 제10군단 제7사단 제31연대가 낙동강방어선에서 적을 추격하여 진출한 미 제8군 제1기병사단 제7연대와 연결작전에 성공하여 상륙군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였다.[183]

제 5 절 분석 및 평가

1. 인천상륙작전의 성격과 결과

1) 인천상륙작전의 성격

맥아더 사령관은 적절한 시기에 상륙작전을 계획하였으며 비교적 적은 손실로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켰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미 해군의 해상적인 지원이 충분하였던 점과 미 해병대의 탁월한 상륙전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완벽한 작전준비태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격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유엔군이 우회 기동을 통해 북한군의 병참선을 일거에 차단하였으며, 그것은 곧 낙동강방어선에서의 반격계기를 조성해 주었다는 점이다. 유엔군의 인천상륙 사실이 북한군 지도부에 전해지자,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낙동강방어선의 전차부대를 포함한 일부부대를 인천방향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낙동강선에서의 공격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아군의 총반격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주었다.

또한 인천상륙전의 성격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인천상륙에 이은 서울수도탈환의 성공이 심리적으로 아군의 사기를 크게 제고시키고 북한군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저상시켰다는 점이다. 낙동강선에서 북한군은 아군의 반격을 막아내기 위해 마지막 전력까지 모두 쏟아 부어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아군의 서울입성 소식이 전해지자 순식간에 전열이 무너졌던 것이다.

한편 유엔군의 심리전도 전쟁의 국면을 일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유엔군은 상륙작전 직후와 서울탈환 직후 전파와 전단으로 작전의 성공을 알려 심리전을 십분 활용하였다. 당시 살포된 500여만 매의 전단은 아군과 시민들에게는 서울탈환의 내용과 아울러 반격작전의 상황을 알렸고, 적에게는 더 이상 저항하

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투항하라는 내용을 전파하였다. 아군의 선무공작으로 적 귀순병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후에 포로진술에 의하면, 1,013명 중 8.4%가 그 전단을 보고 귀순하였고 또 그때까지 심사된 포로의 총인원 중 16% 이상이 아군 심리전에 의해 투항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낙동강방어선에 막대한 병력과 남한청년 40만여 명을 동원하여 최후까지 돌파를 시도했으나 인천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적은 과도하게 병참선을 늘려 후방이 취약하게 되었으며 또한 낙동강 도하를 위한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인명손실을 초래하면서도 돌파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에서 각 지휘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작전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들은 잘 조화된 팀워크로 작전을 계획하여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공격에 막강한 힘을 과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구축함들을 지휘하며 월미도와 인천을 맹폭하여 적을 제압한 바 있는 히긴스 소장과 알렌 대령, 그리고 강력하고 정확한 공중공격을 가하여 인천의 적 방어부대를 약화시키고 인천시가의 방어력을 보강하려는 적을 완전히 교란시킨 이웬 소장과 루블 소장 및 미 해병대의 스미스 소장, 그리고 공격부대를 강력히 지원한 바 있는 영국 해군의 앤드류스 소장, 핸더슨 소장, 오스틴 대령, 그 밖의 미 제10군단을 지휘하여 서울 탈환을 성공리에 완수시킨 알몬드 소장 등의 역할이 컸다.

2) 작전의 결과

인천상륙작전의 기습적인 일격으로 전세는 급전되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에 쫓긴 북한군은 완전히 지리멸렬되었다. 실제 낙동강 전선으로부터의 추격과 인천-서울 지역에서의 포위를 벗어나 북으로 도주할 수 있었던 북한군은 25,000 내지 30,000여 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맥아더 장군의 전략이 거둔 성공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인천으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의 작전을 주도하였던 미 해병사단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거둔 전과와 함께, 인천상륙작전의 전반적 성과를 다음과 같은 3개

항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다.

첫째, 적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된 인천상륙작전은 직접적으로 낙동강 전선의 적군을 급속히 와해시켰다. 둘째,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적의 전 병참선이 차단되었으며, 여타 부대들의 공격을 수반함으로써 적의 참패가 동시에 초래되었다. 셋째, 성공적으로 완수된 작전에 의해서 인천의 항만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시설이 북진작전을 위하여 이용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천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동안, 가장 격렬한 전투를 치른 미 해병사단은 전사 415명(부상 후 사망한 49명 포함), 부상 2,029명 및 실종 6명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보았으며, 그 다음 한국 해병대가 전사 97명, 부상 300명, 실종 16명에 달하였다. 이에 버금가는 손실을 입은 부대는 미 제7사단 제32연대로서 전사 66명, 부상 272명, 실종 47명이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의 총손실은 약 4,0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군의 전과는 미 제10군단 보고에 의하면, 사살로 산정된 적의 총수는 14,000명, 그리고 전투를 통한 포로가 7,00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사살통계를 한 예로 들면, 미 해병사단의 13,666명과 미 제32연대의 3,000명만 합쳐도 16,666명에 달한다. 따라서 미 제10군단의 전과통계는 최소한으로 집계된 것이었다. 파괴된 적 전차는 중복 계산될 가능성이 있는 숫자를 일단 제외하더라도 최소 50여 대에 달한다.[184]

인천상륙 이전의 적정판단에서는 조직적인 부대로 서울에 있는 적 병력을 약 5,000명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실제 서울에만 약 8,000명이, 그리고 영등포 지역에 별도로 5,000명의 적 병력이 있었으며, 인천상륙이 감행된 뒤에 증원된 적 부대가 적어도 20,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작전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외에도 한강과 수원 사이에 최소 1,000명이, 그리고 수원 남쪽으로 오산 일대에 2,000~3,000명이 있었다. 따라서 인천-수원-서울 일원에서 전투에 가담한 적 부대는 30,000명 이상이었으며, 그 밖의 주변지역에 있었던 부대 또는 늦게 도착한 부대들로서 미처 동원되지 못한 잡다한 병력이 10,000명 이상 되었다.[185]

인천상륙 이후 낙동강에서 반격하여 38선에 이르기까지 양측의 피해 상황은

북한측 손실이 병력살상 52,198명, 포로 13,000명, 장비와 각종 포의 노획 및 파괴 1,569문, 전차 131대와 기타 중장비 158문이고, 아군의 손실은 병력살상 8,479명, 장비손실 및 파괴된 각종 포 17문, 전차 2대, 기타 중장비 2대 등으로 집계되었다.

결국 인천상륙작전으로 이룬 최대의 성과는, 낙동강방어선에서 단순히 총반격하여 38선으로 올라갔을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과 10일간의 전투로 서울탈환에 성공하여 전체 전투일수를 3분의 1로 단축시켰으며, 아군 병력 14만 명과 국민 200여만 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 전장기능별 평가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의 탁월한 전략과 많은 경험에 의한 소신을 결행한 결과였다. 그는 적이 월미도와 인천 그리고 서울에는 큰 병력을 배치하지 않고 오직 낙동강 전선에 모든 힘을 기울여 최후 총공세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결행에 옮겼던 것이다.

맥아더 사령관은 이미 7월 초에 인천상륙을 결심하였고 그 후 그는 상륙계획을 반대하거나 회의를 갖고 있는 알몬드 소장이나 라이트 준장, 그리고 셔먼 대장 등을 포함하는 고위 군사지도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켜 나갔다.

도일(Doyle) 소장의 제1상륙단에서도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당시 인천상륙작전 계획 단계에서 고려된 난점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었다. 먼저 지형상의 문제로 인천항 조수간만의 차이였다. 간만의 차이는 무려 9m에 달하고 10.8m를 기록할 때도 있어 상륙작전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이었다. 조수는 매우 빠르고 오랜 시간 얕은 해안을 따라 6㎞나 되는 갯벌 둑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인천상

륙은 만조 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공산군측의 입장에서는 9월 15일과 10월 11일 그리고 11월 3일이 상륙 예정일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고 심지어 상륙시간까지도 파악이 가능하였다.

아울러 인천 항구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이었다. 항구내의 제한된 시설은 상륙군이 항구를 탈환하기 전이나 후나 모두 문제였다. 인천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이긴 하지만 조수와 갯벌과 좁고 긴 수로, 그리고 제한된 부두시설 때문에 부산의 1일 화물선적량 25,000톤에 비해 그 절반에 불과하며 또 대형선박 정박시설도 부산의 1/6인 5척에 불과하였고, 외항 또한 공격함대가 정박하여 화력지원하기가 매우 불편하였다.

적절한 상륙지점이 부족했고 상륙지점으로 선정된 적색해안과 청색해안에도 많은 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적색해안은 인천의 서부지역이고 청색해안은 동남쪽 송도 해수욕장의 바로 서북쪽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들은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부두의 선창과 해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륙을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들을 사용해야만 했다.

보안 유지도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는 함정들은 주변에 적의 첩자들이 많은 일본에서 많은 병력과 물자를 적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소장이 8월 중순경 기자들에게 "멀지 않아 우리는 인천에 상륙하게 된다. 인천의 상륙은 곧 서울의 입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앞서 우리는 놀랄 만한 작전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186]

적에 관한 정보 또한 취약한 상황이었다. 유엔군은 인천의 요충지인 월미도에 배치된 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미 해군의 함포전문장교들은 월미도의 적을 제압하려면 종일 포격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종적으로 월미도 상륙에 앞서 우선 함포사격을 가하되, 상륙지점을 은폐하기 위하여 군산과 진남포에 공중공격을 가하기로 하였다.

적의 장애물에 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 유엔 해군은 적이 인천수역에 얼마나 기뢰를 부설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입수하고 있지 못하였다.

특히 인천 항구에 계류기뢰나 자기기뢰가 다량으로 부설되어 있다면 상륙군으로서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상륙부대 구성에 있어서도 난점이 많았다. 새로운 병력을 미 본토나 여러 나라에서 차출한다 하여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였고 부산교두보에서 병력을 차출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다.

이상과 같이 인천상륙작전의 제반 조건은 맥아더 장군이 역설하였듯이 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가장 나쁜 조건을 가진 곳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 기습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으므로 상륙작전의 최대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인천은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주력을 격파할 수 있는 곳이며 서울과 최단거리에 있는 한국 제2의 항구였다. 더욱이 인천 부근의 김포비행장은 전략기지와 군수기지로서 가치가 대단히 큰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인천을 점령하여 수도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고 이로써 한국국민을 정치적·심리적인 면에서 안심시키고 국군과 유엔군의 사기를 앙양시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맥아더 사령관이 여러 가지 위험한 모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소신대로 단호하게 작전을 하게 된 동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실전적 경험이 바탕이 되었으며, 그의 확고부동한 대기동작전에 대한 신념과 육·해·공 삼위일체의 작전 원리를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필 : 양영조)

주 (註)

1) 동수로를 포함한 인천수로를 비어수로(飛魚水路, Flying Fish Channel)라고 지칭한다.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인천상륙작전(이하 인천상륙작전)』, 동원, 1983, p. 56.
2) 노트는 선박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며, 길이의 단위로 쓰이는 영국에서는 6,080피트의 길이를 1노트(Knot)라고 한다. 즉 1노트는 시간당 1해리(1,852m)에 해당하는 속도 단위이다.
3) 응봉산은 인천항 개항 이후 외국인거류민단이 이 산을 공원으로 가꾸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국공원이라 호칭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 시 미군들이 주로 관측고지(Observatory Hill)라 호칭했으며, 자유공원으로 개칭된 것은 1957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 동상이 건립된 후부터이다.
4) 간만의 차이가 제일 적게 일어날 때의 조수를 소조, 가장 크게 일어날 때는 대조라고 하는데, 대조는 음력 초하루 또는 보름이 이틀 지난 뒤에 일어난다. 1950년 9월 15일은 음력 8월 4일이었으며, 인천의 대조는 평균 7m, 최고일 때는 약 10m에 달한다.
5)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apolis :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57), p. 81.
6) 북한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6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07.
7) FEC GHQ,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52(Unpublished), p. 146.
8) 「조선인민군 제884군부대 제5대대 전투명령」(1950.8.29),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9) FEC QHQ,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pp. 147-146.
10)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 500.
11)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 (New York : McGraw-Hill, 1966), p. 349.
12) MacArthur, 위의 책, p. 332 ;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p. 74.
13) Harrold J. Noble, *Embassy at War* (Seattle : Univ. of Washington Press, 1975), pp. 86-87.
14) MacArthur, *Reminiscences*, pp. 331-332 :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참모장 김종갑 대령 증언록」(1964),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15) MacArthur, *Reminiscences*, pp. 333-334.
16) 위의 책, p. 334.
17) 위의 책, p. 334; Marguerite Higgins, *War in Korea* (New York : Doubleday, 1951), p. 33.
18) 원명은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 (합동전략 계획 및 작전단)이다. 1949년 8월 20일에 설치된 이 기구는 극동미군 사령부의 우수한 육해공군 장교들로 구성된 일종의 계획수립 집단이었다. 이들은 그 뒤 유엔군사령부의 주요 계획수립 요원으로 활동했다.
19)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 USGPO, 1962), p. 102.
2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82-85.
21) Applem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89-490.
22) Robert D. Heinl, Jr., *Victory at High Tide* (Philadelphia L.B. Lippincott,1968), p. 36.
23) 1950년 8월 26일부로 일반명령 제24호를 발표함으로써 일본에 있는 모든 부대와 장차 도착예정인 여러 부대들을 그의 예속 하에 넣게 되었다. Applem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490.
24) Applem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490-491.

25) 위의 책, p. 491.
26)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23.
27)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24.
28) Cagle and Manson, 위의 책, pp. 24-25.
29)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65-167.
30) 위의 책, pp. 166-171.
31)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9호」(1950.9.14).
32)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69-171.
33) MacArthur, *Reminiscences*, pp. 333-335 ;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Battle Report : The War in Korea* (New York : Rinehart, 1952), pp. 166-168.
34) Karig 외, *Battle Report*, pp. 166-169.
35) 위의 책.
36) Heinl, *Victory at High Tide*, pp. 16-17.
37)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64-65.
38)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67-71.
39) 위의 책, p. 70.
40) 목표지역의 일부로서 상륙작전이 실시되는 곳을 '상륙 지역'이라 하며, 여기에는 해안두보를 설치하는데 요구되는 해상, 공중 및 지상지역이 포함된다. 이 상륙 지역 안에서 해상수단으로 병력, 장비 및 보급품을 상륙시킬 수 있는 해안선의 계속된 부분을 '상륙 장소'라고 하며 돌격상륙이 가능한 해안선 부분을 '상륙 해안'이라 한다.
41)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70-71.
42) Cagle and Manson, 위의 책, p. 81.
43) Karig 외, *Battle Report*, pp. 176-191.
44) 위의 책, pp. 190-191.
45)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 153-154.
46) 상륙작전 시의 일반적인 함선 적재 방식에는 행정 탑재(Administrative Loading)와 전투 탑재(Combat Loading)가 있다. 함정 공간의 경제적 이용보다는 상륙 시의 전술 상황에 맞추어 부대, 장비, 보급품 등 전투태세를 갖춘 상태로 양륙될 수 있도록 탑재하는 방식이 전투탑재이다.
47)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 24.
48) 미 해병대사령부, 「미 제1해병사단 보고 : 1950. 9~1952. 5월 기간 중 미 해병사단과의 관계로 본 한국 해병 제1연대」(1952.6.13), pp. 4-5, 『인천상륙작전』, p. 369 재인용. 해그나 중령은 이후 한국 해병대사령부 수석고문관으로 활동하다가 원산상륙 이후 1950년 12월 4일 심장마비로 병원선에서 사망하였다.
49) 「김윤근 증언록」(1982.11.16),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50)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 24.
51) 위의 책, p. 74. 한국 해병대가 실제 연대 단위의 전술 편제를 갖게 된 것은 1950년 12월 말, 원산에서 진해로 철수한 뒤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였다.
52) 위의 책, p. 74.
53) Field, U.S. *Naval Operations, Korea*, pp. 180-181.
54) 『한국전쟁사』 제3권, p. 657.
55) APA란 중장비를 제외한 1개 대대상륙단(BLT)을 탑재시켜 자체 보유 상륙주정(LCVP)으로 적 해안에 상륙을 감행할 수 있도록 건조된 병력 수송 위주의 상륙 함선이다.

56) 해군본부, 『한국 해군사 : 작전편』 제1집, pp. 118-119.
57) Field, *U.S. Naval Operations, Korea*, p. 183.
58) 「신현준 증언록」(1970.6.23),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59) 제7장 해군작전 참조.
60)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28.
61)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p. 228-229.
62) 이 보도는 북한군이 유엔 상륙정 2척, 전마선 6척을 침몰시키고, 구축함 4척 등을 파손시켰다는 추정 전과보고에 근거한 것이었다.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29.
63) 9월 14일 북한군은 심각한 손실로 육전대 1개 중대를 월미도에 보충 투입하였다.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29.
64)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85-88.
65) Field, *U.S. Naval Operations, Korea*, p. 198.
66) 월미도전투 이후 북한군은 월미도 수비대 전원이 전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29.
67)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 102.
68) Field, *U.S. Naval Operations, Korea*, pp. 197-198.
69) Heinl, *Victory at High Tide,* 제4장 참조.
70) 위의 책.
71)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 102.
72) 위의 책, p. 103.
73)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 제1집(증보판), pp. 90-91.
74)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102-103.
75) 위의 책.
76) 위의 책.
77) 해안부대는 해안에서 부대, 장비 및 보급품의 상륙과 내륙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해안으로부터의 사상자 및 포로후송을 담담하며, 상륙함선 및 주정접안 및 이안을 용이하게 하고 그 구조역할까지 담당한다. 해군부대를 배속 받는 상륙군의 한 기동편성체로서 해안부대는 그 지원규모에 따라 해안대대, 해안단, 해안 분단 및 해안 소대 등의 제대로 기동편성이 이루어진다.
78) 해안 식별 내지는 해안 상의 어떤 활동상황을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해안에 접근하는 모든 부대의 해상교통을 돕기 위하여 해안상에 플래카드의 형태로 세워진다.
79) Field, *U.S. Naval Operations, Korea*, p. 204.
80) 미 제1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3-50」(1950.9.15).
81) Field, *U.S. Naval Operations, Korea*, pp. 204-205.
82) 미 제1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4-50」(1950.9.15).
83)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 제독 증언록(1964.12.16),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84)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 제1집(증보판), pp. 94-95.
85) 임경섭 증언록(1982.12.21),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86)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 제1집(증보판), p. 95.
87)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30. 인천 시가에 배치된 적은 독립육전연대 예하 대대였으며, 대부분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다.
88) Field, *U.S. Naval Operations, Korea*, p. 204.

89) 미 제1해병연대가 실제 해당 전투지대의 해안두보선에 도달한 것은 D+2 13:00시쯤이었다.
90)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1982, p. 65.
91) 위의 책, pp. 65-66.
92) Oliver P. Smith, *Aide-Memoire* (Notes by Lieutenant General O. P. Smith on the Operation of the 1st Marine Division during the first nine month of the Korean War), 1952(Unpublished), 군사편찬연구소 사료번호 390, p. 142.
93)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31.
94)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155-156. D중대 스미스 중대장은 17일 새벽에 그의 제2소대를 기관총과 로켓트포로 보강하여 최전방에 배치하는 한편 제2선에는 전차와 3.5인치 로켓트포 및 75㎜ 무반동총을 배치시켰다.
95) 「김윤근 증언록」(1982.11.16),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96)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155-156.
97) Heinl, *Victory at High Tide*, p. 141.
98)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31.
99)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 156.
100) 위의 책, pp. 151-152.
101) Smith, *Aide-Memoire*, pp. 198-199.
102) 김윤근 증언록(1982.11.16),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03) 서상국 증언록(1982.12.17), 임경섭 증언록(1982.12.21),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04)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p. 230-231.
105) 김윤근 증언록(1982.11.19),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06) 이홍희 증언록(1965.5.15), 지영조 증언록(1966.3.9),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0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19. 9월 21일까지 집계된 제10군단의 양륙상황은 병력 49,586명, 차량 5,356대, 그리고 화물 22,222톤에 달하였다.
108)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31.
10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71. 맥아더 장군은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인천에 상륙한 제10군단 부대들이 한강변에 진출하기까지 낙동강선의 미 제8군은 한 발짝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맥아더 장군은 9월 19일 저녁 작전참모인 라이트 준장에게 미 제8군으로부터 미군 2개 사단과 한국군 1개 사단을 차출하여 10월 15일경 군산에 상륙시킬 계획을 추진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구상은 그 뒤 낙동강 전선 상황이 급진전됨으로써 취소되었다.
110) 미 제1해병사단, 「작전 작전명령 6-50」(1950.9.18).
111) Smith, *Aide-Memoire*, p. 231.
112) 이 무렵 미 제5해병연대 본부인 김포비행장 청사지하실 주변은 각종 신문 잡지의 보도진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113)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187-189.
114) 문교는 동력장치가 설비된 병력, 장비 도하용 부유물의 일종이다.
115) 언더우드 증언록(1982.11.3),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언더우드 대위는 남침 직후 한동안은 민간인 신분으로 미 제24사단을 돕다가 미 해군에 재복무를 신청하고, 8월 초순 극동 미 해군 사령부에 부임하여 때마침 추진 중이던 상륙작전을 위한 정보 분야에 근무하게 되었다.
116) 현재 행주산성은 사적 제88호로서 보존되어 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아군이 행주산성에 위치해 있었다.

117) Smith, *Aide-Memoire*, pp. 253-254.
118)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33.
119) 1950년 9월 20일 맥아더 사령관은 제일선 상황보고에서 "미 제5해병연대는 서울을 향해 순조롭게 급진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보고를 받고 21일 서울점령을 기대하면서 동경으로 돌아갔다. 이때 일본신문은 승전 사령관의 동경 귀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120) 미 제7해병연대는 사단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8월 21일에야 미 본토에서 그 제1대대장이 임명되고 1주일 내에 편성을 서둘렀고 그 제3대대는 본국 만으로서는 병원이 부족하여 지중해 제6함대에 배속되어 있던 해병대대를 전용하였기 때문에 상륙이 지연되었다.
121) 사실 김포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한국 해병 제3대대도 이 계획에 따라 행주나루까지 이동하였다가 이 계획을 수정한 결과 다시 김포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122) Smith, *Aide-Memoire*, p. 249.
123)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p. 233-234.
124) 미 제1해병연대는 9월 20일 북한군의 역습을 격퇴하고 전차 3대와 수많은 소화기를 노획하였다.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71-572.
125) 현 영등포구청 뒤쪽 당산동 뚝 자리이다.
126)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33.
12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72.
128) 위의 책, pp. 571-572.
129) 핸넘(Hannum)부대는 지휘반 1개 공병중대 제73전차대대 B중대 보병K중대 제48야전포병대대 C중대 위생반 등으로 편성되었다.
130) Smith, *Aide-Memoire*, p. 262.
131)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p. 232-233.
132) 수색을 점령하였을 당시 그곳에 있었던 적 병기 창고에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적의 다발총과 기관총 그리고 기타 실탄이 창고 가득이 쌓여 있었다.
133)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32. 안산선을 따라 북한군 제18사단과 인천에서 철수한 소부대들이 재편성하여 방어에 투입되었다.
134) 최기찬은 25세의 소련군 출신이었다. 제25교육여단은 무기와 장비가 부족하여 동북방에 집결하였고, 주요 도로와 교량에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p. 232-233.
135) 이도조 증언록(1965.2.19), 신양수 증언록(1982.11.11),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36)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33.
137) 신양수 증언록(1982.11.11), 고길훈 증언록(1965.9.1),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북한군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서북 방면에 방어하고 있던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적의 공격을 수차례 격퇴시키고 반격을 가하여 적을 공격개시선으로 격퇴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34.
138) 신양수 증언록(1982.11.11), 고길훈 증언록(1965.9.1),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한국 해병 제1대대는 이틀째의 공격에서도 전사 32명, 전상 68명, 그리고 실종 1명의 손실을 입었다.
139)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245-246.
140) 위의 자료, pp. 246-247.
141)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35.
142)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p. 248-249.
143)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27.

144) Smith, *Aide-Memoire*, pp. 263-264.
145)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20-521.
146) 미 제1해병사단, 「작전명령 10-50」(1950.9.23).
147) 해병대사령부, 「작전명령 제19호」(1950.9.24) : 김종기 증언록(1969.6.25), 류창훈 증언록(1982.6.17),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48) 신양수 증언록(1982.11.11), 고길훈 증언록(1965.9.1),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김성은 부대의 일부였던 제2중대(김광식 대위)와 제3중대(이봉출 대위)는 제1대대(고길훈 소령)의 예하부대로서 이미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고 있었고, 9월 26일 새로이 제5대대로 호칭하게 된 이 부대의 지휘는 사령부 참모장이었던 김대식 중령이 지휘하게 되고 김성은은 참모장으로 전임하였다. 당시 대대 예하에 제21, 22, 23, 25의 4개 중대가 있었다.
149)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38.
150) Montross & Canzona, *The Inchon-Seoul Operation*, p. 129 ; 이극성 증언록(1982.6.9),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51) Smith, *Aide-Memoire*, pp. 275-277.
152)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p. 235-236. 남산의 북한군 방어시설은 견고하였으나 방어 병력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153) 1950년 9월 24일 백인엽 대령이 지휘하게 된 제17연대는 경북 기계와 안강 부근에서 전투 중에 전선을 제1기병사단에 인계하고 9월 14일~15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9호 부록 제76호」에 의거하여 야간에 집결지인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부터 제17연대는 부산에서 상륙기동부대의 지상군으로 편성하고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편입되었다.
154) 미 제1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11-50」(1950.9.25).
155) 미 제1해병연대에 배속된 전차대대 B중대는 도하 여건상 행주 쪽으로부터 도하하게 되었는데 거리 관계상 전차의 진출이 늦어졌다.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30.
15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30-531.
157) 위의 책, p. 530.
158) 위의 책, p. 537.
159) Smith, *Aide-Memoire*, pp. 278-279.
160) 위의 책, pp. 320-321.
161) 위의 책, pp. 334-335.
162)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p. 235.
163) 미 제1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12-50」(1950.9.26).
16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30-531.
165) 미 해병 1개 대대가 한 곳의 바리케이드를 제거하는 데는 약 45분이 소요되었다.
166)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31.
167) 신양수 증언록(1982.11.11), 고길훈 증언록(1965.9.1),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68) 김윤근 증언록(1982.11.16),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69) 위의 자료.
170) 위의 자료.
171) 박정모 증언록,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이날 야간 박정모 소위는 대대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172) 김윤근 증언록(1982.11.16), 신양수 증언록(1982.11.11), 고길훈 증언록(1965.9.1),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173) 김윤근 증언록(1982.11.16), 고길훈 증언록(1965.9.1),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증언록 ; 『한국전쟁사』 제3권, p. 779.
17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38-539.
175) 위의 자료, p. 539.
176) Noble, *Embassy at War*, p. 198 ; 「6·25와 이승만 대통령」, 중앙일보 1983년 8월 4일자.
177)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37 ; 「6·25와 이승만 대통령」, 중앙일보 1983년 8월 9일자.
178) 미 해병사단 의장대 및 악대원은 거의 소총수로서 참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참가할 수 없었다.
179) 잔류자 중에는 친공과 용공으로 부역행위를 한 사람도 있었고, 반공인사들을 고발하고 남하한 사람들의 가재를 압수 도용한 사람도 있었다.
180)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37.
181) 「6·25와 이승만 대통령」, 중앙일보 1983년 8월 8일자 및 8월 9일자.
182)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41-542.
183) 위의 책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31.
184)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40-541.
185) 위의 책, p. 541.
186) 「부산일보」 1950년 8월 18일자.



제 4 장 낙동강선 반격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작전 준비
제 3 절	낙동강선 돌파
제 4 절	38도선으로 진격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낙동강선 반격작전은 미 제8군 예하의 지상군 4개 군단(국군 2개 군단, 미군 2개 군단)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낙동강선에서 38도선으로 북진하는 작전을 일컫는다.

제8군은 미 제10군단이 인천상륙작전을 시작한 다음날인 9월 16일 09:00시를 기해 낙동강전선에서 총반격을 개시하기로 했다. 제8군은 13일에 반격을 위한 전투편성을 완료하고 반격준비 태세를 보완하는 데 주력하였다. 반격이 개시되면 미 제1군단은 주공부대의 임무를 띠고 대구-김천-대전-수원을 잇는 경부축선을 따라 신속히 진격해 상륙부대인 미 제10군단과 연결한 후 경부축선 서쪽의 북한군을 포위 섬멸하기로 계획되었다. 경부축선 동쪽에서는 국군이 중동부전선과 동부전선을 맡아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신속히 38도선까지 진격하기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제8군은 신설되는 미 제9군단을 한반도의 서남부지역으로 진출시켜 호남지역의 북한군을 섬멸하고자 했다.

반격작전이 개시될 무렵 낙동강전선의 북한군은 왜관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제1군단을, 동쪽으로 제2군단을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 왜관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전선을 맡은 제1군단은 예하에 제2, 제4, 제6, 제7, 제9, 제10사단 등 6개 사단을, 왜관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전선을 맡은 제2군단은 예하에 제1, 제3, 제5, 제8, 제12, 제13, 제15사단 등 7개 사단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병력은 약 7만여 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기도 보급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다.

반면에 낙동강선의 국군과 유엔군은 3개 군단 예하에 10개 사단과 1개 여단으로 증강되어 총 병력이 15만 7,210명(국군 72,730명, 유엔군 84,480명)에 달해 병력면에서 북한군보다 2배 이상이었으며, 화력도 6 : 1로 월등히 우세하였다. 또한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작전을 통합지휘 할 목적으로 미 제9군단이 창설을 위한 마무리 준비단계에 있었다.

모든 반격준비를 갖추게 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16일 09:00시를 기해 전 전선에서 일제히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악천후와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제8군은 19일까지 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북한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만을 전개하였다. 궂은 날씨는 유엔 공군의 활동에 제약을 주었고 포병의 화력지원도 위세를 떨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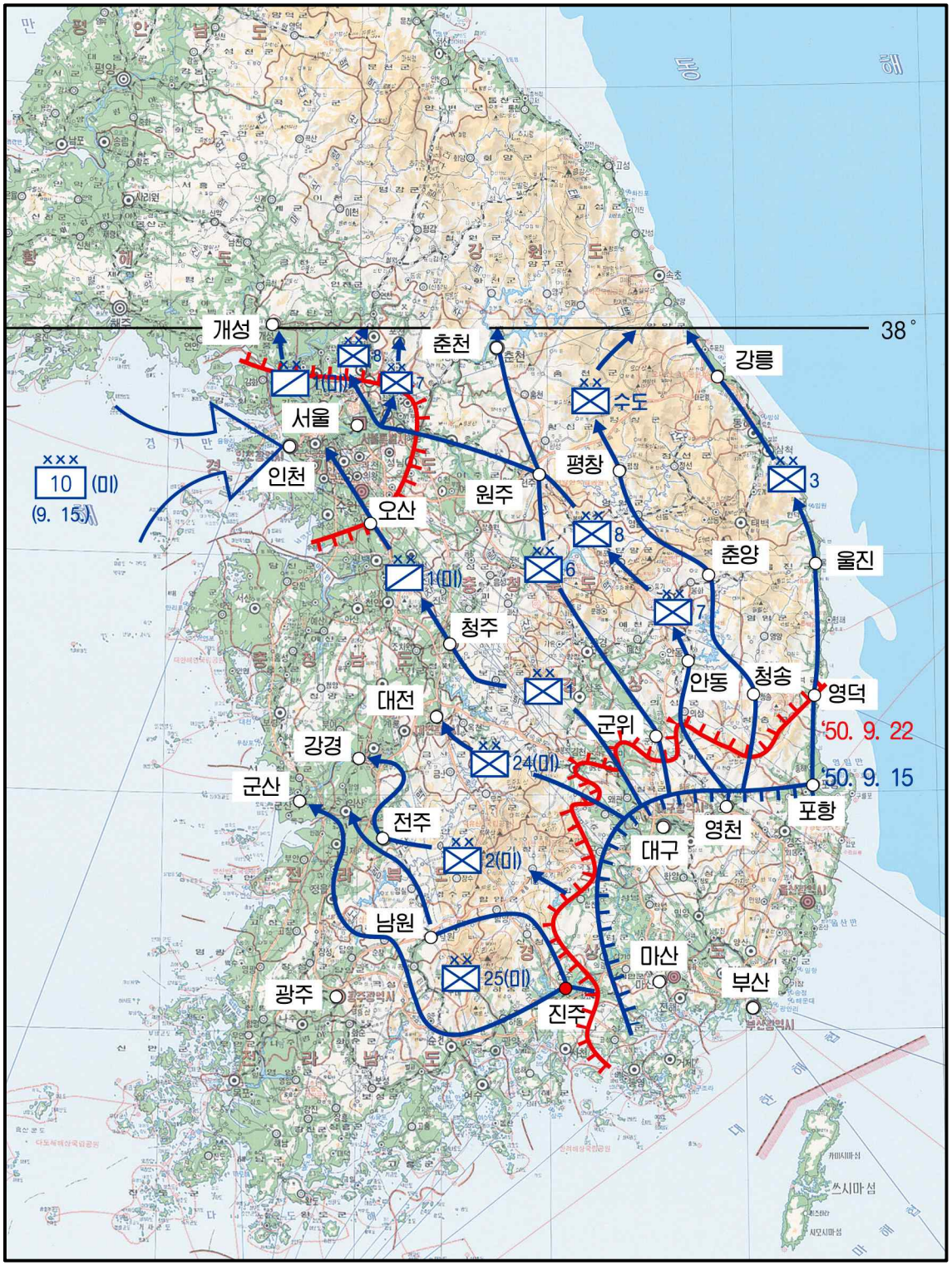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 제1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1사단이 9월 18일 다부동 동쪽에서 북한군 방어선 후방 깊숙이 진출하여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왜관-다부동선에 배치된 북한군 2개 사단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게다가 인천상륙작전의 효과가 낙동강전선에 미쳐오기 시작하면서 9월 21~22일 이틀 동안에 북한군 전선이 급속하게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제8군의 주공인 미 제1군단은 제777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9월 22일 상주-청주-오산으로 진격시키는 한편, 군단 주력을 왜관에서 경부도로를 따라 진격하게 하였다. 다른 전선의 국군과 유엔군도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23일부터 추격전으로 전환하였다.

낙동강전선에서 저항하던 북한군은 방어선이 무너지자 순식간에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지리멸렬되고 말았다. 이들은 개전 초부터 오직 공격작전 일변도의 작전만 수행했던 관계로 방어와 후퇴작전에는 매우 미숙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과 추격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추격은 대단히 신속하여 북한군에게 저지선을 형성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추격의 선두부대인 제777특수임무부대는 26일 오산까지 진격하여 인천상륙부대인 미 제31연대와 연결을 이룸으로써 북한군 제1군단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9월 30일에는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이 대전·전주·군산을 탈환하였으며, 중동부 및 동부전선의 국군 2개 군단이 원주·단양과 38도선 남쪽의 서림·인구리까지 진격하여 북진태세를 갖추었다.

<상황도 4-1>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선 반격작전



국군과 유엔군은 신속한 추격으로 전과를 확대하여 낙동강전선을 돌파한지 보름만에 전쟁 발발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13개 사단이 완전히 분산되었으며, 그 중 6개 사단이 38도선 북쪽으로 철수하지 못하고 국군과 유엔군의 포위망 속에 고립되어 수많은 병력이 포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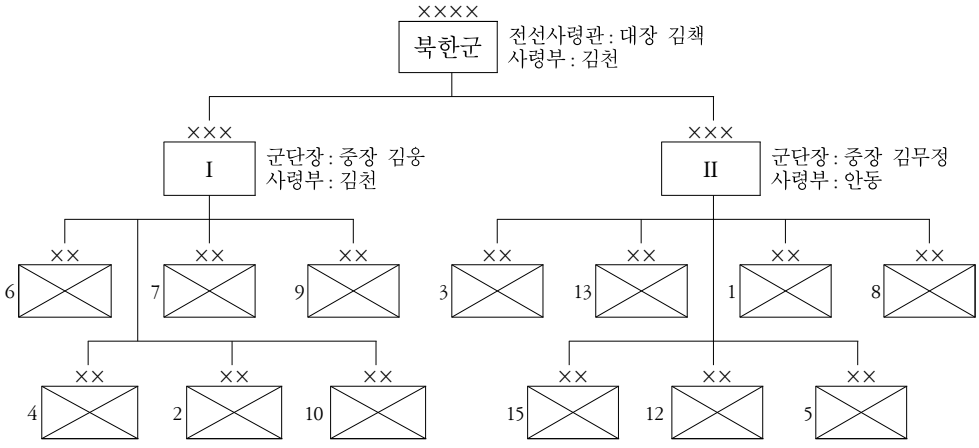
제 2 절 작전 준비

1. 북한군 상황

낙동강선에서의 반격작전은 인천상륙작전 다음날인 9월 16일에 시작되었다. 반격 전야 낙동강전선의 북한군은 전선사령부를 김천에 두고 1개 전차사단 및 2개 전차여단의 지원하에 총 13개 보병사단이 마산 서측-남지-영산-창녕-현풍-왜관-다부동-영천-안강-포항선에 전개하고 있었으며, 그 병력은 약 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미 제8군사령부는 판단하였다. 그 중 왜관 남쪽의 서부지역에는 제1군단 예하 제10, 제2, 제4, 제9, 제7, 제6사단 등 6개 사단 47,400여 명이 배치되어 있고, 낙동강 동부지역에는 제2군단 예하 제3, 제13, 제1, 제8, 제15, 제12, 제5사단 등 7개 사단 54,400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병력과 장비는 약 75%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북한군이 경인지역 방어를 위해 3개 사단 규모를 서울지역으로 전환 배치하더라도 낙동강전선에서 그들의 진지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단기간내에 그 능력이 저하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미 제8군사령부의 판단은 그 후 포로신문과 노획문서에 의해 너무나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실제 북한군의 병력은 7만여 명에 불과하였고 중화기 및 전차의 보유면에서도 편제의 50%를 넘지 못했다.[1)]

북한군의 전투편성은 1개 제대형으로 제2제대와 예비대가 없었으며, 진지보강공사는 물론 전차 예상접근로에 조차 대응할 수 있는 포병과 공병장비가 없었다. 북한 지역의 사리원, 신계, 남포, 평양, 원산, 함흥지역에서 북한군의 새로운 부대들이 창설되었지만, 인원 및 장비가 부족하여 전선에 투입할 수 없었다. 일례로 북한군 제25여단과 제27여단이 철원과 개성지역에 증강되었지만, 장비가

<표 4-1> 낙동강전선의 북한군 전투편성표(1950. 9. 15)



부족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2] 또한 북한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있었고 사단의 원래 병력은 30%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 남한에서 강제로 모집된 신병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기초훈련도 미숙할 뿐만 아니라 식량의 부족으로 영양실조상태에 놓여 있었고 유엔 공군의 계속된 폭격으로 인한 전장공포증에 걸려 있기도 하였다.[3]

2. 국군 및 유엔군 상황

9월 중순 미 제8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지상군은 대구로부터 마산까지 서남부에서, 국군은 대구로부터 포항의 형산강까지 동부에서 북한군과 대치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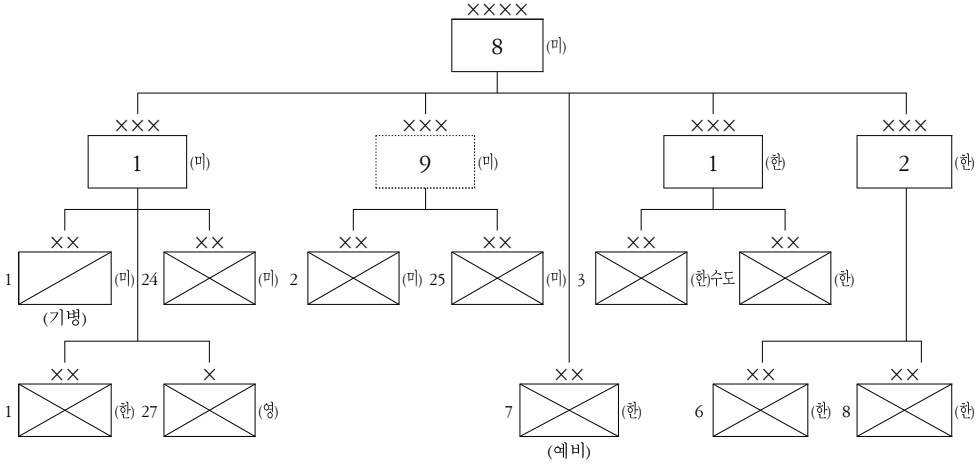
유엔군은 미 제1군단이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1사단, 미 제24사단으로 대구를 방어하고 있었고, 그 남쪽으로는 미 제2사단이 창녕-영산에서, 미 제25사단이 마산에서 각각 북한군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군은 제2군단이 제6사단과 제8사단으로 신녕-영천에서, 국군 제1군단이 수도사단과 제3사단으로 안강-형산

강에서 방어하고 있었다. 당시 이들 전투부대의 총 병력은 약 157,210명에 달하였는데, 그 중 국군이 72,730명이었고, 미군이 84,480명(영국군 1,693명 포함)이었다.[4]

미군은 참전 이후 전사자 4,280여 명을 포함하여 부상, 포로, 실종 등 2만 명에 달하는 큰 손실을 입어 소총중대의 경우 대체로 고참병이 25%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 카투사의 보충으로 병력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훈련 미숙과 동화 기간의 부족으로 전투효율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국군은 초기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부대의 재편과 보충을 통해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대부분 신병이어서 전투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군 및 유엔군은 북한군에 비해 병력면에서 수적으로 2 : 1의 우세를 보였으며 기갑, 포병, 중화기 그리고 이들 화기의 탄약보급에서 그들보다 6 : 1로 우세하였다. 또한 해·공군의 작전능력에서도 비교가 안될 만큼 우세하였으며 유엔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5]

<표 4-2> 미 제8군 전투편성표(1950. 9. 15)



* 비고 : 미 제9군단은 9월 23일부터 지휘권 행사
국군 제7사단은 육군본부 예비로 운영

** 참고자료 :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pp. 544-547.

3. 반격계획

미 제8군은 미 제10군단의 인천상륙작전과 협조된 낙동강선에서의 반격계획을 9월 6일 완성하여 도쿄의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9월 11일 작전명령으로 하달하였다.[6] 이 명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제8군은 현 접촉선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9월 16일 09:00시에 주공을 대구-김천-대전-수원을 연결하는 축선에 두고 공세로 이전한 다음, 전진축선상의 적을 격멸하는 동시에 신속히 제10군단과 연결한다.

2. 미 제1군단은 제8군의 주공으로서 중앙의 제1기병사단 및 제5연대전투단이 정면의 적을 격파하여 왜관 대안에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좌측의 제24사단이 왜관의 낙동강 하류에서, 그리고 우측의 국군 제1사단이 왜관의 낙동강 상류에서 각각 도하작전을 감행한다.

3. 교두보를 확보하면 제24사단은 김천을 거쳐 대전으로 공격하며 제1기병사단은 제24사단을 후속하면서 보급로의 경비를 담당한다.

4. 미 제2사단과 제25사단, 그리고 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은 각각 정면의 적을 공격하여 전선에 고착시키고 상황에 따라 국부적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면 이를 확대하여 주공 정면의 공세를 용이하게 한다. 특히 미 제2사단은 미 제1군단의 도하를 도울 수 있도록 도하작전을 실시한다. 돌파가 완료되면 군은 신속하게 제10군단과 연결을 유지하고 동시에 38도선으로 추격을 계속하여 남한지역에 침공한 적을 격멸한다. 이를 위하여 추격방향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미 제1군단은 왜관-김천-대전가도를 따라 추격하여 신속하게 제10군단과 연결하는 동시에 적 제1군단의 퇴로를 차단한다. 상황에 따라 대구-다부동-상주 축선을 이용할 수 있다.

미 제2사단과 미 제25사단은 지리산 부근을 거쳐 금강하류의 통제선을 향하여 추격한다. 그리고 국군 제2군단은 안동-원주를 거쳐 춘천을 향하여 추격하고 제1군단은 동해안을 따라 38도선을 향하여 추격한다."[7]

유엔군의 반격계획은 현 접촉선인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인천상륙 하루 뒤인 9월 16일 09:00시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반격 개시 일자를 하루 늦게 잡은 것은 인천상륙의 소식이 북한군에게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반면에 유엔군에게는 사기를 크게 고양시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미 제8군은 서부 및 서남부지역에서 미군 1개 군단과 4개 사단이, 동부지역에서 국군 2개 군단이 일제히 반격을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주공은 중앙지역의 미 제1군단에 두었다. 미 제1군단은 인천으로 상륙하여 포위기동을 실시하는 미 제10군단과 연결하는 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경부국도가 기계화부대의 운용에 유리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주공으로 선정되었다.

제 3 절 낙동강선 돌파

1. 대구 정면 돌파

1) 가산-팔공산 방면의 돌파

(1) 작전계획

국군 제1사단은 대구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1사단에 맞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가산(架山)과 팔공산(八公山)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8] 유엔군의 총반격을 앞둔 9월 13일~15일간의 전선은 북한군이 이미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가산산성 일대에서만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 무렵 북한군 제1사단(사단장 최광 소장)은 가산(△902)에 사령부를 두고, 국군 제15연대 진지 정면의 756고지-655고지를 연해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 제1사단의 전투력은 40여 일간 진행된 낙동강선 전투에서 전체 병력 중 약 2/3가량이 손실을 당했기 때문에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9]

국군 제1사단은 제15연대(+)[10]와 제12연대를 득명동-783고지-대율동(大栗洞) 서남쪽 능선-창평동(昌平洞) 서북방에 연해 배치하고서 미 제1군단 작전명령 제1호(1950년 9월 12일 18:00시부)에 따라 총반격을 위한 최종 준비를 갖추었다.

9월 15일 오전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미 제1군단은 이날 17:00시에 작전지시 제1호를 각 예하 사단에 하달해 9월 16일 09:00시부로 낙동강전선에서의 총반격 작전을 명령하였다. 이 보다 앞서 제8군에서는 9월 6일(9월 11일 수정) 제8군사령부 작전계획 제10호에 의거, 미 제1군단에 총반격 작전의 주공을 담당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 제1군단은 대구-수

원의 경부선을 따라 북한군을 격파하면서 진격해 경인지방에서 남하하는 미 제10군단과 연결하도록 계획되었다.[11]

미 제1군단의 우측 사단인 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군단(군단장 Frank W. Milburn 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작명을 하달받았다. "국군 제1사단은 팔공산에서 가산을 공격, 정면의 북한군 제1사단을 격파하라.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과 호응하여 낙동강 부근에서 도하를 감행한 후 상주를 향한 공격을 준비하라. 그리고 미 제10고사포단은 사단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라."

<표 4-3> 국군 제1사단 지휘관 현황

구 분		계급	성 명	비 고
사단지휘부	사단장	준장	백선엽(白善燁)	
	참모장	대령	석주암(石柱岩)	
제11연대	연대장	대령	김동빈(金東斌)	
	제1대대장	소령	김 소(金 沼)	
	제2대대장	중령	차갑준(車甲俊)	
	제3대대장	중령	이무중(李茂重)	
			정영홍(鄭永洪)	10월 1일부
제12연대	연대장	중령	김점곤(金點坤)	
	제1대대장	소령	한순화(韓順華)	
	제2대대장	소령	조성래(趙成來)	
	제3대대장	대위	유문호(柳文鎬)	
		소령	김기용(金基容)	10월 2일부
제15연대	연대장	대령	최영희(崔榮喜)	
		중령	조재미(趙在美)	10월 1일부
	제1대대장	소령	유재성(劉載成)	
	제2대대장	소령	이존일(李存一)	
			김진위(金振暐)	9월 27일부
	제3대대장	소령	최병순(崔炳淳)	
			안병건(安秉健)	9월 29일부
제17포병대대	대대장	소령	박영식(朴永湜)	
공 병 대 대	대대장	소령	김영석(金永錫)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白善燁) 준장은 일부 병력으로 산성 일대의 북한군을 견제하면서 사단 주력이 전선 중앙과 우측을 돌파해 서북방으로 전진함으로써 가산 일대의 북한군 주력을 포위·격멸하고, 낙동리와 해평 일대로 진격할 방침을 세웠다. 국군 제1사단장은 '사단작명 제39호'를 통해 제15연대(+)에게 산성의 북한군을 견제하면서 산성 동쪽으로 우회해 산성의 북한군을 포위공격하게 하고, 제12연대에게 사단 우측에서 전선을 돌파한 후 북한군의 후방으로 진출하여 퇴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그리고 영천에서 복귀해 불노동(不老洞)에 예비로 있던 제11연대(-)를 대율동 부근에 배치하여 제15연대의 전진을 지원하게 하였다.[12]

'사단작명 제39호'에 따라 제15연대(연대장 최영희 대령)는 제1대대를 좌측에, 제2대대를 중앙에, 제3대대를 우측에 각각 배치하여 783고지(가산산성 동쪽 약 2㎞)-538고지(대율동 서남방 약 2㎞)에 연하는 선에서 공격을 개시해 응추동(鷹秋洞)-불동(佛洞)-신주막(新酒幕) 방면으로 진격한 후, 다시 다부동으로 남하하여 그 일대의 북한군을 격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연대에 배속된 제11연대 제1대대에게는 인접한 미군부대와의 연결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대구 불노동에 사단예비로 있던 제11연대(-)는 대율동으로 추진한 후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좌우 제대로 나누어 655고지(대율동 서북방 약 2㎞)와 381고지(655고지 북쪽 약 1.5㎞)의 북한군을 격퇴한 다음, 매곡동(梅谷洞)을 거쳐 석우동(石隅洞) 방면으로 진격해 다부동-군위, 다부동-상주 도로를 차단하면서 천생산(天生山, 석우동 서북방 약 7㎞)을 공격해 점령하기로 하였다.

제12연대(연대장 김점곤 중령)는 군위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북한군을 격파하면서 장군동(將軍洞)과 거매동(巨梅洞) 부근으로 깊숙이 진격하여 다부동-군위간의 북한군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아군 정면의 북한군을 격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2) 공세작전으로의 전환

9월 16일 국군 제1사단은 09:00시를 기하여 총공세를 취하였지만 기상악화로 인해 별다른 진전 없이 사단 좌측의 제15연대 정면에서만 피아간에 공방전이 전

개되었다. 둔덕동에 지휘소를 둔 제15연대(+)는 제1대대(대대장 유재성 소령)가 783고지 일대에서 남하하려는 북한군과 교전을 벌였으며, 제3대대(대대장 최병순 소령)가 538고지의 북한군을 공격해 교전하였다. 연대에 배속된 제11연대 제1대대(대대장 김소 소령)는 756고지에서 북한군의 역습기도를 저지하면서 운무가 자욱한 가산을 향해 공격을 계속하였다. 제15연대 제2대대(대대장 이존일 소령)는 12:00시에 중리(中里)를 떠나 17:00시에 수산동에 진출하여 공격준비를 완료하였다.[13]

한편 대율동 서북방으로의 진격 임무를 부여받은 제11연대(-)는 16일 09:00시에 제2대대(대대장 차갑준 중령)와 제3대대(대대장 이무중 중령)가 불노동에서 전진을 시작하여 18:30분까지 둔덕동에 진출한 후 기동준비를 갖추고 대기하였다. 그리고 제12연대(연대장 김점곤 중령)도 창평동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진격을 대기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1사단 사령부가 위치했던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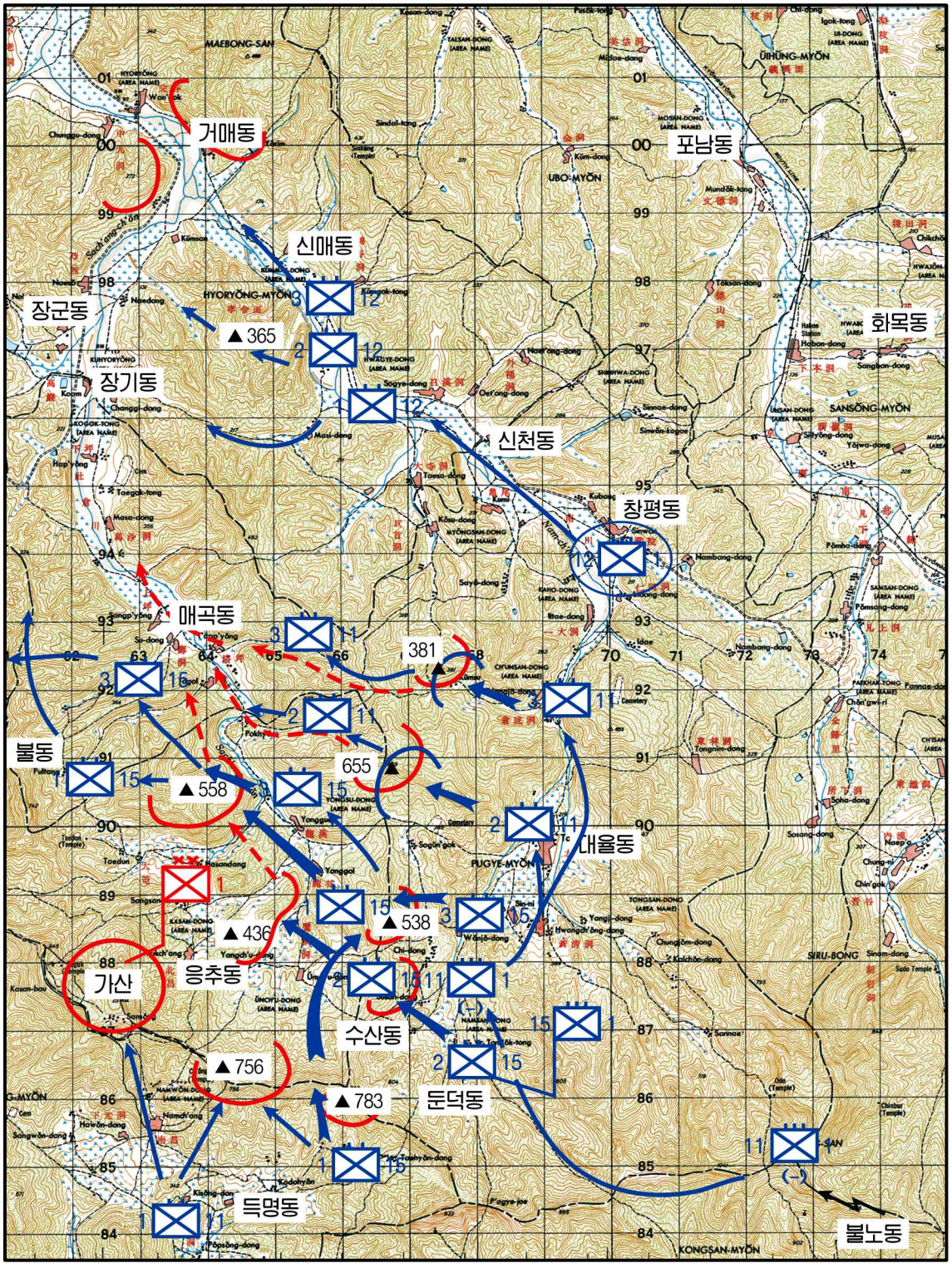
기상의 악화와 가산(△902)을 중심으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북한군 제1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총공세 첫날의 공격에 차질을 빚은 국군 제1사단은 9월 17일 각 연대별로 본격적인 공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전날 수산동에 집결한 제15연대 제2대대는 12:00시경 수산동 서측능선의 북한군 1개 중대를 격파하여 능선 일대를 점령한 후 17:00시에 응추동으로 북한군을 추격하였다. 제3대대는 14:00시경에 538고지를 점령하고, 서북방 2㎞ 지점의 558고지를 향해 공격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와 배속된 제11연대 제1대대는 756고지와 783고지 부근에서 전날과 만찬가지로 계속해서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과 공방전을 전개하였다.[14]

제11연대(-)는 15:00시에 서북방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제2대대가 655고지를, 제3대대가 381고지를 18:00시경에 각각 점령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복현(卜峴)-매곡동 일대에서 신주막-석우동 방면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제11연대 제3대대가 패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한 후 제2대대 1개 중대와 협동으로 527고지 일대를 탈환하였다. 제2대대는 복현으로 진출하여 가산-응추동 일대의 북한군 퇴로를 차단하고 그 측면을 교란함으로써 국군 제15연대의 공격에 기여하였다.

창평동의 제12연대도 제1대대가 장기동, 제2대대가 365고지(장기동 북동쪽 약 1.3㎞), 제3대대가 342고지(완곡)를 목표로 도로를 따라 진격하기 시작하여 장기동, 금산동(완곡 남방 약 2㎞) 일대까지 진출하였다.[15]

9월 18일 국군 제1사단은 가산의 북한군을 제압하기 위해 가산 일대에 머물고 있는 제11연대 제1대대를 제외하고 전 병력이 순조롭게 진격 대열에 합류하였다.[16]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전투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사단 전투정면의 우측에 위치한 제12연대의 진격이 두드러졌다. 제12연대는 미 제10고사포단(단장 William H. Hennig 대령)의 화력 지원하에 제2대대(대대장 조성래 소령)가 05:30분경 장군동 일대에서 저항하는 북한군과 몇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이를 격퇴하였고, 제3대대(대대장 유문호 대위)가 06:00시경 거매동에서 북한군 1개 중대를 격파한 후 다부동 북동방 16㎞ 지점의 다부동-군위가도까지 진출하였다. 이러한 제12연대의 진출은 다부동-군위간의 북한군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상황도 4-2> 국군 제1사단의 가산-팔공산 전투(1)



국군 제1사단의 진격은 물론 왜관-다부동 일대에서 공격하던 사단 좌측 인접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의 진격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제12연대의 다부동-군위가도 진출로 북한군은 제1사단과 제8사단 사이의 간격이 뚫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한달 반에 걸친 북한군의 대구위협은 완전히 좌절되었다.

한편 제15연대는 전날에 이어 제2대대가 추격을 계속하여 응추동을 탈환한 다음, 384고지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그런데 384고지에서 저항하던 약 7~800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558고지 공방전의 지원을 위해 이동함에 따라 제2대대는 384고지를 무난히 돌파한 후 용곡 서북방을 지나 266고지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치열한 전투 끝에 공격개시 하루 만인 14:00시경에 558고지를 점령하였다. 또 제1대대는 제11연대 제1대대와 함께 산성 일대의 북한군을 견제공격 하다가 538고지로 이동하였다. 제11연대(-)는 계속해서 매곡동-상평 일대에서 북한군 패잔병들을 공격하면서 다부동-군위가도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9월 19일 가산 남쪽 기슭에 있던 북한군이 퇴로 차단을 우려해 북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군 제11연대 제1대대가 가산을 공격하여 북한군 1개 중대와 교전하였으며, 제15연대의 각 대대가 가산 후방에서 빠른 진격을 계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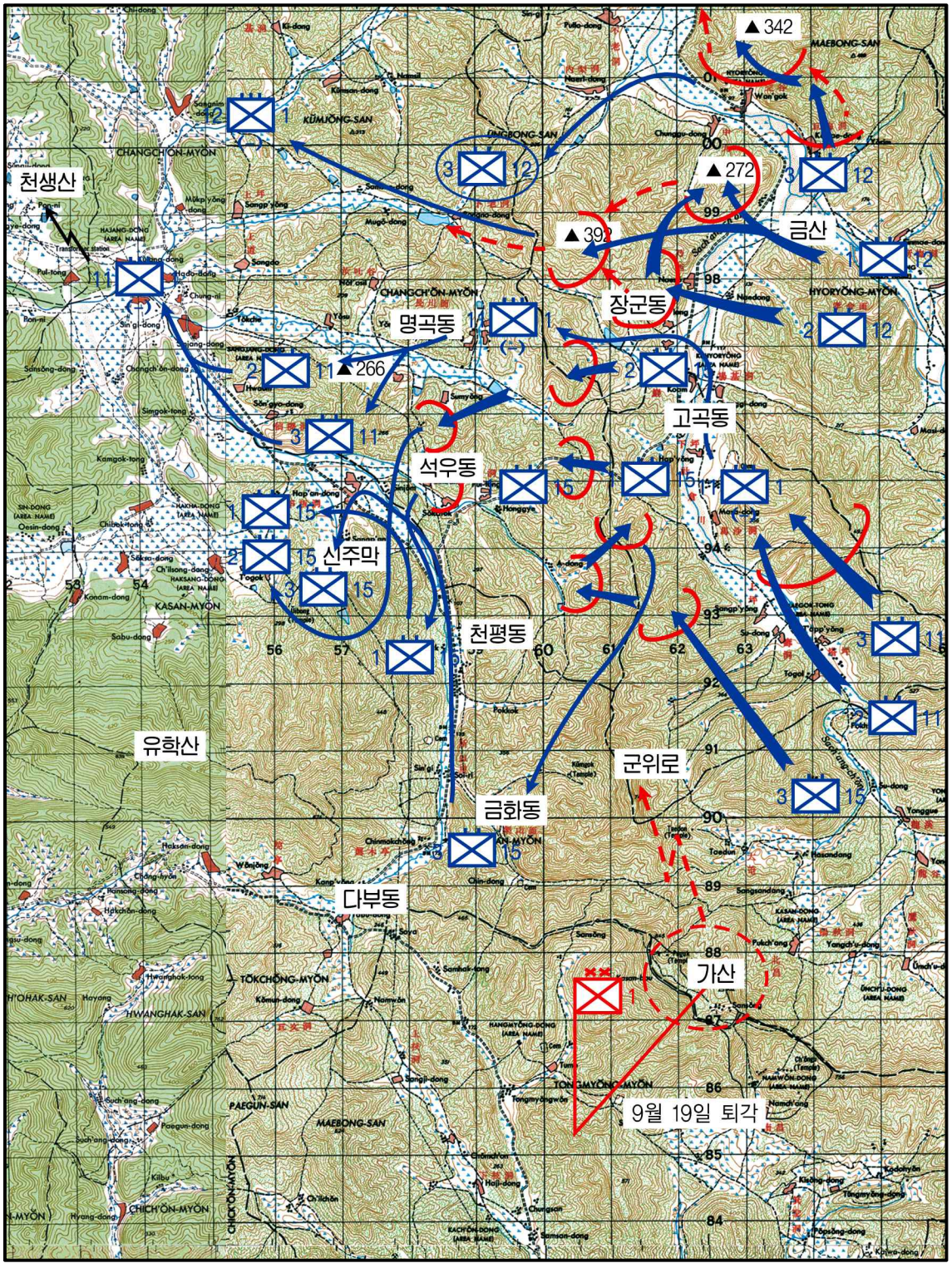
제15연대 제1대대는 538고지에서 558고지, 불동을 거쳐 효령(구효령) 서쪽 방면으로 진격하였으며, 제2대대는 석우동에서 266고지의 북한군 전위대와 교전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558고지에서 364고지로 전진하던 중에 제9중대가 산성 방향으로 적 후방을 기습 공격하는 한편, 대대 주력은 신주막의 208고지에서 북한군 주력과 교전 끝에 이를 격파하였다.

사단의 중앙에서 진격하는 제11연대는 19일 374고지-221고지를 연하는 선에 진출하여 대구-군위가도를 차단하였다. 이날 제2대대는 374고지를 비롯해 221고지와 297고지를 확보하고, 그 일대의 잔적을 소탕함으로써 제3대대의 전진을 지원하였고, 제3대대는 고곡동 일대의 북한군을 격파한 후 계속해서 226고지를 향해 진격하였다.

사단 우측에서 진격하던 제12연대는 이날 퇴로를 확보하려는 북한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제12연대는 제2대대를 연대예비로 금산-장기동에 대기시키고 제1대대가 392고지(장군동 서북방 2㎞)와 272고지(금산 서북방 1㎞)를, 제3대대가 342고지(중구동 북쪽 1㎞)를 공격하였다. 금산 부근에 지휘소를 둔 제1대대(대대장 한순화 소령)는 15:00시경에 다부동-군위가도를 가로 질러 392고지와 272고지를 공격하였지만,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대응하는 북한군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제12연대는 다음날(20일) 새벽까지 연대예비로 있던 제2대대를 투입해 제1대대와 더불어 고지 점령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거매동 방면의 제3대대(대대장 유문호 대위)도 19일 19:00시경에 공격을 시작하여 23:00시경에 342고지에 육박하였으나, 북한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제3대대는 특공대를 선발 편성하여 342고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 백병전 끝에 20일 04:00시경에 342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 무렵 가산 일대의 북한군은 군위에 집결할 목적으로 주력 일부가 742고지를 거쳐 북쪽 374고지를 향하고 있었으며, 다른 일부가 466고지를 통과하여 진목정을 동쪽으로 우회해 구미방면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이에 국군 제15연대는 다부동-군위도로를 거쳐 구효령 서쪽까지 진격한 후 일단 북상을 중지하고 반전하여, 퇴로를 찾아 북상하는 북한군을 격멸하면서 다부동지구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제2대대(대대장 이존일 소령)는 266고지(석우동 서북방 1㎞)의 북한군 전위대와 교전 끝에 이를 격파하고 남하하던 중 하판(266고지 남쪽 1㎞)에서 북한군 1개 대대 병력과 부딪쳐 이를 공격하였으며, 제1대대(대대장 유재성 소령)는 불동에서 퇴로를 잃은 북한군을 포착해 격멸하였고, 제3대대(대대장 최병순 소령)는 금화동 남쪽으로 남하 중이었다. 그리고 이날(20일) 374고지의 연대 OP가 후퇴하던 북한군 2개 중대 병력으로부터 기습을 받고 한때 적에게 포위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때 연대 OP를 방어하던 연대 보충대(대대장 석종섭 소령)의 백남수 하사를 비롯한 사병 5명(김인석, 이춘승, 이기원, 임용순, 이현영)이 BAR 1정과 경기관총 2정을 가지고 우측의 송림(松林)으로 탈출해 북한군의 우측방에서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북한군이 잠시 동안 혼란에 빠진 사이에 연대 OP의

<상황도 4-3> 국군 제1사단의 가산-팔공산 전투(2)



병력은 북한군의 포위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다시 병력을 집결해 약 2시간 동안의 교전 끝에 이들을 물리쳤다.

한편 제11연대는 제3대대가 20일 03:00시에 226고지를 점령한 후 05:00시에 진격을 개시하여 13:00시에 무명고지와 상장동에 각각 1개 중대씩 진출시켜 대구-상주간 도로를 차단하였다. 이날 연대는 지휘소를 중대동에서 마시동으로 진출시키고 사단 작명 제42호에 의거하여 배속경찰 제10대대의 2개 중대를 보충대에 편입시켜 후방경계 및 치안확보에 임하도록 조치하였다.

9월 21일 전날에 이어 제15연대는 퇴각 또는 역습하는 북한군을 격파하면서 계속해서 다부동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제1대대는 정면으로 역습해 오는 북한군을 석정 부근에서 격퇴시키고 남쪽으로 356고지에 진출하였으며, 제2대대는 하판의 북한군을 격파한 후 279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다. 또 제3대대는 금화동 남쪽 무명고지에 진출하여 지난 19일에 가산산성의 적 후방을 기습한 제9중대와 합세하였다.

제11연대는 297고지-373고지-113고지 일대를 확보하고 있던 제2대대가 09:00시에 서북방으로 진격을 시작하여 상림동 부근에 집결 중인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격파한 후 13:00시에 상림동 일대를 점령하였다. 또 이날(21일) 제3대대는 천생산을 공격해 점령하였다. 이 산은 서쪽으로 왜관-상주간, 동쪽으로 다부동-상주간 도로의 중간에 위치한 요충지였으며, 이곳에서 서쪽으로는 낙동강까지 멀리 내려다볼 수 있었다. 이 천생산 공격은 제11연대 제3대대가 담당하였다. 제3대대는 1개 중대를 208고지 쪽으로 보내 적정 탐색과 적 퇴로 차단을 담당하게 하고 13:30분에 대대 주력이 공격을 시작하여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16:00시경에 천생산을 점령하였다.

제12연대 지역에서는 제1대대와 제2대대가 협동하여 272고지와 392고지 일대에서 사흘째 완강히 버티는 북한군을 미명에 다시 공격하였다. 제12연대는 백병전을 감행한 끝에 16:50분경에 이르러 두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지역의 북한군은 복로동 방면으로 패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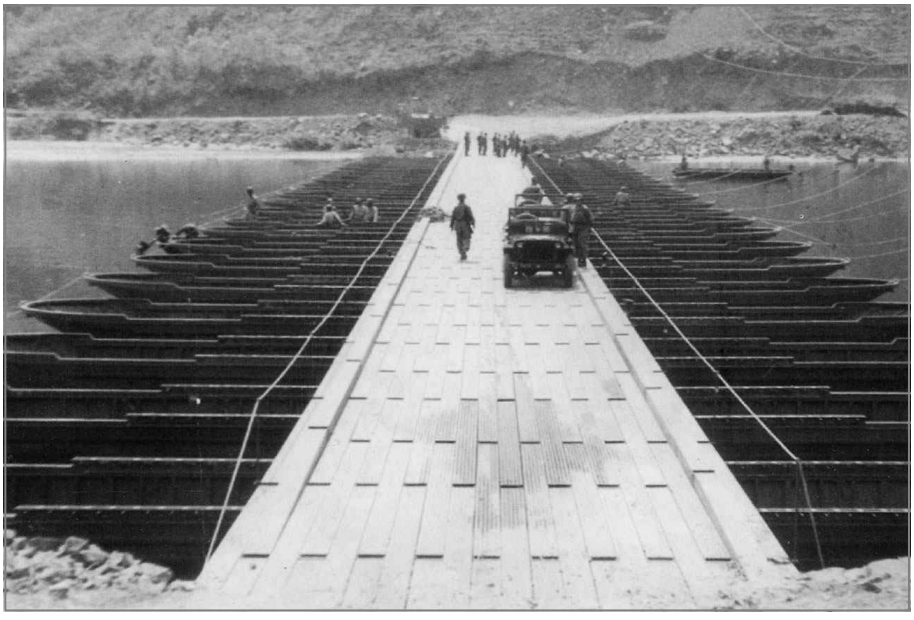
이로써 가산-팔공산 지역의 북한군은 국군 제1사단의 퇴로차단과 정면공격으

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분산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3) 낙동강 도하

9월 22일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는 다부동에서 미 제1기병사단과 연결하였으며, 예하 각 대대는 다시 반전하여 북으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제1대대는 356고지에서 157고지로 진격하였으며, 제2대대는 157고지 동남쪽 제1대대의 후방인 279고지로 남하하였다가 그 서쪽의 인동부근에 병력을 집결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금화동 남쪽 무명고지로부터 동곡 남쪽으로 진출하였다. 또 배속 중인 제11연대 제1대대는 이날 가산동을 완전히 탈환한 후 원대로 복귀하였다.

제11연대는 제2대대가 상림동 서쪽의 임천동 부근을, 제3대대가 천생산 북쪽 한천 일대를 각각 점령하였으며, 제1대대가 14:00시부로 원대 복귀하여 연대예비로 제2대대 후방에 배치되었다.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계속해서 금호동 부근까지 진출한 후 22:00시경에 대구-상주 도로를 중심으로 동·서측에 각각 배치되었다.



국군의 낙동강 반격작전을 위해 설치된 부교(1950년 9월 25일)

제12연대는 제1대대가 272고지-400고지 및 300고지 일대의 능선을 목표로 공격하여 22일 07:00시경에 이를 점령하고 제2대대가 미명을 기하여 장군동 서북쪽의 392고지를 포위 공격해 07:00시경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어 제1·제2대대는 상림동으로 이동 집결하였다. 제3대대는 342고지로부터 서북방 노인동으로 12:00시경에 수색대를 전진시켰는데, 15명의 수색대는 북한군 포진지를 발견하고 1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이를 격파하였다.

9월 23일 국군 제1사단은 군단 명령에 따라 계속해서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부대를 낙동강 동안으로 약진시켜 도하를 준비하였다. 제11연대는 제2대대를 선발대로 하여 낙동강 도하를 준비하였다. 제2대대는 제5중대를 해평동에서 낙동강을 도하해 강정을 거쳐 관심동까지 진출시켜 적정을 탐색하게 한 후 복귀시켰다. 이 무렵 제1대대는 178고지, 제3대대는 154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연대본부가 괴곡동으로 진출하였다. 제15연대도 이날 11:00시부터 378고지 부근에 있던 연대본부를 장천면 소복초등학교로 18:00시까지 이동 완료하고 각 대대를 왜관-상주 도로를 중심으로 성수동 부근에 집결시켰다. 제12연대는 연대본부가 09:00시에 창평동을 출발해 12:00시에 당곡동에 이동 완료하고, 각 대대에 현 진출선을 계속 확보하면서 전장정리에 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날 사단 사령부도 동촌에서 선산군 장천면 상장동으로 이동하였다.

9월 24일 국군 제1사단은 일부 병력이 지역내의 북한군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주력이 낙동강 도하준비를 완료하였다. 제11연대는 연대본부를 도개동으로 이동시키고 용정리 일대에서 북한군 패잔병들을 섬멸하였으며, 제15연대는 제1대대에게 북한군 패잔병들을 추격하게 하면서 낙동리 남방으로 진출시켰다. 그리고 제12연대는 제1대대를 연대예비로 상림동에 대기시키고, 제3대대를 342고지 일대에, 제2대대를 상림동에서 군위로 진격시켰다.

9월 25일 국군 제1사단은 군단으로부터 낙동강을 도하해 선산-상주 방면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국군 제1사단은 군단으로부터 우인접 부대인 국군 제1군단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군단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군위 부근에 1개 연대를 주둔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17]

국군 제1사단장은 제12연대를 군위에 남겨두고, 제11연대와 제15연대를 낙동리에서 낙동강을 도하하게 하였다. 제11연대와 제15연대는 26일 11:00시경 적의 미약한 저항을 물리치고 선산을 점령하였다. 제11연대는 연대본부를 선산군 무을면 안곡동으로, 제15연대는 연대본부를 개령으로 이동시키고 상주를 향해 전진하였다. 이날(26일) 군위의 제12연대도 14:00시에 미 제1군단으로부터 선산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군위를 출발해 선산으로 향했다.[18]

2) 다부동 방면의 돌파

(1) 작전계획

인천상륙작전의 감행과 더불어 미 제8군은 반격계획을 수립하고 9월 15일부로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미 제8군의 계획은 주공인 미 제1군단에게 대구 북방 일대에서 반격으로 나가 낙동강을 건너 김천-대전-수원 선으로 진격하여 북한군 제1군단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인천상륙작전 부대인 미 제10군단과 연결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주공의 임무를 맡게 된 미 제1군단은 예하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미 제5연대전투단 배속), 미 제24사단(영 제27여단 배속), 국군 제1사단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 "1. 제1기병사단은 배속된 제5연대전투단으로 하여금 북한군 제3사단의 서쪽에 위치한 금무봉(金舞峰)을 공격하여 왜관을 탈환하게 하고, 사단의 주력은 왜관 부근에서 다부동을 향하여 공격해 북한군 제13사단을 격파한다.
>
> 2. 정면의 적을 격파한 후 제1기병사단은 왜관 부근에서 낙동강을 도하해 서안(西岸)에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국군 제1사단은 낙동리에서 도하를 한 다음 상주로 진격한다.
>
> 3. 제24사단은 제1기병사단의 엄호하에 낙동강을 도하, 김천을 향해 공격한다."[19]

미 제1군단의 계획은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5연대전투단으로 하여금 북한군

제3사단(사단장 이영호 소장)과 제13사단(사단장 이익선 소장)을 격파하게 하고, 낙동강 서안에 진출한 후 미 제24사단이 미 제1기병사단을 초월 공격해 김천으로 진격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전선 돌파의 임무를 부여 받은 제1기병사단장 게이(Hobart R. Gay) 소장은 북한군을 포위 격멸할 계획을 구상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각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1. 제5연대전투단은 왜관을 향해 공격하고 제5기병연대가 왜관-대구 도로 동쪽에서 적을 공격·견제한다.

2. 제8기병연대는 칠곡 부근에서 적을 격파하고 다부동 북방으로 진격한다.

3. 제7기병연대는 명령에 의거해 사단 우측방에서 좌측방으로 능률적인 대대 이동을 한 후 왜관-다부동간 도로로 진격하여 신속히 적을 포위한다."[20]

제1기병사단장은 일단 돌파가 성공하면 군단 명령에 따라 상주-보은-청주-수원 선으로 북한군을 추격해 제10군단과 연결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4-4> 미 제1기병사단 지휘관 현황

구 분		계급	성 명
지휘부	사단장	소장	게이(Hobart R. Gay)
	포병사령관	준장	팔머(Charles D. Palmer)
제5기병연대	연대장	대령	크롬베즈(Marcel B. Crombez)
	제1대대장	중령	로저스(Glenn F. Rogers)
제7기병연대	연대장	대령	니스트(Cecil Nist)
	제1대대장	중령	클레이노스(Peter D. Clainos)
	제2대대장	중령	위더스푼(William O. Wither Spoon)
	제3대대장	중령	린치(James H. Lynch)
제8기병연대	연대장	대령	팔머(Raymond D. Palmer)
	제1대대장	중령	케인(Robert W. Kane)
	제2대대장	중령	필드(Eugene J. Field)
	제3대대장	중령	존슨(Harold D. Johnson)
배속부대	제5연대 전투단	대령	오드웨이(Godwin L. Ordway)

<표 4-5> 미 제24사단 지휘관 현황

구 분		계급	성 명
지휘부	사단장	소장	처치(John H. Church)
	포병사령관	준장	바스(George B. Barth)
제19연대	연대장	대령	무어(Ned D. Moore)
	제1대대장	중령	리(Robert L. Rhea)
	제2대대장	중령	맥그레일(Thomas M. McGrail)
	제3대대장	?	?
제21연대	연대장	대령	스테판(Richard W. Stephens)
	제1대대장	중령	스미스(Charles B. Smith)
	제2대대장	중령	페레즈(Gines Perez)
	제3대대장	중령	젠센(Carl C. Jensen)
제34연대	연대장	대령	뷰챔프(Charles Beauchamp)
	제1대대장	중령	아이리스(Harold B. Ayres)
	제2대대장	?	?
	제3대대장	중령	페레즈(Gines Perez)
배속부대	영국군 제27여단	준장	코드(Basil A. Coad)

이 무렵 미 제1기병사단 전투정면의 북한군은 제3사단이 약 2,300명, 제13사단이 약 6,300명, 제105기갑사단이 약 1,200명 등 총 9,8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이 지역을 담당한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24사단의 총 병력은 34,552명(미 제1기병사단이 13,904명, 제5연대 전투단 2,599명, 미 제24사단 16,356명, 영국군 제27여단 1,693명)이었으며, 전차는 북한군에 비해 10 : 1, 포 및 박격포는 5 : 1 이상의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21]

(2) 미 제1기병사단의 다부동 진출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된 9월 15일 현재, 미 제1기병사단은 188고지(독산동)-175고지(성문동)-402고지(명봉산)-571고지(성원동)를 연해 좌로부터 제5기병연대, 제8기병연대, 제7기병연대가 배치되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켰지만, 미 제1기병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전과 마찬가지로 기병사단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강력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북한군은 15일 새벽에 제5기병연대를 향해 협조된 공격을 가하여 175고지, 350고지(건령산 서북쪽 0.5㎞ 염불사 부근), 402고지의 북사면을 점령한 후 11:25분경에 북한군 1개 대대가 175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포와 박격포를 동원한 북한군의 공격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성원동 571고지의 제8기병연대 제2대대에도 북한군의 포와 박격포 공격이 있었지만 제2대대는 이 고지를 사수하였다. 제8기병연대 지역에서는 17:30분경 5대의 북한군 전차가 동명면 동명원(571고지 서북방 2㎞) 부근에 출현하였다.[22]

낙동강 방어선에서 유엔군의 총공세가 예정된 9월 16일은 왜관지역에 예정된 B-29폭격기의 폭격이 취소될 정도로 기상이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1기병사단은 09:00시로 예정된 총공격에 앞서 제7기병연대의 제2대대를 좌측 제5기병연대 지역의 188고지 부근으로 이동시킨 후 폭우를 무릅쓰고 반격을 감행하였다. 사단에 배속된 제5연대전투단이 금무봉(△268)을 향해 공격하고, 제5기병연대가 제2대대를 중심으로 하여 왜관-대구 도로 북쪽의 203고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피아간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제5기병연대 지역에서는 북한군 제3사단 제8연대 병력이 203고지-175고지를 제1선으로, 253고지(203고지 서북방 2.5㎞)-372고지(장원봉, 175고지 서북방 2㎞)를 제2선으로 하여 저항하였으며, 제8기병연대 지역에서는 오히려 북한군이 제2대대의 571고지에 반격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23]

반격 시작 이튿날인 17일에도 제1기병사단의 공격은 여의치 않았다. 낙동강 동안을 따라 공격하는 제5연대전투단은 낙산리(금무봉 남쪽 1㎞) 부근에 이르렀을 때 금무봉 방면과 낙동강 서안의 북한군으로부터 포와 박격포, 기관총 공격을 받고서 진출이 둔화되었다. 제5기병연대는 17:00시경 175고지를 점령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203고지에 대한 공격은 약 300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중화기를 동원해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8기병연대는 제3대대가 402고지와 307고지(402고지 북쪽 1㎞)를 점령하였지만, 571고지의

제2대대가 계속해서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며, 대구-다부동 도로를 따라 공격을 시작한 제1대대도 도로 좌우측의 351고지와 산성쪽 고지의 북한군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아 전진하지 못하였다. 또 왜관-다부동 도로를 따라 동북진 하기로 계획된 제7기병연대도 제2대대가 253고지를 공격하였지만 고지점령에 실패하였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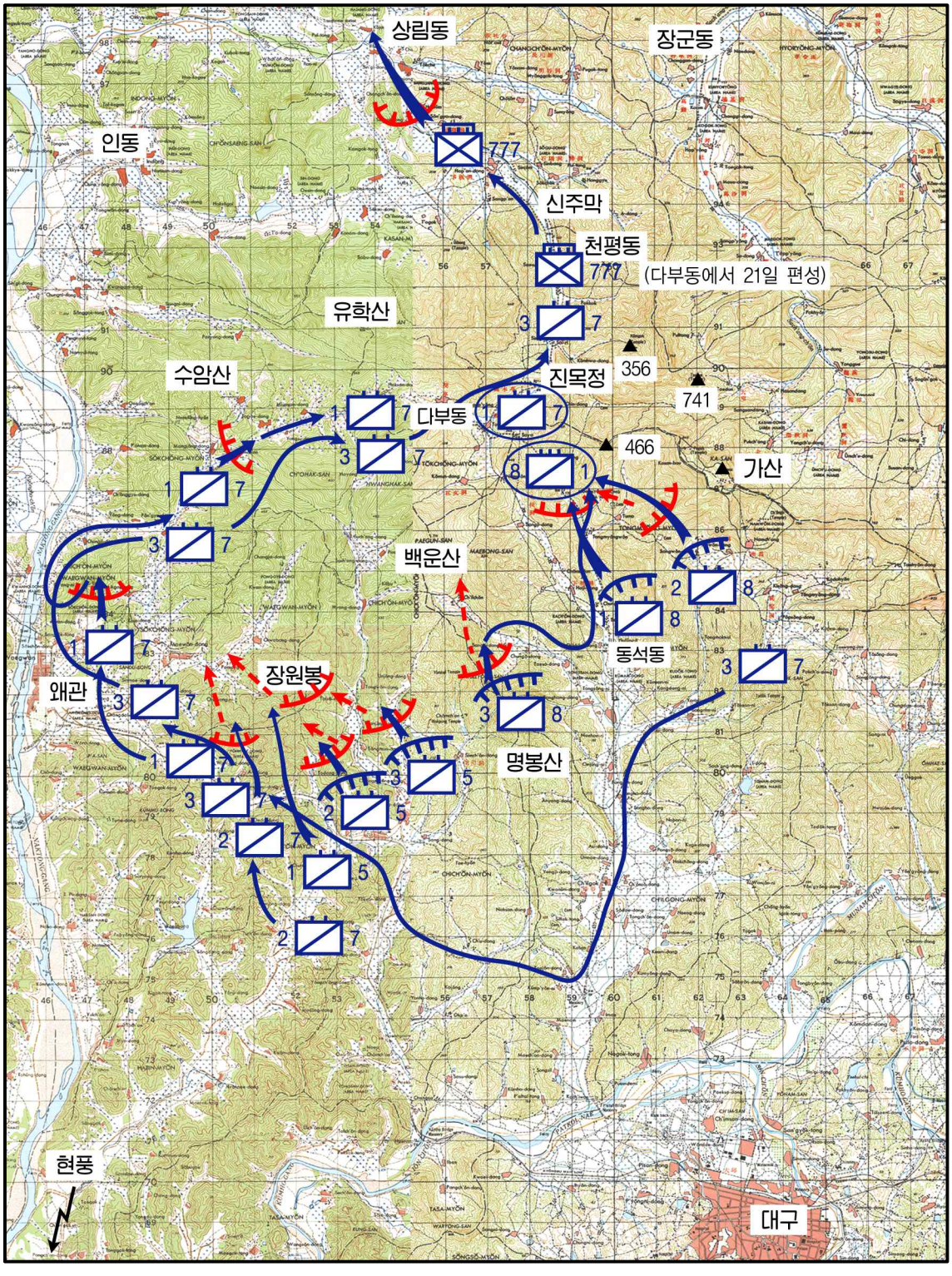
작전지역의 기상이 호전되자 9월 18일부터는 항공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날 왜관 서안 일대에는 B-29폭격기 42대의 폭격이 실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1기병사단의 전진은 크게 진척되지 못하였다. 제5기병연대는 제2대대가 이날 저녁 203고지를 탈환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어 253고지-372고지(장원봉)로의 진출은 좌절되었다.[25]

이 무렵 미 제1기병사단의 우인접 부대인 국군 제1사단이 다부동-군위 도로로 진출함으로써 북한군 제1, 제13사단의 퇴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다부동 일대의 북한군은 퇴로 타개를 위해 후퇴할 수밖에 없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26] 반면에 미 제1기병사단은 다부동 남쪽에서의 고착상태를 해소하고 전진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국군 제1사단과는 대조적으로 주공인 제1기병사단의 진출은 부진했고, 특히 다부동 남쪽의 제8기병연대의 작전이 너무도 지지부진하자, 이날(18일) 제8군사령관은 군단장과 사단장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군단장과 사단장은 제8기병연대가 과감한 공격을 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제1기병사단장은 전방 양개 연대에 사단예비에서 각각 1개 대대씩을 배속 조치하고, 특히 제8기병연대장에게는 다음날 19일 중으로 반드시 전선을 돌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군단장은 제1기병사단의 진출 부진으로 인한 군단 목표달성의 지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동계획상의 중요한 변경조치를 18일 18:00시부로 단행하였다. 예비인 제24사단을 군단 서측방으로 투입하고 제5연대전투단을 이 사단으로 배속 전환시켜 이들로 하여금 신속히 전선을 돌파하고 김천 방향으로 전진하게 한다는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던 것이다.[27] 이에 따라 제1기병사단은 왜관 탈환을 제24사단에게 맡기고 다부동 방면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상황도 4-4> 미 제1기병사단의 다부동 전투



9월 19일 제1기병사단은 제5기병연대에 제7기병연대의 제2대대를 배속시켜 253고지-372고지 일대를 공격하게 하고 제8기병연대에 제7기병연대의 제3대대를 배속시켜 이날 안으로 다부동을 탈환하게 하였다.

제5기병연대는 제2대대를 제70전차대대 A중대의 지원하에 253고지 공격에, 배속된 제7기병연대 제2대대를 300고지(253고지 동남방 1㎞) 공격에, 제1대대와 제3대대를 372고지 공격에 투입하였다. 253고지-300고지와 372고지에는 각각 1개 대대씩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견고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날 제5기병연대의 공격은 배속된 제7기병연대 제2대대의 300고지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08:30분경부터 시작된 제7기병연대 제2대대의 공격은 포병과 항공지원 속에 진행되었지만 16:30분경까지 피아간에 치열한 공방전만 전개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제5기병연대장은 제1대대로 하여금 제7기병연대 제2대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양 대대는 협조된 공격을 통해 18:30분경 마침내 300고지를 점령하였다. 하지만 이 공격 과정에서 제7연대 제2대대에서는 26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후 제5기병연대 제2대대가 제5기병연대 제1대대와 제7기병연대 제2대대의 지원하에 253고지를 공격해 23:30분경에 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그러나 372고지를 공격한 제3대대는 북한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밤늦게 공격을 포기하고 174고지로 철수하였다.[28]

제8기병연대는 제1대대가 제70전차대대 C중대의 지원하에 도로를 따라 다부동을 탈환하고, 그 우측에서 제2대대가 571고지에서 능선을 타고 다부동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연대 좌측에서 전진하는 제3대대는 북한군이 집결한 지역을 우회해 소학산(△620)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제1대대는 정찰대가 624고지(매봉산)를 정찰하던 중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철수하였으며, 칠곡-다부동 도로를 따라 전차를 앞세우고 전진하던 대대 주력이 하지동 부근에서 지뢰지대와 파괴된 교량으로 인해 진격이 늦어졌다. 제3대대는 포병화력과 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으면서 14:40분경 312고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571고지의 제2대대는 오히려 고지 북사면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진지를 벗어나는 것조차 어려웠다.[29]



미 제1기병사단의 주요 전투지역인 다부동 일대

제5기병연대와 제7기병연대 제2대대의 분전은 제5연대전투단의 왜관 탈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비록 372고지의 북한군이 저항을 계속하였지만 북한군 제3사단에게 큰 피해를 입혀 그들의 병력을 5,000명에서 1,800명으로 감소시켰다.

9월 20일 제5, 제7기병연대는 작전지역내에서 북한군을 섬멸하며 계속 전진하였으며, 제8기병연대는 대구-다부동 도로의 양측에서 고지를 따라 이동하였다. 제5기병연대 지역에서는 372고지의 북한군이 계속해서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174고지 북사면의 북한군이 비록 약하지만 제5기병연대를 공격하였다. 제5기병연대는 포병 화력지원과 박격포 공격을 가해 북한군의 저항을 약화시켰다. 17:00시경 제5기병연대는 372고지로 진격하였다.

제7기병연대 지역에서는 제2대대가 300고지에 대한 몇차례 북한군의 반격을 격퇴하고 정오 이후 그 지역의 북한군 잔여 병력을 완전히 일소하였다. 전투 후 300고지에서 발견된 북한군의 시체가 205구에 달했다. 그 후 제7기병연대 제2대

대는 전선에서 벗어나 영국군 제27여단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제1대대는 다부동에서 제8기병연대와 연결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강력한 지뢰지대로 인해 기동이 지연되었다. 제1대대는 09:00시에 왜관 동남방 3㎞ 지점에서 북쪽으로 왜관-다부동 도로와 연결되는 소로(小路)에 접어들었다. 대대는 제5연대전투단의 왜관 북쪽 303고지 공격과 아울러 그 동쪽 도로 입구의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북한군은 곳곳에 지뢰를 매설해 놓고 주위의 고지에서 사격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제1대대는 미 제70전차대대 C중대의 전차 1개 소대가 선두에서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오후까지 3㎞ 정도 밖에 전진하지 못했다. 더욱이 선두전차가 북한군의 지뢰에 걸려 대대의 전진은 중지되었다. 이렇게 더딘 진격에 흥분한 사단장 게이 소장은 직접 적정과 지형을 살핀 후 대대장 클레이노스(Peter D. Clainos) 중령에게 303고지 서쪽으로 우회해 강을 끼고 전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우회 전진한 제1대대는 왜관-도개동 간의 산악로를 따라 이날 저녁에서야 도개동 부근에 진출하였다.

한편 제7기병연대 제3대대는 20일 아침에 다부동 남쪽에서 왜관 방면으로 전진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대장 니스트(Cecil Nist) 대령이 북한군의 야포와 박격포 사격을 우려해 대대를 도보 행군시킴으로써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목표지점까지의 집결 시간도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3대대는 제1대대의 뒤를 따라 저녁에 도개동 부근에 진출하였다. 제3대대의 진출이 늦어지고, 제1대대마저 전방의 험준한 산에 부딪히게 되자 연대장은 야간공격을 단념하고 다음날 미명에 공격하기로 결정한 후 야영을 준비시켰다.[30]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은 제7기병연대가 계속 진격하지 않고 야영하는 것을 알고서 격노하여 연대장 니스트 대령을 해직하고 연대를 지원하던 제77야포대대장 해리스(William A. Harris) 중령을 20일 23:00시부로 연대장에 임명하였다.[31] 사단장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사단 우측의 제8기병연대가 북한군 제13사단의 저항으로 계속해서 부진한 진격상태를 보이자 제7기병연대를 급진시켜 북한군을 포위 격멸하고자 했던 사단장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7기병연대장이 진격을 늦추고 있었던 것에 대한 문책성 조치였다.

20일 밤중에 지휘권을 인수한 해리스 중령은 대대장들을 집합시켜 다음날의 연대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의하면, 제1대대는 제1선으로 다부동을 향하여 급진하여 제8기병연대 정면의 북한군을 배후에서 공격하며, 제3대대는 제2선으로 다부동에서 제1대대의 우익을 초월하여 북진함으로써 제1대대의 배후를 엄호함과 아울러 국군 제1사단과 제휴해 부근의 북한군을 격멸하라는 것이었다.[32]

9월 21일 제70전차대대 C중대의 지원을 받는 제7기병연대 제1대대가 제8기병연대 제1·2대대와 연결하기 위해 진격하여 12:55분에 다부동 외곽에 진출한 후 저항하는 북한군을 서북과 서남 양면에서 협공하여 격파한 다음 17:00시에 다부동을 탈환하고 계속해서 남진하였다. 제7기병연대 제1대대는 1시간 후 삼학동 부근에서 제8기병연대와 연결되었다. 제8공병대대와 제70전차대대로 증강된 제3대대는 제1대대의 후방 접근로와 고지를 확보하였으며, 제2대대는 이전에 영국군 제27여단이 확보한 진지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제5기병연대는 제5보병연대전투단 제3대대를 대체할 임무를 완수하고서 300고지와 부근 일대의 북한군을 일소한 후 저녁에 북진을 위한 집결지로 이동하였다.[33]

이 무렵 국군 제1사단은 이미 다부동 북방의 상주로 가는 도로를 차단한 후 제15연대가 기병사단과 제휴하기 위하여 남진하고 있었다. 대구 정면의 북한군 제1, 제3, 제13사단은 와해되어 나머지 패잔병들이 상주방면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군 제13사단의 경우 많은 장교들이 아군에 투항하였는데, 21일 오전에 북한군 제13사단 참모장인 이학구(李學九) 총좌가 투항하여 중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였다.[34] 이학구 총좌는 아직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미 제1기갑사단 제8연대 B중대에 투항한 북한군 제13사단 참모장 이학구 총좌

당시 북한군 지도부에서는 유엔군의 인천상륙 사실을 감추고 낙동강전선의 사수를 명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그는 북한군 제13사단의 전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군 제13사단은 전투부대로서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사령부와 각 연대간의 연락도 두절되었을 뿐 아니라 병력도 제19연대가 200명, 제21연대가 330명, 제23연대가 300명으로 사단 전체의 병력이 1,500명에 불과하며 그것마저도 70~80%가 남한에서 강제동원된 의용군이다. 장비도 전차는 전부 파괴되었고 9문의 야포와 5문의 120밀리 박격포가 있을 뿐이며, 보급은 한달 전부터 식량이 반으로 줄었고 차량은 30대만이 가동되고 있다. 철원-서울-안동의 철도편이 있기는 하나 수송이 곤란하여 소화기 탄약조차 불충분하며, 사단은 지난 밤까지 방어하다가 혼란 상태에 빠져 상주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35]

이학구 총좌의 귀순과 관련해 당시 북한군 제2군단 공병부부장이었던 주영복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사단장이 김일성의 명령을 너무 충실히 집행하니까 인정사정없이 자기 부하들을 많이 희생시켰습니다. 이학구는 부하가 자꾸 죽는다는 불평을 했습니다. 최용진 사단장은 우리가 조금만 더 밀면 대구에 떨어지는데 전 장병이 일치단결해서 한 번만 돌격하면 뺏는다 그거죠. 부상병이 몇 백 명이 널려 있어 후퇴해야겠는데 사단장의 명령이 없어요. 사단장은 물론 이학구도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학구는 사단장 보고 '이제 공격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으니 후퇴하자'고 하니까 사단장이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자 이학구가 '뭐 날 죽여? 너를 죽여야 몇 천 명의 부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이학구가 총을 쏴서 최용진 사단장의 팔에 맞았어요. '아이구 아이구'하며 넘어질 때 이학구가 막사에서 나오면서 연대장한테 후퇴하라고 한 후 넘어 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군측에 귀순했어요."[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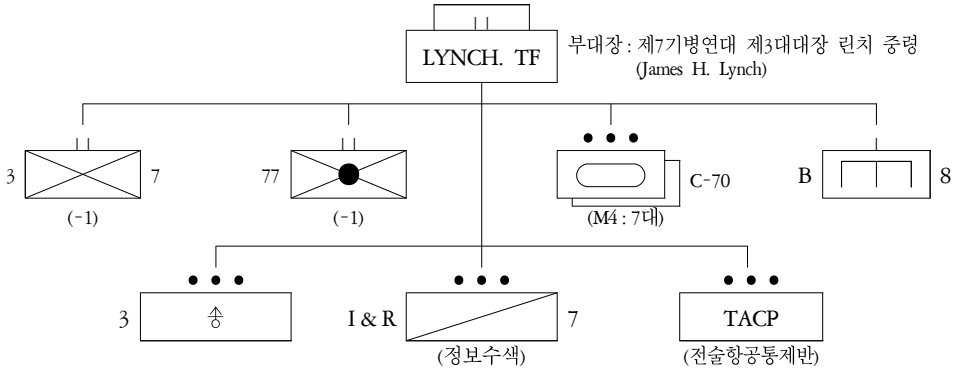
이학구의 진술과 주영복의 증언은 북한정권이 낙동강전선에서 무모한 독전을 강요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북한군과 남한에서 강제 징집한 의용군이 희생되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전쟁지도를 놓고 북한군 내부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음을 극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방어선을 급속하게 붕괴시켰던 것이다.[37]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 의하면, "9월 19일에 제13보병사단장이 부상당하였으며, 사단의 지휘권은 참모장에게 이양되었다. 참모장은 배반하여 적에게 투항하였다. 사단은 지휘체계가 무너진 채 소규모 집단들로 분리되어 무질서하게 북쪽으로 퇴각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38]

9월 21일을 기해 미 제1기병사단 부대들이 대구돌출부를 돌파하기 시작하자 사단장 게이 소장은 제7기병연대장 해리스 중령에게 북한군을 추격할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해리스 중령은 16:15분에 작전계획 제18호로써 제777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부대는 린치(James H. Lynch) 중령의 제3대대가 선두로써 미 제8야전공병대대 B중대, 미 제70전차대대 C중대의 2개 소대(M4전차 7대), 미 제77야포대대, 중박격포중대 제3소대 및 연대 수색소대, 그리고 1개 전술항공통제반으로 구성된 기갑추격부대였다.

9월 22일 워커 제8군사령관은 제8군 작명 A101호로서 추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작전 명령과 관련해 미 제1기병사단에 부여된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적중 깊이 돌진하여 압박, 포위, 우회로써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후퇴를 저지함으로써 적을 격멸할 것이며, 미 제1군단은 주공을 대구-김천-대전-수원 축선에 두고 진격하여 미 제10군단과 연결하라"는 것이었다.

<표 4-6> 린치특수임무부대 편성표(1950. 9. 22)



미 제1군단은 제1기병사단의 엄호 하에 제24사단을 돌진시킬 계획이었으나 상황의 진전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병진 추격시킬 것을 결정한 후 추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미 제1기병사단은 다부동-선산도하장-상주-보은-청주-수원선을 따라 돌진하여 미 제10군단과 연결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미 제24사단이 대전을 향하여 추격하고, 국군 제1사단이 미 제1기병사단을 후속해 낙동강을 도하한 후 예비가 되도록 계획되었다.

이미 제777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한 기병사단장은 해리스 중령에게 선산도하장에서 낙동강을 건너 추격하도록 명령하였으며, 해리스 중령은 이날(22일) 08:00시에 린치특수임무부대를 선두로 다부동 서쪽에서 진격을 시작하게 하였다.

린치부대는 낙동강 부근에서 선두전차가 도로변 언덕의 골짜기에서 사격하는 북한군의 대전차포에 맞아 정지함으로써 잠시 진격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뒤따라 온 기병사단장이 4대의 전차를 돌진시켜 북한군의 대전차포 1대와 수류탄으로 저항하는 적을 격파함에 따라 부대는 계속해서 금곡을 거쳐 낙동강 동안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되었다. 부대가 선산도하장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 연락기편으로 '계속 낙동리 도하장으로 북진하라'는 군단의 명령통신통이 전달되었다. 린치부대는 15:45분경에 선산도하장에 진출하였으며, 사단장 게이 소장은 린치 중령이 낙동리로 도하하라는 명령을 알고 있음을 확인한 후 대구의 사령부로 돌아갔다.


미군 퍼싱 전차가 낙동강을 도하해 전진하고 있다.

린치부대는 18:00시에 낙동리를 향해 북진하여 22:00시에 부대의 선두전차가 도하점이 내려다보이는 낙동리의 절벽 위까지 진출하였다. 이 때 린치부대의 선두전차는 북한군의 대전차포를 발견하

고 사격을 가했는데, 초탄이 적의 탄약고에 명중하여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강변 일대가 환하게 비추어졌으며, 수중교를 건너던 수백 명의 북한군이 노출되어 미군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약 200명이 사살되었다. 이곳에서 린치부대는 사용 불가능한 2대의 T-34전차, 50대의 트럭, 10여 문의 야포 등 많은 장비를 노획하였는데, 이는 주로 북한군 제3사단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9월 23일 린치부대는 수색대의 보고로 적이 도하하던 지점의 수위가 허리에 찰 정도라는 것을 알고, 04:30분에 I 및 K중대부터 도하를 시작하였다. 05:30분경에 양 중대는 도하를 완료하고 대안의 제방을 점령하였다. 린치부대는 다부동을 출발한 이래 500여 명의 북한군을 사살 또는 생포하고 5대의 전차와 각종 장비를 노획하면서 마침내 낙동강을 건넜다. 이날 중 제1대대는 낙동강 도하 후 16㎞ 서북방의 상주까지 진격했으나 북한군은 이미 후퇴한 후였다.[39]

(3) 왜관 탈환전

왜관 탈환전은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된 제5연대전투단이 담당하였다. 제5연대전투단(연대장 Godwin L. Ordway 대령)의 병력은 2,599명으로 연대의 완전편성 인원보다 1,194명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각 대대는 586명~595명 규모였다.

낙동강선에서 유엔군의 총반격이 이루어진 9월 16일, 미 제5연대전투단은 제2대대(대대장 John L. Throckmorton 중령)가 우선 왜관을 향하여 낙동강 동안을 따라 북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였고, 제3대대와 제1대대(대대장 John P. Jones 중령)가 후속하였다. 제5연대전투단은 17일 낙산리(금무봉 남쪽 1㎞) 부근에 이르렀을 때 금무봉 방면과 낙동강 서안의 북한군으로부터 포와 박격포, 기관총 공격을 받고서 진출이 둔화되었다. 다음날인 18일 제5연대전투단은 소릉골(낙산리)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했지만 금무봉과 141고지(금무봉 서쪽 2㎞)의 북한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서 오후 늦게 철수하였다.[40]

제1기병사단의 진출 부진으로 인한 군단 목표달성의 지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동계획상의 중요한 변경조치가 18일 18:00시부로 단행되었다. 군단에서는 예비로 경산에 대기 중인 제24사단을 군단 서측방으로 투입하고 제5연대전투단

을 이 사단에 배속 전환시켜 이들로 하여금 신속히 전선을 돌파해 김천 방향으로 전진하게 한다는 요지의 명령을 하달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왜관 탈환은 제5연대전투단이 배속된 제24사단에게 일임되었다.[41]

이러한 조치는 낙동강 서쪽 대안에 북한군의 집결이 비교적 약하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 조치가 있기 전날(17일) 미 제5연대전투단이 왜관 남쪽 12㎞ 지점에 위치한 하산동의 예정된 도하지점을 정찰한 결과 서쪽 대안에는 북한군이 없는 것 같다는 보고가 미 제1군단장 앞으로 올라왔다. 그러자 미 제1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은 재빨리 이 허점을 찌를 생각에서 미 제8군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계획의 일대변경을 결심하고 17일 정오경에 미 제24사단장을 대구로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 "제24사단은 18일 밤 하산동과 금남동 도하점에서 낙동강을 도하해 일부 병력으로는 성주 도로를 확보하고, 동시에 그 주력은 왜관 대안으로 진출한 후 김천을 향해 진격할 준비를 갖추라. 20일경에 영 제27여단을 배속시킬 예정임."

처치(John H. Chruch) 사단장은 즉시 제21연대를 금남동에서, 제19연대를 하산동에서 도하시키기로 결심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대구에서 도하지점까지 가려면 금호강을 파호동에서 건너야 했으며, 이를 위해 미 제8군의 공병대가 18일 아침까지 임시교량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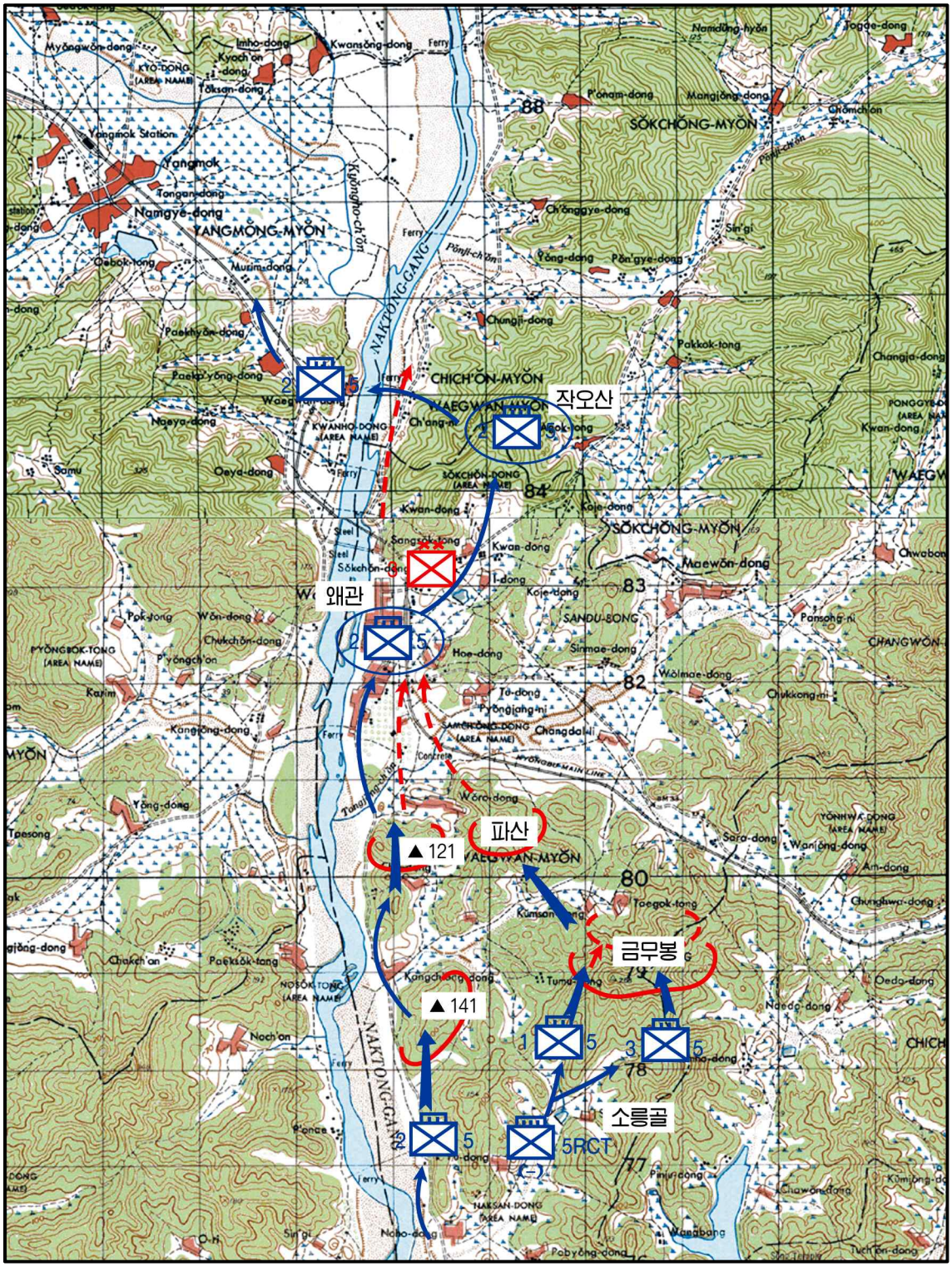
그러나 미 제24사단의 도하작전은 뜻하지 않은 착오로 인하여 지연되었다. 도하의 선봉부대인 미 제21연대가 9월 18일 아침에 연대장 스테판(Richard W. Stephens) 대령을 선두로 하여 금호강의 도하지점에 이르렀을 때, 제8군의 공병대가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파호동의 임시교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사단장은 임시방편으로 사단공병에게 전에 제5연대전투단이 가설한 수중교 위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려 대형차량을 통과시키고, 공격 단정을 얽어매어서 만든 임시변통의 나룻배를 이용하여 지프차들을 건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제21연대의 후미에 위치한 공병대가 긴 행군대열을 넘어서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마대에 흙을 넣는데 잔손이 많이 가서 재빨리 보수할 수가 없었다. 장병들과 지프차는 임시변통의 나룻배로 건너게 하였으나 전차나 포병은 가교를 만들지 않으면 도하가 불가능하였다. 수중교를 급하게 만들었지만 도중에 빠지는 차량이 많아서 무거운 차량의 도하는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었다. 처치 사단장은 스테판 연대장에게 "18:00시까지 낙동강을 건너지 않으면 내일은 많은 손실을 내게 된다"고 걱정하면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격려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제21연대의 도하는 19일 아침에서야 가능하게 되었다.[42]

이 무렵 미 공군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6·25전쟁 기간 중 최대 규모의 근접항공지원을 감행하였다. 제24사단의 진격이 의외로 늦어지는 상황에서 제5연대전투단은 9월 19일 부대원 전원이 왜관 동남쪽에 있는 금무봉에 대해 총공격을 시작하였다. 금무봉은 북한군 제2군단의 우측 거점으로서 아군이 이 고지를 탈환할 경우 미 제5기병연대의 동쪽 측방에 위치한 북한군의 진지들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전술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북한군도 제3사단장 이영호 소장이 1,200명 규모로 추산되는 병력으로 전차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남쪽의 왜관에 이르는 접근로를 막아내고 있었다.

제5연대전투단은 19일 하루 종일 치열한 전투를 치른 끝에 북동쪽 능선을 제외한 금무봉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제5연대전투단은 제3대대가 고지의 정상을 점령하였으며, 제1대대가 그 서북쪽을, 그리고 제2대대가 왜관 남쪽의 강에 연한 도로에서부터 121고지까지를 모두 탈환하였다. 제5연대전투단 제3대대는 연대장의 요청으로 이날 정오경에 F-51전투기가 3회에 걸쳐 출격한 후 네이팜탄과 로켓탄으로 공격을 반복 실시해 적의 엄체진지를 파괴하자 곧바로 병력을 투입해 고지를 점령하였다. 전투 결과 고지 일대에는 제7연대장 김창봉 대좌를 포함해 약 2,350여 명의 북한군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스록모튼(John L. Throckmorton) 중령의 작전지휘로 이날 14:15분경에 제2대대가 왜관에 돌입하였으며, 15분 뒤에는 제1대대가 역시 왜관에서 합세하게 되었다. 제2대대는 북한군의 필사적인 저항과 지뢰지대를 극복하고 15:30분경에 왜관을 완전히 탈환하였다.

<상황도 4-5> 미 제5연대전투단의 왜관 탈환전



당시 왜관을 방어하던 북한군 제3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왜관에서 분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19일 오전의 항공관측보고에 의하면, 약 1,50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낙동강 서편으로 철수하는 것이 관측되었으며, 오후의 관측보고서에서는 왜관 북쪽 도로 일대가 쏟아져 나오는 북한군의 패잔병 집단으로 뒤덮여 크나큰 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날 제5연대전투단은 45밀리 대전차포 2문, 82밀리 박격포 10문, 중기관총 6정, 소총 280정, 그밖에 많은 다발총을 노획하였다.

그러나 왜관 지역의 북한군은 여전히 금무봉 북사면을 강력하게 고수하였으며, 178고지(금무봉 서북쪽 2㎞)와 121고지(141고지 북쪽 2㎞)에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43] 이 일대에서의 전투는 9월 20일까지 계속되었는데, 통나무로 구축한 엄체진지를 최후 거점으로 한 약 200여 명의 적들이 계속해서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날 정오에 전투단은 제2대대가 왜관 북쪽의 작오산(△303)을 점령하였으며, 19:45분에 제1대대가 왜관 철교 북쪽 1.6㎞ 지점에서 강을 건너 2㎞를 진격하였다. 그리고 3대대가 왜관 북쪽의 6㎞ 지점에 있는 300고지를 점령하고 북한군과 서로 대치하였다.

제5연대전투단은 5일간에 걸친 공격 끝에 북한군 제3사단의 중앙부와 그 우측방을 격파함으로써 북한군을 축출하고 진격할 수 있게 되었다.[44]

한편 제5연대전투단 후방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격하던 제24사단은 9월 19일 05:30분에 낙동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짙은 안개로 말미암아 맞은 편 제방에 있는 북한군의 동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도하는 174고지와 그 능선에서 쏘아대는 북한군의 강력한 화력에 의해 도하가 성공할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도하지점의 강폭은 800m, 유수폭은 300m, 수심은 2m 정도였다.

도하부대의 제1진은 한국전선에서 7월 5일 최초로 오산전투에 참전하였던 미 제21연대의 제1대대였다. 제1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무릅쓰고 도하를 강행하였는데, 도하 중에 120명가량의 사상자를 내었다. 07:00시경 1대의 비행기가 출현해 174고지를 폭격해 적의 화력을 약화시켰다. 제1대대는 강을 건넌 뒤 174고지의 서쪽에서 재편성을 한 후 공군의 네이팜탄과 치열한 기총소사의 지원 아래

공격을 시작하여 12:00시경에 174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제3대대가 강을 건너 174고지 북서쪽 1.6㎞ 지점의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날 16:00시에는 제19연대 제2대대가 제21연대의 도하지점에서 남쪽으로 3.2㎞ 떨어진 곳에서 낙동강을 도하하기 시작해 18:00시경에 강 건너의 대안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2대대는 적으로부터 박격포 공격을 받아 50명가량의 사상자를 발생하였다.

9월 20일 제21연대는 제1대대가 174고지 북쪽에 위치한 170고지의 산마루까지 진격하였으며, 제2대대가 전날 밤 강을 건너기 시작하여 이날 아침까지 강 대안에 진출하였다. 제19연대는 낙동강을 도하한 후 성주도로에 연한 강 서편의 감제고지를 전진기지로 점령 확보하였고, 제24수색중대는 이날 밤에 낙동강을 건너서 제19연대를 추월해 성주도로 서쪽으로 진격하였다.

한편 이날 미 제1군단은 영국군 제27여단을 미 제24사단에 배속시켜 낙동강도하를 준비시키고 사단 공격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영국군 제27여단은 그 위치에서 미 제7기병연대의 제2대대와 교대하고 제19연대의 도하



왜관 탈환전에서 미 제5연대전투단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금무봉(△268)

지점으로 이동하여 공병대가 가설한 도보교를 일렬종대로 건넜다. 이날까지 미 제24사단의 3개 연대와 배속된 영국군 제27여단이 완전히 낙동강을 도하하였다.

이로써 미 제5연대전투단은 왜관-김천간 도로상의 고지대를 장악하였고, 미 제21연대가 제5연대전투단의 후방에, 제19연대가 제21연대의 후방에, 그리고 제24수색중대가 주공의 서측방에서 공격준비를 하고 있던 영국군 제27여단과 함께 성주로 가는 도로상에 위치하였다. 이와 같이 제24사단은 대구-김천-대전-서울 가도에 연한 서측방에서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사단 전투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수송, 포병, 전차 및 근무부대가 뒤따라가야만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왜관에 설치된 교량은 도보로 건너기 위하여 파괴된 교각에 임시로 사다리를 걸어 놓았을 뿐이었다. 이 다리로서는 도저히 중장비를 수송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날 미 제11야전공병대와 미 제55공병부교중대가 임시 교량을 가설하기 위하여 작업에 착수하였다. 9월 21일 이미 도하를 완료한 부대는 후속 지원부대가 강을 건널 때까지 전열을 정비하였으며, 교량 가설 작업은 계속되었다.

9월 20~21일에 걸쳐 전개되었던 낙동강 연안 왜관부근 전투에서 북한군은 장비와 병력은 물론 많은 전차를 잃었다. 미 제24사단은 북한군의 전차 29대를 파괴하였다. 당시 북한군 제105기갑사단은 제203연대가 전차 9대, 제107연대가 전차 14대만을 가지고 후퇴하였다.

9월 22일 10:00시경 미군 공병들은 36시간에 걸친 작업을 계속한 끝에 폭 230m, 수심 2.5m나 되는 낙동강에 M-2주교의 가설작업을 완성시켰다. 이에 따라 부대 및 중장비, 그리고 보급차량이 밤중에 낙동강 서편으로의 이동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때 부대원들은 차량에 '대전전투를 상기하자!'라는 격문을 달아 진격의 대열에 나섰다. 금호강에서의 혼란과 제21연대의 낙동강 도하 지연 등의 몇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미 제24사단이 9월 18일부터 5일간 수행한 낙동강 방어선의 돌파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왜관을 탈환하고 낙동강 도하작전을 끝마친 사단은 북한군을 추격하고 전과를 확대시킬 준비를 끝마친 후 왜관-대전 사이에 북한군의 야전군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김천을 향하여 진격하였다.[45]

2. 서남부지역 돌파

1) 창녕-영산 돌파

창녕-영산에서 북한군의 9월 공세를 저지한 미 제2사단(사단장 Lawrence B. Keiser 소장)은 북한군 제2, 제4, 제9사단 및 제10사단 일부와 대치하였으며 쌍방 다 같이 그간의 전투손실로 전투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9월 16일 09:00시 수세에서 공세작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미 제2사단 장병의 사기는 왕성하였다.

미 제2사단은 우선 낙동강을 건너온 북한군을 구축하는 데 작전목표를 두고 현풍의 제38연대, 창녕의 제23연대, 영산의 제9연대를 그대로 공격으로 전환시켜 3개 연대 병진대형으로 돌파작전을 실시하였다.[46]

9월 16일 아침 폭우로 인해 공중지원이나 화력지원 없이 공격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북한군의 완강한 거점저항을 받게 되어 쉽사리 전진할 수가 없었다. 특히 사단 좌측에서 반격하던 제9연대가 201고지(사곡산)의 북한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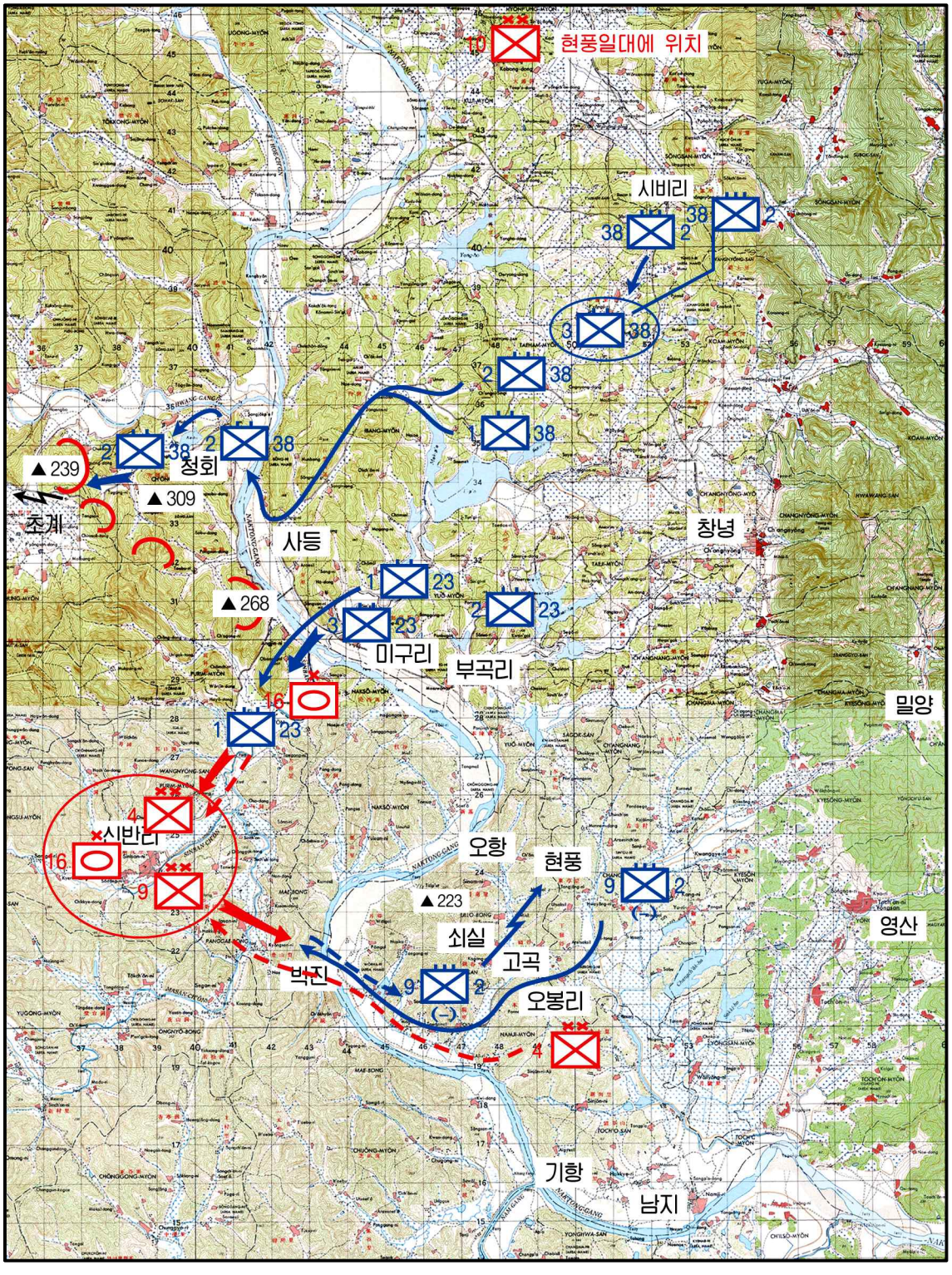
<표 4-7> 미 제2사단 지휘관 현황

구 분		계급	성 명
지휘부	사단장	소장	카이저(Lawrence B. Keiser)
	포병사령관	준장	헤이니스(Loyal M. Haynes)
제9연대	연대장	대령	힐(John G. Hill)
	제1대대장	중령	론달(John E. Londahl)
	제2대대장	중령	해리슨(Fred L. Harrison)
	제3대대장	중령	맥메인(D. M. McMains)
제23연대	연대장	대령	프리먼(Paul L. Freeman)
	제1대대장	중령	허친(Claire E. Hutchin)
	제2대대장	중령	에드워드(James W. Edwards)
	제3대대장	중령	셰라드(R. G. Sherrard)
제38연대	연대장	대령	페플로(George Peploe)
	제1대대장	?	?
	제2대대장	중령	스캘던(James H. Skeldon)
	제3대대장	중령	스튜어트(Everett Stewart)

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201고지와 오봉리 부근의 탈환 명령을 받은 제9연대 제2대대는 14:30분에 전차 지원하에 201고지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앞서 201고지에는 유엔 공군의 F-51전폭기 1개 편대가 폭격을 가했다. 제9연대 제2대대의 201고지 공격은 19:30분까지 계속되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대대는 17일 재공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본래의 진지로 복귀하였다. 제9연대 제1대대는 작전지역내에서 정찰활동을 전개하고 연대예비인 제3대대는 18:00시에 연대본부 지역으로 집결하였다.[47]

사단 중앙부의 제23연대(연대장 Paul L. Freeman 대령)는 16일 새벽녘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제1대대 C중대의 모든 장교를 포함해 25명이 전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제23연대는 전열을 정비해 전날(15일) 미 제1기병사단에서 원대복귀한 제3대대(대대장 R. G. Sherrard 중령)를 주공 부대로 정하고 반격태세를 갖추었다. 제23연대 제3대대는 우선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10:00시경 제72전차대대 C중대의 직접지원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북한군은 이날 12:00시까지 매우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12:00시가 조금 지나서부터 아군의 맹공격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진지를 포기한 채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제23연대장은 북한군의 퇴로 차단과 전과 확대를 위해 제82고사포대대 B포대와 제23연대의 전차중대로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전 연대병력에게 전면적인 적 추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특수임무부대는 16:00시경부터 강을 따라서 무질서하게 퇴각하는 수많은 적을 신속히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23연대 제2대대는 208고지 탈환을 위해 모든 공격력을 집중하였다. 이 고지는 낙동강을 굽어보고 감싸주는 고지였다. 제2대대의 208고지 탈환전에는 F-51전투기 4대가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였다. 항공기들은 네이팜탄과 로켓탄을 208고지에 집중투하하고, 창녕 서편의 강쪽으로 퇴각하는 북한군에게 타격을 가해 큰 피해를 입혔다. 이날 오후 늦게부터 북한군은 진지를 포기하고 낙동강을 건너 후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철수는 야간에도 이어져 북한군 제2사단사령부 및 3개 보병연대(제4, 제6, 제17연대)와 포병연대를 비롯하여 기타부대가 이튿날까지 계속 낙동강을 건너 서쪽으로 후퇴하였다.[48]

<상황도 4-6> 미 제2사단의 창녕-영산 돌파



9월 17일에는 기상의 호전으로 미 공군 폭격기가 네이팜탄 110갤런짜리 260개를 창녕 서쪽 낙동강 부근에 투하하는가 하면 도하하는 적에게 기총소사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군은 수많은 중장비를 유기하고 도주하였다.[49] 제9연대의 201고지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제23연대와 제38연대는 사단이 정한 도하 목표 지점까지 순조롭게 전진하였다. 이에 이날 저녁때 미 제8군 참모장 알렌(Leven C. Allen) 소장은 도쿄 유엔군사령부의 힉키(Doyle O. Hickey) 소장에게 전화로 낙동강방어선 돌파에 중요한 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북한군이 철수하자 9월 18일 오전 제38연대 정찰대가 부곡리에서 강을 도하하여 대안을 정찰하고서 적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제38연대장 페플로(George B. Peploe) 대령은 제2대대장 스캘던(James H. Skeldon) 중령에게 2인용 고무보트를 이용해 2개 분대를 먼저 보내 거점을 확보하게 하고, 즉시 연대 전 병력을 도하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이날 13:20분경에 제2사단 참모장 애플리(Gerald G. Eply) 대령으로부터 우선 1개 대대만 도하시키라는 지시가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38연대장은 제2대대에게 16:00시를 기해 폭 100m, 수심 4m의 낙동강을 도하하게 하였다. 낙동강을 도하한 제2대대는 2시간 후 선두 부대가 적의 경미한 저항을 격퇴하고 대안의 감제고지인 309고지(낙동강 서쪽 2㎞)를 점령하는 등 교두보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제38연대는 132명의 북한군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중에는 32명의 여자 간호사와 1명의 소좌를 비롯해 장교 8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제38연대는 도하지점 모래 속에 숨겨둔 125톤의 탄약과 포장된 채로 버려진 소총, 그리고 각종 보급품과 장비 등을 노획하였다.[50]

제2대대를 선두부대로 한 제38연대의 도하작전은 미 제8군 소속 부대 중 가장 성공적이었고, 미 제2사단의 작전계획을 이틀이나 앞당기게 하였다. 이에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제2사단이 도하작전에 성공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반격 3일째의 최대 전과"라고 사단장에게 찬사를 보냈다.[51]

미 제2사단은 유엔군의 총반격작전이 시작된 지 3일째인 이날 201고지와 409고지를 제외하고 낙동강의 서측방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9사단은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포병의 화력지원하에 이루어진 미 제2사단 제9

연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1고지와 409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제23연대는 정찰대원 22명이 도하지점에 대한 정찰 중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3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해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9월 19일 미 제38연대의 제3대대는 몇 대의 전차와 포병, 그리고 중박격포 등의 장비를 갖추고 강을 건넜다. 제38연대는 제3대대에게 제2대대가 진격하는 동안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제1대대에는 409고지와 현풍지역에 대한 정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은 제9연대 지역의 201고지와 409고지 지역에서만 강력하게 저항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포와 박격포 사격에 국한하였다. 특히 201고지의 북한군은 사단 작전 지역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에 제9연대는 제1대대에게 201고지를, 제2대대에게 174고지를 각각 공격 점령하도록 하였다. 이날 제9연대는 제1대대 소속의 번튼(George E. Vonton) 하사가 전차 1개 소대를 직접 지휘해 201고지 산마루까지 밀고 올라가서 이날 저녁 무렵에 201고지의 북한군을 무력화시켰다.[52]

전날(19일) 제38연대의 낙동강 도하에 이어 9월 20일에는 제23연대도 낙동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날이 밝기 전에 제23연대 제3대대(대대장 R. G. Sherrard 중령)는 낙동강 지류의 상포리 도선장 서쪽의 신반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공격주정을 이용해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강을 건넜다. 제3대대는 12:00시경 도하지점을 감제할 수 있는 207고지를 공격해 격렬히 저항하는 북한군을 물리치고 저녁 무렵에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 20일 11:00시 현재 미 제2사단에서 파악한 북한군의 전력과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북한군 제10사단은 제25연대가 410고지(대니산, 현풍 남서쪽 3.5㎞)에, 제27연대가 238고지(옥산동)-228고지(쌍산고개)에, 제29연대가 현풍에 각각 위치하였으며, 북한군 제2사단이 합천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제16기계화여단이 신반리 서쪽에, 제9사단이 신반리 남쪽에, 제4사단이 신반리 북쪽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북한군의 전력은 제2사단이 약 15%, 제4사단이 25%, 제9사단이 50%, 제10사단이 25%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53] 이렇듯 20일경에 미 제2사단 작전지역 내의 북한군은 신반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였다.



미 제9연대가 201고지 점령을 위해 공격하던 중 병사들이 부상병을 후송하고 있다.

미 제23연대 제3대대의 낙동강 도하에 이어 제1대대도 이날 오후 낙동강을 건너 228고지(207고지 남동쪽 1.6㎞)를 공격하였다. 제1대대는 수륙양용차를 이용해 신반천을 도하한 후 야간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던 228고지를 점령하였다.

제23연대와 제38연대의 낙동강 도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미 제2사단장은 작전명령 제6호로 각 연대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하였다.

> "사단은 중간 목표물들을 확보하면서 합천으로 진격하고자 한다. 공격 개시는 21일 12:00시이다. 중간 목표물은 초계, 막곡리(신반리 동남쪽 2㎞), 신반리, 청계, 합천이다. 사단은 두 개 방면으로 공격하려고 한다. 제38연대는 제1대대를 현풍지역에 투입해 정찰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주력을 청회-초계-합천으로 북쪽 방면에서 공격하게 한다. 제23연대는 박진-신반리-청계리-합천으로 남쪽 방면에서 공격한다. 제9연대는 제2대대를 제8군 예비로 삼랑진에 위치시키고, 주력이 교두보를 확보한 후 신반리-청계리-합천으로 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 사단 포병의 화력 우선권은 제38연대(-)에 있다."[54]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2사단 공격 부대인 제23연대와 제38연대(-)는 21일

12:00시부터 각각 신반리와 초계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전날 207고지를 점령한 제23연대 제3대대는 이날 오전에 중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서 한 때 고지에서 물러났지만 12:00시경 연대의 공격명령에 따라 고지 탈환전에 돌입하였다.[55] 그리고 제23연대 제1대대도 12:00시에 제72전차대대의 1개 전차소대와 함께 강 서쪽 8㎞ 지점에 위치한 적의 지휘소를 공격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신반리 방면으로 전진하였다.

제23연대가 진출한 곳에서 북쪽으로 9.5㎞ 떨어진 지점에서는 제38연대 제2대대가 초계방면으로 진격하던 중 239고지(초계 동쪽 3㎞)의 북한군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 239고지는 초계를 감제할 수 있는 중요한 고지였다. 제2대대는 공군으로부터 네이팜탄과 소이탄의 항공지원을 받으면서 239고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북한군도 이 고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239고지의 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102고지와 289고지(101고지 남동쪽 1㎞)에서 격렬히 저항하였다.

한편 제9연대(-)는 이날 11:00시경에 10대의 2.5톤 수륙양용경화물트럭(DUKW)을 이용해 제1대대 병력이 낙동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낙동강 서편의 북한군이 포와 박격포를 동원해 강력히 저항함에 따라 18:00시에 다시



유엔군이 수륙양용트럭을 이용해 낙동강을 도하하고 있다.

낙동강 동쪽으로 철수한 후 전열을 재정비하였다.[56] 제9연대(-) 제2대대는 다음 날인 22일 06:00시경에 낙동강 도하를 재시도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 사단에서는 작전명령 제7호에 의거 제9연대(-)에게 사단의 북쪽 측방(현풍 방면) 방어와 작전 지역내의 북한군 패잔병 섬멸이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제9연대(-)는 16:00시까지 제2대대가 제38연대 제1대대, 제3대대가 제38연대 제3대대와 진지를 교대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리고 18:30분에 미 제8군 예비로 삼랑진에 있던 제2대대가 원대로 복귀하였다.[57]

미 제2사단의 주력인 제23연대와 제38연대는 22일 이른 아침부터 신반리와 초계 탈환을 위한 공격에 나섰다. 신반리 방면으로 공격하던 제23연대는 이날 05:00시에 대대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백병전까지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도로 남쪽에서 전진하던 제3대대가 이날 18:00시에 신반리를 점령함으로써 이 지역내의 북한군 공격은 크게 약화되었다.

제23연대의 신반리 공격과 더불어 초계를 목표로 한 제38연대의 공격도 이날 07:30분에 개시되었다. 제38연대 제2대대는 G중대를 초계읍 공격에, E, F중대를 239고지 공격에 각각 투입했다. 제2대대는 12:30분에 G중대가 초계읍에 돌입하였고, E, F중대가 14:40분경에 239고지를 탈환한 후 제3대대의 208고지(239고지 북동쪽 4㎞) 공격을 지원해 15:00시에 그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한밤중에 낙동강 동쪽에 있는 409고지에서 북한군 제10사단을 견제하는 임무를 제9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연대와 합류하기 위해 신속히 강을 건넜다.[58]

이로써 미 제2사단은 사단 우측방(현풍 지역)의 북한군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했지만, 22일에 주력이 사단 목표 지점인 신반리와 초계를 점령함으로써 합천-논산 진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2) 마산 전투

유엔군 전선의 서부 마산지역에서는 미 제25사단이 9월 16일 09:00시의 총반격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방으로의 공격은 차치하고 현 전선을 방어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웠다. 북한군은 필봉(여항산, △742), 서북산(△738), 전투산(△661) 등 주

요 고지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저항을 벌이고 있었다. 킨(William B. Kean) 사단장과 그의 참모들은 사단이 진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어전선의 중앙부 고지에 위치한 북한군을 격퇴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중앙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미 제24보병연대가 매일 정면공격을 감행하였다. 사단은 진주와 마산사이의 도로를 가로질러 배치되어 있었는데, 좌측의 제35연대는 중앙의 제24연대의 돌파공격이 성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59]

9월 16일 제25사단장 킨 소장은 제35연대 제3대대장 울포크(Robert L. Woolfolk) 소령에게 대대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다음날 전투산과 필봉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울포크 특수임무부대는 17~18일 양일간 제90야포대대와 공군의 지원 아래 공격을 시작했지만, 북한군의 맹렬한 자동화기 사격에 의해 번번이 공격이 좌절되었다.[60] 그러나 18일 저녁 북한군은 전선조정 차원에서인지 갑자기 전투산

<표 4-8> 미 제25사단 지휘관 현황

구 분		계급	성 명
지휘부	사단장	소장	킨(William B. Kean)
	부사단장	준장	윌슨(Vennard Wilson)
제24연대	연대장	대령	화이트(Horton V. White)
	제1대대장	소령	카슨(Eugene J. Carson)
	제2대대장	중령	코울(George R. Cole)
			로버트(Paul F. Roberts)
	제3대대장	중령	콜리(John T. Corley)
		소령	블레어(Melvin R. Blair)
제27연대	연대장	대령	마이켈리스(John H. Michaelis)
	제1대대장	중령	체크(Gilbert J. Check)
	제2대대장	중령	머치(Gordon E. Murch)
	제3대대장	중령	디 초우(George H. De Chow)
제35연대	연대장	대령	피셔(Henry G. Fisher)
	제1대대장	중령	테터(Bernard G. Teeter)
	제2대대장	중령	윌킨스(John L. Wilkins)
	제3대대장	소령	울포크(Robert L. Woolfolk)

진지를 포기하고 후퇴하였다. 이에 울포크 특수임무부대는 19일 아침에 북한군으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전투산을 점령하였다. 이에 미 제35연대(연대장 Henry G. Flsher 대령)는 사단의 우측방에서 진격을 시작해 중암리 전방에 있는 고지까지 진격하였다. 다음날(20일) 제35연대 제1대대(대대장 Bernard G. Teeter 중령)가 중암리를 점령하고, 제2대대(대대장 John L. Wikines 중령)가 북서쪽에서 남강으로 뻗은 작은 능선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사단 좌측방을 담당하던 제27연대(연대장 John H. Michaelis 대령)는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61]

9월 21일 제35연대는 중암리 남서쪽으로 약 5㎞ 떨어진 좁은 도로를 점령한 후 서쪽으로 북한군 패잔병들을 축출하면서 무촌리 도로의 분기점을 지나 진주 도로의 고지대로 진격하였다. 이와 함께 제24연대(연대장 Horton V. White 대령)와 제27연대는 사단의 우측과 중앙에서 요철이 심한 지대를 횡단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은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 소장)과 제7사단(사단장 이익성 소장)이 9월 18일 이후 전투산, 서북산 등지에서 물러나 남강 북쪽으로 후퇴한 상황이었지만, 작전 지역내에는 여전히 북한군의 패잔병들이 출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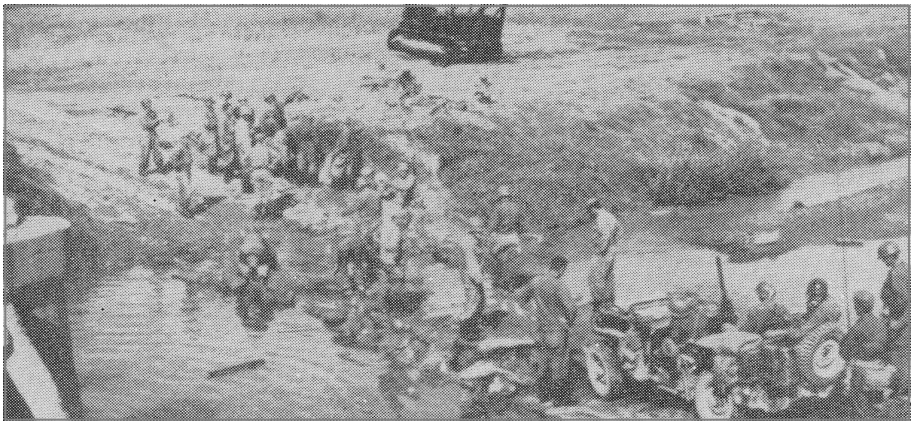
9월 22일 아침 둔덕 남쪽에서는 북한군이 제24연대 A중대 야영지에 침투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62] 또 북한군의 박격포탄이 중대장 회의를 하고 있는 제24연대 제1대대(대대장 Eugene J. Carson 소령) 본부에 떨어져 본부중대장이 전사하고 부대대장을 비롯해 6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사단의 전진로인 진주 도로에는 북한군 제6사단의 엄호부대가 곳곳에서 미 제25사단 제35연대의 진격을 저지하였다. 제35연대 제1대대의 공격 중대들은 길가에서 200m안에 있는 152고지만을 점령했을 뿐이었다. 이로 인해 북한군 제6사단 주력부대는 남강을 건너 진주를 통과해 진주에서 서쪽 약 10㎞ 지점까지 철수할 수 있었다. 이날(22일) 항공관측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의 행동에 있어서 특별한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적들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이날 미 제8군사령부의 정보참모부에서는 북한군이 전 전선에서 어떤 계획된 철수작전을 하고 있으며, 아군과 접촉 이탈하는 징후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63]

미 제8군사령관은 이날 전 예하부대에 "최대한으로 돌파구를 확대하여 적을 깊숙이 포위하고 그 퇴로를 차단해 철저한 섬멸전에 전력을 집중하라"고 명령하였다. 워커 중장의 기동계획은 미 제1군단(군단장 Frank W. Milburn 소장)이 대구-김천-대전-수원에 주공을 지향하고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군단장 Edward M. Almond 소장)과 연결을 유지하며, 미 제9군단이 합천-거창-안의-전주-강경 축선으로, 미 제25사단이 진주를 점령한 후 서북방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또 동측방에 있는 국군은 종심깊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 포위기동으로 지역 내의 북한군을 격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9월 23일부터 낙동강 교두보 전역에서는 북한군의 저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날 미 제8군사령관은 14:00시부로 미 제2사단과 미 제25사단을 현지에서 쿨터(John B. Coulter) 소장의 미 제9군단에 배속시켰다.[64]

미 제9군단이 미 제25사단과 제2사단의 지휘권을 인수하던 9월 23일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25사단 사령부에서 제9군단장과 작전 관련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9군단장은 사단 우측방(북쪽)의 미 제2사단과 보다 원활한 협조를 위해 "사단의 공격 축선을 남서쪽으로 지향하는 대신 서쪽 또는 서북방으로 변경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워커 중장은 쿨터 군단장에게 "군단의 전투지경선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것은 군단장의 권한이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진주 부근에서 파괴된 교량 옆에 우회로를 만들고 있는 유엔군

제25사단장 킨 소장은 23일 저녁에 남쪽 해안선에서 제27연대를 초월 전진한 제25수색중대(중대장 Charles J. Torman 대위)로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65] 그리고 제27연대를 사단 북측방의 중암리로 이동시켜 남강을 건너 교두보를 설치하고 의령에서 진주로 공격하게 하였다.

토만(Torman) 특수임무부대로 명명된 제25수색중대는 24일 아침부터 해안선을 따라 진주를 향하여 전진하였다. 도중에 토만 특수임무부대는 사천 북방에서 북한군 제104경비연대 제3대대 소속의 병력 약 200명과 조우해 이들을 분산시킨 후 저녁 무렵에 진주 남쪽 4㎞ 지점에 있는 도로교차점 부근의 감제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다음날(25일) 아침에 특수임무부대는 남강교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때 전차가 적 지뢰에 의해 폭발하면서 토만 대위는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다.

한편 저녁에 북한군 제6사단의 엄호부대가 진주로 진격하던 미 제35연대를 저지하고 진주 남강교량을 폭파하였다. 이에 제35연대장 피셔(Henry G. FIsher) 대령은 정찰대의 정찰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남강교의 하류쪽에서 남강을 건너기로 계획하고 25일 02:00시에 제2대대(대대장 Gordon E. Murch 중령)를 선두로 야음을 이용해 남강 도하를 실시하였다.

제35연대 제2대대는 진주 동남쪽 4㎞ 지점에서 토만 특수임무부대의 전차포 지원 아래 진주에 돌입하였다. 당시 진주에는 박격포와 야포의 지원을 받는 약 300명의 북한군이 미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제35연대 제3대대와 제1대대는 오후에 남강을 건너 진주에 진입하였고, 토만 특수임무부대는 이날 저녁에 파괴된 남강교의 200m 동쪽에 미 제65야전공병대가 가설한 마대도하장(麻袋渡河場)을 통해 강을 건넜다.

진주에서 의령으로 가는 중간지점에서도 미군 공병대와 1,000여 명의 현지피난민들이 북한군의 산발적인 박격포탄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대로 도하장을 구축하였다. 26일 새벽 제27연대 제1대대는 이 도하지점으로 남강을 건너 의령을 점령하였다. 그 후 제27연대 제1대대는 28일에 진주로 이동하였다.

3. 중동부지역 돌파

1) 신녕 돌파

중동부지역의 국군 제2군단은 9월 15일 제6사단이 신녕에서, 제8사단이 영천에서 북한군 제8사단과 제15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작전을 준비 중이었다. 신녕의 제6사단(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9월 13일 12:00시부로 하달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80호에 의거, 반격작전 제1단계 작전목표로 예천-함창선을 점령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80호에서 밝힌 국군 제6사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제6사단은, (가) 현 위치를 안정화하고 적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 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적을 배제하라. (나)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D일에 실시하는 일제반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다) 사단 인접부대인 제8사단과 협조 아래 담당 정면에서 D일 H시를 기하여 북방 및 서북방에 대해 공격 개시하라. (라) 담당 전투지경 내 제1차 진출예정선인 도원동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라. (마) 도원동 확보 후에는 예천, 함창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라. (바)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사단 우인접 부대인 제8사단과 좌인접 부대인 유엔군 제1군단(국군 제1사단)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라."[66]

육본 작명이 하달되자, 군단에서는 반격으로 이전하여 정면의 적을 돌파하고 제1단계 작전 목표로 함창-예천-안동을 연하는 선을 점령할 계획을 수립하고, 도원동-구산동-의성을 연하는 선을 그 중간 통제선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계획하에 국군 제2군단은 9월 16일 15:00시부로 작명 제44호를 통한 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여기에는 제6사단이 군단의 주공으로 제1차 진출예정선인 도원동으로 진격하고, 공격 도중 중간 목표인 청노동(靑路洞)을 탈환하면 금성산과 271고지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명기되었다.[67]

<표 4-9> 국군 제6사단 지휘관 현황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제2군단	군단장	소장	유재흥(劉載興)
제6사단	사단장	준장	김종오(金鍾五)
	제2연대장	대령	함병선(咸炳善)
	제1대대장	대위	석순천(石順天)
	제2대대장	소령	문정식(文正植)
	제3대대장	소령	송대후(宋大厚)
	제7연대장	대령	임부택(林富澤)
	제1대대장	중령	김용배(金龍培)
	제2대대장	중령	김종수(金鍾洙)
	제3대대장	중령	인성관(印聖琯)
	제19연대장	대령	김익렬(金益烈)
	제1대대장	소령	허용우(許容尤)
	제2대대장	소령	김욱전(金旭篆)
	제3대대장	소령	박 철(朴 徹)
	제16포병대대장	소령	김 성(金 聖)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현 전선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북한군을 도원동-예천-함창 방향으로 공격할 목적 하에 제19연대(연대장 김익렬 대령)를 사단 예비로 하고,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 대령)를 사단 좌측에서, 제7연대(연대장 임부택 대령)를 우측에서 각각 공격에 나서게 하였다. 사단장은 우선 신녕 북쪽의 전술적 요충지인 조림산을 공격해 이를 점령함으로써 공격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9월 15일 북한군은 전날인 14일에 전 병력을 집중하여 국군 제2연대 정면을 돌파하려고 반복 공격을 가했으나 실패를 거듭하고 방어태세에 돌입했으며, 국군 제7연대 지역에서는 북한군 주력이 국군의 화력에 전력소모가 극심해져 금양동(조림산 북쪽 2㎞) 부근에서 부대 재정비에 들어갔다.[68]

9월 16일 제6사단 작전 지역은 전날 제2연대 제1대대가 469고지에 침투한 적을 격퇴한 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날 02:00시에 사단장 김종오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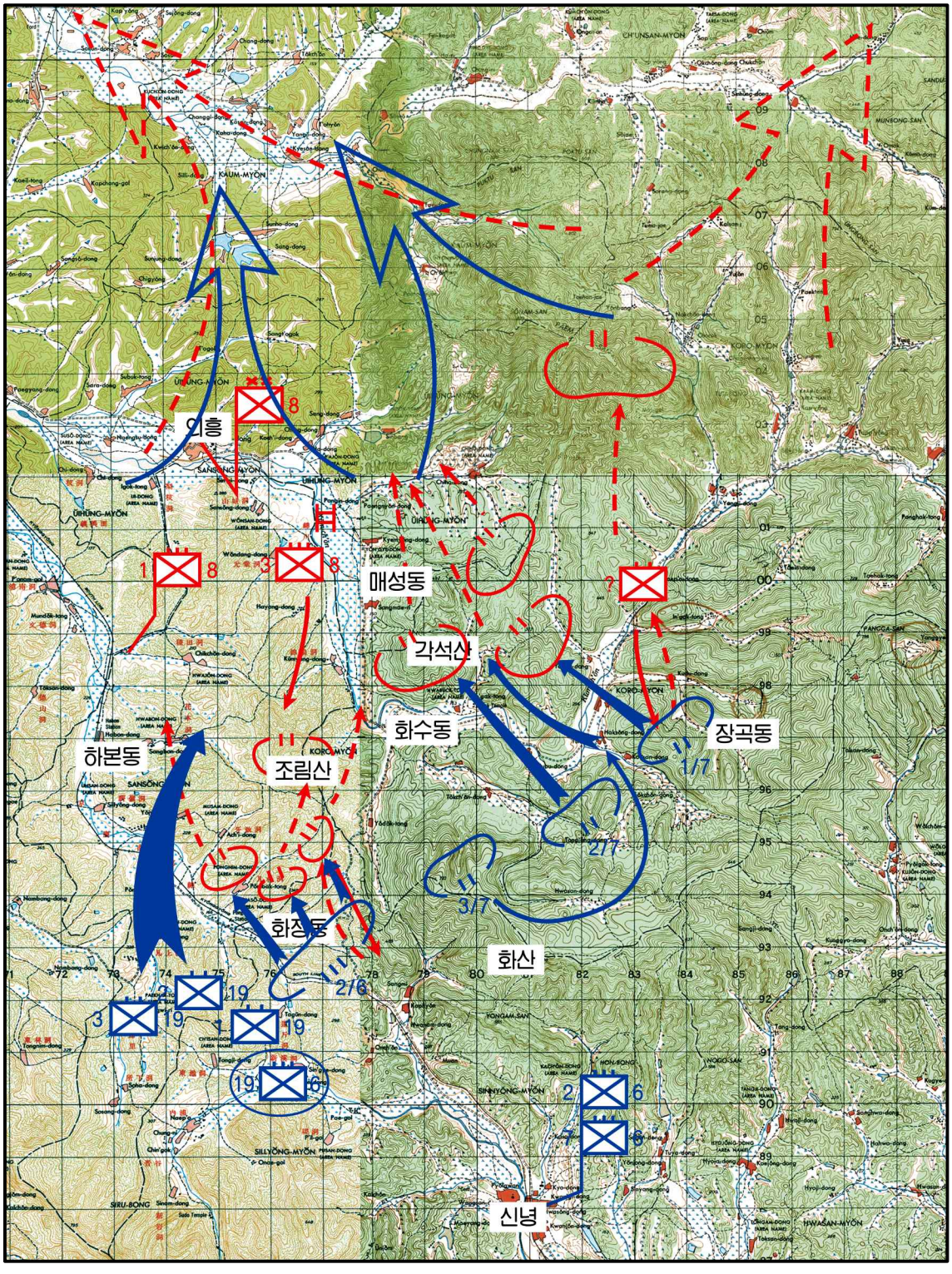
장은 제19연대를 남원리(신녕 서쪽 7㎞)로 추진시켜 사단의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대 정비를 실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단장은 제2연대와 제7연대에게 08:00시부로 총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69]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2연대는 349고지와 332고지를, 제7연대는 영덕동 방면으로 공격하였다. 08:00시에 공격을 개시한 제2연대는 북쪽 고지의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아 진격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즉시 포병 화력지원을 요청해 고지의 적 화기를 제압하게 한 후 일제히 돌격을 명령하였다. 제2연대는 치열한 교전 끝에 이날 17:30분경 349고지와 332고지(469고지 정면)를 탈환하였다. 제2연대 정면의 북한군은 조림산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제2연대의 우측에서 공격한 제7연대는 제2연대가 349고지와 332고지를 탈환하자 이에 호응하듯이 정면의 북한군을 공격해 21:40분경 조림산 동쪽의 능선 일대를 점령하였다.

제2연대와 제7연대의 공격이 성공함에 따라 국군 제6사단은 남원리-332고지-조림산 우측 능선까지 제19연대, 제2연대, 제7연대 순으로 병력을 병렬 배치하게 되었다.

9월 17일 제6사단은 제2연대를 주공으로 하고 제7연대를 조공으로 하여 조림산 탈환작전을 개시하였다. 제2연대는 전날에 이어 제3대대(대대장 송대후 소령)를 예비로 하고 제2대대(대대장 문정식 소령)가 좌측에서, 제1대대(대대장 석순천 대위)가 우측에서 조림산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조림산 서남쪽의 아치동(조림산 서남쪽 2㎞) 일대와 남쪽 1㎞ 지점 능선 일대에서 종심을 강화한 가운데 국군 제2연대의 공격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국군 제2연대의 공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8일 03:00시경부터 아치동에서 조림산 방면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제7연대는 723고지(신녕 북쪽 6㎞)에 제3대대(대대장 인성관 중령), 덕천동 북쪽 고지(723고지 북쪽 2.5㎞)에 제2대대(대대장 김종수 중령), 용아동(723고지 북동쪽 4㎞) 일대에 제1대대(대대장 김용배 중령)를 배치하고 조림산 공격을 준비하였다. 사단 예비인 제19연대는 남원리 부근에 집결하여 사단장의 제1선 투입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황도 4-7> 국군 제6사단의 신녕 돌파



18일 새벽에 조림산 바로 남쪽의 아치동을 점령한 국군 제2연대는 북한군 포로로부터 조림산 북쪽 3.5㎞ 지점에 있는 원산동 부근에서 연대규모의 북한군 병력이 조림산 일대로 남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정보를 접한 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사단 예비로 남원리에 위치한 제19연대를 서북방으로 조림산을 우회 전진시켜 남하하는 북한군을 견제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제2군단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아치동의 제2연대를 조림산 정면으로, 723고지-용아동의 제7연대를 조림산 동쪽으로 공격하게 하는 양익포위 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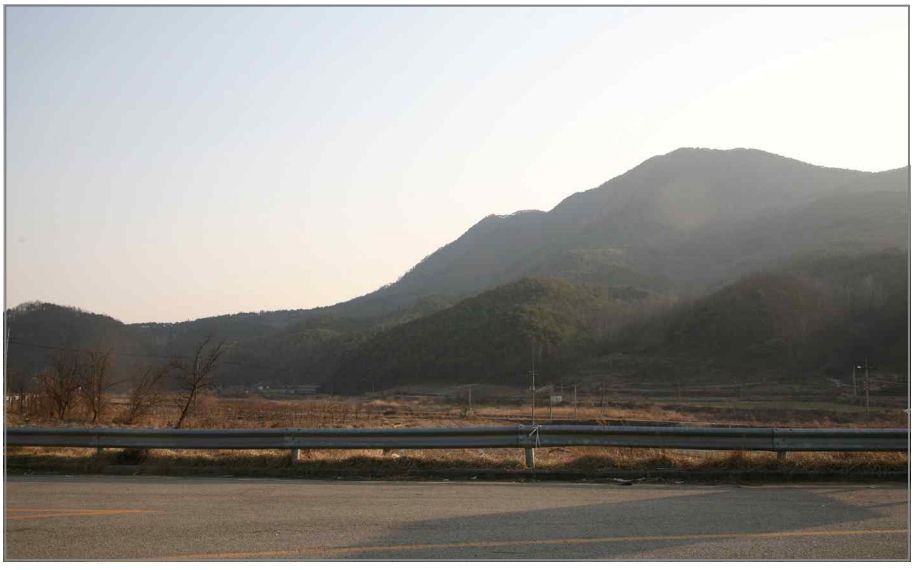
국군 제6사단은 9월 18일~20일 제2연대와 제7연대를 좌우 병립의 주공부대로 하고, 제19연대를 조공부대로 하여 조림산 일대의 북한군을 포위 섬멸하고자 했으나 조림산의 북한군도 정상을 거점으로 방어진지를 강화하고서 국군의 공격에 완강히 저항하였다. 특히 20일 19:00시에는 547고지(용아동 북쪽 2㎞)의 제7연대 제1대대 제3중대가 1개 대대의 북한군으로부터 반격을 받아 445고지로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1대대장 김용배 중령은 즉시 제3중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1중대를 445고지에 투입했지만, 북한군은 22:00시경에 445고지까지 진출해 피아간에 혈전이 벌어졌다. 비록 제7연대 제1대대(-)가 445고지를 끝까지 사수했지만, 이는 조림산 일대의 북한군 저항도 만만치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제6사단은 예상하지 못한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자 일시 공격을 중단하고 부대정비와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제6사단장은 북한군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19연대와 제7연대의 화력 지원하에 정면의 제2연대가 북한군 진지를 돌파하도록 하는 '정면 돌파, 양면 엄호' 작전을 구상하였다.

제6사단의 주공부대인 제2연대는 21일 14:00시에 제19연대와 제7연대의 화력 지원하에 조림산 정상을 향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제2연대의 공격은 급경사인 조림산 정상 부근의 지형적 특성과 완강한 북한군의 저항으로 인해 고지 점령에 실패하였다. 제2연대는 야간 공격으로 정상을 차지하고자 하산하였다.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정상적인 공격 방법으로는 고지 점령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병력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기만전술을 사용하기로 결

심하였다. 제2연대는 차량 170여대를 동원해 연대 기간요원을 맨 앞차와 뒤차에 나누어 승차시킨 후 헤드라이트를 켠 채로 군가를 부르도록 하면서 신녕 북쪽으로 전진시켰다가 헤드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본래의 남쪽 지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만전법을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는 북한군에게 조림산 공격을 위한 국군의 증원부대가 신녕 북쪽으로 전진하는 것으로 오판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제19연대와 제7연대는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진지에서 담당 정면의 북한군이 조림산 방면으로 증원되지 않도록 견제하였다.

21일 밤에 기만전술로 북한군의 시선을 분산시킨 제2연대는 22일 09:00시에 전 병력을 투입해 재차 조림산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이날 새벽에 북한군은 조림산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소리 없이 퇴각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제2연대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조림산을 탈환하였다.[70] 조림산을 탈환한 국군 제6사단은 계속해서 도원동-함창-충주선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반면에 조림산에서 물러난 북한군 제8사단(사단장 오백룡 소장)은 재편성의 기회를 갖고자 의성-청송 방면으로 패주하였다.



국군 제6사단의 신녕 돌파작전시 최대 격전지였던 조림산 전경

2) 구산동 돌파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영천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루고 영천 방어에 성공한 국군 제8사단(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구전동-자천동-삼매동 북쪽-인구동 남쪽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병력을 재정비한 후 총반격작전 준비에 들어갔다.

국군 제8사단은 9월 13일 12:00시부로 하달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80호에 의거, 반격작전 제1단계 작전목표로 구산동-의성선을 점령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80호에서 밝힌 국군 제8사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제8사단은 (가) 현 위치를 안정화 하고 적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적을 배제하라. (나)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D일 실시될 일제 반격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라. (다) 좌인접 부대인 제6사단과 우인접 부대인 제1군단(수도사단)과 협조하여 D일 H시 담당 정면의 북방 및 서북방으로 공격 개시하라. (라) 담당 전투지경내 제1차 진출 예정선인 구산동(九山洞), 의성(義城)을 공격 확보하라. (마) 제1차 진출선을 확보한 후에는 제2차 진출 예정선인 안동을 공격 확보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 (바)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우인접 부대인 제1군단(수도사단) 및 좌인접 부대인 제6사단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라."[71]

국군 제8사단이 배속된 제2군단(군단장 유재흥 소장)에서는 제6사단(사단장 김종오 준장)을 주공으로 하여 도원동-함창-충주선을, 제8사단을 조공으로 하여 의성-안동-영주선을 따라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육본과 군단의 명령에 따라 제8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제21연대(연대장 김용배 대령)를 사단정면의 좌측에, 제10연대(연대장 고근홍 대령)를 우측에 각각 전개시키고 제16연대(연대장 유의준 중령)를 예비로 하여 제1차 진출예정선인 구산동-의성 쪽으로 공격해 이 지역을 점령 확보한 후 계속해서 안동 방향으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제8사단의 첫 과제는 기동로상 동측에 위치하고

<표 4-10> 국군 제8사단 지휘관 현황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제2군단	군단장	소장	유재흥(劉載興)
제8사단	사단장	대령	이성가(李成佳)
	제10연대장	중령	고근홍(高根弘)
	제1대대장	소령	박치옥(朴致玉)
	제2대대장	소령	정순기(鄭順基)
	제3대대장	소령	하병래(河炳來)
	제16연대장	중령	유의준(兪義濬)
	제21연대장	대령	김용배(金容培)
	제1대대장대리	대위	채명신(蔡命新)
	제2대대장	소령	이원익(李源益)
	제3대대장	소령	이창률(李昌律)
	제50포병대대장	중령	정인완(鄭寅院)
	공병대대장	소령	김 묵(金 默)

있으며 북한군 제15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기룡산(△961)과 보현산(△1,124)을 탈취해야만 하였다. 이곳은 이미 앞서 8~9월에도 격전이 치러졌던 곳이다.

9월 16일 제8사단은 우선 제10연대를 기룡산 남쪽 고지군에, 제21연대를 영천-구산동 도로축선에 전개하고 기룡산, 노고령(보현산 서쪽 고개)을 최초 목표로 하여 반격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험준한 산악지대를 기동해야만 하는 공격부대들은 작전상 많은 지장을 받게 되어 그 이튿날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

이 무렵 제21연대 제6중대 정찰조가 17일 새벽 하송동 일대로 침투하여 적정을 수집하던 중 노고령으로 향하던 북한군 1/4톤 차량 한 대를 습격해 북한군 총위(대위) 1명을 생포하였다. 생포 과정에서 부상당한 북한군 총위는 대대본부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그의 옷 속에서 북한군 제73연대에서 그들 상급부대인 제15사단 사령부로 보내는 공문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공문서는 "병력과 장비 그리고 탄약이 부족하여 도저히 현 방어선을 지탱하기 어려우

니 철수 명령을 하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72]

사단에서는 그 문서에서 얻은 첩보와 적정을 비교분석한 끝에 지금이야말로 적을 격멸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하고 전방 2개 연대로 하여금 즉각 공격을 재개하여 48시간 내에 부여된 목표를 탈취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단예비인 제16연대를 기룡산 서북쪽의 보현산 탈환을 공격목표로 부여하고 전방 양개 연대의 간격으로 투입하였다.

이리하여 9월 18일 제10연대는 기룡산을, 제16연대는 보현산을, 제21연대는 노고령을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동측의 제10연대는 기룡산에 배치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백병전까지 벌였으나 끝내 적의 방어진지를 돌파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기룡산 주봉(主峰) 공격을 담당한 제1대대장이 기동계획을 수정하여 공격함으로써 정오경에 기룡산 주봉을 점령하였다. 제1대대장은 전방 2개 중대를 전날과 같이 정면에서 공격하게 하여 북한군 주력을 고착 견제하도록 하고 예비중대를 적의 배치가 허술한 서측으로 우회 침투시켜 적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북한군이 스스로 철수함에 따라 좌우측의 제2대대와 제3대대도 손쉽게 목표를 점령할 수 있었다.

사단의 서측에서 노고령을 목표로 공격하던 제21연대는 우측방 보현산에 배치된 북한군 제73연대의 위협으로 진출에 부진을 면치 못하던 중 사단예비의 투입으로 북한군의 저항이 약화되는 기미를 포착하고, 연대 주력이 노고령 정면에서 북한군의 주력을 고착 견제하는 동안 우측방으로 우회 기동한 제1대대(대대장 채명신 대위)가 기습을 시도해 성공함으로써 19일 아침에 목표를 무난히 탈취하였다.

한편 사단 예비로 있다가 투입되어 20일까지 보현산 남쪽 818고지를 점령한 제16연대는 노고령의 피탈 소식을 전해들은 보현산의 적이 퇴로차단을 두려워한 듯 그 북쪽으로 철수함으로써 21일에 보현산으로 진출하였다.

북한군 제15사단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노고령을 점령한 제21연대는 21일 06:00시경에 구산동 남쪽 3㎞ 지점에 있는 거무실까지 진격하였으나 고평동 방면에서 증원된 2,000명 규모의 북한군과 구산동 남쪽 고지 일대에서 격전을



영천 북방의 전술적 요충지인 보현산

벌이게 되었다. 약 3시간 동안의 격전에서 제21연대는 연대장 김용배 대령의 진두 지휘하에 돌격을 감행, 백병전 끝에 적을 의성-청송 방면으로 물리쳤다. 제21연대는 22일 제1차 진출선인 구산동을 완전히 점령하고 의성방면으로의 진격을 준비하였다.

구산동 남쪽에서 제21연대가 교전을 하고 있는 동안 제10연대(연대장 고근홍 대령)도 고평동 우측방에서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진격이 순조롭지 못하였다. 이에 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제16연대(연대장 유의준 중령)로 하여금 제10연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제10연대와 제16연대는 23일까지 고평동 우측방의 적과 격전을 벌인 끝에 이를 물리치고 의성방면으로의 진격 준비를 갖추었다.

이와 같이 제8사단은 영천 북쪽의 전술적 요지인 기룡산과 보현산을 탈취한 데 이어 작전의 중간통제선인 구산동을 점령함으로써 추격작전의 발판을 구축하였다.

4. 동부지역 돌파

1) 국군 제1군단의 안강-포항 돌파

(1) 국군 제1군단의 돌파 계획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9월 15일 안강평야와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안강 남쪽에는 수도사단이, 포항 남쪽에는 제3사단이 경주방면으로 돌파하려는 북한군 제12사단과 제5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으로 이전할 준비 중에 있었다.

군단은 9월 13일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작명 제180호에 따라 반격 준비를 갖추었는데, 국군 제1군단과 관련한 육군본부 작명 제180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군단은 제8군사령관에 의하여 잭슨전투부대 지휘하로부터 해제된 후 즉시 각 부대를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상황이 허용하는 한 배당된 지경 내의 정위치에 각 사단을 이동하라.

(1) 수도사단은 (가) 현 위치를 안정화하고 적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 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 침투를 기도하는 적을 배제하라. (나)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D일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다) 사단 우인접 부대인 제3사단과 사단 좌인접 부대인 제2군단 제8사단과 협조하여 D일 H시 사단 담당 정면의 북방 및 서북방으로 공격을 개시하라. (라) 담당 전투지경 내 제1차 진출 예정선인 대전동, 인지동 및 도로 교차점을 공격 확보하라. (마) 제1차 진출선 공격 후에는 제2차 진출 예정선인 덕천동, 천지동을 공격 확보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 (바)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사단 우인접 부대인 제3사단 및 좌인접 부대인 제2군단(제8사단)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라.

(2) 제3사단은 (가) 현 위치를 안정화하고 적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적을 배제하라. (나)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D일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다) 좌인접 부대인 수도사단과 협조하여 D일 H시 담당 정면의 북방으로 공격 개시하라. (라) 담당 전투지경내 제1차 진출 예정선인 청하, 서정리, 상옥리 및 도로 교차점을 공격 확보하라. (마) 제1차 진출선 확보 후에는 즉시 제2진출 예정선인 영덕과 도로교차점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 (바)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좌인접 사단인 수도사단과 접촉을 계속하라."[73]

군단은 육군본부 작명 제180호에 따라 제1단계 작전목표로 청송-영덕선을 점령하며 도평동-청하선을 그 중간 통제선으로 설정하였다.

<표 4-11> 국군 제3사단 주요 지휘관 현황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비 고
제1군단	군단장	준장	김백일(金白一)	
제3사단	사단장	준장	이종찬(李鍾贊)	9. 20부 준장
	제22연대장	중령	김응조(金應祚)	
	제1대대장	대위	최정식(崔廷植)	
			김상균(金相均)	9. 24 이후
	제2대대장	대위	김세락(金世洛)	
	제3대대장	대위	정순민(鄭淳珉)	
	제23연대장	중령	김종순(金琮舜)	
	제1대대장	소령	김우영(金尤榮)	
	제2대대장	소령	최상준(崔尙俊)	
	제3대대장	대위	박종병(朴鍾秉)	
	제26연대장	대령	이치업(李致業)	
	제3대대장	소령	은석표(殷碩杓)	

<표 4-12> 국군 수도사단 지휘관 현황

소 속	직 위	계급	이 름	비 고
수도사단	사단장	대령	송요찬(宋堯讚)	9. 21부 준장
	제1연대장	중령	한 신(韓 信)	
	제1대대장	소령	김황목(金煌穆)	
	제2대대장	소령	신언국(申彦國)	
	제3대대장	대위	이성봉(李聖鳳)	
	제18연대장	대령	임충식(任忠植)	
	제1대대장	중령	장춘권(張春權)	
	제2대대장	소령	김봉상(金鳳翔)	
	제3대대장	소령	정승화(鄭昇和)	
		소령	안민일(安旼一)	9. 29 이후
	기갑연대장	대령	백남권(白南權)	
	제1대대장	소령	정세진(丁世鎭)	
	제2대대장	소령	박도경(朴道璟)	
	제3대대장	소령	임관묵(林觀默)	

(2) 형산강(포항) 돌파작전

동해안의 국군 제3사단(사단장 이종찬 대령)은 형산강 남안에 서로부터 제23연대, 제22연대, 제26연대를 전방에 나란히 배치하여 북한군 제5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었다. 제23연대(연대장 김종순 대령)는 9월 15일 연대본부를 남성동에 두고 주력을 생지동에 진출시켜 적 패잔병을 격퇴한 후 형산고지에서 영일에 이르는 형산강 남안의 좌일선 진지를 점령하였고, 제22연대(연대장 김응조 중령)는 14일 사정리 부근의 잔적을 섬멸한 후 15일 용덕동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연대장 이치업 대령)는 용덕동에서 3개 대대의 재편성을 마친 후 15일 연대본부를 청림동으로 옮기고 주력을 괴동동(槐東洞)으로 진출시켜 잔적 소탕 후 형산교를 중심으로 우일선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때 제3야전공병대대는 일월동에 진출한 후 제23연대 정면에 철조망을 가설하였으며, 제11포병대대는 각 연대에 1개 포대씩 분할 배속하여 직접 지원하였다.

사단은 제23연대와 제26연대가 양 측방에서 먼저 도하하고 중앙의 제22연대가 제23연대의 도하를 지원한 후 도하할 계획이었다. 당시 형산강은 강우로 인하여 형산교 부근의 하폭이 200m에 달해 도섭이 어려웠고 형산교 교량은 9월에 폭파되었으나 경간 1개가 완전히 절단되지 않아 병력이 일렬로 통과할 수 있었다.[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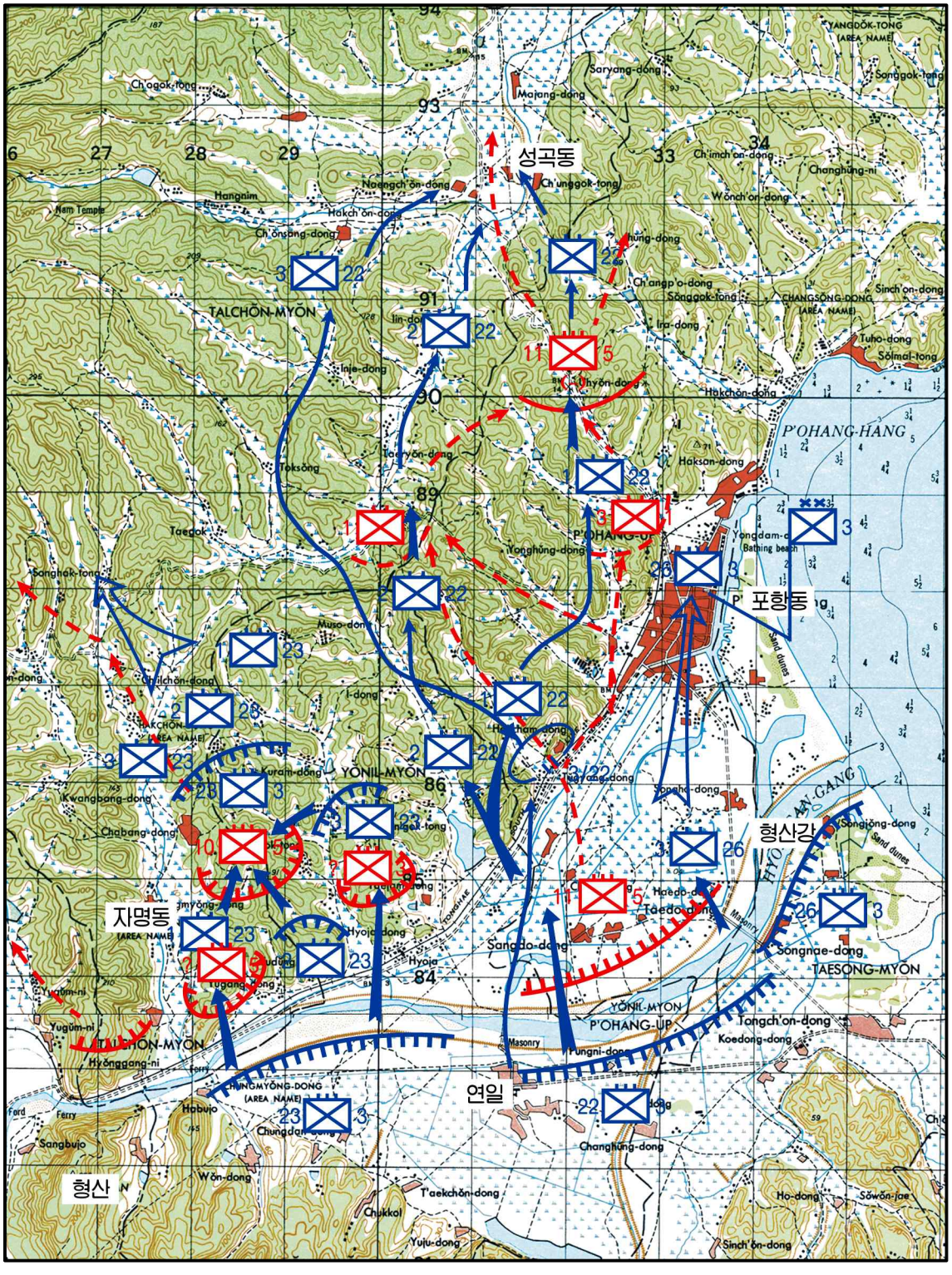
9월 16일 제23연대와 제26연대는 적정 탐색을 위해 각각 1개 소대규모의 특공대를 형산강 북쪽 500m까지 진출시켰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철수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은 포항과 흥해를 거점으로 형산강 일대의 제방에 횡단교통호와 참호 등으로 연결된 야전진지를 구축하고 제5사단과 제12사단의 각 일부 병력으로 제12연대와 제45연대를 편성해 국군의 형산강 도하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제3사단장 이종찬 대령은 16일 24:00시에 총반격을 개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단 작명 제38호를 하달하였다.

> "1. 제23연대는 명 9월 17일 10:00시를 기하여 공격 개시 별지 작전투명도(상황도 제3호 참조)에 의거 독립선(C선)에 진출하고, 제22연대는 명 9월 17일 09:00시까지 장흥동에 집결 제23연대가 작전투명도 A(A목표)에 도착한 후, 제23연대 후방으로부터 도하하여 제23연대 좌익(포항-용흥동선)에 전개 정면의 적을 공격, 별지투명도선(C선)에 진출할 것이며, 제26연대는 제22연대가 포항-용흥동선에 진출 후 형산강을 도하, 포항 경유, 별지 작전투명도선(C선)에 진출하여 정면의 적을 공격하라. 단 제26연대장은 포항 경유시 1개 대대를 사단예비대로 잔류시켜라.
>
> 2. 포병대대장은 1개 중대는 제23연대를, 1개 중대는 제22연대를 각각 지원케 하고, 나머지 1개 중대로서는 사단 전면 일대를 지원케 할 것이며, 대전차포중대는 제26연대의 1개 중대가 형산강 좌안에 진출한 뒤에 제22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그리고 공병대대장은 형산교와 생지교의 수리를 끝낸 뒤 제22연대와 제23연대에 배속 직접 지원케 하라."[75]

사단장은 서쪽의 제23연대를 공격 제대로 하여 제22연대의 지원하에 형산 고지 동쪽에서 도하해 원동 일대의 고지를 공격하게 하고, 제26연대를 형산교 부근에서

<상황도 4-8> 국군 제3사단의 형산강 돌파



교량 또는 선박을 이용해 돌파구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적의 공격력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9월 17일 제3사단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동해안의 함포지원하에 형산강 도하작전을 계획대로 강행하였다. 제23연대는 10:00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대안에 배치된 적의 주력이 도하부대에 집중사격을 가해 옴에 따라 도하가 불가능하였으며, 오후 늦게 제1대대의 일부 병력이 도하에 성공했지만 적 중화기의 집중사격을 받고 견디어 내지 못하여 철수하였다.[76] 연대 정면의 북한군은 형산강 대안의 제방 일대에 약 2개 중대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제방 후면의 고지 일대에 약 2,500명이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제23연대의 지원부대였던 제22연대는 이날 연대본부를 용덕동에 두고 주력을 장흥동으로 이동시켜 차기명령을 대기하였다.

한편 형산교를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중인 제26연대(연대장 이치업 대령)는 이날 형산교 우측의 무명고지에 대하여 포격을 실시한 후 소대규모의 특공대가 공격을 감행해 고지점령에 성공하였다.[77] 그러나 19:00시경 야음을 틈 탄 적의 반격을 받고 특공대는 본대로 복귀하였다. 이날 사단에서는 후방경계를 위해 2개 중대를 차출해 운제산 일대에 배치하고, 공병대대를 일월동의 생지교 보수에 투입하였다.

9월 18일 제3사단은 형산강 북안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에게 해·공군이 포격과 폭격을 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진두지휘하에 실시된 도하작전에서 제23연대가 최초로 도하작전에 성공하였다. 제23연대는 04:00시를 기해 적전 도하를 시작하였는데, 도하중 적의 집중사격을 받고 일시 혼란에 빠졌으나 치열한 교전을 벌이면서 12:00시경에 제1중대와 제3중대, 그리고 제9중대가 형산강 대안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78] 이 무렵 도하부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단장이 직접 도하작전을 진두지휘하였다. 교두보를 확보한 제23연대는 16:00시경부터 해·공군의 포격과 폭격 지원하에 효자동 방면으로 공격을 계속해 102고지 점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제26연대도 형산교를 건너 도하발판을 확보하였다. 제26연대는 06:00시부터 공격을 시작해 적의 집중사격에도 불구하고 사투

를 거듭한 끝에 18:00시에 제2대대가 도하에 성공하고, 제3대대가 후속하였다. 그러나 교량을 건너기 위해 소대별로 축차 약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에는 31명의 자원결사대가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그중 19명이 교량 위에 쓰러지고 나머지가 간신히 교량 북단 제방을 확보하였다. 이때 후속부대가 신속히 도하함으로써 교량 북단의 적을 겨우 구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가 행한 모의 기총소사 등 공중 위협도 도하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도하의 선두에서 활약한 제26연대 제5중대 제3소대장 김판산 소위는 교량 북단 참호에서 수냉식 기관총에 발이 묶인 2명의 기관총수를 목격했는데, 그중 1명은 이미 죽어 있었고 나머지는 중상으로 의식불명이었다고 증언하였다.[79] 제23연대와 제26연대의 도하 성공에 이어 제22연대도 제23연대의 도하를 지원한 후 16:00시에 행동을 개시해 19:00시경 선두부대가 형산강을 건너는 데 성공하였다.

9월 19일 사단은 후속부대가 도하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미 도하했던 부대들은 치열한 격전을 치르면서 형산강 북방의 공격목표를 향하여 진출하였다. 제23연대는



국군 제3사단이 반격을 위해 도하작전을 벌인 형산강

이날 06:00시에 미명의 흐린 날씨를 이용해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대대(대대장 김우영 소령)는 제1목표인 102고지를 향하여 공격하였다. 제1대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백병전을 전개했지만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고지 점령에 실패하고 18:00시경에 고지 남쪽 500m 지점에서 진지를 편성하였다. 제3대대(대대장 박종병 대위)는 공격 목표인 112고지를 공격, 수차례의 백병전 끝에 20:00시에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 연대 예비로 생지동에 위치하였던 제2대대(대대장 최상준 소령)는 14:00시부터 형산강을 도하한 후, 제1대대와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효자동 부근으로 진출하였다. 제22연대는 06:00시까지 도하를 완료한 후 08:00시부터 선두부대인 제1대대(대대장 최정식 대위)가 학안동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제1대대는 좌측방의 적으로부터 계속해서 집중사격을 받으면서 격전을 거듭하다가 18:00시에 이동(梨洞)의 동쪽 능선으로 물러나 차기작전을 준비하였다. 이 때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이동과 용흥2동에 각각 위치하였다. 제26연대는 제1대대가 송내동에 위치한 가운데 송내동 우측에서 제3대대(대대장 은석표 소령)가 포항을 공격하였다. 제3대대는 11:00시에 송호동까지 진출했으나 포항 북쪽에 있는 고지의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고 일단 해도동 부근으로 물러났다.

다음날인 9월 20일 제26연대는 포항을 탈환하였으며, 제23연대도 연대 예비인 제2대대(대대장 최상준 대위)가 제1대대와 제3대대의 지원을 받아 20:00시에 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제22연대는 제1대대가 우현동(포항 북쪽 2㎞)으로 진출하고, 제2대대(대대장 김세낙 대위)가 100고지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포항지역의 적은 전면적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병력만이 주력부대의 후퇴를 엄호하기 위해 집요한 저항을 계속하였다.

9월 21일 제3사단은 북한군 제5사단이 포항 서북쪽 5㎞ 지점 덕순산(德順山) 일대에 지연진지를 점령하고 발악적으로 끈질긴 저항을 계속하자, 이를 우회하여 학전동 부근으로 기동하였다. 이날 제23연대는 제1대대가 학전동 동쪽 고지에, 제2대대가 못골(지곡)에, 제3대대가 자명동에 각각 진출하였다. 제22연대는 제1대대가 충곡리 일대로, 제2대대가 석주곡의 능선 일대로, 제3대대가 이인동의 적을 격파한 후 학천동으로 각각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는 제1대대가 해

안선을 따라 전진하고, 제2대대가 장성동에, 제3대대가 홍해 동남쪽 천마산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도덕산을 우회한 제3사단은 9월 22일 02:00시에 공격을 개시한 제22연대가 06:00시에 홍해를 탈환하고, 계속해서 고현리선에 진출함으로써 중간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날 제23연대는 06:00시에 자명동과 학전동 일대의 북한군 제10연대를 공격해 주력을 격퇴시킨 후, 천곡사 일대의 북한군을 격멸하고자 연대 관측소를 341고지 동남쪽 1㎞ 지점에 설치하고 연대병력을 도음산 남쪽 능선상의 295고지 일대로 진출시켰다. 그리고 연대본부를 학산동으로 이동시킨 제26연대는 북한군 패잔병들을 섬멸하면서 계속 북상하여 소동리(청하 동남 4㎞) 부근에 진출하였다.

국군 제3사단의 반격이 시작된 5~6일 동안 북한군 제5사단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고 주력은 동해안 7번 도로를 따라 울진 방향으로 후퇴하였으며, 일부는 홍해 서북쪽 비학산으로 잠입하였다.

(3) 안강-기계 돌파

① 안강 탈환

안강의 수도사단(사단장 송요찬 대령)은 제1연대, 제1기갑연대, 제18연대의 3개 연대로서 북한군 제12사단과 제5사단 제10연대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반격계획에 의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도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제12사단(사단장 최인 소장) 주력이 무릉산(△459, 안강 서남쪽 5㎞)을 중심으로 두류리와 대동리 일대에 약 5,000명이 있었다. 그리고 제12사단 병력 일부와 제5사단 제10연대가 안강 후방의 561고지(안강 북서쪽 4㎞)와 445고지(561고지 북동쪽 2㎞)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80] 이들 북한군은 현지에서 강제 모병한 '의용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전투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거점방어에 주안점을 두고 국군 수도사단의 반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 국군 수도사단은 제1연대가 지휘소를 호명리에 설치하고 공격제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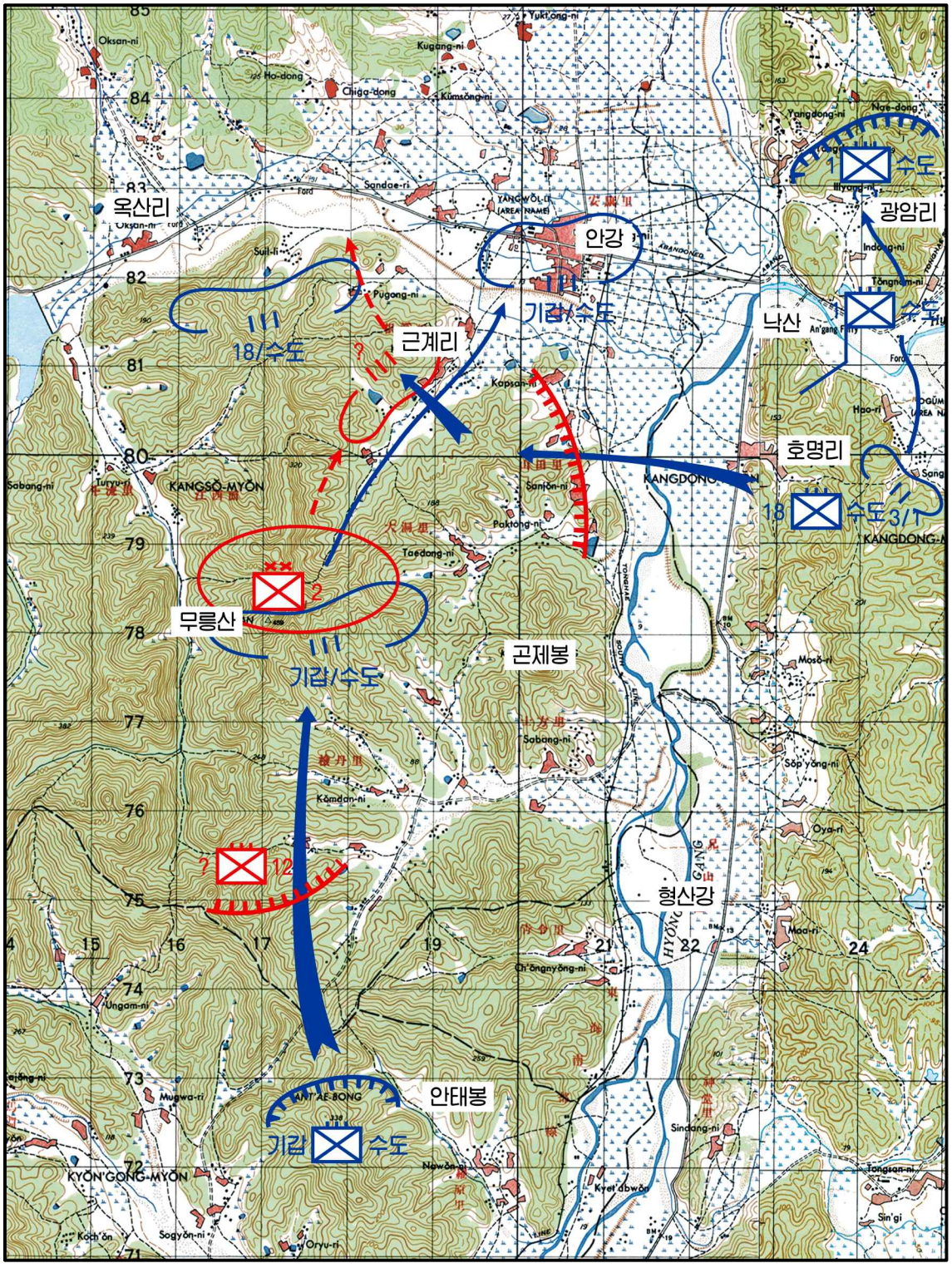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양동리와 유금리 일대에 위치시켰으며, 제18연대가 지휘소를 보문동에 설치하고 모든 대대가 모서면-호명리 간의 도로 동측능선에 진지를 구축하고 갑산리 부근의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또 제1기갑연대는 지휘소를 노동리에 설치하고 경주 북쪽 안태봉(△338) 일대에 진지를 구축해 344고지 일대의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은 제1단계 작전목표인 청송(덕천동)-길안(천지동) 방향으로 진격하되 우선 그 중간목표 도평동(인지동 남쪽)-대전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먼저 안강·기계를 점령하여야 했다. 안강은 횡으로 영천-포항, 종으로는 기계-경주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군사적으로 중요하며 비교적 넓은 평야가 형산강 하류를 끼고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안강은 지형이 분지 형태로 주위의 산에서 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하는 쪽에서는 천연 장애물을 이용해 유리하지만, 공격하는 쪽에서는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다. 특히 북한군 제12사단의 방어거점으로 예상되는 무릉산은 북으로 안강, 동으로 형산강, 남으로 경주를 각각 감제할 수 있는 중요한 고지였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안강을 돌파하기 위해 철저한 병력 운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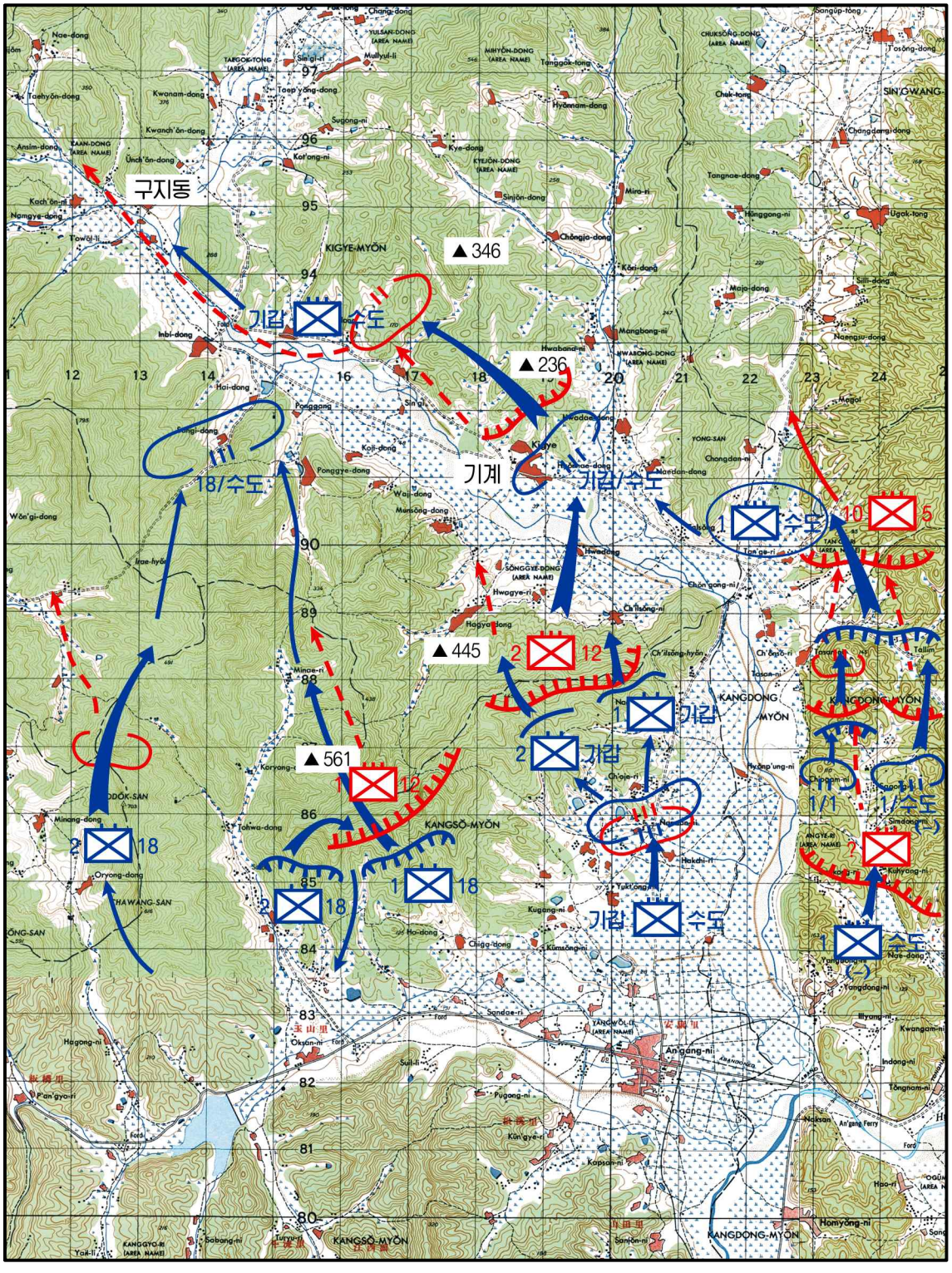
수도사단장은 안강을 탈환하기 위하여 3개 연대를 예비대 없이 전부 공격제대로 투입하여 안강 서측으로는 제18연대, 동측으로는 제1연대를 기동시켜 좌우측에서 협공하면서 중앙에서는 제1기갑연대로 하여금 강력한 기동력으로 안태봉에서 무릉산과 안강을 연하는 축선을 따라 직접 압박하면서 정면을 돌파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무릉산 동쪽에서 2개 연대가 시간차를 두고 교차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일대가 지형적으로 중요하고 북한군의 주력이 집결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9월 16일 사단은 계획대로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제1연대는 전방지휘소가 위치한 호명리에서 제1대대와 제2대대를 각각 좌우측 공격제대로 하여 양동리와 유금리 방면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18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갑산리에서 서쪽으로 기동하여 안강평야를 굽어 볼 수 있는 무릉산 북쪽의 무명고지군을 공격하였다. 이날 05:00시경부터 시작된 제18연대의 공격은

<상황도 4-9> 국군 수도사단의 안강-기계 돌파(1)



<상황도 4-10> 국군 수도사단의 안강-기계 돌파(2)



14:00시경 무릉산 북쪽 고지군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제18연대는 안강 서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무릉산에 투입된 적을 차단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적이 무릉산의 방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제1기갑연대의 공격 또한 순조롭게 되었다. 제1기갑연대는 이날 무릉산 남쪽의 344고지를 6시간에 걸친 혈투 끝에 점령하고 무릉산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제18연대는 다음날(17일) 옥산리(玉山里) 방면으로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였고, 제1기갑연대는 무릉산을 거쳐 안강읍으로 진출하였다. 제18연대와 제1기병연대가 안강을 서남쪽에서 압박하는 동안에 안강 동북쪽의 제1연대도 129고지와 153고지를 점령하여 안강 동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국군에 의한 포위를 두려워한 듯 안강 방어를 포기하고 그 북쪽 노당치(老堂峙)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사단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해 북한군의 투항을 권고하는 전단을 살포하였다.

한편 이날 제7사단(사단장 신상철 대령)의 제8연대(연대장 김용주 중령)가 사단의 서측인 도덕산 방면으로 진격함으로써 2주간 공백상태로 있던 국군 제1군단과 국군 제2군단 경계지역의 간격을 메우게 되었다.[81]

공격 3일째 되는 날인 9월 18일 제18연대는 벼가 누렇게 익은 안강평야를 건너 서쪽에서, 제1연대는 동쪽에서 기계방향으로 공격하였다. 제18연대는 제1대대가 117고지(안강 서북쪽 3㎞)를 점령하고 북쪽의 300고지를, 제3대대가 445고지를 공격하였다. 그 동안 사단 중앙의 제1기갑연대가 안강읍에 돌입한 다음, 계속 북쪽의 기계 방향으로 진격함으로써 사단은 이제 기계 탈환에 총력을 기울였다. 사단은 안강전투에서 122밀리 곡사포 1문을 비롯해 76밀리 곡사포 2문과 포탄 500발, 120밀리 박격포탄 58발, 트럭 2대 등을 노획하였다.

② 기계 탈환

9월 18일 안강을 탈환한 수도사단은 안강에서 철수한 북한군 제12사단 병력이 기계 남쪽의 횡격실 능선에서 강력히 저항하고 또 동측방에서는 북한군 제5사단

제10연대가 단구리 일대에서 완강히 버텼다. 제18연대는 19일 17:00시부터 제1대대가 증원된 제7사단 제8연대와 합동으로 561고지를 공격해 20:40분경에 고지 일부를 점령하였으며, 제3대대가 고룡동 방면에서 제1대대의 561고지 공격을 지원하였다. 이 무렵 사단 중앙을 돌파해 온 제1기갑연대는 육통리(안강 북쪽 2.5㎞)를 접적없이 확보하고 노당리 북쪽 고지군을 목표로 계속해서 공격하였다. 이때 연대는 사단 작전지시 제2호에 의해 전투지경선이 변경되어 좌인접의 제18연대가 담당하였던 445고지 일대의 목표를 인계받았다. 그러나 제1연대는 전날 점령한 110고지와 200고지에서 전면의 145고지와 마곡마을에 적의 병력과 화력이 증강되자 급편 방어 태세로 들어갔다.

한편 이날 신성모 국방장관이 김백일 군단장을 대동하고 경주의 사단지휘소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훈시를 통해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 "6·25 이래 금일까지 불비한 장비로서 지연전을 계속하여 오늘날 이 총공격의 태세를 갖추게 됨을 전장병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자기의 직분을 성실하게 완수함으로써 남이 도와준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이며, 아군이 서울 근교에 돌입하였다고 해서 우리 군인은 낙관을 금하여야 할 것이다. 공산도배를 완전히 격멸할 때까지 용감하게 싸워 이기고 민족통일은 물론 인류평화에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82]

9월 20일 수도사단은 제18연대가 561고지 점령에 성공하였지만, 사단 우측의 단구리 145고지, 마곡의 236고지와 200고지에는 각각 30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제1연대의 진격을 저지하였으며, 육통리 300고지와 좌측의 무명고지에 1개 연대규모의 적이 제1기갑연대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사단은 9월 21일에 가서야 좌측의 제18연대가 기계를 감제하는 능선을 확보하고 도덕산(안강 북서 12㎞)까지 진출하였으며, 제1연대도 단구리 남쪽 고지군을 점령하였고 이에 힘입어 중앙의 제1기갑연대가 노당리 북쪽 능선으로 진출하여 포병 및 항공화력의 지원하에 기계를 점령하였다.



안강-기계 탈환작전시 북한군의 최후 거점 중의 하나였던 기계 236고지

이로써 사단은 북한군의 낙동강방어선을 돌파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은 환자들도 철수시키지 못한 채 서북쪽으로 도주하였으며 제5사단 일부 부대는 기계 북방 비학산 방향으로 사라졌다. 이날 때마침 기상이 청명하여 공지합동작전에 유리하였으며 사단장 송요찬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한 날이기도 하였다.

제 4 절 38도선으로 진격

1. 제8군의 추격작전 계획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개시 1주일 만에 북한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북한군의 전선사령부는 최초 인천상륙에도 불구하고 대구 또는 부산 점령이라는 망상을 단념하지 못한 듯 낙동강전선에서 강력한 저항을 계속하였으나, 9월 18일 북쪽에서는 김포비행장이 상륙부대의 수중에 들어갔는가 하면 남에서는 낙동강 서안에 유엔군의 교두보가 형성되고 다부동 서측방이 돌파되면서 방어선에 균열의 징후가 현저하게 나타남으로써 현 전선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결국 김일성은 차후 작전을 위한 주력부대의 보존을 목적으로 낙동강전선부대를 축차적으로 철수시켜 금강과 소백산맥선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도록 강조하였다. 전선사령관은 이에 따라 대전에 전선예비, 김천에 서부지역 예비를 확보하고 제2군단으로 하여금 왜관을 사수하고 동부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전진을 견제하는 동안 제1군단을 포함, 서부지역 부대를 우선적으로 전환시킨다는 기도하에 9월 19일부터 주력부대의 철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에는 왜관이 완전히 피탈되고 포위되는가 하면 국군이 포항에 진입하면서 자신들의 제2군단 전선의 피탈이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드디어 21일에는 인천상륙 소식이 전 전선에 전파되자, 그들의 전의가 극도로 저하되어 독전의 총부리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고 22일부터는 전선이 붕괴되어 갔다. 이에 김일성은 새로운 전선 형성 구상도 단념하고 9월 23일 전선사령부로 전 부대의 북으로의 후퇴 명령을 내렸다.[83]

한편 제8군사령관은 9월 22일 상황보고와 포로진술에 의해 북한군의 전선이

붕괴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전선의 돌파에 이어 적의 부대를 추격하여 전과 확대로 작전을 전개해 나갈 결심하에 다음과 같은 총공격명령 이른바 '추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전 전선에 걸쳐 적의 저항은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므로 군은 총공세를 펴려 한다. 예하부대는 적진으로 종심 깊이 침투해 들어가고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포위기동을 통해 적의 계획된 후퇴로를 차단하고 적을 격멸할 수 있도록 철수로를 봉쇄하여 적을 파괴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미 제1군단은 주공을 대구-김천-수원 축선에 두고 제10군단과의 연결을 이룬다. 제2사단은 합천-거창-안의-전주-강경 축선으로 무제한 공격을 실시한다.

제25사단은 군의 남측방에서 진주를 점령하고 의명 서쪽 또는 북서방향으로 공격을 준비한다. 한국군은 책임지역 내에서 종심 깊은 돌파와 포위 기동으로써 적을 격파한다."

이 명령에서 "모든 지휘관들은 필요한 곳에서는 측방경계를 고려함이 없이 진격해도 좋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제8군은 제9군단이 다음날부로 제2사단과 제25사단을 작전통제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도 하달하였다.[84]

같은 날 육군본부는 제8군과 협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명령 제191호를 하달하였다.

"1. 국군 정면의 적의 저항은 극도로 저하되고 있으므로 현 진지로부터 총 공세를 취할 수 있음. 군은 만반의 노력을 다하여 깊이 적선에 침투하고, 적의 약점에서 돌파구를 완전히 확대하는 동시에 적의 퇴로로 진출하여 후퇴를 기도하는 적을 차단 섬멸하려 함.

2. 군은 담당지구 내에서 무제한 공격을 실시하려 함.

3. a. 제1군단은, (1) 주공은 청하-영덕-평해 축선을 따라 조공은 인지동-천지동-춘양 축선을 따라 담당지구 내에 무제한 공격을 계속 실시하라. (2) 제3사단은 제7사단과 청하선에서 교대시켜 즉시 집결 육군본부 예비대가 되게 하라. (3) 평

해와 춘양을 확보한 후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북방 혹은 서북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b. 제2군단은, (1) 주공은 도원동-함창-충주 축선을 따라 조공은 의성-안동-영주 축선을 따라 담당지구 내에서 무제한 공격을 계속 실시하라. (2) 충주와 영주를 확보한 다음에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북방 혹은 서북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c. 제7사단과 제3사단이 교대되면 그와 동시에 제3연대는 제7사단 지휘하로 복귀하라. d. 예하 부대 지휘관간의 적당한 직접통신을 허가함. e. 각 지휘관은 필요시에 횡적 접촉 여하에 구속되지 않고 전진하라."[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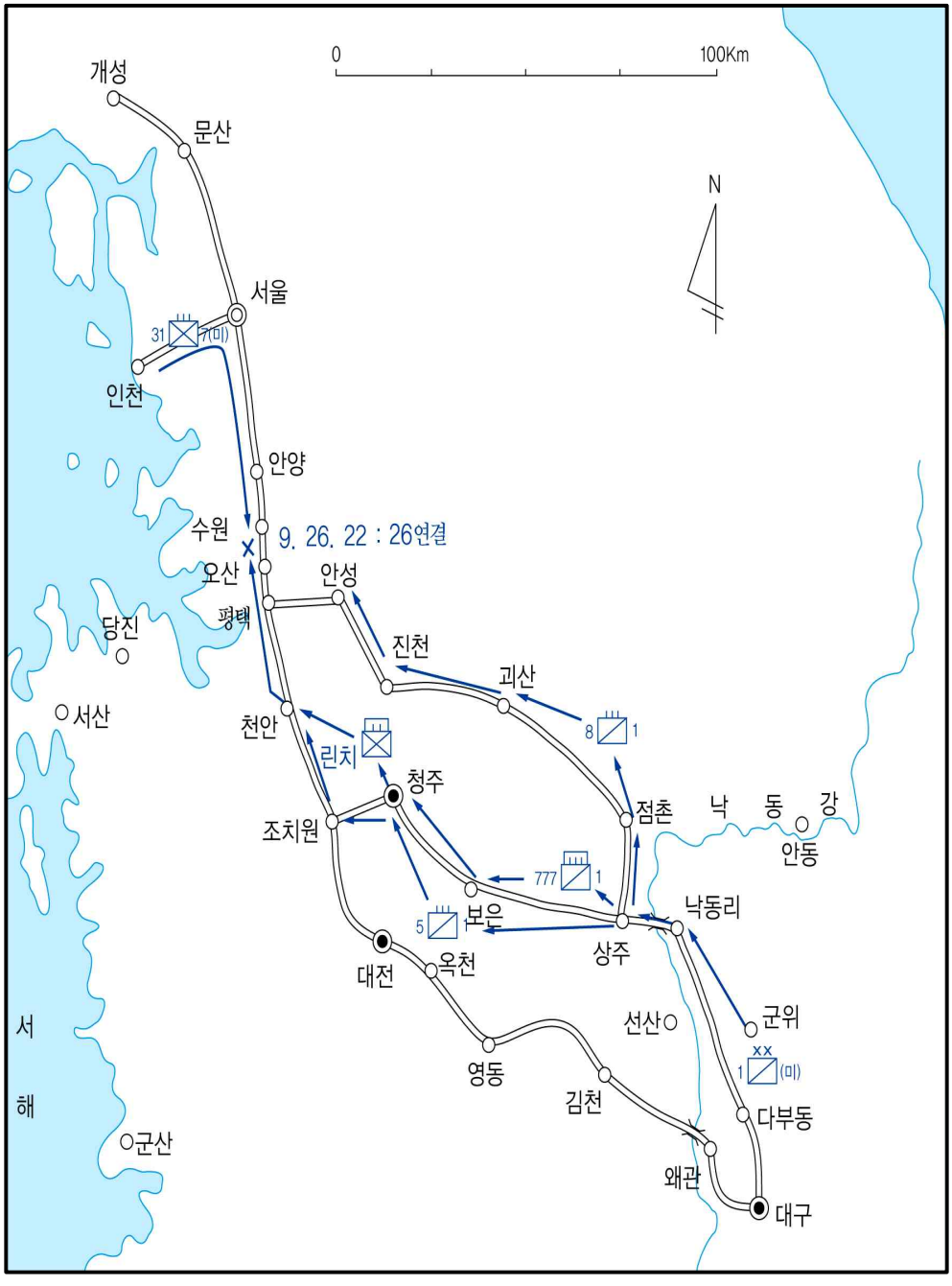
육군본부와 미8군사령부는 이 명령에 의한 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명령을 하달한 다음날인 9월 23일에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개소하였다.

2. 서부지역 추격작전

1) 인천상륙부대와 연결작전

반격작전의 주공인 미 제1군단의 임무는 신속한 전진으로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과 연결하여 낙동강 서부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제1군단을 포위하고 이로써 동서로 양단된 적 지상군을 국군과 미군이 각개 격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 제1군단은 당초 제1기병사단으로 하여금 왜관을 점령하고 교두보를 확보하게 한 다음 미 제24사단을 선봉으로, 제1기병사단을 후속으로 김천-대전을 향해 진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돌파작전 시 초래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먼저 왜관교두보를 확보한 제24사단을 김천-대전 방향으로 투입하고, 국군 제1사단을 군단예비로 기병사단을 후속하도록 기동계획을 바꾸어 추격작전을 전개하였다.[86]

<상황도 4-11> 상륙부대와 낙동강선 반격부대의 연결작전



다부동 전선을 돌파하고 9월 22일부로 추격명령을 받은 미 제1기병사단장은 예하의 제7기병연대를 특수임무부대로 편성하고 이를 선두로 추격작전을 전개하기로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제7기병연대장은 제1, 제3의 2개 대대와 배속받은 전차 및 포병부대 등으로 제777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이중 린치(James H. Lynch) 중령의 제3대대에 미 제70전차대대 C중대의 제2, 제3소대, 제77야전포병대대(-) C포대, 중박격포중대 제3소대, 제8야전공병대대 B중대 제2소대, 제77야전포병대대 전방관측반, 연대정보수색소대, 1개 전술항공통제반, 제13통신중대 SCR399 무선반, 1개 의무소대 등을 배속하여 별도의 린치특수임무부대를 구성하였다.[87]

9월 22일 08:00시에 제1기병사단은 린치특수임무부대를 선두로 다부동을 출발하여 북상하였다. 린치부대는 12:00시경에 적과 첫 조우하였지만 전차를 선두로 소규모 적은 거의 무시한 채 전진하여 15:45분에 최초 도하하려던 선산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린치특수임무부대는 야영을 준비하던 중 현 지점에서 10마일 북쪽의 낙동리 도하지점으로 계속 북상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다.[88]

변경된 명령에 따라 린치부대는 19:05에 다시 기동을 시작해 23:00시경 낙동리 도하장을 굽어볼 수 있는 강가의 돌출부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린치부대는 선두전차가 북한군의 대전차포를 발견하여 전차포 사격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은폐시켜 둔 적의 탄약차에 전차포 1발이 명중되어 폭발하면서 북한군 차량들이 연쇄폭발을 일으켰다. 이 우연한 일격으로 인한 화염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고 전차병들은 그곳에서 적이 버린 전차, 트럭, 기타 차량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았고 수백 명의 적이 수중교를 건너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탄약의 폭발 등으로 잠시 동안 접근이 어려웠지만, 잠시 후 린치특수임무부대는 이들을 공격해 약 200명을 수장시키고 22일 24:00시경 도하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날 린치부대는 낙동리 도하장에서 북한군 T-34전차 1대, 트럭 15대, 포 10문, 오토바이 6대 등 수많은 장비를 노획하였다. 포로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군 제3사단 소속이며 제1 및 제13사단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89]

9월 23일 04:00시경부터 린치부대는 낙동리 도하지점에서 허리에 차는 강물을

도섭으로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때 북한군으로부터의 공격은 없었다. 린치부대를 후속해 10:30분경 제7기병연대 제1대대가 낙동강을 도하해 상주로 진출할 목적으로 낙동리 도하장에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제7기병연대 제1대대는 18:00시경에 상주로 진입하였으나 그 곳에 있던 북한군은 이미 철수한 다음이었다.[90]

사단 공병대는 9월 24일 낙동리 도하장에서 전차 및 차량을 도하시킬 수 있도록 노무자 400여 명과 함께 적이 사용한 낡은 수중교를 개수하기 시작해 이날 오후에는 전차통행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전차부대가 도착하자 연대장 해리스 중령은 린치특수임무부대를 충북 보은으로 출발시켰다. 사단은 선두인 제777특수임무부대가 보은에 머무는 동안 24~25 양일간에 다른 부대를 상주 및 낙동리지역에 집결시켰다. 25일 해질 무렵 사단에는 군단으로부터 더 이상 진출하지 말라는 전문 지시가 하달되었다. 이 전문을 접한 사단장은 즉시 군단에 이의 제기를 하고자 했으나 군단과의 통신이 되지 않았다. 이에 미 제1기병사단장은 연락기편으로 제8군사령관에게 '수원에서 미 제10군단과 연결할 것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날 한밤중에 제8군사령관은 "계속 전진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91]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은 9월 26일 오전 상주에서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 "12:00시를 기해 제777특수임무부대는 보은-청주-천안-오산 도로를 따라 다시 추격을 계속하고, 사단사령부와 포병부대는 그 뒤를 후속한다. 제8기병연대는 충북 괴산을 거쳐 안성으로 진격한다. 제5기병연대는 오후 국군 제1사단과 임무를 교대한 후 함창 공격을 중지하고 조치원을 거쳐 천안에 진출하여 남쪽 및 서쪽에서 후퇴해 오는 적을 봉쇄하고 사단후방을 경계하라."

보은에 위치한 관계로 이날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제777특수임무부대장 해리스 중령에게는 08:30분경에 무선으로 "제7보병사단과의 연결을 위해 진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 명령은 즉시 제777특수임무부대의 선두인 린치부대에 전달되었다. 이 명령과 더불어 린치 중령에게는 상황에 따라 계획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린치 중령은 최선두에 연대 수색소대와 제70전차대대 C중대 제3소대를 위치시키고 제3소대장 베이커(Robert W. Baker) 중위에게 전차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으로 전진할 것과 사격을 받지 않는 한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베이커 중위는 계획보다 30분 앞서 11:30분에 보은을 출발하여 전속력으로 북상하였다.[92]

베이커부대는 이날 17:00시에 청주를 지나 18:00시에 충북 진천 서남방의 사암리 도로 교차점 부근에서 휘발유가 떨어져 잠시 멈추었다. 계속 진격을 위해서는 부족한 전차연료를 조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전차 6대 가운데 3대의 전차에서 휘발유를 거두어 다른 3대의 전차에 급유를 하였을 때 어둠 속을 3대의 북한군 트럭이 접근해 왔다. 미군 전차부대임을 알게 된 북한군은 트럭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전차병들은 북한군 트럭에 실려 있는 휘발유를 나머지 전차에 충분히 급유함으로써 계속 북상할 수 있게 되었다.



린치특수임무부대와 인천상륙부대와의 연결이 이루어진 오산 부근

해리스 연대장은 린치 중령에게 대대장의 판단에 따라 차량의 전조등을 켜고 야간에도 계속 전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여기서부터 대대장은 베이커 전차소대를 연대수색소대보다 더 앞으로 내세우고 또 다른 전차소대를 후위로 배치한 다음 20:00시 진격준비를 마치고 출발하여 잠시 후 20:30분에는 경부국도와 교차점인 천안삼거리에 도착하였다. 베이커 중위는 지형을 몰라 그곳 도로변에서 적병에게 '오산?'하며 길을 묻기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천안으로 몰리고 있던 북한군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미군이 통과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면서 저항도 하지 않았다. 도로변에는 북한군의 모터사이클과 차량들이 버려져 있었다. 베이커 전차대는 진격도중에 발견되는 노상의 적 차량과 교량경계병 그리고 소부대들을 그냥 놓아두고 오산을 향하여 급히 진격하였다. 이처럼 선두 전차대의 신속한 전진으로 멀리 뒤떨어지게 된 린치특수임무부대장은 첨병의 속도를 늦추도록 하려 하였으나 무선교신이 거리가 멀어 미치지 못하였다. 할 수 없이 대대장은 1개 소대와 3.5인치 로켓포반을 차량화하여 새로이 첨병을 편성하였다. 점차 북한군 소집단과의 교전도 심화되고 또 빈번해졌다. 이들이 오산 남쪽 16㎞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전방으로부터 전차 및 야포의 사격소리도 들렸다. 린치 중령은 부대에 소등을 하고 전진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베이커 전차대(3대)는 대대장의 지시도 받지 못한 채 최대속도로 전진하여 오산에 돌입하였다. 오산 북방에 진출하였을 때 본대와 무선교신을 시도했지만, 교신되지 않았다. 베이커 전차대는 계속해서 오산 북방으로 진격했다. 베이커 전차대가 오산 북방 5~6㎞ 지점(죽미령 일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베이커 전차대를 향해 사격이 시작되었다. 베이커 중위의 전차가 돌진하는 순간 미군전차인 M26 전차의 궤도가 눈에 띄었다.

이 순간 그의 전차에 대한 사격이 더욱 치열해졌다. 대전차 포탄이 3번 전차의 기관총좌에 맞아 비껴 나가는 바람에 전차병 1명이 전사하였다. 당시 베이커 전차대는 미 제10군단의 전선으로 진입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군으로부터 소화기, 75밀리 무반동총 사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곧 전방에 배치된 미군이 사격을 중지하였다. 그것은 베이커 전차대의 과감한 돌진속도, 엔진소

리, 전조등의 불빛 등으로 적의 전차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전방의 한 전차장은 베이커 중위의 2번 전차를 사격하기 위해 1번 전차를 통과시키고 던진 백린수류탄이 터지는 순간에 흰별 표시(미군 표시)를 보고 아군임을 식별함으로써 가까스로 비극을 모면할 수 있었다. 결국 베이커 전차대는 이곳에서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7사단 제31연대와 접촉하게 된 것이다. 이때가 9월 26일 22:26분, 보은을 출발한 지 장장 11시간 만에 170㎞를 달려 감격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93]

한편, 베이커 부대와 통신이 두절된 린치부대 본대는 1시간 이상 뒤쳐져 오산 방면으로 북진 중이었다. 그런데 자정 무렵 오산 남쪽 하북리에서 린치 본대는 북한군 전차 10대와 교전하게 되었다. 다음날(27일) 02:00시경까지 진행된 이 전투에서 린치 본대는 북한군 전차 7대를 격파하였다. 그러나 린치부대도 전사 2명, 부상 28명, 전차 2대, 차량 15대의 손실을 입었다. 북한군 전차가 사라진 후 부대는 해리스 중령의 결심에 따라 그 곳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9월 27일 07:00시에 다시 전진을 시작한 린치부대는 08:00시에 오산에 진입한 후, 08:26분에 오산북방의 작은 교량에서 제7기병연대 K중대의 맨실(Edward C. Mancil) 상사가 미 제31연대 H중대와 만나 감격적인 악수를 나누었다. 08:55분에 제777특수임부대로부터 사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 한통이 전달되었다. "임무를 완수했다. 08:26분에 제777특수임부부대의 K중대와 미 제31연대 H중대 사이의 접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94]

미 제1기병사단장 게이 소장은 이날(27일) 오전에 오산에 도착하여 제31연대 지휘관들과 오산 북방의 적에 대한 공격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게이 소장의 협동공격에 대해 미 제31연대 지휘관들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제1기병사단은 제31연대의 공격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제1기병사단 예하의 각 연대는 상주-보은-청주-천안-오산-수원의 진격로 곳곳에 배치되어 북한군 패잔병들이 동부산악지대로 후퇴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29일 제5기병연대는 L중대가 대전 북쪽에서 9대의 소련제 자동차에 탄 50여 명의 북한군을 포로로 잡았으며, 다음날 연대는 대전 부근의 터널 속에서 기관차와 함께 3량의 열차를 노획하였다.

제1기병사단이 상주-수원 일대에서 북한군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동안에 유엔군의 38도선 돌파가 결정되었다. 사단은 10월 4일에 군단장 밀번 소장으로부터 부대 이동 및 공격준비를 명령받고 10월 5일 전진을 시작하였다. 제5기병연대가 저녁에 I중대를 선두로 문산리에서 임진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10월 7일 낮에는 제16수색중대가, 저녁에는 제8기병연대 제1대대가 개성에 진입하였으며, 8일 저녁까지 전 사단이 개성 일대에 집결하였다. 이로써 서부전선은 전쟁 전의 경계까지 진격을 완료하고 38도선 돌파만을 남겨놓게 되었다.[95]

2) 대전 탈환전

미 제1군단의 주공 제24사단(제5연대 전투단 배속)은 9월 23일 왜관-김천간의 경부국도를 따라 제21연대를 선두로 3개 연대 종대대형으로 북서쪽의 김천을 향하여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이는 부대교대를 자주 함으로써 전투부대의 추격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복안에서 나온 것이었다.

북한군 제105전차사단(사단장 유경수 소장)은 후퇴하면서 요소요소에 전차를 위장해 매복시켰으며, 도로상에는 대전차지뢰를 매설하고 대전차포를 배치하여 아군의 추격을 방해하였다.

이튿날(24일) 새벽 미 제24사단 제19연대는 제1대대가 왜관-김천 간의 국도상 부상삼거리에서 남쪽으로 공격하여 성주를 탈환하였고, 시가지 아래쪽에서 영국군 제27여단과 연결하였다. 전날 적과 교전 중에 유엔 항공기의 오폭으로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영국군 제27여단은 피해를 수습한 후 이날 성주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해 제19연대와 연결하였다. 미 제19연대와 영국군 제27여단은 25일까지 성주 부근에서 잔적을 소탕하였다. 여기에서 영국군 제27여단은 미 제24사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미 제1군단의 직접 지휘로 들어갔다. 이날 포로로 잡힌 군의관 진술에 의하면, 성주 부근의 북한군 제1군단은 탄약과 차량연료의 부족으로 인해 포를 땅속에 묻고 도주하였으며 각 사단의 병력이 25%밖에 안 되고 예하 전 부대에 후퇴 명령이 하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미 제5연대전투단은 24일 00:30분경부터 미 제21연대를 초월하여 김천으

로 진격을 선도하였다. 연대전투단은 김천 외곽 월천동 국도변의 140고지 능선에서 북한군과 조우하였다. 김천에는 북한군의 전선사령부와 제1군단사령부가 위치했던 곳이며 지금 후퇴하는 여러 부대가 집결 중이었다. 북한군은 이들의 후퇴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 일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지연전을 펼침으로써 쌍방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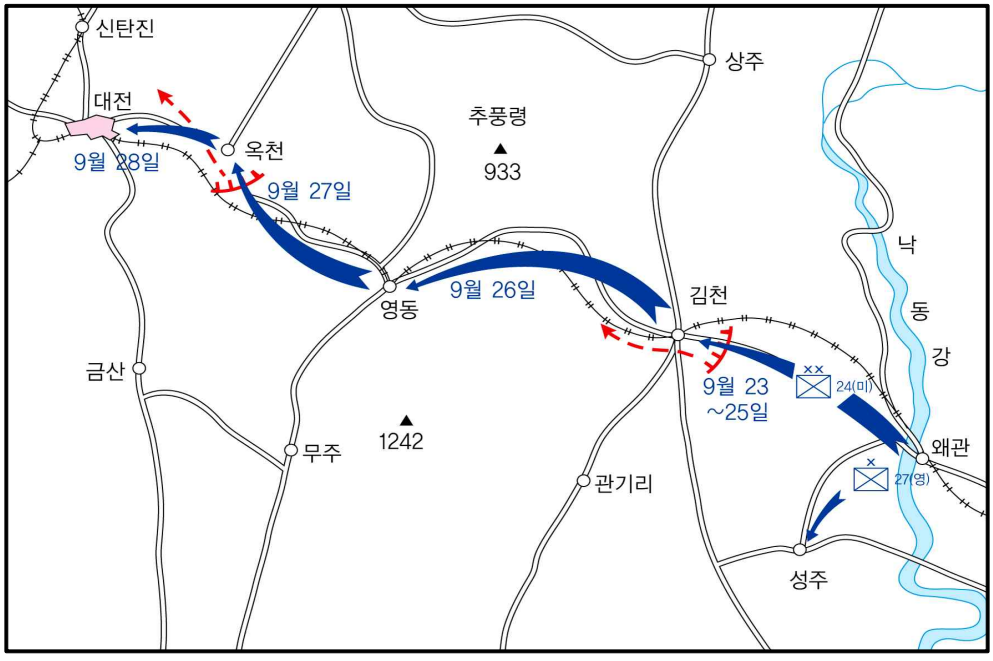
이 전투에서 미 제24사단은 M-46 중형 패튼전차 6대를 격파 당하였고, 북한군 T-34전차 8대를 격파하였다. 또한 북한군 제849연대는 미 공군의 공중폭격과 미군 전차의 공격으로 사실상 전멸되고 말았다. 미 제5연대전투단도 북한군의 전차와 박격포 공격을 받아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96]

미 제5연대전투단은 9월 25일 미 제21연대와의 협공으로 김천에 돌입하여 시가지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제5연대전투단의 김천 공격은 제3대대가 김천에 돌입하면서 시가전으로 전개되었다. 치열한 공중폭격과 포병 탄막의 지원 아래 제5연대전투단은 14:15분경까지 김천의 북한군을 모두 격파하였다. 저녁에 제21연대는 국도를 따라 서쪽방향으로 공격을 계속하였다.

미 제5연대전투단에 의해 김천이 탈환되자 북한군은 패주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9월 26일 후위의 제19연대가 선두로 나서 제19연대의 제2대대가 저항을 받지 않고 영동에 돌입하였으며, 27일 02:00시경에 옥천까지 진격하였다. 여기서 제19연대는 전차에 연료를 재보급 받고 장병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지하였다.

제19연대는 05:30분경 대전을 향하여 진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곧 옥천 서쪽 고지에 구축된 북한군의 강력한 지연진지에 봉착하였고, 선두전차는 적의 대전차지뢰에 의해 파괴되었다. 북한군은 대전 입구인 이곳에서 마치 김천 남쪽에서처럼 강력히 지연전을 전개함으로써 대전으로 모여드는 북한군 패잔병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 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대전은 영남과 호남지방에서 후퇴하는 적의 집결지로서 여러 부대의 병력과 장비가 혼잡하게 뒤섞였다. 미 제24사단은 대전 동남쪽 전투에서 이날 북한군 7개 사단 소속의 패잔병 300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전차 13대를 파괴하였다.

<상황도 4-12> 미 제24사단의 대전 진격전



미 제19연대는 서울이 수복되던 9월 28일 제2대대 정찰대와 제3야전공병대대 C중대가 16:30분에 대전 외곽에 도달하였고 한 시간 후에는 공병이 지뢰를 제거하자 연대 주력부대가 시가지 중심부에 돌입하였다. 18:00시에는 미 제24사단의 포병연락기가 대전비행장에 착륙하였다.

대전의 탈환으로 제24사단의 추격작전 목표는 달성되었으며, 소탕작전에서 9월 말까지 미 제24사단은 정확히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포로를 획득하였고 다수의 장비도 노획하였다.

그러나 곧 장병들은 참극의 현장을 발견하고 승리의 기쁨보다도 잔악한 공산군의 만행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제24사단 장병들은 소탕작전 중에 대전비행장 부근에서 손을 뒤로 묶인 채 500여 명의 국군이 집단 학살되어 매몰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사이에 대전시내에서 5,000~7,000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 17명의 국군, 40여 명의 미군이 살해되어

매장된 것을 찾아냈다.[97]

미 제24사단은 대전을 탈환한 후 낙동강에 이르는 161㎞에 달하는 병참선 경계임무를 맡았다. 제19연대가 대전에서 금강선까지, 제21연대가 대전에서 영동까지, 제5연대전투단이 김천을, 수색중대가 왜관 교량을 경계하였다.

3) 국군 제1사단의 후방지역 잔적 소탕과 38도선으로의 진격

(1) 보은-미원 부근 전투

미 제1군단 예비인 국군 제1사단은 25일 낙동리에서 도하를 완료하고 추격작전의 대열에 들어섰다. 사단은 26일 상주로 진출하였는데, 제11연대가 모동면 이동에, 제12연대가 청리면 가천리에, 사단사령부가 공성면 옥산동에 이동을 완료하였다.

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을 후속하여 상주-보은을 거쳐 미원으로 진출하면서 낙동강전선에서 소백산맥의 험한 준령을 따라 월북을 기도하는 북한군 제2, 제3, 제4, 제7, 제9사단 등 여러 사단들의 패잔병을 추격하여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소탕하였다. 9월 27일 사단 수색대는 조치원 전방으로 진출한 후 오송리에서 200여 명의 북한군과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이를 격퇴하고 조치원에 진입하였다. 이 전투에서 수색대는 북한군 전차 1대를 파괴하고, 수송차량을 노획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이날 제11연대는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에 진출하였으며, 제15연대도 각 대대가 보은읍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사단 사령부도 옥산동을 떠나 화령장을 거쳐 보은에 진출하였다.

국군 제11사단은 28일 제11연대가 회인-인차리-미원을 거쳐 20:00시에 청천리로 진출해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였으며, 제15연대가 보은에 집결하여 차후 진격을 준비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은 병력의 과반수가 소위 '의용군'으로서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산악지대로 깊숙이 분산 잠입하여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해 월북하고자 하였으며, 그 일부가 유격대로 전환해 산간마을에 출몰하면서 식량을 약탈하고 아군을 기습하였다.

사단은 제11연대를 미원 부근에, 제15연대를 보은 부근에 각각 배치해 북한군 패잔병들을 포위 섬멸하고자 하였다. 29일 미원 부근에 출몰하던 북한군은 회인-청주간 도로를 차단한 후 피반령-군자산을 넘어 북쪽으로 퇴각하려고 하였다. 이에 제11연대는 제3대대(대대장 이무중 중령)가 피반령 일대의 적을 격퇴한 후 수장을 경유해 송정리로 진출하였으며, 제1대대(대대장 김소 소령)가 피반령-566고지-쌍암리-604고지-삼일상 일대를 점령한 북한군의 잔존병력들을 격파하면서 추격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제15연대(연대장 최영희 대령)는 문의-중초-선곡리 일대에서 북한군 패잔병들을 섬멸하였다. 제15연대는 이날 11:00시에 산초리 우측의 300고지에 집결한 500명의 북한군을 12:40분경부터 2시간 동안 공격해 이를 격멸하고, 또 이날 11:30분경에는 문산리 부락 정면의 무명고지에 집결한 500명 규모의 북한군 유격대를 포위 공격하여 30분 만에 격멸하기도 하였다.

미원 일대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제11연대(연대장 김동빈 대령)는 지휘소를 미원에 두고, 제1대대가 미원, 제2대대가 청천리, 제3대대가 송정리에 배치되어 후퇴하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9월 30일 제11연대 제3대대는 09:00시경에 북한군 패잔병을 섬멸하기 위해 피반령-두산리-굴암리를 경유, 10:00시경에 송정리에 진출하였고, 제1대대가 제3대대를 후속해 송정리에 집결한 후 14:00시에 미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는 예하 각 중대를 청천리-강평리 북방고지-379고지-금단리에 각각 배치해 속리산 방면으로 후퇴하는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 격멸하게 하였다. 10월 1일 제11연대는 제1대대가 내산리-문정-낭성-창리 일대에, 그리고 제2대대가 월용리-어암리-송정리 일대에, 그리고 제3대대가 청주-회인간 도로와 청주-음성간 도로를 차단하고 준동하는 북한군 패잔병들을 섬멸하였다. 10월 2일 제11연대는 지휘소를 증평으로 이동시키고, 제1대대가 진천에서 모든 기동로를 확보한 후 잔적 소탕작전에 나섰고, 제2대대가 17:00시에 괴산에 진출하여 괴산-문경간 도로와 청주-음성간 도로를 확보하면서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보은 일대를 작전지역으로 한 제15연대는 제1대대(대대장 유재성 소령)가 지휘소를 지동리에 설치하고, 각 중대를 동정리-죽암리-만상리에 배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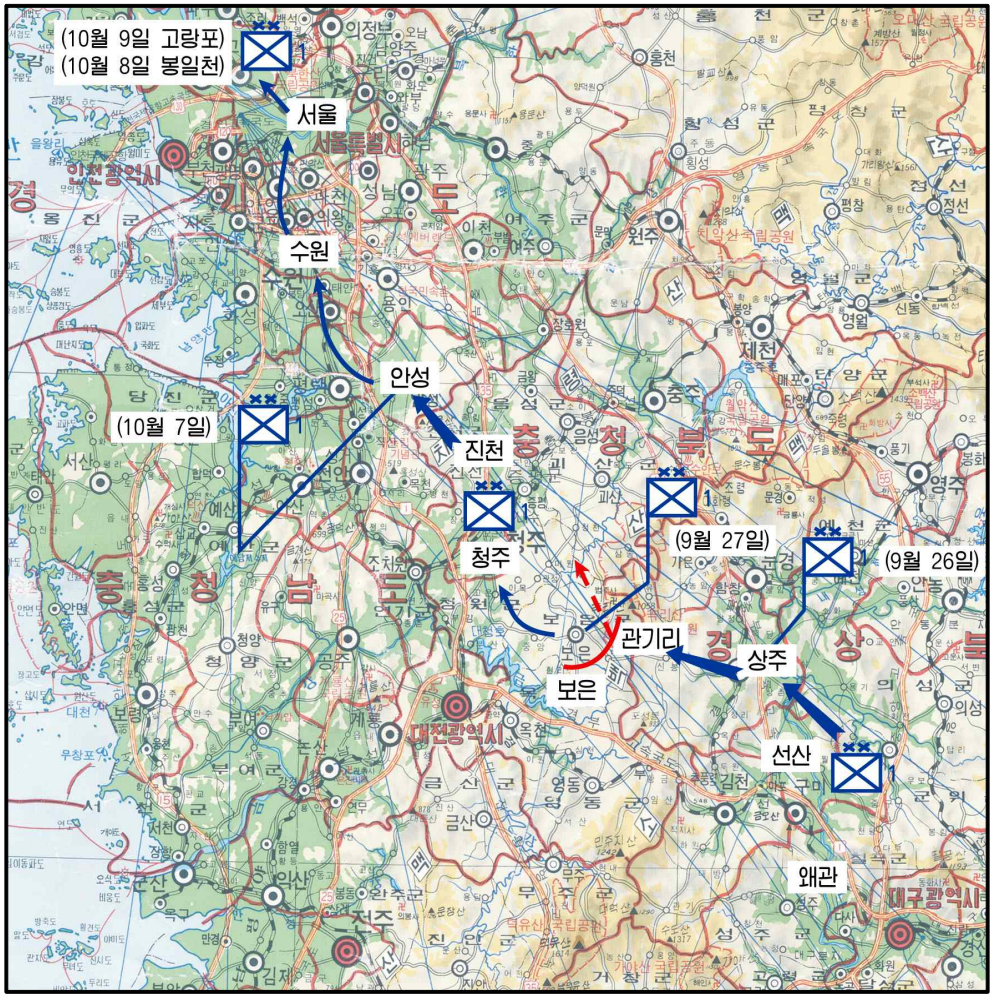
중대단위로 북한군 패잔병들을 포착 섬멸하게 하였으며, 제2대대(대대장 김진위 소령)가 삼성리 방면으로 진격한 후 363고지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반복한 끝에 북한군 150명을 사살 또는 포로로 하였다. 이날(30일) 제15연대는 최영희 연대장이 제1사단 부사단장으로 승진하고, 부연대장인 조재미 중령이 새롭게 연대장으로 취임하였다. 다음날(10월 1일) 제15연대는 속리산의 삼가리와 363고지 일대에 출몰하는 북한군 유격대를 섬멸하기 위해 제2대대가 509고지 전방의 무명고지와 363고지를 공격해 약 350명의 북한군 패잔병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하였다. 다음날(2일) 제15연대는 관기리에서 미원으로 기동하던 제6중대가 12:00시경 창리 서쪽 565고지에서 2개 중대 규모로 추정되는 적을 포착하고 포위공격을 시도해 이를 격퇴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대대장 안병건 소령)가 장련리 북쪽 무명고지의 적을 2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이를 격퇴하고 고지 일대를 점령하였다.

제11연대와 제15연대가 보은-미원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자 10월 2일 제1사단은 사단사령부를 청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사단 예비인 제12연대는 상주 일대에서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청주에 사령부를 둔 제1사단은 10월 3~4일 양일간 제11연대가 증평 일대에서, 제15연대가 미원 일대에서 이 지역에서의 최후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1연대는 괴산-증평-진천 방면에서 북상을 노리는 북한군 패잔병과 일부 유격대를 포착하는 대로 즉시 격멸하였다. 그리고 제15연대는 546고지와 신곡리-금정산(△652)에서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한 후 이 지역에서의 작전을 종결하였다. 이날(4일) 상주에 있던 제12연대가 24:00시에 청주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의 보은-미원 일대의 잔적 소탕작전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국군 제1사단은 10월 5일 제11연대가 사단 기동계획에 의하여 09:00시에 행동을 개시 19:00시에 진천에 집결한 후 차기작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고, 제15연대도 담당 작전지역 내에서 훈련과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 제12연대는 12:00시까지 연대 전병력이 청주에 집결하여 차기 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날 사단사령부가 위치한 청주에서는 사단 정훈부와 군악대가 합동으로 청주시장에서 군경 및 시민 위안연주회를 개최하고 시가행진을 벌이기도 하였다.

<상황도 4-13> 국군 제1사단의 추격작전



(2) 38도선으로의 진격

보은-미원 일대의 잔적 소탕작전을 끝내고 훈련과 휴식을 취하던 국군 제1사단은 10월 6일 사단장 백선엽 준장이 대전의 미 제1군단사령부를 방문하여 사단의 평양탈환전 참가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미 제1군단은 10월 3일 제8군으로부터 북진명령을 받고서 미 제1기병사단이 5일에 임진강을 도하해 개성으로 진격

중이었다. 국군 제1사단장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미 제1군단장은 군단예비인 국군 제1사단을 미 제24단과 임무 전환시켜 군단 주공의 진격을 엄호하면서 북진하도록 하는 수정된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미 제1군단 우측 공격부대로 전환된 국군 제1사단은 10월 7일 사단사령부와 제15, 제12연대를 안성으로 이동시키고, 제11연대를 수원으로 북상시켰다. 제1사단이 북상하는 동안 미 제1군단의 주력인 제1기병사단이 이날 오후에 미군으로는 처음으로 38도선을 돌파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10월 8~9일 제12연대(연대장 김점곤 중령)가 안성을 출발하여 평택-수원-소사-서울을 경유해 등원리(登院里)에 진출하였고, 제11연대(연대장 김동빈 대령)가 수원에서 용산을 거쳐 파평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15연대(연대장 조재미 중령)는 안성에서 평택-영등포를 거쳐 고랑포까지 진출하였으며, 9일 제15연대 제1대대(대대장 유재성 소령)가 22:00시에 38선 이북인 마전리까지 진출해 대기하였다. 사단사령부는 안성에서 수원-소사-서울을 거쳐 봉일천에 위치하였다.

이 무렵 미 제1군단의 주공인 미 제1기병사단은 2개 연대가 개성 북방에서 38선을 돌파하였으며, 제1사단 우측에서는 국군 제8사단(사단장 이성가 준장) 제21연대(연대장 김용배 대령)가 연천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은 원산선에 근접하고 있었다.

38선 돌파를 눈앞에 둔 국군 제1사단은 10월 10일 사단의 전 예하부대가 임진강을 넘어 고랑포 일대의 공격대기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사단 지휘부도 고랑포에 있는 면사무소로 추진하였다. 전날 사단의 우측 전투지경선 부근인 마전리로 진출하여 위력 수색임무를 수행 중이던 제15연대 제1대대는 이날 아침 다시 마전리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무등리(無登里)에서 임진강을 건너 북쪽 7.5㎞ 지점의 탑거리(塔居里, 연천 북방 3㎞)로 진출하였다. 제15연대의 잔여 2개 대대는 계속 고랑포에 머물면서 다음날로 예정된 북진작전에 대비하였다.

사단의 좌일선인 제11연대는 10일 17:00시에 고랑포 남서쪽 5.5㎞의 춘양동(春陽洞)에 집결하였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정영흥 소령이 지휘하는 제3대대가

선봉대대로서 춘양동 북쪽 약 5㎞ 지점에 위치한 금곡으로 진출하여 다음날 있을 38도선 돌파작전을 준비하였다. 뒤이어 19:30분에는 연대의 잔여 2개 대대도 춘양동을 출발해 제1대대가 마답리(금곡 우측 2㎞)로, 제2대대가 두곡리(금곡 좌측 2㎞)로 각각 진출하여 다음날의 38도선 돌파작전에 대비하였다.[98]

돌파 및 소탕작전 기간 중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 4,543명을 사살하고, 5,211명을 생포하였으며, 소총 1,275정, 자동차 144대, 지도 3,000장, 곡사포 12문, 대전차포 24문, 각종 실탄 100,000여 발을 노획하였다. 반면에 사단은 355명이 전사하고 1,02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77명이 실종되었다.[99]

3. 서남부지역 추격작전

1) 합천-논산 추격작전

낙동강 서남부 전선에서의 추격작전은 미 제9군단(군단장 John B. Coulter 소장)에 의해 전개되었다.[100] 미 제9군단은 밀양에 사령부를 두고 제2사단과 제25사단을 작전통제하여 9월 23일부터 작전을 시작하였다. 제2사단과 제25사단이 제9군단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가기 전날에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작전명령 제101호를 통해 양개 사단에 무제한 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다음날 군단은 9월 22일자 미 제8군사령부 작전명령 제101호에 근거해 9월 23일 14:00시에 군단 작명 제1호를 예하 사단에 하달하였다.[101] 작전명령의 주요내용은 제2사단과 제25사단에게 낙동강 서안에 확보한 교두보와 남강 남쪽에 구축한 공격의 발판으로부터 추격작전을 전개, 강경(江景)을 점령하고 금강선을 확보하여 경부축선 서부지역의 북한군 퇴로를 차단한 후 지대 내에서 포위되고 양단된 적을 각개 격파한다는 계획이었다.

미 제8군사령부의 추격명령이 하달된 9월 22일 미 제2사단은 제38연대가 초계를 점령하고, 제23연대가 신반리 외곽에서 북한군과 대치하였다. 9월 23일 제23

연대는 신반리를 확보한 후 초계 방면의 제38연대와 협공으로 합천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이 무렵 미 제2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북한군은 신반리의 제4사단과 합천의 제9사단이 이미 합천 서쪽으로 퇴각하였고, 제2사단이 초계로 집결 중이었다. 이에 따라 초계의 미 제2사단 제38연대는 초계 부근의 고지에서 퇴각하는 북한군 제2사단 병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이튿날(24일) 미 제2사단은 제38연대의 합천 공격에 신반리를 점령한 제23연대를 그 동남쪽으로 투입하여 양익포위작전으로 합천을 공격하였다. 제38연대는 합천-김천 도로를 차단하여 시내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북한군을 격멸하였고 제23연대가 24일 낮에 합천에 돌입하였다. 이날 공군은 53회의 출격을 통해 북한군 패잔병을 와해시켰고 제38연대는 도로차단지점에서 300여 명의 북한군을 격멸한 후 야간에 시내로 진입하였다. 제38연대는 25일 낮에 거창으로 진격하였다. 거창에 이르는 연대정면에는 최현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제2사단이 차량과 중장비를 모두 버리고 무질서하게 급히 후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병력은 약 2,500여 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제38연대는 노상에서 대전차포 14문, 야포 4문 등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고 450여 명을 생포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이날 무려 47㎞를 추격하여 거창 외곽까지 다다랐다.[102]

9월 26일 08:00시에 제38연대는 거창에 진입하였으며 곧 이어 제23연대도 합류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군 45명이 수용되어 있는 야전병원을 점령하였다. 포로심문에 의하면 북한군은 이곳에 패주하는 제2, 제4, 제9, 제10사단을 집결시켜 최후의 반격을 시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미 제2사단의 전진 속도가 너무 빨라 그 계획이 좌절되었다고 하였다.[103] 미 제23연대는 거창 경계임무를 수행하게 된 제38연대를 초월하여 저녁에 안의를 향해 진격하였다. 연대는 주변이 물에 잠긴 논이어서 부득이 마을 소로에서 숙영을 하고 있던 중 다음날 새벽 채 철수하지 못하고 주변에 은신해 있던 북한군으로부터 박격포 공격을 받아 제3대대 부대대장을 비롯해 6명이 전사하고 대대장과 사병 25명이 부상하였다.[104]

미 제23연대가 안의에서 뜻밖의 큰 피해를 입게 되자 미 제2사단장은 거창에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인 제38연대를 다시 추격부대로 선정하여 전주로 진격하도록

<상황도 4-14> 미 제9군단의 서남부지역 추격작전



명령하였다. 9월 28일 04:00시경에 거창을 출발한 미 제38연대는 안의를 경유 소백산맥을 넘어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며 무려 117㎞를 9시간 반에 걸친 차량행군을 강행하여 13:15분경 전주에 도착하였다. 미 제38연대는 전주에서 북한군 제102, 제104경비연대 300여 명 중 100여 명을 사살하고 170여 명을 생포하였다. 미 제38연대는 이동간 차량연료가 부족하여 고충을 받고 있었으나 마침 상공에 도착한 연락기의 조종사가 이를 간파하고 사단과 군단에 연락함으로써 연료보충을 받을 수 있었다.[105]

전주에서 연료를 보급 받은 미 제38연대는 9월 29일 아침에 전주를 출발, 논산을 거쳐 다음날 새벽 03:30분경 강경에 도착함으로써 사단의 추격작전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금강선의 중요지점을 확보하고 연결작전에 의해 포위된 북한군 제1군단의 중앙을 돌파하여 적을 각개 격파할 수가 있었다.

사단은 9월 말 제38연대를 전주-강경지역에, 제23연대를 안의지역에, 제9연대를 고령-삼가지역에 재배치하여 패잔병에 대한 소탕작전과 병참선 경계 등 후방지역 방어작전에 임하였다.

사단은 반격기간 중 적 사살 360여 명, 포로 757명과 야포 23문, 대전차포 32문, 자주포 1문, 박격포 22문, 오토바이 10대, 트럭 17대, 탄약 425톤 등을 노획하였으며 손실은 전사 32명과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106]

2) 진주-군산 추격작전

미 제25사단은 제8군사령부 작전명령 제101호에 의거해 진주를 탈환하고 의명 서측방 혹은 서북방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107] 23일 미 제9군단의 작전통제하에 들게 된 제25사단은 이날 오전에 사단지휘소를 방문한 쿨터 군단장으로부터 제8군 작명 제101호에 의거 진주에 대한 무제한 목표 공격을 가할 것을 재차 강조받았다. 이에 따라 사단의 제1차 목표는 진주를 신속히 점령하는 것이었다. 9월 23일 아침, 미 제25사단은 제35연대가 진주고개를 공격 중이었고, 해안을 따라서 추격한 미 제27연대가 배둔리(背屯里)까지 진출하였으며, 미 제24연대가 서북산을 소탕 중이었다. 제24연대와 제27연대는 가벼운 저항

을 물리치면서 순조롭게 진격했지만, 중앙의 제35연대는 적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아 진격이 지체되었다.[108]

미 제25사단장은 신반리를 공격 중인 제2사단과의 부대간격을 좁히면서 진주 고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9월 23일 일부 기동계획을 조정하여 남쪽에서 진주로 공격 중인 제27연대를 북쪽의 중암리(中岩里)로 이동시키고 그 대신 이 연대가 진출 중이던 배둔리에는 사단수색중대가 중심이 된 토만특수임무부대를 투입하였다. 사단장은 중앙지역의 제35연대가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동안, 제27연대와 수색중대로써 남북 양측에서 협공을 가하여 진주를 포위 점령할 복안이었다.

조정된 기동계획에 따라 미 제25사단은 공격을 계속하여 24일 아침에 제35연대가 진주고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109] 진주 탈환이 가시화되자, 군단에서는 18:00시에 작전명령 제2호를 하달해 제25사단의 차후 임무를 명확하게 부여하였다. 이에 의하면 제25사단은 진주를 탈환한 후에 군산 점령을 목표로 함양-남원-이리 축선을 따라 진격하는 것이었다.[110]

진주교가 파괴되어 수중교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인해 기동이 지연된 미 제35연대는 25일 02:00시경 제2대대가 진주 동남쪽에서 남강을 도하해 북한군 약 1개 대대를 격멸하고 오후에 진주를 점령하였으며 저녁때에는 연대 주력과 토만부대가 모두 진주에 집결하였다.

한편, 의령 방면으로 도하하라는 명령을 받은 미 제27연대는 24일 아침부터 현지 주민 약 1,000명의 도움을 받아 수중교 가설에 착수했으나 남강의 수심이 의외로 깊은데다가 북한군의 박격포 공격으로 인하여 26일 아침에서야 겨우 작업을 완료하였다. 제27연대는 가벼운 저항을 받으면서 정오경에 의령을 탈환했고, 28일에는 진주로 진출했다.

미 제25사단장은 수중교 가설로 인해 추격작전이 지연되고 있던 제27연대를 진주 부근의 경계임무에 투입하고, 제24연대와 제35연대로 하여금 지리산을 포위하듯이 적을 추격하기로 하였다. 이는 24일 미 제8군에서 "전주와 강경을 점령할 때까지 무제한 공격을 실시하라"는 수정된 작전명령이 제9군단에 하달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다. 미 제25사단장 킨(Kean) 소장은 제24연대와 제35연대를 중심으로 전차 위주의 2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제24연대는 제79전차대대 A중대장 매튜스(Charles M. Matthews) 대위가 지휘하는 매튜스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으며,[111] 제35연대는 미 제89전차대대장 돌빈(Welborn G. Dolvin) 중령이 지휘하는 돌빈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제24연대의 매튜스(Matthews)특수임무부대는 사단의 좌측(남)에서 진주-하동-구례-남원-순창-김제-이리-군산으로 진출하고, 제35연대의 돌빈(Dolvin)특수임무부대는 사단의 우측(북)에서 진주-함양-남원-전주-이리-강경을 경유 금강선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즉 두 개의 특수임무부대를 선두로 진주를 출발, 지리산을 남북으로 우회하여 남원에서 금강선으로 진격한다는 계획이었다.[112]

진주를 먼저 출발한 것은 돌빈특수임무부대(이하 '돌빈부대')였다. 9월 26일 06:00시에 돌빈부대는 1개 전차중대와 1개 보병중대를 1개조로 한 2개 보·전 편성으로 보병이 전차에 탑승한 채 진격하였다.[113] 이 부대는 도중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고 파괴된 교량을 복구하면서 전진해야만 했다. 돌빈 부대는 산청 북쪽의 남강 지류에 놓여 있는 다리를 점령하기 위해 북진했지만, 북방 3㎞ 지점에서 첫 번째 지뢰지대를 만나 선두전차가 파괴되었다. 다행히 북한군이 없었기 때문에 공병이 11개의 지뢰를 제거했다. 그러나 500m 북쪽의 두 번째 지뢰지대에서 또 전차 1대가 파괴되었고, 잠시 후 북한군 약 1개 소대가 보호하고 있는 세 번째 지뢰지대에 봉착하였다. 돌빈부대는 지뢰를 제거하면서 30분 내에 산청에 도착할 지점에 이르렀을 때 교량이 폭파되는 굉음을 들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 강가에 도착한 돌빈부대는 파괴된 교량을 발견하고서 노무자를 동원해 밤새도록 우회로를 구축했는데, 여기서 귀중한 12시간을 소비하였다. 27일에도 돌빈부대는 지뢰지대를 제거하고 파괴된 교량을 대신해 우회로를 개척하면서 전진해야만 했다. 이 무렵 북한군은 산악지역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을 가하면서 돌빈부대의 전진을 지연시키고자 하였다.[114]

돌빈부대는 북한군의 저항을 공중지원하에 격파하면서 북한군 제6사단을 추격하여 지리산을 북쪽으로 우회해 28일 함양을 점령했다. 그 후 돌빈부대는 시속

32㎞의 속도로 추격을 계속하여 패주하는 적을 사살하고 분산시키면서 이날 15:00시경에 남원에 진입하였다. 그때 이곳에는 매튜스특수임무부대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매튜스특수임무부대는 진주 서측 남강교량이 파괴되어 이를 수리하느라고 돌빈특수임무부대보다 하루 늦은 27일 10:00시경에 진주를 출발했다. 매튜스부대는 패주하는 북한군을 소탕하면서 하동고개를 통과했다. 17:30분경 부대가 하동에 진입했을 때 이들은 주민들로부터 미군포로가 끌려가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진격속도를 가속화하여 하동 북방 16㎞ 지점에서 11명의 포로를 구출하였다.[115] 다음날(28일) 10:00시경 매튜스부대는 선두를 달리고 있던 레이퍼(Raymond N. Reifer) 중사의 전차가 남원에 돌입하였다. 시내에는 아직도 북한군으로 가득했지만, 당시 실시된 F-84전투기의 공중공격에 주의를 하느라고 보병부대의 진입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북한군은 지상에서 추격해 오는 미군 전차를 보자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곧 뒤따라온 주력부대가 시내를 소탕하였다. 그 사이 한 가옥의 정원에서 포로가 되어 있던 미군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서 미군 포로 86명이 구출되었다.

이날 15:00시경 돌빈부대가 남원으로 진입해 매튜스부대와 합류하였다. 돌빈부대는 23:00시경 전주를 향해 북진하였으며, 매튜스부대는 남원에 머물면서 잔적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매튜스부대가 남원에서 머무는 동안 후속한 제24연대 제3대대(일명 '블레어 특수임무부대')가 진격을 시도하여 29일에 정읍, 이리를 거쳐 금강에 도달했으며, 제24연대 제1대대가 30일 목표인 군산을 무혈점령하였다. 그리고 돌빈부대도 29일 작전을 재개하여 앞서 미 제2사단 제38연대가 점령한 전주를 지나 이리를 거쳐 금강에 도달하였다.[116]

미 제25사단은 군산을 탈환한 후 후방지역 병참선 방호임무를 맡았다. 제24연대는 군산지역을, 제35연대는 이리지역을, 제27연대는 진주-함양-남원에 이르는 병참선을 경계하였다.

미 제9군단 예하 제2사단과 제25사단은 9월 16일부터 낙동강 서남부에서 돌파작전을 펴 북한군 제2, 제6사단을 비롯하여 제4, 제9, 제7사단 등 북한군 제1군

단 예하 5개 사단을 전격적인 속도로 추격하여 금강선을 확보하고 이들의 재편성을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지휘계통을 마비시켜 포위 및 각개 격파하였다. 그러나 차단된 많은 적이 개별적 또는 조직적으로 지리산 일대의 산악지역으로 잠입함으로써 후일 이곳이 적 게릴라전의 기지가 되었다.[117]

4. 중동부지역 추격작전

1) 신녕-춘천 추격작전

중동부지역의 추격작전은 국군 제2군단(군단장 유재흥 소장)이 돌파작전에 이어 계속 하였는데, 군단은 9월 22일에 육군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 제191호를 수령하였다. "국군 정면의 적의 저항은 극도로 저하되고 있으므로 현 진지로부터 총공세를 취할 수 있음. 군은 만반의 노력을 다하여 깊이 적선(敵線)에 침투하고, 적의 약점에서 돌파구를 완전히 확대하는 동신에 적의 퇴로로 진출하여 후퇴를 기도하는 적을 차단, 섬멸하려 함. 미8군은 주력으로 현재선에서 총공격을 개시하여 전진지구 내 적을 섬멸하며 급속히 대구-김천-대전-수원 축선을 따라 계속 전진하여 미 제10군단과 합세하려 함. 제2군단은 주공이 도원동-함창-충주 축선을 따라, 조공이 의성-안동-영주 축선을 따라 담당지구 내에서 무제한 공격을 계속 실시하라. 충주와 영주를 확보한 다음에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북방 혹은 서북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118]

이 명령에 따라 국군 제2군단은 9월 23일 제6사단을 주공으로 하고, 제8사단을 조공으로 하여 추격작전을 시작하였다. 주공인 제6사단은 신녕의 조림산에서부터 함창을 거쳐 충주로 향하도록 계획되었다.

이 무렵 국군 제6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8사단(사단장 오백룡 소장)은 조림산에서 철수한 후 전면적인 후퇴를 시작하였고, 그 주력은 안동-영주-단양 방향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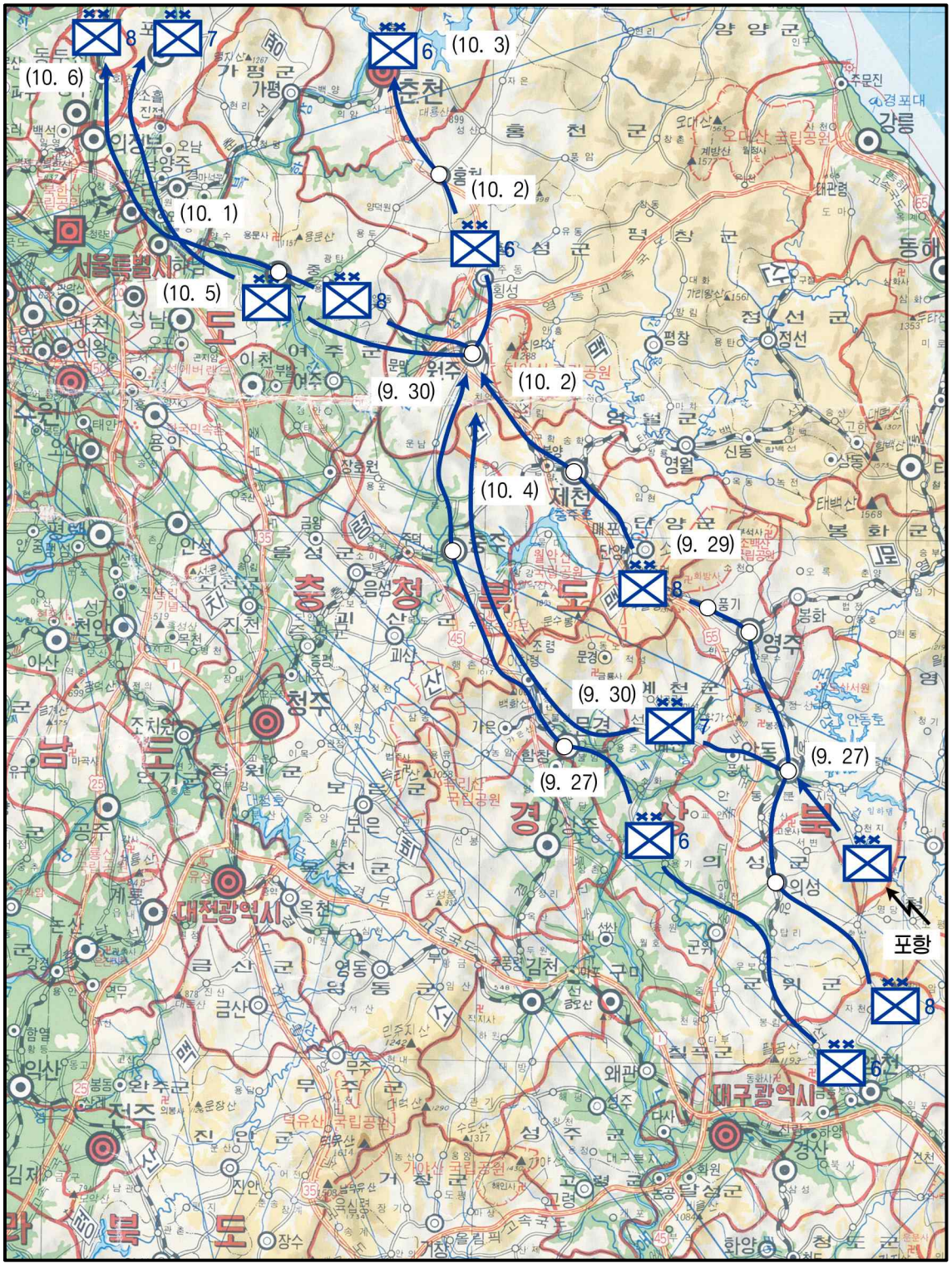
이러한 전황을 판단한 사단장은 즉각 추격작전을 단행, 25일에는 제2연대가 조림산 북쪽의 의흥에, 제19연대가 의흥 북쪽 청로동에, 제7연대가 청로동 북쪽 탑동에 진출함으로써, 사단은 신녕-의성에 이르는 28번도로를 따라 3개 연대가 38도선을 향한 추격작전의 대열에 들어섰다. 다음날 사단은 군위 북쪽 도리원(일명 도원동, 의성 서남쪽 10㎞)으로 3개 연대가 진출하여 집결하였고, 26일에는 각 연대가 도리원을 출발 낙동강변의 쌍오동과 낙산동에 도착, 이곳에서 야간도하를 강행한 후 함창까지 진격하였다. 27일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가 보은과 괴산으로 진출하였으며, 제19연대가 점촌 북방 유곡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와 치열한 격전을 치른 끝에 이를 격파하였고, 제7연대가 문경까지 진출하였다. 이날 사단지휘소가 점촌으로 이동하였다.[119]

추격작전을 전개한 지 5일 만인 27일에 문경까지 진출한 사단은 다음날 제7연대와 제19연대가 이화령을 넘어 계속 진격하여 29일 충주를 확보하였다. 이 때 사단에는 군단을 통해 육군본부의 새로운 작전명령이 하달되었다. 9월 30일 육군본부에서는 작명 제199호를 통해 제6사단에 "제천-주포리(周浦里)-원주 축선을 따라 춘천까지 계속 전진하여 춘천 근방에서 육군본부의 명령에 의하여 차기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120]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연대장 함병선 대령), 제7연대(연대장 임부택 대령), 제19연대(연대장 김익렬 대령) 순으로 원주-춘천 축선으로 진격할 계획하에 추격작전을 전개하였다. 9월 30일 사단은 제2연대가 선봉으로 충주를 출발하여 북한군의 저항을 격파하고 원주에 진입하였으며, 그 중 제2연대의 제3대대(대대장 송대후 소령)가 16:00시경 횡성까지 진출하였다.

제2연대는 이날(30일) 제3대대가 연대 선발대로서 11:00시에 원주에 진출한 후 16:00시에 횡성까지 진출하였으며, 제1대대(대대장 석순천 대위)가 07:00시에 충주를 출발하여 적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24:00시에 원주에 돌입하였고, 제2대대(대대장 문정식 소령)가 08:00시에 광덕리(光德里, 충북 괴산 남쪽)를 출발하여 괴산에 집결한 후 부대정비에 들어갔다.

<상황도 4-15> 국군의 중동부지역 추격작전



제7연대는 제2대대(대대장 김종수 중령)가 이날 07:00시에 충주에서 차량을 이용해 청풍으로 향하던 중 10:00시경 청풍부근의 북한군 패잔병을 소탕하고 청풍일대를 점령, 경계임무에 들어갔다. 그리고 제1대대(대대장 김용배 중령)가 충주에서 부대정비에 있었으며, 연대 예비인 제3대대(대대장 인성관 중령)가 15:40분에 무릉리를 출발하여 16:00시에 충주까지 진출한 후 진격준비를 갖추었다.

사단 예비인 제19연대는 06:00시에 선발대인 제1대대(대대장 허용우 소령)가 11:20분경에 운계리(雲溪里)를 경유, 14:00시에 원주로 진출하면서 80여 명의 북한군 패잔병을 포로로 하였다. 원주 외곽에 집결한 제19연대는 진격을 위한 부대정비와 외곽지대 경계임무를 담당하였다.[121]

동해안의 국군 제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 제2연대는 원주를 떠나 홍천으로 진격하였으며 연대선봉인 제3대대는 횡성-홍천을 경유해 춘천으로 진격하였다. 이날 제1대대는 06:00시에 원주를 출발해 24:00시에 홍천에 진출하였고, 제2대대는 07:00시에 괴산을 출발해 충주까지 진출한 후 부대정비에 들어갔다. 연대선봉인 제3대대는 06:00시에 횡성을 출발하여 10:00시까지 홍천에 진출한 후 계속해서 춘천 방면으로 진격하였다. 제3대대는 진격도중 춘천으로 넘어가는 원창고개에서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았으나 이를 격퇴하고 패주하는 적의 뒤를 따라 춘천시내로 돌입하였다.

한편 제2연대를 후속하던 제7연대와 제19연대도 이날까지 원주로 진출한 후 제7연대가 원주에서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제19연대가 양평 방면으로 진격하였다. 제7연대는 선봉대대인 제1대대가 원주 남쪽 남송 일대에서 북한군 패잔병의 기습을 물리치고 원주에 입성하였으며, 제1대대를 후속해 제3대대가 충주에서 원주로 향했다. 그리고 청풍에 있던 제2대대는 10:00시에 그곳을 출발하여 13:00시에 충주로 복귀하였다. 제19연대는 제2대대를 예비로 원주에 남겨둔 채 제3대대가 06:00시에 원주를 출발해 횡성-용두리(龍頭里, 횡성-양평 중간지점)를 거쳐 16:00시에 양평에 도달하였으며, 제1대대가 문막에서 양평방면으로 진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9연대는 양평과 문막 일대에서 북한군 패잔병 2개 대대와 격전을 벌여 이들을 격파하였다.[122]

이 무렵 북한군 제2군단의 패잔병 2,000여 명이 국군 제8사단에 쫓겨 제천에서 원주에 이르는 신림고개 일대에서 고립되어 있다가 북으로 철수하였는데, 그 철수로상에 위치한 제6사단 전투지휘소와 제2군단 전투지휘소가 습격을 당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중에는 제2군단에 배속되어 있던 미군 5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 패잔병들은 원주에서 1,000~2,000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9월 16일 신녕에서 반격작전으로 전환한 이래 15일 만에 함창-문경-충주를 거쳐 9월 말 원주를 탈환하였으며, 그 후 10월 2일에는 춘천에 도착하여 차후작전에 대비하였다. 이날 13:00시에 제2연대 제3대대가 춘전시내에 돌입함으로써 북한군에게 춘천을 빼앗긴지 약 3개월 만에 원상태를 회복하였다.[123)]

이 무렵 양평 방면으로 우회한 제19연대는 제1대대가 06:00시에 문막 부근에서 저항하는 적을 격파하고 양평까지 진격한 후 제3대대와 더불어 양평 일대를 수색 정찰하였다. 그 후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양평에서 용문--용두리를 경유하여 18:00시에 홍천에 집결하였다. 사단 예비로 원주에 남아 있던 제2대대가 이날 19:00시에 사단사령부와 더불어 홍천에 이동함에 따라 연대 전 병력이 홍천에 집결하게 되었다. 연대예비인 제7연대는 제3대대가 횡성에 진출하고, 제2대대가 원주에 집결한 후 부대 정비에 들어갔으며, 제1대대가 원주 남쪽의 537고지에서 북한군 1개 중대 규모의 패잔병과 접촉해 이를 격파하고 원주로 진격 중이었다.

10월 3일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가 춘천에서 38선 돌파 준비를 하였으며, 제7연대와 제19연대가 제2연대를 후속하였다. 이날 제2연대는 전날 춘천시내에 진입한 제3대대가 춘천 외곽지역의 경계임무를 수행하면서 38선 돌파 준비를 갖추는 동안 제1대대가 14:00시에 춘천에 진출하고, 그 뒤를 이어 제2대대가 홍천에서 춘천으로 향했다. 제2연대를 후속한 제7연대도 연대선봉인 제2대대가 14:50분에 춘천에 도달했으며, 제1대대가 홍천에서 춘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제7연대의 수색중대는 이날 동틀 무렵 38선상의 모진교까지 진출해 북한강 북쪽 고지에 배치된 북한군 1개 소대의 귀순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귀순은 화천 부근의 적정에

대한 첩보수집에 큰 도움이 되었다.[124] 홍천부근의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제19연대는 제3대대를 춘천 방향으로 진격시켰으나 진격로가 협소해 부대간의 혼잡이 가중되자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홍천으로 되돌아 왔다. 이날 제6사단사령부가 홍천으로 이동하였으며, 제2군단사령부가 양평을 경유해 서울의 보성중학교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10월 4일 제2연대가 38선 경계인 모진교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날 제2연대 제1대대는 17:00시에 소양강을 도하한 후 모진교까지 진출해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였으며, 제2대대와 제3대대도 춘천 외곽에 집결하여 38선 돌파를 준비하였다. 제2연대를 후속하는 제7연대는 제1대대가 춘천시내에 집결하여 진격을 위한 부대정비에 들어갔으며, 제2대대가 춘천시내를 감제할 수 있는 춘천 남쪽의 수리봉과 652고지를 점령하고 적 패잔병의 반격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제19연대는 제2대대가 홍천부근의 경계를 담당하는 가운데 제1대대가 가평-춘천간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홍천에서 가평방면으로 진격하였으며, 예비인 제3대대가 연대본부와 더불어 춘천으로 이동해 부대정비에 임하였다. 이날 사단사령부도 홍천에서 춘천으로 이동함에 따라 제6사단의 38선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었다.[125]

2) 의성-동두천 추격작전

(1) 의성-단양 추격전

영천의 제8사단은 보현산을 탈취하고 구산동을 점령하던 날인 9월 22일 "군단의 조공으로 의성-안동-영주 축선을 따라 무제한 공격을 실시하라. 영주를 확보한 다음에는 명에 의거 북쪽 또는 서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추격명령을 수령하였다.[126]

이 명령에 따라 우선 의성을 탈환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국군 제8사단은 9월 23일 제21연대를 정면에서 공격하게 하고, 제10연대를 북쪽으로 우회시켜 적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의성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안동을 포위 공격하기로 계획하

고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8사단에서 파악한 북한군의 동향은 의성과 안동에 각각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으며, 안동읍내에 적 주력이 집결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북한군은 구산동 일대에서 참패를 당하고 패주하면서도 지연전을 펴기 위해 의성 남쪽고지를 점령하고 완강한 저항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국군 제8사단은 9월 24일 제21연대가 연대 전 병력을 돌격제대로 하여 치열한 사격을 가하면서 포연이 자욱한 적진을 정면에서 돌파하고, 제10연대가 의성 동쪽으로 우회하여 북쪽 고지군을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국군 2개 연대가 정면과 후방에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압축해 들어오자 북한군은 퇴로차단을 우려해 급히 북쪽으로 철수하였다. 곧이어 제21연대가 의성읍을 완전히 탈환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이곳 의성전투에서 100톤 이상의 쌀과 물자 그리고 1개 사단이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수많은 장비를 노획하였다. 한편 포로진술에 의해 북한군 제2군단장 김무정이 이곳 의성에서 몇 시간 전까지 권총을 빼어 들고 사색이 되어 패주하는 병사들을 모질게 독전하다가 먼저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127]

의성을 점령한 국군 제8사단은 안동을 공격하기 위하여 9월 25일 낙동강 상류의 안동교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그런데 안동교는 전날에 북한군에 의해 35개 교각 중 중앙부분의 5개가 파괴됨으로써 국군 제8사단의 진격이 지연되었다. 게다가 북한군은 탈출 시간을 확보하고자 국군의 도섭이 예상되는 얕은 수심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이성가 사단장은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집결 중인 적 부대에 대한 집중폭격을 가하고 포병화력으로 지뢰지대를 포격하여 무난히 하천선을 점령하고 도하지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단은 확보한 도하지점에서 제10연대를 선봉으로 하여 도하를 강행하였다. 제10연대는 북한군의 산발적인 포격과 중화기의 집중사격을 받으며 허리까지 차는 물을 헤치면서 신속히 대안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제10연대는 이곳에서 적의 지뢰지대에 봉착하게 되었다. 연대장 고근홍 대령은 지원공병에게 지뢰 제거작업을 실시하게 하여 통로를 개척한

후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곧이어 제21연대와 제16연대 순으로 뒤따라 도하를 감행하여 안동읍내로 돌입하였다. 안동읍내는 유엔군 항공기의 폭격으로 파괴된 적 전차 10여 대와 기타 수많은 차량 등이 버려져 있었다. 국군 제8사단은 북쪽으로 도주하는 북한군 패잔병들과 곳곳에서 시가전과 추격전을 전개하면서 이들을 소탕하였다.

안동 주변의 패잔병들을 소탕하던 사단은 9월 27일 북한군 제8사단이 4,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예천으로 패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21연대를 영주-단양 쪽으로 급속히 우회시켜 죽령을 점령함으로써 그들의 퇴로를 차단 섬멸하고자 하였다. 다음날(28일) 제10연대와 제16연대는 전날 밤부터 진격을 계속하여 09:00시에 영주까지 무난히 진출하였고 이곳에서 지체함이 없이 계속 풍기를 거쳐 죽령 정상까지 단숨에 진격하였으며 전날 이곳에 도착한 제21연대와 합세하였다. 이 때 국군 제8사단은 북상 중인 2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을 포착하고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이들을 포위 공격하였다. 북한군은 잠시 동안 저항을 하다가 분산된 채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이 무렵 홍도진(洪道振) 중위가 지휘하는 공병 제2중대가 영주 남쪽 4㎞ 지점에서 전차를 앞세우고 북상 중인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발견하고 매복 공격을 실시해 57명의 북한군을 생포하고 5대의 전차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128)]

9월 29일 제10연대는 사단의 선봉대로서 단양까지 신속히 진격하여 주변 일대에서 준동하는 1개 중대 규모의 적을 격파하고, 특히 사주경계를 하면서 후속부대인 제21연대와 제16연대의 진출을 엄호하는 한편 부대정비에 임하였다. 이 무렵 사단은 38도선 돌파에 대비한 준비명령인 육본작명 제199호에 의거 "충주-원주-횡성-용두리-양평-양수리-수유리 축선으로 의정부까지 계속 전진하여 부대를 재편, 명에 의거 차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2) 양평-연천 추격전

9월 29일 육본작명 제199호가 하달되자 국군 제8사단장은 제21연대와 제10연대를 공격제대로, 제16연대를 예비로 하여 원주-횡성-용두리-양평-양수리-수유

리선을 따라 의정부 부근까지 진격해 재편성 후 차기작전 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9월 30일 제8사단은 단양을 출발 대강-삼곡-제천을 경유하여 원주 남쪽 신림부근까지 진출하였다. 신림을 지나 원주에 이르는 치악고개는 동북쪽의 남대산(△1,182)과 서쪽의 백운산(△1,087) 줄기의 계곡을 남북으로 통하는 간선도로로서 특별한 경계를 요하는 곳이었다.

사단은 신림에서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 10월 1일 원주로 진격하기 위해 험한 고갯길을 따라 좌우측방의 고지군을 경계하면서 서서히 전진을 시작하였다. 제21연대가 원주에 이르는 관문인 신림고개 마루에 이르렀을 때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과 조우하였다. 이 적은 사단의 좌인접부대인 제6사단이 이미 원주를 점령함으로써 그 퇴로가 차단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야음을 이용하여 원주 북쪽으로 후퇴하기 위한 시간을 얻고자 완강한 저항을 하고 있었다.



원주 신림고개

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제2군단장 유재흥 소장에게 보고하고 신림고개의 남과 북에서 제6사단과 협공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제6사단과의 협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제8사단장은 사단포병을 신림고개 직후방까지 추진하고 그 화력지원하에 제21연대를 신림고개로 진출시켰다. 연대는 이곳에서 북쪽을 향해 2열 종대로 정차해 있는 적 차량 30여대를 노획하였다. 북한군은 도주하면서도 원주를 빠져나갈 시간을 얻고자 진격로 주변의 고지에 소수의 병력을 배치해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에 사단은 포병진지를 신림까지 전진시켜 사단 정면의 적에 대해 포격을 실시하는 동시에 제21연대와 제10연대를 고개 양쪽고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원주를 향해 계속해서 북진시켰다. 북한군은 어둠을 이용하여 원주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국군 제8사단의 공격에 밀려 도주하던 적은 원주를 통과하면서 제6사단사령부와 제2군단사령부를 기습한 후 도주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10월 2일 새벽에 원주시내에 돌입하여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양평을 경유해 서울로 진격하라는 군단 작전명령을 받고 즉시 양평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당시 양평 지역에는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이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국군 제8사단은 제10연대를 양평 동북쪽으로 우회시켜 적의 퇴로를 차단하게 하고 제21연대로 하여금 정면에서 양평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제10연대는 15:00시경에 양평 동북쪽으로 우회하였으나 제21연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피아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진출이 둔화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예비인 제16연대(연대장 유의준 중령)를 투입해 제21연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양개 연대의 공격으로 적은 일격에 격퇴되고 용문산 줄기의 산악지대로 도주하였다.

한편 이날(2일) 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군단사령부에 들러 전날의 작전경과 보고와 아울러 차후 작명을 수령하기 위해 군단장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8사단과 제6사단의 협조된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독 안에 든 2,000여 명의 적을 격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습을 당한 데 대한 언쟁이 있었는데, 이성가 준장은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술회하였다.

"나는 군단참모장 이한림 준장이 '왜 8사단이 좀더 빨리 들어오지 못했느냐?' 고 묻기에 '누가 빨리 진격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적 패잔병의 주력이 신림-원주 사이에 집결되어 발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진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우리 사단에서 무전으로 적정을 보고하고 남북에서 협공을 하고자 하였는데 그 상황을 보고받았느냐?'고 물으니 '보고를 받고 즉시 제6사단장에게 명령하여 신림고갯길 남쪽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6사단의 병력배치는 야간이기 때문에 도로 주변이나 개활지에 배치하여 적을 쉽게 발견하여 격파하여야 하나 병력을 좌우측방의 고지위에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적은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원주를 경유 양개 전투지휘소를 기습해 가면서 북으로 도주하였던 것이다."

10월 2일 양평을 탈환한 국군 제8사단은 이 지역에서 일단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 다음날 중앙선 철로에 연한 도로를 따라 양수리-도농을 거쳐 서울의 미아리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이곳에서 국군 제8사단은 10월 6일까지 3일간 부대정비를 하고 보급품을 보충하면서 38선 돌파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38선으로의 진격에 앞서 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5일에 각 연대장과 사단 참모들을 소집해 "첫째, 각급 부대간의 부단한 통신을 유지하라. 둘째, 진격간의 경계를 철저히 하라. 셋째, 패잔병 처리는 예비대가 담당하고, 장병들의 사기 앙양책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라"는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다.[129)]

제8사단은 미아리에서 3일간의 부대정비를 마치고 10월 6일 의정부를 경유해 동두천으로 진격하였다. 사단은 이곳에서 100일간의 공산치하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동두천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또한 일부 낙오병들과 애국청년들도 조직되어 고립무원의 사면초가 속에서 반공투쟁을 하던 '마차산 유격대'를 비롯한 여러 조직의 유격대원을 만났다. 사단에서는 이들 유격대원들을 모아 사단 특수유격대로 편성 운용하였다.

동두천을 탈환한 제8사단은 10월 7일 제10연대를 선봉으로 하고, 제21연대와 제16연대가 후속하면서 38선 남쪽 2㎞ 지점의 초성리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한탄강의 38교와 철교를 폭파한 상황에서 교량을 중심으로 동서쪽 양

능선 일대에 진지를 구축하고 국군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10월 8일 북한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38선 돌파 공격에 나섰다.

한편 제7사단은 경주에서 군예비로 집결하여 있다가 제6사단과 제8사단을 후속하여 9월 말 문경으로 북상하였다. 이 무렵 사단은 육본명령 제199호에 의거 9월 29일에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었고 수안보-충주-장호원을 거쳐 10월 7일 서울에 도착하였으며 그 다음날 포천으로 이동하여 차후작전을 준비하였다.[130]

5. 동부지역 추격작전

1) 흥해-인구리 추격작전

(1) 흥해-울진 추격작전

동부지역의 추격작전은 국군 제1군단이 돌파작전에 이어 계속 하였는데, 군단은 9월 22일까지 북한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기계-청하선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육군본부에서는 제1군단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 제191호를 하달하였다.

> "제1군단은 주공을 청하(淸河)-영덕-평해 축선을 따라 조공을 인지동(仁旨洞)-천지동(泉旨洞)-춘양 축선을 따라 담당지구 내에서 무제한 공격을 계속 실시하라. 제3사단은 제7사단과 청하선에서 교대시켜 즉시 집결 육군본부 예비대가 되게 하라. 평해와 춘양을 확보한 후,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북방 혹은 서북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131]

육군본부로부터 명령을 받은 제1군단은 대부분 신병으로 구성되어 있던 제7사단을 대신해 제3사단을 주공으로 하고,[132] 기계를 확보한 수도사단을 조공으로 하여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군단은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해안 축선도로와 산간도로를 따라 제3사단과 수도사단을 신속히 진격시켜 지대 내에서 북한

군의 퇴로를 차단, 각개 격파하기로 하고 9월 23일부터 추격작전을 전개하였다.

국군 제1군단의 주공인 동해안의 국군 제3사단(사단장 이종찬[133] 준장)은 9월 22일 청하-평해 축선을 따라 무제한 공격을 실시하라는 작전명령을 수령한 후 동해안의 양호한 7번 도로상에 주력을 지향시켜 신속히 추격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각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 "사단은 제26연대를 선두부대로 그리고 제22연대를 후속부대로 하여 청하-울진간 도로를 따라 신속히 추격하고 제23연대로 하여금 흥해 서쪽 토성동 일대에 집결한 북한군 제5사단 사령부 및 제10연대의 주력을 격파하도록 한 뒤 흥해에 집결, 사단예비가 된다."[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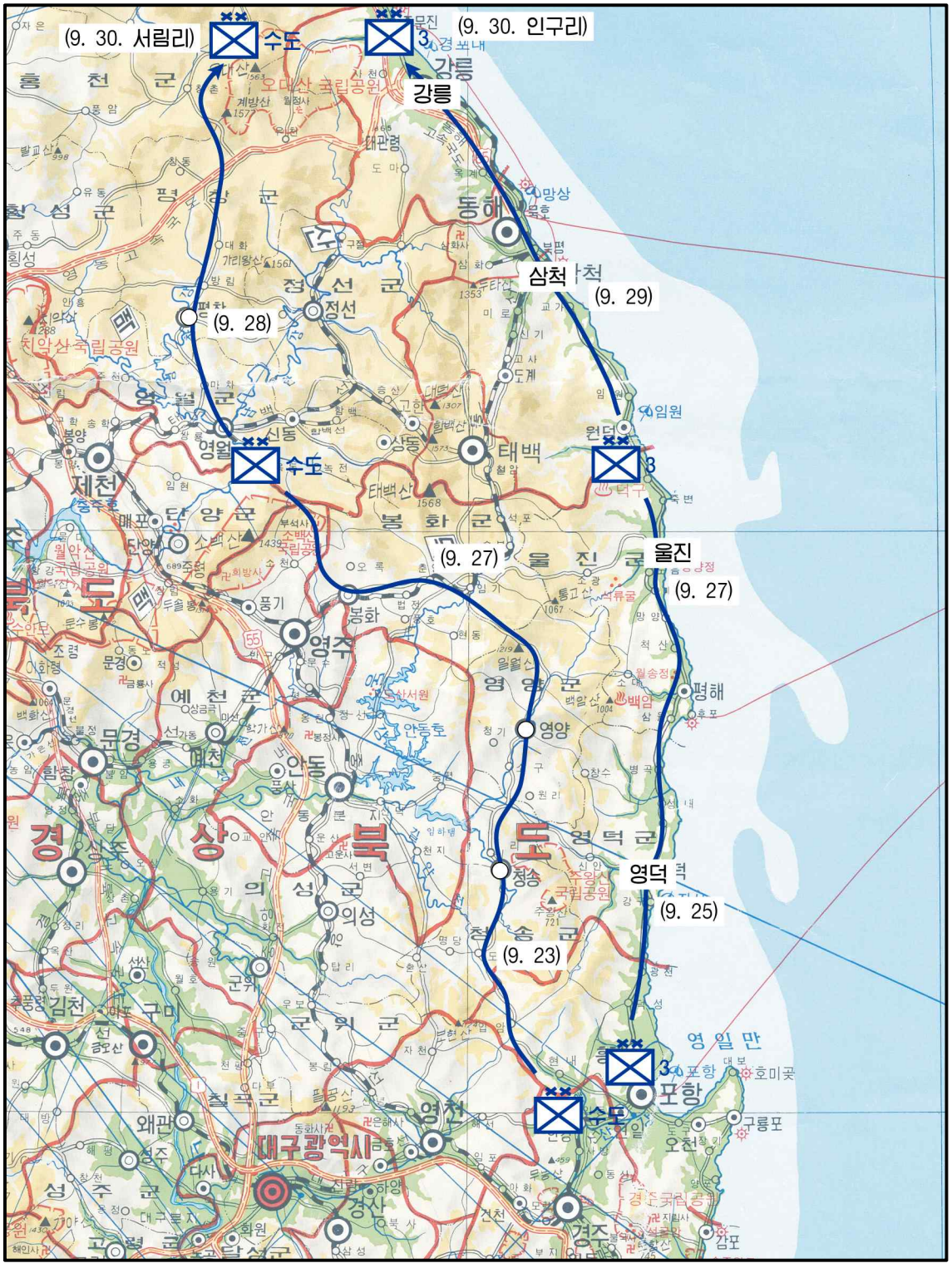
이 무렵 국군 제3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5사단은 지난 1주일 동안 국군의 돌파작전에 의해 거의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고 주력은 동해안 도로를 따라 울진 방향으로 북상하고 그 일부는 흥해 서쪽 비학산으로 잠입하였다.

9월 23일 05:30분에 사단은 제26연대를 선두부대로, 제22연대를 후속부대로, 제23연대를 사단예비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26연대는 동해안 일대에 출몰하는 적의 편의대를 격파하면서 계속 북진하여 청하를 탈환한 후 15:00시에 청하 북쪽 2㎞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제26연대를 후속한 제22연대는 청하 서쪽 고지 일대의 잔적을 소탕하고 18:00시에 청하에 진입하였으며, 예비인 제23연대는 입석동쪽 286고지를 점령하였다.

국군 제3사단의 선두부대인 제26연대는 동해안 도로를 따라 계속 진격해 24일 17:00시에 강구 남쪽 4㎞ 지점인 남호동까지 진출하였으며, 제22연대가 17:00시에 장사동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가 286고지와 입석 일대에서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한 후 흥해로 이동해 흥해초등학교에서 부대를 재편하였다.

남호동에서 부대정비를 마친 제26연대는 25일 06:00시에 남호동을 출발하여 강구를 경유, 영덕을 탈환하였다. 부대가 영덕 시내로 진입하였을 때 시가지는 불바다가 되어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북한군은 황급히 달아나느라고 많은 장비와 무기를 유기하였다. 시내에 버려진 적의 트럭들은 시동이 걸린 채

<상황도 4-16> 국군의 동부지역 추격작전



있었고 야포는 탄약과 더불어 진지에 그대로 있었다. 이 무렵 북한군 제5사단의 병력은 1개 연대 규모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후 이들은 도로를 이용해 후퇴하지 못하고 주변의 산으로 도주하였다.[135]

한편, 사단은 영덕에서 미 고문관의 주선으로 2.5톤 차량 25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동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제26연대는 영덕 탈환 후 제3대대(대대장 은석표 소령)를 영덕에 잔류시키고, 계속 북상하여 영해를 경유해 울진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제22연대는 장사동 서북방 4㎞ 지점의 271고지를 공격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이곳에 투입하고, 주력은 트럭을 이용해 북상시켜 13:00시에 영해까지 진출하였다. 제23연대도 이날 흥해를 출발해 강구-영덕을 경유 영해선까지 진출하였다. 또한 사단은 공병대대를 각 연대에 1개 중대씩 배속시켜 전방에서 지뢰탐지 및 도로보수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사단포병대대를 영덕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경주에 있던 제1군단 사령부도 이날 기계로 이동하였다.

9월 26일 제3사단은 피로가 누적된 제26연대를 대신해 평해선부터 제22연대와 제23연대를 공격 제일선에 투입하였다. 제22연대는 제1대대(대대장 김상균 대위)와 제2대대(대대장 김세락 대위)가 영해에서, 제3대대(대대장 정순민 소령)가 영덕에서 각각 05:00시에 북진을 감행하였다. 제22연대의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제26연대를 초월하여 평해를 통과한 후 계속 북진하였고, 제3대대는 군단 작전명령에 의거해 청송 부근의 공병 1개 소대를 엄호하기 위해 청송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는 제26연대를 초월하여 평해를 점령한 후 13:00시에 평해 뒷산 고지에서 기습을 감행한 북한군과 3시간여에 걸친 격전 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이 교전에서 제23연대는 북한군 80명을 사살하고 82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각종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였다. 이날 사단 포병대대가 울진 남쪽 8㎞ 지점까지 추진되었으며, 군단사령부가 기계에서 청송을 거쳐 진보로 이동하였다.

제26연대를 초월하여 추격명령상의 목표인 평해를 점령하고 계속 북진한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27일 울진을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점령하였으며, 제26연대가 울진외곽선에 진출하고 포병대대가 사단사령부와 더불어 수산리로 이동하였다.[136]

(2) 울진-38도선 진격작전

사단이 목표선을 확보하자 사단장은 강릉을 신속히 점령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적을 섬멸할 계획하에 27일 22:00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명령 제42호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1. 제22연대장은 울진에 집결 중인 2개 대대의 병력을 지휘하여 28일 03:00시에 출발, 울진-삼척-강릉 가도를 급진 당면(當面)의 적을 격파, 강릉에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이 방면의 적을 포착 섬멸하라. 군단 작명에 의하여 청리(靑里)로부터 광문리(廣問里)로 전진 중인 1개 대대를 28일 17:00시까지 울진에 진출하게 하라. 울진 집결 후 사단 수송력으로 강릉에 추진 예정임

2. 제23연대는 사단 예비대가 되라. 1개 대대는 별명(別命)이 있을 때까지 울진 부근과 죽변 부근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경계에 임하라. 잔여병력은 28일 08:00시 삼척-강릉을 향하여 진출하라.

3. 제26연대장은 28일 17:00시까지 전 병력을 울진에 집결 완료, 별명(別命)을 대기하라.

4. 포병대대장은 포병 제2중대를 제22연대에 직접지원하게 하고, 제3중대를 제23연대와 행동을 같이하게 하라. 사단 대전차포중대는 제22연대를 직접지원, 동 연대와 행동을 같이 하라.

5. 공병대대장은 제22연대에 지뢰탐지소대를 배속시키라.

6. 추격부대는 소수의 적에 구애받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북진하라."[137]

이 명령에 따라 28일 제22연대의 제1대대와 제2대대가 울진-죽변선을 돌파한 후 계속해서 삼척으로 진격해 19:00시에 삼척 남쪽 10㎞ 지점까지 진출하였으며, 제3대대가 청송방면으로 진출 중이었다. 제23연대는 제1대대가 죽변에서 부대정비와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주력인 제2대대와 제3대대가 울진으로부터 임원진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사단 예비인 제26연대가 임원진으로 진출 중이었다.

국군의 전 전선에서 작전이 호조를 보여 추격명령에 지시된 목표를 확보하자

육군본부는 9월 29일에 작전명령 제199호를 하달하여 "군이 38도선 남쪽의 지정된 지역에서 재편성하여 북진작전을 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제3사단에게 부여된 임무는 "삼척-강릉 축선으로 주문진까지 전진하여 재편성한 다음 차후명령에 의하여 차기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사단은 전날에 이어 제22연대를 선두로 진격하여 이날 새벽에 삼척을 탈환하였다. 삼척을 점령한 제22연대는 계속 북진하여 묵호를 점령하고 저녁 무렵에는 강릉 남쪽 12㎞ 지점까지 진격하였다. 이어서 제23연대의 주력도 삼척을 지나 묵호에 집결 중이었으며, 사단예비 제26연대 주력도 임원진까지 진출하였다.[138] 이 무렵 북한군은 삼척선에서의 저항을 포기하고 강릉으로 퇴각하였는데, 그 병력은 연대 규모에 불과하였다.

울진에서부터 선봉으로 승승장구 진격해 온 제22연대의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전날 안인진에서 적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9월 30일 08:00시에 강릉 남쪽 6㎞ 지점인 운산리로 진격하였다. 이곳에서 연대는 안인진에 진지를 구축한 포병대대로부터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증원된 제23연대(-)와 협동하여 15:30분에 강릉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수도사단의 제1연대도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진격하였다.

한편, 영덕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출한 제22연대 제3대대(대대장 정순민 소령)는 청송-진보-청리-영양-철암을 거쳐 삼척으로 나와 5일 만에 이날 강릉에서 본대와 합류하였다. 대대장은 기간 중 "산간 협로에서 3,000~4,00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군 패잔병을 추격하여 많은 포로를 획득하였다. 특히 북한군이 박격포 운반 등에 이용하던 말 50여 필을 노획하여 역으로 이를 기마수색대로 편성하여 작전에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고"고 하였다.

강릉 탈환 후 제22연대가 소탕작전을 전개하는 동안 제23연대(-)는 계속 북진하여 이날 20:00시경에 주문진 북쪽 4㎞ 지점의 무명고지에서 북한군 300명과 조우해 23:00시까지 교전하였다. 제23연대(-)는 북한군 진지를 완전히 점령한 후 북한군 22명을 사살하고 20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많은 각종 무기와 장비를 노획하였다. 제23연대(-)는 계속 북진하여 38도선 남쪽 인구리에 진출하였으며 제3대

대의 전초중대는 38도선을 넘어 양양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이 부대가 반격작전 부대 중 국군과 유엔군을 통틀어 가장 먼저 38도선에 도달한 부대였다.

결과적으로 국군 제3사단은 미 해·공군의 지원하에 총 연장 260㎞에 달하는 포항-38선 축선상의 반격작전에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1일 평균 17.3㎞의 경이적인 속도로 진격을 감행하였다. 국군 제3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출신의 전투경험이 풍부한 제5사단이었으나 국군 제3사단의 추격 앞에는 혼비백산하여 태백산맥으로 잠입하거나 양양으로 패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간 중 제3사단의 전과는 사살 1,351명, 포로 230명, 각종 소총 700여 정, 중화기 230여 문(정), 전차 2대, 각종 탄약 등 수많은 장비와 보급품들을 노획하였으며 사단의 손실은 전사 71명, 부상 477명, 실종 2명이었다.[139]

2) 기계-서림 추격작전

(1) 기계-평창 추격작전

국군 제1군단의 조공인 수도사단은 9월 22일 하달된 추격명령에서 "군단의 조공으로 인지동-천지동-춘양 축선을 따라 담당지구 내에서 무제한 공격을 계속 실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단은 이에 따라 "제1연대를 도평동 부근의 적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단의 서측방 구산동으로 우회 전진시키고, 제18연대와 제1기갑연대에게 현 진지에서 적을 압박하면서 정면 추격을 계속하게 한다"는 새로운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무렵 수도사단은 제18연대의 제1대대가 남계동(南溪洞)에 진출하였고, 제2대대가 이래치(移來峙)에서 인비동(仁庇洞)을 목표로 진격 중이었다. 연대 예비인 제3대대는 상이동(上伊洞)에 진출하였다. 제18연대가 지향한 상이동과 인비동 일대는 입암(立岩)-기계 도로의 좌우측을 감제할 수 있는 능선의 아래쪽 기슭으로서 연대 우측에서 기동하는 제1기갑연대의 진출에 매우 중요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 때 제1기갑연대는 지사동(芝柯洞, 기계 북쪽 4㎞)을 점령하고 계속 입암

을 목표로 진격 중이었다. 그리고 제1연대는 단구리에서 부대정비를 완료하고 차량편으로 안강-영천을 경유해 구산동으로 진출하였다.

수도사단은 9월 23일부터 제18연대와 제1기갑연대로써 기계에서 도평동-청송을 향해 계속 추격하고, 그 전날 구산동에 진출한 제1연대는 서북방에서 도평동을 공격하였다. 사단은 정면충격과 우회기동의 전법으로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 일거에 포위 격멸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사단작전 계획에 따라 제18연대는 제1대대가 09:00시경 신당동(新堂洞)에 진출한 후 하천과 연하는 운주산 기슭에 진지를 편성하였으며, 제2대대가 13:00시경 405고지와 602고지를 점령하고 우인접 부대인 제1기갑연대의 진출을 엄호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지사리 북쪽에서 입암을 향해 공격 중이었으며, 제1연대는 도평동으로 진격 중 안덕리 475고지에서 북한군 1개 대대와 교전 후 이를 격퇴하고 계속해서 동북쪽으로 향했다.

특히 이날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긴급문제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38선이란 없다. 이제까지 참아 온 것은 국제관계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38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선언은 38도선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국군의 북진을 강조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전방의 각 연대가 연전연승하고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추격을 계속하자 9월 24일 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기존의 군소고지 점령이나 국부적인 공격 방식을 지양하고 주력부대가 진격로상의 주요거점을 신속히 돌파하면서 오직 38선을 목표로 신속한 추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돌파한 지역의 전과확대에 이어서 잔적을 격멸하는 임무는 모두 후속부대에 맡겨졌다.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대령)는 24일 도평동을 탈취하고 대전동(大前洞)까지 진출하였다. 연대가 신속히 북상을 하자 정면의 북한군 제12사단 주력은 보급품을 적재한 마차 10대와 군마 10필을 남겨둔 채 황급히 북상 도주하였고 미처 후퇴를 하지 못한 패잔병들은 개별적으로 저항을 하다가 태백산맥으로 흩어져 잠입하였다. 제1기갑연대(연대장 백남권 대령)는 임암-도평동에 진출한 후 전과를

확대해 가면서 적을 계속 추격하였으며, 제1연대(연대장 한신 중령)는 안덕리 475고지에서 신읍리를 거쳐 도평동에 진출하였다. 그런데 이날 사단 참모장 이상근 대령과 작전장교 최정택 소령이 도평동 북쪽을 시찰하고 작전을 독려하던 중 대전차 지뢰의 폭발로 인해 전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140]

수도사단은 9월 25일 제18연대가 적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청송을 점령하였으며, 제18연대를 후속해 제1기갑연대가 청송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는 덕천동 북쪽가지 진출하였다. 이날 사단 및 각 연대의 전방지휘소가 청송에 설치되었다. 사단장은 그 동안의 용전분투를 감안하여 제1연대와 제18연대에 부대표창과 상금 5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9월 26일 사단은 제18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추격의 주력부대로 하고, 제1연대를 예비로 하여 작전을 계속하였다. 제18연대는 청송에서 영양을 경유해 춘양 서남쪽 도천리(刀川里)까지, 제1기갑연대는 영양 북쪽 도계동 북방까지 진격하였으며, 제1연대도 영양까지 진출한 다음 부근에서 출몰하는 잔적을 격멸하였다. 한편, 이때부터 사단에는 진격부대의 추격작전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보급로가 신장되어 보급차량의 기동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사단의 선두부대인 제18연대는 27일 05:00시에 도천리를 출발, 12:00시에 봉성을 경유 잔적을 격퇴하면서 19:00시에 춘양까지 진출하였다. 제1기갑연대도 이날 도계동에서 춘양으로 진출하였고, 제1연대도 영양에서 춘양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예하 3개 연대지휘소는 물론 사단, 군단 지휘소도 모두 이곳에 설치되었으며 반격작전이 개시된 이래 비로소 상하 지휘관이 감격적인 회동의 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곳에서 38선 진격을 위한 차기작전 계획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하고 보급추진을 위한 대책도 강구하였다.

이 무렵 사단정면에서 방황하던 북한군 제12사단 및 제5사단의 일부 병력은 영월-대화를 경유해 오대산으로 도주하였고 그 일부는 영월 동북쪽 산악지대에 잠입한 후 산간 민가에 내려와서 식량과 피복 등을 약탈해 갔다.

인천상륙부대가 수도 서울을 탈환하던 9월 28일, 제18연대는 춘양집결지에서 새벽에 차량편으로 출발하여 13:00시에 영월에 진입한 다음 부대정비를 마치고

저녁때에는 평창읍까지 일거에 진출하였다. 이때 평창읍 좌우 고지에서 북한군 3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려 했으나 연대는 야간공격을 감행해 1시간 만에 이들을 격퇴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춘양에서 영월로 진입하였는데 진격도중 67명의 포로와 소총 45정, 사이드카 2대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2) 평창-서림 추격작전

수도사단을 비롯해 전 전선에서 국군의 추격이 가속화되자 9월 28일 육군본부에서는 추격작전의 추가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훈령 제78호를 하달하였다.

> "결전 방향에 계속 부단히 부대를 지향시켜 적이 재편하여 저항할 여유를 주지 말고 직접 압박 및 우회 포위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야간에는 주간보다 일층 더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여 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면서 철저한 공격을 속행하라."[141]

또한 이날 육군본부에서는 훈령 제79호로서 다음과 같은 "38도선 선착부대에 대한 대통령상 수상에 관한 건"을 시달하였다.

> "군은 공세이전을 계기로 하여 기습적인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그 후 10일만에 남북부대가 연결, 합세하였으며 전격적인 진공으로 38도선 돌파는 모첩지간(目睫之間)에 있음. 이에 감(鑑)하여 대통령 각하께서는 38선 선착부대에 대하여 기념장(章) 혹은 표창장을 하사하신다는 유시가 있으니 각급 지휘관은 이 취지를 납득시키고, 영예의 상을 획득하여 부대 전사(戰史)에 찬연한 사적(史蹟)을 기록토록 할 것."[142]

이 무렵 수도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12사단과 제5사단 일부는 계속 패주하여 그 주력이 대화-강릉을 연하는 경강도로를 횡단한 다음 오대산 산악지대를 경유 38도선 이북으로 물러가고 있었으며, 주력의 철수대열에서 이탈한 잔여부대는

대화에서 창촌-현리를 경유해 인제 방향으로 패주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은 9월 29일 육군본부로부터 "평창-대화-창동-창촌까지 계속 전진하여 용포 근방에서 재편,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차기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육본작명 제199호를 수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8연대는 미명을 기해 창평을 출발, 12:00시에 대화를 경유해 19:00시까지 본대가 장평동에 진출하였고, 제1기갑연대가 영월에서 대화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는 영월에 진출한 후 사단 작전지시에 따라 1개 중대가 영월발전소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사단은 이날 제18연대 제1대대(대대장 장춘권 중령)가 평창-대화 진격로상의 산간 계곡에서 휴식과 아울러 식사를 하려던 중에 전화위복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 갑자기 송요찬 준장이 전방상황 파악차 대대에 도착하였다. 사단장이 대대장에게 선공대(先攻隊)가 어디까지 진출했느냐고 묻자 대대장은 대화까지는 채 못 갔는데도 얼떨결에 북쪽으로 5~6㎞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대화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가볍게 답변을 해 버렸다. 대대장은 설마 사단장이 최전방까지는 안 가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단장은 보고를 받고 즉각 차를 대화 방향으로 전환해 급속도로 달려갔다. 얼마 후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대화 못미처 도로에서 후퇴하는 북한군 1개 중대 규모의 병력과 조우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아군의 복장이 가지각색이었으므로 사단장은 이들을 아군으로 오인하고 바짝 다가갔다가 적임이 확인되자 깜짝 놀라 급히 되돌아서는 순간 호위차량의 헌병들이 지프차에 가설된 기관총으로 적을 향하여 사격을 가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당황한 쪽은 적이었다. 그야말로 불시에 기습사격을 받은 적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투항하게 되었고 이어 본대가 진출하여 적병을 모두 포로로 압송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사단은 9월 30일에도 전날에 이어 진격을 계속하였는데, 제18연대는 장평리 북쪽에서 창촌을 경유하여 38선 직후방 서림리까지 진출하였으며, 제1기갑연대도 속사리에서 서림 남쪽 광원리까지 진격하고 있었다. 한

편 제1연대는 평창에서 대화를 경유 속사리까지 이동한 다음 대관령-강릉 방향의 적을 추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143]

수도사단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안강-청송-영양-평창-서림에 이르기까지 태백산맥과 오대산을 연하는 험한 길을 따라 38도선을 향하여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추격작전을 단행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과 제5사단 일부는 최초 안강-기계 부근에서 완강한 방어태세로 역공을 기도하다가 붕괴되자 계속 패주하였고, 사단은 적과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루 40㎞ 이상의 행군도 강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병참선이 길어지고 전진속도가 가속화되기에 이르자 전방부대에 보급 추진하는 후방부대가 오히려 많은 고충을 받기도 하였다.

제 5 절 분석 및 평가

낙동강선 반격작전은 미 제8군 예하의 지상군 4개 군단(국군 2개 군단, 미군 2개 군단)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9월 16일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반격에 나서 23일 방어선을 돌파한 후 9월 30일까지 38도선으로 북진하는 공격작전이었다.

9월 16일부터 시작된 2주간의 전격적인 작전으로 인하여 북한군은 포위되고 돌파를 당하여 붕괴되었으며 북한정권은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북한군 전선사령관과 참모는 김천에서 철의삼각지대로 도주하였고, 제1군단사령부는 조치원에서 해체되어 지휘관과 일부 참모가 태백산맥으로 잠입하였으며, 제2군단사령부는 김화로 이동하였다. 또한 각 사단도 조직이 와해되어 분산 후퇴하였다.

전선에 투입된 부대 중 아군의 포위망을 탈출하여 38도선 이북으로 도주한 병력은 25,000~30,00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낙동강선에서의 반격작전부대에 의해 포획된 9,294명을 포함하여 개전 후 총 12,777명이 포로가 되었고, 나머지 생존자는 지리산, 태백산 등지로 은신하였다. 또한 북한군은 기동로의 차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연료의 고갈로 거의 모든 기동장비를 포기하고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개전초기 북한군의 기습에 의해 국군이 입은 피해보다 더욱더 심각한 인원 및 장비의 손실이었다. 물론 북한군의 해·공군도 기지와 장비가 모두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이와 같은 승리는 전쟁지도부의 완벽한 상황판단과 작전계획의 수립, 절대적으로 우세한 제공권과 재해권의 장악, 지상전에서 미군의 우수한 기동력 등 여러 요소의 결합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요인 중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군의 기동이었다. 당시 국군의 작전지역은 태백산맥의 준령과 그 지맥으로 인하여 기동로가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동장비도 부족하여 보병은

도보로 기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밤낮으로 적을 추격하고 신속히 전진하여 기습을 달성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포위망을 형성하였으며, 기동장비를 보유한 유엔군보다 먼저 38도선을 확보하였다.

반격작전은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북한군의 전력을 파괴하고 전의를 빼앗아 버린 전략·전술적으로 거의 완전한 승리였다. 이는 기습·기동·공세·목표·집중·지휘의 통일 원칙은 물론 정보·창의·사기의 원칙 등 여러 전쟁원칙이 골고루 적용된 작전의 결과였다.

낙동강선 반격작전을 국군과 유엔군의 부대 운용과 작전계획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작전기동목표인 서울은 북한군의 보급로 및 퇴로차단에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서울의 탈환이 한국민에게 줄 심리적 효과는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은 전쟁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하고 결정적인 목표로서 적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추격작전 시 기동속도 경쟁에 열중한 까닭에 추격부대가 퇴각하는 북한군을 앞지르게 되어 북한군이 후속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즉 국군과 유엔군은 추격작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북한군 부대를 포착·섬멸하는 데 소홀히 함으로써 북한군에게 제2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개전 이래 계속해서 수세에 몰려있던 국군과 유엔군은 과감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배후를 공략하는 동시에 낙동강선에서 반격을 실시하여 일거에 주도권을 확보하고 행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주도권을 확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공세행동이 가장 효과적이며 결정적임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유엔군사령관은 결정적인 장소에 병력을 집중하기 위해 미 제10군단을 새롭게 편성하여 상륙부대로 선정하고 낙동강전선에 있던 미 해병사단과 국군 제17연대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계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던 낙동강전선에서의 병력차출이었기 때문에 병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모험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지점에는 과감히 전투력을 집중하고 기타의 장소에는 필수적인 최소의 전투력을 할당하라는 집중의 원칙에서 보면 훌륭하였다고 평가된다. 결국

병력차출 등의 문제로 미 제8군의 공세이전에 약간의 곤란이 있었지만 낙동강방어선은 건제하였고, 미 제8군도 공세로 전환하여 작전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넷째, 기동성은 적의 취약한 지점에 대해 병력을 집중하고 그로 인해 전략적 약점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동의 원칙에서 보면 유엔군은 상륙부대인 미 제10군단을 우세한 상륙수송력으로 작전 개시일에 인천에 집중시키는 기동성을 발휘했으며, 낙동강선에서는 추격을 개시한 지 5일 만에 미 제10군단과 오산에서 연결에 성공하고 전 부대가 9일 만에 38선에 도착하는 놀라운 기동성을 발휘했다. 즉 유엔군의 반격작전은 기동의 원칙에 포함되는 세 가지 요소인 기동성, 이동성, 작전 및 계획의 융통성을 잘 활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지휘통일의 원칙으로 유엔군은 상륙군사령부를 편성하고 제10군단을 창설함으로써 상륙부대에 대한 지휘의 단일화를 이룩하였고, 기간 중 북한군의 돌파 저지에 분주한 제8군에서도 병력을 차출하여 인천상륙에 전용하는 등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모든 노력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휘면에서 본다면 제8군은 그동안 과중했던 지휘체제를 개선하여 제1군단과 제9군단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제9군단은 반격 시까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제1군단이 주공을 담당해야 하나 공격부대의 군단장으로는 제9군단장인 밀번 소장이 적합한 인물로 판단되었기에 군단장을 상호 교대하게 되었다. 작전개시 직전의 지휘관 교대는 개인의 명예와 감정에 관계되는 문제로 작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작전을 위해 결단을 내린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나 이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은 콜터 소장의 인품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반격작전은 기습의 원칙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속한 기동력을 이용한 과감한 공세작전으로 주도권을 확보하여 전쟁발발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추격과정에서 북한군 부대의 포착과 섬멸을 다소 소홀히 함으로써 북한군에게 제2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차후에 국군과 유엔군의 부대 운용에 차질을 빚게 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집필 : 박동찬)

주 (註)

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1986, pp. 545-546. 러 국방부 편/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오비기획, p. 67에 의하면, "1950년 9월 15일 현재 북한군은 13개 사단, 전차 40대, 포 및 박격포 811문을 보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북한군의 주요 지휘관 및 전선상황에 대해서는 제2장 제2절 '전선상황' 참조.
2) 러 국방부 편/김종국 역, 위의 책, p. 66.
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435.
4)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47.
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p. 435-436.
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3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42-544.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1971, pp. 22-23.
8) 1950년 8월 말~9월 중순까지 국군 제1사단이 치룬 전투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낙동강선 방어작전』 5, 2008, pp. 105-188 참조.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1971, p. 147.
10) 당시 제15연대에는 제11연대 제1대대(대대장 김소 대위)가 배속되어 있었다.
11) RG 407, Entry No.429, Box1488, Historical Report, G-2 Section Ⅰ Corps(1950. 9. 15), NARA ; After Action Report, G-3 Section Ⅰ Corps(1950. 9. 25), NARA.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148.
13) 육군본부, 「제1사단 제15연대 전투상보」, 『한국전쟁사료』(45), pp. 594-600.
14) 육군본부, 「제1사단 제15연대 전투상보」, 『한국전쟁사료』(45), p. 600.
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150.
16) RG 407, Entry No.429, Box1488, Historical Report, G-2 Section Ⅰ Corps(1950. 9. 18), NARA.
17) RG 407, Entry No.429, Box1488, Historical Report, G-3 Section Ⅰ Corps(1950. 9. 25), NARA.
18) RG 407, Entry No.429, Box1488, Historical Report, G-3 Section Ⅰ Corps(1950. 9. 26), NARA.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p. 201-203.
20)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61-562.
2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47 ; 러 국방부 편/김종국 역, 앞의 책, p. 67.
22) RG 407, Entry No.429, Box1488, Historical Report, G-3 Section Ⅰ Corps(1950. 9. 15), NARA.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205.
24) RG 407, Entry No.429, Box1488, Historical Report, G-2 Section Ⅰ Corps(1950. 9. 17), NARA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p. 203-205.
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205.
2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205.
27) RG 407, Entry No.429, Box1488, After Action Report(1950. 9. 12~9. 19), G-3 Section Ⅰ Corps(1950. 9. 25), NARA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41.
28) 1st Cavalry Division War Diary (1950. 9. 19), HQ 1st Cavalry Division, RG 407, NARA.

29) 1st Cavalry Division War Diary (1950. 9. 19), HQ 1st Cavalry Division, RG 407, NARA.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207. 야영 준비 중에 제7기병연대 제1대대장 클레이노스 중령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하였다.
31) 1st Cavalry Division War Diary (1950. 9. 20), HQ 1st Cavalry Division, RG 407, NARA.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208.
33) 1st Cavalry Division War Diary (1950. 9. 21), HQ 1st Cavalry Division, RG 407, NARA.
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208. 9월 21일 날이 밝은 직후에 이학구는 다부동 남쪽 6㎞ 삼산동 부근의 도로변에서 잠자던 제8기병연대 소속 병사 2명을 깨움으로써 투항의사를 밝혔다. 그는 일본에 가서 심문을 받은 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귀순자 중 최고위급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순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으며, 포로수용소에서 친공포로의 지도자로 변신, 폭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북으로 송환 후 숙청되었다(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484).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209.
36) 한국방송공사, 다큐멘터리 「한국전장」(상), 1991, pp. 288-291.
3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p. 444-445.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p. 220.
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p. 210-211.
40) 제5연대전투단 제1대대가 금무봉을, 제2대대가 약 5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는 141고지를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01:45분경 제2대대는 북한군 정찰대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RG 407, Entry No.429, Box1488, Historical Report, G-2 Section Ⅰ Corps(1950. 9. 18)), NARA.
41) RG 407, Entry No.429, Box1488, After Action Report(1950. 9. 12~9. 19), G-3 Section Ⅰ Corps(1950. 9. 25), NARA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41.
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223.
43) RG 407, Entry No.429, Box1488, Historical Report, G-2 Section Ⅰ Corps(1950. 9. 19), NARA.
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p. 219-220.
4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p. 225-227.
4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455.
47) War Diary 2d Infantry Division(1950. 9. 16), RG407, NARA.
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p. 234-235.
49) 이날 미 제23연대는 북한군을 추격해 야포 13문, 대전차포 6문, 박격포 4문을 노획하였으며, 제38연대도 야포 6문을 노획하였다.
50) War Diary 2d Infantry Division(1950. 9. 18), RG407, NARA.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236.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236.
52) War Diary 2d Infantry Division(1950. 9. 20), RG407, NARA.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237.
53)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27, War Diary 2d Infantry Division(1950. 9. 20), RG407, NARA.
54) Operation Order No. 6, War Diary 2d Infantry Division(1950. 9. 20), RG407, NARA.
55) 9월 21일 09:05에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전날 207고지를 점령한 L중대원들이 아침 식사를 할 무렵, 기습공격을 가하였다. 이 공격으로 L중대에서는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어쩔 수 없이 고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제23연대 제3대대는 연대 공격 명령시간인 12:00시에 고지 탈환

을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Periodic Operation Report No. 141, War Diary 2d Infantry Division(1950. 9. 21), RG407, NARA).

56) Periodic Operation Report No. 141, War Diary 2d Infantry Division(1950. 9. 21), RG407, NARA.

57) Operation Order No. 7(1950. 9. 22. 15:00), Periodic Operation Report No. 144, War Diary 2d Infantry Division(1950. 9. 22), RG407, NARA.

58) Periodic Operation Report No. 144, War Diary 2d Infantry Division(1950. 9. 22), RG407, NARA. 미 제2사단은 당시 84.2m의 교량자재 밖에 없었으나 사등(沙嶝) 나루터에 122m의 도보교량을 완성하여 진격부대의 보급지원에 크게 공헌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p. 238-239).

59)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68-569.

60) 미 제27연대 A중대에서만도 24시간 동안에 57명의 사상자를 내는 형편이었다.

6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p. 244-245.

62) 이날 북한군이 A중대 참호 속에 수류탄을 던져 미군 사병 2명이 죽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63)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71.

64) 미 제8군 사령부는 추격을 지휘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해 이날 16:00시 대구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65) 당시 제25수색중대는 배둔리에서 남쪽 해안선을 따라 제27연대의 사이로 전진하고 있었다.

66)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육본작명 제180호(1950. 9. 13)」, 『한국전쟁사』 제4권, pp. 765-768.

67) 「제2군단 작명 제44호(1950. 9. 16)」,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제4권, p. 124.

6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p. 124-125.

69) 제2군단 작명 제44호(1950. 9. 16), 제2군단 작명 제45호(1950. 9. 17).

70) 이 무렵 우인접 사단인 제8사단은 21일 16:00시경에 제21연대가 구산동 남쪽 3㎞까지 진격했지만 고평동(구산동 동북쪽 4㎞)쪽에서 증원된 2,000명의 북한군과 사투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좌인접 사단인 제1사단은 제11연대가 전날인 21일에 장군동(다부동 북쪽 7㎞)과 거매동(장군동 동북쪽 3㎞)까지 진격 중이었다.

71)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육본작명 제180호(1950. 9. 13)」, 『한국전쟁사』 제4권, pp. 765-768.

7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53.

73)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육본작명 제180호(1950. 9. 13)」, 『한국전쟁사』 제4권, pp. 765-768.

74) 당시 형산강은 9월 초부터 연일 계속된 강우로 인해 병력의 도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폭은 하구에서 400m였고, 양안을 연결하는 형산교 부근에서는 200m였으며, 좌측 형산고지 부근은 100m였다. 사단장은 우선 형산 부근과 형산교를 이용한 도하계획에 역점을 두었지만 강의 북쪽제방에 적의 견고한 참호 및 교통호가 구축되어 있고, 후방고지에 적 주력이 배치되어 제방 부근의 적 진지를 직접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전면 동시 도하에 앞서 우선 일부 병력을 강행 도하시켜 대안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한 후 주력을 건너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이 형산교는 제3사단이 9월 5일 형산강 남안으로 이동한 후에 제1군단장 김백일 준장의 지시로 폭파하였지만 다행히도 파괴된 경간의 일부가 연결되어 있어 일렬종대형의 전진은 가능하였다. 문제는 교량 북단에 구축한 적 토치카로 국군이 전진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이곳보다는 형산교 부근의 나루터를 이용해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강행 도하할 경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

7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군 제3사단 작명 제38호(1950. 9. 16)」, 『한국전쟁사』 제4권, pp. 799-800.

76) 제23연대의 공격제대인 제1대대(대대장 김우영 소령)의 1개 중대 중 일부가 17:00시에 형산강을

도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안의 북한군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고, 또 적 후방고지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병력의 손실을 고려한 나머지 철수하였다.

77) 1차로 소대규모의 특공대가 형산교를 이용해 도하를 감행하고, 2, 3차로 선박을 이용해 도하를 감행시켜 이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78) 도하부대에 대한 실탄과 수류탄 등 탄약보급의 애로는 도하시의 고전에 못지않게 커다란 문제를 던져 주게 되었다. 당시 작전장교 겸 제2대대장의 대리근무를 맡고 있었던 강성희 중위는 "아군의 도하를 감제하고 있던 적의 후방고지로부터 집중화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병들이 실탄과 수류탄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건너다가 적탄에 맞아 떠내려가고 하기를 수차례 거듭하였는데, 그때마다 용감한 병사들의 자원도하자가 속출한 것은 지금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회고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53).

79) 김판산 소위의 증언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54 참조.

80) 수도사단 각 연대 정면의 북한군 배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1연대(연대장 한신 중령) 정면인 양동 후방고지 일대에 제5사단 제10연대가,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대령) 정면인 갑산리 후방고지 일대에 제12사단 1개 연대가, 제1기갑연대(연대장 백남권 대령) 정면인 344고지 및 무릉산(△459) 일대에 제12사단 2개 연대가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p. 78-79.

8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82.

8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제26권, p. 44 ;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72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p. 10-11.

84)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73.

85)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육본작명 제191호(1950. 9. 22)」, 『한국전쟁사』 제4권, p. 769.

86)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88.

87) 1st Cavalry division, War Daily, 1950. 9. 26.

88) 기존 전사에는 "린치특수임무부대가 15:45분에 최초 도하지점인 선산에 도착하기 전에 연락기로부터 낙동리 도하지점으로 계속 북상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바 있어 이를 대구의 사단장에게 보고하였으며 18:00시에 확인 통보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57). 그러나 제1기병사단 9월 22일자 전투일지(War Daily)에는 선산에서 야영 준비 중 변경된 이동 명령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1st Cavalry division, War Daily, 1950. 9. 22). 여기서는 제1기병사단 전투일지의 내용을 따른다.

89) 1st Cavalry division, War Daily, 1950. 9. 22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제4권, p. 211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57.

90) 1st Cavalry division, War Daily, 1950. 9. 23.

91)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 592-593.

92) 1st Cavalry division, War Daily, 1950. 9. 26.

9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구전쟁사』 제4권, pp. 213-214.

94) 1st Cavalry division, War Daily, 1950. 9. 27.

9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총반격작전기』, pp. 214-215.

9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62.

9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63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p. 231-232.

9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평양탈환작전』, 1985, pp. 87-88.

99) 국군 제1사단의 추격작전에 대해서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p. 159-166

참조.

100) 미 제9군단은 1950년 8월 10일 미 일리노이주 포트 세리단(Fort Sheridan)에서 재창설되었다. 9월 5일 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이 장교 18명과 사병 1명을 대동하고 한국으로 향했다. 밀번 군단장은 9월 11일 미 제8군사령부 특별명령 제49호에 의거 제1군단장으로 보직이 전환되고, 제1군단장이었던 쿨터(John B. Coulter) 소장이 제9군단장에 부임하였다. 제9군단은 밀양에 사령부를 두고 9월 23일 14:00시부로 작전을 개시하였다(Historical Narrative, Ⅸ Corps War Diaty (Sep. 1950), RG407, Entry No.429, Box 1760, NARA).

101) 미 제9군단과 관련한 제8군 작명 제101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사단은 합천-거창-안의 축선을 따라 지역내에서 무제한 목표 공격을 수행하고, 거창-안의를 확보한 후 전주-강경으로 계속 진격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제25사단은 진주를 확보한 후 명령에 따라 서쪽 또는 북서쪽으로 기동할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Hq. Eighth Army, Operation Order No. 101, 22 September 1950).

10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 580.

103) Roy E. Appleman, 위의 책, p. 580.

104) 미 제23연대 제3대대는 9월 26일 안의마을에서 숙영하고 다음날 새벽녘에 출발 준비를 하던 중 사방(四方)의 고지로부터 박격포 공격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발이 지휘소에 명중해 부대대장을 비롯해 대대참모 6명이 전사하고 대대장을 비롯해 장병 25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10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p. 465-466.

1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p. 242.

107) Hq. Eighth Army, Operation Order No.101(1950. 9. 22), RG407, Entry No.429, Box1760, NARA.

108) Historical Narrative, Ⅸ Corps War Diaty(Sep. 1950), RG407, Entry No.429, Box 1760, NARA.

109) 미 제35연대가 진주고개를 점령할 무렵, 토만특수임무부대는 급진하여 남강에 가설된 유일한 교량인 진주교를 점령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토만특수임무부대는 지뢰를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적의 진주교 폭파를 막아내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토만 대위도 중상을 입었다.

110) Hq. Ⅸ Corps, Operation Order No.2(1950. 9. 24), RG407, Entry No.429, Box1760, NARA.

111) 매튜스특수임무부대는 토만(Torman)특수임무부대의 후신이었다. 토만특수부대의 지휘관 토만 대위가 중상을 입고 후송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매튜스 대위가 부임함으로써 매튜스특수임무부대가 되었다.

11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p. 466-467.

113) 돌빈특수임무부대는 제89전차대대의 A중대와 B중대, 제35연대의 B중대와 C중대를 혼성하여 2개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는 1개 전차중대와 1개 보병중대로 구성하였다. 전차중대장이 각 팀을 지휘하였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p. 249).

114) 일본육전사보급회 편,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 개입』 5, 1987, pp. 132-133.

115) 이들 포로들은 미 제19연대 제3대대 소속 장병들로 대부분 보행능력이 없었고, 더러는 부상을 입고 있었다.

116) 돌빈부대는 29일 금강선까지 진출한 후 15:00시를 기해 해체되었다.

1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p. 252-253.

118)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육본작명 제191호(1950. 9. 22)」, 『한국전쟁사』 제4권, p. 769.

11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p. 475-476.

120)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육본작명 제199호(1950. 9. 30)」, 『한국전쟁사』 제4권, p. 770.

1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 133.

122) 제3대대가 양평부근에서 북한군 패잔병 1개 대대와 교전해 이를 물리치고 양평읍내를 탈환하였으며, 제1대대가 문막-양평간 중간지점에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 135).
123) 제3대대가 춘천시내로 돌입할 무렵 제1대대는 홍천부근의 수색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연대 예비인 제2대대는 원주에서 홍천으로 이동 중이었다.
124) 제7연대 수색중대는 10월 3일 동이 틀 무렵 소양강을 건너 북한강의 모진교까지 진출했다. 모진교 북쪽에 배치되어 있던 북한군은 흰 천으로 "환영, 유엔군, 국방군", "이승만 박사 만세", "우리는 적이 아님, 건너오시오", "총부리를 북쪽으로 돌리자"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국군에 귀순할 것을 표하였다. 수색중대장은 즉시 중대원을 북한강 북쪽 고지로 진격시켰다. 적 소대장(소위 이경남, 북한군 제26여단 중화기 제3대대 제1중대 제3소대)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소대원 전원이 귀순한다고 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 137).
12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p. 138-139.
126) 『육군본부 작명 제191호』, 1950. 9. 22.
12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77.
1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p. 109-110.
1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p. 115-116.
13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80.
131)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육본작명 제191호(1950. 9. 22)」, 『한국전쟁사』 제4권, p. 769.
132) 제7사단은 8월 20일 대구에서 재편한 부대로서 대부분 신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사단과 교대하지 못하였고, 9월 22일부로 하달된 제1군단 작전명령 제101호에 의거해 경주에서 안강으로 이동하였다.
133) 이종찬 제3사단장은 9월 20일 준장으로 승진했다.
13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p. 57-58.
135) 북한군 제5사단의 한 연대장은 트럭 3대 분의 탄약과 식량을 부하들에게 분배하고 유격전을 준비하게 하였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 59).
1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p. 60-61. 9월 27일 제1군단사령부는 진보에서 춘양으로 이동하였다.
1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제3사단 작명 제42호(1950. 9. 27)」, 『한국전쟁사』 제4권, pp. 800-801.
138) 죽변리에 주둔하고 있던 제23연대 제1대대는 예하 2개 중대를 춘양 방면으로 진출시켜 그 일대에 출몰하는 잔적을 소탕하게 하였다, 한편 제26연대는 제1대대와 제2대대가 임원진에 제3대대가 죽변리에 각각 집결하였다.
13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p. 470-471.
14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p. 84-87.
141) 『육군본부 훈령 제78호』, 1950. 9.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 89 재인용.
142) 『육군본부 훈령 제79호』, 1950. 9. 2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p. 89 재인용.
14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474.



제 6 장 압록강과 두만강으로의 진격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작전 계획
제 3 절	서북부와 동북부 지역의 진격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압록강과 두만강 진격작전은 크게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2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유엔군사령부는 9월 27일 하달된 훈령에 따라 작전지역을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동서로 양분하고, 서부지역은 주공으로서 미 제8군이, 동부지역은 조공으로서 미 제10군단이 북쪽으로 진격하여 정주-군우리(軍隅里)-영원-함흥-흥남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며, 이 선 이북지역에 대한 작전은 국군이 전담하는 북진계획을 10월 2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명령의 특징은 동부지역에 투입될 미 제10군단을 미 8군에 배속하지 않고 유엔군사령부가 직접 통제한 것이며, 미 제10군단으로 하여금 원산상륙작전을 감행하여 북진작전을 조기에 종결시키려고 한 것이었다.[1)]

이 결과 미 제8군과 10군단은 지휘체제의 분할로 상호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이 지연됨으로써, 미 8군의 진격작전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조기에 점령할 수 있으리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만 유엔군보다 먼저 북진을 개시한 국군의 진격에 따른 북한군 방어태세를 확인하는 한편, 중공과 소련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엔군사령관은 10월 17일 미 제8군이 평양 부근까지 진격하였을 때, 유엔군의 진출한계선을 한·만 국경선에서 남쪽으로 48㎞~64㎞ 떨어진 지점을 연결하는 선천-고인동(古仁洞)-평원-풍산-성진선(일명 신맥아더선)으로 이동시켰으며, 10월 24일에는 이 한계선마저 철폐하여 국군과 유엔군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지상군부대들이 가용한 최대한의 전투력을 동원하여 한·만 국경선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21일부터 총진격작전을 전개한 끝에, 10월 26일에는 박천-태천-운산-온정-희천-이원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는 마침내 한·만 국경선상의 초산까지 진출하고 압록강변에 태극기를 꽂았다. 이때가 1950년 10월 26일 14:15분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하루 앞선 10월 25일, 국군 제1사단과 제3사단은 운산 북쪽과 함흥 북쪽 수동에서 각각 중공군 1명을 최초로 사로잡은 데에 이어, 다음날에는 국군 제2군단 정면에 수 미상의 중공군이 출현하여 치열한 교전을 치르게 됨으로써 중공군의 개입이 처음으로 전장에서 확인되었다.

본 장에서는 동·서부지역을 망라하여 1950년 10월 24일까지의 진격작전을 주로 기술하였다. 10월 25일 이후의 추수감사절공세 및 크리스마스공세는 제7권에서 다룰 예정이다.

제 2 절 작전 계획

1. 유엔군의 북진작전계획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제8군이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하던 10월 15일 웨이크섬(Wake島)에서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과 전략회담을 가졌으며, 여기에서 그는 한국전쟁의 승리를 낙관하며 "추수감사절 안에 적의 공식적인 저항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군은 유엔군을 맞아 집요하게 저항하고 있으나, 이는 체면유지를 위한 노력에 불과할 뿐이며 적군은 겨우 10만 명이 남아 있으나 그나마도 훈련, 장비, 지휘계통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또한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그는 "거의 없다", "중공이 효과적으로 개입할 시기를 놓쳤다"고 말하였으며, 유엔군이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군이 평양까지 진출하는 데는 막대한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2)]

맥아더 장군은 웨이크도 회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은 평양탈환과 함께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10월 17일 당시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에 기초하여 평양 탈환 후에 적용될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4호(1950. 10. 17)를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서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의 북진 한계선을 서해안 선천에서 북동쪽으로 호를 그리며 동해안 성진에 이르는 새로운 목표선으로 상향 설정하고, 미 제8군은 전선의 좌측 선천-청산장시-회목동-고인동-평원-덕실리 방향으로 기동하며, 미 제10군단은 우측 덕실리-풍산-성진을 향하여 진격하도록 하였다. 이 명령은 20일부로 유효하였다. 이 선은 전의 정주-함흥선보다 48㎞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서 한·만 국경선까지는 대체로 48~64㎞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선 북쪽으로는 국군만이 작전하도록 하였다.

그는 이에 하루 앞서 10월 16일에는 미 제10군단을 유엔군사령부 예비로 독립적으로 운용하되 동북부지역에서 작전하는 모든 미군과 국군을 작전지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10월 20일자로 국군 제1군단의 작전통제권이 미 제8군으로부터 미 제10군단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예비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숙천(肅川), 순천(順川) 부근에 투하할 것을 제8군사령관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에서는 작명 제221호를 하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은 북진을 계속하여 회목동-덕실리 선을 점령, 확보하고 지역내 적을 섬멸하려 한다.

제1군단 : 1950년 10월 20일 12:00부로 육군본부의 지휘 하로부터 해제되어 미 제10군단에 배속한다. 차후작전에 있어서는 미 제10군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제2군단 : ① 제7사단을 즉시 삼등으로 집결시키고 삼등 집결 완료와 동시에 제2군단 지휘 하부터 해제, 육군본부 지휘 하에 들어가게 하라(제8군 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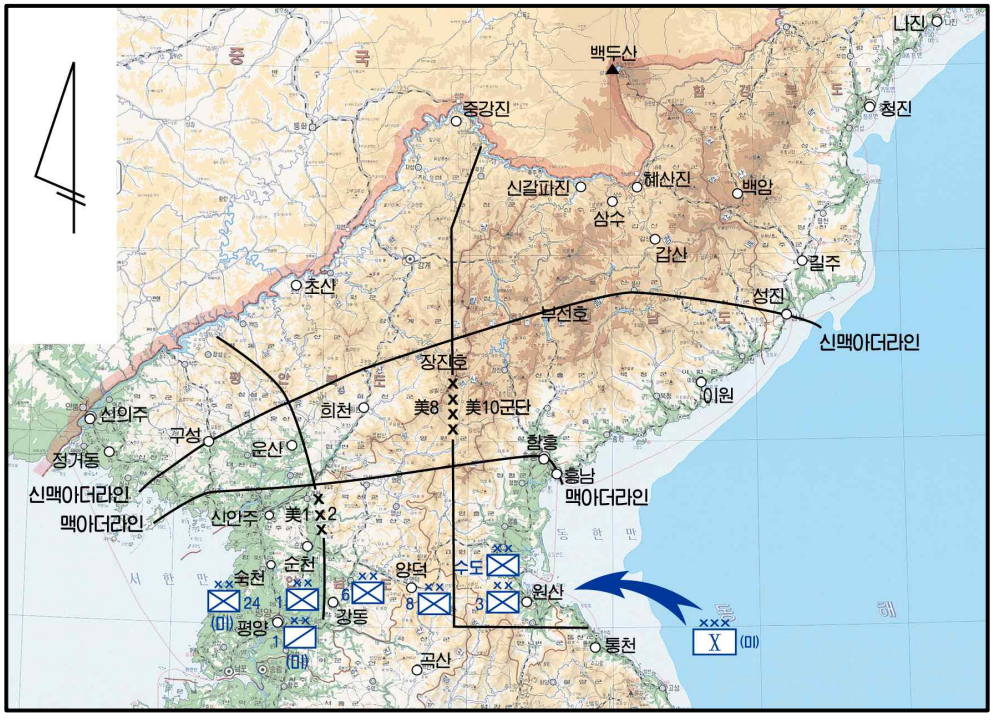
② 담당지역내의 목표선 "A"[3]를 점령, 확보하고 차후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제3군단 : 경찰과 협력하여 담당지역 내 잔적을 소탕하라.』

국군 제3군단은 당시 신편된 제5사단('50. 10. 8. 재창설)과 제11사단('50. 8. 7. 창설)을 배속받아 10월 16일에 창설되었으며, 국군의 후방지역, 즉 인제-양양에서 서울-춘천 남쪽까지의 후방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하며 북진작전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명령에 의거 평양점령 후 10월 20일에는 숙천·순천 공수작전, 21일에는 서부에서 미 제8군이, 동부에서는 미 제10군단(국군 제1군단)이 선천-성진을 연하는 맥아더 라인을 향하여 진격을 계속하였다.

<상황도 6-1> 유엔군의 한·만 국경선으로 북진 작전계획



원산 교두보는 당초 미 제8군 주력이 38도선을 돌파한 후 1주일내에, 미 제10군단이 원산에 상륙하여 점령, 확보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위한 승선도 완료되기 전인 10월 10일에 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먼저 점령함으로써 동북부지역 작전계획에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원산교두보는 국군 제1군단의 임무로 전환되었고 미 제10군단은 후에 행정적 상륙을 하여 양개 군단이 낭림산맥 이동의 동북부지역 북진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정된 계획에 따라 국군 제1군단은 육군본부로부터 '미 제10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원산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변, 용포리, 용탄리 및 용탄강 입구를 주저항선으로 하고, 영흥을 확보하며, 영흥, 정평, 함흥 및 파춘장, 흥남 축선을 따라 진격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1군단장은 영흥선에서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전선을 정리하기로 하고, 10월 15일에, "제3사단은 원산과 그 부근 일대를 경계하는 동시에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지원하라. 수도사단은 영흥→정평→함흥 및 파춘장→흥남 축선을 따라 진격하여 적을 섬멸하라"[4]는 작전명령을 양개사단에 하달하고 원산교두보 확보작전을 전개하였다.

10월 17일, 함흥과 흥남을 점령함으로써 원산 및 동한만 교두보가 확보될 무렵 맥아더 장군의 유엔군 북진한계선이 선천-성진선으로 상향조정되고, 20일부터는 국군 제1군단이 미 제10군단의 통제 하에 들어가 작전을 실시하게 됨과 아울러 이날 군단에 '국경선까지 진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국군 제1군단의 북진작전은 원산교두보를 발판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수가 있었다.

2. 유엔군의 총 공격명령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8군의 주력이 청천강을 도하하고 동부에서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이 임박해지고 있을 때, 맥아더 장군은 10월 24일 미 제8군사령관과 미 제10군단장에게 "휘하의 전 부대를 동원하여 최대한의 속도로 국경선까지 진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그는 1주일전(10. 17)에 설정한 진출제한선도 단순한 최초목표에 불과하며 국군만이 그 목표선 북방에서 작전할 수 있다는 제한도 적이 항복할 경우에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항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결정이 「9·27 훈령」에 부합되는지 그 여부를 놓고 미 합동참모본부와 맥아더 장군 사이에 논란과 마찰이 있었으나, 맥아더 원수는 "이는 전술적 필요에 의한 조치로서 국군만으로서는 국경선을 점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키려면 지상군의 가용한 전투력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는 지론을 내세워 명령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능한 한 유엔군은 국경선에서 철수해야 하고 국군으로 대치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5]



워커 중장과 밀번 소장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도 지금까지의 유엔군에 대한 북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24일을 기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미 제1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에게 예비인 국군 제7사단을 배속(10. 23. 24:00)하고 가능한 한 국경선지대의 작전을 국군 제1사단과 제7사단 등 국군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6]

미 제1군단장 밀번 소장은 군단의 좌익인 미 제24사단에게는 청천강을 건너 선천을 경유, 신의주를 목표로 진격하도록 하고, 군단의 우익인 국군 제1사단에게 안주-운산축선을 따라 수풍호로 진격하도록 하였다.[7]

또한, 국군 제2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국경선으로의 진격작전을 위해 각 사단에 다음과 같은 약식명령을 하달하였다.[8]

『군단은 제6사단을 좌, 제8사단을 우로 하여 벽동-중강진간의 국경선으로 진출하려 한다. 제6사단은 희천-온정리축선을 연하는 선에서 벽동과 초산을 탈환하라. 제8사단은 희천-강계축선으로 진격하여 만포진과 중강진을 탈환하라.』

그리고 미 제10군단은 '원산-함흥평야 서쪽의 태백산맥 속에는 게릴라 부대가 잔존하여 부단하게 원산-함흥지역으로의 침투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함흥지역에서 북진을 준비하고 있는 수도사단의 전면에는 미약한 북한군이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적정을 기초로 미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E. Almond) 장군은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와 전황의 추이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북한의 정규병력은 이미 격파되었다. 현 상황은 추격의 최종단계이다. 커다란 저항에 봉착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도로를 이용하여 신속히 국경으로 진출한다면, 어렵지 않게 작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끝이 난다. 다만, 후방의 게릴라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격화될 것이므로 후방경비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판단한 군단장의 북진작전 기본구상은 원산-함흥지역을 기지로 확보하고 이 지역으로부터 국경에 이르는 여러 경로를 이용하여 진격, 국경선을 점령한 후 지역내의 잔적을 소탕한다는 것이었다.


알몬드 소장

이를 위한 부대운용은 "국군 제1군단은 동해안도로 및 무산도로를 따라서 진격하여 백두산 이동의 국경선을 점령한 후 지역내를 평정한다. 단, 미 제7사단 및 제1해병사단이 진출할 때까지 일부 부대를 장진호, 부전호, 풍산을 향해 진격시켜 압박을 계속한다. 원산지역을 방어 중인 국군 제3사단은 그 임무를 미 제1해병

에 인계한 후 주력을 후속한다. 미 제1해병은 장진호로 진출하여 강계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단, 미 제3사단이 도착할 때까지 일부는 원산-함흥지역을 방어한다. 미 제7사단은 이원으로 상륙하여 풍산 및 부전호를 거쳐 백두산 남쪽으로 진출한다. 미 제3사단은 원산-함흥지역을 방어하면서 태백산맥 속의 게릴라를 소탕하는 한편, 군단의 보급로를 엄호한다"는 것이었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북한군의 조직적인 저항이 종식된 것으로 판단하고, 유엔군 전진한계선을 철폐하여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서부와 동부에서 별도로 작전을 수행하던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 역시 이에 부합한 진격명령을 하달했다. 전쟁을 군사적 승리로 마감하려는 현지 지휘관들의 명령과 지시가 내려진 셈이다.

제 3 절 서북부와 동북부 지역의 진격전

1. 개 요

낭림산맥 서부지역의 압록강으로 향한 미 제8군의 진격작전은 적의 수도 평양을 탈환한 이틀 후인 1950년 10월 21일을 기하여 시작되었다.

마침 이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려 관서의 차가운 바람이 산곡을 메우고 있었으나, 작전에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악천후는 아니었으므로 미 제8군 예하의 미 제1군단과 국군 제2군단은 예정대로 이날 07:00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10월 18일부터 평양에서 철수를 개시하여 제239연대로 지연전을 전개토록 하고 그 주력은 청천강을 도하한 직후 방송을 통하여 그들의 수도를 신의주로 이동하였다고 허위보도하는 동시에, 일선 전사들에게 결사항전을 호소하면서 기계화부대인 제17, 105기계화사단을 정주지역으로, 보병부대인 제4보병사단을 강계지역으로 각각 집결시키고 있었으나, 미 제8군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10월 30일에는 신의주 지역에서 창설된 제47사단이 구성 지역에서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하려고 하였다.[9)]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제8군에서는 아직도 청천강 이남에 15,000명 정도의 북한군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재편성의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격멸하기 위하여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0월 20일 미 제187공수연대는 2,800여 명을 숙천에 공수, 투하하였으며, 다음 2~3일간에 걸쳐서 총 4,000여 명의 병력과 600여ton 이상의 장비를 공수, 투하함으로써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미군 포로를 구출하려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수뇌부와 주력부대는 이미 청천강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본래의 작전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3,818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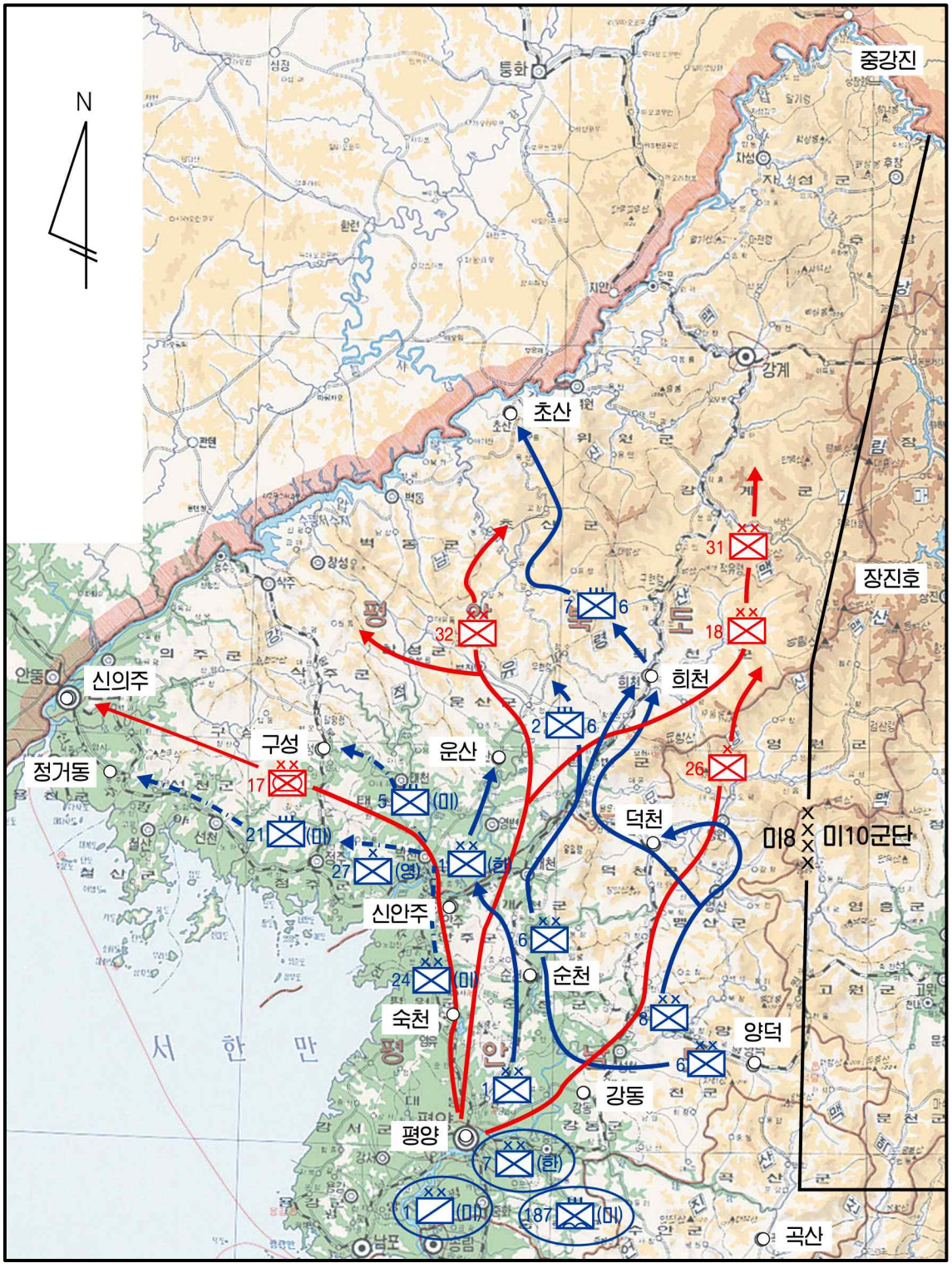
포로를 잡는 전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행하여진 이 공수작전은 북한군의 저항을 감소시켰으며, 서해안 방면에서의 아군의 급속한 진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미 제8군은 미 제1군단을 좌로, 국군 제2군단을 우로 하여, 좌측 미 제1군단은, 미 제24사단(영국군 제27여단과 호주대대 포함)을 구성-신의주축선으로 진격토록 하는 동시에, 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군단의 우측을 담당하여 안주-운산-수풍발전소축선으로 진격토록 하였으며, 미 제1기갑사단은 미 제1군단의 예비대로서 제1사단의 뒤를 후속토록 하였다. 한편 우측 국군 제2군단은, 국군 제6사단을 성천-순천-개천-희천-회목동-판하동-고장-초산축선으로 진격토록 하는 동시에 이 중 제2연대는 온정리선에서 서북쪽으로 압록강변의 벽동으로 진격토록 하고, 제8사단을 성천-가창-북창-덕천선으로 진격하여 이 선에서 강계-중강진 방면으로 진격토록 하였다.

낭림산맥 동부지역은 원산방어선에서 패주한 2개 사단 규모의 적과 성진, 청진 등지에서 증원된 제507여단, 제41사단, 그리고 11월에 접어들어 장진호 부근에서 나타난 중공군 제124사단과의 전투로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제3사단 및 미 제10군단 예하 제1해병 제3, 제7사단 등 한·미 5개 사단 병력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간에 걸쳐 전개한 장진호-혜산진-부령 진격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 작전은 수행 과정상의 성격면을 고려하여 미 제10군단의 원산 및 이원 상륙이 완료되어 작전에 투입되기 전인 10월 말까지 국군 제1군단 위주의 작전과 11월 초부터 1개월간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연합작전 등 두 개의 작전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장에서는 첫 번째 작전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국군 제3사단은 미 제1해병사단이 원산에 상륙하여 지역의 방어 임무를 인수하기까지 송전반도-영흥-고원-신창리-마전리-안변-원산비행장을 연결하는 원산시와 그 외곽지대 및 국군 제1군단보급소가 위치한 고저(원산 서남방 45㎞, 現 통천)를 경비하면서 주변에 출몰하는 잔적을 격멸하였는데, 그 중 제26연대는 수동부근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던 수도사단 제18연대 제1대대와 교대하고 상통리에

<상황도 6-2> 서북부지역 진격상황



<상황도 6-3> 동북부지역 진격상황



배치하였다. 그러나 미 제1해병사단에게 원산지역의 방어임무를 인계하고는 함흥으로 전력을 이동시켜 연포비행장-흥남-흥원-신포까지 병력을 분산 배치하여, 해안선 일대를 경비하다가 미 제7사단이 이원에 상륙한데 이어 미 제3사단이 원산에 상륙하자 국군 제3사단은 함흥지역의 경비임무를 완전히 끝내고 흥원-신포-신북청으로 각각 이동, 배치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3사단의 원산-함흥지역의 경계임무의 이양은 미 제10군단 병력의 상륙과 병행되었던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수도사단의 추격전이 순조로이 전개됨으로써만이 가능하였다.

이 기간 중, 수도사단의 동북전선 추격전은 영흥을 출발하여 제18연대는 함흥을 점령한 다음, 장진호 방면으로 기동, 장진선의 수동지역을 제3사단 제26연대에 인계하고 부전호 방면으로 주력을 지향시켜 신흥리-수상리선에서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다가 미 제7사단에 진지를 인계하고 오노리로 이동하였고, 제1연대는 흥남을 점령하고, 흥원을 점령한 뒤에는 풍산으로 진격하여 미 제7사단 제17연대에 이 지역을 인계하고 단천으로 이동, 제1기갑연대와 함께 길주를 점령하였으며, 제1기갑연대는 영흥-함흥-신북청을 경유, 단천을 점령한데 이어, 성진을 점령하고, 후속한 제1연대와 함께 길주를 점령하였다.

한편, 미 제10군단은 10월 26일 알몬드 소장이 명령한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에 의거 작전이 추진되었다. 즉 "국군 제1군단은 동해안선을 따라 북동국경지대에 진격하고, 미 제1해병사단은 군단 후방의 병참선과 후방지역을 경계하는 한편, 함흥에서 장진호를 향하여 진격하며, 미 제7사단은 이원에 상륙하여 북청-혜산진을 공격하고, 미 제3사단은 원산-함흥지역을 경계하라"는 내용이다.

2. 피·아 지상군 전투력 비교[10)]

유엔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북한군의 준비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산 방향은 전선이 사실상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 지휘부는 이 방향에

후방 및 예비부대 그리고 창설이 채 안된 부대들을 진출시켰는데 거의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싸웠으며, 이러한 모든 부대들은 훈련이 거의 안되었고, 장비도 부족한 가운데 모든 면에서 우세한 유엔군과 전투를 해야 했고,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하는데 매우 힘들었다.

반면에 유엔군은 공격을 위해 15개 보병사단, 1개 보병여단, 5개 보병연대, 9개 독립보병대대, 4개 독립 전차대대 그리고 대규모 포병 부대 및 장비를 집결시켰다.

북한군 및 유엔군의 전투력 비교는 <표 6-1>과 같다.

<표 6-1> 북한군 및 유엔군의 전투력 비교

구 분		북한군	유엔군
병 력	현 황	3개 군단, 9개 사단, 1개 여단, 1개 독립연대, 1개 전차사단/여단/연대 등 총 90,000여 명	한 8개 사단, 미 7개 사단, 영 1개 여단 등 총 200,000여 명
	비 교	1 : 2.2	
주 요 장 비	전 차/ 자주포	96대	800대
	비 교	1 : 12	
	견인포/ 박격포	67/169문	552/1,762문
	비 교	1 : 9.7	

3. 적 상황

북한군의 저항은 예상외로 저조하였다. 물론 국부적으로는 격렬한 저항도 있었으며 산중에서는 게릴라도 준동하고 있었으나, 북한군 최후의 저항선으로 예상했던 청천강에서의 저항도 없었다.

적은 아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사령부를 제1차로 희천으로 이동하고, 제2차 이동을 강계로 정하는 한편, 제1차 방어선을 안주-개천-덕천선의 청천강으로 정하고, 제2차 방어선을 희천선, 그리고 제3차 방어선을 강계선으로 택한 다음, 최후의 저항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 적은 마산 주변과 낙동강전선에서 붕괴된 이래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나, 압록강에 접근함에 따라 점차 저항이 치열해졌으며, 10월 말에 이르러 압록강 남방 80㎞를 지나는 청천강선에서의 적 저항은 더욱 강력하였다. 특히 정주-온정리를 연하는 80㎞에 달하는 선에서는 적 제17, 105기계화사단을 비롯한 제4사단과 제47사단의 방어선이 견고한 것이어서 한때 아군의 진격을 지연시켰다. 또한 이 지역의 적은 신의주-초산-강계 방면으로 퇴각하면서 국경선으로 진격하는 아군을 험준한 산악지대 계곡과 주요 도로망으로 유도하여, 그 후방과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최후의 저항을 기도하고 있었다.

한편, 동부지역에서는 원산방어선에서 패주한 2개 사단 규모의 적과 성진, 청진 등지에서 증원된 제507여단, 제41사단, 그리고 11월에 접어들어 장진호 부근에서 나타난 중공군 제124사단이 아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당시 평양에서 안주-개천을 연하는 청천강선 이북으로 패주한 북한군은 약 40,000여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또한 철의 삼각지대(철원-평강-금화)에 제2전선을 형성한 부대 병력이 20,000여 명에 이르렀다.

김일성은 전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유격전의 전투교리에 기초하여 적의 후방에서의 타격작전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제2전선부대와 인민유격대의 조직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전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11]

"적 후방 투쟁방침은 적의 후방에 북한군연합부대로써는 제2전선을 형성하고, 애국적 인민들로써는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적 후방을 교란하고 적을 끊임없이 소멸 약화시키며 … 적 증원부대의 진출을 차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이었으며, 기본전선의 아군 주력부대들이 반공격(반격)으로 넘어갈 때는 전선타격에 배합하여 적 배후 타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제2전선부대는 10월 16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들의 주요임무는 국군 및 유엔군의 수송부대, 열차, 보급소, 교통시설,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들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백 건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미 제9군단이 전방에 투입되지 못하고 병참선 경계 등의 후방지역 방호임무를 수행하며 이들의 발호(跋扈)에 대비하였고, 당시 창설된 국군 제3군단도 이들의 토벌작전에 투입되어야 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10월 14일 패전에 대한 자아비판에서 포위작전의 소홀과 유엔군의 반격시도를 저지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음을 자인하고 전장 이탈자의 즉결처분, 독전대 조직 등 일곱 개 사항을 준수하도록 엄명하였으며 최고 사령관 김일성과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명의로 명령서가 하달되었다.[12)]

이와 같이 전황이 위기국면에 접어들자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병력 및 장비면에서 국군과 유엔군에 비하여 열세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북한군들에게 최후발악적인 결사항전을 요구하고 독전대를 편성, 폭압적인 방법으로 승산없는 저항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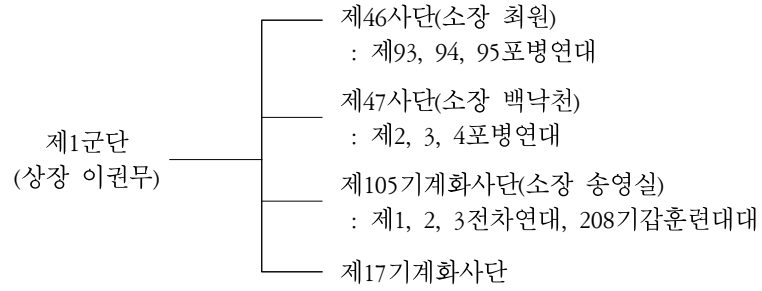
특히, 중공군은 10월 19일, 계획대로 한반도 국경안으로 투입되었다. 이날 정오에 제13병단 소속 각 군과 포병수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병단은 구성-태천-구장-덕천-영원-오로리를 연하는 선을 기본방어진지로 하고, 소부대로 하여금 남쪽으로 연신하도록 한다. 먼저 3개 군을 전개하고 1개 군은 기동으로 한다."

그러나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기동상황과 정면의 적정변화에 따라 몇 차례 계획을 조정하고 확정하였다.[13]

이때의 북한군 참가부대[14]는 다음과 같다.

① 전연부대



② 제1, 제3, 제4군단은 한반도 북부 중·북변경지역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 대부분은 새로 창설된 부대이다. 제6, 제7, 제8군단은 중국동북지역에 위치해 있고, 모두 새로 창설된 부대이다. 상기 6개 군단은 모두 훈련 중에 있고, 제1군단만 작전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적 후방에 격리 단절되어 있는 북한군 주력부대 9개 사단 잔여부대는 통합하여 제2전선부대로 편성하고, 최현(崔賢)[15]의 지휘 하에 강원도, 황해북도, 평안남도에서 활동한다. 제4사단, 제7사단 나머지 부대는 영원지역에서 활동한다.

4. 아군 상황

아군은 10월 19일 제1사단을 선두로 유엔군부대가 평양을 탈환하자 곧 이어 한·만 국경선을 향해서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10월 20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전 군으로써 조속히 국경선에 도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미 제8군사령관은 즉시 전 예하부대

에 상기와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0월 20일 미 제187공수연대는 2,800명을 숙천에 공수, 투하하였으며, 다음 2~3일간에 걸쳐서 총 4,000명의 병력과 600ton 이상의 장비를 공수, 투하함으로써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미군 포로를 구출하려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적의 수뇌부와 주력부대는 이미 청천강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본래의 작전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3,818명의 포로를 잡는 전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행하여진 이 공수작전은 적의 저항을 감소시켰으며, 서해안 방면에서의 아군의 급속한 진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서부지역에서 아군은 미 제1군단을 좌로 하고, 제2군단을 우로 하여, 미 제1군단은 미 제24사단(영국군 제27여단과 호주대대 포함)을 신의주 방면으로 진격하고 국군 제1사단을 수풍발전소 방면으로 진격토록 하는 동시에 미 제1기병사단은 군단예비로서 국군 제1사단의 뒤를 따라 후속토록 하였다.

국군 제2군단은 제6사단을 초산 방면으로 진격토록 하는 동시에 제2연대는 온정리선에서 서북쪽으로 벽동으로 진격토록 하고, 제8사단은 강계-중강진 방면으로 진격토록 하였다.

이 기간 중 제2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10월 24일부로 육본 참모차장으로 전임되고, 후임 군단장에 제1사단 백선엽 준장이 부임하였으나, 3일 후 유재흥 소장은 다시 군단장으로 재부임하였다.

동부지역에서는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제3사단 및 미 제10군단 예하 제1해병 제7, 제3사단 등 한·미 5개 사단이 장진호-혜산진-부령선까지 진격하였으며 작전성격을 고려하여 두 개의 작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작전으로서 제3사단이 원산-함흥지역를 방어하는 가운데 수도사단 단독으로 추격전을 전개하여 함흥-장진, 북청-풍산선을 봉쇄하면서 주력으로 길주를 점령하였고, 이 무렵에 미 제10군단이 원산 및 이원 상륙을 완료하였다.

두 번째는 11월 1일 이후 11월 말까지의 작전으로서 이 기간에는 미 제3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 일부병력이 제3사단으로부터 인수한 원산-함흥지역의 방어전

을 담당하는 외에는 한·미 양군이 장진호-혜산진-부령선을 지향하고 총 진격전을 본격화한 시기였다. 이 두 번째 작전은 제7권에서 다룰 예정이다.

진격작전 시 유엔군 전투편성(미 7개 사단, 한 8개 사단, 영 1개 여단)은 <표 6-2>와 같다.

<표 6-2> 진격작전 시 유엔군 전투편성

구분	주 공(서부)	조 공(동부)	예 비
주요부대	×××× Ⅷ 미	××× X 미	
전선부대	××× I 미	××× Ⅱ	××× I
	24 ×× 미	6 ××	1 ×× 미
	27 × 英	8 ××	수도 ××
	1 ××	7 ××	7 ×× 미
	7 ×× 10.23부		3 ××
예비	1기병 ×× 미		
기타	××× Ⅸ 미 후방작전 (2, 25사)	××× Ⅲ 후방작전 (2, 25사)	3 ×× 미 일본대기
			187 미

5. 작전지역의 특징

한반도 북부지형은 역사다리꼴로 평양~원산 정면의 폭은 270㎞이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국경선은 765㎞로 국경으로 갈수록 정면이 3배로 넓어지며, 전형적인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세로서 서북부의 지형과 동북부의 지형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1) 서북부의 지형[16]

청천강은 지류인 구룡강과 박천 부근을 흐르고 있는 대령강이 합쳐 청천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평야라고 하기에는 미흡하고 작은 구릉이 많은 저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평양 북쪽으로는 잡목과 자연림으로 뒤덮인 묘향산맥과 적유령산맥, 강남산맥 등이 병풍처럼 가로놓여 있어 압록강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지형은 천연적인 장애물로서 방자에게는 유리하고, 공자에게는 불리하였다.

제8군의 진격로는 모두가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 있는 700~1,000미터 고지의 산과 산 사이의 협곡로로서, 도로망은 평양에서 신안주-신의주에 이르는 경의가도와 신안주-희천-강계, 그리고 신안주-희천-만포진에 이르는 2대 국도가 양호한 진격로를 이루고 있으며, 신안주-박천-태천에 이르는 도로와 개천-영변-운산에 이르는 도로, 그리고 초산을 기점으로 동서로 뻗은 도로 등도 아군 진격에 주보급로를 제공하고 있다. 중공군 개입 이후 전투의 초점을 이룬 박천, 운산, 온정리 등은 모두가 적유령산맥의 입구에 해당되며 원리, 군우리는 청천강 계곡의 출구에 해당된다.

청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개마고원의 중추인 강계분지에 이르고, 이어 만포진에서 압록강을 건너면 도로는 남만주의 중추부로 통하고 있다. 강계는 인적도 드문 요새에 둘러싸여 있으며, 여기는 평양에서 쫓겨난 북한정권이 마지막 의지한 곳이었다.

작전이 진행되는 기간 중 초기는 대체적으로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아침저녁으로 농무가 심하였고, 작전 말기에는 우천, 또는 담천으로 변전하였으며, 특히 제6사단이 초산으로 진격하는 동안 회목동부터는 강설이 심하였다.

2) 동북부의 지형[17)]

미 제10군단의 새로운 전장이 된 한반도의 동북부는 산과 산의 연속으로 2,000m의 연봉들이 치솟아 있는 태백산맥과 그 지류인 함경산맥은 동해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내륙의 개마고원은 심한 기복을 이루면서 한·만 국경으로 펼쳐져 있다.

산들이 너무나도 바다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동해쪽에는 큰 강이 없고, 개마고원에 내리는 비는 거의 북쪽에 하천을 이루어 압록강이나 두만강으로 합류하고 있다. 일본은 일찍이 이 수자원과 동해쪽의 경사진 지형에 착안하여 전원을 개발하고, 흥남의 부동항을 이용함으로써 각종 화학공업과 북한의 군수공업단지의 대부분이 이 지역내에 있었다.

발전은 북류하는 하천을 막아 인공호를 만든 다음, 그 물을 동해쪽으로 돌려 1천미터 이상의 낙차를 이용하여 2~3회를 발전하는 것이다. 장진호와 부전호는 이러한 인공호를 대표하는 것이다. 장진호는 함흥 북방 60㎞ 지점에 위치하여 강계로 통하는 도로를 제한하며, 부전호는 그 동쪽 30㎞ 지점에 위치하여 항상 만수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무척 춥기로 유명하며 이따금 영하 20~30도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그리고 저온이기 때문에 적설량과 강상량이 적다.

도로망은 극히 빈약하여 군사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도로는 해안을 따라 소련 국경에 이르는 해안도로와 함흥-장진호-강계에 이르는 도로, 이원-풍산-혜산진에 이르는 산간도로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6. 서북부지역 진격전

1) 숙천·순천 공수작전('50. 10. 20~22)

(1) 전투개요[18)]

미 제8군의 지상군이 평양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을 때, 김포비행장에는 미 극동군사령부의 전략예비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이 작전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 주력의 퇴로는 물론 증원을 차단하고, 병참선을 붕괴시키며, 아울러 북한 관리들을 포획하고, 후송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백 명의 미군 포로들을 구출할 목적으로 한국전쟁 발발 후 한 번도 운용해 본 적이 없는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평양 북방에 투하시킬 계획이었다.

작전일시는 평양이 완전히 탈환되는 날로 결정하였으며, 투하지점은 평양 북방 약 56㎞ 지점의 숙천(주 투하지역)과 그 동쪽으로 17㎞ 떨어진 순천으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은 평양에서 숙천을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 철도와 평양에서 순천을 거쳐 만포진에 이르는 만포선 철도, 그리고 이들 철도와 병행하게 발달된 도로가 만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 및 군사상의 요충지였다.

10월 20일 공수부대 요원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02:30분에 기상하여 비행장에서 출동준비를 하면서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 정오가 조금 못 되어서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다. 공수연대전투단 요원들은 미 제314 및 21수송비행대의 C-119수송기와 C-47수송기 등 113대에 분승하였다. 연대장 보웬(Frank S. Bowen Jr.) 대령이 탑승한 첫 수송기는 이날 정오에 이륙하였고, 서해안을 따라 한강 하구에서 편대를 구성, 평양 북쪽으로 향하였다.

수송기가 숙천의 투하지점에 접근했을 때 미군 전투기들은 이에 앞서 투하지점에 로켓탄을 발사하고 맹렬히 폭격을 가하였으며, 14:00시경에 주목표지역인 숙천 상공에 선두기로부터 낙하가 시작되었다. 이때 적의 대공화기 사격은 없었고 간혹 투하지역에서 저지사격이 있을 뿐이었다. 제1, 3대대와 연대본부 및 직할대가 먼저 낙하하고, 그 뒤를 이어 105㎜ 곡사포와 탄약, 90밀리 대전차포와

차량 등 74톤가량의 장비가 투하되었다. 이 공수작전에서 처음으로 중장비가 전투지역에 공중투하되었고, C-119수송기도 처음으로 전투지역에서 운용되었다.

연대장은 목표지역에 투하 후 숙천 동북방의 감제고지들을 점령하고 숙천시내를 소탕하였으며 숙천 북방도로를 차단, 봉쇄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17:00시까지 목표를 탈취하고 전술적 절단을 완료하였다. 2대대는 계획대로 14:20분에 순천 서남방에 낙하하여 이날 밤 목표지역을 확보하였다. 대대의 2개 중대는 순천 남쪽과 서쪽 도로를 차단하고 1개 중대는 동남방에서 청천강을 향하여 기동하는 국군 6사단과 접촉을 이루었다.

공수투하 다음날인 10월 21일 제3대대는 평양으로부터 철수하여 숙천 남방 12㎞ 지점 어파리와 영유에서 방어 중인 북한군 제239연대의 2,500여 명과 조우하여 후방에서 그들을 기습공격하였다.

한편 평양탈환 후 미 제24사단의 선두부대로서 평양에서 청천강을 향하여 북진하던 영연방 제27여단이 때마침 영유까지 진격하여 남쪽에서 이들 적과 조우함으로써 공수연대 제3대대와 함께 북한군을 남과 북에서 포위, 협격하여 격멸시켰으며, 많은 인원을 생포하였고, 이들 양개 부대는 그 이튿날 11:00시에 연결하였다.

또한 순천의 제2대대는 21일에, 순천 북쪽 약 9㎞ 지점 터널에서 200여 명의 미군포로가 학살되었다는 주민제보를 받고 수색작전을 벌여 그 가운데서도 생존해 있는 23명을 구출하고 66구의 시체를 찾아냈다. 그 대대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미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 1대대 및 70전차대대 1개 중대로 편성된 특수임무부대와 21일 09:00시에 연결하였다.

10월 22일 공수연대가 연결할 때까지 전과는 사살 2,000명, 포로 3,818명이었으며, 공수연대 피해도 공수낙하 시 46명, 지상전투에서 65명 등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숙천-순천지역 공수작전의 결과는 북한군 주력의 퇴로차단과 미군포로의 구출이라는 최초 작전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우선 맥아더 장군은 당시 북한에 잔존병력 30,000명 중 25,000명이 공수작전의 덫에 걸릴 것이라 하였으나

실제 포로는 그에 훨씬 못 미쳤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평양함락 훨씬 전인 10월 12일경에 그들의 관리들은 이미 빠져나갔고 포로들도 후송시켰으며, 북한군의 주력도 이미 철수한 뒤였기 때문이다.

이 전투에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은 <표 6-3>과 같다.

<표 6-3>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유엔군	미 제187공수부대장		대령	Frank S. Bowen Jr.	
	英 제27여단	여단장	준장	Basil A. Coad	
	Middlesex 대대	대대장	중령	A. M. Man	
		제B중대장	소령	W. P. M. Allen	
		제D중대장	소령	J. E. F. Willoughby	
	Argyll 대대	대대장	중령	G. L. Neilson	
		제A중대장	소령	A. D. R. G. Wilson	
		제B중대장	소령	A. I. Gordon-Ingram	
		제C중대장	소령	J. B. Gillies	
		제D중대장	대위	G. M. M. M	
	호주군 제3대대	대대장	중령	Charles H. Green	10. 28. 전사
			중령	I. B. Ferguson	11. 1. 부임
		제A중대장	소령	B. S. O'Dowd	
		제B중대장	대위	D. Laughlin	
		제C중대장	대위	R. W. Saunders	
			대위	A. P. Dennes	
		제D중대장	대위	W. N. Gravene	
북한군	제239연대	연대장	?		

(2) 전투준비

① 배 경

미 제8군의 지상군이 38도선을 돌파하고 평양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을 때 유엔군은 김포비행장에 보웬(Bowen) 대령이 지휘하는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Airborne Regiment)을 극동공군사령부의 유일한 예비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맥아더(MacArthur) 원수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평양이 함락될 무렵에 후송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미군으로서 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구출하고 북한의 요인들을 포획하기 위하여 이 공수보병연대를 평양 북방지역에 공중투하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리하여 그는 한두 번 그 날짜를 변경하던 끝에 마침내 이해 10월 20일 아침을 기하여 이 특수부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평양 북쪽 56㎞ 지점 부근에 2개의 투하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주 투하지역은 숙천 근방이고, 다른 또 하나의 것은 순천 근방이었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달리고 있는 V자형의 2개의 좁은 통로는 각각 철로와 병행하고 있었는데, 좌측 길은 평양에서 신의주에 이르는 큰 길이며,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숙천은 평양에서 65㎞ 떨어진 곳으로 낮은 언덕이 둘러싸인 넓은 계곡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측으로 뻗은 길은 평양에서 험준한 지형을 지나 만포진에 이르는 것으로 그 도중에 있는 순천은 평양에서 60㎞, 숙천으로부터는 동쪽으로 27㎞ 떨어진 지점이다.

후퇴를 거듭하는 적의 사기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저하되고 있었으나, 그 반면 우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으며, 더구나 포로로 잡혀 있는 동료들을 한시 바삐 구출하겠다는 소망으로 가득차 있었다.

② 공수작전 계획

이 작전의 목적은 인천상륙작전이나, 혹은 서울 탈환전에 참전하지 못하던 미 제187공수연대가 9월 말 이후, 김포비행장의 경비를 맡고 있었으나, 이제 최후의 결전으로 생각되는 평양 공략전에 직면하게 되자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이 부대를 작전에 참전시키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평양 공략전에 직접 사용하고 특히 지상 추격부대의 대동강 도하를 직접 지원한다는 것도 고려되었으나, 적이 평양을 사수하리라는 확률은 이미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던 까닭에 작전목적을 북한 정권수뇌와 북한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평양 부근에 수감된 유엔군의 포로들을 구출하는 데 두었으며, 이에 따라 공중투하지역과 시기가 선정되었다.

㉮ 투하지역 선정

평양에서 만주로 통하는 주요 통로는 평양-신의주선과, 평양-만포진선, 그리고 각각 이 철로를 따라간 국도인데, 전자는 평양 북북서쪽 45㎞의 숙천분지를 거쳐 신안주(숙천 북쪽 22㎞)에서 청천강을 건너게 되고, 후자는 대동강변에 펼쳐진 순천분지(평양 북북동 45㎞, 숙천 동쪽 30㎞)를 경유하여, 원리(순천 북쪽 37㎞)에서 청천강의 계곡을 따라 강계에 이른다.

북한 정권이나 군 주력은 이 두 갈래 도로를 따라 후퇴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투하지역은 이 두 갈래의 퇴로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우선 평양의 북쪽 교외가 착안되었다. 여기 같으면 1개 지점에서 두 갈래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지점은 너무나 평양에 가까운 곳이므로 여기서 퇴로를 차단하려면 적이 평양을 철수하기 전이 아니면 안 될 것인데 평양에는 아직도 상당한 병력이 남아 있을 것이고, 또 대동강의 도하가 어떻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 현상황으로서는 각개격파 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확실성만을 생각한다면 평양은 텅텅 비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격이 무위로 그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청천강의 도섭장이었다. 신안주와 원리 부근에 투하하면 적 주력의 포착이나, 포로의 구출이나 두 가지가 모두 용이할 것이며, 이것이 성공한다면 북한 정권의 수뇌들까지도 동시에 포획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신안주는 평양으로부터 70㎞, 원리는 80㎞나 떨어져 있으며, 양자 간의 간격은 30㎞나 되는 것이다.

투하시기로 말하면 지상에서 진격하는 제8군과 연결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하여야 될 것이며, 공수연대의 보루로서 점령할 만한 적당한 지형이 없는 까닭으로 북쪽으로 패주하는 적에게 격파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계산할 수 없는 지상 진격부대의 대동강 도하라는 문제가 따르고, 제8군의 병참선은 연장될 대로 연장되어 차량용 연료마저 부족되기 일쑤였기 때문에 제8군이 평양을 점령한 다음, 계속해서 북진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게 될지도 몰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투하지점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이 좋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투하지점은 양자의 중간 안으로 낙착되었으며, 그 작전구상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 "공수연대의 주력을 숙천에 투하시키고, 일부를 순천에 투하시켜 각각 독립해서 퇴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투하시기는 되도록 빨리 평양 돌입 전으로 예정하지만 기상과 적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지상군과의 연결은 2~3일 후로 예정한다."

㉯ 투하시기의 결정

공수연대는 10월 16일 이후 언제라도 출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제8군이 평양에 근접함에 따라서 투하시기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적을 포착할 수 있는 확률은 커지지만 그 반면에 이에 따르는 위험성도 역시 커지게 되는 것이다. 전사에서는 투하 후 3일 이내에 연결할 수 없을 때는 고전(苦戰) 혹은 섬멸적인 타격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은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공수부대는 투하 전에 예측하지 않았던 원인으로 말미암아 뜻밖에도 넓은 지역에 분산되었으며, 설사 짧은 시간 안에 재편성을 끝마쳤다 할지라도 공수부대는 전차의 전력과 원거리 화력 및 기동력의 결핍 등 불리한 조건이 많은 데다 불확실한 공중보급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으로 대기갑전투나 장기전투에는 약하다는 본질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효과에 대한 기대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는 상호 모순 때문에 이 시기는 두 번 결심되고, 두 번 변경되었다.

최초의 투하시기는 사리원을 공략한 17일로 예정되었는데, 그 당시 적은 평양을 사수할 것 같은 기색은 보이지 않았고, 대부대의 후퇴도 정찰되었기 때문에 이때가 호기라고 생각되었지만 평양 남쪽에서의 적의 저항이 뜻밖에 강하였으며, 기상관계도 그다지 좋지 못하여 연기되었다.

두 번째는 평양에 돌입한 19일로 예정되었으나, 대동강의 교량이 전부 파괴된 데다 동쪽으로부터 급진하고 있었던 국군 제6사단의 진격도 늦어졌고, 날씨도

아직 좋지 못하여 이것도 또한 중지되었다.

그러나 19일 밤 대동강 도하도 잘 될 것 같고, 기상반에서도 기상의 회복을 예보해 왔기 때문에 '명 20일, 날이 개는 대로'라고 결정되었다. 만약에 그 이상 지연된다면 적을 포착할 가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아울러 미 제1군단장은 새로운 맥아더 라인을 향한 추격명령을 하달하였고, 미 제24사단(영 제27여단 배속)에게 숙천으로의 돌진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제70전차대대의 전차 1개 중대와 제8기병연대 제1대대로 편성된 로저스(Rodgers) 특수임무부대장 로저스 중령에게 순천에 투하하는 부대와의 연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국군 제2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에게 순천으로 돌진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빈틈없는 작전계획 아래 대규모 공수작전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③ 작전경과

㉮ **이륙 및 비행 : 제8장 공군작전 2절 유엔공군 작전 2항 3호 참조**

㉯ 지상작전

공수보병연대의 제1대대가 지상에 있는 적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면서 숙천 동쪽에 있는 97고지를 점령한 뒤에, 보웬 대령은 계속 부대원을 지휘하여 숙천 동쪽의 통로를 차단하였다. 한편 같은 지역에 낙하된 제3대대는 숙천 남쪽 3.2㎞ 쯤 되는 지점의 낮은 고지 위에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가도와 철로를 봉쇄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10월 20일 17:00시까지 목표지역을 모두 점령하였는데, 이때에 5명의 적을 사살하고 42명의 포로를 잡기도 하였다.

제2대대의 2개 중대는 순천 남쪽과 서쪽 도로를 차단하였고, 세 번째 중대는 때마침 동남쪽에서 청천강으로 기동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 부대와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편 이날 아침에 국군의 주력은 동쪽으로부터 평양에 입성하였으며, 잠시 후에는 영 제27보병여단이 미들섹스(Middlesex)대대를 선두로 하여 서쪽으로부터



숙천에 낙하한 제187공수연대 장병

역시 입성하였다. 이로써 평양에서의 진격은 잠시 멈추어졌으며, 이 때 영 여단은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었다. 그러자 미 제24사단은 신안주를 경유하여 정주로 북진하는 기동의 선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진격계획은 다음날 21일 저녁 때까지는 위에서 말한 목적지에 도달할 예정이었으며, 도중에서 숙천 남쪽에 투하된 공수연대의 일부와 합세하기로 되어 있었다.

10월 21일 아침 공수보병연대의 제1대대는 북쪽으로 가는 주보급로를 차단하라는 임무를 받고 숙천을 직접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를 확보하였으며, 적의 후방 경비대는 그 북쪽의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에 대대는 순천에서 제2대대와 연결하게 되어 서로 접촉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이날 순천 지역에 공중투하된 연대와 합세하기 위하여 미 제8기병연대의 제1대대와 제70전차대대의 1개 중대로 구성된 새로운 특수임무부대가 평양을 출발하였다. 새로 편성된 이 특수임무부대는 전차대대의 로저스(William M. Rodgers) 중령이 지휘하였으며, 북송 도중에 탈출한 5명의 미군 포로를 구출하기도 하였다.

맥아더 원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공수보병연대의 작전을 검토하기 위하

여 일본에서 미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Earl E. Partridgy) 소장과 유엔군사령부 작전참모 휘트니(Whitney) 소장 및 작전부장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을 대동하고 현지를 직접 순시하여 낙하산으로 투입되는 부대가 성공적으로 착륙하고 집결하는 광경을 눈으로 본 뒤에 비로소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신문기자들을 만나게 되자 이번 공수작전이 완전히 적을 기습하였다고 논평하고 또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다.

> "북한에 남아 있던 30,000명의 북한군 중에서 약 15,000명에 달하는 적이 북쪽에서는 미 제187공수연대와 남쪽에서는 미 제1기병사단 및 국군 제1사단이 협격하는 함정에 빠진 결과, 격파 당하거나 혹은 포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처음으로 실시된 이 공수작전에 언급하기를 "훌륭한 성공"이라고 지적한 다음, "적은 포위망에서 압축 당할 것이며,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수보병연대는 적의 주력부대의 퇴로를 능히 차단하지 못하였던 것이니, 적의 주력부대는 숙천과 순천 북쪽으로 철수한 다음, 이미 청천강을 건너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평양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평양에 있던 김일성의 심복인 행정 주구들은 10월 12일에 압록강변에 있는 만포진으로 갔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소위 행정부는 이미 강계로 철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가장 큰 관심거리의 하나였던 미군과 국군의 포로들은 이미 북쪽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뒤였을 것이다.

숙천에서 남쪽으로 12.8㎞ 떨어진 어파리에서는 10월 21일과 22일에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10월 21일 09:00시에 미 제187공수보병연대 제3대대는 도로 봉쇄진지에서 2개 전투단으로 구분한 다음, 평양 쪽으로 남진하고 있었는데, 그 1개 전투단인 I중대는 철로를 따르고, 다른 또 하나의 전투단인 K중대는 가도를 따라 기동하였다.

이날 13:00시에 I중대가 어파리에 진출하자 1개 대대규모의 적 부대가 120㎜ 박격포와 40㎜ 포의 지원화력 아래 공격을 가하여 왔다. 피아간에 2시간 반 동안에 걸친 전투로 미군은 2개 소대규모가 격파 당하고, 90명의 실종자를 내게 되었으나, 이 실종자들은 찾지도 못한 채 철로 서쪽 편에 있는 281고지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적은 계속 압력을 가하지 않고, 어파리 주변에 있는 높은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가도를 따라서 남진하고 있던 K중대는 영유리 북쪽 1.6㎞ 지점에서 1개 대대규모로 추산되는 적과 조우하게 되자 피아간에는 곧 격전이 전개되었다. 적은 남쪽과 동쪽의 높은 지대로 물러났고, 중대는 계속 영유리와 그 북쪽의 163고지에 압력을 가하였다.

가도로 통하는 영유리와 철로로 통하는 어파리는 서로 동서로 4.8㎞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평양에서 숙천으로 통하는 철도와 도로의 간격이 가장 넓은 지역이며, 영유리에서 어파리로 통하는 선은 철도와 도로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제지역이 될 수 있는 고지군이었다.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철수하였다는 적 제239연대의 2,500명 규모의 병력이 이곳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이들 부대의 주임무는 평양에서 북진하는 유엔군을 저지하는 일이었으나, 생각지도 않던 배후에서 급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었다. 이날, 밤이 되자 적 제239연대는 북쪽으로 후퇴하려고 먼저 소부대로서 K중대본부를 공격하여 왔는데 중대장 조시(Claude K. Josey) 대위는 적의 다발총 사격으로 두 번이나 부상을 입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적에게 덤벼들어 총을 빼앗았으며, 이때에 중대 선임장교도 또한 부상을 입었다.

이 전투에서 대부분의 적은 살상되었고, 그 나머지 약간의 병력은 후퇴하고 말았다. 24:00시가 좀 지나자 후방 두 곳에서 적의 공격이 있었는데, 163고지 뒤쪽의 낮은 곳에 있던 미군은 탄약이 거의 떨어지게 되자 이를 알아차린 적은 04:00시에 다시 공격을 기도하여 왔다.

한편 이날 영 여단은 평양의 대동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앞을 다투는 미군부대들과의 혼잡으로 인하여 좀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아르길(Argyll)대대의 선두는

경미한 적과의 교전 끝에 영유에 접근하여 갔다.

그러나 아직도 미 제24사단이 대동강을 건너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단장 코드(Coad) 준장은 영유 남쪽에서 진격을 멈추고 밤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공수보병연대의 일부는 이미 영유 북쪽 교외에 도달하여 있었다. Argyll대대는 이 부대와 연락하여 영유 남쪽 900m 근방에 있는 진지를 인수하였으니, 이때가 22:30분이었다. 공수보병연대와 적 사이에는 격렬한 야간 시가전이 시작되었으며, 거의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아르길(Argyll)대대도 합세하여 적을 공격하였고 약간의 손실도 입었다.

이날 09:00시로 되돌아가서 로저스 중령이 지휘하는 로저스특수임무부대[19]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부대는 순천에 도착하여 순천 바로 남쪽의 교량을 통과하고 있을 무렵에 호에 숨어 있던 몇 명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으며, 제8기병연대의 사병 2명이 전사하였다.

제1기병사단의 게이 소장과 부사단장 알렌(Frank A. Allen Jr.) 준장은 L-5 연락기를 타고 상공에서 로저스특수임무부대가 제187공수보병연대와 잘 연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평양에 돌아온 알렌 준장은 부관과 운전병 및 종군기자 2명(Associated Press의 Don White Head와 Baltimoresun의 Richard Tucker)을 대동하고 12:00시에 순천에 도착하였으며, 이어서 그는 제187공수보병연대의 제2대대 지휘소에 들렀는데, 이때에 한국인 한 사람이 와서 전날 밤에 순천 북서쪽 철로 터널 속에서 적이 200여 명의 미군 포로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고 흥분하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하였다.

이 일행은 즉시 그 민간인과 같이 당시 순천에 있던 국군 제6사단사령부에 들렀다가 순천에서 북서쪽으로 약 9㎞가량 떨어진 명우참 바로 위에 있는 철로 터널을 향하여 차를 몰았다. 일행은 이날 15:00시에 여기에 도착하여 부상을 당한 미군 사병 1명이 숨을 헐떡거리며 비틀비틀 나타났다. 그는 존(Valdor John) 일등병이었는데, 더듬더듬 말하기를 "그들은 저쪽에!"라고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골짜기에는 사살된 미군들의 시체가 17구나 있었으며, 그들 생존자들의 말을 종합

하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

"미군 포로 150명씩을 실은 2개의 열차는 10월 17일 화요일 밤에 평양을 떠나 파괴된 철로를 수리하면서 천천히 북으로 향하였다. 제187공수보병연대가 10월 20일 오후에 투하되고 있을 때, 2개 열차 중 두 번째 열차가 공중폭격을 피하려고 순천 북쪽에 있는 터널 속에서 머물렀는데, 이들 100여 명의 포로집단은 한 달 훨씬 전에 서울로부터 북송된 370명 중의 일부였으며, 무개석탄화차와 유개석탄화차 속에 가득 차 있었다. 10월 20일 저녁때 미군 포로병들은 기차에서 내린 다음, 3개조로 편성되어 저녁식사를 타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그대로 경비병들에게 사살 당하였고, 열차와 적 경비병들은 그날 밤으로 떠나 버렸다"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발견된 시체는 도합 66구(굴속에 있던 7명은 제외)였고, 생존자는 23명이었다.

적은 10월 22일 05:45분에 제3대대 본부와 L중대의 방어진지 전면에 공격을 감행하여 왔으므로 미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적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300명가량의 적이 L중대를, 그리고 또 다른 450명가량의 적은 본부 중대를 습격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돌발하게 되자 제187공수보병연대는 즉시 지원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으며, 아울러 용전분투하다가 부상을 입게 된 윌슨(Richard G. Wilson) 일등병을 긴급히 구호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때 마침 미 제1군단의 전면적인 진격작전이 전개되었으므로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미 제1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은 평양이 함락되던 10월 20일에 맥아더 라인으로 계속, 진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맥아더 라인은 압록강에서 56㎞ 남쪽에 동서로 통하는 선으로 성진-풍산-평원-고인동-선천을 연결하는 선이다. 영 제27여단을 배속받은 미 제24사단이 이 공격을 선도하였고, 우측에 있는 국군 3개 사단, 즉 미 제1군단에 배속된 제1사단과 국군의 제2군단 예하 제6사단 및 제8사단이 북쪽에 대한 공격에 병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20]

미 제8군의 총공격에 있어서 미 제24사단은 대동강을 도하한 뒤에 도로를 따

라 숙천을 공격하고 청천강으로 추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야간이었기 때문에 영유리 근처에서 기동을 멈추고 말았다. 영 제27여단은 10월 21일 밤에 1.6~3.2㎞ 북쪽에서 심한 야간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22일 새벽에 영 제27여단의 제1대대(Argyll대대)는 2개 중대가 먼저 영유리에 돌입하였으나, 여기서부터는 호주군 제3대대가 미 제89전차대대 D중대의 전차에 탑승하여 C중대를 선두로 영 27여단의 제1대대를 추월하였고, 전차 승무원들은 공수연대전투단과 접근하여 있었기 때문에 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다.

호주군 부대의 C중대장 데니스(Dennes) 대위와 그 중대원들은 영유리 바로 북쪽 도로 양쪽에 있는 과수원에 진출하였을 때 불시에 적의 소총사격을 받았다.

C중대의 장병들은 즉시 전차에서 뛰어 내려 착검을 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불을 토하고 있는 사과나무 과수원 속으로 뛰어 들어 갔다. 이러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미군 장교는 말하기를 "붉은 색 두발의 한 호주군이 불을 뿜는 적의 교통호에 뛰어 들어 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양손에는 무수한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에는 선혈이 낭자하였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라고 하였다.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과수원 속에는 적의 시체가 8구나 있었다는 것이다.

호주군 제3대대장 그린(Green) 중령은 도로의 우측방 높은 지대를 점령하기 위하여 두 번째의 중대를 투입시킨 다음, 뒤따라서 세 번째의 중대를 증원시켰으며, C중대의 뒤를 이어서 도로 좌측방에는 네 번째 중대를 또 추가시켰다.

이 싸움에서 적은 소총 및 자동화기는 물론이고 박격포까지 사용하였는데, 호주군 대대는 소총과 수류탄 및 총검만으로 끝까지 싸웠던 것이다.

대대장 그린 중령은 모든 소총중대를 산개시킨 뒤에 자신이 본부요원 몇 사람을 거느리고 과수원으로 급히 뛰어 들어 갔는데 이때에 적이 급습사격을 가하여 왔다. 과수원 속에서 격투가 벌어진 결과 적 34명을 사살하고 대대장의 보좌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뒤 1개 소대는 과수원 너머에 있는 논을 횡단하면서 노적가리 속에 숨어 있는 적들을 찾아내는 대로 모두 사살하였다.


호주군

이 백병전에서 적 270여 명이 사살되었고, 또 200여 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호주군은 단 7명만이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고, 잔적들은 서쪽으로 패주하고 말았다. 영국군의 미들섹스 제1대대는 호주군 부대를 추월하여 이날 11:00시에 미 제187공수보병연대와 합세하였다.

한편 공수보병연대의 제3대대는 영유리 전투에서 805명의 적을 사살하고 681명을 포로로 획득하였는데, 적 제239연대는 공수보병연대와 영 제27여단의 협격으로 사실상 격퇴되다시피 되었다. 이날 오후에 제3대대는 영군 부대와 함께 숙천으로 되돌아 왔고, 여기에서 영 제27여단은 미 공수보병연대와 진지를 교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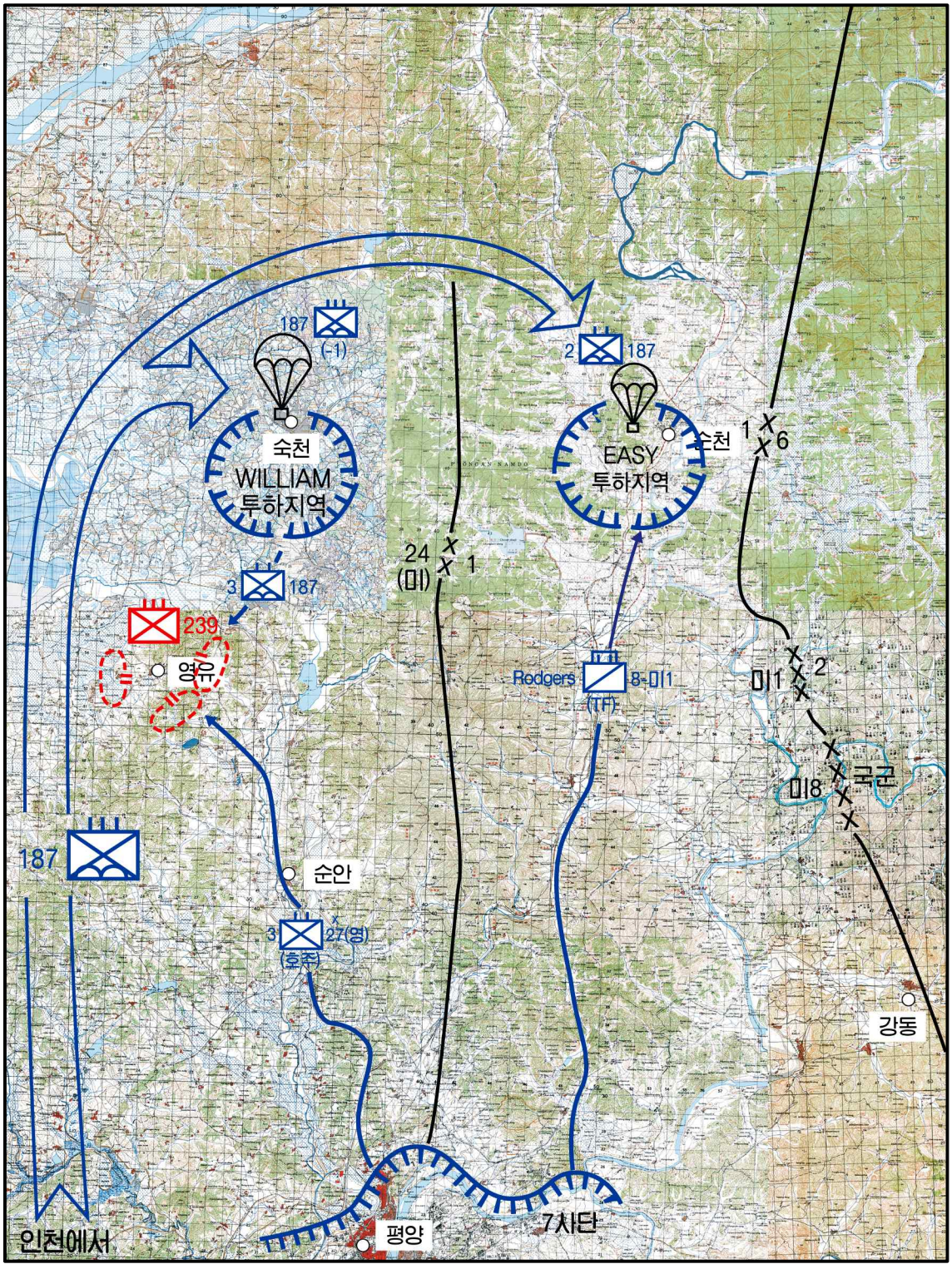
그런데 영유리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미 공수보병연대의 제2대대는 순천 투하지역에 남아서 비교적 활발하지 않은 접전을 하고 있었으며, 국군 제6사단은 순천 시외에서 적의 낙오병들을 격멸시키고 있었다.

④ 작전 결과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당초의 목적이었던 포로 구출과 적의 대부대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이미 청천강을 건너간 뒤라 대단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미 제187공수연대의 제3대대와 영 제27여단은 영유리에서의 격전이 있은 후, 숙천으로 되돌아갔고, 거기서 미 제187공수연대는 영 제27여단과 진지를 교대하였으며, 다음날인 10월 23일에는 보조도로를 이용하여 순천을 통과, 평양으로 철수하였다. 11월 3일에는 왜관지역의 격멸작전임무를 끝내고, 김천을 경유, 북진하여 온 필리핀대대를 배속 받았다. 그 좌측의 도로는 미 제24사단과 영 제27여단의 기동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상황도 6-4> 숙천·순천 공수작전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숙천-순천 부근의 공수투하 차단작전에서 미 제187공수연대는 투하 시에 46명, 지상전투에서 65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그리고 맥아더 원수가 예상하였던 적의 포로는 15,000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잡힌 포로는 3,818명 밖에 되지 않았다. 즉 공수투하는 성공적이라 하겠으나, 지상작전은 예상하였던 바와 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하겠다.

한편 미 제1기병사단의 부사단장 알렌 준장 일행에 의하여 명우참 북쪽 철로 터널 부근에서 구출된 생존자 21명은 역시 그 부근 일대에서 찾아낸 시체와 함께 국군 분견대의 노력으로 일본으로 떠날 C-54수송기가 대기하고 있는 평양으로 호송되었다.

국군 선봉대는 적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면서 10월 23일에는 희천 북방에 진격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국경에서 72㎞ 떨어진 곳이었다. 한편 영 제27여단은 10월 23일 신안주에 돌입하고 있었다.

이 기간 중의 종합적인 전과와 피해는 다음 <표 6-4>와 같다.

<표 6-4> 전과와 피해

전 과		피 해
• 사 살 : 1,122명 • 포 로 : 3,818명	• 포로구출 : 28명	• 전사상 : 166명 • 실 종 : 90명

2) 영변-운산 진격전('50. 10. 22~31)

(1) 전투 개요

국군 제1사단은 수풍리로 진격하라는 군단명령에 따라 10월 24일 11:00시경에 안주(평양 북방 65㎞)에서 청천강을 도하하여 운산(안주 북방 40㎞)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평양-신의주 도로는 신안주에서 청천강을 건너 서해안을 따라 연결되어 있으나, 도로의 동부, 즉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는 개마고원에서 뻗어 나온 강남·적

유령산맥이 자리 잡은 높고 험한 산악지대로써 청천강과 더불어 아군의 기동에 천연적인 장벽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평양 북방에는 묘향산맥이 영변-강계-순천 일대로 뻗쳐 있어 적유령과의 사이에 청천강이 서행하며, 그 지류인 구룡강을 낀 운산으로부터 압록강 중류로 보조 도로가 북쪽으로 이동하여 수풍댐에 이르니, 제1사단은 이를 목표로 최종적인 추격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21]

사단 좌익인 제12연대는 구룡강 서쪽에서 용산동(안주 북방 22㎞)을 탈환한 다음 운산 정면으로 돌입할 예정이었으며, 우익의 제15연대는 구룡강 동쪽에서 운산 동측방을 공격할 계획아래 영변(안주 북방 25㎞) 방면으로 기동하였고, 예비인 제11연대(-1)는 안주에서 대기하다가 제12연대가 용산동을 탈환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차후명령을 대기하도록 하였다.[22]

제15연대는 이날 15:00시에 영변에 도착하였으며 연대보다 2일 먼저 도착한 제6사단 제19연대 제3대대가 영변을 확보하고 있었음으로 양개부대가 연결한 다음 제19연대 병력은 차량으로 제7연대가 위치한 희천으로 떠나고 제15연대가 지역을 인수하였다.[23]

그러나 사단좌익의 제12연대는 용산동 남쪽 1㎞ 지점에서 첨병중대가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일단 물러섰다. 이곳 용산동은 원래 박천-운산도로와 태천-영변도로의 교차지점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써 적은 전차로 증강된 대대규모의 병력을 이곳에 배치하여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으나 제15연대의 전차소대와 협공하여 제12연대는 용산동을 탈취하였다. 이로써 제1사단은 운산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간 목표인 영변과 용산동을 확보한 것이다. 10월 25일 아침 국군 제1사단의 운산공격이 개시되었다.

38선을 돌파해 북진을 시작할 때 "평양" "평양" 했던 것처럼, 사단 전 병력은 "압록강" "압록강" 하면서 가장 먼저 그곳에 진격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24]

제15연대는 영변에서 구룡강 동측을 따라 진출하여 운산의 동쪽으로, 제12연대는 용산동에서 도로를 따라 운산의 남쪽으로 각각 공격하여 일부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이날 11:00시경 운산시내로 돌입하였다. 그러나 시내에는 적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양개연대는 최종 목표인 수풍댐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그 중간 목표인 청산장시를 향해 북쪽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청산장시는 맥아더 라인상의 한 지점이기도 하다. 제15연대가 11:00시경 이곳에 이를 무렵 갑자기 적과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 30분후 연대는 이들이 북한군이 아닌 중공군임을 식별하고 사단으로 즉시 보고를 하였으며, 이보다 조금 후 11:44분에 중공군 1명을 포획하였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최초의 중공군 포로였다. 이 포로는 운산 부근에 10,000명, 희천부근에 또 10,000명의 중공군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날 이를 포함한 3명의 포로가 미 제8군 전방지휘소인 평양으로 후송되었다. 제1사단은 예비인 제11연대까지 운산에 투입하여 이들 적과 전투를 벌였으나 진격로를 더 이상 개척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평양 경비임무 수행 중이던 미 제1기병사단을 이 지역에 투입시켜 국군 제1사단을 초월, 한·만 국경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중공군의 공격으로 실패하였다. 이 전투에서, 유엔군은 중공군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하였으나 결국에는 방어에 실패하고 대부분의 장비를 잃은 채 영변과 용산동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특히, 미 제8기병연대는 운산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과반수의 병력을 손실하였다.



미군을 체포한 중공군

이 전투로, 미 제8군은 진격작전을 중지하고 청천강 연안으로 병력을 철수시켜 방어태세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중공군은 전과를 확대하여 구장동-영변-용산동선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은 <표 6-5>와 같다.

<표 6-5> 전투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부 대	직 위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1사단	사단장	준장	백선엽(白善燁)	
	부사단장	준장	최영희(崔榮喜)	
	제11연대장	대령	김동빈(金東斌)	
	제1대대장	소령	김 소(金 沼)	
	제2대대장	중령	차갑준(車甲俊)	
	제3대대장	중령	정영홍(鄭永洪)	
	제12연대장	대령	김점곤(金點坤)	
	제1대대장	중령	한순화(韓順華)	
	제2대대장	중령	조성래(趙成來)	
	제3대대장	중령	김기용(金基容)	
	제15연대장	대령	조재미(趙在美)	
	제1대대장	중령	유재성(劉載成)	
	제2대대장	중령	김진위(金振暐)	
	제3대대장	중령	안병건(安秉健)	
	제17포병대대장	중령	?	배속부대
	미 제10고사포단장	대령	William H. Henning	지원부대
	미 제6전차대대장	중령	John S. Growden	
미 제1기병사단	사단장	소장	Hobert R. Gay	
	포병여단장	준장	Charles D. Palmer	
	제5연대장	대령	Carl J. Rehsenberger	
	제7연대장	대령	Cocil W. Nist	
	제8연대장	대령	Raymond D. Palmer	
	제8공병대대장	중령	Holly	
	제71전차대대장	중령	?	
북한군 제32사단	사단장	소장	이권무	소련군 중위로 복무
	제5연대장	대좌	최인덕	
	제16연대장	중좌	박승희	
	제18연대장	대좌	김희준	
	포병연대장	대좌	?	
중공군 제117사단	사단장	소장	장치행	제39군

(2) 전투 경과

① 작전 계획

평양을 탈환한 다음, 미 제8군은 미 제1군단에게 신의주-수풍댐지대를 목표로 진격을 계속케 하였다. 이에 따라 밀번(Milburn) 군단장은 국군 제1사단은 수풍댐을, 미 제24사단은 선천을 향하여 추격케 하고, 미 제1기병사단은 평양 일대의 경비를 담당케 하였으니, 이는 맥아더 라인의 제한을 고려하여 그 서측인 순천을 미 제24사단이 탈환한 다음에 군단예비대인 국군 제7사단으로 하여금 이를 초월하여 신의주로 진격토록 계획한 것이었다.

또한 전쟁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승리로 끝난 것으로, 이와 같은 진격은 일련의 추격의 최종단계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수풍댐을 목표로 한 제1사단의 진격도 역시 추격의 계속으로 계획되었으니,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우선 운산을 탈환한 다음, 그곳에서 압록강 중류로 이어지는 산간도로를 이용하여 수풍댐으로 진격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순천을 거쳐 영변을 탈환한 다음, 운산으로 진격키로 결정하여 제12연대를 서측으로, 제15연대를 동측으로, 제11연대를 예비로 하여 각각 진격토록 하였으며, 선두에는 미 제6전차대대 C중대와 사단의 G-3 보좌관인 박진석 소령이 지휘하는 일부 병력이 보전협동으로 아군포로들을 구출하라는 특수임무를 띠고서 구장동으로 기동케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 적의 주력과는 접촉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도 불명하였으니, 숙천-순천의 공수포위작전도 실제대상은 지연작전을 위하여 잔류한 1개 연대의 적에 불과하였음이 뒤에 판명된 바 있다. 따라서 아군은 압록강에 진출함으로써 전쟁이 종결되리라 기대하였으나, 적은 험악한 산악지대를 이용한 저항을 계획하는 한편, 중공군이 이미 압록강을 건너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② 전투 실시

㉮ 국군 제1사단의 영변 진격전('50. 10. 22~24)

맑은 늦가을의 일요일인 10월 22일, 사단은 국방부장관에게서 평양탈환의 공

로에 대한 대통령부대표창장을 수여받은 후 사기 충천한 가운데 예하 각 연대는 진격을 시작하였다. 즉 12연대는 일부 병력이 전차대와 함께 순천을 지나 군우리 부근에 진출하여 탈주한 미군포로 40여 명을 구출하여 평양으로 후송하였으며, 연대 주력은 22:00시에 개천에 진출하였다. 또한 제11연대 및 제15연대도 평양 서성리에서 이날 순천에 진출하였다. 이날 숙천에 투하된 미 공수연대와 연결키 위해 평양에서 진격한 영 제27여단은 영유 부근의 적 제239연대를 미 공수연대와 협력하여 적을 완전히 격멸시켰으니, 미 공수포위작전으로 청천강 이남의 적은 척결된 것이었다.

10월 23일도 날씨는 계속 맑은 가운데 제11, 제15연대 주력은 진격을 계속하여 안주 부근에서 청천강 남안에 진출하였다. 교량은 이미 폭파되었으나, 군우리에서 안주 쪽으로 청천강계곡을 따라 기동하던 제12연대는 안주 동북방 6㎞의 도섭장에서 일부 병력을 도하시켜 그 목교(木橋)의 정비를 엄호케 하는 가운데 공병이 밤새 정비하였다. 사단에 배속된 미 제6전차대대 D중대는 안주 부근에서 적 전차 2대와 자주포 2문을 격파하고 적 전차 1대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사단사령부도 평양에서 순천으로 기동하였으며, 각 연대본부도 계속 전방으로 진출하였으니, 제11연대는 안주읍에, 제12연대는 북송리에, 제15연대는 순천에 각각 기동하였는데, 제15연대에는 이존일 중령이 부연대장으로 이날 부임하였다.

이날 사단에 배속된 미 전차정찰대가 신안주에 진출하였을 때, 사단의 서측에서 진격한 영 제27여단도 신안주에 진출하였으며, 동측의 국군 제6사단은 온정-희천에 진출하여 어느 부대보다도 가장 북방에 진격하고 있었다.

사단은 청천강 도하를 완료한 다음, 10월 24일 11:00시에 영변의 용산동(영변 서측방 10㎞)으로 기동하여, 동측의 제6사단에 격파되어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면서 영변 일대를 확보하였다. 즉 제15연대는 15:00시에 영변-용산동의 청천교를 제3대대로 하여금 확보케 하는 한편, 제2대대는 용산동으로 진출시켰던 바, 대대는 용산동 동북방 고지 일대에서 저항하는 1개 대대규모의 적과 전차대를 격파하고 난 후에는 용산동을 확보하였다. 이어서 제12연대의 각 대대도 용산동에

진출하였으며, 제15연대에 제3대대는 계속 구룡강을 도하하여 강의 서북방고지에서 저항하는 적을 각종 화기로 제압사격을 하여 이를 격퇴함과 아울러 감제하기 좋은 지점을 점령하여 아군의 도하를 엄호하였다.

그런데 이날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국본일반명령 제32호(10. 23부)에 의거하여 제2군단장으로 발령되는 동시에 부사단장인 최영희 준장이 사단장에 임명되었다. 마침 백선엽 사단장은 평양을 방문 중이라 개천(평양 북방 70㎞)의 사령부에는 부재중이었다.

㉯ 국군 제1사단의 운산 진격전('50. 10. 25~28)

맥아더 원수는 이전의 진격제한선을 철폐하고 '각 지휘관은 전력을 다하여 한국의 북단까지 진격하라'는 마지막 추격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맥아더 라인의 철폐는 미국정부의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그는 현지정보에 따른 지휘관의 재량이며 정부방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계속 맑던 날씨가 변하여 잔뜩 흐리고 추운 북풍이 부는 가운데 10월 25일 사단은 운산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제12연대는 제1대대를 선두로 전차와 협동하여 진격케 하였으며, 제2대대는 우익공격제대로 저항하는 적을 격파하면서 운산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제15연대는 제3·제1·제2대대의 순서로 영변에서 입석-상구동-화옹동·운산의 경로를 따라 미 제6전차대대 D중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진격하였다.

이에 따라, 제15연대는 요소마다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하는 적을 격파하고 운산에 돌입하였으며, 계속 북방으로 진출하던 중 11:00시에 구룡강의 다리에 접근하고 있을 때, 적의 박격포 사격을 받았다. 부대는 곧 전개하여 상동-간동 일대의 고지의 적을 공격하였는데, 300명으로 추산되는 적이 배치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11:30분이 지난 뒤에는 1명의 적을 포획하였는데, 곧 중공군임을 알게 되었다. 평양으로부터 돌아온 전임 백선엽 사단장은 이 포로를 직접 심문하였던 바 중국 남쪽 광동 말을 하는 정규 중공군임이 확인되었다. 동 포로는 "운산과 희천의 북방에 2만의 중공군이 대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사단장은 곧 이를 밀번 군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제15연대는 최초로 중공군과 교전한 것이었다. 이날 오후에 벌어진 격전에서 제15연대는 또 다른 중공군 포로 3명을 생포하여 평양으로 후송하였다. 좌일선의 제12연대도 운산 서쪽에서 진격이 중지되고 사단예비인 제11연대는 운산 남쪽으로 이동하여 후방을 경계하였다.



운산전투의 중국군 포로('50. 10. 25)

그러나 미 제1군단은 좌일선의 미 제24사단의 진격이 순조로운 데다가 국군 제1사단 정면에 출현했다는 중공군도 북한군을 증원하기 위하여 투입된 소규모일 것으로 가볍게 판단하고 10월 25일 16:00시를 기하여 압록강을 목표로 총공격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좌측의 미 제24사단은 박천을 거쳐 안주를 향하여 진격을 계속하고 있을 때, 국군 제1사단은 진격이 좌절된 채 더 이상의 진격은 고사하고 현 전선의 유지가 힘겨울 정도이었다. 전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으며, 좌측의 제12연대는 그런대로 진지를 확보하였으나 우측의 제15연대는 가중되는 적의 압력에 못 이겨 뒤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즉, 사단 예비인 제11연대를 전방에 증원하기 위하여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있을 때, 사단의 좌측으로 우회한 중공군이 운산-용산동 도로를 차단한 것이다. 제11연대를 다시 후방으로 기동케 함으로써 이를 격퇴하려 하였으나 연대가 오히려 운산 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일반지원하던 미 제10고사포병단도 상황의 위급함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채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0월 27일 날이 밝자 상황이 약간 호전되었다.

10대의 C-119수송기에 의해 탄약을 공중 보급받은 사단은 운산 북쪽에서 제15, 12연대가 각각 2~3㎞씩 진출하였고, 사단예비인 제11연대도 운산-용산동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중공군을 격퇴시킨 것이다. 다음날인 10월 28일은 운산정면은 소강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2명의 중공군을 생포하였다.

㉰ 미 제1기병사단의 국군 제1사단 초월공격[25]('50. 10. 29~31)

미 제8군은 좀처럼 중공 정규군의 전면개입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북한군을 증원하기 위한 소규모의 중공군이 투입되었을 뿐이라는 그들의 최초 판단을 수정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 제8군은 미 제1군단에게 군 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26]으로 하여금 국군 제1사단을 초월공격, 수풍댐으로 진격케 함으로써 총공격의 기세를 유지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그 다음날인 10월 29일 행동을 개시한 미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가 용산동으로 진출하고 그 뒤를 이어 10월 30일에는 제5기병연대가 용산동에 도착하자, 제8기병연대는 이날 국군 제1사단 제12, 15연대의 전선을 인수하기 위하여 운산으로 진출하였다.



12연대장(김점곤 대령)에게 상황을 확인하는 제1사단장(백선엽 장군) ('50. 10. 31, 운산)

10월 31일 미 제8기병연대의 제2, 제3대대가 운산 서쪽 3㎞인 남면천을 감제할 수 있는 300m 내외의 고지군에 연하여 배치된 국군 제12연대의 진지를 무난히 인수하였으나, 운산북쪽에서 격전 중인 국군 제15연대 제2대대의 진지를 인수하기로 되어있는 미 제8연대 제1대대는 여의치 못하고 그 후면에 새로운 진지를 편성,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6:00시에야 국군 제15연대 제2대대가 미 제8연대 제1대대의 진지를 통과하여 철수함으로써 진지교대가 완료되었다. 이로써 운산의 서반부는 미 제8기병연대의 3개 대대가 그리고 그 동반부는 국군 제15연대의 제1, 3대대가 각각 배치되었다. 이리하여 미군에게 진지를 인계한 국군 제12연대는 입석으로 철수하여 재편성에 착수하였으며, 동측에 국군 제8사단지역으로 중공군이 진출하여 우익이 노출되자, 국군 제1사단의 예비인 제11연대를 투입하여 제8사단과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이 간격은 다음날(11월 1일) 미 제5기병연대의 1개 대대를 구장동에 이르는 도로의 중간지점까지 진출케 함으로써 해소하게 되었다.

(3) 전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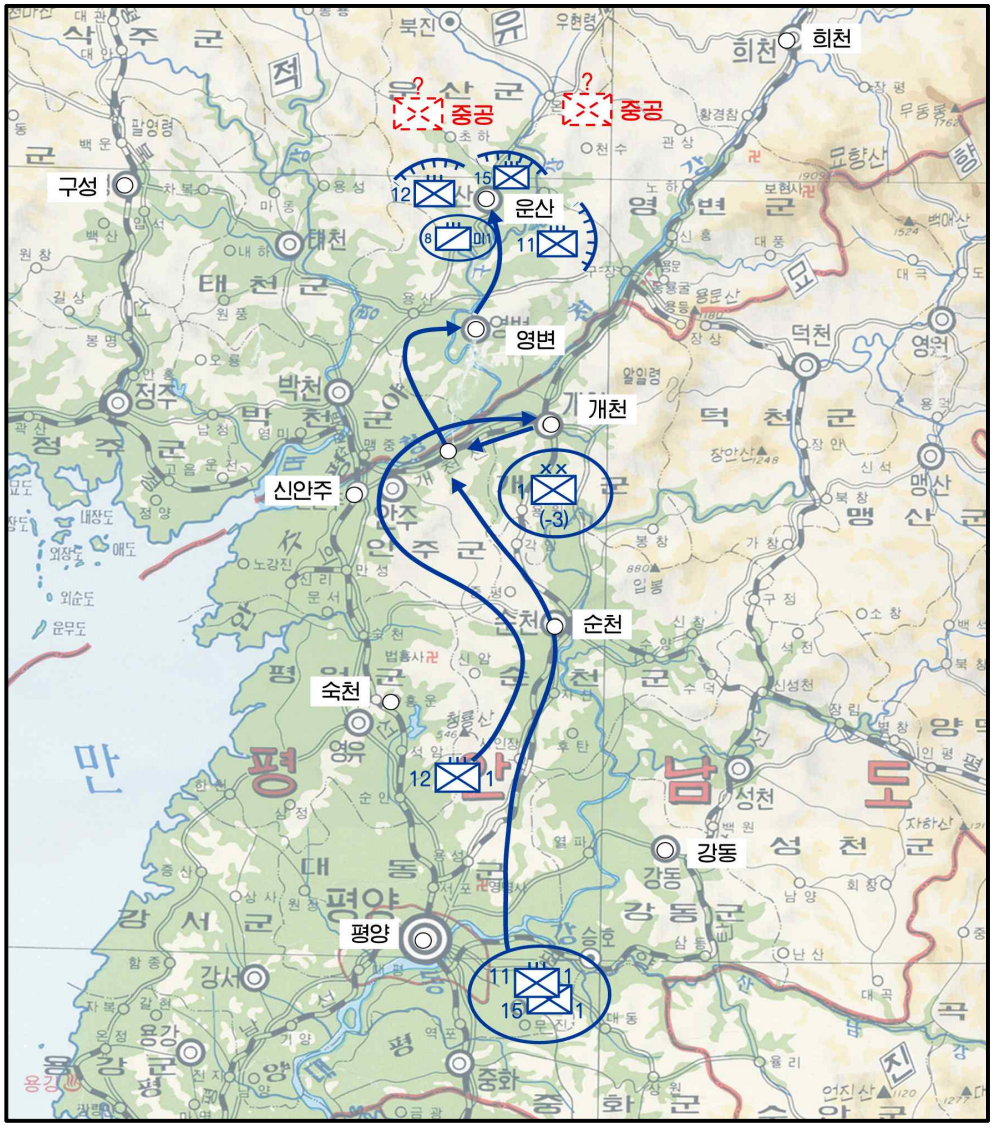
사단은 10월 25일 제15연대가 운산북방에서 중공군 1명을 포획한 다음에도 계속 적의 저항을 격파하고 운산을 확보하였다. 제12연대도 이날 운산에 진출하여 그 서측방에서 도로를 차단하는 중공군을 목격하였으며, 이 소식은 전 부대에 알려졌다. 10월 26일에도 사단은 운산북방과 동남방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중공군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단 및 미 제8군에서는 이 급변된 전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중공군의 개입 징후에도 불구하고 동경의 유엔군사령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지만, 결론은 "대규모의 중공군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중공군이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수풍발전소를 방호하기 위한 수천 명 정도이거나 수만 명 이하일 것이다"고 평가 절하하였다.

이에 따라 상황을 관찰하던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진격작전을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8군 예비대로 평양경비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제1기병사단을 국군 제1사단을 초월하여 수풍호(水豊湖)까지 진격하도록 10월 28일에 지시하였다.

<상황도 6-5> 영변-운산 진격전



그러나 전 전선에서 계속 중공군이 출현함으로써 이제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으나, 유엔군 총사령부 당국과 중공군 개입의 사실을 인정치 않는 혼란을 겪고 있었다.

3) 순천-개천-희천 진격전('50. 10. 20～22)

(1) 전투 개요

국군 제2군단은 평양탈환작전을 위해 원산-덕원을 출발하여 서북진하였으나, 미 제1군단의 급속한 진출로 국군 제7사단 제8연대만 참가하여 제1사단과 유엔군부대가 이미 평양을 탈환하였기 때문에 육군작전명령 제221호에 의거 진격방향을 바꾸어, 성천으로부터 순천-개천-희천 쪽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국군 제2군단이 미 제1군단 보다 먼저 북진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6사단은 10월 19일 성천(평양 동북방 45㎞)을 점령한 후 군단장 명에 의하여 진격방향을 바꾸어, 성천으로부터 순천-개천-희천 쪽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그 다음날 사단 예하 제7연대를 선두로 순천(평양 북방 60㎞)에



중국군의 인해전술

돌입하여 공수낙하한 미 제187공수연대와 연결함으로써 제7연대가 이때부터 미 8군 중 가장 북쪽에서 진격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한편 국군 제8사단은 10월 18일 강동(평양 동북방 35㎞)까지 진격하여 평양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으나, 역시 군단장 명에 의하여 다시 진격 방향을 북쪽으로 되돌려 군단의 우측 사단으로서 가창-북창(강동 동북방 55㎞)-덕천을 경유하여 희천으로 진격하였다.

이 지역의 적은 각 부대의 패잔병들로 혼성된 부대로서, 초산-강계 쪽으로 퇴각하면서도 일면 유격전을 기도하고, 중공군이 불법침입 할 때까지 지연전을 전개함으로써, 아군을 험준한 산악지대로 깊숙이 유도하여 주요도로 주변에 병력을 엄밀히 배치하고 아군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일대 포위전을 기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공군은 방어작전에서 운동전[27]으로 적을 각개섬멸한다는 1차전역계획을 수립하고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각 군의 기동상황과 정면의 유엔군 상황

<표 6-6> 전투에 참가한 국군 부대 및 지휘관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제6사단	사 단 장		준장	김종오(金鍾五)	
	제2연대	연대장	대령	함병선(咸炳善)	
		제1대대장	소령	석순천(石順天)	
		제2대대장(代)	대위	이성훈(李聖勳)	
		제3대대장	소령	송대후(宋大厚)	
	제7연대	연대장	대령	임부택(林富澤)	
		제1대대장	중령	김용배(金容培)	
		제2대대장	중령	김종수(金鍾洙)	
		제3대대장	중령	인성관(印聖琯)	
	제19연대	연대장	대령	김익열(金益烈)	
		제1대대장	소령	김준교(金俊敎)	
		제2대대장	소령	김욱전(金旭篆)	
		제3대대장	소령	박 철(朴 徹)	
	제16포병대대	대대장	소령	김 성(金 聖)	지원부대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계획을 조정하고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전역에서는 국군 2~3개 사단을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28]

이 무렵 미 제187공수연대는 적 주력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평양 부근에 구치된 미군포로를 구출할 목적으로 순천과 숙천 부근에 공중투하 되었으며, 동부전선의 수도사단은 19일 함흥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 전투에 참가한 국군 부대 및 지휘관은 <표 6-6>과 같다.

(2) 전투경과

① 작전계획

국군 제2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압록강으로 향한 진격작전을 위해 예하사단에 다음과 같은 약식명령을 하달하였다.

> "군단의 공격목표는 희천(평양 서북방 135㎞)이다. 제6사단은 개천(평양 북방 75㎞)을 탈환한 후 희천으로 진격하라. 제8사단은 덕천(평양 동북방 90㎞)을 탈환한 후 구장동(덕천 서북방 25㎞)을 경유, 희천으로 진격하라. 제7사단은 삼등(평양 서측 35㎞)에 집결하는 즉시 배속을 해제하고 10월 20일 이후에는 육군본부의 직접지시에 임하라. 공격개시선은 각 부대의 현 진출선이다."[29]

이에 따라,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제7연대와 제19연대를 공격제대로 하고, 제2연대를 예비대로 집결보유한 다음, 순천-개천-안주를 공격하는 즉시로 희천 쪽으로 진격을 계속토록 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전투 실시

㉮ 미 187공수연대와 연결작전[30]

제7연대는 제1대대와 제2대대를 공격제대로 하고, 제3대대를 예비대로 하여, 10월 20일 07:00시에 도보로 성천(평양 동북방 45㎞)을 출발하여 순천 쪽으로 진격하던 중, 최전방에서 진격하는 연대 수색대로부터 적정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적은 이미 순천북쪽으로 퇴각하고 적의 저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즉시 연대 전 병력을 차량으로 전술적 기동을 하여 급진시킴으로써 이날 20:00시에는 이미 순천으로 돌입하였다. 그런데 미 제11공정사단 제187연대는 이날 14:20분에,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미군 포로를 구출할 목적으로 순천 서남쪽 3.2㎞ 지점에 공중투하 하였는데, 이날 제7연대 주력이 순천으로 돌입하자, 서로 얼싸 안고 반가워하였다. 이 때 공수대원들은 6사단이 노획한 소련제 권총과 다발총을 기념물로 줄 것을 희망하기에 노획품의 일부를 넘겨주기도 하였다. 이곳 순천에는 적의 후방사령부가 있던 곳으로서 적은 황급히 패주하면서 많은 보급품을 그대로 남겨둔 채 패주하였다. 이때 노획한 보급물자는 대부분이 아군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가 올 월동준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 **제7연대의 개천 진격전**[31]

제7연대 제2대대는 10월 21일 06:00시에 개천 남쪽 15㎞ 지점까지 진격하였는데, 이곳에서 1개 중대규모의 적과 부닥치게 되었다. 대대장은 즉시 대대 전 화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일제히 이 적을 추격, 섬멸토록 명령하였다. 이때 적은 주변 산악지대로 분산, 패주하면서 산발적인 저항을 기도하였으나, 대대장은 더 이상의 추격을 중지시키고 개천 쪽으로 기동을 계속토록 하였다.

한편 예비대인 제3대대는 순천에서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초월하여, 북쪽 50㎞ 지점에 있는 개천을 이날 안으로 점령, 확보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대대장 인성관 중령은 대대 전 병력을 제9중대, 제10중대, 제12중대, 그리고 제11중대의 순으로 개천을 향해서 차량으로 신속하게 기동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도중에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도로상을 2열종대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대대장은 예하 각 중대장과 대대참모들을 모아 놓고, 현재 대대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서, 개천까지 진격해야 하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연대장의 명령수행을 시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이 적과 교전할 여유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 대대장은 적 행군대열의 중앙을 그대로 돌파하여 개천까지 급진할 것을 결심하였다. 대대장 인성관 중령은 차량화된 전 대대를 적 행군대열의 중앙으로 돌파, 기동토록 하면서 자동차 위에서 크게 외치기

를 “전쟁은 이제 끝났으니 총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적은 대부분 총을 버리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으며, 일부는 주변 산악지대로 패주하고 말았다. 따라서 대대는 1발의 소총도 쏘지 않고 개천까지 진격하였다. 뒤 이어 연대 수색중대가 개천으로 기동하던 중 도중에 이 대대와 조우하였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예기치 않았던 손실을 입었으나, 곧 이 적을 격파하고 개천까지 진격하였다. 이 무렵 연대 주력은 순천-개천 사이를 기동하고 있었다.

㉰ **제7연대 제3대대의 개천 방호**[32]

10월 21일 밤 개천을 점령, 확보한 제7연대 제3대대는 3개 소총중대를 개천 외곽지대에 배치하여 사주경계에 임하도록 하고, 중화기중대와 대대본부는 신안주에서 개천에 이르는 도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21:30분에 신안주 쪽에서 열차가 개천 쪽으로 기적을 울리면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대장 인성관 중령은 즉시로 대대본부 기간요원과 중화기중대 병력으로 하여금 선로변에 배치토록 하고, 열차가 개천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대기하고 있도록 하여, 기습공격을 가하기로 결심하였다. 적은 아군이 벌써 이곳 개천까지 진격하였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고, 대대장은 열차가 우리 병력이 배치된 중앙으로 접근하였을 때, 일제히 사격을 명령하였다. 그 중 81㎜ 박격포탄 1발이 기관차에 명중함으로써 열차는 정지되고 기관사 1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열차 호송병들은 당황하여 패주하였다. 이 열차에는 많은 보급품과 소련제 전차 7대, 그리고 각종 화기가 신품인 채 적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노획하였다. 이 때 노획한 보급품 중에 적의 군복(작업복)이 많이 있었는데, 대대본부 요원과 중화기중대 사병들에게 한 벌씩 나누어 입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다시 전과 같은 방향에서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앞의 열차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차 역시 이곳에서 정지되었고, 이 열차는 정지됨과 동시에 기관사를 비롯한 호송병들은 황급히 사방으로 흩어져 패주하였다.

제3대대는 10월 21일 밤 상황이 계속되면서 10월 22일 날이 밝자, 이번에는

신안주 쪽에서 1개 사단규모의 적이 개천 쪽으로 행군대열을 지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대장은 쌍안경으로 적정을 살펴보니, 적은 패잔병의 대열로서 후미에는 전차 10여 대가 뒤따르고 있었다. 대대장은 즉시 대대 전 병력을 개천 서남쪽으로 은밀히 기동시켜 장방 일대에 배치하고, 급습을 가하여 적을 섬멸코자 하였다. 적은 아군의 이와 같은 시도를 모르고 선두부대가 교량 중간에 이르렀을 때, 대대장은 미리 계획된 신호탄을 발사함으로써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적은 불시에 기습을 당하자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패주하였으나, 아군의 이미 계획된 화망에 걸려 대부분 격멸되었다. 이때의 적은 양적으로 우세한 병력이었으나, 전의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패잔병의 집단으로서, 아군의 기습공격에 부닥쳐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된 채 사방팔방으로 패주하였다. 대대는 전장정리도 할 사이 없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10월 22일 07:00시 연대 주력과 같이 희천 쪽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압록강으로 진격 중인 제6사단 장병들

㉱ 제19연대의 영변 진격전[33]


화력지원 중인 105밀리 화포

제19연대는 10월 21일 13:30분에 순천을 출발하여 용원리(순천 북방 17㎞)까지 기동한 다음, 부대정비에 임하고 있었으며, 10월 22일 12:00시에 용원리를 출발하여 개천까지 기동하였는데, 제3대대는 105㎜ 곡사포대와 대전차포의 지원을 받아 영변 쪽으로 진격을 계속하던 중, 이날 19:30분에 1개 중대규모의 적과 부닥치게 되자 대대는 지체하지 않고, 곧 돌격대형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일제히 적진을 향하여 돌진한 다음, 적을 일격에 격파하고 영변을 점령, 확보하는 즉시로 주변 일대의 경계에 임하였다.

이때 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온 중에 서울에서 납북되어 이곳까지 끌려온 소설가 박계주를 발견하였는데, 곧 그를 연대본부를 통해서 사단사령부로 보냈다.

㉲ 제6사단(-2)의 개천 진격전

10월 20일 저녁 성천까지 기동한 제2연대는 10월 21일 08:00시 제3대대, 1대대, 그리고 제2대대 순으로 성천을 출발하여 순천 쪽으로 기동하던 중, 22:00시에 이르러 각 대대는 은산(순천 동남방 7㎞)을 통과하여 순천까지 진격하였고, 연대본부와 사단사령부는 이날 21:00시에 은산까지 이동하였다.

10월 22일에는 제1대대는 이미 개천까지 기동하였으며, 제2연대와 제3대대는 개천 남쪽 2㎞ 지점까지 기동하여 잔적섬멸과 사주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날 사단 주력의 진격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하기 위하여 순천까지 나와 있던 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사단 정보참모 유양수 소령으로부터, 순천 북쪽에 있는 터널 속에 미군 포로가 학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단장은 즉

시 미군 고문관을 대동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미군 포로 200여 명이 학살되어 있었으며, 시간적으로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그 신음소리가 들리기도 하였으니, 불운한 포로들을 이와 같이 죽일 수 있을까? 더구나 뼈만 앙상하게 남은 포로들이 겹겹이 포개어져 있었으니, 그 급양의 불량함도 능히 짐작이 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지옥 속에서도 천행으로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 20여 명을 발견하였으므로 급히 구급차를 동원하여 후방병원으로 후송토록 하였으니, 신의 가호를 받을 수 없는 공산도배의 만행에는 전율마저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포병대는 공격제대의 진격을 근접지원하기 위해 순천으로 약진하였다. 이때 순천 남쪽에서 굴속에 숨어 있던 양민들을 놓아 주고 식사를 제공해 주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듯 기뻐 날뛰었다. 또한 대대장 김성 소령은 포탄보급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인접 미군 포병대대를 방문해서,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포탄을 나누어 주도록 요청하였던 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 800여 발 중 400여 발을 분배받아 사용하였다.

㈐ 제7연대의 구장동-희천 진격전[34]

10월 22일 제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어젯밤부터 두절된 제3대대와 통신이 새벽에 소통된 직후 제3대대장으로부터 지난밤의 상황과 많은 물량의 적 장비와 보급품을 노획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대대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3대대를 연대예비로 개천에 잔류시키고 제1대대로 하여금 제3대대를 초월, 희천을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제1대대장은 06:00시 순천을 출발, 개천에서 제3대대를 초월한 후 군우리 삼차로에서 동북쪽 방향의 회천으로 기동하였다. 제1대대는 군우리 북방 4㎞ 지점에서 수 미상의 적과 교전 중인 코끼리 특수임무부대를 발견하고 이들을 초월 기동하여 적을 격퇴한 후 원리를 거쳐 구장동으로 향하였다. 진격 도중 원리에서 8㎞ 북쪽 자작(自作)에 도착하니 보급품을 실은 50여 량의 화차가 철로위에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다. 노획품 처리는 후속부대에 맡긴 채 계속 진격하여 도중에 저항하는 소수의 적을 제압하고 20여 명을 생포한 후 구장동을 무혈점령하였다.

구장동은 만포선(평양-만포진)과 평덕선(평양-덕천-구장동)이 교차되는 교통의 요지로서, 주변 일대의 산길까지도 이곳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저항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의외로 그들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제1대대가 구장동을 출발 공격목표인 희천으로 향하던 중, 구장동 북쪽 7㎞ 지점 터널에서 북한군에게 학살된 미군포로의 시체 28구를 발견하였고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3명의 미군포로를 구출하였다.

생존포로는 "북한군이 30여 명의 미군포로를 끌고 북으로 가다가 22일 아침 국군의 추격으로 시간이 없자 이 터널 속에 몰아넣은 다음 기관총을 난사하여 학살하였다. 적의 마지막 부대가 이곳을 통과한 것은 5~6시간밖에 안 된다"고 말하였다.

얼마 후 대대는 청천강 도하지점에 이르렀다. 이곳은 원참(구장동 동북방 12㎞)으로 청천강을 가로질러 교량이 있었으나 폭격으로 파괴되어 수심이 얕은 하류를 택하여 도섭하던 중 이곳을 통과하려던 북한 고급관리 및 북한군 차량이 미공군의 폭격으로 강물 속에서 파괴되어 통로가 막혀 있었다. 거기에는 고급승용차 22대를 비롯한 일산(日産)트럭과 미군트럭 등 100여 대의 차량이 물속과 강변에 즐비하게 버려져 있었다. 제7연대의 추격을 받은 북한관리와 북한군은 청천강을 도하하려다가 수심이 깊어 차가 빠지자 몸만 빠져나간 것이다. 이 노획차량 가운데 승용차는 일반 시중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세단이었다.

대대는 원참도섭장에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몇 대만 밀어붙이고 도섭한 후 희천을 향해 진격을 계속하였다. 대대는 제1중대를 선두로 청천강을 건너 진격 도중 화평참(구장동 동북방 13㎞) 북쪽 도로변에서 식사 중인 북한군 장교 13명을 생포하고 그 주변 마을 입구에서 500여 명의 북한군을 교전 끝에, 저항하는 자는 사살하고 대부분의 병력을 생포하였다.

이와 같이 1개 중대 병력이 큰 교전도 없이 대대규모의 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군 패잔병도 이젠 저항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한 단면인 동시에, 전쟁이 곧 끝나리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 청신호와도 같은 것이었다. 한편 포로가 갑자기 많이 획득되자 문제점이 생겼다. 대대가 단독으로

진격 중인 처지에 수시로 발생하는 포로들을 모두 수용하거나 일일이 후송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대대는 포로를 선별하여 경상자와 연소자 및 양민으로 인식되는 포로는 무장을 해제한 후 동포애를 발휘하여 귀향 조치하고 간부를 포함한 극렬분자(極烈分子)만 골라 압송하였다.

연대장은 제1대대가 본대와 40㎞나 이격되어 있고 날이 어두워 야간공격을 강행하여 군단의 목표인 희천을 단독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추격을 중지하고 희천 남쪽 25㎞ 지점, 화평동 북쪽에서 숙영한 다음 23일 새벽에 여명공격을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명일 희천 공격 시는 연대의 주력이 후속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10월 23일 06:00시 제7연대의 선봉 제1대대는 화평참을 출발, 희천으로 진격하였다. 대대가 화평참으로부터 9㎞를 기동하여 하행동(下杏洞) 삼차로에 도달했을 때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일제히 사격을 가해 왔다. 대대는 전원 하차하여 이들 적과 30분간 교전 끝에 격퇴시키고 계속 기동하여 마침내 14:30분에는 희천시내가 바라보이는 유중참 마을로 접어들었다. 목표 탈취를 앞에 두고 긴장과 환희가 엇갈리는 순간 갑자기 북한군의 122밀리 야포탄이 날아왔다. 그리고 희천 동북쪽 490고지 중턱에서도 요란한 사격 소리와 함께 이들의 기관총탄이 유중참 일대에 난무하였다. 이들은 사전에 편성된 방어진지에서 야포와 기관총 등을 계속 사격하면서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었다. 포성과 총성이 엇갈리며 희천 일대를 진동하는 가운데 1시간 동안에 걸친 교전이 계속되었다. 16:00시경에 이르러 적은 희천을 포기한 듯 주력은 철수하고 일부 잔류 병력만이 투항하여 왔다. 이들은 철수과정에서 얼마나 서둘렀는지 동료의 시체는 물론 부상자까지도 그대로 버려둔 채 강계 방향으로 후퇴하였다.

생포된 포로 진술에 의하면, 희천에서 저항했던 북한군은 제18사단의 일부병력으로서 그 주력은 구현령 일대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현령은 희천북쪽 25㎞ 지점에 있으며 이 고개만 넘어서면 강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작전상의 요지이다. 대대는 희천에서 T-34 전차 20대와 의약품 및 보급품을 실은 화차 6량을 노획하였다.



국군을 환영하는 청천강변 희천의 주민들('50. 10. 24)

대대장은 "희천을 탈환한 후, 차후명령을 대기하라"는 연대장의 명에 의해 희천에 주둔하면서 야간경계를 강화하였다. 이 무렵 제7연대 제2대대는 16㎞ 서남쪽 하행동에, 제3대대와 연대지휘소는 그 남쪽 구장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예비인 제2연대는 제7연대가 희천을 탈환하자 사단장의 명에 의거 온정리를 탈환하기 위하여 구장동 남쪽 자작으로 급거 진출하여 이곳에서 청천강을 건너 도보로 온정리를 향해 진격할 계획이었다. 또한 제19연대(-)는 제2연대와 교대하여 사단예비로 군우리에 대기하고 있었다. 전날 영변을 점령한 제3대대도 그곳에서 차후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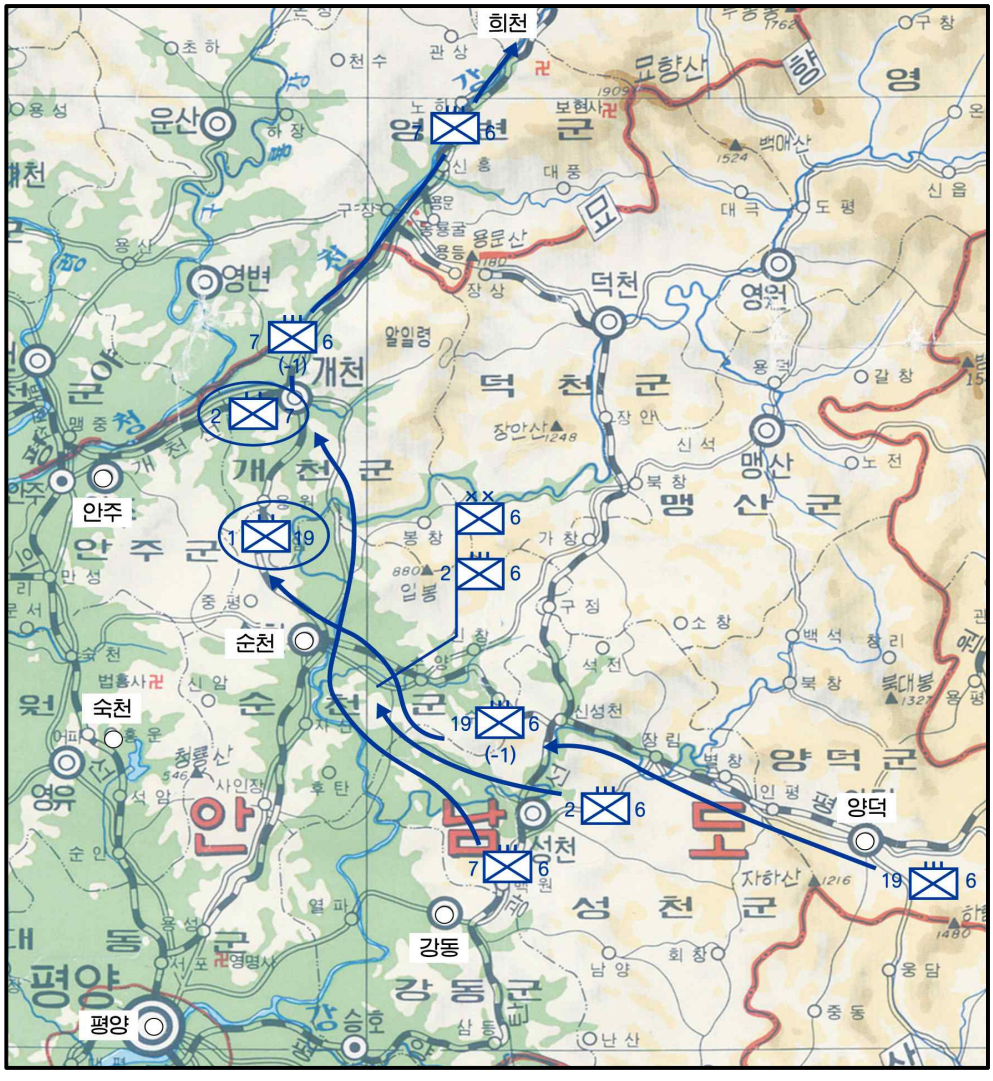
(3) 전투 결과

제6사단은 평양을 탈환할 임무를 띠고, 10월 15일 원산-덕원(원산 서쪽 6㎞)을 출발하여 양덕을 탈환한 다음, 계속해서 19일 성천까지 급진하였으나, 군단장 유재흥 소장 명에 의하여 진격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 제7연대는 사단의 선봉대로서 20일 순천까지 진격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최종 목표인 압록강변까지 급속히 진격하기 위하여, 제7연대로 하여금 판하동-고장을 경유, 초산으로 진격토록 하

고, 제2연대로 하여금 북진-대유동선을 따라 벽동으로 진격토록 하는 동시에 제19연대는 예비대로서 영변 쪽에서 제7연대의 뒤를 따르게 하였다.

한편 동부전선의 수도사단은 10월 22일 북청-중양리-신흥가도를, 그리고 좌측 제1사단은 안주와 개천 중간지점까지 각각 진격 중이었다.

<상황도 6-6> 순천-개천-희천 진격전



4) 초산 진격전('50. 10. 23~10. 26)

(1) 전투 개요

총반격작전이 시작된 이래, 중부전선의 험준한 산악지대만을 따라 북진을 계속한 국군 제2군단은 빠른 시일 안에 한·만 국경선 압록강변에서 적을 섬멸하여 국토통일의 대업을 이룩하고자 제6사단을 좌, 제8사단을 우로하여 초산과 만포진을 목표로 각각 주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제6사단은 어느 사단보다도 빨리 청천강 계곡을 급진하여, 10월 23일 밤에는 이미 희천에 돌입한 다음, 다시 서쪽으로 그 예봉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7연대가 가장 선두에서 진격을 재촉하고 있었으며 그 최종 목표인 초산까지는 불과 80㎞정도 남겨놓고 있었다. 연대는 서쪽으로 돌진하여 극성령을 넘어 회목동-판하동을 목표로 계속 기동 중에 양강동(희천 서북방 40㎞)에서 북한군 제8사단 소속 패잔병들의 경미한 저항이 있었을 뿐 큰 접전없이 판하동으로 진출하였다. 계속해서 초산 남방 30㎞인 고장으로 진출한 연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예비대까지 투입하는 격전을 벌인 결과 이를 격퇴하고 고장을 점령하였다. 초산 남쪽 6㎞ 지점에서 수 미상의 적으로부터 기관총 사격을 받았으나 81㎜ 박격포 사격으로 이를 제압한 다음 진격을 재개한 제1대대는 인기척이 없는 초산 시가를 통과하였다. 그곳에서 압록강 남안까지는 불과 6㎞의 거리였으나 산에 가려 압록강이 보이지 않았다. 진격을 계속한 대대는 10월 26일 14:15분에 드디어 압록강변인 신도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태극기를 꽂았다. 그후 대대는 3개 소대를 강변에 배치하여 국경을 경비토록 조치하고 대대주력은 이날 10:00시에 초산으로 철수하였다.[35]

적은 평양 부근에서 패주하여 제1차 방어선인 청천강에 이르자 최대한의 지연전을 계속하면서 퇴각 중이었으며, 초산 부근의 적은 9월 중순 신녕-조림산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에 의하여 참패를 당한 바 있던 북한군 제8사단의 주력으로서, 아군을 적 진지 깊숙이 유도한 연후에 포위, 섬멸할 의도로 진격로 양측의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불의의 기습으로 아군에 강타를 가하여 보고자 하였다.

<표 6-7> 국군 및 북한군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부대 / 직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2군단장		소장	유재흥(劉載興)	
	제6사단장		준장	김종오(金鍾五)	
	제2연대	연대장	대령	함병선(咸炳善)	
		제1대대장	소령	석순천(石順天)	
		제2대대장	대위	이성훈(李聖勳)	대리
		제3대대장	소령	송대후(宋大厚)	
	제7연대	연대장	대령	임부택(林富澤)	
		제1대대장	중령	김용배(金容培)	
		제2대대장	중령	김종수(金鍾洙)	
		제3대대장	중령	인성관(印聖琯)	
	제16포병대대장		소령	김 성(金 聖)	지원부대
북한군	제2군단장		중장	김무정(金武亭)	
	제8사단장		소장	오백룡(吳白龍)	

국군 및 북한군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은 <표 6-7>과 같다.

(2) 전투경과

① 작전계획[36]

제2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압록강변을 제압하면서 한·만 국경선을 감시함으로써 국토통일을 완수하려는 작전개념으로 제6사단으로 하여금 수풍댐으로부터 동쪽지역을 담당토록 하고, 제8사단으로 하여금 그 동북측으로 만포진 방면을 담당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제2연대를 좌로하여 벽동을 목표로 진격토록 하고, 제7연대를 우로 하여 초산을 목표로 돌진토록 하는 동시에 제19연대를 예비대로 온정리에 집결보유하도록 하였다.

제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사단의 우익 연대로서, 제1대대를 선두대대로 하고, 제2대대와 제3대대순으로, 극성령[37]을 넘어 회목동-판하동-고장을 점령, 확보한 다음, 계속하여 초산으로 돌입함으로써 압록강변을 확보케 하고, 제1대대로 하

여금 초산지역을 점령케 하는 동시에 이어서 연대 주력은 초산으로 진격토록 하였다.

② 작전 실시

㉮ 국군 제7연대의 초산 진격전

제7연대 제1대대는 10월 23일에 희천을 점령, 확보한 다음, 연대 작전계획의 변동으로 인하여 대대장 김용배 중령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예하 각 중대에 하달하였다.

"제1중대는 대대의 일부로써 방향을 바꾸어 서쪽으로 진격하여 극성령(희천 서북방 30㎞)을 넘고, 회목동-풍양-고장을 거쳐, 초산을 점령하는 즉시로 압록강 국경선을 경비하라."

이에 따라서 제1대대는 희천-영변 선에서 북쪽으로 패주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여 이를 격멸하면서, 10월 23일 14:00시에 희천을 출발하여 극성령 부근에서 준동하는 1개 소대규모의 적을 일거에 격파한 다음, 20:00시에 회목동까지 진격하였으며, 제2대대는 제1대대에 뒤따라 또한 이에 뒤질세라 진격을 재촉하고 있었다.

한편 제3대대는 연대본부와 같이 구장동(개천 동북방 20㎞)에서 차량으로 태평(개천 동북방 45㎞)을 경유하여 이날 13:15분에 온정리(태평 서북방 27㎞)까지 진격한 다음, 계속 회목동(온정리 동북방 30㎞) 쪽으로 진출하던 중 18:00시에 이르러 용연 남쪽 관대동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최후 저항을 감행하려는 1개 대대규모의 적과 부딪혀 30분간에 걸친 교전 끝에 이 적을 서쪽 멀리 대암봉 쪽으로 물리치면서 승승장구로 용연까지 진격하였다.

이 무렵 연대본부에는 태천 부근에 중공군이 출현하였다는 소문이 들어 왔고, 이 지방 주민들이 동요가 있는 듯이 보였으나, 이는 공산분자들의 역선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러한 낭설을 모두 일축하고 다만 진격만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제7연대 제1대대는 전날 이래로 진격을 계속하던 바, 10월 24일 중식을 위한 두 시간의 휴식과 부대정비를 끝마친 다음, 제3중대를 선두로 제1, 제2중대 순으로 초산을 향해 급진하였으며, 제2대대는 제1대대에 뒤질세라 그 뒤를 따라 급진 중이었다. 이리하여 양강동을 통과할 무렵, 도로 양쪽 고지에서 병력 미상의 적으로부터 불시에 기관총의 집중사격을 받았는데, 선두에서 약진하고 있던 제3중대는 즉시 박격포의 포문을 열어 집중탄으로 이 적을 제압하는 동시에 연대장은 제1대대를 우측으로 제2대대를 좌측으로 급히 전개하여 도로 연변을 따라 퇴각하는 적의 머리 위에 사정없이 총포의 세례를 퍼부었으며, 판하동에 이르기까지 그 화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곳에서 연대는 1개 소대의 강력한 수색대대를 편성하여 적정수색에 임하였는데, 이날 23:00시에 수색대에 입수된 첩보는 태천 부근에 중공군이 출몰하였다는 예기치 않았던 소식이었다.

한편 제1대대장 김용배 중령은 판하동에서 적의 통신선을 역이용하여 풍장에 있는 소속 미상의 적에 대하여 급히 증원할 것을 요청토록 하였는데, 적은 아군의 기만통신에 속아 30여 명의 지원병이 차량으로 남하하여 왔으므로 즉시 이 적을 전원 포로로 잡아 적정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때에 이들 포로들로부터 중공군이 출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초산에 이르는 풍장-고장 부근의 적정에 대한 첩보도 입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적정에 대한 보고를, 제7연대장 임부택 대령으로부터 받게 된 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중공군이라고 결코 대수로운 존재가 못 되니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한 까닭으로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계속 진격토록 명령하였다.

제7연대는 10월 25일에 판하동에서 고장에 이르는 가도를 따라 진격하면서, 어제 저녁에 잡은 포로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여, 풍장 동남쪽 고지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적 2개 중대규모의 병력에 대하여 81㎜ 박격포의 일제 집중사격을 가하여 분산, 패주케 하는 즉시로 풍장을 확보한 다음, 계속 급진하여 18:00시에 고장 남쪽 안곡동까지 진출하였다. 적은 고장을 사수할 목적으로 동북쪽 야산 일대에서 1개 대대규모의 방어진지를 점령하는 한편, 그 남쪽 부평동에 1개 중대, 그리고 고장 북쪽 가마봉에 1개 중대, 또 그리고 그 서쪽에 1개 중대

병력을 각각 배치하여, 아군의 예봉을 꺾어 보고자 사력을 다하는 듯이 보였다.

연대는 안곡동으로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제1대대를 고장 동쪽으로, 제2대대를 서쪽으로, 그리고 제3대대를 정면에서 각각 전개토록 하여 일제히 공격을 결행하였는데, 적은 독전까지 감행하면서 죽을 때까지 최종발악을 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2시간 이상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이 적은 강계 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연대는 20:30분에 고장 일대를 점령,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만 국경선에서 30㎞를 남기게 되는 선까지 진출하게 된 연대는, 좌우 인접부대와 충분한 연락을 유지하지 못한 가운데 적진 깊숙이 진격하였기 때문에 곧 적의 반격에 대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2대대로 하여금 고장 서쪽 일대에, 그리고 제3대대로 하여금 고장 북쪽 고지 일대를 각각 점령케 하여, 사주경계에 임하도록 하면서, 적정을 수색토록 배치하였다.

이날 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초산 진격을 직접 진두지휘하기 위하여, 선발대로 진격 중인 제7연대 제1대대로 가는 도중 차량 사고로 인하여 부상하였으나, 사단장은 후송을 거부하고 들것에 실린 채로 계속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제7연대는 10월 26일 중으로 초산을 점령하고 압록강선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1대대로 하여금 초산 쪽으로 급진토록 하고, 연대 주력은 고장 주변의 요지를 확보하여 적의 불의의 반격에 대비토록 한 다음, 제1대대가 초산을 완전히 확보하는 즉시로 연대 주력을 초산으로 기동시킬 계획이었다.

제1대대장 김용배 중령은 연대장 명에 의하여, 초산을 점령하여 압록강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38]을 각 중대장에게 하달하였다.

"첫째, 제3중대로서 첨병중대를 삼고, 대대 주력의 선두에는 제1중대, 제2중대의 순으로 진격토록 하며 노획한 적 차량으로 차량화하여 기동하라.

둘째, 국경분쟁을 유발하지 않기 위하여 만주 쪽을 향해서는 단 1발의 총포라도 쏘지 말라.

셋째, 민간, 양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군 고용인을 제외한 모든 남녀노소를 국경선 이남 8㎞선까지 후송, 집결토록 하라.



압록강변에서 60㎜ 박격포로 인민군 공격
(중국진영 미침범)



압록강에 도달한 국군용사('50. 10. 26)

넷째, 국경선 경비는 압록강에 먼저 도달한 부대가 담당하고 대대 주력은 압록강변까지 진격한 다음, 6㎞ 후방으로 이동하여 초산에 집결한 다음, 차기 명령을 대기하라."

이상과 같은 대대장 명령에 따라 이날 07:00시에 대대는 대전차포 1개 소대를 배속받아, 압록강 연변에 위치한 초산을 점령하기 위하여 진격을 재촉하였다.

적은 낙동강선의 신녕 부근에서 계속하여 지연전을 전개한 북한군 제8사단의 각 연대 혼성부대로서 도합 1개 연대규모의 병력으로 초산 주변지역을 최후까지 방어하고 있었다.

제7연대 제1대대는 제3중대를 선두로 하고, 제1중대, 제2중대 순으로, 국경지대의 초설이 덮인 산야를 따라 급진하던 중, 초산 남쪽 6㎞ 지점에서 적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 제3중대는 차량에서 하차하는 즉시로 전개하여 제1중대와 병행,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때에 81㎜ 박격포는 차

량 위에서 그대로 적에 대하여 집중사격을 가하였으며, 산병들은 적 진지를 향하여 급히 포위태세를 취하면서 1시간여에 걸친 교전 끝에 적 방어선을 포위, 돌파하였고, 대대는 전장을 정리할 여유도 없이 다시 제1중대를 선두로 하여 진격을 계속하였으며, 대대장 김용배 중령은 제3중대의 선두에서 진두지휘하였는데, 우리 국군의 용감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김용배 중령이 직접 지휘하는 제1중대는 대대의 최선두에서 굉음도 요란하게 초산을 통과하는 즉시 압록강변을 향하여 돌진하던 중, 동쪽 고지로부터 또다시 적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으나, 즉시 응사함과 동시에 과감한 돌격으로 적을 격파하고, 10월 26일 14:15분에 이르러 드디어 강 언덕 높이 태극기를 꽂았는데, 이날의 햇빛은 유난히도 빛났다. 이리하여 대대는 한·만 국경선까지 진출하는 최선진의 영예를 획득하였고, 오매 간에도 잊지 못하던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이 이로써 이루어진 것 같은 감격적인 일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제1중대장 이대용 대위는 신도장으로부터 좌로 제1소대, 제2소대, 그리고 제3소대의 순으로 배치하여 국경선 감시에 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대대의 주력은 초산지역 경계에 임하고, 연대 주력은 고장 부근에서 적의 반격에 대비해서 철저한 사주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곧 이어 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제1대대장과 연대 정보, 작전 주임을 대동하고 최전방의 강 언덕까지 나와서 용전분투하는 장병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 제2연대의 북진 진격전

제2연대는 10월 25일 온정리에서 벽동(온정리 서북방 75㎞)을 목표로 진격을 개시하여 북진(온정리 서북방 15㎞)으로 진격하던 중 선두대대인 제3대대가 동림산(1165m) 기슭에서 중공군(제40군 제118사단, 제119사단, 제120사단)과 조우하여 피아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게 되어 총포성이 산야를 흔들고 꽹과리와 피리소리가 들짐승을 놀라게 하였다.

이들이 북한군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곧 중공군으로 밝혀졌다. 선두인 제3대대가 분산되자 예비인 제2대대가 투입되었으나 동일한 상황이었다. 이날 오후 포로가 된 중공군 병사는, “그들이 10월 17일부터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중공군과 북한 주민('50. 10. 20)

진술하였다. 제2연대는 10월 26일 중공군에게 온정리를 피탈당하고 퇴로가 차단되어 붕괴된 채 태평방향으로 철수하였다.

당시에 파악된 적정으로는, 북한군은 대부분 위원과 강계 또는 만주의 통천구 방면으로 철수하고 그 일부 경계부대만이 파발령(초산 동쪽 16㎞) 부근에 잠복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주민들의 첩보 제공을 기초로 탐문한 바에 의하면, 4일 전(10월 22일)에 중공군 5명이 말을 타고 이곳을 통과하여 신의주 방면으로 내려가면서 "창성(昌城)에 연락차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는 점과 지금 만포진에는 수만 명의 중공군이 집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김일성은 현재 강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등의 풍문이 나돌아 민심이 매우 동요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 무렵 압록강변의 한 뱃사공의 말에 의하면, 10월 20일 중공군 5명이 말을 타고 만포진-위원을 거쳐 연락차 창성으로 간다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만포진에는 중공군이 3일간에 걸쳐 뗏목으로 밤새도록 압록강을 건넜다는 것이다.



한·만 국경선을 넘는 중공군(1950. 10. 19)

(3) 전투결과

제7연대 제1대대 제1중대는 신도장으로부터 강변을 경계토록 하였고, 대대 주력은 초산으로 이동하여 초산 주변 경계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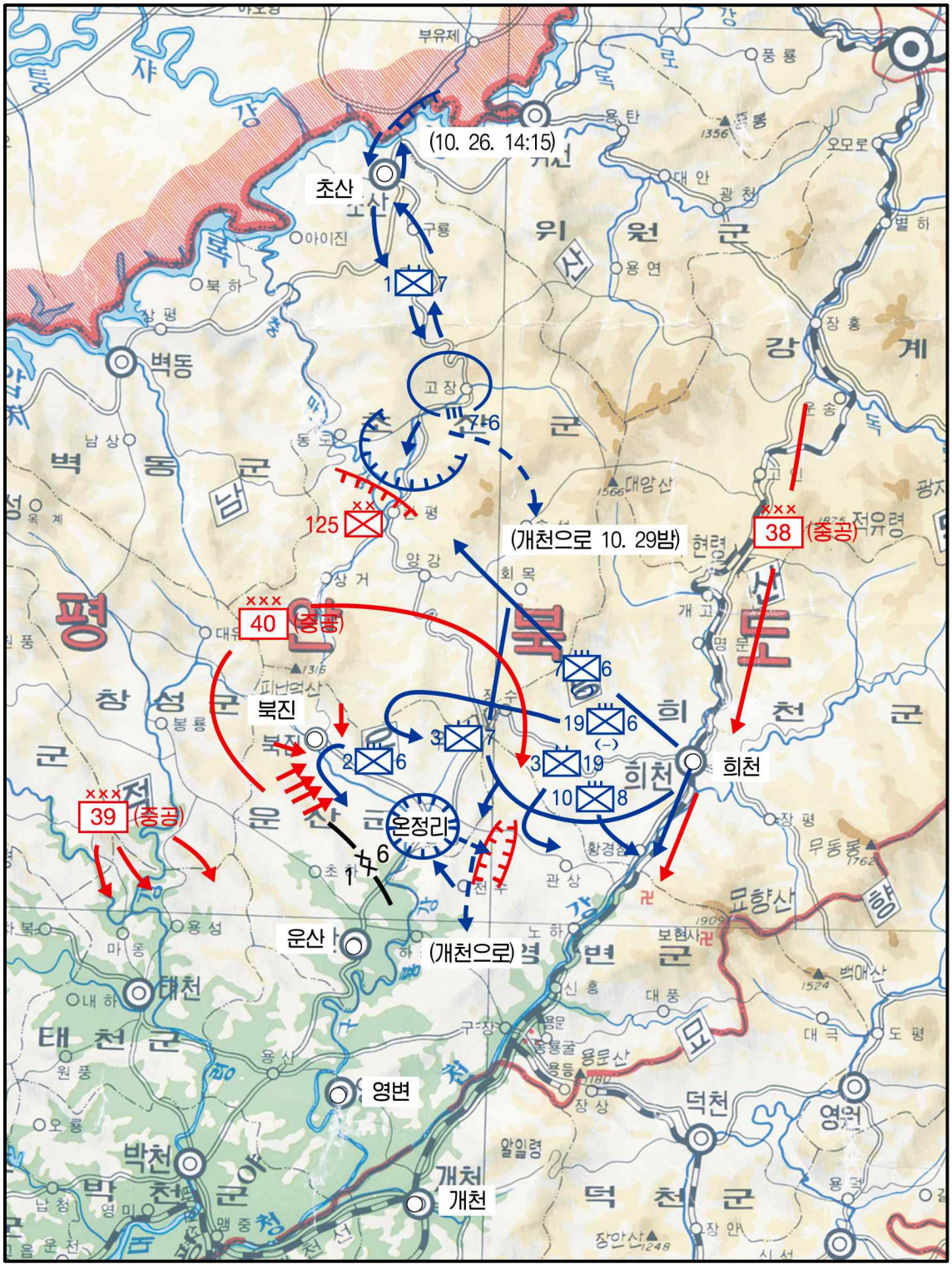
한편 연대 주력인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고장 부근에서 적의 반격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주경계 태세를 갖추고 10월 27일 초산으로 기동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제1대대가 압록강변을 확보하자 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연대 정보, 작전 주임을 대동하고 최전방의 압록강변까지 나와서 용전분투하는 장병들을 위로, 격려하였는데, 이때



초산에서 채취한 압록강 물 : 6사단 7연대, 이승만 대통령에게 헌수

<상황도 6-7> 초산 진격전


(10. 26. 14:15)
초산
1 7
고장
6
125
(개천으로 10. 29밤)
38 (충공)
40 (충공)
북진
7 6
19 6
(-)
3 7
2 6
3 19
10 8
희천
39 (충공)
온정리
1 6
운산
(개천으로)
영변
개천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육군본부에 보낼 압록강 물 두 병을 곧 사단사령부로 보내라는 사단장 김종오 준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연대 수색대원으로 하여금 압록강 물을 떠서 사단사령부로 보냈다.

한편 좌측 제2연대는 벽동을 목표로 서북방으로 진격 중이었으며, 10월 26일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평양 북방 80㎞ 지점 박천에서 대령강을 도하하여 미 제24사단의 일부 부대는 태천으로 진격 중이었고, 미 제10군단은 원산에 대거 상륙하였다.

이 전투의 전과 및 피해는 <표 6-8>과 같다.

<표 6-8> 전투의 전과 및 피해

전 과		피 해	
• 사 살 : 2,411명 • 포 로 : 524명 • 전 차 : 13대 • 화 포 : 128문	• 중화기 : 17정 • 소화기 : 2,075정 • 차 량 : 291대	• 전 사 : 27명 • 전 상 : 195명 • 실 종 : 1,792명	• 화 포 : 101문 • 소 총 : 1,824정

5) 북창-덕천·영원-희천 진격전('50. 10. 24~26)

(1) 전투 개요[39]

군단의 우익을 담당한 제8사단은 제6사단 제7연대가 희천을 탈환한 10월 23일에 덕천(평양 동북방 90㎞)을 탈환하였었다. 당시 제8사단은 제10연대로 하여금 맹산(덕천 동남방 25㎞)을 경유하여 영원(덕천 동북방 20㎞)으로 진격하도록 하고, 제16연대는 북창(평양 동북방 75㎞)을 경유하여 덕천으로 진격하도록 하는 한편, 제21연대는 사단의 예비로서 사단사령부와 함께 가창(북창 서남방 7㎞)에서 그 뒤를 따라 기동하던 중, 제16연대가 먼저 덕천을 탈환했던 것이다.

제8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10월 24일 군단장 유재흥 소장으로부터 희천-강계 축선으로 진격하여 만포진과 중강진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강계는 적의 수뇌부가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중요한 목표였다.

이에 따라, 10월 24일 아침 덕천을 출발한 제16연대는 기동도중 250여 명의 적을 생포하였으며 이들은 제6사단이 구장동을 탈환할 때 산속으로 흩어졌다가 사단의 협공으로 순순히 투항해온 자들이었다. 제16연대는 25일 15:00시에 구장동(덕천 서북방 25㎞)에 도착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사단예비인 제21연대가 도착하였다. 사단장은 이곳에서 제16연대를 사단예비로 하고, 제21연대를 사단의 좌일선 연대로 각각 임무를 전환시킨 다음 제21연대를 선두로 희천을 향해 이동을 개시하였다. 먼저 출발한 제21연대가 10월 26일 14:00시 신흥동에 이르렀을 때 군단으로부터 공격중지 긴급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때가 바로 제6사단 제2연대가 온정리에서 중공군에게 격파되어 분산철수하고 있을 때였다.

사단의 우익인 제10연대는 24일 16:00시에 영원 북방 송평동을 거쳐 26일 13:00시 제8사단 소속부대로서는 제일 먼저 희천에 도착하였다. 이곳 희천에는 제6사단 제7연대가 3일전에 점령했던 곳으로 이때에는 제6사단의 예비인 제19연대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 전투에 참가한 국군 부대 및 주요 지휘관은 <표 6-9>와 같다.

<표 6-9> 전투에 참가한 국군 부대 및 주요 지휘관

부대 / 직책		계급	성 명	비 고
제2군단장		소장	유재흥(劉載興)	
제8사단	사단장	준장	이성가(李成佳)	
	제10연대장	대령	고근홍(高根弘)	
	제16연대장	대령	유의준(兪義濬)	
	제21연대장	대령	김용배(金容培)	
	제50포병대대장	소령	박병주(朴秉柱)	

(2) 전투 경과

① 작전계획[40]

제8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10월 24일 군단장 유재흥 소장으로부터 희천(평양 동북방 130㎞)-강계(희천 동북방 95㎞) 축선으로 진격하여 만포진과 중강진을 탈

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강계는 적의 수뇌부가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중요한 목표이었다.

사단장은 작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면문제는 우선 희천으로 진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비록 희천이 아군의 장악 하에 있다 하더라도 사단이 덕천과 영원에서 희천에 이르기에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 가로 놓여 있었다. 사단 주력이 집결되어 있는 덕천과 제10연대가 위치하고 있는 영원에서 희천으로 기동하려면 묘향산(1,365m) 좌·우측방의 통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16연대는 덕천에서 묘향산 서측의 산간도로를 따라 우선 구장동으로 이동한후 희천으로 기동하고, 제10연대는 영원에서 묘향산 동측의 산악협로를 따라 오령(五嶺)을 넘어 희천으로 기동할 계획이었다. 사단예비인 제21연대와 직할대병력은 제16연대의 뒤를 따라 구장동으로 기동할 예정이었다.

② 전투실시

㉮ 제8사단(-1)의 희천 진격전[41]

10월 24일 07:00시에 덕천(북창 북방 21㎞)을 출발한 제16연대(-)는 묘향산 서측방 통로를 따라 중간 집결지인 구장동(덕천 서북방 25㎞)을 목표로 기동하던 중, 두일령(杜日嶺, 덕천 서북방 11㎞)과 탁고개(덕천 서북방 17㎞) 사이의 분지인 천동(泉洞) 일대에서 많은 포로를 획득하였다. 제8사단의 24일 종합전과 중, 포로가 250명이었는데, 그 대부분을 이 곳 천동 일대에서 사로잡은 것이다.

이틀 전에 제6사단이 구장동을 탈환할 당시 도주하였던 북한군의 패잔병이 이 곳 산촌(山村)에 숨어 있다가 제8사단의 협공을 받게 되자 저항을 포기하고 순순히 투항해 옴으로써, 크게 힘도 들이지 않고 많은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그 뒤로 연대(-)는 다시 기동하여 다음날 15:00시에 구장동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사단의 예비인 제21연대와 덕천 동측방으로 위력수색차 나갔던 제16연대 제3대대가 그 뒤를 따라 구장동에 도착하였다. 사단은 이곳에서 일부 연대의 임무를 교대시켜 제21연대를 사단의 좌일선 연대로 진출시키고, 제16연대는 사단의 예비로서 제21연대의 뒤를 따라 희천으로 기동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21연대가 다시 선두에서 서서히 기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 전선에는 중공군이 출현하여 일선의 전황이 돌변하고 있었다. 먼저 출발한 제21연대가 10월 26일 14:00시에 신흥동에 도착했을 때, 군단으로부터 작전 변경에 관한 긴급명령이 하달되었다.

"① 제8사단은 26일 14:00시를 기하여 공격을 중지하고 구장동으로 집결하여 차후명령에 대기하라.
② 제10연대를 즉시 온정리로 진출시켜 제6사단 제2연대를 지원하도록 하라."

이 명령을 하달할 당시 군단지휘소는 개천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8사단과 제6사단 전방지휘소는 구장동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희천에는 제6사단 제19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가 대기 중에 있다가 군단명령에 따라 함께 온정리로 출동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제8사단은 임무가 전환되어 제2연대의 구출작전과 군단 철수부대의 엄호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 제10연대의 희천 진격전[42]

제10연대에서는 사단의 우익으로서 영원으로 진격하면서 두암리(영원 남방 10㎞) 고개에서 사로잡은 30명의 포로를 심문하여 주변 일대의 적정을 확인해 본 결과, 의외로 이들의 소속은 북한군 제15사단이었다. 낙동강 전선의 영천(永川) 정면에서 전투에 참가하였던 북한군 제15사단 소속 병력이 어느 사이에 이곳까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철원(鐵原) 지역에서 집결한 5,000여 명의 혼성병력이 이곳 언진산맥(彦眞山脈) 통로를 통하여 강계 방면으로 북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것이었다.

한반도를 동서로 갈라놓은 태백산맥의 한 줄기인 이 언진산맥은 영원과 함흥간의 분수령인 검령(劍嶺)을 경계로 하여 낭림산맥(狼林山脈)과 이어지고 있으며, 바로 제10연대가 기동할 예정인 영원지역이 그 서쪽 통로이고 보니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군을 개시한 제10연대의 선두인 수색대가 10월 24일 16:00시에 영원 북방 10㎞ 지점에 위치한 송평동까지 진출하였으나 별다른 접전은 없었으며, 산속을 헤매던 일부의 패잔병만 생포했을 뿐이었다.

이보다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었다. 연대의 기동로인 묘향산 우측 통로가 지도상에는 소로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길이 없었다. 연대 수색대가 해가 저물기 직전까지 길을 찾아보았지만 인적이 드문 산록에는 초목만이 우거져 있었다. 결국 이날 수색대는 현지에서 숙영을 하고, 25일 아침에 다시 대동강류를 따라 소쾌산(小快山, 1,543m) 남쪽까지 수색한 끝에 희천으로 통하는 소로를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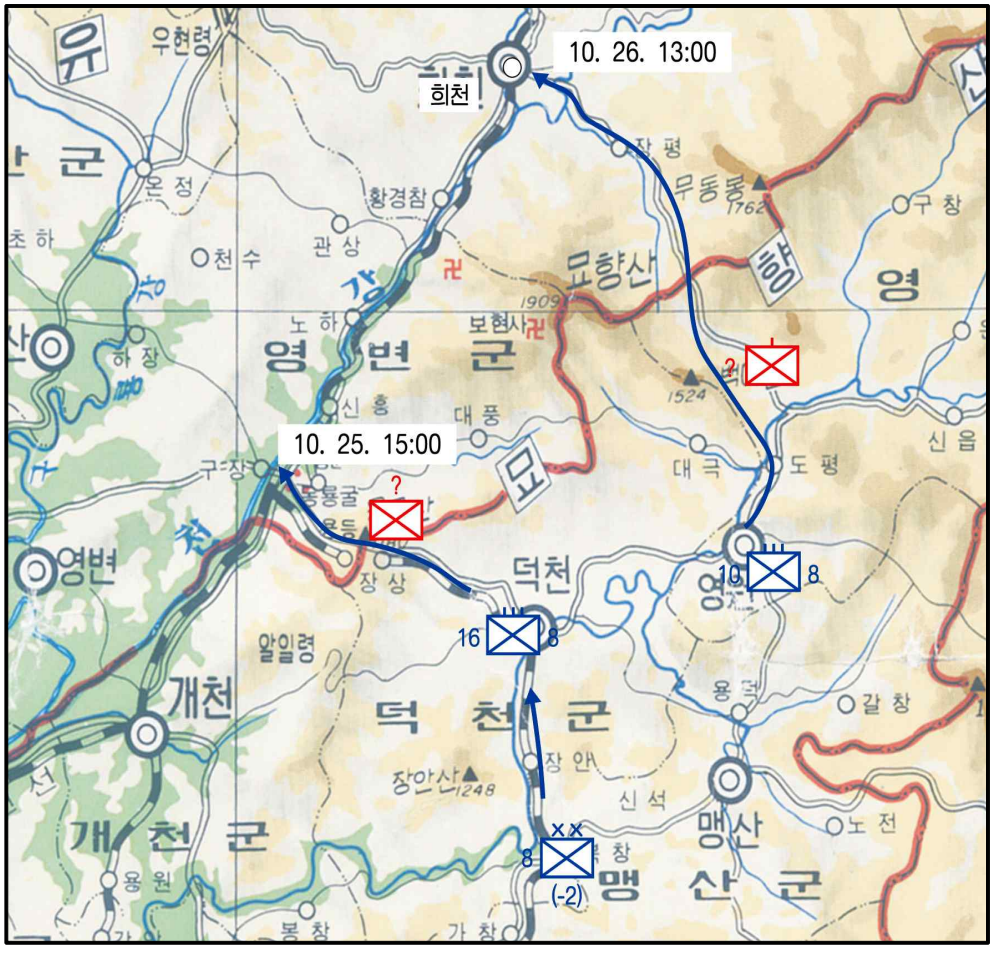
그런데, 이 통로 입구에는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추산되는 이들 북한군은 도로 양측방 능선을 점령하고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제히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수색대원들이 곧 산개하여 사격전을 전개하던 중, 뒤따라온 연대의 제1대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사격과 포격으로 이들을 격파하였다. 그 뒤로, 제10연대는 다시 적의 저항을 받지 않고 계속 기동한 끝에 26일 13:00시에 희천에 도착하였다. 제8사단 소속 부대로는 제일 착으로 희천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3) 전투 결과

희천에서 제6사단 3개 연대와 제8사단 1개 연대가 궁지에 빠지자 군단장은 제8사단의 2개 연대를 구장동 북쪽에 전개시켜 철수부대를 수습하려 하였다.

이렇게 되자 초산으로 진출한 제7연대의 퇴로차단이 우려되었다. 10월 27일 제6사단장은 군단장의 승인을 받아, 제7연대장에게 "제2연대가 패배하여 분산되었다. 연대는 남쪽으로 철수하여 사단과 합류하라"라고 명령을 하달하였다. 초산과 압록강 일대에서 국경선 경비에 임하고 있던 제7연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제7연대는 철수를 개시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퇴로가 차단됨으로써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대가 온통 분산되는 형극의 길을 걸어야 하였다.

<상황도 6-8> 북창-덕천·영원-희천 진격전



제2군단은 10월 29일 군으로부터 미 제1군단 예비로 있던 국군 제7사단을 배속받아 군의 동측방을 방호하기 위하여 11월 1일 구장동-덕천지역에 투입하였으나 이미 중공군이 이곳까지 진출하고 있어 제7사단의 공격도 무위로 끝났다. 이로써 국군 제2군단은 개천-원리 일대로 철수하였다.

6. 동북부지역 진격전

1) 영흥-함흥-성진 진격전('50. 10. 16~30)

(1) 전투 개요

수도사단은 제3사단과 함께 10월 10일 원산탈환작전을 끝마친 다음, 10월 15일까지 예하 제18연대가 여왕산-문천-고원(원산 서북방 35㎞)-영흥(원산 북방 45㎞)을 계속 점령하여 영흥과 정평(원산 북방 70㎞) 중간지점인 금진강까지 진격하였고, 제1연대는 덕원(원산 서쪽 6㎞)에서 서측으로 공격하여 마전리(원산 서측방 25㎞)-신창리-천내리-고원을 점령한 다음, 영흥으로 진격하여 다시 함흥-흥남선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1기갑연대는 원산 부근 일대를 경비하고 있다가 제3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하고 영흥으로 차량이동하여 사단의 제1, 제18연대와 합류하게 되었고, 이에 사단 단독으로 함흥-흥남과 그 북방의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접 제3사단은 영흥까지 진격하였다가 다시 고원 동쪽 전탄강과 송전반도 및 그 서쪽 소두류산 일대의 잔적 박멸을 위해 이동하여 수색, 전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엄호하기 위해 또 다시 원산으로 이동하여 그 부근 일대의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원산에서 영흥으로 추진, 설치한 사단 전방지휘소에서 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고 각 부대를 정리한 다음, 함남의 요도인 함흥과 흥남의 공격을 위해 작전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8연대장 임충식 대령은 함흥공격에 앞서 적의 엄호부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평을 먼저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개시 하루 전에 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연대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정평으로 진출하였다. 제1연대는 영흥에서 정평, 신흥리를 거쳐 운남리까지 진출함으로써 사단의 전방 2개 연대는 이날 함흥-흥남 직전방까지 진격하여 야영에 들어갔다.

사단은 제18연대가 북쪽에서 함흥을, 제1연대가 남쪽에서 흥남을 목표로 병행

공격을 하였으며, 제1기갑연대가 예비로서 제18연대를 후속하였다. 이리하여 제18연대는 1시간여에 걸친 격전 끝에 적을 물리치고 함흥시내에 돌입하였고, 한편 흥남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한 제1연대는 운남리를 출발하여 함흥을 공격하는 제18연대와 보조를 맞추어 성천강을 도하한 다음 흥남에 돌입하고 시내를 완전히 점령확보하였으며, 북쪽 10㎞ 지점의 함흥까지 진출, 제18연대와 연결한 후 흥남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사단예비인 제1기갑연대는 함흥 남쪽 5㎞ 지점의 지경리까지 진출하여 서북쪽의 잔적 출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다.

이 무렵 함흥과 흥남을 방어하던 적 제249여단 병력 6,000여 명과 제588포병대대는 포와 전차를 이끌고 함흥 북서쪽 오노리를 경유 장진호 방면으로 철수하였으며 제588연대 일부와 마리훈련소 약 6,000여 명은 오노리에서 신흥경유 풍산 방면으로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흥남 동북쪽에 있던 적 제598부대는 흥원 경유 나남 방면으로, 그리고 흥원에 주둔하고 있던 제10여단은 갑산 방면으로 각각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 사단장은 제18연대를 함흥 북서쪽 장진 및 신흥으로,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흥남에서 동북쪽의 흥원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8연대는 우선 함흥 북서쪽 10㎞ 지점 교통의 요충지인 오노리로 진격하였고, 제1연대는 흥남을 출발 흥원으로 진격하였으며, 사단예비인 제1기갑연대는 지경리에서 함흥으로 이동하였다.

그 이후에 제18연대 제1대대는 오노리를 점령하고 계속 북서쪽의 장진호를 향하여 북진하였으며 제1대대를 제외한 연대(-1) 주력은 그곳에서 동북쪽 신흥(함흥 북방 30㎞)-부전호(함흥 북방 70㎞)를 향하여 진격하였으며 동해안 축선을 따라 진격한 제1연대는 흥원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이 무렵 적의 활동은 함흥 북쪽에서 장진호 및 부전호 방향으로, 북청에서 황수원호-풍산 방면으로, 그리고 북청에서 동해안 도로를 따라 단천-성진 방향 등 세 방면으로 분산, 패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제18연대를 계속해서 장진-부전호 방향으로 추격하도록 하고, 제1연대는 흥원을 점령한 후 북청을 거쳐 북쪽의 풍산으로 진격하며, 제1

기갑연대는 단천-성진의 동해안 가도를 따라 진격하도록 하여 제18연대가 신흥을, 동쪽으로 진격한 제1연대가 홍원(함흥 동북방 35㎞) 및 신포(함흥 동북방 55㎞)를 점령하였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이 승승장구 계속 북진을 하고 있는 국군 수도사단 사령부(함흥)를 방문하여 사단장 송요찬 준장과 북진작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계속해서 제1연대는 북청 남쪽 12㎞ 지점에서 600여 명의 적의 저항을 격퇴시키고 북청을 점령하였으며, 여기서부터 진격방향을 정북으로 전환하여 북청-황수원호-풍산을 점령하기 위해 3일간의 격전끝에 후치령(厚峙嶺) 정상을 탈환하였으며, 제2대대는 황수원(黃水院)까지 진출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신포에서 북청을 향해 진격도중 수 미상의 적과 조우하여 이들을 격퇴하고 패잔병 13명을 생포하였다. 연대는 지금까지 동해안 축선을 따라 함께 진격하던 제1연대가 북쪽으로 진격로를 바꿈에 따라 동해안 축선을 단독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10월 중순 함경도 일대의 작전지역 기상은 영하를 오르내리는 초겨울에 접어들었으며 산악이 험하여 진격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한편 적은 장진호 방면과 갑산-혜산진 방면으로 철수하면서 지연전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장진 방면에는 적 제2사단 병력 약 8,000명을 주력으로 하는 11,200명 정도가 집결하여 제18연대의 장진 방면 진격을 완강히 저지하고 있었으며, 동북쪽의 적은 함흥전투에서 패한 약 1개 연대 규모가 제1연대의 북청 탈환으로 풍산-갑산-혜산진 방면으로 철수하였으며 그 병력은 2,500여 명에 달하였다.

유엔군 전 부대에 총공격 명령이 하달된 상황에서, 제18연대는 제2대대가 부전호 방향으로 진격하여 백암산과 부전령을 점령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부전령 북쪽 및 그 동쪽 수상리 일대에서 적과 격전을 치렀으며 제3대대가 제2대대 동측에서 신흥과 신풍리로부터 황수원으로 이르는 애로지역인 화접치[43](火蝶峙)를 공격하고 제3대대의 동측에서 제1연대는 황수원을 점령한데 이어 풍산을 점령하고, 동해안 축선의 제1기갑연대는 신북청(新北靑)을 출발, 이원을 점령하고 그 다음날 단천을 점령하여 성진(城津)을 목표로 진격 중 그 중간지역인 마천령에서 증강된 1개 연대규모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으나 5시간의 공격끝에 그 정상을 탈

환함으로써 성진을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수도사단은 10월 말까지 제18연대가 개마고원지대에, 제1연대가 함경산맥을 넘어섰고 제1기갑연대가 백두산에서 뻗은 마천령산맥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한·만 국경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병사들은 초겨울의 추운날씨에도 허술한 하계복장을 입고 있었으나, 조국통일을 앞두고 감격에 벅차 사기는 충천되어 있었다.

이 무렵 적 상황은 제18연대 북쪽 부전호 남단에는 전방 수색정찰보고에 따르면 중공군 2개 연대를 비롯한 3개 연대규모의 적이 반격을 시도하기 위해 집결중이었다. 그러나 그 동측 제1연대 정면의 북한군 패잔병은 풍산에서 북쪽의 삼수(三水) 방면으로 후퇴하였고, 동해안 축선의 적은 성진 북방고지에서 지연전을 위한 소규모의 적만을 남겨둔 채 길주-청진 방향으로 주력이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국군이 함흥에 진격하여 들어갈 때 그곳에 있던 우익계열 시민의 봉기가 일어나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는 한편, 아군의 성천강 도하작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함흥탈환을 용이하게 해주었던 반공투쟁활동이 있었다.

작전지역의 특징으로 수도사단의 진격로상에 있는 함흥은 함경남도의 도청소재지로서 그 지방의 정치, 경제, 군사상의 중심지이며, 당시 인구는 8만 명을 헤아렸으나 그 중 약 40%가 공산당원으로 조직된 지역이었다.

또한 함흥평야는 길이 약 40㎞, 폭 20㎞의 광대한 수답지대로서 함경도의 곡창지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장진호 및 부전호의 발전소와 풍부한 지하자원 등은 이곳을 공업도시로 만들고 있었으며, 특히 흥남은 동양 최대규모의 비료공장을 비롯하여 시멘트공장 등은 양항(良港)과 함께 공업항구도시를 이루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평부터 함흥-흥남까지는 평야지대를 가로질러 공격을 해야 되므로 기동에는 매우 유리하다고 하겠지만 엄폐지가 없어서 양 시가 뒷산에서의 심한 감제와 이에 따른 부대 노출은 공격하는 부대에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다. 또한 유폭(流幅) 1㎞의 성천강도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적 제42사단 및 원산경비여단과 제5사단 등은 원산에서 참패당한 다음, 정평-지경리 등지에 강력한 방어부대를 배치하여 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한편, 함흥 부근에서 부대를 집결하여 완강한 저항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영흥 부근에서부터는 한반도의 지세가 국경선까지 편형[44]으로 확대됨으로써 사단의 전술책임지역이 전에 비해 점차로 확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함경산맥-개마고원을 연하는 험한 산악지대가 가로 막고 있어서 그 진격전이 결코 쉬운 일이 못되었다.

(2) 전투 경과

① 작전계획

사단의 영흥 북쪽에 대한 공격계획은 이미 하달된 육본 작명 제212호의 제3항을 수정한 다음과 같은 10월 13일자 육본작명 제212호(작명부록 제12호)의 훈령 제1호에 의거하여 마련되었다.

> "제1군단은 미 제10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원산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변, 용포리 및 용탄강 입구를 주저항선으로 하고, 영흥을 확보함으로써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게 할 것이며, 영흥-안평-함흥 및 번춘장-홍남 축선을 따라 진격하여 적을 격멸하라.
>
> 제2군단은 원산으로 계속 기동하여 원산을 경유, 양덕-장림리-강동 축선을 따라 평양을 향하여 공격, 기동하되 담당지역 내의 적을 분쇄하고 그 남방 및 북방으로 이동하려는 적을 차단, 격멸하라.
>
> 제2군단은 필요에 따라 제1군단 작전지역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원산 점령 직전에 이미 하달된 육본작명 제212호(1950.10.8)의 명령상에는 제1군단이 원산을 점령한 다음, 양덕-장림-강동-평양 축선으로 진격하게 되어 있고, 제2군단이 원산으로 진출하여 고원-영흥-함흥 축선으로 진격하게 되어 있었다.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은 <표 6-10>과 같다.

<표 6-10>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 군	제1군단장		소장	김백일(金白一)	
	수도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제18연대	연대장	대령	임충식(任忠植)	
		제1대대장	소령	이길영(李吉泳)	
		제2대대장	소령	김봉상(金鳳翔)	
		제3대대장	소령	안민일(安旼一)	
	제1연대	연대장	중령	한 신(韓 信)	10.20.부터 대령
		제1대대장	대위	함용익(咸溶翼)	
		제2대대장	소령	신언국(申彦國)	
		제3대대장	대위	이성봉(李聖鳳)	
	제1기갑연대	연대장	대령	백남권(白南權)	
			중령	김동수(金東洙)	10.24.부터
		제1대대장	소령	박경호(朴京虎)	
		제2대대장	소령	박익균(朴益均)	
		제3대대장	소령	임관점(林觀點)	
	10야포대대	대대장	소령	?	배속부대
	수도야전공병대대	대대장	소령	?	
북한군	제42사단	사단장	?		
	제5사단	사단장	?		
	원산경비여단	여단장	?		

그러나 전기한 바와 같이 제1, 제2군단의 임무가 10월 13일 수정명령으로 다시 바뀌어 제1군단이 바로 북쪽으로 이동하여 함흥 방면으로, 제2군단이 양덕 방면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영흥선에 전선을 정리하여 제3사단을 고원 및 원산 부근의 경비임무를 부여하여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엄호하게 하였고, 수도사단을 단독으로 북쪽으로 이동 진격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영흥에 추진 설치된 전방사령부에서 영흥과 흥남의 공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단 작명 제106호를 하달하게 되었다.

"원산 방어선에서 퇴각하기 시작한 적 제42사단 및 제249여단 등은 문천-고원-정평 경유, 함흥 방면으로 후퇴하여 집결하고 있고 단대호 미상의 포병부대가 함흥 부근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단은 작명 제106호로써 함흥 및 흥남을 공격, 점령하려 한다.

공격개시시간은 10월 17일 13:00시이며 제1연대는 흥남을 공격하고 제18연대는 함흥을 공격하며 제1기갑연대는 사단 예비대 임무를 수행하라."

② 전투실시

㉮ 수도사단의 영흥→함흥 진격전('50. 10. 16~17)

함흥 공격명령을 받은 제18연대장 임충식 대령은 함흥 공격에 앞서 적의 주요 엄호진지로 보이는 정평(함흥 서남방 20㎞)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 제1, 제2대대를 선두공격 제대로 하고 제3대대를 후속시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10월 16일 06:30분에 차량으로 영흥을 출발하여 신흥리-금진강을 경유, 계속 접적 행군으로 기동하여 12:00시에 별 저항을 받지 않고, 정평에 진격한 다음, 제5중대는 첨병중대로써 북쪽 4㎞까지 기동하여 적정탐색과 경계에 임하고 있었고, 제6, 제8중대는 지경리로 향하는 정평 서쪽 능선에 진지를 점령하여 사주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제3대대는 06:30분에 삼화평을 차량으로 출발하여 접적없이 정평에 진출한 다음, 그 북쪽 168고지를 중심으로 각 중대를 배치하고 다음명령을 대기하고 있었으며, 제1대대는 07:00시에 신흥리(금진강 남안)에서 도보행군으로 장원에 진출한 다음, 이곳에서부터는 차량을 이용하여 정평을 경유, 14:00시에 왕남리에 진출하고, 제2, 제3대대를 초월하여 16:00시에는 흥상면 전방 1㎞ 지점까지 진격한 즉시, 사주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대의 진출에 따라 이날 18:00시에 연대 전방지휘소도 영흥시 완하리에서 정평으로 이동완료하게 되었다.

한편 제1연대는 사단 작명에 의해 고원으로부터 영흥 경유, 정평을 확보하고 이날 15:00시에 신흥리를 경유, 흥남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었다. 연대는 흥남 전방에서 적 패잔병으로 구성된 소부대를 격파하면서 17:00시에 운남리 남쪽까지 진격하였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는 5일간의 원산 경비임무를 끝마치고 함흥과 흥남지역에 전력을 집결하기 위해 영흥으로 부대이동을 끝낸 다음, 부대 정비를 위해 이날 하루를 보냈다.

이로써 전방으로 진출한 제18, 제1연대는 함흥과 흥남을 공격, 점령하기 위한 전술적 기반을 확고히 조성하는 한편, 이날 수복지인 원산에서는 사단 정훈부 주최 시민위안회를 개최하고 있었고, 조병옥 내무부장관이 공로로 원산에 도착하여 수복지의 후방행정에 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사단 작명 제106호에 의해 10월 17일에 함흥-흥남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이 함흥은 함주군 중앙에 위치하여 북으로는 반룡산(318m)이 존립해있고 서남에 성천강을 끼고 동남에 흥남과 함흥평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함관령, 대문령을 바라보아 옛날부터 교통의 요지이었다.

원산에서 패주한 적이 고원선에서 방어하려다 실패한 다음, 이 함흥에 거점을 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또한 함흥 북쪽에는 장진호, 부전호가 있어 이의 발전소 방호를 위한 적의 관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함흥은 본래 함주군 운남면의 한 어촌이었으나, 1928년 일본인 노구찌가 당시 1억 1천여만 원의 자본금을 투입하여 질소비료공장을 건설한 후부터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고, 장진, 부전의 500,000kw 전기를 이용하여 비료 생산과 시멘트 생산으로 함경지역의 주요 공업지대였는데, 8·15 이후 북한이 이를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악용해 왔던 지역이기도 하였다. 또 이 흥남항은 약 20,000톤의 선박이 입항할 수 있어 해상 교통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북해안-성진-청진 등을 연하는 지형적으로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함흥과 흥남의 중요성은 적으로 하여금 이의 사수를 필연적인 조건으로 만들고 있었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 제42사단 및 원산경비사령부는 문천-영흥 경유, 함흥과 흥남북방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아군의 진격을 강력히 저지하려 하고 있었으며, 특히 함흥 북쪽 12㎞ 지점인 오노리는 장진호와 부전호 및 황수원호로 통하는 삼차로로서 완강한 엄호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영흥에 설치된 사단사령부에서는 작명 제106호로써, 10월 17일 10:00시까지 함흥과 흥남을 점령하도록 하고, 제18연대를 함흥 정면으로, 제1연대를 흥남 점령 후 그 일부가 함흥으로 우회 북쪽으로 이동하는 양익동시공격전법으로 포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는 사단 예비대로서 제18연대를 후속하게하고, 사단 포병 대대는 제2중대를 제18연대에, 제3중대를 제1연대에 각각 배속하고 제1중대는 예비로 배치하여 제1기갑연대에 배속시켰다.

이에 따라 제18연대는 10월 17일 05:00시를 기해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제2대대는 정평에서 홍상리를 경유, 함흥에 돌입한 후 1시간여의 시가전 끝에 11:30분에 함흥을 점령하고, 계속 잔적을 격멸하면서 16:00시에는 함흥을 북쪽에서 감제하고 있는 반룡산을 점령하여 그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사주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제1대대는 09:00시에 왕낙리 진지에서 병력을 정리한 다음, 함흥을 향해 그 좌측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전술행군으로 강서리를 경유, 14:00시에 유등리에 진격하여 마을 전방 일대에 공격을 가해 16:00시에 이를 점령, 확보하였다. 이어 19:00시에는 함흥 북쪽 부민동 후방에서 전차 5대, 트럭 3대를 선두로 반격해 온 적을 발견하여 선제공격으로 이를 격퇴시켰다.

또한 제3대대는 이날 09:00시에 동천리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홍상리를 경유, 그 북쪽 1㎞ 지점에서 연대 예비대로 약 3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연대 지시에 의해 15:10분에 다시 출발하여 원흥리를 경유, 17:30분에 함흥에 진출하여 전과 확대를 위한 수색전을 벌인 다음, 18:20분에는 문흥리 북쪽 고지에 진지를 점령하고 야간 경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함흥전투에서 연대는 <표 6-11>과 같은 전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제18연대가 함흥 남쪽 4㎞까지 진격하고 있을

<표 6-11> 전투의 전과

전 과			
• 사 살 : 321명 • 포 로 : 21명	• 소 총 : 492정 • 다발총 : 다수	• 경기관총 : 11정 • 중기관총 : 4정	• 전 차 : 3대 • 박격포 : 6문

때, 함흥시에 있던 우익지하조직(자치대원)이 봉기하여 시내에서 유동하던 적과 육박전을 전개하는 한편, 군청을 위시하여 시내 요소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그동안 공산학정에 대한 분노가 일시에 폭발하여 터질 듯한 목소리로 '舊 애국가'를 높이 부르기도 하였으며, 이와 함께 거의 맨손으로 적 진영을 찾아 격멸하였다는 사실이다.

또 한편 연대 수색대가 성천강을 건너기 전에 시내에서 요란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사복을 입은 의거학생들이 적과 치열한 총격전을 전개하여 혹은 쓰러지면서, 혹은 붙잡혀 가면서도 끝내 적을 격멸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함흥입구의 만세교가 파괴되었으므로 연대주력의 성천강 도하를 위해 제2대대가 엄호사격을 계속하고, 그 사이에 공병대가 교량복구작업을 강행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빗발치는 총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시내 제재소에서 판목을 들고 나와 복구작업을 급속히 끝마치게 한 것은 그만큼 연대의 입성을 빨리하게 한 계기가 되었고, 아군의 진격을 마음으로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총화가 난비하는 전장터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눈물겨운 정경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제1연대는 10월 17일 06:00시에 운남리를 출발하여 함흥을 공격하는 제18연대와 호응하여 10:00시에 성천강을 도하한 다음, 흥남에 돌입하고 12:00시에는 여기를 완전히 점령, 확보하였으며, 오후에는 제1대대가 함흥에까지 진출하였으나 이미 제18연대가 함흥을 점령한 다음이었으므로 함흥에 머물지 않고 다시 흥남방향으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사단 예비대로 배치되어 있던 제1기갑연대는 함흥 남쪽 5㎞ 지점의 지경리에 진출하여 그 서북쪽의 잔적 출몰에 대한 경계에 임하고 있다.

흥남 서남쪽 진포비행장이 점령됨으로써 사단은 또 하나의 전술기지를 확보하였으며, 함흥-흥남을 점령하여 한·만 국경까지 직선거리로 160㎞에 육박하게 되었다. 적은 함흥전투에서 패퇴한 후 그 동북방과 장진 방면으로 퇴각하여 재편성을 실시하려 하고 있었으며, 동해안 연도를 따라 퇴각한 적은 성진-청진 방면으로 철수한 것으로 보였다.

㉯ 수도사단의 신흥-북청 진격전('50. 10. 17~22)

함흥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후퇴한 적 제42사단 제249여단의 약 6,000명과 제588포병대대는 포 3문, 전차 17대 등을 이끌면서 10월 18일에 오노리를 경유, 장진호 방면으로 퇴각하고 있었으며, 제588연대 일부와 마리 훈련소 약 6,000명은 오노리에서 신흥 경유, 풍산 방면으로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흥남 동북쪽에 있던 적 제598부대는 홍원 경유, 나남 방면으로, 그리고 홍원에 주둔하고 있던 제10여단은 갑산 방면으로, 신포 제249여단은 혜산진 방면으로 각각 철수하고, 그 일부는 이원을 경유, 갑산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사단은 제18연대를 장진 및 신흥으로 공격하게 하고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흥남에서 홍원 방면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또한 10월 18일 15:00시부터는 군단장 김백일 소장 및 사단장 송요찬 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민의 열광적인 환영 하에 함흥 입성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부모형제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비통한 마음과, 일면 국군 진격의 감격으로 치졸한 심정이었으니, 이는 북한군이 함흥을 후퇴하면서 약



함흥 주민들의 국군입성 환영('50. 10. 18)

12,000여 명에 달하는 양민을 대량 학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양민을 학살하는데 있어서 그 극악무도한 처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 장작으로 때려죽이거나, 우물 속에 밀어 넣고 돌로써 압살하거나, 또는 손발을 묶고 등뒤에 무거운 돌을 맨 다음 바다에 수장하는 등, 또는 방공호나 지하실에 감금한 채 폭파한 다음, 문을 봉쇄해 버리거나, 심지어는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해 버리는 등 천인공노할 온갖 수단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적은 이미 원산을 후퇴하면서 양민 약 600여 명을 학살한 바 있었거니와, 함흥에서도 무수한 양민을 학살하였으니, 그 몇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함흥인민교화소(형무소)에서 700여 명, 함흥충령탑 지하실에서 200여 명, 함흥정치보위부 지하실에서 300여 명, 함흥 북쪽 덕산 니켈광산에서 6,000여 명, 함흥 뒷산 반용산 4㎞에 달하는 방공호에서 수천 명이 학살되었으나, 그 정확한 인원수는 대략 12,0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북한군의 정치범 학살('50. 10. 19, 함흥)

그러나 여기에는 납치자나 행방불명이 된 민간인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 양민 학살은 아무리 패전의 분풀이로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엄청나고, 더욱이나 동족에 가해한 이 야수의 행동은 우리 후세들이 꼭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제18연대의 신흥 공격

제18연대장 임충식 대령은 전날 함흥 탈환에 이어 계속 북방을 향해 추격전을 감행하여 장진 및 신흥의 갈림길인 오노리를 우선 점령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즉, 제1대대는 함흥 북쪽 봉하리 및 부민리 일대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있다가, 10월 18일 11:00시에 접적행군으로 홍경리-신동리-방현리-운룡리 경유, 15:00시에는 현사리에 진격하여 그 후방고지 진지를 점령하고 적의 반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제2대대는 전날 진지인 부민동(함흥 북쪽 4㎞)에서 중흥리까지 진출하였고, 제3대대는 16:40분에 신계리에 진격하여 사주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어 연대 전방지휘소도 홍상(지경)에서 함흥을 경유하여, 장흥에까지 추진, 설치하고 전선 정리와 야간경계에 임하는 한편 차기공격을 위한 준비의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연대는 전방지휘소인 장흥리(오노리 남쪽 4㎞)에서 제1대대를 좌일선, 제2대대를 우일선 공격제대로 하고 제3대대를 연대 예비대로 하여 10월 19일 미명에 공격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07:20분에 오노리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장진호로 통하는 가도를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1:30분에는 오노리에서 8㎞까지 북쪽으로 이동하여 송당리(오노리 북쪽 장진호 방향 9㎞)에 이르렀을 때, 그 북쪽 고지에서 적 엄호부대로 보이는 약 1개 중대를 발견하고 포병의 지원사격 아래 즉시 이를 공격, 격멸하였으며, 16:30분경에는 그 북쪽 동정리-파발거리선에 진격한 다음, 신흥선철도를 따라 고토리를 향해 진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제2대대는 중흥리(오노리 북방 10㎞)에서 07:00시에 공격을 시작하여 10:30분경에는 원평장(오노리-신흥 중간)에 돌입하고 진지를 점령한 다음, 함남 중앙부의 요지인 신흥까지 진격하였다. 공격 개시 사흘째인 10월 21일에는 제1대대가 마전동 부근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장진호 진격 준비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는 전날 진지인 신흥 북쪽 고지에서 신풍을 향해 공격 중이었다.

㉡ 수도사단(-1)의 북청 공격

흥남에 진격하고 있던 제1연대는 이곳에서 부대정비를 완료한 다음, 사단 작명 제107호에 의해 문봉리 및 신흥리-라삼리-홍원을 점령할 목적으로 10월 18일

15:00시에 흥남을 출발하여 그 주력은 홍원(함흥 동북방 37㎞)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또한 사단사령부도 이날 오후 정평에서 함흥으로 이동 완료하고 각처의 학살 시체로 수라장이 된 전장정리에 임하고, 한편 부대 진격준비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도 함흥으로 이동하여 사단 예비대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제1연대 제1대대는 문봉리 북쪽 일대의 잔적을 추격, 격멸하고 그 일대에서 전방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는 흥남에서 동해안 연도를 따라 공격을 계속하여 퇴조만을 향하는 중간 지점은 신흥리에 진출하였을 때, 제3대대는 제2대대를 초월하여 일거에 홍원 일각까지 돌입하였다. 연대 전방지휘소는 전날 흥남시 부삼리에서 이날 쌍봉리(함주군 동천면)로 추진, 설치하고 진격을 지휘하였다.

함재기의 지원 아래 진격을 계속하고 있던 제1연대는 쌍봉리 지휘소에서 각 대대를 진격하도록 하였는데, 제1대대는 이날 문봉리에서 운포리까지 진출하였고, 제2대대는 덕산령을 출발하여 용대리까지 진출하였으며, 전날 홍원을 점령하였던 제3대대는 신포까지 진격하여 사주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로써 사단은 10월 20일까지 신흥, 홍원을 점령함으로써 함흥 북방 40㎞ 반경을 완전히 석권하게 되었고, 두만강을 향한 진격작전의 충격력이 더욱 압축된 셈이 되었다.

군단은 원산에 있던 사령부를 10월 20일에 함흥(의학전문학교)으로 추진, 설치하고 주로 수도사단의 함흥 동북방 진격에 대한 작전지시를 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적은 주로 만포진선에 통하는 산맥지대에 잠복하여 유격전을 감행하면서 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고, 그 주력은 한·만 국경선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사단 전면의 적은 함흥 북쪽에서 장진호 및 부전호 방면으로 후퇴하는 적과 북청에서 황수원호-풍산(함흥 동북방 110㎞) 방면으로 후퇴하는 적, 그리고 북청에서 단천-성진을 경유, 동해안 연도를 따라 후퇴하는 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에 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제18연대를 계속해서 장진-부전호 방면으로 추격하게 하고 제1연대를 북청까지 진격하게 한 다음, 풍산 방면으로 진격하도록 하였으며, 단천-성진가도는 제1기갑연대가 추격하도록 하였다.

북위 40°선을 돌파한지 사흘째 되는 10월 21일, 북한 수도는 평양에서 신의주로 옮기게 되었고, 서부전선도 벌써 청천강선에 육박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는 홍원에서 북청을 향해 공격 중이었고, 제1기갑연대는 사단 예비대로서 함흥 부근에서 잔적격멸과 전장정리에 임하고 있다가 이날 홍원으로 진출하여 북청 방면의 진격작전에 임하고 있었다.

함흥에 설치되어 있는 사단사령부에서는 동부전선 시찰차 급거 방문한 미 제10군단장 알몬드(Almond) 소장이 사단장 송요찬 준장과 작전협의의 요담을 하고 있었으며, 사단 예비대인 제1기갑연대의 북청(함흥 동북방 70㎞) 육박에 따라 사단 전방지휘소를 북청 부근으로 이동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1연대의 정면인 북청 부근에서 적은 82㎜ 박격포와 직사포 약간과 대부분 소총을 소지하고 약 600명의 병력(적 신포 2개 대대)으로 지연작전을 기도하고 있었다. 연대는 북청 남쪽 12㎞ 지점인 이리 일대에서 10월 22일에 공격을 시작하여 북청을 완전 점령하고, 풍산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었으며, 연대 전방지휘소도 호만호리(북창군 양북면 소재)로 기동하였다.

㉯ 수도사단의 풍산-성진 진격전('50. 10. 23~30)

10월 하순에 접어든 이 무렵,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한랭한 고기압으로 기온은 점차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산악의 공격작전은 결코 유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0월 28일까지 함남의 주요거점을 점령하게 되고, 특히 제18연대가 개마고원지대에, 제1연대가 함경산맥에, 그리고 제1기갑연대가 마천령산맥에 각각 올라서게 되자, 한·만 국경까지의 진격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어 장병들의 사기는 한랭기의 하복 차림에도 불구하고 날로 고조되었다.

이 무렵 사단 정면의 적은 국경선까지 철수하면서도 동쪽으로부터 부전호-장진호 남단과 풍산 및 성진에 각각 집결하여 사단의 진격을 완강히 저지하고 지연전을 감행하려 하였다.

10월 29일 적 상황은 제18연대 정면인 부전호 남단에서 증강된 1개 연대규모의 병력과 중공군 약 2개 연대병력이 반격을 기도하고 있었고, 제1연대 정면의 적은 풍산에서 삼수 방면으로 퇴각하였고, 제1기갑연대의 정면인 성진 북방 고지에서 전초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었고, 길주-청진 방면으로 주력은 철수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적의 정규군은 국경을 거점으로 사단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고, 그 일부는 백두산을 연하는 낭림산맥을 타고 후방에 침투를 기도하려 하였다.

한편 유엔군 상황으로는 미 제7사단이 이원에 상륙하여 동 사단 제17연대가 상륙 즉시 풍산으로 기동, 혜산진 공격을 위해 험한 산악 협곡을 따라 진출하고 있었다.

㉠ 제18연대의 부전호 공격

함흥 북방 신흥에서 추격전을 전개하고 있던 제18연대는 10월 25일 연대 지휘소를 오노리 남쪽 장흥리에서 신흥(함남 신흥군청 소재지)으로 약진시키고, 마전동 부근에서 제3사단 제26연대와 진지를 교대한 제1대대는 다시 오노리를 경유, 신풍으로 진출하였고, 제2대대는 경흥리에서 부전호 방면의 공격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는 10월 25일 06:00시에 오노리로부터 도보 행군으로 중양리까지 진출한 다음, 이곳에서는 차량으로 진출하여 16:00시에 신풍리 북쪽 4㎞ 지점까지 진출, 부흥리에서 2개 소대규모의 적 병력을 발견하여 30분에 걸친 사격전으로 적을 격멸, 퇴각시켰다.

연대 전방지휘소를 10월 26일 신흥에서 신풍리(신흥군 하원천면 소재)로 추진, 설치하고, 황수원호 방면으로 진격하기 위해 화접치(불거미재)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화접치는 신풍리에서 수상리를 넘어가는 해발 1,000～1,500m의 고원지대의 25㎞나 되는 굴곡부가 아주 심한 고개이다. 함경도 산악지방은 어느 곳에 가거나 큰 재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 화접치도 역시 그와 같은 고지군에 못지않게 높고, 길고, 험한 고개로 되어 있었다. 이런 산악전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바 있었던 연대는 부전호 방향의 백암산-부전령 부근에 제2대대를 진출, 공격시킨 것에 비해 이 화접치 공격은 제3대대로 공격하여 돌파하게 하였다. 이

에 따라 제3대대는 화접치 남쪽 하단인 문성리에서 이날 08:30분에 출발하여 교동리 북쪽 1㎞ 지점까지 진출하였을 때, 대대 수색대가 적정을 탐지하고 이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6시간 30분에 걸친 공방전 끝에 적의 전초방어선을 격파하고, 계속 험로를 진격하여 오후 늦게 화접치를 완전히 돌파한 다음, 그 북쪽 하단의 수상리까지 진격하여 그 부근 일대를 완전점령하고, 야간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연대는 수상리와 홍천리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면서 추격을 멈추지 않았는데, 제3대대는 수상리 부근에서 계속 평산리를 향해 진격 중이었고, 제2대대는 부전호 방면으로 계속 진격하여 백암산-부전령(신흥-부전호 중간)까지 진출한 다음, 진지를 점령하고 적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연대 전방지휘소는 이날 제3대대의 진격로를 따라 화접치를 넘어 수하리까지 약진하였다.

제3대대는 수상리 북쪽에서, 제2대대는 백암산(함흥 북방 52㎞) 북쪽에서 각각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제2대대는 10월 28일 06:30분에 퇴수동(백암산 서북쪽 3㎞)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6중대 전면에 반격을 기도하는 적을 발견하는 즉시 이를 격퇴시킨 바 있었으며, 차후 상황을 감안하여 진지를 1,740고지(백암산)로 옮기고, 그 일대를 확보 중이었는데, 15:00시에 이르러 또 다시 적의 반격이 있어 2시간의 교전 끝에 이를 완전히 궤멸시켰다.

그런데 동 대대의 전면인 원풍리(부전호 남쪽)에 단대호 미상의 적 약 500명과 함지원 부근에 약 300명의 적이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원풍리 부근에 중공군 전초부대 약 500명이 출현하여 최초로 중공군과 접전하게 되었다. 연대는 계속 접적행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공군 침입이라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연대는 제1대대가 부전호 남쪽 퇴수동과 백암산(1,740m) 및 부전령 북쪽 일대에서 계속 적과 대치상태로 교전 중이었고, 제3대대는 화접치 북쪽인 수상리 북쪽에서 적을 추격하고 있었다.

㉡ 제1연대의 풍산 공격

북청까지 진격하였던 제1연대는 북청에서 정북방향인 후치령-황수원호-풍산을 점령하기 위해 10월 22일부터 그 진격방향을 동해안 연도가 아니라 풍산방향

의 산악 험로를 따라 진격하게 되었다. 기온이 영하를 오르내리고 진격로의 지형과 도로 상태가 매우 험준하고 불량하여 이제부터 산악 동계작전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북청을 점령한 연대는 북청 남쪽 이리 공격에서부터 계속 추격전을 감행하여 10월 23일 15:00시에는 제1대대가 북청 북쪽 5㎞ 지점까지 진출하고, 제2대대는 장흥리에, 제3대대는 북청에 있었으며, 대전차공격대는 신촌에 진출하여 그 일대를 점령하고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본대가 북청 북쪽에 진격하자 연대 전방지휘소도 부동리(북청군 후창면)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사단 작명 제109호에 의해 10월 24일 황수원리-풍산을 거쳐 홍군 제1발전소를 점령할 목적으로 진격하게 되었는데, 이때 적은 북청군과 풍산군의 군계지역인 후치령(1,335m)의 험한 애로와 고원지대에서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연대의 풍산 및 홍군 점령을 위한 진격을 적극 막아내려 하였다. 이 일대에 전초 엄호부대로 배치된 적은 나남 제586부대와 보안서원 등 혼합부대로서 82㎜ 박격포와 61㎜ 박격포 및 직사포, 중기관총, 다발총 등으로 장비된 1개 대대 600여 명의 병력으로 추산되었다. 후치령의 아주 불리한 지형과 이와 같은 적정 때문에 연대장 한신 대령은 함흥 점령 이후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을 감안하고 후치령 돌파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즉 제1대대는 하직동까지 진출하여 부대 정비를 겸한 야영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2대대는 상직동에서 적 1개 중대를 발견하고 이를 격퇴시켰으며, 제3대대도 상직동까지 진출하여 사주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전차 공격대는 북청에서 예비대로 배치되었고, 야포대대는 제2대대를 직접지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연대는 이날 후치령 돌파를 위한 예비진지 점령과 부대 정비를 강화하고 있었다.

연대는 10월 25일에 전날 진지인 하직동-상직동 일대에서 이날도 후치령 공격을 위해 준비 중이었으며, 연대본부도 직동으로 기동하여 전반적인 작전지시에 임하고 있었다.

후치령을 공격 돌파하기 위한 연대의 작전은 제1대대가 후치령을 포위공격하고, 제2대대는 정면공격을 하기 위해 목표 2㎞ 지점까지 근접하여 진지를 점령하

게 하였으며, 제3대대는 직동 부근 각 고지에서 후방경계를 위해 배치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는 제1대대의 우회, 포위공격에 호응하여 야포대대의 직접 지원을 받으면서 정면공격을 전개하여 후치령 일대의 적 제586부대와 보안서원 및 노동당원 등 약 600여 명과 근접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적은 최후까지 육박전으로 대항하였으나, 끝내 제1대대와 제2대대의 포위와 돌파작전에 못 이겨 그 예봉이 꺾여진 다음부터 일부 패잔병은 좌우 산악으로 산재잠입하거나, 풍산 방면으로 패퇴하였지만, 적세력이 완전히 격멸되지 않아 제1, 2대대의 협동작전으로 2일만에 이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고, 제2대대는 여세를 몰아 계속 황수원리로 진격하여, 10월 27일 오후에 이곳을 점령완료하고, 사주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직동에 경계배치 되어 있던 제3대대도 황수원에 진출하여 풍산 점령을 위해 전력을 집결하고 있었다.

후치령 공격에 이어 황수원리를 점령한 다음, 풍산에서 반격을 기도한 200명 규모로 추산되는 적이 박격포 중기관총 등으로 끝까지 항전하였으나, 제2대대의 격전으로 적은 궤주하여 갑산 방면으로 퇴각하였고, 이에 풍산을 점령한 연대는 그 일대의 경비와 아울러 홍군(풍상 서쪽 25㎞) 방면으로 진격방향을 돌려 그 추격전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연대는 풍산-홍군을 점령하고 있다가 미 제7사단의 이원 상륙으로 전투 지경선이 변경되어 혜산진 방면의 진격임무를 미군에게 인계하고, 연대는 동해안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단천으로 기동하다가 고성까지 진출하였다. 즉 제1대대는 황수원리를 경유, 고성에 진출하였고, 제3대대 역시 고성에 진출하여 사주경계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대대는 미 제7사단 후속대가 도착할 때까지 풍산 경비 임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연대 전방지휘소도 직동에서 고성리로 본대를 따라 이동 완료하였다.

㉢ 수도사단(-2)의 성진 공격

제1기갑연대는 홍원에서 신포를 경유, 북청으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신포 동북쪽 호만호리 북쪽에서 적을 발견하고 이를 격퇴시킨 다음, 적 13명을 포로로 획득하는 전과를 세웠다. 본대의 진격에 따라 10월 22일 연대 전방지휘소는 홍원

에서 신포를 경유하여 양화(북청군 양북면)로 추진, 설치하고 북청을 점령한 제1연대가 풍산 방면으로 진격하게 됨에 따라 제1기갑연대는 동해안 연도를 단독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함흥에 설치되어 있던 사단사령부도 홍원을 경유, 호만호리(북청군 양북면)로 약진하여 부대진격에 관한 작전지시에 임하고 있었다.

연대는 10월 23일 12:00시까지 신북청에 진격하였고, 연대본부도 행동을 같이 하여 양화에서 신북청으로 이동한 다음, 이원공격을 위해 부대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또한 사단사령부도 호만호리에서 이날 북청읍으로 추진, 설치하였다.

연대 작전지시 제23호 의해 연대는 신북청에서 이원으로 진격하여 그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그리고 10월 24일 연대장 백남권 대령은 육본특명 갑 제209호(10월 23일부)에 의하여 수도사단 부사단장으로 전임되었고, 그 후임에 계속 참전해 왔던 부연대장 김동수 중령이 연대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연대는 10월 25일 19:00시에 단천을 완전히 점령하여, 성진 공격에 앞서 가장 난관으로 보이는 마천령 공격 준비에 임하는 한편, 선두부대는 단천 부근 일대의 수색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연대는 점령지인 단천에서 성진을 향해 10월 26일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무렵 적은 그 주력이 성진-길주방향으로 퇴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강력한 방어부대로 보이는 적 약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이 단천-성진 중간의 천연적 요충지인 덕산리 마천령 중턱에서 포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한 방어와 지연전을 기도하고 있었다. 특히 적 약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은 박격포, 중기관총, 기타화포로써 마천령 중복 능선에 전초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연대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에 연대는 제3대대를 전위 공격 제대로 하고 제1 및 제2대대를 후속하면서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그 중턱 부근에서 적 2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발견하고 교전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적 수 미상의 증강부대가 도착되어 전투는 점점 가열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연대는 배속된 야포대의 강력한 지원화력을 받으면서, 최고능선을 향해 공격선을 계속 압축하여, 드디어 교전 5시간만인 10월 27일 17:00시에 성진을 굽어보는 마천령 최고능선(873m)을 점령하고, 능선에 진지를 점령하여 야간 경계에

임하는 한편, 차기 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대 전방지휘소도 마천령 입구의 두무동까지 약진하였다.

이때 적은 많은 시체를 유기한 채 성진-길주 방면으로 분산 퇴각하였는데, 이 전투의 전과와 피해는 <표 6-12>와 같다.

연대는 10월 28일 미명을 기해 성진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마천령에서 퇴각한 적이 성진에 주둔하고 있던 적 제507부대의 주력과 합류하여 성진 서북방 학성동 고지 부근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포 지원 아래 성진을 방어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연대장 김동수 중령은 제3대대를 좌로, 제1대대를 우로 공격하여 성진을 공격하려 하였다.

제1대대는 마천령 875고지에서 이날 04:00시에 출발하여 875고지 하단에서 1개 소대규모의 적 병력이 지뢰를 매설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사격을 가하여 이들을 패퇴시키고, 제2중대가 선두가 되어 성진 전방에 돌입하였다. 이때 적은 시 후방고지에서 강력한 포사격을 가해옴에 따라 일시공격이 주춤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배속된 야포대도 적 포진지에 치열한 포격을 퍼부어 일시 포격전이 계속되기도 하였다. 이날 18:00시에야 시 서북쪽 고지를 점령하고 진지 강화와 야간 역습에 대비하여 경계배치를 엄중히 하고 있었다.

연대는 성진 서북 야산을 점령하고 있다가 10월 29일 04:00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성진 서북쪽 고지에서 포 지원 아래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그 고지를 점령, 확보한 다음, 개활지를 약진하여 학성동 서북쪽 고지의 서측부터 점령하고, 09:00시에 성진시-학성동 서북쪽 외곽의 적 주력을 완전히 격멸함으로써 치열한 성진 공격이 끝나게 되었는데, 이날 오후 확인된 전과는 <표 6-13>과 같았다.

<표 6-12> 전투의 전과와 피해

전 과			피 해
• 사 살 : 190명 • 포 로 : 72명	• 소 총 : 150정 • 다발총 : 16정	• 중기관총 : 2정 • 박 격 포 : 2문 • 차 량 : 3대	• 전 사 : 1명 • 부 상 : 4명

<표 6-13> 전투의 전과와 피해

전 과			피 해
• 사 살 : 135명 • 포 로 : 60명 • 귀 순 : 48명	• 소 총 : 75정 • 경기관총 : 6정 • 중기관총 : 2정	• 박격포 : 7문 • TNT : 3상자 • 수류탄 : 3상자	• 전 사 : 5명 • 부 상 : 30명

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10월 30일에 전방지휘소인 단천에서 미 제10군단의 장진호 및 풍산 지역 전투참가로 인한 전선 정리에 임하고 있었는데, 제18연대는 부전호-수상리 일대에서 함흥 북쪽 서양리로 이동시켜 길주-청진 방면으로 추격전에 가담케 하고, 제1연대는 풍산에서 단천으로, 제1기갑연대는 성진 점령 이후 계속 길주 방향으로 추격시킬 계획이었다.

이 무렵 제18연대는 부전호 남단과 화접치 북쪽 수상리 일대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제1연대는 이날 고성에서 단천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제1기갑연대는 성진 북쪽 3㎞ 지점의 학성동 부근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다음 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4) 전투결과

10월 16일 정평 공격부터 시작된 수도사단의 함경남도 일대 진격전은 제18연대의 10월 17일 함흥 점령을 위시하여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의 풍산과 성진 점령은 10월 30일까지 모두 완료되었다.

계속해서 길주-명천 등지를 공격하기 위해 동월 29일에는 사단사령부를 단천으로 추진시키고, 차기 작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제1연대는 풍산에서 10월 31일 단천으로 이동을 완료하고 제18연대도 수상리에서 서양리(함흥 북쪽 8㎞)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제1연대는 명천-청진지역 전투에 참가할 부대 정비를 실시하고 있었다.

제1기갑연대는 성진을 점령한 다음, 그 북쪽 학성동까지 진격하여 사단 최전방에서 차기 작전을 위한 진지 강화 및 적정을 탐색하고 있었는데, 이 부대를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번개부대(Flying Column)'이라 칭하였고, 그 추격속도가 너무 빨라 미 제7사단의 전술 항공통제반이 해상에서 통제하고 있었다.

제1연대와 제18연대가, 상륙해 온 미 제10군단 예하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의 전술지역을 인계하고, 각 책임지역에서 이동하게 된 것은 사단의 동해안 연도를 따라 두만강까지 진격하기 위한 부대기동 및 전력집결의 일단이었던 것이다.

<상황도 6-9> 영흥-함흥-성진 진격도



이 무렵 사단 정면의 적은 성진전투에서 큰 타격을 받은 이래 길주-명천으로 철수하면서 여전히 요소요소에 엄호부대를 배치하여 사단의 진격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었다.

2) 원산지역 후방작전('50. 10. 16~26)

(1) 개 요

제3사단은 10월 8일 이후 수도사단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을 전개하여 10월 10일에는 원산 서남쪽에 있는 적의 저항선을 돌파하고 원산시가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 10월 15일까지는 송전반도-영흥-고원-마전리-안변을 연결하는 원산 서북방의 외곽선을 확보하고 지역내 북한군 잔류부대를 섬멸하였다.

그 후 10월 26일 원산에 상륙한 미 제1해병사단에 원산지역 방어임무를 인계하고 함흥으로 주력을 이동시켜 연포비행장(K-27)-흥남-홍원-신포 일대까지 병력을 분산배치하여 해안선 일대를 방호하다가 미 제3, 제7사단이 각각 원산 및 이원에 상륙하자 함흥지역 후방작전을 끝내고 홍원-신포-신북청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북한군 상황은 원산에서 저항한 적 제5사단과 제42사단, 제12사단 및 원산 경비 제2여단 등의 병력도합 20,000명은 두 노선을 따라 퇴각하였다.

곧 적의 주력 부대는 정평-지경리 등지에 강력 배치하여, 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한편, 함흥에서 부대를 다시 집결하려는 기도였고, 일부는 평원가도를 따라 후퇴하면서 마식령-양덕 사이에서 아군의 평원선 진격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낙동강에서의 총반격작전이 개시된 이래, 아군의 급속한 진격으로 미처 후퇴하지 못한 적 패잔병들로 구성된 유격대와 패잔집단은 대관령-단발령-마식령을 잇는 태백산맥과 마식령산맥 등 산악지대를 근거로 강릉-주문진-고성-고저(통천)-마전리 등, 아군의 주요 후방 지역에 침투하여 후방 교란과 보급로 차단을 감행하려 하였다.

국군 상황은 국군 제1군단이 동해안을 따라 원산을 목표로 북진하고 있을 무렵, 동경의 맥아더(MacArthur)사령부에서는 미 제10군단으로 하여금 10월 15일을 기하여 원산에 상륙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10일 제1군단이 원산을 탈

환함과 동시에 착수한 제7연합기동함대의 원산항 기뢰제거작업은 해·공군의 합동 하에 진행되고 있었다. 국군 제3사단은 수도사단과 원산지역 일대의 적을 섬멸하고 10월 15일에 제22연대 제1, 2대대는 원산 부근과 안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3대대는 덕원-양덕간의 마식령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의 주력은 고원에 집결하여 전탄강 일대의 방어선을 확보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은 제18연대를 선두로 함흥 및 흥남을 목표로 진격하여 영흥을 경유한 다음, 정평 남쪽으로 금진강선을 돌파하고 있었다.

피아 주요 참가부대 및 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군 : 수동-소두류산-마전리-고저 일대에 출몰한 적 패잔병으로 조직된 유격대 및 적 병단 등이다.

② 국군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은 <표 6-14>와 같다.

<표 6-14> 국군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제1군단장		소장	김백일(金白一)	
제3사단장		준장	이종찬(李鐘贊)	
제22연대	연대장	대령	김응조(金應祚)	
	제1대대장	대위	이찬운(李昌運)	
			김상균(金相均)	10. 28.부터
	제2대대장	소령	오정록(吳廷錄)	
	제3대대장	소령	정순민(鄭淳珉)	
제23연대	연대장	대령	김종순(金淙舜)	
	제1대대장	소령	김우영(金尤榮)	
	제2대대장	소령	문태준(文泰俊)	
	제3대대장	소령	허형순(許亨淳)	
제26연대	연대장	대령	이치업(李致業)	
		중령	서정철(徐廷哲)	11. 6.부터
	제1대대장	소령	?	
	제2대대장	소령	?	
	제3대대장	소령	은석표(殷碩杓)	
제11포병대대	대대장	소령	?	배속부대
제3야전공병대대	대대장	소령	?	
사단수송중대	중대장	소령	홍두호(洪斗鎬)	

(2) 전투경과

① 작전계획

사단의 원산지역 평정전에 관한 작전계획의 수립은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을 전제로 하였다.

> "첫째는 전선의 신장에 따른 기동부대의 후방경계 및 보급로 확보를 해결해야만 하였고, 둘째는 중서부전선의 평양탈환 진격전에 대한 우측방을 엄호하는 것이며, 셋째는 미 제 10군단의 원산상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10월 13일 육군본부가 하달한 작전명령 제212호 훈령 제1호(작명부록 제12호)에 요약되고 있었다. 즉, "국군 제1군단은 미 제10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원산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변-용포리-용탄리-용탄강 하구에 걸친 선을 주저항선으로 하고 영흥을 확보함으로써 적의 보급로를 차단할 것이며, 문천-영흥-정평-함흥 및 파춘장-홍남 축선을 따라 진격하여 적을 섬멸하라. 국군 제2군단은 원산으로 계속 기동하여 원산을 경유, 양덕-장림리-강동 축선을 따라 평양을 향하여 공격하되 담당지역 내의 적을 분쇄하고 그 남방 및 북방으로 이동하려는 적을 차단, 격멸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군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제3사단은 원산과 그 부근 일대를 경계하는 동시에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지원하라. 수도사단은 영흥-정평-함흥 및 파춘장-홍남 축선을 따라 진격하여 적을 섬멸하라"는 작명 제115호를 하달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제3사단장 이종찬 준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게 되었다.

> "1. 제22연대는 1개 대대를 원산시 경비부대에 명하여 원산시의 경비임무를 담당하게 하고, 1개 대대는 지경리에서 원산비행장과 안변을 경비하게 할 것이며, 1개 대대는 고저에 배치하도록 하라.
>
> 2. 제23연대는 1개 대대로 하여금 영흥만을 경비하게 하고 1개 대대는 어운리에, 1개 대대는 마전리에 배치하라.

3. 제26연대는 1개 대대를 지경리-풍전리 간에, 1개 대대는 지경리-도장동간에 각각 배치하고, 나머지 1개 대대는 고원(원산 북방 35㎞) 일대에 배치하여 부근의 경계에 임하게 하라."

② 전투실시

㉮ 개 관

국군 제3사단은 10월 16일 원산지역의 경계임무를 부여받고 원산을 중심으로 각 연대의 책임지역을 조정한 뒤 재배치하였다. 곧 제22연대는 원산을 중심으로 원산비행장(K-25)-고저-안변지역에 중점적으로 부대를 배치하여 원산의 남부지역을 담당하였고, 제23연대는 영흥만의 북안인 호도반도-수달리(원산 서북방 15㎞)선과 평원가도상의 마전리(원산 서쪽 10㎞)선을 연결하는 원산항의 외곽선을 경계하였으며, 제26연대는 제23연대의 북측인 고원을 중심으로 한 문천-고원-영흥 지역을 경계함으로써 수도사단과의 접촉을 유지하였다.

사단포병대대는 용담리(원산 북방 25㎞)에 주둔하였으며, 그 예하 제1중대는 제26연대를, 그리고 제2중대는 제22연대를 각각 지원하였으며, 제3중대와 공병대대는 문평리(원산 북방 15㎞)에 집결하고 있었는데, 10월 16일 밤 공병대대의 박영근 중위는 사병 5명을 대동하고 부근 일대에서 수집한 10㎏의 지뢰 1,000개를 한곳에 모아 놓고 처리하기 위하여 200m 떨어진 곳에서 소총으로 사격하였다. 그러나 지뢰의 연쇄적 폭발력은 의외로 강대하여 그 폭음으로 3㎞ 거리에 위치한 함남도청의 유리창이 산산이 부셔졌고, 따라서 박영근 중위와 5명의 사병도 폭사하는 대불상사를 빚었다.

그리고 10월 16일부로 제3군단과 제1유격단이 새로 창설되었으니, 총반격작전이 이래 군의 급격한 전진으로 퇴로를 차단당한 적의 대부대가 후방지역의 산악을 거점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군의 작전에 많은 차질을 야기하고 있어 보편적인 병력 증강책에 앞서 이를 토멸하기 위한 작전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은 1950년 8월 27일 제11사단을 창설한데 이어 10월 1일 대구에서 제5사단을 재편하여 이 양개 사단으로 이날 제3군단을 창설하게 되었다. 동군단은 서울

-춘천-인제-양양선 이남지역에서 잔비를 토벌하고 적 유격대를 분쇄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거니와, 이와 동시에 5개 대대(1, 2, 3, 5, 6대대)병력으로 편성한 제1유격단을 창설하여 그 이북지역의 적 유격대를 격멸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군의 작전계획은 기동부대 후방과 연결하는 유기적 종심형성을 기도한 것이었다.

㈏ **원산 남부지역 전투**

제22연대는 제2대대를 원산시 경비부대로 명하여 시내에 주둔시켰고, 제1대대는 지경리(원산 남방 3㎞)에 배치, 원산비행장과 안변(원산 남방 10㎞)에 각각 1개 중대씩 파견하여 부근의 경계임무에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계속 고저(원산 동남방 45㎞, 現 통천)에 주둔시켜 국군 제1군단보급소의 경비임무와 적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제22연대의 각 대대는 원산-원산비행장-고저-안변 지역에서 계속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강릉에 침입하여 주문진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적은 10월 17일 아군의 포위, 섬멸을 피하기 위하여 태백산맥 일대로 잠입하고 말았다. 태백산맥 일대로 잠입한 적은 10월 18일 대관령과 단발령에 출현하였는바, 대관령의 적은 주문진에 침입하였고, 단발령의 적은 외금강 일대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수효는 약 7,000명으로 추산되었다.

외금강 일대로 침입한 적은 고성을 점령한 뒤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며, 도처에서 살인, 방화, 약탈의 만행을 감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단에서는 작전명령 제50호로써 제22연대는 원산방어 임무를 23연대에 인계하고, 10월 21일 08:00시에 원산→고저→외금강→온정가로를 따라 남으로 출동하여 17:30분에 고저를 통과 온정리를 향하여 남진하고 있었다.

고성에 침입하였던 적은 10월 22일 간성에까지 침입할 기세였고, 그 일부는 대관령에 출현하였는데, 이 무렵 고저선을 출발하여 장전→고성가로를 전진하고 있던 제22연대의 전방에는 적 400명이 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출몰하고 있었으나, 접적은 없었다.

10월 25일 고성 남쪽에서 준동하던 적 2,000명은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

중이었고, 금강산에도 1,500명이 집결하고 있었다. 이 방면의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던 제22연대는 사단 작전지시에 의거, 원산지역 평정임무를 제23연대와 교대하기 위하여 제3대대만을 고저에 잔류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주력을 원산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 원산항 외곽지역 전투

제23연대의 제1대대는 10월 16일 08:00시에 수달리(원산 서북방 15㎞)에서 출동하여 15:30분에 영흥만의 동북단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 내려 있는 호도반도에 진출하여, 미 제10군단의 원산항 소해작전을 방해하는 적을 섬멸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는 연대본부와 함께 수달리로부터 12:00시에 어운리(원산 남방 5㎞)로 이동하였다. 또 제3대대는 마전리(원산 서쪽 10㎞)로 이동하여 적의 퇴로와 보급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평원선을 경계하고 있었다.

호도반도에 출동한 제23연대 제1대대는 10월 17일 15:00시까지 적 사살 6명을 비롯하여 소식소총 10정, 직사포 2문, 200ton급 함정 1척, 기관포탄 80상자를 노획하는 등의 전과를 획득함으로써 영흥만의 소해작전과정에서 적의 위협이 제거되었으며 대대는 어운리로 이동하였으며 2대대는 어운리에, 3대대는 마전리에 각각 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이날 원산에서는 제1군단의 전 장병들에게 이 대통령의 극진한 치하가 있었고, 국방장관 명에 의하여 전 사병들에게는 1계급 특진이라는 영예가 주어졌던 것이다.[45] 이러한 가운데 이날 수도사단의 제18연대는 함흥을 점령하였고, 제1연대는 그 남쪽 홍남을 점령하여 부근의 경계에 임하였다.

그런데 10월 18일 영흥만에서는 미 해군의 소해 작업을 지원하던 우리 해군함정 2척이 기뢰에 접촉되어 한척은 기관이 정지되고 또 한척은 침몰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단기일에 어려운 작업을 급속히 처리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였기 때문에 미 해군의 스트러블 제독은 10월 20일로 결정된 상륙일을 소해 작업이 끝나기까지 좀 더 연기할 것을 건의하여 맥아더 원수와 조이(C. Turner Joy) 제독은 모두 이 건의에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영흥만의 소해 작업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서서히 진척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Almond) 소장은 미주리(Missourie) 함상에서 헬기로 원산 비행장에 도착하였는데, 10월 20일 12:00시에는 동경의 맥아더사령부로부터 북위 39° 10′ 이북 태백산맥 동해안 전 지역에서의 작전 지휘권을 인수함에 따라 국군 제1군단은 알몬드 소장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었다.

알몬드 소장은 이 지역에 있어서 부대전개에 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 "첫째, 미 제1해병사단은 원산에 상륙하면 국군 제3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하여 군단후방의 병참선과 후방지역을 경계하다가 미 제3사단이 상륙하면 이와 다시 교대한 다음, 함흥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장진호로 진출한다.
>
> 둘째, 미 제7사단은 이원-북청-혜산진 회랑을 따라 북으로 전진한다.
>
> 셋째, 미 제3사단은 상륙과 동시에 미 제1해병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하여 원산, 함흥지역을 확보하고, 군단후방의 병참선과 후방지역을 경계하며 적의 유격대에 대비한다.
>
> 넷째, 한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에 이어 제3사단도 미 제1해병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하고 동해안선을 따라 동북쪽 국경지대로 진출시킨다."

따라서 알몬드(Almond) 소장은 국군 제1군단에게 국경선까지의 진격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단은 사령부를 원산에서 함흥의학전문학교 구내로 이동 설치한 다음, 김백일 소장은 장진 방면 경계부대인 수도사단 제18연대를 제3사단과 교대시켜 수도사단 전 병력으로 하여금 함흥-북청-성진등 동해안가도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다.

군단 명령에 따른 사단장의 작전지시를 받고, 제26연대의 선두부대인 제1대대는 10월 20일 08:00시에 지경리-풍전리에서 영흥(원산 서북방 45㎞)으로 이동하였으며, 제26연대의 경계임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제23연대 제1대대가 연대 작명에 따라 08:00시에 어운리를 출발하여 고원으로 이동하였다. 알몬드(Almond) 소장은 이날 오후 문평리(원산 서북방 12㎞)의 사단사령부를 방문하여 차후작전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제23연대는 제22연대의 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제2대대는 덕원(원산 서쪽 6㎞), 원산비행장, 안변에 각각 배치하여 원산 외곽의 경비를 담당하였고, 제3대대는 마전리에 2개 중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2개 중대를 원산으로 이동시켰다. 이와 동시에 연대본부도 덕원에서 원산으로 이동하여 원산지역방어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제1대대는 10월 21일 12:00시 영흥에 집결한 다음, 제26연대의 경계지역을 인수하기 위하여 영흥과 고원, 그리고 덕원에 각각 배치하여 원산 북방의 경비에 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제26연대는 08:00시에 영흥-정평-함흥가도를 따라 전진하여 함흥에 집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10월 22일 신풍리(원산 서북방 23㎞)에서 용담리(신풍리 서북방 3㎞)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1,000명 내외의 적의 부대가 고원(원산 북방 45㎞)-양덕(원산 서쪽 70㎞)가로상의 인흥리(고원 서쪽 20㎞)에 출현하였고, 다시 양덕 부근의 용전리에도 적 300명이, 그리고 그 후방에는 도합 5,000명으로 추정되는 적이 각각 집결하고 있었다. 이에 제23연대 1대대는 공병 1개 소대의 지원을 받아 10월 23일 08:00시에 영흥을 출발하여 고원에서 서쪽으로 미둔리-인흥리가로를 전진하여 인흥리 일대를 수색 중 적과 불시에 조우하여 선제공격을 단행한 결과, 격전 끝에 적 105명을 사살하고 3명을 포로한 것을 비롯하여 다발총 1정, 소식경기 5정, 소총 2정, 중형전차 13대, 대형전차 2대, 기관차 8량, 화차 1량을 노획하는 성공하였다.



북한군 포로

㉱ 원산 북부지역 전투

제26연대는 제2대대를 고원(원산 서북방 35㎞) 일대에, 제1대대를 지경리(고원 남방 5㎞)-풍전리(고원 동남방 12㎞) 간에, 그리고 제3대대를 지경리-도장동(고원 남방 12㎞) 간에 각각 배치하여 부근 일대의 경계임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강릉에는 3,000명 규모의 적이 침입한 뒤 주문진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문천(원산 북방 10㎞) 서쪽 15㎞ 지점에 있는 소두류산(558m)에도 900명의 적이 출몰하였다.

소두류산(고원 서남방 16㎞)에 적지 않은 적이 출몰한다는 보고에 접한 사단은 10월 18일 고원 일대를 경계 중인 제26연대로 하여금 이를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2대대는 급거, 고원에서 출동하여 지경리-대구미(고원 남방 8㎞, 現 천내)-용당리(고원 서남방 12㎞)가로를 전진, 소두류산의 적을 양면으로 포위, 공격하여 2,300명으로 추산되는 잔적은 산악지대를 따라 철석산(소두류산 남쪽 6㎞)으로 도주하였다.

소두류산으로 출동한 제26연대 제2대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는 모두 그간 38선을 돌파하여 원산을 탈환하기까지 여유를 갖지 못했던 부대정비를 위하여 10월 18일 13:00시부터 사단장 주관 하의 군장검사가 실시되었다.

㉲ 함흥지역으로 이동

제3사단은 제26연대로 하여금 수도사단 제18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10월 24일 장진 방면의 발전소를 목표로 진격토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문평리의 사단사령부도 제1군단작명(1950. 10. 23.부 호수미상)에 의거하여 함흥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미주리(Missourie) 선상에서 개최된 미군 수뇌회담에서는 10월 25일을 상륙일로 결정함과 동시에 원산항의 소해작업이 끝나는 즉시 흥남항을 소해키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23연대는 원산지역 평정임무를 제22연대에 인계하는 한편, 함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날 연대본부는 우선 함흥으로 이동하였고, 영흥에 주둔하여 고원-덕원선을 경계 중이던 제1대대는 영흥으로 집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6연대는 사단 작전지시에 따라 장진선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수도사단 제18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장진호 일대를 점령하기 위하여 상통리(함흥 서북방 25㎞)로 진출, 제18연대 1대대와 교대하였다. 이 무렵 상통리 북방 5㎞의 연대봉(698m)에는 적 1개 대대병력이 견고한 야전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 후방 장진발전소 부근에는 4,000명 규모의 적이 집결하고 있었으며, 또한 평양 방면으로부터 이동해온 적이 합류하여 장진호 일대의 적은 무려 50,000명으로 추산되기에 이르렀다.

포병대대는 각각 1개 중대씩 각 연대를 지원하고 있었고, 공병대대는 함흥으로 이동 중이었다.

연대봉(함흥 서북방 30㎞, 698m)은 장진강 제3발전소를 감제하는 동시에 상통리-황초령-고토리-장진을 연결하는 장진선의 철로와 도로를 차단하는데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이에 대하여 제26연대는 10월 26일 05:00시를 기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전세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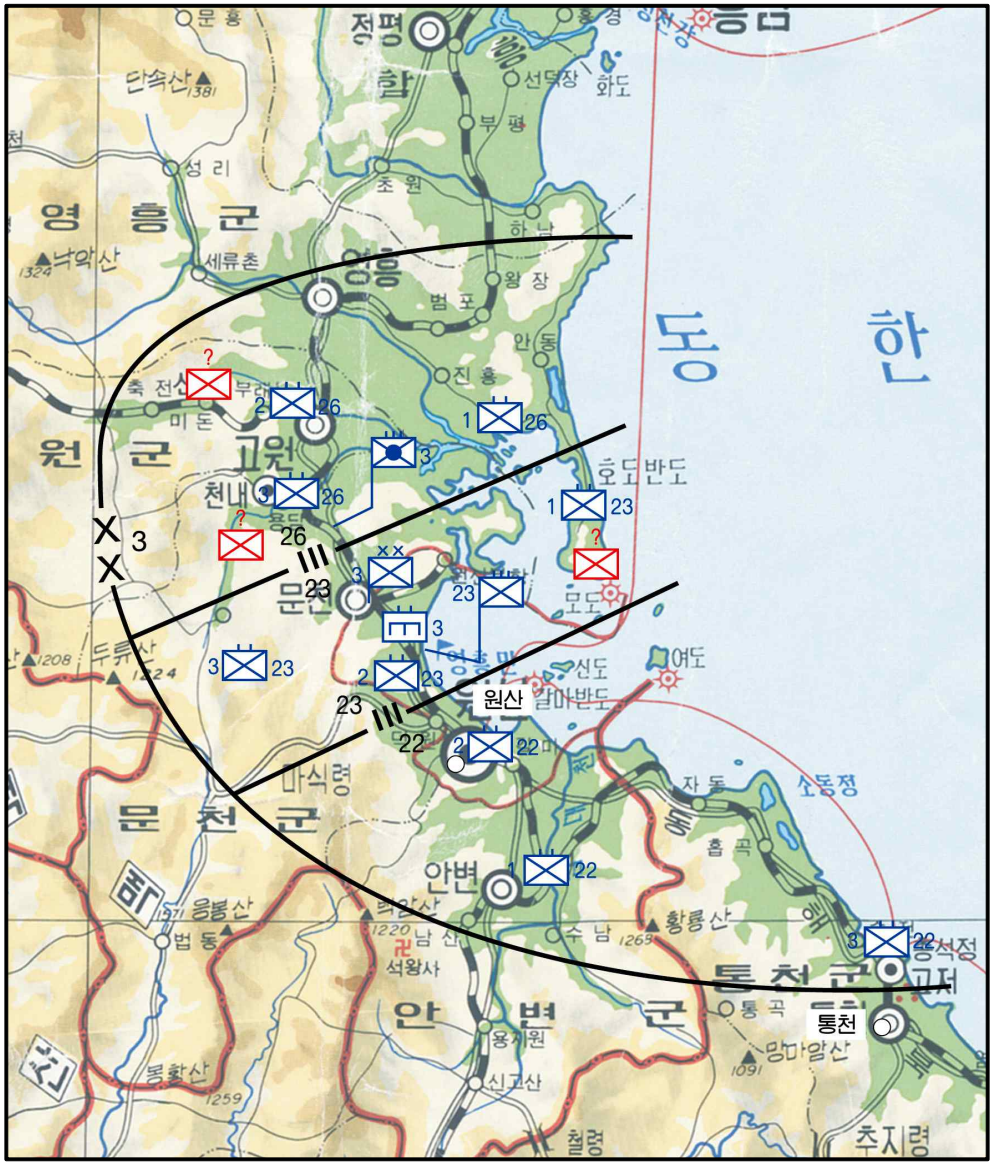
그러나 제26연대가 장진호 남쪽 제1, 제2발전소 부근에 도착하였을 때 1명을 포로로 생포하였는데 이것이 중공군으로 식별되었다. 소속이 '제8군 제5연대'라고 암호명으로 밝히고 부근에 4,000~5,000명의 중공군이 전개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것이 동부전선에서 포획된 최초의 중공군 포로이며, 우연의 일치로 이날 서부전선에서도 국군 제1사단에 의해 중공군 포로가 발생하였다.[46]

그리고 제23연대는 작전지시를 변경하여 전날 선두부대로 이동하려던 제1대대는 계속 영흥-고원선을 경계하도록 하고, 제2대대는 함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대대도 함흥으로 이동하여 함흥과 연포비행장에 각각 배치하도록 하여 부근 일대를 경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제23연대는 제22연대에게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하고 함흥으로 이동하고 제22연대만이 원산에서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군 제1군단의 유기적인 작전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던 10월 26일 원산항에는 미 제1해병사단 선단이 입항하였다. 곧 미 제1해병사단은 21척의 수송선과 15척의 LST로 10월 16일 오후 인천항을 출항하여 10월 19일 영흥만

부근에 도달하여 소해작업의 지연으로 7일간을 해상에서 머물렀다가 이날에야 비로소 원산항에 상륙하게 되었다.

<상황도 6-10> 원산-함흥지역 후방작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성급한 전쟁종결 준비

10월 15일 웨이크도 회담에서 전후처리에 관한 대통령과 국방성의 의도를 알게 된 맥아더 원수는 압록강으로의 총추격 명령과 동시에 전후태세로 옮길 준비를 착착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유엔군 전용준비, 미군 사단의 개편과 이에 따른 국군 확충, 그리고 군수지원 조정과 정비였다.

그 무렵 뉴욕 타임즈지는 "한·만 국경에서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전쟁의 승리는 약속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 관측은 미국 조야의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미 국방성은 우선 미 제2사단을 유럽 또는 본국으로 전용하고, 이어서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서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10군단을 뽑아내고, 최종적으로는 미 제1군단의 2개 사단을 한국에 주둔시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철수시킬 생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1선 장병들에게 영향을 미쳐 미 제9군단과 평양을 경계하고 있던 미 제1기병사단은 명령이 없었는데도 내면적으로 귀환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2. 적정 파악 미흡

맥아더 장군이 북진계획을 수립할 때 세웠던 가정은 전쟁을 동계이전에 끝낼 수 있을 것이고, 중공이나 소련은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유엔군의 예상을 뒤엎고 대규모로 개입하게 됨으로써 오로지 압록

강과 두만강을 향해 정신없이 진격하고 있던 유엔군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또한, 작전부대의 진출상황이 원래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자, 맥아더 장군은 동서전선을 하나로 이으려던 최초의 계획을 백지화 했다. 미 제8군은 서부에서, 미 제10군단은 동부에서 각각 국경을 향해 진격하게 됨으로써 마침내는 장진호로부터 희천간 80㎞의 간격이 형성되었고 이 간격을 통해 중공군이 침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3. 북한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미고려한 부대운용

북한지역은 북쪽으로 이동할수록 공격정면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즉, 청천강을 연하는 선에서는 약 270㎞인 전선이 국경선 부근에서는 765㎞로서 무려 3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 8군이 당시 가용전력으로는 청천강선 이북지역의 공격 시에 자연적으로 전투력의 분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작전적 차원에서 당시 미 8군의 전력으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공자의 이점인 기동과 집중을 통한 외선작전이 제한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 작전을 단계화하거나, 미 9군단의 증원 시기를 앞으로 조정하거나, 미 10군단과 연계하여 서부지역을 먼저 석권후 동부지역으로 작전지역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했다.

지금까지의 전력으로 추가 증원없이 국경선 부근 작전을 연장하는 것은 작전적 수준에서 가용자원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4. 이원적 작전지휘체제

맥아더 장군의 북진계획은 미 8군과 제10군단을 최초부터 분리해서 운용한 관

계로 양개부대의 상호지원과 협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맥아더 장군은 북한의 지형으로 볼 때 낭림산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불가피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부지역은 미 8군 사령관 워커(Walker) 장군이 지휘하고 동부지역은 미 10군단장 알몬드(Almond) 장군이 지휘하게 되어 한 작전지역내에 2명의 지휘관이 지휘함으로써 지휘체제를 일원화 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미 제8군과 제10군단이 분리되어 상호 지원과 협조를 하지 못함으로써 유엔군의 기동에 제한을 주는 험준한 산악지형이 오히려 중공군에게는 가장 유리한 침투접근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 대책마련에 소홀하였던 것이다.

5. 결정적인 기회에 전투력 집중으로 주도권 확보

미 제10군단이 이미 국군 제1군단이 점령해버린 원산에 10월 26일에야 행정적 상륙을 하게 됨으로써 가용한 전투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작전을 전개해야할 시기에 미 제10군단은 완전히 유휴병력이 되고 말았다.

작전부대의 진출상황이 원래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자 맥아더 원수는 유엔군의 작전을 변경, 동서전선을 하나로 이으려던 계획을 백지화해 버렸다. 적이 원산항 일대에 부설해 놓은 기뢰를 제거하는데 예기하지 않았던 시일을 소요하여, 제10군단의 상륙은 계획보다 훨씬 뒤늦은 10월 26일에 가서야 개시되었다. 이때는 이미 서부전선의 국군이 압록강에 이르고, 동해안의 국군도 이원을 지나간 다음이었다.

이 무렵에 전선의 연결을 위해 제10군단을 서쪽으로 진출시킬 경우, 제10군단은 제8군의 후방으로 들어서게 될 판이었다.

상황이 이런식으로 진척되어 가자, 맥아더 원수는 제10군단을 바다에 띄워 놓은 채 10월 17일과 10월 24일의 두 차례에 걸쳐 수정 명령을 하달, 동서연결 작

전을 취소하는 동시에 제8군은 서부에서, 제10군단은 동부에서 각각 국경을 향하여 최대속도로 올라가게 함으로써 마침내는 동서 두 전선 사이에 80㎞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양 부대는 다시 산간계곡마다 단위대별로 흩어져 경쟁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식의 짜임새 없는 작전을 펴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제8군과 제10군단의 지휘권이 갈라져 협조가 어려운 터에, 이제 연결작전마저 취소해 버리니 간격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가서 유엔이군 작전부대는 전선의 간격으로 뚫고 들어와 배후로부터 나타난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막대한 출혈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전장에서의 전기는 반드시 포착활용해야 하고 또 일단 전기를 포착하게 되면 왕성한 결단력과 실행력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북진작전을 전개함에 있어서 유엔군은 최초 경인지역에 있던 미 제10군단으로 하여금 원산상륙작전을 실시토록하고 후방에 있던 미 제8군을 북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추격시기를 상실하였고, 또한 원산상륙작전을 실시한 미 제10군단의 유휴병력 발생으로 전투력을 집중시키지 못함으로써 결정적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 마침내는 주도권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6. 진격전에서의 전투근무지원 중요성

원산상륙을 위해 미 제10군단이 10월 6일부터 승선을 개시함에 따라 미 제8군의 보급을 위한 하역작업이 전면중단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미 제8군은 10일 이상이나 보급지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심각한 병참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그 결과 평양을 향해 신속히 진격해야할 미 제8군의 작전속도가 늦어진데다가 이러한 병참난은 그후 평양을 지나 청천강 일대에 이르기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해 전과확대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된다.

7. 여러 가지 단계와 성격을 지닌 전쟁으로서 6·25전쟁[47]

6·25전쟁은 유엔군의 최종 공세로 중공의 참전이 공식 확인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당초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김일성과 스탈린의 공모 하에 작성된 선제타격 작전계획에 따라 기습남침을 자행함으로써 북한군 대 국군의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국군은 상대적 전력이 적의 절반 수준인데다가 기습의 충격력을 흡수하지 못하여 3일만에 서울을 실함당한 채 도하수단도 없이 경황 중에 한강을 건너 방어선을 형성하고 조기에 반격작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지연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유엔헌장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조치에 따라 국군을 도와 북한군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군이 도착하여 국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참전한 유엔군이 유엔군사령관의 단일지휘 하에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7월 14일에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국군은 법 국군은 유엔군이 아니나 실질 국군은 유엔군의 일원처럼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제 전쟁은 북한군 대 유엔군의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새로운 성격의 전쟁으로 변모한 것이다.

국군과 유엔군은 지연작전을 펴면서 전력을 회복하여 부산교두보 낙동강 방어선에서 사활을 건 전투를 치러 적의 공세를 분쇄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였다. 북한군은 최초 속전속결로 8월 15일까지 남한을 완전히 공산화 한다는 전쟁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자유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의지에 부딪히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상대적인 전력의 우위를 상실하는가 하면, 병력과 물자 등 전쟁지원이 적절히 뒤따르지 못하여 공격역량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후루시쵸프는 그의 회고록에서 "부산교두보는 요새도 아니었다. 김일성은 마지막 단계에서 힘이 부족하였다. 그는 공격에서 병력과 장비, 전차의 많은 손실을 입었다. 나는 전차 1개 군단만 더 있었더라면 그 방어선을 돌파하고 충분히 전쟁을 끝냈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 고문관들은 계획과정에서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비난 받아야 한다. 김일성도 지원 받은 것 이상으로 더 요청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전차 1개 군단을 더 지원할 수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군의 패인으로서 계획상의 판단착오와 기간 중 손실에 의한 전력의 약화를 지적하고 있다.[48]

국군과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9월 말, 전쟁발발 97일만에 실지를 되찾고 전전현상을 회복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국군이 초기전투에서 입은 손실 이상의 피해를 입은 채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어 북으로 도주하였으며 포위당한 일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으로 잠입하여 게릴라가 되었다. 북한군 점령기간 중 미처 피난하지 못한 양민들은 적의 방어선을 돌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고 청천강선으로 진출하였다. 김일성은 이때 '탈출구가 없다. 미국은 틀림없이 북진하여 북한을 점령할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절망하였으나,[49] 전쟁지도부를 강계로 옮기고 청천강, 희천, 강계에 3중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유격전으로써 최후까지 저항할 결의를 다졌다.

10월 24일 청천강을 확보한 유엔군은 한·만 국경선을 향한 총 공세를 폈다. 맥아더 장군은 국경선 부근에서는 국군만을 운용해야 한다는 전쟁지도상의 제한사항 마저 제거하고 모든 부대로 하여금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총 진군하도록 하였다.

이 공세에서 국군 선봉부대가 압록강변 초산을 점령하기도 하였지만 중공군과 불의의 조우로 인하여, 서부전선의 유엔군은 청천강선으로 철수해야 하였다. 그러나 동부전선에서는 국군이 청진에 접근하고 미군 선두부대가 혜산진을 점령하는 등 국경선을 향한 추격전이 계속 되었다.

한국전쟁은 이제 북한군과 중공군 대 국군과 유엔군의 전쟁, 공산군 대 유엔군의 전쟁, 사실상 중공군 대 유엔군의 전쟁, 아주 새로운 단계의 전쟁으로 확전되었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의 군사지원을 고려할 때 6·25전쟁은 마침내 냉전구조하의 공산진영대 자유진영의 전쟁이 되었다.

이처럼 6·25전쟁은 개전 이후 6개월에 걸쳐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전국토를 전장화하면서 북한군 대 국군의 전쟁, 북한군 대 유엔군의 전쟁, 중공군 대 유엔군의 전쟁으로 점차 무서운 모습으로 변신해 갔다. 따라서 전쟁의 성격도 민족전쟁, 이념전쟁, 국제전쟁 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과 특징으로 인하여 한국전쟁은 바야흐로 세계대전과 제한전쟁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한민족 스스로가 통제할 수도 없는 국면에 깊이 빠져들어 전쟁의 결과와 민족의 운명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집필 : 우기범)

주 (註)

1) General HQ UN Command & Far East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1950. 10. 2.
2)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1974, pp. 275-278.
3) "A"선은 일명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이라고도 하며, 유엔군(지상군)의 북진 한계선. 이 선 이북의 진출은 지시된 국군만이 진출할 수 있음.
4) 제1군단작전명령 제115호, 1950. 10. 15.
5) Appleman, 『정책과 지도』, p. 285 ; 위의 책, p. 670.
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1985. 12. 20, p. 49.
7) General HQ UN Command & Far East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1950. 10. 19.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1985. 12. 20, p. 50.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6, pp. 243-244.
10) 러시아 국방부,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pp. 73-78.
11) 『조선전사』 제26권, pp. 101-102.
12)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1950.10.14 명령,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장.
13)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6. 20, pp. 1-2.
14)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6. 20, p. 555.
15) 북한 제2군단 군단장인 최현은 1905년경 함경도에서 태어났다. 1920년대 말에 그는 만주로 건너가 게릴라(산적)에 합류했다. 1938년경 그는 소련으로 건너가 제2차 세계대전동안 소련 군대에 복무했고 1945년에 소련군의 중대장으로서 북한에 돌아왔다. 1946년에 보안군에 합류한 후 1948년 8월에 38도선의 국경수비대의 대장이 되었다. 1950년 6월 30일, 최현은 춘천전투에서의 무능력으로 물러난 이청성(Lee Chong Song)의 뒤를 이어 북한 제2사단의 지휘를 맡았다. 1950년 9월 8일 그는 김광협과 교대한 후 북한 제2군단을 지휘해온 김무정을 대신해서 북한 제2군단의 지휘를 맡았다. 김무정은 북한 제2군단의 진출이 계속 계획대로 되지 않자 군단장에서 해임되어 북한 제2군단의 참모장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최현은 북한군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5년 그가 소련군과 함께 만포진에서 북한으로 들어올 때, 그에게 말대꾸를 한다하여 제재소를 경영하는 한인을 살해했다고 한다. 1950년 9월 북한군이 후퇴하는 동안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데 실패한 많은 수의 장교들을 직접 사살했다. 그의 매너는 난폭하고 건방지며 깡패와 같다. 그는 거의 문맹임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한 암기력으로 매우 예민하고 빠른 두뇌회전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그의 부하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부단히 채찍을 휘두름으로써 그의 군사적 지식의 결함을 위장하였다. 그는 양동작전과 기습작전 그리고 비정공법적인 전투를 강조하고 게릴라 형의 전투를 선호했다. 그는 전투지휘관으로 좋은 명성과 전과가 있었으며, 북한 군단장 중 능력 있는 군단장으로 판단되며 훌륭한 전술가이다. ; 『북한군역사』, 미극동사령부 정보참모부, 1952. 7. 31, pp. 221-222.
16)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편, 『한국전쟁』(6권), 1987, p. 25.
17)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편, 『한국전쟁』(6권), 1987, pp. 25-26.
18) 『군사세계』, 이은팔 논문 "유엔참전과 전사"에서 인용.
19) 전차 1개 중대와 기병 1개 대대로 편성.
20) General HQ UN Command & Far East Command, 『G-3 Operations Report』, 1950. 10. 19.
21)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4권, 「총반격작전기」, 1971. 12. 25, pp. 678-679.
2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1995. 8. 13, p. 558.

2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1995. 8. 13, p. 559.
24) 국방일보, 『노병이 걸어온 길』(54), 예)대장 백선엽.
25) 육군대학 교육참고, 『한국전쟁사』, 1999, pp. 333-334.
26) 기병사단이라는 호칭은 미 육군과 함께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호칭임. 당시의 기병사단은 일반 보병사단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부대였음.
27) 역주 : '운동전'이란 正規兵團이 긴 전선과 큰 戰區에서 戰役과 戰鬪를 外線에서 速決하기 위한 進攻戰의 한 형식이다. 통상 陣地戰, 遊擊戰과 서로 결합한다. 『중국군사사전』, 해방군출판사, 1990, p. 424.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6. 20, p. 25.
2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청천강전투」, 1985. 12. 20, pp. 17-18.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총반격작전기」, 1971. 12. 25, pp. 660-661.
3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총반격작전기」, 1971. 12. 25, pp. 661-662.
3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총반격작전기」, 1971. 12. 25, pp. 662-664.
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총반격작전기」, 1971. 12. 25, pp. 664-665.
3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1995. 8. 13, pp. 549-551.
35) 이것은 북한군이 압록강을 다시 건너와서 공격해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3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총반격작전기」, 1971. 12. 25, p. 671.
37) 이곳은 해발고도 654m 밖에 안되나 적유령산맥의 한 분수령으로서 이 고개를 넘으면 초산군이고 초산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산악접근로로 들어설 수 있다.
38) 초산 일대의 적정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고 목표 탈취보다는 분쟁 유발의 방지와 국경선 경비에 더 주의를 기울인 결과.
3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1995. 8. 13, pp. 557-558.
4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1995. 8. 13, p. 557.
4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청천강전투」, 1985. 12. 20, pp. 69-70.
4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청천강전투」, 1985. 12. 20, pp. 68-69.
43) 함남 북청군과 풍산군 경계선 상의 고지 정상 '목'으로서 일명 '불개미재'라고도 부르며 신풍리에서 수상리-황수원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길이다. 해발 1,000~1,500m나 되는 고원지대로서 굴곡부가 25㎞이며 꾸불꾸불한 산골로이다. 현재는 양강도와 함경남도의 경계선 상이다.
44) 넓고 평평한 모양(扁形).
45) 보병 제3사단, 『백골사단 역사』, 1980, p. 214.
4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1995. 8. 13, p. 570.
4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1995. 8. 13, pp. 591-593.
48) Little, Brown & Company, Khrushchev Remembers, 1990, p. 146.
49) Little, Brown & Company, Khrushchev Remembers, 1990, p. 147.



제 7 장 해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한국해군 작전
제 3 절	유엔해군 작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본장에서는 한국 해군과 유엔 해군이 전쟁 초기부터 확보된 해상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한 1950년 9월 15일부터 중공군 개입 이전단계인 10월 24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수행된 중점적인 해군작전을 기술하였으며, 소해작전 등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술기간을 다소 조정하면서 기술된 부분도 있음을 밝힌다.

6·25전쟁의 전황을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 작전계획을 은폐하고 기습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하여, 동해안에서는 전함 미조리(USS Missouri)호가 삼척을 포격하였고, 트라이엄프(HMS Triumph)호와 헬레나(USS Helena)호는 마양도를 공격하였다. 또한 제5공군 예하의 비행기들은 기만전술의 일환으로 군산주변의 도로와 교량, 그리고 철도 등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작전이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한 '장사동 상륙작전'이다.

정일권 총사령관은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대구·부산지구 방어전을 치르고 있을 때, 동부전선의 포항지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륙기습작전을 지시했다. 육군본부에서 예비병력을 동원하여 일명 '明부대'(부대장 이명흠, 일명 772부대)가 편성되었다.

해운공사 소속 LST(문산호) 1척과 육군 독립 제1유격대로 구성된 이 작전은 9월 15일 05시경 장사동 해안에 도착하여 투묘하였으나, 케지아(Kejia) 태풍이 내습하는 시기였으므로 해상상태가 불량하여 좌초된 상태로 상륙작전을 개시하였다.

불완전한 상태로 상륙함에 따라 인근에 잠복하고 있던 북한군으로부터 일제사격을 받아 아군 전사자 129명이나 내는 커다란 손실을 보았다. 9월 20일까지 구조함에 의해 677명이 구조되었지만 약 30명의 대원만은 적지에 남게 되었다.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고, 특수훈련과 장비를 갖추지

못한 대원들로 구성되어 아군의 피해가 많았지만, 당시 평양방송이 아군 2개 연대가 동해안에 상륙하였다고 보도하였을 정도로 북한군의 주의를 분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북한군의 병참선 차단을 위한 잠정적인 상륙작전 대상지역은 북에서부터 평양, 인천, 군산 등이었다. 그중에서 인천은 종심 깊은 타격지역으로서 서울과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상륙지역이었다.

1950년 8월 23일 도쿄에서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장군과 해군 참모총장 셔먼(Forrest P. Sherman) 제독에게 마지막 브리핑 이후에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국 9월 9일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계획이 승인되었다.

제7함대사령관인 스트러블(A. D. Struble) 제독이 합동상륙기동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약 260여 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상륙기동부대는 9월 15일 06시 30분을 D일 H시로 계획하고 인천수로를 항해하여 월미도에 성공적으로 상륙하였다.

이와 같은 승리는 대부분의 북한군 병력이 낙동강전선에 치중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천과 같은 후방지역은 방어가 취약하고, 전쟁초기부터 유엔 해군이 해양우세권을 장악하고 있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반격부대와 상륙부대가 망치와 모루의 역할을 하게 되어 낙동강전선의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협공함으로써 이북으로 격퇴하였다.

원산상륙작전의 기본 계획은 미 제8군이 주공을 담당 개성, 사리원, 평양 등 서부축선을 따라 북상하고, 미 제10군단이 동해안의 원산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 미 제8군과 연결하는 작전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인천과는 달리 원산상륙작전은 북한이 부설한 기뢰로 인하여 상륙작전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기본 상륙일자(D일)인 10월 20일을 맞추기 위하여 소해함정들이 원산항 근해 10월 10일 도착하여 소해작전을 개시하였지만, 원산항 입구에 부설된 기뢰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였기 때문에 소해작전은 지연되었다. 결국 D일은 6일 연기되어 10월 26일로 변경되는데, 5일로 예상되었던 소해

기간이 15일이 소요된 셈이었다.

소해작전이 지연되는 기간 중에 육상으로 진격한 한국군 제1군단은 10월 10일 원산을 이미 점령함으로써 완전한 원산해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상륙군을 함안이동 시킬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소해작전 기간 중에 미 함정 파이어러트(USS Pirate)함과 플레지(USS Plege)함이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함정 2척의 침몰로 9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원산상륙작전은 전쟁지도부가 한국군의 신속한 진격을 예상하고, 또한 원산근해에 광범위하게 기뢰가 부설되었다는 정보가 있었다면, 모든 상륙작전은 취소되었을 것이다.

원산소해작전이 종료되기 이전에 극동해군사령관 조이(Joy) 제독은 제95선견부대사령관인 스미스(Smith) 제독에게 진남포항 소해를 지시하는데, 이는 한반도 서부지역에서 진격하고 있는 미 제8군의 군수지원을 위해 진남포항의 개항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산소해작전에서 사전정보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상당한 인명 및 함정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진남포항 근해에 부설된 기뢰정보 확보는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정보 파악을 위한 정보팀을 파견하였다.

진남포항의 좁은 해역에서 가장 유용한 소해자산은 소형 소해함과 특수전 요원에 의한 기뢰제거 방법이었으며, 특히 영국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헬기는 기뢰탐색에서 매우 유용한 자산이었다. 또한 소해기간 동안 내습한 태풍으로 소해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원산에서와는 달리 진남포 소해작전은 함정 및 인명피해가 전혀 없는 완벽한 소해작전이 되었으며, 이처럼 기뢰부설에 대한 사전정보와 해역특성에 적합한 소해자산이 작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한국 해군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해안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수, 목포 및 묵호의 해군기지를 수복하였다. 또한 지상군의 육상진격에 따라 북한해역 진격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북한의 동서해안에서 원산항과 진남포항은 가장 항만시설이 양호한 항구였으며, 두 개의 항구는 북한 해군의 기지로 사용된 곳이었다. 그래서 한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점령한 이후, 10월 18일 북한 해군의 동해안 중심기지였던 원산에 전진기지를 설치하였다.

제 2 절 한국해군 작전

1. 장사동(長沙洞) 상륙작전[1]

1) 참가부대 및 함정

구 분	참가부대장 및 병력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2] 부대장	대위 이명흠(李明欽 : 후에 宗勳으로 개명)
병 력	4개 중대[3]/772명, 문산호/42명, 해군헌병 5명, 미군 고문 1명
한국 함정	LST(문산호[4]/상륙함), LST(조치원호/구조임무수행)
유엔 세력	• 제95.2기동함대(하트맨 소장, Charles C. Hartman) • LT 2척(볼스터, USS Bolster/헬레나, USS Helena)

2) 작전경과

장사동이란 곳은 동해안 포항 북쪽 약 25㎞ 지점의 좁은 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으로서 남·서·북의 삼면은 산악으로 둘러싸인 분지이고 남방의 지경동(地境洞) 고지와 북쪽의 부흥동(富興洞) 고지는 해발 200m이며 북한군은 양고지의 산기슭에 집결하여 방어진지를 굳게 구축하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과 시기를 같이하여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하여 상륙양동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서해안에 대한 기만작전은 군산에서 실시되었으며 동해안에서는 장사동에 해운공사 소속 LST(문산호) 1척과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 의해 실시되었다.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작전명령(9월 12일)은 다음과 같다.[5]

① 임무 : 동해안 영덕지구로 상륙하여 북한군 제2군단(군단장 김무정)의 후방을 교란하라.
② 작전 개시일 : 1950년 9월 13일
③ 보급 : 제1군단에서 수령하라. 곤란할 시에는 항공보급을 실시한다.
④ 상륙작전대책 : 대형 LST를 이용한다. 상륙전을 감행하기에 앞서 상륙지구전역에 걸쳐 항공기 폭격 및 해군 함포사격을 실시, 북한군을 섬멸한 다음 상륙을 개시한다.
⑤ 전술고문관으로 전성호 대령을 파견한다.
⑥ 통신 : 통신감실에서 12명으로 편성된 무선전신반을 배속받아 국군 제1군단 지휘 무선망을 경유 육군본부와 통신을 유지하라.

LST 문산호는 9월 14일 16시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를 탑재하고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미군함정의 안내를 받아 9월 15일 05:00시 동해안 장사동 부근해상에 도착하였다. 미 함정의 지시로 장사동 근해 해상에서 선박 선수미의 닻으로 투묘(投錨)하였으나 케지아(Kejia) 태풍이 내습하는 시기였으므로 해상파고가 3m 이상으로 대단히 불량하여 해안근처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착안이 되지 못한 채로 상륙작전을 개시하였다.

그 시기에 후방 산정상에 잠복하고 있던 북한군으로부터 일제사격을 받기 시작하여 결사적으로 로프를 이용하여 일부 병력이 상륙하였으나 전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풍랑이 점차로 심해지고 북한군의 포화가 집중되어 05:30분경에는 선미에 투묘한 닻이 절단되고 말았다. 곧이어 선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06:00시에는 완전히 해안에 가로놓인 상태로 좌초되었으며,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09:00시에는 상륙을 완료하였다.

상륙부대의 위급한 상황을 접수한 해군본부에서는 미 육군의 스피어(Frank Spier) 소령을 LT1호에 승선시켜 급파하였다(해본작명갑 제145호). 15일 22:00시 부산을 출항한 LT1호정은 16일 07:00시 현지에 도착하여 문산호 구출에 착수했으나 깊이 좌초되어 구출하지 못하고 일몰경에 부산으로 철수하였고, 304정도 문산호를

구출하고자 출동하였으나 시계불량으로 좌초한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풍랑이 심하여 구룡포로 돌아왔다.

문산호 구출이 불가능하다는 LT1호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해군본부에서는 대구에 있는 육군본부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현 상태를 고려할 때 상륙부대를 구출하자면 지원부대를 증파하거나 또는 철수하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상륙부대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군 중위 김형봉을 책임장교로 하여 조치원호를 현지에 급파하였다. 9월 18일 15:00시 구조비행기를 현지에 보내어 전단을 살포하여 LST 2척이 곧 현지에 급파될 것이니 상륙부대는 선박 인근지역을 확보하고 있으라는 뜻을 알렸고 약간의 탄약과 의약품을 투하하였다.



좌초된 문산호

문산호 구조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원호 책임장교 김중위는 해본작명갑 제151호를 접수하고 19일 06:00시 조치원에 승조하여 장승포에 도착하였다. 당시 부근해상에는 연합함정 LT 2척(볼스터, USS Bolster/헬레나,USS Helena)과 LST 3척이 있었다.

현지에 도착한 조치원호는 LT호에 승조하고 있는 피어드(Frank Pied) 함장의 지시로 곧 문산호 구출작업에 착수하였다. 미 LT 함장은 조치원호를 문산호가 좌초한 북방 약 400야드 지점에 착안할 것을 지시했으나 선장은 좌초를 염려하여 그 지시를 거절하자,[6] 미 LT 함장은 조치원호에 승조하여 자신이 조함하여 문산호 북방 400야드 육지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진 지점에 착안시켰다.

미 함장은 복장을 간편히 한 뒤에 로프를 타고 험한 파도를 무릅쓰고 해안에 상륙하여 용감하게 구조작전을 지휘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아군이 다시 상륙을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더욱 맹렬한 사격을 실시하였다. 구조작업 중에 미 해군 연락장교 1명은 북한군 박격포탄에 부상을 당하고 상륙대원을 중에도 다시 전사 9명, 부상자 12명이 발생하였다.

이 구조작업을 지원하는 함포사격과 비행기의 폭격으로 북한군의 화력은 견제되었고, 이러는 가운데 육지로부터 조치원호까지 로프로 연결하고 구명벌(Life Raft)에 56명씩 싣고 병력을 LST선내로 구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집중사격으로 구조작업 중에도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13:00시경에는 약 30명이 남아 있었으나 북한군의 폭격과 구명벌의 손실로 불가피하게 철수작전을 포기하였다. 조치원호는 LT함장 지휘 하에 전 인원의 용감한 활동으로 약 670여 명을 구출하여 20일 20:00시 부산항으로 복귀하였다.

<표 7-1> 문산호 피해현황

구 분	내 용
좌초위치	북위 36도 16분 30초, 동경 129도 22분 40초
육상과 거리	최접근 21미터
경사	선수방향 150도, 선체는 좌현으로 15도 기울어짐
선체파괴정도	우현 정횡 수선 상부 직경 2미터 관통



장사동 상륙작전 기념비

3) 작전결과

아군은 북한군의 주보급로인 포항·영천방면으로 가는 국도를 완전 차단하여 북한군의 후방활동을 마비시켰고 또한 포항·경주 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하였던 북한군 2개 연대와 전차 4대를 영덕방면으로 유인함으로써 전선의 북한군 작전 배비를 교란시키는데 일시적으로 성공한 셈이었다.

아군이 여기에서 철수하기까지 사살한 적은 대략 270명이었는데 그밖에도 다수의 보급창고와 후방 의무시설을 급습하여 불태워 버린 다음 군수(郡守)와 청년단장 등을 임명하여 행정력을 장악하는 동시에 신흥동(新興洞) 보안대를 습격하여 수감 중인 애국청년 10명을 석방시키기도 하였다.

상륙부대는 장사동 해안에 상륙한 이후 단 며칠 동안의 작전을 하면서 1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작전은 특수훈련과 장비로 무장된 미군 공수부대나 특공부대만이 해낼 수 있는 경우였으므로 처음부터 무리였는지 모른다.[7)]

그러나 이 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의 앞서 소규모의 위장된 일개 상륙작전이었지만 이로 인하여 북한 군단의 동해안 전선은 예기치 않았던 큰 타격을 받았으며, 당시 평양방송은 아군 2개 연대가 동해안에 상륙하였다고 보도하였을 정도로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군 제1군단의 총반격전과 인천상륙작전을 유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견제적인 조공(助攻)의 역할을 하였다.

2. 남한기지 수복전

인천상륙으로 인하여 낙동강전선에 집결된 북한군은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유엔군이 남아있는 북한군을 소탕하기 위하여 진주를 거쳐 광주로 진격함에 따라 북한군은 산악지대로 도주하였다.

우리 해군은 해안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수, 목포에 상륙하여 해군기지를 수복하고, 육군의 동해안 진격에 따라 묵호기지를 수복하였다. 10월 6일 이희정 중령은 인천기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남해안 방면에 진격한 유엔군이 호남지역을 점령하여 군산기지를 수복할 수 있었다.

1) 남해안지대 진격전(여수 고흥반도 소탕전)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도를 탈환하게 됨으로써 남한의 북한군은 고립상태에 빠졌다. 상륙으로 남아있는 적을 소탕하며 진주방면으로 진격하여 남해안 중부의 요새인 여수를 탈환하였다.

해군함정들은 북한군의 병력이 해안일대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봉쇄를 하고 있었다. 즉 고성만에서 남해도 남단까지의 해안선 일대는 507정에 의하여 또한 남해도 북단 노량해협은 301정에 의하여 봉쇄되었다.

9월 26일 통영근해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진해방위대 제2대대는 송인명(宋寅明) 중령 지휘하에 수송선 무등산호에 승조하여 삼천포 수로를 통과하고, 진주만

에 진입하여 삼천포남방 남해도 선소리(船所里)에 상륙하였다.

그러나 이때 북한군의 주력은 이미 2일전에 하동 및 순천방면으로 이동하고 소수의 북한군만이 있었다. 13:00시 도마리(都馬里)를 수복하고, 28일 08:00시에는 사청리, 노량진(露梁津)을 거쳐 남해 일대에 남아 있는 적을 소탕하고 정규군 5명을 생포하였다.

고성, 삼천포를 탈환한 후 김충남(金忠南) 중령이 지휘하는 진해방위대 제1대대는 29일 53호정 이외에 1척의 수송선에 나누어 승조하여, 507, 301, 504, 307각 함정 지휘하에 삼포천을 떠나 남해도 남단은 우회하여 05:00시 여수 외항에 도착하였다.

여수항내는 기뢰부설로 인하여 함정들은 기뢰를 폭파시키면서 301정을 선두함으로 북항에 진입하여 오동도(梧桐島) 해상으로부터 포격을 실시하였다. 07:14분에 여수 북항에 상륙한 제1부대는 북한군의 저항없이 동리, 북리 양고지를 점령하고 시내로 진격하였다.

한편 남해에 상륙한 제2대대는 여수에 상륙한 제1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의 경비인원을 남기고 약 5시간 후에 105정 제천호(提川號), LCM 등 3척으로 남해 선방리(船防里)를 떠나 여수남항에 상륙하여 제1대대와 합류하여 시가지를 완전히 탈환하였다.

상륙임무를 완료한 이후에 함정들은 항내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였고, 상륙부대는 순천으로 전진하고 여수반도 전지역에 함정과의 협동작전으로 돌산도(突山島), 금반도(金盤島), 안도(安島), 소리도(所里島), 축도(蓄島), 백야리(白也里) 등 인근도서의 북한군을 소탕하였다.

제1, 2대대는 다시 고흥반도에 상륙하여 반도 전지역을 소탕하고 반도인근의 나로도(羅老島), 소룡도(小龍島), 거금도(居金島), 금당도(金塘島), 평월도(平月島), 반월도(半月島), 초도(草島), 나도(那島), 고금도(古今島), 예지도(隸知島), 청산도(靑山島), 소리도(所里島), 보길도(甫吉島), 완도(莞島) 등 도서를 장악하였다. 10월 26일에는 남해 해안 중부일부의 치안을 완전히 확보하였다.

작전성과로는,

(1) 고성, 삼천포 소탕전(9월 24일～27일) : 북한군 사살 30명, 생포 1명

(2) 여수상륙전

- 진해육전 제1대대(9월 27일～10월 2일) : 소형 발동선 8척 나포
- 진해육전 제2대대(돌산도 소탕전 포함) (9월 27일～10월 2일) : 북한군 사살 5명, 생포 1명

(3) 고흥반도 소탕전(10월 5일～12일) : 북한군 사살 192명, 생포 42명, 자수 600명, 대형 범선격파 2척, 소형 범선격파 2척[8)]

2) 목포 상륙작전

(1) 참가부대 및 함정

구 분	병 력
아 군	703함(70명), 301정(35명), 504정(37명), 白南豹 中隊(200명)
적 군	공산군 300명, 保安署員 50명, 폭도 200명

(2) 작전경과

인천에 상륙한 부대의 일부 남하와 낙동강선을 돌파하여 북진하는 유엔군으로 조치원, 대전에서 연결되어, 10월 1일 현재, 서울-수원-평택-조치원-대전-김천-대구를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북한군은 북동과 남서방면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호남지역에는 북한군 5개 사단이 있었고, 북동지구에는 북진 도주를 시도하는 북한군 8개 사단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약탈방화를 감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해군은 서해지구에 보급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수지구에 출동 중인 진해방위대 제1대대(3개 중대) 중에서 1개 중대(白南豹 소령 지휘)를 10월 2일 미명에 함정과 함께 목포에 상륙작전을 실시하였고, 잔여 2개 중대를 여수지구에 잔류시켜 동지구 북한군 소탕을 실시하였다.[9)]

10월 1일 진해통제부작명 제212호에 따라 백중대는 수송선 FS 제천호에 병력 및 무등산호에 보급물을 탑재하고, 53호정과 63호정에 탄약 및 병기를 싣고 703함, 301정, 504정 호송하에 10월 1일 04:55분에 여수를 출항하였다.

703함은 먼저 15:40분 목포 입구 남방 249고지의 북한군 포대에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504, 301, 제천호, 53호, 63호 등은 15:30분 진도수로를 항해할 때 북한군의 사격을 받게 되어 육상의 북한군과 교전하면서 통과하였으나, 504정이 화원반도(花源半島) 해상(16:13분, 북위 34도 41분 08초, 동경 126도 15분 30초)에서 북한군이 부설한 기뢰 3개와 접촉하여 큰 손상을 받았다.

목포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703함은 504정의 조난 즉시 각 함정과 협력하여 승조원 전원을 구조하고, 63호, 무등산호에게 임시로 소해기구를 장치하여 소해작업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수송선단을 시하도(時下島) 부근에 정박 대기시켰다.

10월 2일 15:00시까지 아래 항로에 대해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가) 북위 34도 45분 54초, 동경 126도 18분
(나) 북위 34도 45분 22초, 동경 126도 18분 45초
(다) 북위 34도 45분 15초, 동경 126도 19분 21초
(라) 북위 34도 46분 12초, 동경 126도 19분 56초
(마) 북위 34도 46분 42초, 동경 126도 20분 34초
(바) 북위 34도 47분 18초, 동경 126도 21분 03초
(사) 북위 34도 47분 06초, 동경 126도 21분 40초
(아) 북위 34도 46분 30초, 동경 126도 22분 03초
(자) 북위 34도 46분 18초, 동경 126도 22분 37초
(차) 북위 34도 46분 17초, 동경 126도 23분 06초
(카) 북위 34도 46분 32초, 동경 126도 23분 09초[10)]

이렇게 해로를 확보한 함정들은 정박 중에 있던 수송선을 항해시켜 703함, 301정, 제천호의 순서로 행동을 개시하였다. 소해작전 중에 703함은 2개 분대를 달리도(達里島)에 상륙시켜 목포만까지는 적정이 없다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10월 2일 15:00시까지 전진하여 북위 34도 46분, 동경 126도 20분 지점에서 함포로서 수색사격을 하였으나 북한군의 대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백부대(白部隊)는 15:50분 해군의 엄호사격을 받으며 목포에 상륙하였다.

북한군의 주력은 이미 도주하고 잔류 중인 약 2개 소대가 수산시험장 부근에서 저항하였으나 아군은 이를 격퇴하였으며, 북교정(北橋町)과 남교정(南橋町)에 집결한 북한군 약 1개 중대는 방화와 주민살해를 자행하면서 반격하여 왔으므로 교전하여 이를 격퇴하고 간무소(刊務所) 고지까지 진출하여 북한군과 교전한 후 수감된 주민들을 석방하였고, 상륙한지 2시간 05분후인 17:00시에 목포시를 완전히 탈환하고 주둔하였다.

아군은 함정승조원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본부를 설치하고 시내 치안을 확보케 하고 백부대는 대성동(大成洞)까지 진출하여 진지를 구축, 방위하는 한편 광주로를 차단하여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북한군과 보안서원(保安署員)은 패주하며 각지에서 주민을 살해하고, 시내 5개 곳에 방화하였으며, 시내에 잔류하여 있던 패잔병은 산발적으로 출몰하였으나 10월 3일에는 이를 완전히 소탕하고, 치안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주변에서 패잔병의 준동이 심했기 때문에 경인지구 전투에 참가했던 해병대 제2대대가 10월 19일 이곳에 상륙하여 잔적을 소탕하였다.[11]

3) 작전결과

인천상륙작전 이후, 우리 해군은 함정과 육전대로 북한군을 소탕하면서 도서의 치안을 확보하고 이전의 해군기지를 수복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여수, 목포기지를 확보하고 육군의 반격작전에 따라 서해는 인천기지까지 그리고 동해안은 묵호기지까지를 수복하였다. 전쟁 이전의 해군기지가 정상화됨에 따라 해군함정이 수복된 기지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육군의 군수지원항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3. 북한 해역 진격작전

1) 작전경과

원산항과 진남포항은 북한의 동서해안에서 가장 항만시설이 잘 갖추어진 좋은 항구였다. 아군의 북진작전에 있어서 해군전진기지로서는 그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북한지역의 중심지로서 모든 조건이 구비된 곳이었다. 또한 두 개의 항구는 북한 해군의 기지로 사용된 곳이었다.

10월 9일 우리 해군은 처음으로 해본작명 갑 제202호로서 원산남방 약 91㎞ 지점에 위치한 장전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포항경비부 사령관인 남상휘(南相徽) 중령에게 장전 전진기지 사령관을 겸무케 하였다. 남 중령은 진해에서 해군 1개 중대를 출동시켜 FS 영등포호에 탑승시킨 다음, 704함과 510, 516정의 호송하에 14일 12:00시 장전항에 입항하여 기지를 설치한 후 항내 소해를 실시하고 장전부근의 항만경비에 임하였다.[12)]

한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탈환하게 되자 해군본부에서는 원산항으로 기지를 전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산항 일대에 많은 기뢰가 부설되어 소해작업이 없이는 전진이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전기지 사령관인 남상휘 중령은 장전기지에서 당분간 임무를 수행하였다. 원산항 일대의 기뢰소해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18일에 해군본부의 명에 의하여 장전의 기지요원을 FS 영등포호에 탑승시켜서 원산항으로 항해하여 무사히 입항하였다. 이로써 북한 해군의 동해안 중심기지였던 원산에 우리의 전진기지를 설치하였다.

원산기지는 시가지가 길고 항만이 크기 때문에 1개 중대 병력으로는 기지경비가 곤란하였으므로 해군본부에 증원부대를 요청하였다. 2개 중대 병력이 801함편으로 증원되어 원산기지의 경비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13)]

한편 동해안 일대에는 북한군이 부설한 기뢰가 많았다. 부산에서 포항까지는 아군의 경비가 철저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영일만 북방 6마일 해상과 월포 전방 2마일 해상에는 북한군이 부설한 수중부설 기뢰 20개가 발견되었다. 축

산근해 해안 일대에는 약 30개의 수중기뢰가 부설되었고, 주문진과 속초해안에 많은 기뢰가 부설되어 있었다.

또한 장전항 북방에서는 3개의 기뢰가 발견되었고, 원산항 일대에는 약 1,000개의 기뢰가 부설되어 있어서 동해안을 항해하는 함정들은 최소한 해안에서 10마일 밖을 항해하여야 하고, 항해 중 기항은 포항, 묵호와 고저 뿐으로서 그 이북으로의 항해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부산을 출항하여 원산외항까지는 해안에서 정횡으로 12마일 이상으로 항해해야 하였다. 또한 10월 30일 이후부터 원산항에 입항하려는 함정들은 원산외항 39-18-36N, 128-03-24E 해점에 있는 미 함정의 수로지시를 받아야만 원산항에 입항할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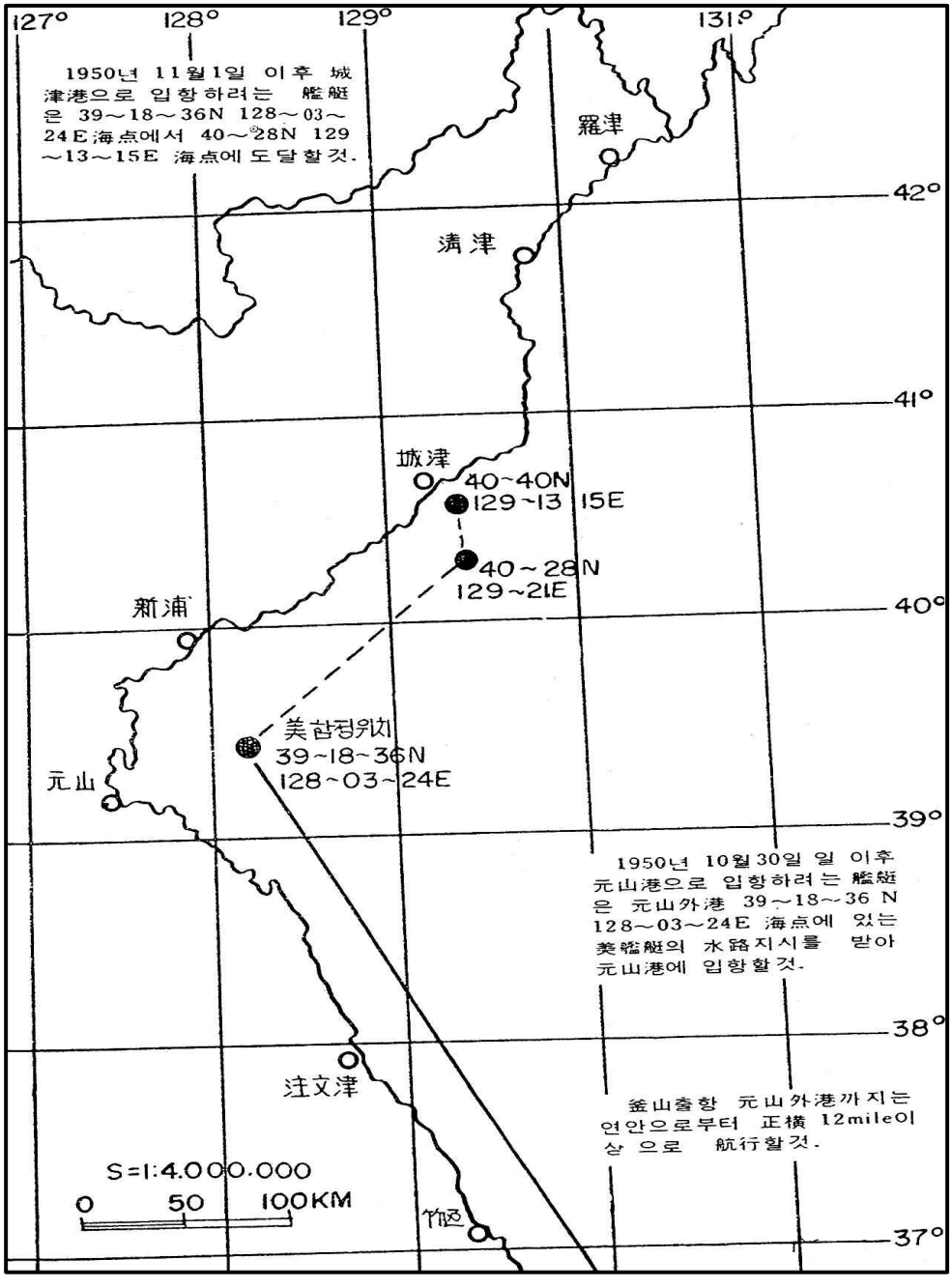
또한 11월 1일 이후 원산항으로부터 성진항에 입항하려는 모든 함정은 39-18-36N, 128-03-24E 해점에서 40-28N, 129-21E 해점을 통과하여 40-40N, 129-13-15N 해점에 도착해야만 되었다.

그리고 11월 29일 미 극동함대사령관 대리로부터 한국 해군 작전참모에게 전달된 선박운행지시사항을 보면 부산에서 원산으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북한군이 부설한 기뢰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로를 이용하여야만 그 운항이 가능하였다.

34-56N 129-29E 35-50N 130-00E
37-12N 130-00E 39-19N 128-28E

모든 함정은 원산항만 선박지휘소가 있는 39-18.6N, 128-03.4E 해점을 향해서 항해하면서 미 선박정박지휘소로부터 원산 입항을 위한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 선박정박지휘소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39-18.6N, 128-03.4E 해점에서 더 이상 진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리고 원산을 출항할 때에는 입항시의 반대항로를 취하면서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상황도 7-1> 동해안 원산-성진 진격 항로



또한 부산으로부터 함흥으로 항해하는 각 선박은 기뢰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로가 해군본부로부터 시달되었다.

34-56N 129-20E
35-50N 130-00E
37-12N 130-00E

전술한 지점으로부터 각 선박은 함흥항만 선박정박지휘소가 있는 39-36N, 128-16E 해점을 향해서 항해하여야 한다. 선박들은 선박정박지휘소로부터 흥남입항을 위하여 모든 지시를 받아야 되고, 만일 지시를 받음이 없이 39-36N, 128-16E 해점에서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되었다.

흥남을 출항할 때에는 입항시의 반대항로로 항해하여 36-36N, 126-16E 해점에서 지정된 다음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성진항으로 항해하는 각 선박들은 다음 사항의 지시에 따라서 항해하여야만 되었다.

(1) 우선 40-28-24N, 129-23-12E 해점을 향해 항해하면서 접근할 것.
(2) 제2부표를 향해서 330°의 항로상을 0.5마일 항해할 것.
(3) 제3부표를 향해서 330°의 항로상을 0.84마일 항해할 것.
(4) 제4부표를 향해서 330°의 항로상을 0.92마일 항해할 것.
(5) 제5부표를 향해서 326°의 항로상을 1.1마일 항해할 것.
(6) 제6부표를 향해서 329°의 항로상을 1.32마일 항해할 것.
(7) 제7부표를 향해서 324°의 항로상을 1.03마일 항해할 것.
(8) 제8부표를 향해서 332°의 항로상을 1.14마일 항해할 것.
(9) 제8부표로부터 성진항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지시되어 있으며 부표의 상부는 번호가 기입되고 둥글한 모양의 형태였다. 이러한 지시사항을 지키면서 성진항으로 입항하는 각 선박들은 부표

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그 중 어떤 부표가 없거나 원래 위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군 작전본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서해안 방면에서는 38선을 돌파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커다란 저항없이 북한의 수도였던 평양을 10월 19일 탈환한 다음, 주력은 북진을 계속하고 그의 일부는 진남포를 수복하게 되었다.

당시 동해안에 전진기지를 설치하였던 한국 해군에서는 11월 4일 진해로부터 우선 30명의 병력을 육로로 진남포항으로 보냈다. 북한군이 후퇴하여 비어있는 항만과 부근에 대한 해상감시를 실시하였다. 11월 17일 FS 원주호를 진남포 전진기지에 배치하여 가일층 기지 주둔대를 보강하였다. 해군 전진기지 설치에 따라 북한으로 진격한 유엔 해군 및 한국군의 보급 수송임무를 수행하여 동시에 해군지역의 확보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로써 진남포기지는 서해안의 유일한 전진기지로서 지상군의 해상보급기지가 되었다.

지금까지 해상에서도 한국 해군에 대한 북상이 저지되어 왔으나, 지상군의 북진에 따라 이것은 자연히 해소되었다. 서해안에서는 10월 20일부터 진남포항으로 항해하려는 모든 함정들은 군산근해까지는 임의로 항로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산근해부터는 37-00N, 124-00E A해점에서 38-42N, 124-15E B해점을 통과하여 38-42N, 124-42E C해점으로 항해하여야만 되었다.

이 해점에서는 미 함정 포레스트 로얄(Forrest Royal, DD 872)호의 항로지시를 받아서 해상소해가 완료된 수로간격이 약 500m가 되는 수로를 통과하여 출입항을 해야 했다. 특히 A해점에서 B해점 간을 항해할 때에는 절대로 항로를 동쪽으로 항해하여서는 안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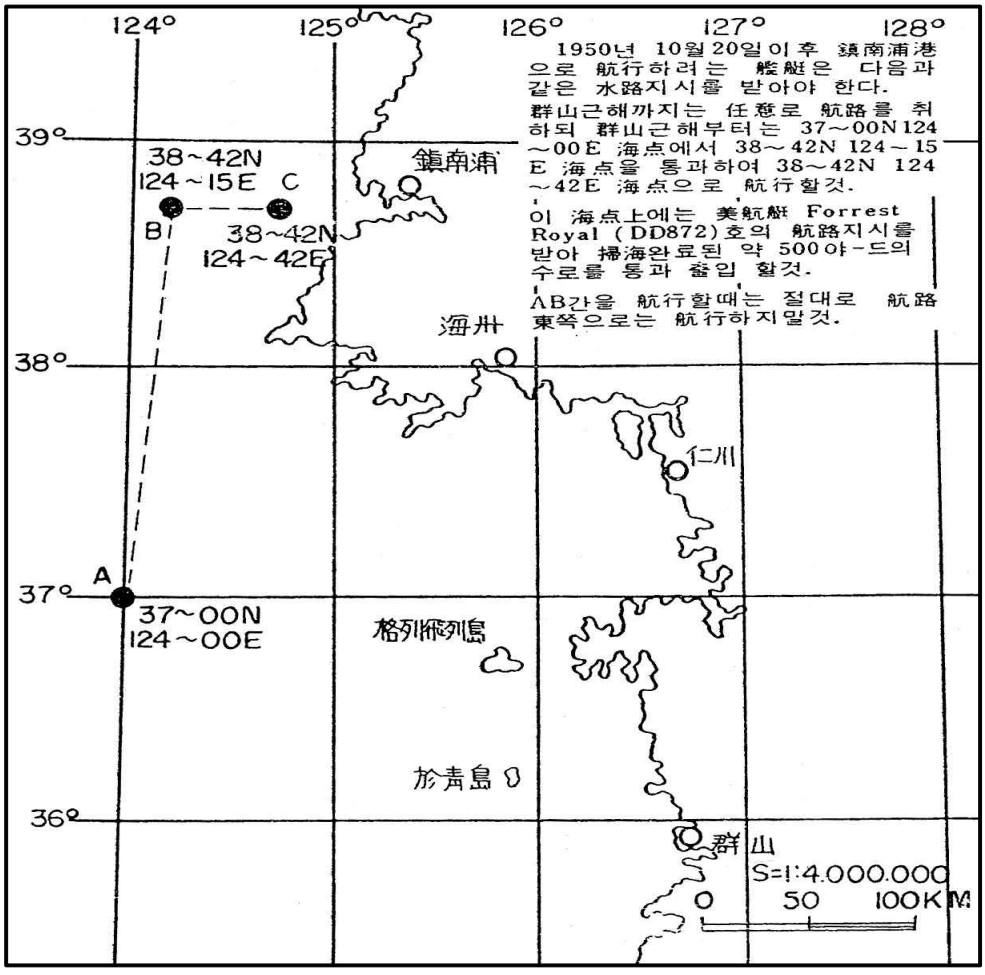
그동안 서해안의 진남포로 진출한 한국 해군에서는 11월 22일 06:00시를 기해서 진남포를 출입하는 모든 함정에게 북한군이 부설한 기뢰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고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즉, 항로의 기점과 목표해점을 담배의 병칭을 사용하였다. 최초의 항만입구지시선의 위치는 38-07N1, 24-15E해점에 있으며, 이곳을 럭키(Lucky)라고 칭하고 출입하는 함정들에 대한 항로지시를 위하여 항만입구 지시선이 있었다.

이 럭키(Lucky) 해점에서 침로 83°로 항해하여 거리 22마일 해점인 38-09-51N, 124-42-22E에 도달하면 이곳을 카멜(Camel)이라고 칭하였다. 이 해점에서 침로 26°로 항해하면 24마일 해점인 38-30-18N, 124-56-06E 해점에 도달하게 되며 이곳을 체스터(Chester)라고 칭하였다.

이 체스터(Chester) 해점에서 침로 357°로 항해하면 58마일 해점인 36-36-01N, 124-55-07E 해점에 도달하게 되며 이곳을 오울드 골드(Old Gold)라고 칭하였다.

<상황도 7-2> 서해안(진남포) 진격 항로



진남포 하구를 통과, 항해하려는 함정들에게 안내할 항로지시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을 안내하였다.

또한 등화항로표식을 위하여 제1부표는 카멜(Camel) 해점에 있고 0.75초마다 백광신호를 보냈다. 제2부표는 38-20-07N, 124-49-11E 해점에 있으며, 매 6초마다 백광신호를 발했다. 제3부표는 38-25-16N, 124-52-32E 해점에서 매6.9초마다 백광신호를 발했다. 제4부표는 체스터(Chester) 해점에 있으면서 매12초마다 백광신호를 발하면서 함정들에게 안전항해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최초 항만입구의 지시선이 위치하는 럭키(Lucky)로부터 카멜-체스터-오울드 골드(Camel-Chester-old gold) 해점을 연결하는 항로와 부표수로간의 서측 500야드는 소해가 완료되어 있었다. 서해 37° 30분으로부터 북쪽 럭키(Lucky) 해점까지 항해는 반드시 124-15E 서방으로 항해해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동해안과 서해안의 북한해역진격에는 북한군 함정보다도 북한 해군이 부설한 기뢰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극히 조심스러운 항로를 취하여야만 되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유엔 해군과의 긴밀한 작전협의 하에 북진하는 지상부대에 대한 보급 및 병력수송과 주요병참기지 확보 및 해상경비의 주요항구에 해군전진기지를 설치하여 북한수복에 대한 작전임무의 일부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2) 작전결과

육군의 북진 이후 한국 해군과 유엔 해군은 북한의 주요 항구인 원산, 흥남, 성진, 해주 및 진남포에서 소해작전을 전개하여 이들 항구를 지상군의 진격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지원항으로 개방하였다.

특히 원산항과 진남포항은 북한에서 가장 항만시설이 양호한 항구로서 북진작전에 있어서 해군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 두 개의 항구는 북한해군의 기지로 사용된 곳이었다.

동해안 일대에 부설된 다량의 기뢰로 인하여 해군에서는 항로대를 설정하여 해안에서 10마일 이탈하여 항해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미 함정의 수로지시에 따라 원산항의 입항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항구입항 시에는 경위도를 이용한 좌표

로써 항로를 지정하여 함정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또한 서해안의 진남포에 입항할 때도 함정의 안전을 고려하여 군산근해까지는 항해가 자유로웠으나, 군산부터 항로대로 설정하여 항로지시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기뢰로부터 함정을 보호하고 특히 원산항과 진남포항에 입항하는 군수지원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 3 절 유엔해군 작전

1. 인천상륙작전

1) 참가부대 및 함정

구 분	부 대 장
제7합동상륙기동부대사령관	미 해군 중장 Arthur D. Struble
제90공격부대사령관	미 해군 소장 James H. Doyle
제91봉쇄 및 엄호부대사령관	영 해군 소장 William G. Andrew
제92제10군단장	미 육군 소장 Edward M. Almond
제99초계 및 정찰부대사령관	미 해군 소장 Geroge R. Henderson
제77고속항모부대사령관	미 해군 소장 Edward C. Ewen
제79군수지원부대사령관	미 해군 대령 Bernard L. Austin

2) 상륙작전지역 선택

1950년 여름동안, 유엔 해군력의 압도적인 우세와 해상교통로의 확보로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서도 상륙작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해안은 바위가 많은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평한 지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망과 철도망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한 잠정적인 상륙작전 대상지역은 북에서부터 평양, 인천, 군산 등이었다. 평양은 병참선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남쪽에서 볼 때 군산은 가장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최상의 위치에 있었다. 맥아더 더글라스(MacArthur, Douglas)는 군산을 선택한다면 낙동강선 방어선과 너무 가까이 있어 병참선 차단을 실시하는데 비효과적인 지역이라고 말했다. “상륙작

전은 우리가 보유한 작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상륙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군 지역내로 강하고 종심깊게 타격해야 한다"[14]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남쪽에 있는 워커 장군의 제8군이 망치라면, 인천은 북한군을 궤멸시키는 모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15]

그리고 인천은 서울과 제일 가까운 상륙지역으로 한강까지는 40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김포공항은 25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의 90퍼센트가 낙동강전선에 주둔하고 있으며, 공산군은 아군이 인천에 상륙한다는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1950년 6월 29일, 맥아더 장군이 수원에서 한국전선을 시찰할 때 6·25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구상하였다. 한국군이 한강을 도하하면서 후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만약 공산군이 지속적으로 남하한다면 그들의 보급선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인천과 같은 후방지역에 종심깊은 상륙을 실시한다면 북한군은 2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며, 보급선 차단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인천은 서울로 통하는 중요한 도로와 철도망의 허브이므로 인천점령으로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상륙으로 서울을 점령한다면, 낙동강전선에 집중된 북한군의 보급은 점차 감소하게 되므로 북한군의 전쟁지속능력은 약화될 것이다. 맥아더 장군의 상륙작전계획은 개념적으로는 초보적이었으나, 매우 대담한 계획이었다.

3) 인천상륙작전 준비

인천해안은 수로적·지리적으로 상륙작전 수행에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전에 인천수로에 대한 정보파악은 상륙작전 성공에 매우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

클라크(Eugene Clark) 해군대위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 극동군사령부 참모로 임명되었다. 과거 중국에서의 그의 경력은 해군정보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군에서 특별히 차출되어 5명으로 구성된 클라크 대위팀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영흥도에 상륙하여 인천지역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극동군사령부

로 전송하였다.[16] 클라크 대위는 지난 8년 동안 4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동양에 근무하여 오랫동안 동양생활에서 동양인들에 대한 생리와 사고방식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일본어와 중국어도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장교였다.

인천상륙작전 시에 클라크 대위의 큰 공적 중의 하나는 인천수로에 위치한 팔미도의 등대를 밝혔던 것이다. 그가 팔미도 등대 현장에 도착해 보니 대부분이 제대로 돼있는데 등대의 연료탱크와 램프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 중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드레인 노즐(drain nozzle)이 없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전지가 소진되어 전등이 없는 상태에서 몇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주위를 손으로 더듬어 그 부품을 찾아냈다.[17]

극동군사령부에서는 9월 14일 자정에 등대를 밝히라고 지시하였고, 클라크 대위는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래서 인천상륙작전 참가 함정들은 1950년 9월 15일 오전에 매우 신속하게 그리고 용이하게 인천 협수로를 항해할 수 있었다.[18]

1950년 8월 23일 도쿄에서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장군과 해군 참모총장 셔먼[19](Forrest P. Sherman) 제독의 마지막 브리핑 이후에 합동참모본부와 대통령의 승인을 제외하고는 인천상륙작전에 동의하였다. 결국 9월 9일 인천상륙작전계획이 승인되어 시달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1) 주력부대 상륙 이전에 월미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월미도에 최초 상륙이 감행될 것이다. 이 조치는 인천 해안에 대한 월미도의 지배적 위치 때문에 필수적이다. D일 L시에 해병 1개 대대가 월미도에 상륙돌격을 실시하여 후속부대 상륙 이전에 월미도를 점령한다. L시는 아침 만조 시각인 06:30분경이 될 것이다.

(2) 월미도 상륙 이후 주력부대의 상륙은 제1해병사단에 의하여 인천의 적색, 청색 및 녹색 해안에 대하여 감행될 것이다. 주력부대의 상륙을 위한 H시는 오후 만조시각인 17:00시경이 될 것이다. 그 후 해병사단은 인천 지역의 해안두보(Beach Head)를 확보한다.

(3) 해안두보는 서울 서쪽의 김포비행장과 한강변을 점령하기 위하여 신속히 확장되어야 한다. 전진을 계속하여 서울을 점령 확보하고, 서울을 지배하는 여러 지형들과 남쪽에 이르는 지역을 확보한다. 증강된 제7보병사단과 제10군단 병력은 D일 이후 지정된 시각에 제2 및 제3제대로서 행정상륙을 실시하며, 제10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전투작전을 수행한다.

(4) 이 작전에 관련된 제반 포격과 화력지원은 순양함과 구축함이 제공한다. 항공엄호, 항공강습 및 근접항공지원은 목표해역의 고속 항공모함과 호위 항공모함에서 제공한다.

스트러블(A. D. Struble) 해군중장
합동상륙기동부대사령관 겸 제7함대사령관[20]

이 계획은 월미도 무력화, 인천 상륙, 김포 주요비행장 확보 및 서울을 탈환하는 기본적인 계획이었다. 작전개념이 24시간 연속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상륙기동부대와 상륙군에 대한 세부내용이 결정되었다.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는 주요 세력은 다음과 같다.

(A) 공격부대 : 미 해군 소장 James H. Doyle
(B) 상륙군 부대 : 제10군단, 미 육군 소장 Edward M. Almond
(C) 초계 및 정찰부대 : 미 해군 소장 Geroge R. Henderson
(D) 봉쇄 및 엄호부대 : 영 해군 소장 William G. Andrew
(E) 고속 항모부대 : 미 해군 소장 E. C. Ewen
(F) 군수지원부대 : 미 해군 대령 Bernard L. Austin
(G) 선견부대 : 미 해군 소장 J .M. Higgins
(H) 기함단 : 미 해군 대령 E. L. Woodyard

이 세력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7함대 기함을 포함한 선견부대(The Advance Group)는 9월 13일에 인천지역에 대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이 목적은 월미도와 인천 인근 지역 상륙에 방해

가 되는 북한군의 화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구축함 6척이 월미도를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하여 닻을 내리고 함포로써 월미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동일한 시간에 미 해군 순양함 2척과 영국 해군 순양함 2척이 원거리에서 인천지역의 주요 거점을 함포로 공격하여 적을 약화시킬 것이다. 항공모함들은 순양함과 구축함의 화력과 협조하여 항공기로 폭격을 실시할 것이다. 이 무력화 공격은 9월 14일에 반복 실시할 것이다.

(B) 미 해군소장 도일제독 예하의 공격부대(The Attack Force)는 상륙돌격을 실시하고 돌격하는 상륙군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과 함포지원을 통제한다. 공격부대는 상륙군이 지상에 상륙을 완료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C) 상륙군 부대(The Landing Force, 제10군단)는 인천지역의 지정된 해안에 상륙하여 지상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스미스 장군(해병) 예하의 해병부대는 공격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다. 제7사단은 상륙전 경험이 없으므로 스미스 장군의 해병부대를 따라 해안에 행정상륙을 실시할 것이다.

(D) 헨더슨 제독 예하의 초계 및 정찰부대(The Patrol and Reconnaissance)는 원거리 정찰과 전 작전구역에 대한 항공 초계를 제공한다.

(E) 영국 해군의 앤드류우 제독 예하의 봉쇄 및 엄호부대(The Blockade and Covering Force)는 특수 정찰 임무와 목표지역으로 접근하는 공격세력을 엄호할 것이다.

(F) 고속 항모부대(The Fast Carrier Force)는 목표지역에 대한 항공권을 장악하고 그 지역을 고립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항모들은 항공 엄호와 상륙공격 작전을 지원할 것이다.

(G) 군수지원부대(The Logistic Support Force)는 목표지역에서 유류 및 탄약에 대한 재보급 임무를 수행한다.[21]

상륙군 2개 사단이 북한군 점령 하에 있는 지역을 상륙하기 때문에, 인천상륙은 대규모 병력에 대한 군수지원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상륙군을 수송하고, 보호하며 그리고 상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군수탑재와 인원지원이 필요하였다.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은 미 해군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었는데, 제7합동상륙기동부대의 총 세력은 다양한 유형과 크기의 함정들이 260여 척이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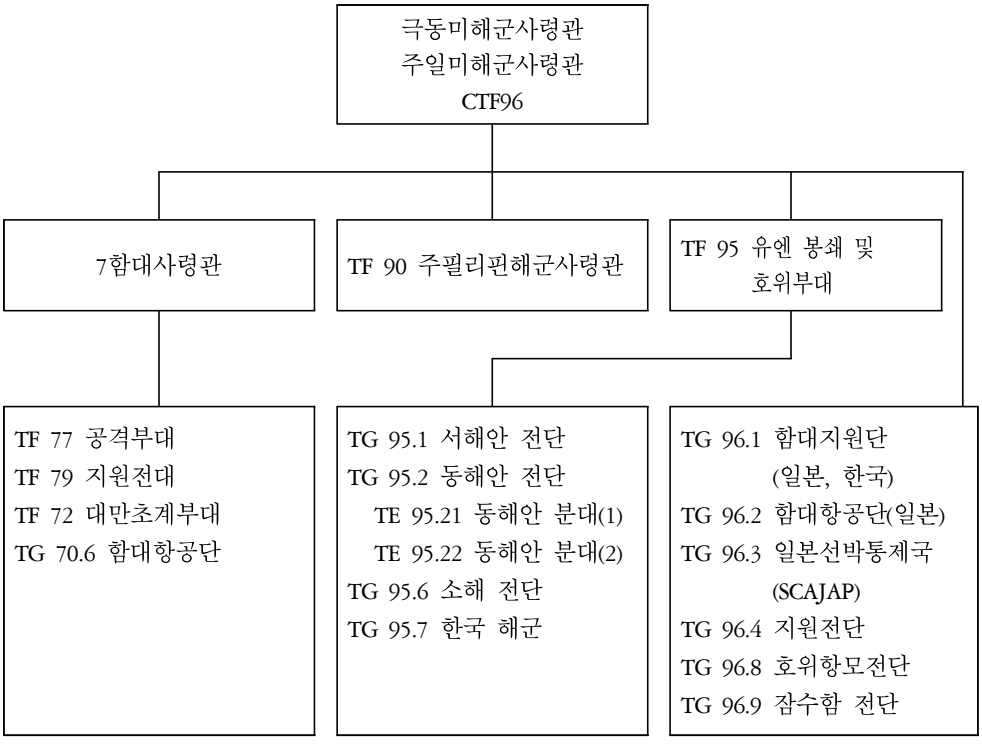
<표 7-2> 제7 합동상륙기동부대 세력현황[22]

부대명	세 력	부대장
Joint Task Force 7		해군 중장 A. D. Struble
Task Force 90 (공격 부대)	2 AGC, 1AH, 1AM, 6AMS, 3APD, 1ARL, 1ARS, 1ATF, 2CVE, 2CA, 3CL(1USN, 2RN), 1DE, 12DD, 5LSD, 3LSMR, 4ROKN PC, 1PCEC, 8PF(3USN, 2RN, 3RNZN, 1French), 7ROKN YMS, 47LST(30Scajap), 수송함, 화물선 등 약 180척	해군 소장 J. H. Doyle
Task Force 91 (봉쇄 및 엄호부대)	1CVL, 1CL, 8DD	영) 해군소장 W. G. Andrews
Task Force 92 (10군단)	1해병사단, 7보병사단, 여단급 부대	육군 소장 E. M. Almond
Task Force 99 (초계 및 정찰부대)	2AV, 1AVP, 5개 정찰 전대(3 : 미국, 2 : 영국)	해군 소장 G. R. Henderson
Task Force 77 (고속 항모부대)	3CV, 1CL, 14DD	해군 소장 E. C. Ewen
Task Force 79 (군수지원부대)	2AD, 1AE, 2AF, 1AK, 3AKA, 3AKL, 4AO, 1AOG, 1ARG, 1ARH, 1ARS, 1ATF	해군 대령 B. L. Austin

상륙 세력의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몇 척의 포함을 제외하고는, 인천상륙작전에 극동지역에서 가용한 모든 전투함이 참가하였다. 52척은 고속항모, 초계 및 정찰과 군수지원부대에 배속되었다. 잔여 함정들은 도일제독이 지휘하는 공격부대(TF90)에 배속되었다. 이 함정중에서, 120척 이상은 제10군단을 수송하는데 소요되었으며, 나머지 함정들은 함포지원사격과 공중지원, 경계진, 소해 그리고 근무지원업무에 동원되었다.

대부분의 해군 함정들이 인천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상륙세력의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몇 척의 화력지원함이 동원되었다. 9월 12일, 해군참모총장 셔먼제독의 제안에 따라서, 극동해군사령부에 예하에서 작전하는 다양한 기동부대(Task Group)들, 한국지원세력, 기동부대 96.5의 세력이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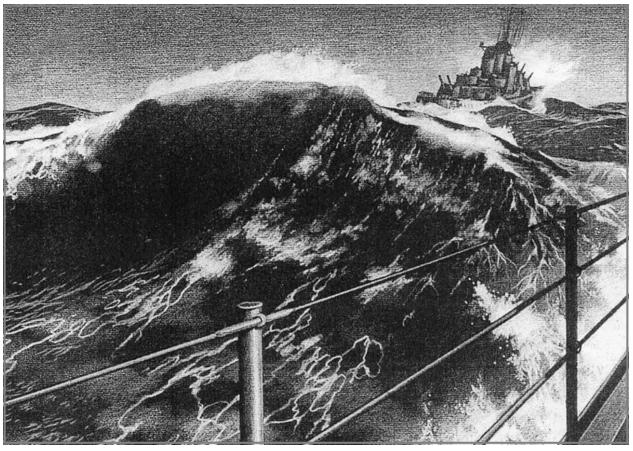
<표 7-3> 해군 작전편성(1950년 9월 12일 재편성)[23]



상륙기동부대가 일본에서 군수물자를 탑재하고 출항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스트러블 제독이 피하고 싶은 복병이 북위 20도의 태평양상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케지아(Kezia)라는 태풍이었다.

한반도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태풍이 내습하는데, 계속되는 태풍을 뚫으면서 상륙군과 장비를 적재한 수백 척의 함정들이 인천으로 안전하게 항해한다는 것은 지휘부의 매우 큰 고민이었다.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큰 인천에 상륙하기 위해 상륙일자를 9월 15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상륙일자를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북상하는 태풍이 다행히 진로를 바꾸던지 아니면(동해 또는 중국대륙) 상륙일자를 비껴가기를 하늘에 맡겨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케지아 태풍 속에서 항해하는 기동함대(1950. 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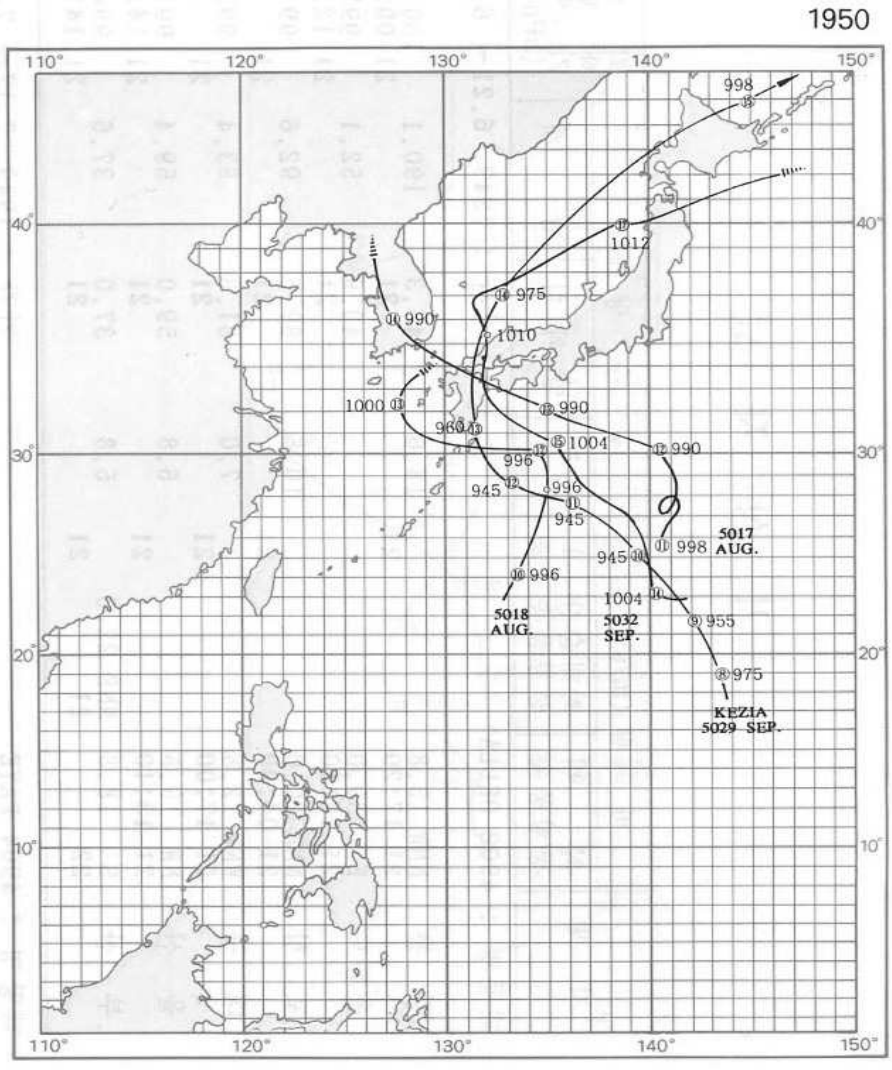
9월 12일, 태풍은 맥아더 지휘부가 출항한 사세보 남방 200마일에서 945헥타파스칼의 A급 태풍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어, 스트러블 제독은 고오베(神戶)항에서 예정보다 하루 전에 상륙부대를 승선시켰다. 9월 11일, 미 제1해병사단은 고오베(神戶)에서 미 제7보병사단은 요꼬하마(橫濱)에서 출항하였고, 미 제5해병연대는 부산에서 출항하였다.

공격부대사령관인 도일 제독은 "내가 경험했던 어떤 태풍보다도 가장 최악의 태풍이었다"고 회상하였으며, 사세보에서 지휘부를 탑재하기 위해 고오베(神戶)를 출항한 마운트 맥킨리함은 풍속 90노트와 강한 너울(swell), 그리고 파도와 싸워야만 하였다.

LST 1048함(제1해병연대 제2대대 승함)은 거친 항해로 인해 왼쪽(좌현) 엔진이 고장이 나서, 구조함인 컨저버함(ARS 39, TF 79 군수지원부대 소속함정)이 예인을 실시하여 6노트의 속력으로 집결지(포인트 캘리포니아, 덕적도 근해)에 도착하기도 하였다.[24]

케지아 태풍은 상륙기동부대가 출항한 1일 뒤인 9월 13일, 일본 큐우슈우 남단에 상륙(960헥타파스칼)하였고, 다행스럽게도 태풍은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빠르게 동해해상으로 비껴나갔다.

만약 케지아 태풍이 일본 큐우슈우 남단에 상륙하지 않고, 제주도 서쪽으로 진출하여 서해상으로 북상하였다면, 상륙기동부대의 피해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막대하였을 것이며, 인천상륙작전의 성공도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다.



태풍 경로도(1950. 9. 8~9. 15)

상륙지점으로 적합한 지역이 두 곳 있었는데, 인천시 서쪽 끝자락에 있는 "적색 해안"과 인천의 남서쪽에 위치한 "청색 해안"이었다. 적색 해안과 청색 해안 간의 거리는 약 6킬로미터로서 인천시를 두고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해안은 15피트의 안벽이 있어서, 상륙할 때 사다리가 필요하였다.

병마개의 코르크와 같이 인천입구에는 월미도가 있었다. 소월미도와 연결된 제방길(causeway)은 인천외항의 묘박지를 분할하고 있었다. 해발 105m로 북한군의 방어진지 능력이 미확인된 월미도는 상륙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곳이었다.

인천은 좁은 수로, 꼬불꼬불한 해협을 경유해야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며, 기뢰를 용이하게 부설할 수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함정이 입항하거나 출항을 할 때 해로중앙에 침몰된 선박으로 봉쇄한다면, 함대는 불가피하게 분할될 수밖에 없었다.[25]

앞에서 말했던 클라크 대위는 인천시와 월미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송했고, 소이탄으로 무장한 해병 항공기가 월미도 정상을 공격하여 전소시켰다. 300명 정도의 북한군이 참호와 동굴에서 은신하고 있었다. 9월 13일 07:00시에 히긴스 제독은 5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함포지원세력을 이끌고 인천항으로 항해하였으며, 기함은 맨스필드(USS Mansfield)함이었다. 그 뒤에는 순양함이 배치되었는데, 고속항모부대(TF 77) 세력들이 함정 상공에서 전투항공초계(CAS)를 하였다. 10:00시경 구축함들은 인천외항에 진입하였다.

수천발의 함포사격을 한 후에, 구축함들은 함수를 바다로 향하게 한 상태로 투묘를 하였다. 그리고 순양함들이 진입하였으며, 6인치와 8인치 함포로 17:00시까지 사격하였다.

9월 14일에도 월미도에 대한 함포사격이 전날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이날은 5척의 구축함이 인천수로에 진입하였는데, 수면상에 노출된 기뢰는 발견즉시 폭파시켰다. 구축함은 월미도 주위에 투묘한 후 12시 55분부터 75분 동안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5인치 포탄 약 1,700발을 발사하였다. 이날 적의 포대로부터 반격은 아주 미약하고 부정확하였는데, 이는 2일간의 포격으로 월미도가 완전히 제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26] 맥아더 장군은 마운트 맥킨리(USS Mount Mckinley)함상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매우 고무되었다. 월미도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의 3분의 1정도가 전사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제 월미도는 해병대의 상륙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축함들이 월미도 바로 앞에 투묘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한 것은 아주 대담한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4) 인천 돌격상륙

공격부대(TF 90)를 지휘하는 도일 제독은 5척의 순양함과 12척의 구축함에게 함포지원사격을 명령하였다. D-3일까지 상륙목표지역내에서 미 공군 항공기들은 작전하지 않았다. 공격부대(TF 90)의 세력은 영국, 뉴질랜드와 프랑스 해군을 포함하여 180척이었고, 그 세력에는 한국 해군의 소형 전투함과 소해함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47척의 LST(30척은 일본인으로 구성된 선박)는 상륙군 수송임무를 수행하였다. 게다가 20여 척의 보조함들이 동원되었고, 상륙목표지역 상공에는 초계와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항공기 다수가 비행하고 있었다.

9월 15일 3척의 APD와 1척의 LSD[27]로 구성된 선견공격부대는 지휘관인 시어즈(N. W. Sears) 대령의 지휘하에 인천을 향해 협수로로 들어갔다. 15일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에 아직도 불타고 있는 월미도의 연기와 팔미도 등대불을 보면서 인천을 향해 항해를 하였다. 등대불을 켜기 위해 팔미도에 있던 클라크 대위는 담요 속에서 추위에 떨며 어둠속에서 상륙함정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 함정들의 전방에는 구축함 3척이 있었고, 로켓함 3척과 순양함과 구축함 9척[28]이 뒤따르고 있었다.

05:45분, 함포지원함에서 월미도에 대하여 사격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15항모부대의 항공기(F4U 코샤르) 10대가 상륙목표해안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다. 06:15분(L-15분), 5인치 로켓탄 1,000발씩을 적재한 3척의 로켓함이 월미도 북쪽의 녹색해안으로 신속하게 항해하면서 사격을 실시하였다. 06:33분, 태플릿(R. D. Taplett) 중령의 5해병연대 3대대가 LCVP 17척과 LSU 3척으로 상륙하였다.

LCVP는 8척씩 2개 파로 나누어 병력을 수송하였고, 제3파는 LSU로 9대의 탱크를 탑재하였다. 제1파는 함정으로 복귀하여 제4파의 병력을 수송하였다. 월미도를 방어하고 있던 500여 명의 북한군은 3일간의 폭격으로 저항력을 상실하여 반격은 아주 미약하였다. 방어하고 있던 북한군(포병연대와 독립 해병연대)은 야간을 이용하여 이곳을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미 해병들은 월미도에 상륙 후 42분만에 국기를 월미도 정상에 올렸다. 몇 시간 동안 해병들은 방어하던 북한군을 동굴에서 찾아내어 소탕하였다. 미 해병들은 20명이 부상한 반면 북한군은

사망 120명, 포로 190명이었다. 그 후 해병들은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하는 2개 포병대대를 기다렸고, 포병들도 인천공격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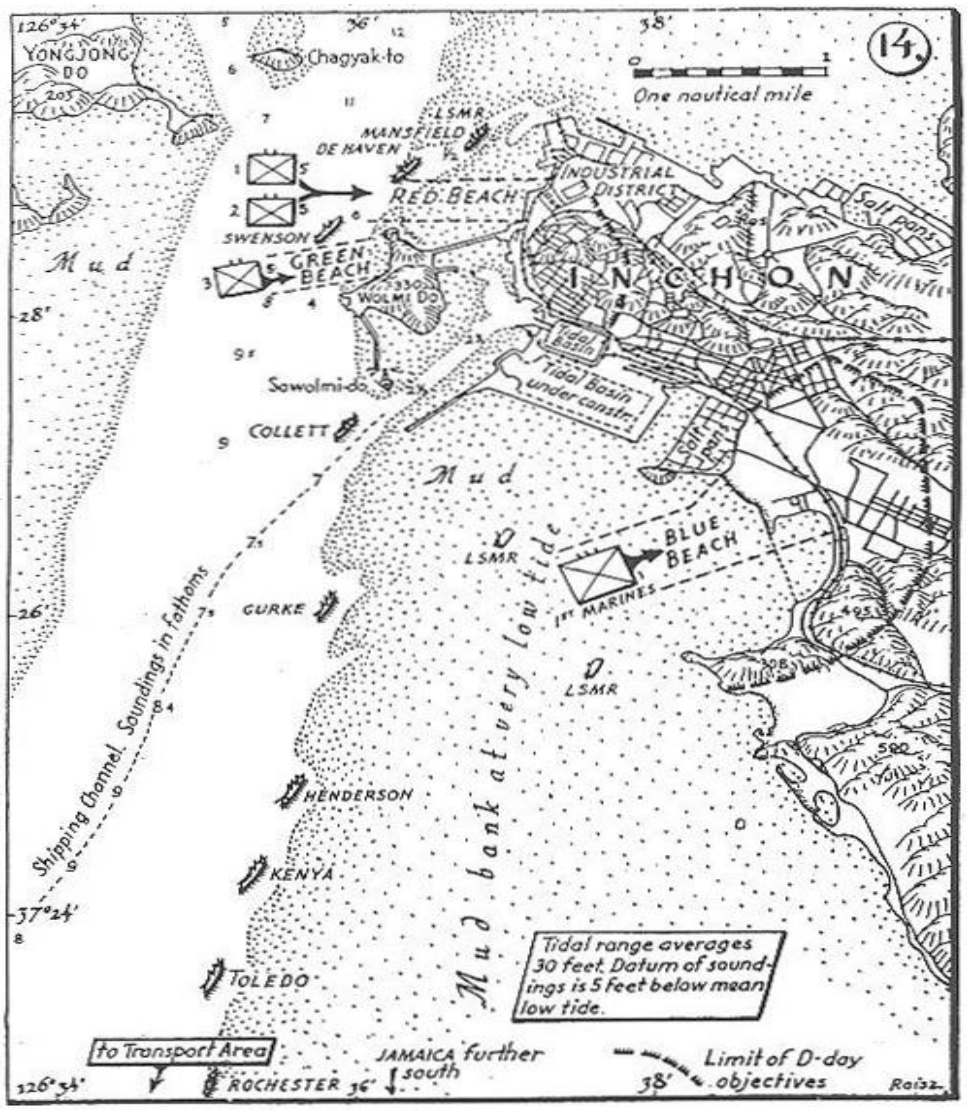
16:15분, 제77기동부대 항공기들이 해안에 대하여 공중공격을 시작하였다. 17:00시부터 함포지원함들이 포격을 시작하였고, 500여 척의 상륙주정들이 인천항으로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제1연대전투단를 탑재한 LVT들은 청색해안을 향해 출발하였고, 보다 속력이 빠른 LCVP들은 제5연대전투단을 탑재하고 월미도를 지나 적색해안의 주정로를 향해 북쪽으로 항진하였다. 2개 포병대대를 탑재한 수륙양용화물 트럭(DUKW)들은 월미도쪽으로 이동하였다. H-25분 로켓트함 3척은 포격을 재실시하였는데, 2,000발을 적재한 LSMR-403함은 적색해안을, 다른 2척은 청색해안을 포격하였다. 17:25분 예정대로 함포사격이 중지되자 항공기들은 기총소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륙주정들은 해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29]

인천상륙작전에서 주력부대의 상륙돌격은 9월 15일 17:30분에 시작되었다. 적색해안의 상륙은 LVT 및 LCVP 23개 파와 8척의 LST로 실시되었다. 17:33분에 제5해병연대의 제1파가 상륙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안벽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상륙을 실시하였다. 제5해병연대가 상륙하는 동안 월미도의 제3대대가 기관총과 박격포 등으로 상륙을 엄호하였다. 18:30분에 5분 간격으로 LST 8척이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접안하였다.

한편 청색해안의 상륙은 제1해병연대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LVT 15개파와 LCVP 6개파로서 상륙하였다. 제1파는 17:32분에 상륙하여 별다른 저항이 없는 가운데 진격하였다. 그러나 부대의 일부는 안개와 포연으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했던 관계로 상륙지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상륙할 때 혼란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집결지로 이동하는데 성공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은 서울로부터 약 40킬로미터 그리고 낙동강전선에서 약 290킬로미터 떨어진 인천에 성공적으로 상륙하였다. 9월 16일 미 제8군은 낙동강전선에서 반격작전을 시작했으며, 9월 17일에는 제5해병연대가 김포비행장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은 탈환되었고, 유엔군은 38도선 이북까지 북한군을 추격할 수 있었다.[30]

<상황도 7-3> 인천 상륙돌격(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p. 196)



인천 상륙돌격은 그동안 미 해병대가 수행했던 수많은 상륙작전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미 해병대는 창고, 건물 및 기타 많은 엄폐물이 있는 대도시에서 상륙돌격을 감행한 예가 이전에는 없었다.

또한 안벽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상륙한 사례도 없었다. 둘째, 상륙시기를 조석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나 일몰 직전에 상륙을 하게 되어 상륙한 해병들이 밤을 보내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셋째, 상륙돌격하는 해병대가 바로 상륙한 직후에 LST는 접안해야만 했다. 조수 관계로 일몰 직전에 상륙하였기 때문에 그날 밤과 그 다음 만조 때까지, 즉 재보급이 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인 군수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급품을 해병대 상륙과 동시에 해안에 양륙시켜야만 했다. 따라서 간조가 되면 개펄에 얹히게 되는 8척의 LST는 북한군의 포탄에 무력하리 만큼 취약했으며, 가연성 화물이 적재되어 피격 시에는 폭발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었다.

1950년 9월 15일 제7합동상륙기동부대에 의한 인천상륙작전은 단 며칠 동안의 작전으로 6·25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변환시켜 놓았다. 북한군은 낙동강전선에서 승리하여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직전에 완전히 붕괴되었다. 북한군에 대항하여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변환시킨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은 지상작전에만 관심이 있던 많은 군사 지휘관들에게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갖게 하였다.

5) 작전결과

맥아더 장군은 교착상태인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게 되는데, 최초 미 합참 및 지휘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륙작전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인천은 수도서울과 불과 4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항구로서 서울로 통하는 중요한 철도망과 도로망이 있으며, 인천과 같은 후방지역에 종심깊은 상륙작전이 성공한다면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장점이 있었다.

북한군의 대부분이 낙동강전선에 투입되고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후방, 특히 인천과 같은 지역에 대한 해안방어가 취약한 반면, 유엔군은 전쟁초기부터 해양우세권을 장악하고 있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군대위 클라크 첩보팀의 활약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는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영흥도에 상륙하여 인천지역에 대한 정보를 맥아더 극동군

사령부에 전송하였다. 또한 9월 15일 00시에 인천항만 입구에 있는 팔미도 등대를 성공적으로 밝혀서 상륙작전 참가 함정들이 용이하게 인천협수로를 항해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1950년 9월 9일 인천상륙작전 계획이 승인되어 합동상륙기동부대사령관은 해군중장 스트러블 제독이 임명되어 260여 척의 함정들이 배속되었고, 제10군단장은 육군소장 알몬드 장군이 임명되어 7만여 명이 편성되었다.

드디어 9월 15일 미 제1해병사단 5연대 3대대가 녹색해안에 상륙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제7사단 병력이 행정상륙을 실시함으로써 6·25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다.

낙동강전선의 북한군은 육상, 해상으로부터의 보급선이 차단되고 전후방에서 협공을 당하여 이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상륙군은 인천시내를 완전히 소탕한 후, 서울을 탈환하고 낙동강전선에 있는 부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였다.

2. 원산 상륙작전[31]

1) 참가부대 및 함정

구 분	부 대 장
제7합동상륙기동부대사령관	해군 중장 Arthur D. Struble
제90공격부대사령관	해군 소장 James H. Doyle
제92제10군단장	육군 소장 Edward M. Almond
제95선견부대사령관	해군 소장 Allan E. Smith
제96.2 초계 및 정찰 전단장	해군 소장 George R. Henderson
제96.8 호위 항모전단장	해군 소장 Richard W. Ruble
제77고속항모사령관	해군 소장 Edward C. Ewen
제79군수지원부대사령관	해군 대령 Bernard L. Austin
제95.6소해전대장	해군 대령 Richard T. Spofford[32]

2) 작전계획 수립 배경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아군의 총반격이 시작되어 북한군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유엔군은 패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여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였고, 9월 말까지 38도선 이남을 확보하였으며, 북진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9월 29일, 맥아더 장군이 예하 지휘관들에게 상륙개념을 설명할 때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으나, 서울수복 기념식이 끝난 후 중앙청에서 기념식에 참석했던 조이 제독, 워커 장군,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 알몬드 장군 등 극동군의 주요 지휘관들에게 또 하나의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33]

미 제8군은 주공을 담당 개성에서 사리원, 평양으로 이어지는 서부축선을 따라 북상한다. 미 제8군의 진격은 10월 중순경에 개시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안으로 미 제10군단이 동해안의 원산에 상륙한다. 미 제10군단은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 원산, 평양 축선을 따라 다시 서쪽으로 나아가 미 제8군과 연결, 북으로 달아나는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포위한다. 양부대는 서로 연결을 맺은 다음 나란히 북진한다.[34]

탑재를 신속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미 해병대는 인천에서 탑재하고 인천항 시설의 제한을 고려하여 미 제7사단은 부산에서 탑재한다고 설명하였다.[35]

맥아더가 원산상륙작전을 구상한 배경에는 첫째, 제8군의 보급로는 이미 전선에서의 1일 최소 소요량을 소화하는 데에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다른 보급로 확보가 필요했고, 둘째, 바다를 통한 미 제10군단의 신속한 상륙을 통하여 남에서 북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을 차단한 후에 북한군의 수도인 평양을 포위공격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해안에서 원산항을 선택한 이유는 원산해안은 해상에서 보면 가파른 산악이 산재하는 듯이 보이나, 도시 동쪽에는 해안평야가 있으며 이는 상륙거점으로 이용하기에 충분한 지역이었다. 항만시설 또한 항공폭격에도 피해를 입지 않아 원산 도크는 사용가능한 상태이었고, 흘수가 4패덤(7.32m) 이상의 함정이 접안할 수 있는 창고, 철도, 크레인 등이 설치된 900피트(약 274m)나 되는 부두가 있었다.

또한 원산은 동해안, 서울, 평양 등과 연결되는 철도 및 도로의 중심지였으며 갈마반도의 아래쪽에는 원래 일본 해군 항공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된 비행장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원산의 시설물들은 어느 군사계획의 입안자라도 탐낼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36]

미 해군은 처음에는 원산상륙작전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 미 해군의 조이 제독과 제7합동상륙기동부대사령관 스트러블 제독은 추가적인 군수지원항으로 원산항 점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원산상륙작전을 위한 해군의 계획은 인천상륙작전 계획의 복사판에 가까운 것이었다. 스트러블 제독은 10월 5일에 예비계획을 시달했고, 10월 9일에 최종계획을 시달했다.[37]

알몬드 장군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맥아더 장군과 회의 이후 즉시 계획수립에 착수했는데, 맥아더 장군이 언급한 목표일 보다 5일 앞서서 10월 15일에 원산상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38]

10월 4일에 알몬드 장군은 제10군단 작전명령 4호를 발표하였다. 해병은 원산에서 미 제10군단 작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원산활주로를 점령하고 해안지원부대와 교대할 때까지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미 제1해병사단의 교대는 10월 5일 시작되어 7일에 완료되었고, 탑재는 8일부터 인천에서 시작되었다. 상륙군의 탑재지연으로 알몬드 장군이 정한 10월 15일 원산상륙작전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D일은 기존 계획대로 10월 20일로 조정되었다.

스트러블 제독은 10월 5일에 최초 계획을 시달하였고, 10월 9일 최종계획을 발표하였다. 스트러블 제독이 예하부대들에게 부여한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① 동해안의 효과적인 봉쇄 유지
② 원산에 상륙하는 부대와 동해안에서 작전하는 육군에 대한 함포 및 항공 지원
③ 목표일까지 폭격 수행
④ 제10군단 탑재 및 원산 수송

⑤ 상륙돌격에 의한 원산 확보
⑥ 교두보 확보 및 방어 그리고 이상의 모든 임무 완수
⑦ 제10군단에 대한 함포, 항공지원 및 군수지원 제공

원산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제7합동상륙기동부대의 기동편성은 <표 7-4>와 같았다.

그러나 북한의 동해안 방어체계가 무너지고 한국 육군의 북한 진격이 가속화됨에 따라 상륙작전 보다 육로를 통한 원산항 공격이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느냐는 문제가 10월 초부터 제기되었다. 한국군이 동해안을 따라 빠른 속도로 북으로 진격[39]함에 따라 실무진에서 육상과 해상 중 어떤 곳으로 진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검토되고 계획이 작성되고 있었다.[40]

<표 7-4> 제7합동상륙기동부대 기동편성(원산상륙작전)

부대명/세력	부대장
Joint Task Force 7, 제7 합동상륙기동부대	해군중장 A. D. Struble
Task Force 90, 공격부대 2AGC, 2APD, 4PF(영국1척, 뉴질랜드 1척, 프랑스 1척), 1PCEC, 9APA, 15T-AP, 10AKA, 5LSD, 1LSM, 3LSMR, 48LST(30SCAJAP), 20LSU, MSTS	해군소장 J. H. Doyle
Task Force 92, 제10군단	육군 소장 E. M. Almond
Task Force 95, 선견부대	해군 소장 A. E. Smith
Task Group 95.2 엄호 및 지원전단 3CA, 3CL(영국), 6DD(영국 1척, 호주 1척, 캐나다 1척)	해군 소장 C. C. Hartman
Task Group 95.6 소해전대 1DD, 1APD, 2DMS, 3AM, 7AMS, 1ARG, 1ARS, 8JMS	해군 대령 R. T. Spofford
Task Group 96.2 초계 및 정찰전단 1AV, 1AVP, 3개 해군, 1개 공군 초계전대	해군 소장 G. R. Henderson
Task Group 96.8 호위항모전단 2CVE, 6DD	해군 소장 R. W. Ruble
Task Force 77, 고속항모부대 4CV, 1BB, 1CL, 16DD	해군 소장 E. C. Ewen
Task Force 79, 군수지원부대 * 제3전대와 31지원분대로부터 할당된 세력	해군 대령 B. C. Austin

맥아더 지휘부에서도 일부 참모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원산상륙 공격을 선호하고 있었다. 맥아더의 참모인 히키(D. O. Hickey) 장군과 라이트(Edwin K. Wright) 장군은 제10군단이 제8군과 통합작전을 수행하면 군수지원이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군 지휘관들은 제10군단이 한반도의 동쪽 절반을 맡아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하였지만 원산으로 해상수송에 대하여 원치 않았다. 즉 제10군단이 해상으로 우회하여 원산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육상으로 전진하는 것이 더 쉽고 시간이 더욱 적게 걸릴 것이라고 보았다.

육상으로의 이동을 선호하는 해군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빠른 조류가 있는 좁은 항구에서 제10군단 탑승병력과 제8군의 보급품 하역이 겹칠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둘째, 함선과 상륙주정이 제한된 가운데 상륙작전을 위하여 모든 해상세력을 집결시킨다면 다른 지역에서의 원활한 군수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셋째, 소해함정들이 예상보다 많은 기뢰를 조우한다면 원산상륙작전이 지연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41]

이러한 논쟁과 토의에도 불구하고 해상을 통하여 원산으로 돌격하겠다는 맥아더 장군의 결정은 변경이 없었다. 맥아더 장군이 상륙돌격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했다.

3) 영흥만 소해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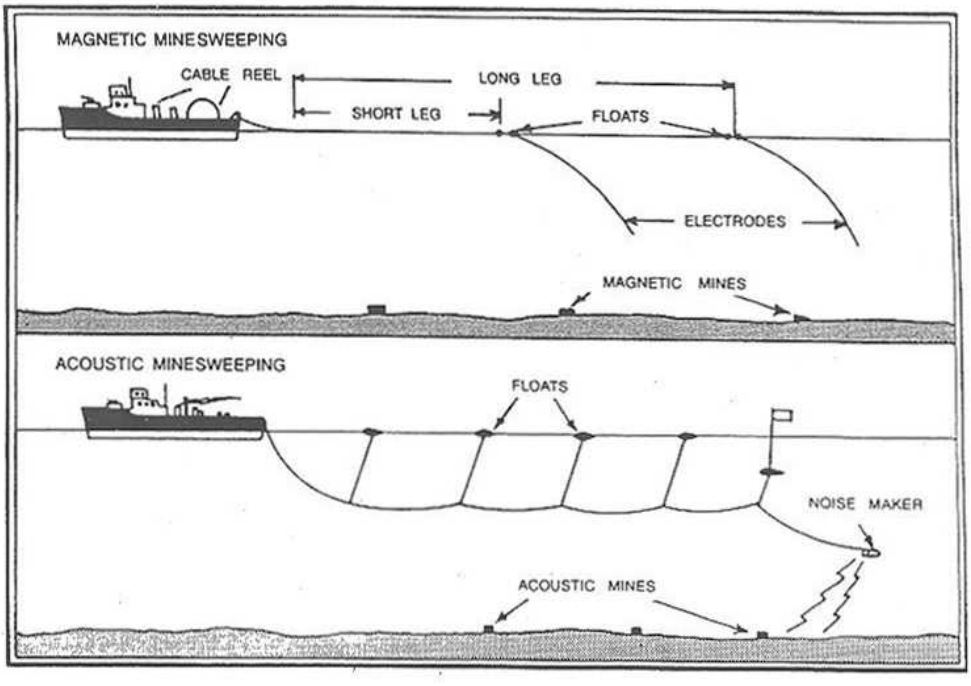
(1) 현대기뢰 종류 및 특징

6·25전쟁 기간에 북한은 동서해안에 부유하는 기뢰와 기뢰원을 고려할 때 다량의 기뢰를 부설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산에 계획된 상륙을 실시하기위하여 10일 동안의 소해계획을 수립하였다. 소해를 시작한 3일 동안, 미국해군 대형 철선소해함 2척이 침몰함에 따라 소해작전을 완료하려면 7일이 더 소요되었다. 합동상륙기동부대사령관은 한국군이 10월 10일 이미 원산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소해가 완전히 될 때까지 상륙은 지연될 수 있다고 하였다. 3,000개

정도의 부설된 기뢰 중에서 단지 225개만이 소해되고 파괴되었다.[42]

현대기뢰의 첫 번째 형태는 원산에서 발견된 자기기뢰이다. 1939년 독일이 자기기뢰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두 가지 실수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첫 번째는 영국의 모든 항구를 동시에 봉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뢰를 확보하기 전에, 독일은 소량의 기뢰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독일 공군이 바다가 아닌 탬즈강 입구에 있는 뻘이 깔린 제방에 신 자기기뢰를 떨어뜨린 것이다. 영국은 즉시 그것을 분해하여 기뢰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었다.[43]

두 번째 현대기뢰는 음향기뢰이다. 이것은 항해하는 선박의 엔진 또는 추진기 소음에 의해 폭발한다. 자기기뢰와 마찬가지로 해저에 부설할 수도 있다. 음향기뢰는 간단한 하이드로폰을 이용하여 선박의 엔진 또는 추진기의 소음을 청취한다. 이러한 소음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음향기뢰를 소해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동일한 소음을 발생하는 소해기구가 필요하다.[44]



자기/음향기뢰 소해방법

세 번째 현대기뢰는 압력기뢰이다. 기뢰전의 역사를 보면, 압력기뢰는 음향기뢰 또는 자기기뢰보다 소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압력기뢰는 선박이 항해시 발생하는 수압에 감응하는 기뢰이다. 압력기뢰를 소해하기 위해서는 항해하는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수압의 변화와 동일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현대기뢰의 가장 위험한 형태로 조합기뢰인데, 위의 기뢰들을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을 조합한 것으로 자기-음향기뢰 또는 압력-자기 등이다. 이러한 조합기뢰를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감응방식을 사용해야 한다.[45]

이와 같은 현대적 기뢰는 원산상륙 시기에도 해군 과학자에 의해 개발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뢰는 해상을 통제하는 다른 해군 무기들의 능력을 보완하는 수동적인 무기였지만, 적에게 항구, 해안, 대양(수심이 기뢰부설에 적합한 해역)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었다.

미 해군이 6·25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 전역에 적합한 기뢰 소해세력과 경험이 있는 해군요원들을 준비했더라면 훨씬 더 쉽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북한의 기뢰전 준비 양상 및 한국, 유엔 해군 피해 현황

6·25전쟁에서 소련이 북한해역에 기뢰부설을 시도하게 된 것은 먼저 북한의 항구와 연안에 유엔 해군함정의 접근을 방지하고, 유엔 해군의 공격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소련은 미국 해군의 서태평양에서의 부설기뢰에 대한 대처능력을 시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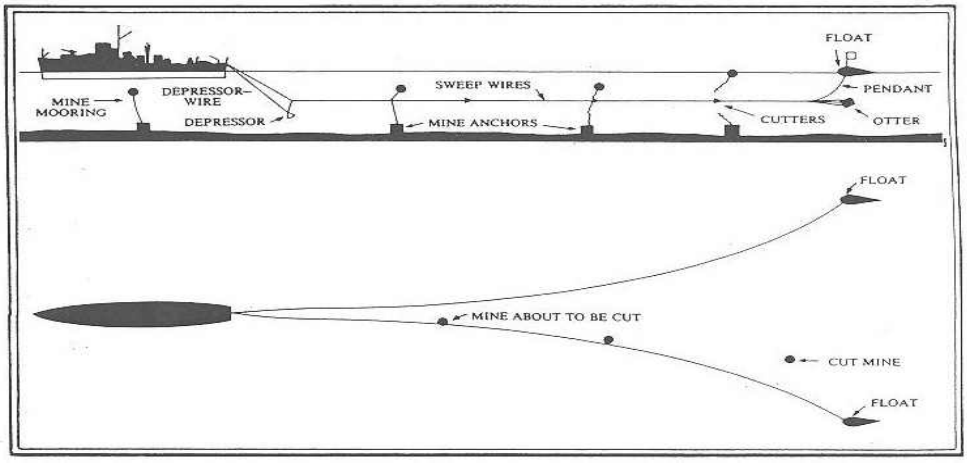
실제로 한반도는 방어적 기뢰전을 실험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유엔이 전쟁에 참전한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은 유엔 해군이 북쪽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상륙작전의 장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포항과 인천의 상륙은 유엔 해군의 상륙작전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북한 동해안이 상륙돌격과 함포지원사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해안지역에 좁은 평야지역이 있었다. 해안선은 굴곡이

적은 직선이며, 육지 가까이까지 100패덤[46] 수심선이 있었다. 원산과 흥남 인근해안은 기뢰부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넓은 천수붕(淺水棚, shelf)이 있다.

1950년 7월 10~20일 사이에 소련은 기뢰를 블라디보스톡에서 철도로 원산으로 수송하였으며, 일부는 해상으로 수송하였다. 1주일 뒤에는 소련 해군요원이 원산과 진남포에 도착하였으며, 북한군을 위하여 기뢰전 학교를 설립하였다.[47] 이와 같은 준비는 함정세력이 제한적인 미 제7함대와 극동해군이 작전을 준비하기 이전에 다량의 기뢰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약 4,000개의 기뢰가 북한에 들어왔으며, 8월 1일부터 기뢰부설은 원산과 진남포에 실시되었다. 그 당시에 러시아 해군장교들은 진남포에서 해주까지 기뢰를 트럭으로 운반하였으며, 심지어는 기차로 인천, 군산 및 목포까지도 수송하였다.[48]

유엔 해상통제권에 대항하기 위한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의 행동은 관측되지 않았다. 8월 중순, 원산과 진남포에 북한군의 소형 바지와 초계정이 보고되었지만, 정보당국은 그 당시 기뢰부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극동해군 및 제7함대는 인천지역에 기뢰원이 없다는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였다.[49]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대략 1950년 8월 15일부터 기뢰작전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작전은 강과 해상에 유엔 해군의 접근을 차단할 목적으로 하는 기뢰부설과



계류기뢰 소해방법

동·서해안의 항구에 방어기뢰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2,000개가 부설되었다. 이 기뢰는 러시아제 26형 계류형 기뢰로서 수심 456피트(약 142미터)에 적합하고, 관성에 의하여 폭발되며, 해저에 설치되는 자기기뢰이다. 대부분의 기뢰가 미국제와 유사하지만 러시아제는 훨씬 다량의 폭약이 들어가 있었다.

기뢰는 최초 서해에서 9월 4일 발견되었고, 수상 소해세력은 발견된 해역에서 탐색 및 소해작전을 즉시 시작하였다. 실제적인 북한의 기뢰작전은 9월 4일 기뢰가 최초로 발견되기 이전에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이 북한의 기뢰부설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

- 8월 13일 진남포 근해에서 VP-6 항공기는 대공사격을 조우하여 북한군 소형 바지와 발동선을 공격하였다.
- 8월 14일 원산 근해에서 VP-6 항공기는 대공사격을 조우하여 수척의 위장 선박 및 초계정을 공격하였다.
- 8월 16일 진남포 근해에서 VP-6 항공기는 북한군 초계정을 공격 중에 추락하였다.
- 10월 14일 진남포 근해(북위 38도 36분 5초, 동경 124도 58분)에서 영국 함정 테세우수(HMS[50] Theseus)의 소속 항공기는 기뢰부설정으로 식별된 두 척의 정크선을 공격했다.

기뢰에 의한 유엔 해군과 한국 해군 함정의 피해는 9월 26일부터 나타났다. 이 날 미 구축함 브러쉬(USS Brush)함이 동해안 단천 근해에서 북한군 해안포대를 탐색하던 중에 기뢰에 접촉되어 선체가 크게 파손되었다. 브러쉬함은 아군 함정의 도움을 받아 겨우 사세보에 입항하였는데, 13명의 사망자와 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9월 28일 03:00시에 한국 해군의 AMS-509정이 후포항 외해에서 경비 중에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하고 승조원 38명 가운데 2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9월 30일에는 미 구축함 맨스필드(USS Mansfield)함이 38도선 북방 60마일 해상에서 작전하던 중 접촉기뢰에 접촉되어 함수 부분이 파손되고 부상자 28명이 발

생하였다. 10월 1일 미 소해정 매그피(USS Magpie, AMS)함이 영덕 근해에서 항로 소해 중에 부유기뢰와 접촉하여 침몰하였고, 33명의 승조원 가운데 21명이 전사하고, 생존자 12명이 모두 부상당했다. 같은 날 목포 근해에서 한국 해군의 AMS-504정이 기뢰에 접촉되어 심한 손상을 받았으나, 승조원의 노력과 아군함정의 신속한 구조작업으로 침수를 막고 극적으로 구출되기도 하였다.[51]

(3) 영흥만 소해작전

10월 2일, 제7합동상륙기동부대사령관 스트러블 제독(기함, USS Rochester)은 예하의 소해전대장 스포퍼드(R.T. Spofford) 대령에게 제10군단의 원산상륙작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소해준비를 완료하고 영흥만에 집결할 것을 명령하였다. 제95.6소해전대에 배속된 6척의 미 해군 소해함정들은 10월 6일 사세보항을 출항하여 10월 10일 새벽 영흥만에 도착했다. 소해전대는 일본 소해정의 증원으로 세력이 증가된 상태였다.

9월 25일과 30일 사이, 원산에는 세 가지 유형의 소해함정들이 배치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소해구축함(DMS)이었는데, 태평양사령부 소속으로 4척의 소해구축함(DMS)은 주로 부족한 태평양함대 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었다. 엔디코트(USS Endicott, DMS-35)와 도일(USS Doyle, DMS-34)의 전쟁일지(War Diaries)를 보면 한반도 도착이후의 평균작전 형태를 알 수 있다(항모 경계진-23일, 호송 및 호위-9일, 보급 및 수리-10일, 연안경계 및 함포지원-24일).

두 번째 유형은 철제 함대소해함(AM)이다. 철제 함대소해함(AM) 4척 중에서 플레지(Pledge, AM-277)함 1척만 9월 7일까지 가동이 가능하였고, 파이어러트(USS Pirate)함, 인크레더블(USS Incredible) 및 메인스테이(USS Mainstay)함은 퇴역한 상태였는데, 8월 14일 파이어러트(USS Pirate)함 및 인크레더블(USS Incredible)함은 재취항하였다. 제3소해전대장(CTG 95.6) 작전통제 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① 사세보와 부산 간 호송 임무

② 사세보-부산 호송로 상의 계류, 자기 및 음향기뢰 소해
③ 인천상륙작전 시 호위, 경계진 및 소해탐색

세 번째 유형은 목제 연안소해함(AMS)인데, 총 14척으로 샌디에고, 진주만, 괌 및 일본으로 분리되어 배치되고 있었다. 일본에 배치된 함정들은 제3소해전대장(CTG 95.6) 작전통제 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① 사세보, 부산 및 진해 간 계류, 자기 및 음향기뢰 탐색 및 호송
② 사세보 및 부산에서 항만 출입항 통제 선박 임무
③ 사세보 및 부산간 호송 임무
④ 인천상륙작전 시 호위, 경계진 및 소해탐색
⑤ 동해안 기뢰원에 대한 탐색 및 소해

10월 10일부터 소해함정은 경순양함 워체스터(USS Worchester, CL-144) 소속의 헬기와 함께 원산항 남쪽항로에 대하여 소해작전을 시작하였다. 충분한 통신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채, 목재 연안소해함(AMS)은 헬기가 입수한 기뢰정보를 워체스터(USS Worchester)함이 중계하여 수신할 수 있었다. 같은 날 오후 늦게 헬기에서 소해함 전방에 5개의 기뢰열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소해정은 소나로 기뢰위치를 확인하고 소해작전을 중단하였다.[52] 스포퍼드 대령은 상륙시기를 맞춰야 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기뢰가 부설된 해협을 선택해야 했다. 그래서 소련 선박이 사용하던 북쪽항로로 소해작전을 변경하였고, 10월 11일 원산항 입구에 대한 소해탐색에 박차를 가했다.

10월 10일 오후에 파이어러트(USS Pirate), 레드헤드(Redhead) 및 채터러(Chatterer)함이 증원세력으로 도착하였다. 증원세력의 도착으로 소해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10월 11일과 12일 자정회의에 참모와 모든 지휘관들이 모였을 때, 다음날부터 소해작전에 집중하여 8일 남은 상륙작전 목표일 이전에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스포퍼드 대령은 기뢰부설 해역을 소해하는데 과거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을 활용하기로 결심하는데, 그것은 제77기동부대의 항공기 폭격에 의한 것이었다. 기뢰원에 항모 항공기가 폭탄을 규칙적으로 투하하여 폭파시키는 방안이었다.[53]

10월 12일 이른 아침에 기뢰원 폭격용 항공기(스카이레이더와 코사르 39대)들이 필리핀 씨(USS Philippine Sea)함과 레이테(USS Leyte)함에서 출격하여 원산항에 도착하였다. 스카이레이더(Skyraider) 항공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였는데, 각각의 항공기는 1,000파운드 폭탄 3개를 장착하였고, 코샤르(Corsair) 항공기는 1,000파운드 폭탄 한 개를 장착하여, 수심 25피트에서 폭발하도록 세팅(수압식 신관)하여 투하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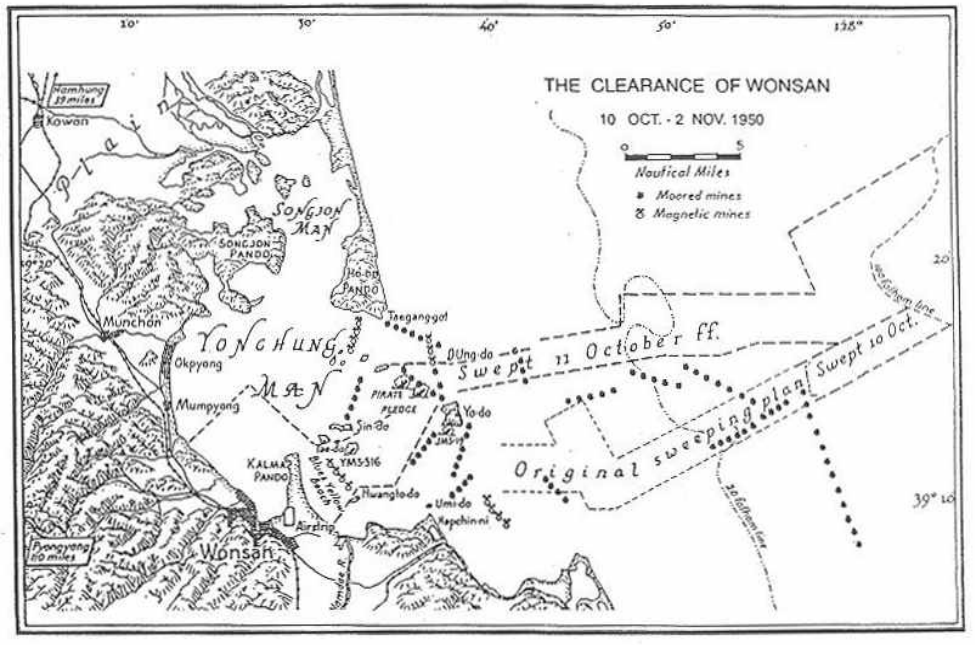
항모 항공기 조종사들은 두 개의 5마일 라인을 따라 투하간격을 200야드 거리를 유지하며 투하하려고 계획하였다. 해상에서 투하간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이다 통제하에 한 대의 스카이레이더(Skyraider)가 연막부표을 탑재한 다른 스카이레이더(Skyraider) 상공에서 비행하였다. 통제 항공기 신호에 따라, 0.5마일 간격으로 연막부표을 투하하였다.

폭격 부대는 항공기를 두 개의 편대로 구분하여, A 편대는 기뢰원의 오른 열에 14대의 스카이레이더(Skyraider)와 8대의 코샤르(Corsair), 그리고 B 편대는 기뢰원의 왼쪽 열에 17대의 스카이레이더(Skyraider)로 구성하였다.

항공기에 의한 공격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연막부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그 대신에 여도(麗島)와 웅도(熊島)에 있는 해협 위치부이를 이용하였다. 항공기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다. 항공기들은 전방 항공기와의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격조준경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음성통신에 의한 폭탄투하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즉, 항공기 통제관의 송신, 개별 조종사의 수신과 집행과의 시간간격이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규칙적인 폭탄 투하패턴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기뢰폭파의 결과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0월 13일 파이어러트(USS Pirate)함이 폭격한 그 라인을 따라 좌현에서 1개의 기뢰, 우현에서 5개의 기뢰를 소해한 것과 파이어러트(USS Pirate)함과 플레지(USS Pledge)함이 오후에 그 근처에서

<상황도 7-4> 원산항 소해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항공기에 의한 기뢰제거는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54]

항공폭격 실시 이후 소해함들은 6노트 속력으로 항구쪽으로 항해를 하였다. 왼쪽에 여도, 오른쪽에는 웅도와 신도가 있었는데 신도는 일본군들의 요새가 있었던 곳이었기에 3척의 구축함(USS Diachenko, Doyle, Endicott)들이 소해함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포지원사격을 준비하였다.

하이야트(Bruce Hyatt) 소령이 지휘하는 파이어러트(USS Pirate)함이 선두함이었고, 그 뒤를 플레지(USS Pledge)함과 인크레더블(USS Incredible)함이 뒤따르고 있었다. 레드헤드(USS Redhead, AMS)함이 부표(dan buoy)를 설치하였고, 카이트(USS Kite, AMS)함은 산탄총으로 기뢰폭파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러시아 함선이 사용하던 수로를 통과한 후 소해함들은 여도와 웅도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변침하여, 11시 12분에 소해함들은 소해되지 않은 해역

으로 진입했다. 3분후에 파이어러트(USS Pirate)함은 소해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북한군의 해안포대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3인치 포에 전투배치를 하였다.

파이어러트(USS Pirate)함의 소해구에 절단된 2개의 기뢰가 수면에 떠올랐고, 4개의 다른 기뢰가 다시 나왔다. 그 기뢰는 50야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고, 여도와 웅도사이를 연결한 선상에 놓여 있었다. 3분 후에 파이어러트(USS Pirate)함에 의해 절단된 기뢰들의 뒤쪽으로 기동한 플레지(USS Pledge)함이 3개의 기뢰를 좌현 소해구로 소해하였다. 인크레더블(USS Incredible)함도 다른 4개의 기뢰라인을 절단하였다.

파이어러트(USS Pirate)함 음탐기가 100야드에서 기뢰를 접촉한지 1초도 지나지 않아 오른쪽 함수 견시가 함수 바로 앞에서 기뢰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몇초가 지난 후에 파이어러트(USS Pirate)함의 함미가 해면에서 들어 올려지면서 프로펠러가 보였다. 그리고 나서 수면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진흙땅 물이 솟구쳤다. 기뢰가 함정의 바로 밑에서 폭발하여 파이어러트(USS Pirate)함의 주 갑판은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함정은 오른쪽부터 바다속으로 기울어지면서 몇 분후에 파이어러트(USS Pirate)함은 전복되고 말았다.

리챠드(Richard O. Young) 대위가 함장인 플레지(Pledge)함은 즉시 소해구를 절단하고 구명용 모터보트를 바다에 띄웠다. 그때 신도에 있는 북한군의 해안포가 침몰하고 있는 파이어러트(USS Pirate)함과 바다로 탈출한 승조원들에게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 플레지(USS Pledge)함이 적군의 해안포를 향하여 단연장 3인치 포로 사격을 하자 해안포는 플레지(USS Pledge)함을 향하여 사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그 주변해역에는 13개의 기뢰가 해면위로 떠올랐고, 해면 아래에는 셀 수 없는 기뢰들이 부설되어 있었다.

북한군의 해안포와 기뢰 때문에 파이어러트(USS Pirate)함에 접근할 수 없었다. 플레지(USS Pledge) 함장은 우선 북한군의 해안포에 집중사격하기로 결심했다. 함장은 모든 전투원들에게 신도 포대와 소총 공격을 하고 있는 내도를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함장은 통신기로 항공지원을 요청하였고, 플레지(USS Pledge)함이 보유하고 있던 탄약을 전부 소모할 때까지 3인치 사격을 계속했다.

비록 플레지(USS Pledge)함의 포가 북한군의 한 개 포대를 명중시켰지만 신도의 포대가 플레지(USS Pledge)함에 집중사격을 하고 있었다. 함장은 자신의 함정이 파이어러트(USS Pirate)함쪽으로 떠밀려가면서 점점 위험한 위치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전에 소해한 안전한 해역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겠다는 희망으로 명령했다.

"키 왼편 전타, 우현 앞으로 둘" 플레지(USS Pledge)함이 30도쯤 변침했을 때 기뢰와 접촉했다. 그때 시간은 12시 30분이었다.

플레지(USS Pledge)함은 기관실이 있는 오른쪽 측면 중앙을 기뢰와 접촉했다. 함 전체가 심한 손상을 입었다. 선저부터 함교까지 갑판과 용골은 터지고 구부러졌다. 오른쪽 측면은 수면 밑까지 갈라져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함장이 충격으로 기절한 후에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배와 승조원들의 상태를 볼 수 있었다. 그는 함정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기뢰탐색용 초계항공기인 PBM(소령 Randall Boyd) 1대는 파이어러트(USS Pirate)함의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탐색임무를 중단하였고, 랜돌 소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해안으로부터 날아오는 포탄과 파이어러트(USS Pirate)함 주위에 바닷물이 튀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엔디코트함을 무선으로 호출하여 북한군의 포대로 함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몇 분동안 나는 구축함의 함포사격을 관측하여 탄착수정을 해 주었다. 그리고 생존자의 위치를 보고했다. 엔디코트함은 구명정을 보내어 생존자들을 구출하기 시작했다."

"조금 후에 나는 항공모함에 두 척의 소해함이 북한군의 포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니 항공기 지원을 요청한다는 무선을 보냈다. 나는 항공기 무장으로 500파운드 폭탄, 로켓 그리고 네이팜탄을 권고했다."

"우리는 레이테(USS Leyte) 항공모함의 코샤르(Corsair)와 스카이레이더(Skyraider)기들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섬들의 포대 위치와 생존자의 위치를 엔디코트 함에 통보하였다."

파이어러트(USS Pirate)함과 플레지(USS Pledge)함이 침몰되는 동안, 인크레더블(USS Incredible)함의 통신기에 갑자기 큰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위급, 위급, 엔진 정지' 인크레더블(USS Incredible)함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다.

기관장인 밀러(E.A.Miller, Jr) 소령을 제외한 플레지(USS Pledge)함의 모든 장교들은 기뢰 폭발로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구조되었다. 기적적으로 밀러 소령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2척의 침몰 함정에서 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2명이 전사했으며 부상자 중 한명이 나중에 사망했다. 하이어트(Hyatt), 맥뮬런(McMullen) 그리고 영(Young)은 구조되었다.

기뢰부설 해역에서 상륙해안으로 가는 접근로를 만들려고 하는 두 가지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상륙해안까지 바로 가는 경로를 소해하려는 계획은 많은 기뢰들이 정교하게 부설되어 있어 실현될 수 없었다. 첫 번째 계획이 가능하였다면 러시아 선박들이 사용했던 수로를 소해할 필요가 없었고 손실도 없었을 것이다. 상륙군을 위한 데드라인은 이제 7일 밖에 없었다.

또한 10월 16일 19:00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즉 영흥만 북쪽 해안에 있는 한 창고에서 6명의 한국군이 10㎏짜리의 기뢰 약 100개를 발견하고, 그 기뢰를 폭발시키기 위하여 약 180m 떨어진 곳에서 사격을 가하였는데, 그 기뢰의 폭발로 약 3㎞ 떨어져 있는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1명의 중위를 포함한 6명이 모두 사망하였다.

스포퍼드(R.T. Spofford) 대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헬기와 PBM 항공기로 공중탐색을 하고 가용한 모든 소형 보트와 UDT를 이용하여 기뢰를 찾기로 했다. 디포레스트(DeForest) 소령의 감독하에 소형 보트 요원들은 기뢰 부설 해역에 뛰어들어가 작업을 하였다. 몇몇 북한의 협조적인 어부들이 이 작업에 동참하였다. 2일간의 기뢰탐색 작업 후, 기뢰의 부설지점이 확인되어 소해함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스포퍼드(R.T. Spofford) 대령은 디아첸코(USS Diachenko) 구축함을 소해 수로로 들여보내어, 대잠 음탐기를 이용하여 추가로 있는 수중의 기뢰를

수색하도록 명령하였다. 소해함 5척이 해안까지 소해를 하였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소해가 끝난 것으로 보였다. 해안으로 접근하던 레드헤드(USS Readhead)함 후방 400야드에서 갑자기 기뢰가 폭발하였고, 다시 첫 번째 폭발지점의 100야드 떨어진 지점에서 기뢰가 폭발하였다.[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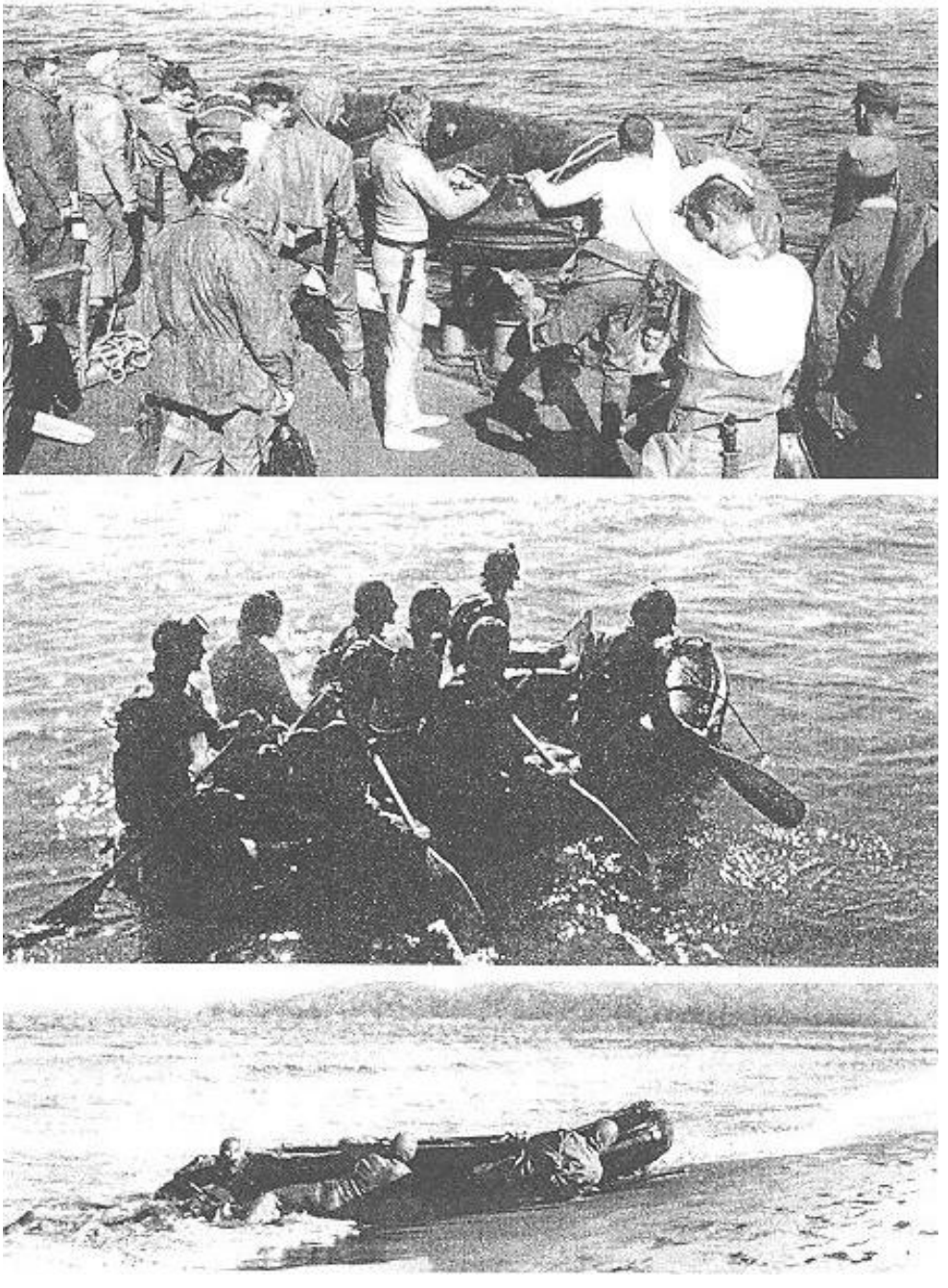
새로 발견된 기뢰들은 한달 전 월미도에서 발견되어 해체된 것과 같은 기뢰가 아니었다. UDT가 노력한 결과 자기기뢰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치도 파악되었다. 그러나 감응기뢰의 존재는 동일한 항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소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56]

스포퍼드(R.T. Spofford) 대령이 원산해역의 기뢰를 소해하기 위한 우군을 확보했지만, 원산항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7일간의 소해기간이 더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스트러블 제독은 조이 제독에게 D일을 6일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조이 제독과 맥아더 장군은 스트러블 제독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10군단의 상륙일자를 10월 26일로 연기하였다. 따라서 제10군단을 탑승시킨 수송함선들은 10월 19일부터 소해가 완료될 때까지 남쪽으로 12시간을 항해한 후에 다시 북쪽으로 12시간을 항해하는 소위 『반복항해작전(Operation Yo-Yo)』을 계속하였다.[57]

10월 25일 저녁에 소울디스(Shouldice)는 스포퍼드(R.T. Spofford) 대령에게 원산의 소해구역에 대한 '기뢰제거'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했다. 5일로 예상되었던 소해일정이 15일이 소요되었다. 약 3,000개의 기뢰가 원산해역에 부설되어 있었고 그 중 단지 225개만이 소해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인 2,000여개의 기뢰가 그 해역에 부설되어 있었다. 스트러블 제독은 "우리가 기뢰의 위치를 알고 있는 한, 남아있는 2,000개의 기뢰들은 더 이상 우리의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58]

그리하여 소해세력이 25일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악전고투한 결과, 영흥만 일대의 소해작업을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수전(UDT) 소해작전

4) 한국군의 원산 점령과 미 제7사단의 이원 상륙

10월 10일 한국군 제1군단은 원산을 점령하였다. 오전에 치열한 저항에 직면하였으나, 어윈(Ewen) 제독이 지휘하는 제77기동부대의 항공기들이 북한군에 대한 항공폭격을 실시하였다. 한국군은 통신으로 긴급항공지원요청을 하였고, 레이테(USS Leyte) 항공모함 소속의 항공기들이 북한군의 포대와 참호, 탱크들을 지상통제사들의 지시에 따라 폭격했다.

정오경에 한국군은 원산을 점령했고, 지역질서 유지를 위한 헌병부대만을 남기고 북진을 계속하였다. 원산이 아군의 손에 들어오자, 북한군의 해안으로 돌격하고 시가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알몬드 장군의 걱정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은 문제는 제10군단을 가능한한 신속하게 상륙시켜 공격세력에 가담시키는 것이었다.

해병 제1사단 병력과 수송품을 만재한 상륙함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인천수로을 빠져 나왔다. 도일 제독의 병력을 탑재한 기함인 마운트 맥킨리(USS Mount McKinley)함은 알몬드 장군과 스미스 제독의 참모들로 가득했다. 10월 19일 원산에 도착하여, 알몬드 장군과 도일 제독은 원산 외항에 투묘중인 기함 미조리(USS Missouri)함에 있는 스트러블 제독에게 즉시 가서 원산의 상황과 상륙계획에 대해 회의를 하였다.

알몬드 장군은 상륙일자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므로, 신속하게 진격하고 있는 한국군 제1군단(그 당시 한국군은 알몬드 지휘하에 있었음)의 작전을 지휘하기 위하여 육상으로 가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는 예하 참모진들과 함께 미조리(USS Missouri)함의 헬기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이동할 것을 결정하였다. 남아 있는 참모는 그날 오후에 소형 보트로 해안으로 가기로 하였다.

10월 19일 미조리(USS Missouri)함에서 지휘관 회의 결과, 스트러블 제독은 도일 제독에게 "트렉터 전단과 수송전단"[59]에게 기뢰부설해역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날 17:00시에 그들이 진입했던 경로를 따라 철수를 하였다. 호송부대는 10월 21일에 원산 외곽의 수로 입구까지 역침로로 항해를 하였다.

해병들이 불렀던 소위 『반복 항해작전(Operation Yo-Yo)』은 원산 해협의 소해가 완료된 10월 25일까지 지속되었다. 해병대원과 특수전 요원들은 한국해안을 5일 동안 항해하면서 매우 협소한 공간에 있었으므로, 위장염과 이질로 고생을 하였다. 상선(Marine Phoenix)에 탑승하고 750명이 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원산이 아군의 수중에 떨어지자, 도일 제독은 10월 18일 비돌격 상륙명령을 하달하였고, 먼저 LVT 및 LCVP들에게 해안으로 돌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10월 25일 원산 접근로의 소해가 완료되자, 모든 함정들에게 기뢰원 통과 절차를 숙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소해해협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10패덤 수심선 밖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하였다. LVT 및 LCVP들이 진입함에 따라, 화물과 차량을 적재한 "트렉터" 전단이 750야드 간격과 600야드 거리를 유지하면서 2열 종대로 항해하였다. 상륙군을 탑재한 수송함은 1,000야드 거리를 유지하면서 10노트 이하의 속도로 일렬로 진입할 것을 지시받았다.

해병들이 원산에 상륙했을 때, 제1해병 항공단 요원과 한국군이 그들을 플랜카드를 들고 환영하였다. 해안에 상륙한 다음, 22,000명의 해병들은 북쪽으로 전진을 시작했고, 남쪽에 대한 정찰도 시작했다.

10월 29일, 미 제7사단은 고속 소해함 도일(USS Doyle)함과 엔디코트(USS Endicott)함이 이원항 인근에 기뢰부설 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원에 대한 행정상륙을 실시하였다. 한국군이 4일 전에 여기를 통과하였으므로 북한군은 그곳에 없었다.

10월 29일 11:20분, 제7사단의 첫 번째 중장비들을 탑재한 LCVP들이 이원 해안에 도착하였고, 태크리(Thackrey) 제독은 지휘관인 바(Barr) 장군과 서로 손을 잡았다. 바(Barr) 장군은 만주 국경으로 진격하면서 발견되는 북한군을 소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주 국경까지는 75마일 밖에 되지 않았다.

첫째 날 해질녘까지 27,000여 명의 제7사단 병사들은 저녁을 보내기 위하여 이원인근에서 얼어붙은 언덕과 논에 참호를 팠다. 보급품들은 야간에 지프와 트럭으로 해안에 도착하였다. 셔먼탱크들이 마치 독립 기념일 퍼레이드처럼 해안으로 상륙을 하였고, 항공모항 항공기들은 지속적인 정찰을 위해 상공을 비행하

고 있었다. 그리고 구축함 보리(USS Borie, 함장 Merle F. Bowman 중령)함은 인근 해역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사격준비를 하고 있었다.

1950년 10월 31일 야간까지 제10군단 대부분의 병력은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어떤 부대는 해상에 거의 3주간이나 대기하였다.

5) 작전결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아군의 총반격이 시작되어 북한군은 와해된 채 38도선 이북으로 패주하고 있었다.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을 괴멸시키고 한·만 국경까지 진격하여 한반도 통일을 구상하고 있었다.

미 제8군은 서부축선을 따라 북상하고, 제10군단은 원산에 상륙시켜 원산~평양선을 확보하여 평양을 후방에서 차단하여 남쪽에서 공격하는 부대와 협공하여 북한군의 주력을 포위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맥아더가 동해안의 원산을 선택한 것은 상륙하기에 적합한 해안으로 평야가 있으며, 항만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여 함정들이 접안이 가능하고 서울, 평양 등과 철도와 도로망이 연결되는 요충지였던 것이다.

합동상륙기동부대사령관은 스트러블 해군제독이 수행하고, 상륙군의 주력은 미 해병 제1사단과 육군 제7사단이었으며, 제10군단장은 알몬드 소장이 담당하였다. 또한 병력교대, 탑재기간 및 상륙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D일을 10월 20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군지휘관들은 제10군단이 해상으로 우회하여 원산으로 상륙하여 측방공격을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육상으로 이동하여 진격하는 것이 시간이 적게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건의를 하였지만, 맥아더 장군의 결정은 변동이 없었다.

소련은 1950년 7월 초부터 북한에 기뢰를 제공하여 부설기술을 전수하였고, 현장에서 기뢰부설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약 4,000개의 기뢰가 원산으로 수송되어, 원산, 진남포, 해주, 인천, 군산 및 목포에서도 기뢰가 부설되었다.

원산상륙작전을 성공하려면 소해작전이 필수적인 영흥만에 약 3,000개의 기뢰

가 부설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10월 10일 원산근해에 도착한 미 해군의 소해부대는 D일 상륙일자를 맞추기 위해 소해작전을 실시하였으나 기뢰접촉으로 파이어러트(USS Pirate) 및 플레지(USS Pledge)함이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함정 두 척의 침몰로 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12명이 전사하였다.

추가적인 함정을 투입시켜 원산항에 대한 소해를 지속하였으나, 소해에 필요한 기간은 예상보다 훨씬 더 소요되면서, 소해전대장인 스포퍼드 대령은 조이 제독에게 6일을 더 요청하여 소해완료시기를 10월 26일로 변경하게 되었다.

반면, 한국군은 육상에서 10월 10일 원산을 이미 점령하여 기존 D일 맞추기 위해 완전한 해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상륙군과 장비를 함안이동시킬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다.

그리하여 해병들이 불렀던 소위 『반복 항해작전(Yo-Yo)』을 실시하면서 변경된 D일인 10월 26일까지 지루하고 의미가 없는 대기시간을 갖게 되었다.

10월 25일 드디어 원산항이 소해되어 약 22,000명의 해병들이 해안에 상륙하여 한반도 동쪽 해안에서 북진을 할 수 있었고, 10월 29일 제7사단 약 27,000명은 원산으로부터 약 160킬로미터 떨어진 이원항에 행정상륙을 실시하였다.

3. 진남포 소해작전

1) 참가부대 및 함정

구 분	부 대 장
제7합동상륙기동함대사령관	해군 중장 Arthur D. Struble
제95.6소해전대장	해군 대령 Richard T. Spofford[60]
제95.6.9소해단대장	해군 중령 Stephien Morris Archer

2) 소해전 부대 편성 및 해역 특성

소해함정이 원산근해에서 소해작전에 분투하는 동안, 육군은 한반도 서해안의 진남포의 개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유엔군이 1950년 10월 북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서해안의 진남포는 제8군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였지만 상당수의 기뢰가 부설되어 있었다. 원산이 개항되기 3일전에 조이 제독은 스포퍼드 대령의 상관인 제95선견부대사령관 스미스(Allan E. Smith) 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진남포항을 소해하라."

그러나 스미스(Allan E. Smith) 소장은 진남포를 소해하라는 명령에 대해 함정, 인원, 계획도 없고, 모든 것이 최악인 상황에서 어떻게 진남포항 개항을 하라는 것인지 상부에 확인하였다. 모든 서태평양 소해함정은 원산에 작전투입중인 관계로, 스미스 소장은 진남포에 어느 정도와 어떤 유형의 기뢰가 부설되어 있는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장교를 파견하였다.

스미스 소장은 제95.6.9소해단대장으로 아처(Stephien Morris Archer) 중령을 진남포 소해작전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조이 제독은 워커 장군에게 만약 진남포항이 원산과 마찬가지로 기뢰가 부설되었다면, 소해하는데 3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기뢰전 부대는 원산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데, "소해하기 전에 정확하게 기뢰정보를 파악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남포의 기뢰부설 상황을 수색하기 위하여 수대의 기뢰폭격용 항공기(PBM)과 헬기 1대가 파견되었다.

아처 중령은 드포레스트(DeForest) 소령과 함께 사세보항에서 스미스 제독의 기함인 딕씨(USS Dixie)함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임시방편으로 과거 소해경험이 있는 함정들을 다음과 같이 수배하였다.

① 구축함 로얄(USS Forest Royal) ; 소해 구축함 톰슨(USS Tompson), 카믹(USS Carmick) ; 소형 소해정 펠리칸(Pelican), 스왈로우(Swallow), 걸(Gull) : 진주만 소속
② 한국 해군 YMS-502, 306, 513
③ 헬기 1대(조종사 R.D. Romer 대위)

④ 헬기 갑판이 있는 LST Q-007

⑤ 고속수송함 바스함(USS Horace A. Bass)과 UDT 1개 팀

⑥ 14대의 소해정과 LSD[61] 카타마운트(USS Catamount)

⑦ 구조함 볼스터(USS Bolster)

⑧ 영국 함정 테시우스(HMS Theseus) 소속 장교 : 로드웰(W.E.H. Rodwell) 소령, 호주 함정 와라문가(HMAS Warramunga) 소속 장교 : 글래드스톤(M.G.H. Gladstone) 소령

<표 7-5> 완편된 진남포 소해전 부대 조직

부대명	세력	부대장
Task unit 95.6.9.1 Minesweeping unit 1 USS *Thompson* USS *Carmick*	2 DMS	해군 중령 Oscar B. Lundgren
Task unit 95.6.9.2 Minesweeping unit 2 USS *Gull* USS *Pelican* USS *Swallow* *YMS-502, 306, 513, 503*	 3 AMS 4 YMS(한국)	해군 중위 Henry V. Cronk
Task unit 95.6.9.3 Helicopter unit	1 Helicopter	해군 대위 Robert D. Romer
Task unit 95.6.9.4 Minesweeping unit 3 USS *Horace A. Bass* TU 95.6.9.4.1 UDT 1	 1 APD 1 UDT	해군 소령 Alan Ray
Task unit 95.6.9.5 Minesweeping unit 4 USS *Catamount* *MSB* *Work Boat* *LST-Q007*	 1 LSD 12LCVP 2 1 LST	
Task unit 95.69.7 Buoy Ship unit USS *Bolster*	 1 ARS	
Intelligent unit		해군 중령 Donald N. Clay

진남포의 기뢰원은 수로학적인 상황이 원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대두되었다. 해로의 수심이 깊은 원산과는 달리 진남포항으로의 직접적인 접근은 섬과 대동강에서 급속하게 흘러내린 퇴적물로 형성된 삼각주 때문에 제한이 있었다.

원산항은 투명하고 거의 조수간만의 차가 없고 조류가 없는 것과는 달리, 진남포는 진흙탕물이며 조수간만의 차가 최소 12피트이며 조류는 5노트나 되었다. 진남포 접근로는 2가지가 있었다.

최남단 항로는 수심이 매우 낮고 조수간만의 차가 15피트나 되었고, 북쪽의 항로는 수심이 거의 두 배가 되었으며, 양쪽 모두 기뢰부설이 가능한 해역이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 것은 유엔군이 보유한 가장 최근의 해도가 1922년과 24년 사이에 발행된 것이라고 스미스 제독이 지적하였다. 소해작업은 진남포으로부터 69마일 지점에서 시작되어 도크에서 33마일 떨어진 삼각주 지역까지 진행되었다.[62]

3) 소해작전

10월 29일 2척의 소해 구축함인 톰슨(USS Thompson, DMS-38)함과 카믹(USS Carmick, DMS-33)함이 소해작전을 시작하였고, 이후에 3척의 AMS와 2척의 한국 YMS 그리고 헬기를 탑재한 LST 1척이 증원되었다. 기뢰부설에 참여했던 북한인을 심문하고 나서, 정보장교는 217개의 접촉기뢰와 25개의 자기기뢰 등이 혼합된 형태로 부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본격적인 기뢰제거에 들어갔다. 기뢰탐색은 항공기와 헬기로 시작되었고, 해상에서는 소형 보트로 수중은 특수전 요원이 수행했다.

인천에 정박하고 있는 가르디너스 베이(Gardiners Bay, AVP-39)함에서 출격하는 6항공대 소속의 기뢰 폭격항공기(PBM)들이 10월 28일부터 진남포 해역에 대한 기뢰탐색 초계비행을 시작하였다. 제42, 43초계전대 소속의 기뢰 폭격항공기(PBM)와 영국공군의 제88, 209항공전대 소속의 "선더랜드"가 9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속하여 투입되어 기뢰탐색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항공기들은

서해지역에서 340개의 기뢰를 발견하였고, 44개는 폭파시키고 9개는 기관총으로 폭파시켰다.

11월 말, 초계기는 진남포 근해에서 자기기뢰에 대하여 폭뢰를 투하하였다. 11월 28일 325파운드 폭뢰 32개를 투하하였으나 단지 한 개의 기뢰만이 폭파되었다. 다음날 P2V 넵츈기가 16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3개의 기뢰를 폭파시켰다. 초계기는 황천과도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 항공모함 테시우스함 소속 헬기는 진남포 소해 작전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다. 테시우스함은 제2 헬기 소해파견전대의 기지로 활용되었다. 테스우스함의 헬기는 기뢰 해역을 탐색하기 위해 날마다 비행을 실시했다. 영국 항공모함의 다른 항공기들은 북한의 항공기와 해안포로부터 소해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투초계비행을 하였다.

소해함정의 안전을 보장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첩보,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아처 중령과 그의 참모들은 북한의 기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항구입구를 봉쇄한다는 소해 작전계획을 세웠다. 소해함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기뢰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전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아처 중령은 어떤 손실도 없이 소해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사전에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뢰부설 예측 구역을 설정하여 먼저 헬기를 현장으로 보내 확인한 결과 예측 구역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최초 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두로 접근하는 수로를 소해해야 했다.

진남포 소해작전은 기뢰가 실제로 있다고 의심되는 지점인 39마일 외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실제적으로 기뢰부설 예상지역은 수심이 낮고 기뢰부설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10월 29일 오전, 톰슨(USS Thompson, DMS-38)함과 카믹(USS Carmick, DMS-33)함이 소위 "엔드 런(end run)"이라고 불리는 소해방법으로 시작하였고, 이 방법은 단지 제한된 소해작전에만 사용되는 유형이었다. 2척의 소해 구축함은 훌륭한 구축함도 소해함도 아니었고, 너무 크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소해함으로서 기동하기 어려운 함정이었다. 구축함으로서 화력도 부족하였다.[63]

소해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아쳐 중령은 함장들을 소집해서 첩보와 계획 그리고 최종 지시를 하달했다. 11월 2일 오후, 2척의 소해구축함을 제외하고 모든 함정들이 작전에 투입되었다. 3척의 AMS인 펠리칸(USS Pelican), 스왈로우(USS Swallow), 그리고 걸(USS Gull)함은 진남포에 도착했을 때 최초 2시간동안 소해작전을 시작하였다. AMS 전방에 헬기와 UDT 요원들이 투입되어 기뢰를 탐색했다. 한국 함정과 볼스터(USS Bolster)함은 산탄총으로 기뢰를 폭파하고 부표 설치를 수행하면서 후방에 위치했다.

니미츠(Chester W. Nimitz) 제독의 조카인 소해정 AMS 함장 니미츠(C. E. Nimitz) 중위는 진남포 소해작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진남포 소해작전은 훌륭하지만 쉽지 않은 임무였다. 특히 우리의 첩보가 확인되지 않은 처음 며칠은 매우 힘들었다. 많은 불확실성과 빠른 조류는 소해작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때때로 우리의 위치에서 1,000야드 이상 떨어진 곳에서 기뢰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
> 우리는 11월 4일 오전에 '텍사스 트위스터(Texas Twister)'보다 더욱 빠른 태풍과 조우하였다. 기상나팔이 울리고 대부분의 승조원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함정의 현측에 계류 중인 볼스터함의 선체로부터 철판이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
>
> 내가 함교로 가기도 전에, 2개의 홋줄이 떨어져 나갔고 약간의 피해가 있었다. 파고는 매우 높았다. 풍속이 70노트가 되는 돌풍은 흙탕물을 일으키면서 함교를 때렸다. 그래서 우리는 진남포가 아무리 내항이지만 다른 함정에 계류해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폭풍은 거의 24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급속하게 세력이 약해졌다. 폭풍우는 혹독하였지만, 반면 행운도 있었다. 4개의 접촉기뢰가 고정된 부이에서 떨어져 나와 수면으로 떠올라 항공기와 함포로 폭파시켰다. 폭풍우 속에서 카타마운트(USS Catamount, LSD-17, 함장 Kenneth Loveland 중령)함은 진남포 항내로 입항하였다. 아쳐 중령 세력 중 마지막으로 투입된 카타마운트함의 도착은 해군작전

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고, 소해작전에 참가한 첫 번째 LSD가 되었다.

소형의 AMS와는 달리, 전장 458피트, 전폭 72피트, 4,960톤의 카타마운트함은 큰 파도가 치는 대양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 선체모양은 다른 함정과 달이 이상하게 생겨서 선수는 짧고 높은 건현을 가지고 있었다. 거대한 함교와 함미쪽에 소형 소해정을 진수하거나 탑재할 수 있도록 정사각형의 공간이 있었다. 또한 이 함정은 12척의 LCVP와 요코스카와 사세보에서 탑재한 소해장비를 탑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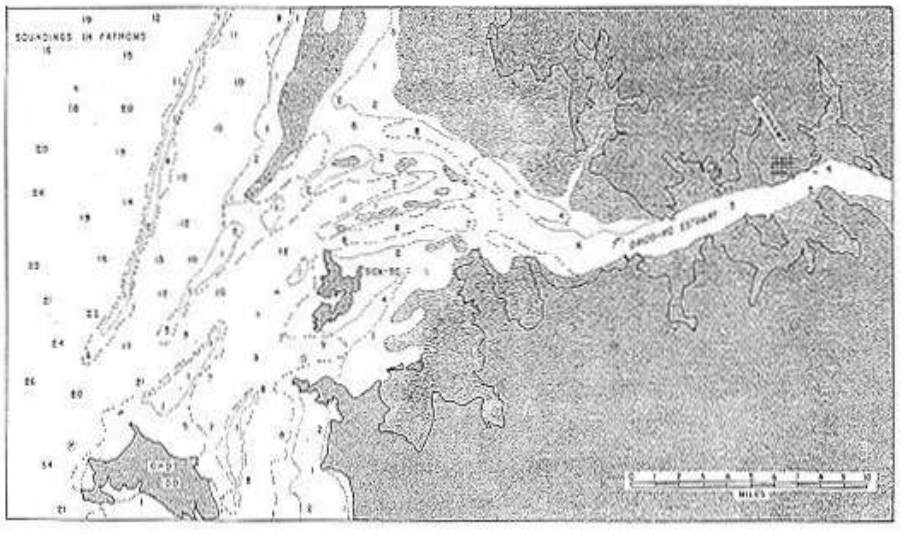
LCVP의 모함으로서 LSD의 주정 운용은 항공모함의 항공기 운용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소형 주정을 진수하고 탑재할 때 세심하게 시간을 맞추고 감독해야 했다.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이륙시키거나 착륙시킬 때 풍상쪽으로 항해하는 것과 같이 LSD는 주정운용을 위해 함수를 풍상쪽으로 항해해야 했다. LSD 주정통제 장교는 항공모함의 착륙유도장교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LCVP를 탑재한 카타마운트의 도착으로 아쳐 중령의 소해부대는 세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 소형 주정은 계류기뢰와 자기기뢰를 소해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즉 대형함정이 소해할 수 없는 저수심 지역을 항해하면서 소해가 가능하였고,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는 대형 소형함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항로의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아쳐 중령에 의하면, 진남포 기뢰원 위치에 대한 클레이 중령의 첩보가 소해임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더구나 북한 기뢰원에 대한 참모들의 정보보고서는 클레이 중령의 보고서에 의해 입증되었다.

한국함정인 YMS-503함이 진남포항으로 입항한 첫 번째 함정이었고, 기존에 획득한 정확한 정보가 함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다.[64]

진남포항에는 전부 212개의 기뢰가 부설되어 있었다. 주 입항 항로는 5개의 계류기뢰 라인과 1개의 자기기뢰 라인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북쪽에서 진남포로 접근하는 항로는 3개의 계류기뢰 라인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쪽 항로는 기뢰가 부설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개방되어



진남포항 접근항로

있었다. 영국 항모 테시우시함의 항공기가 사전에 기뢰 이송 바지선을 침몰시켜 북한군의 반격을 무산시켰다. 나중에 침몰된 바지선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15개의 기뢰가 탑재되어 있었다.

진남포에서의 전형적인 소해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 "펠리칸과 스왈로우함이 05:00시까지 항해하여 진남포 항로를 따라 계류기뢰를 제거한다. 반환점에 도착하면 계류라인을 따라 복귀한다. UDT 팀과 헬기는 소해표시 라인을 정찰하고, 그 지점에 위치하여 부이를 설치한다. 소구도 북쪽 해안에 있는 기뢰를 탐색한다. 2척의 LCVP는 소해된 해역을 점검한다. 4척의 LCVP는 자기기뢰 소해를 실시한다."

진남포 지역의 혹한의 날씨는 모든 소해정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으며, 특히 카타마운트함과 소형 보트들은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작전을 수행하였다. 얼음이 어는 아침에는 함미문(stern gate)을 열기위하여 스팀으로 발라스트 밸브를 녹여야만 했다. 또한 추운 야간에는 스팀은 LCVP 보트 엔진을 녹이는데 사용되었

다. 발라스트 탱크의 물을 빼면 주갑판 주위에서 생선들을 발견하여 부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진남포 소해작전이 종료되기 전에 13척의 일본용역 소해정 세력이 소해부대에 편입되었다. 일본 소해정은 소해되지 않은 구역에서 작전하는 것이 불허되었고 소해한 해역을 점검하는 일을 부여하였다.

10일간의 소해 작전 후인 11월 7일 이른 아침에 흘수가 낮은 함정들이 진남포항으로 입항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함정은 LSU-1402이었고, 순차적으로 함정이 입항할 수 있게 되어 8군에 필요한 보급물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

아쳐 중령은 스미스 제독에게 "임무완료"라는 전보를 보냈다.

처음에는 흘수가 낮은 함정만 소해된 항로 진입이 허가되었으며, 진남포 도선사 협회원들만 조함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이 협회는 글래드스톤(G. H. Gladstone) 호주 해군소령 감독하에 유엔 항해사와 조타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이었다.

클레이 중령은 11월 10일 첫 번째 LST를 입항시켰는데, 그날은 마침 한국 해군의 5주년 전야제이기도 했다. 한국해군창설기념일에 진남포항이 개항되었다는 것은 한국함정에 선물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쳐 중령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든 미군함정에 만함식을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다.[65]

수심이 깊은 항로는 11월 20일 개항되었고, 병원선인 리포우즈(Repose, 함장 대령 Charles H. Perdue)함은 깊은 흘수를 가진 선박으로서 최초로 입항을 하였다. 실제적으로 리포우즈함은 이전에 입항했던 함정보다 3배가 더 큰 대형 선박이었다. 글래드스톤 소령은 리포우즈함의 용골과 해저사이 간격이 1피트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 대형선박을 조함하였다. 기뢰에 접촉되는 것보다 해저에 닿는 것을 더 걱정했던 아쳐 중령은 성공적인 입항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송신하였다.

아쳐 중령은 만약 적의 저항이 있었더라면, 진남포 소해작전은 훨씬 어렵고 힘든 임무였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지속적인 공중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며, 또한 함정피해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서(USS Boxer)함에서 진수한 엔진상태가 불량한 전장 40피트 2대의 모터보트를 제외하고는 함정들의 임무수행은 훌륭했다. 한국해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LCVP들은 우수하게 임무를 수행하였고, 5개의 계류기뢰를 소해하는데 능력을 발휘하였다. LST는 헬기에게 이상적인 기지를 제공하여, 2대의 헬기들이 용이하게 LST에 이착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형 소해정에게는 보급 및 지원함정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량의 디젤오일, 보급식량 및 예비 소해장비를 수송할 수 있었다. 갑판은 소해장비를 교체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LSD는 소형 소해정의 수송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황천 시에도 임무수행은 훌륭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호한 보급선박 및 기름 탱커의 역할을 수행했다. 예를 들면, 진남포에서 카타마운트함은 소해구축함(DMS), 고속수송함(APD), 구축함에게 충분한 양의 기름을 제공하였다. 함대 탱커가 도착하면, LSD와 LST는 기름저장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서둘러서 돌아갈 수 있었다. 북한군과 대치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더구나, LSD는 처음으로 소해작전에 대해 훈련을 받는 한국 해군 장교 및 부사관들에게 훈련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사세보에서 소해작전을 위해 개조된 6척의 한국YMS 소속 해군들이었다. 보트 또는 AMS에서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저녁시간에, 한국 해군들은 미 해군 소해교범을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임무에 대해 토의를 하였다. 사세보로 돌아갈 때는 그들은 해상에서 소해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11월 말, 진남포항의 200마일은 소해되었고, 80개[66]의 기뢰가 제거되었다. 진남포 소해작전은 아직도 종료되지 않았다. 유엔 지상군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진격하였기 때문에 화력지원과 측면에서의 상륙지원이 필요하였다.[67]

진남포 소해작전은 1명의 손실이나 1척의 함정도 손실이 없게, 완벽하게 성공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해작전에 참가한 모든 군, 즉 미국, 영국, 한국 해군이 소해기동세력으로서 완벽하고 철저한 팀워크를 이룬 것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라고 아쳐 중령은 결론을 내렸다. 기상과 부족한 함정, 언어문제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던 함정, 인원 및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모두가 협력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10월과 11월에 한국에서 수행한 소해작전은 이 작전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다. 소해작전은 부단한 노력과 협력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장비, 즉 보급함, 모함, 기함, 부이함, 소형 보트 시설, 헬기기지, 기뢰제거팀과 UDT 등이 필요하며, 한국에서는 또한 화력지원함정이 필요하였다.

1950년 11월 말 기뢰소해는 미 해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소련은 분명히 우리와 독일이 가지고 있는 기뢰기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스미스 제독을 말했다. 미국은 앞으로 기뢰소해전을 대잠전이나 항모전과 같은 정도로 우선순위를 높여야만 했다.

4) 작전결과

원산소해작전이 종료되기 3일전인 1950년 10월 22일, 조이 제독은 제95선견부대사령관인 스미스 제독에게 진남포항 소해를 명령하였는데, 이는 한반도 서부지역에서 진격하고 있는 미 8군의 군수지원을 위해 진남포항의 확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산소해작전이 지연되고 거의 모든 소해세력이 원산에 치중하고 있었고, 특히 한반도에 부설된 기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는 수락하기 힘든 임무였다.

원산소해작전에서와 같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먼저 동해안과는 상이한 서해안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설된 기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장교를 파견하여 사전정보를 입수하였다.

진남포 근해는 수로학적인 상황이 원산항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항입구에 형성된 퇴적물로 삼각주라는 제한사항이 있었으며, 바닷물도 흙탕물이고 조수간만의 차는 최소 12피트, 조류는 5노트가 되어 기뢰제거에 부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소해세력은 소해 구축함(DMS), 소형 소해함(AMS), 한국 소해정(YMS), 헬기를 탑재한 LST가 먼저 파견되어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기뢰탐색은 기뢰 폭격용

항공기(PBM)와 헬기로 수행하였고, 해상에서는 특수전요원들이 직접 탐색작전을 실시하였다.

영국 항공모함 테시우스함 소속의 헬기는 기뢰 해역 탐색에 매우 유용한 자산이었으며, 다른 항공기의 초계비행으로 북한의 항공기와 해안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해함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된 첩보, 지식과 경험들을 총동원하여 기뢰부설 예측구역을 작성한 다음 헬기를 현장으로 보내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진남포 소해세력으로 편성된 소해 구축함에 의한 소해는 이 함정크기가 대형이라 좁은 해역을 효과적으로 소해작업하는데 부적합하여, 소형 소해함과 특수전요원에 의해 기뢰제거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진남포 근해에 내습한 태풍은 소해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카타마운트함(LSD)의 도착으로 황천 시에도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었고, 특히 12척의 LCVP는 저수심 지역에 대한 항해가 가능하여 계류기뢰와 자기기뢰를 제거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10월말부터 진남포지역의 혹한의 날씨는 소해작전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얼음으로 뒤덮인 장비를 스팀을 이용하여 녹인 후에 작업이 가능하여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드디어 10일간의 소해작업을 실시한 결과, 11월 7일 아쳐 중령은 상부에 소해작전 완료보고를 하였다.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장사동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적인 보장을 위하여 작전계획 수립자들이 작전을 실천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기만방책을 강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장사동상륙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한 작전이었다.

당시 정일권 총사령관은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낙동강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 동부전선의 포항지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상륙기습을 통한 양동작전을 지시했다. 그리하여 육군본부에서 예비병력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편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일명 제1유격대대(明부대 또는 772부대, 부대장 이명흠)가 편성되었다.

상륙부대는 한국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와 해운공사 소속 LST(문산호) 1척으로 구성되었는데, 상륙훈련에 대한 경험도 없고, 상륙에 필요한 장비와 무장이 없었으며, 상륙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못했던 작전으로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였다.

더구나 LST는 해상상태의 변화에 따라 조함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함정으로 특히 파도의 방향과 파도의 높이는 해안접안 시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인데, LST(문산호)가 장사동 근해에 투묘시점은 케지아(Kejia) 태풍이 지나가는 시점으로 한반도 동해안의 해상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68]

장사동상륙작전의 준비과정과 작전수행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겠다.

첫째, 소규모의 상륙작전이라도 상륙전 교리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륙작전은 계획(planning), 탑재(embarkation), 연습(rehearsal), 이동(movement), 돌격(assault)

등의 5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된다. 아무리 소규모 상륙작전이라도 단계와 준비시기가 단축될 수는 있지만, 상륙작전의 중요한 단계는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장사동 상륙작전 시에 충분한 준비과정과 상륙지점과 유사한 지점에서의 연습 아니면 도상 연습의 부족 그리고 기상상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격단계에서 부적합한 상륙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이다.

둘째, 상륙작전은 지·해·공군 자산의 합동작전과 사전 정보획득이 필수적이다. 상륙작전은 적지에 단순히 상륙군을 수송하는 작전이 아니라, 상륙이전에 상륙지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세력을 사전에 분쇄할 수 있는 함포지원사격과 공중공격이 필요하고, LST가 접안할 수 있는, 즉 암초가 없는 안전한 지역인지를 파악하고 함안 이동로를 명시하여 물때를 고려하여 접안해야만 한다.

그러나 장사동 상륙작전은 상륙세력을 지원하는 함포지원함정과 공중세력 그리고 상륙이전에 해안을 무력화시키는 선견부대 세력들과 같은 자산들이 총체적으로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감행하였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동상륙작전은 북한군의 작전배비를 교란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아군은 적군의 주보급로인 포항·영천방면으로 가는 국도를 완전 차단하여 적군의 후방활동을 마비시켰고, 또한 포항·경주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하였던 적 2개 연대와 전차 4대를 영덕방면으로 유인함으로써 전선의 적 작전배비를 교란시키는데 일시적으로 성공한 셈이었다.

2.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6·25전쟁의 전황은 수세에서 공세로 급전(急轉)되어 약 3개월간의 전쟁기간 중에 후퇴와 지연전 그리고 낙동강전선에서의 교착국면 상황이 아군의 신속하고도 일방적인 승리로 전환되었다.

작전소요기간은 북한은 남한 침공이후 낙동강전선까지 80일이 소요되었지만,

강력한 해상우세권을 바탕으로 수행된 상륙작전으로 단지 15일만에 6·25전쟁 이전의 국토의 회복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1950년 6월 29일 한국전선을 시찰하면서 물밀듯이 남하하는 북한군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에 대해 구상하고 결심한 것이 북한군의 보급선이 연장되면 적 후방에 있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계획은 미 합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는데, 8월 23일 도쿄에 열린 회의에서 맥아더는 강력하고 신념이 가득한 어조로 브리핑을 실시하여 결국 미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처럼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에서 지휘관의 신념과 결심이 전쟁승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전이었으며, 6·25전쟁에서 맥아더 장군의 입지는 강화되었다.

이 작전의 전반적인 성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는데,

첫째, 북한군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된 인천상륙작전은 직접적으로 낙동강전선의 북한군을 급속하게 와해시켰다.

둘째,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북한군의 전 병참선이 차단되었으며, 기타 부대의 공격이 이에 수반됨으로써 북한군의 참패가 동시에 초래되었다.

셋째, 성공적으로 완수된 이 작전에 의해서 인천 항만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시설이 북진 작전을 위하여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병력을 비교하면, 북한군은 인천상륙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인천에 주둔하였던 제9사단의 제87연대와 독립 제849대전차포연대를 낙동강전선의 보강을 위해 김천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는 인천경비여단 약 1,000명, 제31여단 1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서울에 제18사단을 포함하여 경인지구에는 총병력 약 20,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반면, 아군은 강력한 해상 및 공중우세권을 포함하여 상륙작전에 편성된 병력이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보병사단, 한국군 해병연대 및 제17보병연대 등으로 총병력이 75,000명이었다.

월미도 탈환 시에 피아피해 상황은 사살 108명, 포로 136명이고 그밖에 150여

명은 참호안에서 함포와 비행기 폭격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반대로 아군의 피해는 불과 사상자 17명뿐이었다. 그리고 2대의 항공기가 추락되었지만, 조종사는 모두 구조되었다. 이것은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의 일방적인 승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의 교훈을 몇가지 정리하면,

첫째, 상륙지역에 대한 사전정보획득의 중요성이다. 인천상륙을 위한 필요한 정보는 수로 및 해안조건과 방파제와 북한군의 방어태세에 관한 정보였다. 이러한 상륙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항공사진으로 조수상태를 촬영하여 연구하고, 한국 군정(軍政)기간 중 근무한 해군장병을 소환하여 면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정보를 정보확보 능력을 보유한 정보팀이 파견되어 입수하는 정보로서 그것을 인간정보(humint)라고 표현한다. 한국 해군 및 유엔군은 정보수집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해안의 주요도서인 덕적도와 영흥도를 탈환하였다.[69]

한국 해군 첩보팀과 유엔군 첩보팀은 영흥도에 본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포대의 위치와 수량, 해벽의 높이 그리고 경인(京仁)간의 부대집결소와 이동상황 등과 아군함정들이 인천수로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극동군사령부에 보고하였고, 이 정보는 상륙작전 수행에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둘째, 상륙작전과 병행된 기만작전의 효용성이다. 인천지역을 공략함으로써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시키고, 북한군을 전후방에서 협공하는 등의 전략적인 장점이 있었지만 상륙작전의 최대 장점인 "기습효과"[70]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기습효과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기만작전을 구상하게 되는데, 1항에서 전술한 장사동상륙작전, 군산상륙작전[71] 등과 전함 미조리(USS Missouri)함이 3척, 구축함 트라이엄프(HMS Triumph)함과 순양함 헬레나(USS Helena)함은 마양도에 함포사격을 하였다.

또한 월미도 상륙을 최대한 은폐하기 위하여 1950년 9월 12일부터 시작된 준비공격 시에도 서해안에서는 북으로는 평양 주변과 남으로는 군산 근방까지 폭

격지역을 다양화함으로써 인천이 상륙지역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전문적인 상륙세력인 해군·해병대의 전력유지이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막대한 미 해군세력이 무력화되고, 태평양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일본군의 세력이 팽창하고 있을 때, 전황을 뒤집은 해전이 미드웨이 해전이다. 이로써 미 해군은 해양우세권을 장악하고 해병대와 함께 과달카날, 사이판, 괌, 이오지마 섬들을 강력한 상륙전 세력을 바탕으로 탈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군·해병대의 상륙작전 전문성을 맥아더 장군은 신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와 무기체계의 발달로 상륙작전의 중요성은 약화되어 해병대의 병력은 급감되어 있었다. 극동군사령부는 미 합참에 1개 해병사단을 강력하게 파견을 요구하여, 태평양전쟁 시에 도서상륙전에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던 상륙세력이 재탄생하였던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시에 해군·해병대 항공기의 공중공격, 함포사격 등으로 월미도 및 주변 방어진지를 무력화시켰으며, 상륙전의 전문세력인 해병대가 최선봉부대로서 월미도 및 인천을 탈환[72]하여 서울수복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문적인 상륙전 세력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 한국해군 및 해병대는 새로운 무기체계(독도함, 해군항공대 등)를 근간으로 전문적인 상륙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원인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은 「리지웨이」 장군의 찬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 "대담한 구상과 전문적 수완에 의한 계획수립, 게다가 용감하고 공격적이며, 숙달된 작전 수행 역량으로 이 작전은 전사(戰史)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73]

3. 원산상륙작전

인천탈환 및 서울수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38도선 이북으로 북진하려는 맥

아더 장군은 지상군 세력을 분리하여 공격하고자 하였다. 미 제8군은 서부축선인 개성, 사리원, 평양으로 진격하고, 미 제10군단은 해상으로 우회하여 동해안 원산에 상륙하는 것이었다. 미 제8군과 제10군단을 연결하여 북한 수도인 평양을 협공하고 궁극적으로 압록강, 두만강까지 북진하는 대담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작전소요기간 분석으로 최초 계획은 미 제10군단과 제8군과의 임무교대, 미 제1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의 이동 및 탑재소요기간, 해상이동 및 상륙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0월 15일을 D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제10군단의 재탑재로 인천항의 과부하가 가중되었고, 수송수단의 제한으로 D일을 10월 20일로 수정하게 되었다.

인천에서 뼈아픈 작전실패를 경험한 북한은 열세인 해상세력을 극복하고, 더 이상의 상륙작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원산항 출입항 항로에 소련에서 지원받은 기뢰를 약 3,000개를 부설하였다.

유엔 및 한국 해군의 소해작전은 10월 10일 개시되었고, 다량의 기뢰로 인하여 5일 예상하였던 것을 결국 15일이 소요되었다. 원산상륙일자는 10월 20일에서 10월 26일 변경되었고, 미 제10군단 병력은 전장에 투사되지 못하고 해상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영흥만 소해작전으로 예상치 않은 아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엔함정 2척(USS Pirate, Pledge/10월 13일), 한국해군함정 2척(FS 영등포정/10월 18일, AMS-516), 일본 소해정 1척(JMS-19/10월 18일)이 부설된 기뢰에 의해 침몰되었다. 미 소해함 침몰로 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2명 전사했으며 부상자중 1명이 나중에 사망하였다. 한국 소해정 침몰로 15명이 전사하였고, 중상은 11명이었다.[74]

투입된 소해세력은 소해구축함 2척, 철재 소해함 3척, 목재 소해함 7척, 일본 소해정 8척이었으며, 원산상륙에 동원된 함정은 약 200여 척이었고, 상륙군은 미 제10군단으로 편성되었다.

원산상륙작전의 최초구상은 인천상륙작전의 복사판에 가까워서 작전적 성공을 기대하였지만, 예상치 않은 다량의 기뢰부설, 보급지원 및 지휘통제의 문제, 한

국군의 원산점령으로 인한 행정적인 상륙작전 실시, 상륙군 병력이 1주일이나 해상에서 대기(Yo-Yo 작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산상륙작전의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 기뢰는 해상거부(海上拒否)[75]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산이다. 6·25 전쟁 전체 기간 동안 해상통제권을 유지하였던 유엔 및 한국 해군에게 북한해군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동서해 주요 항구에 기뢰를 부설하는 것이었다. 물론 인천에서는 소량의 기뢰밖에 부설하지 못하여 "해상거부전략"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원산에서는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약 4,000개의 기뢰는 유엔 해군을 "거부"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둘째, 부설된 기뢰정보의 중요성이다. 소해전대는 영흥만에 부설된 기뢰의 종류가 무엇인지, 부설기뢰가 몇 발정도인지, 어떤 항로에 몇 미터 간격으로 부설되었는가 하는 정보가 미흡한 상태로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소해기간이 예상보다 초과하였고, 5척의 함정이 기뢰를 접촉하여 침몰하였다.

부설기뢰의 종류는 소해방법을 결정(접촉기뢰, 자기기뢰 등)하게 하고, 항공기, UDT 및 소해함정 등 소해자산을 결정하게 한다. 또한 부설기뢰의 수량은 필요한 소해자산의 활용방법을 결정하게 한다. 그만큼 부설된 기뢰의 사전정보는 기뢰전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영흥만을 소해하기 이전에 정보자산에 의하여 위에서 언급한 기뢰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였더라면, 훨씬 더 영흥만 소해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이다.

셋째, 기뢰탐색 및 소해자산의 중요성이다. 소해작전의 절차는 기뢰원 예상지역 해도기점, 기뢰탐색, 소해자산 결정 및 기뢰제거 등으로 열거할 수 있는데, 사전 기뢰부설정보에 따라 기뢰원을 기점하고 소해항로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대 무기체계는 기뢰전의 기능에 따라 기뢰탐색함, 기뢰부설함, 기뢰소해함 등이 있는데 6·25전쟁 당시에는 기뢰탐색함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기뢰소해함이 소나로 기뢰를 탐색하여 해도에 기점하고, 소해기구로 기뢰를 제거하였다. 그래서 기뢰위치를 모르는 소해함은 침몰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작전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재래식 전쟁이나 현대전에서도 기뢰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뢰를 효과적으로 탐색, 부설, 제거할 수 있는 기뢰탐색 및 소해자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4. 진남포 소해작전

원산소해작전이 종료되기 이전에 극동해군사령관 조이(Joy) 제독은 제95선견부대사령관인 스미스(Smith) 제독에게 진남포항 소해를 지시하는데, 이는 한반도 서부지역에서 진격하고 있는 미 제8군의 군수지원을 위해 진남포항의 개항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원산에서와는 달리 진남포 소해작전은 함정 및 인명피해가 전혀 없는 완벽한 소해작전이 되었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진남포 해역특성 및 부설된 정보파악의 유용성이다. 원산에서의 실패를 재현하지 않기 위하여 선견부대에서는 정보팀을 파견하여, 동해안과 전혀 다른 지형인 진남포해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설된 기뢰정보를 수집하였다.

소해작전 이전에 파악된 정보는 가장 효율적인 소해자산을 결정하게 하였고, 기뢰부설 정보는 소해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진남포 해역특성에 적합한 소해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다. 진남포 소해작전을 할 때, 좁은 해역에 유용한 소형 소해함을 투입하였고, 특수전 요원(UDT)들은 기뢰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진남포 근해에 배치된 영국 항공모함의 헬기는 기뢰탐색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산이었다.

또한 대형상륙함인 카타마운트함(LSD)의 도착으로 해상상태가 불량할 때도 소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LCVP의 모함으로 운용되어 LCVP는 저수심에서도 소해작전을 실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주 (註)

1) 상륙작전은 기본형과 기타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형에는 상륙돌격이 있으며 이는 적 해안에 상륙군의 전투력을 축적하는 것으로 기타형태와 구분되며 전술적 기습이 필요한 작전이다. 기타형에는 상륙철수, 상륙기습 및 상륙양동 등이 있으며, 상륙철수는 적 해안으로부터 항공기 또는 해군함정이나 주정에 의하여 해상으로부터 부대를 철수하는 작전이며, 상륙기습은 해상으로부터 적 해안에 상륙하여 목표를 신속히 습격 또는 임시 점령하는 것으로 계획된 철수가 수반된 작전이고, 상륙양동은 적을 현혹시켜 불리한 방책을 택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적을 속이기 위해 무력시위를 하는 상륙작전이다(해군대학, 『상륙작전』, 1998, p. 3). 위의 정의를 고려하면 장사동 상륙작전은 상륙기습 및 상륙양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일명 '명부대(부대장 이명흠) 또는 제772부대'라고도 하며, 이는 북한군 공세에 밀려 대구·부산 지구 방어전을 치르고 있을 때, 정일권 총사령관이 동부전선의 포항지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육본에서 예비병력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편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편성된 부대이다. 조성훈, 『6·25전쟁의 유격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3, p. 80.
3) 작전상 적을 기만하기 위하여 부대의 규모를 대대에서 사단으로, 중대를 연대로 위장 편성했다. 각 연대 병력은 약 180명으로 구성되었다. 부대장은 '동해안지구소공총사령관(東海岸地區掃共總司令官)'으로, 부관은 참모장으로 제1중대장은 제28연대장으로, 제2중대장은 제29연대장으로, 제3중대장은 제32연대장으로, 제5중대장은 제37연대장으로 했고, 계급도 각각 대령으로 했다. 조성훈, 『6·25전쟁의 유격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3, pp. 98-99.
4) 문산호는 2,700톤급으로 대한해운공사 소속이었고 선장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미군 기록에는 한국 상선으로 서술되었다(James A Field, Jr.(김종기 역), 『미해군 한국참전사』, 해군본부, 1985, p. 269).
5) 육군본부, 『육본작명』 174, 1950. 9. 10.
6) 조치원호는 당시 해운공사 소속으로 선장은 민간인이었음.
7) 공국진, 『한 노병의 애환』, pp. 112-113.
8)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128-131.
9)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224.
10)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p. 227.
11)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p. 133-134.
12)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137.
13)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작전편 제1집』, 1954, p. 137.
14) Malcolm W. Cagle, "*Incheon-The Analysis of a Gamble*",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80(January 1954), pp. 47-51.
1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Korea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he Army, 1961), p. 493.
16) Cagle and Manson, *Sea War in Korea* (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1957), p. 88.
17) 오진근·임성채 공저, 『손원일 제독』, p. 364.
18) Cagle and Manson, *Sea War in Korea*, pp. 88-92.
19) 셔먼(1896~1951) : 1917년 미 해사 졸업. 태평양함대사령관인 니미츠 제독의 부참모장, 제6함대 사령관, 1949년부터 1951년까지 해군참모총장 역임. 그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1950년 서태평양

구역에 항공모함 1척을 배비시켜 6·25전쟁 발발 시 미국이 즉각 대처할 수 있었다.

20) Cagle and Manson, *Sea War in Korea*, pp. 83-4.
21) Cagle and Manson, *Sea War in Korea*, pp. 84-5.
22)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Navy, 1962), p. 180.
23)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p. 211.
24) Curtis A. Utz, Assault From the Sea (Washington : 1994, Naval Historical Center), p. 23.
25) E.B. Potter, *Illustrated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avy* (New York, 1971), pp. 271-3.
26)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p. 193.
27) APD 3척 : USS H. A. Bass, Diachenko, Wantuck ; LSD 1척 : USS Fort Marion(3척 LSU 탑재).
28) 구축함 3척 : USS Mansfield, De Haven, Swenson ; LSMR : 401, 403, 404 ; 순양함과 구축함 9척 : USS Southerland, Gurke, Henderson, Toledo, Rochester, Collett, Mataco, HMS Kenya, Jamaica.
29)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p. 200.
30) Burton I. Kaufman, *The Korean War : Challenges in Crisis, Credibility and Command*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1997), pp. 51-8.
31) 맥아더는 「크로마이트」작전을 모델로 하여 38도선 이북으로 북진하여 북한군을 포위섬멸하기 위하여 제10군단이 다른 쪽 해안에 부차적으로 상륙포위를 수행할 계획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작전을 「테일보드(Tailboard)」작전이라고 명명되었다.
32) Jame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 pp. 115-6.
33)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113.
34) 육군사관학교, 『6·25전쟁사』, p. 405.
35)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114.
36) Jame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 p. 322.
37)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113.
38)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114.
39) 한국군 제1군단이 1월 1일 38도선을 돌파한 이후 매일 평균 14마일씩 진격하고 있었다.
40)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118.
41)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119.
42) Jame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pp. 182-3, 191-3, 245-6.
43) Cagle and Manson, *Sea War in Korea*, pp. 123-4.
44) Cagle and Manson, *Sea War in Korea*, pp. 123-4.
45) Cagle and Manson, *Sea War in Korea*, pp. 123-4.
46) 1패덤은 1.83미터로 오래전부터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사람의 신체구조로부터 유래한 많은 길이 단위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사람이 팔을 최대로 뻗었을 때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으로부터 다른 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거리이다.
47) 북한 해군은 북한 육군과 같은 시기인 1948년에 창설되었다. 실제로는 북한 해군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의 지원 하에 해안경비대로 조직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해군의 조직은 1전대 청진, 2전대 원산, 3전대 진남포 등 3개 전대로 구성되었다. 1945년과 1950년 사이 북한 해군의 주요 해상세력은 소련제 주정, P-4 어뢰정, 舊 일본군 소해정 및 舊 미국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8) Cagle and Manson, *Sea War in Korea*, pp. 51, 102-8, 132, 143-5.
49) Cagle and Manson, *Sea War in Korea*, pp. 143-5.

50) HMS(Her Majesty's Ship) : 영국 군함 앞에 붙이는 명칭.
51) 해군대학, 『6·25전쟁사』, pp. 323-324.
52) 최초 소해계획의 항로는 원산항의 남쪽항로서 수심 100패덤 선에서 시작하여 여도 남쪽으로 진행하여 상륙지점인 갈마반도까지 이어졌다. 10월 10일 첫날 작전에서 폭 3,000야드, 길이 12마일의 항로를 소해하였고, 21개의 접촉기뢰를 절단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이동항로 상에 다수의 기뢰원이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소해항로를 변경하였다.
53) 항공기에 의한 기뢰대항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항구의 소해를 위해서 스트러블 제독의 태평양 함대 기뢰전 부대가 시도했었다. 그러나 대형 항공기의 대형 폭탄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54)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 137-8.
55)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 138-146.
56) 해군대학, 『한국해전사』, p. 330.
57)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148.
58)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144.
59) 트렉터 전단에는 LST, LSM, LSD, LSU 등이 포함되고, 수송전단에는 화물 및 수송함 등이 포함된다.
60) Jame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 pp. 115-6.
61) LSD : Landing Ship Dock.
62)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 154-5.
63)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 156-7.
64)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 158-9.
65)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p. 161-2.
66) PBM 36개, 특수전요원 27개, 걸함 2개, 펠리칸함 1개, 바스함 1개, 일본 소해정 1개, 폭풍우로 12개.
67) Cagle and Manson, *The Sea War in Korea*, p. 163.
68) 기상청에서 발간된 태풍백서를 기초로 1950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간의 태풍경로도를 분석하면, 태풍 케지아(Kejia)는 9월 13일 일본 큐우슈우 상륙 시에 대형 A급 태풍으로 950헥타파스칼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태풍은 한반도 동해안으로 급선회하여 이동하였는데, 장사동 상륙일자인 9월 15일 새벽에 태풍의 위력이 절정에 달했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기상청, 『태풍경로도』, 1950년 자료 참조.
6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5권』, 2008, pp. 599-611 참조.
70) 기습의 효과는 『손자병법 허실편(虛實篇)』에 잘 설명되어 있다.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이 어디를 방어할지 모르게 하고, 방어를 잘하는 자는 적이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게 한다. 따라서 전승(戰勝)의 중요한 점이란 너무나 미묘하여 보이지 않으며 너무나 신비하여 들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능히 적의 생사를 맡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적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다)."
71) 영국함정 화이트 샌드 베이(HMS White Sand Bay)함을 주력으로 한·영·미군의 합동작전으로 군산에 상륙 공격할 양동작전계획을 세웠고, 군산시민에게 「해안에서 철수하여 내륙지방으로 피난하라」는 내용의 전단(傳單)을 살포하고 한국 해군은 이 지역을 임시 봉쇄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 제3권』, 1970, p. 647.
72) 맥아더 장군은 월미도 탈환 이후에 제7합동상륙기동부대사령관인 스트러블 제독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해군과 해병이 오늘 아침처럼 찬란하게 빛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1983, p. 137.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1983, p. 345.
74)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2001, p. 264.

75) 해상거부전략의 기본은 해상통제전략의 2대 기본임무인 해상통제와 해상투사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상통제형 해군의 대륙지향적인 임무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해상거부형 해군은 먼저 해상교통로를 잠수함 세력으로 교란하며 해안에 접근하는 적세력에 대하여 해안을 방어하려는 것이 해상거부전략의 핵심이다. 강영오, 『한반도의 해상전략론』(서울 : 병학사, 1988), pp. 49-50.



제 8 장 공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북한공군 능력
제 3 절	한국공군 작전
제 4 절	유엔공군 작전
제 5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던 한국군과 유엔군은 9월 15일 여명에 개시된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염원하던 반격의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8월 30일 수립된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1호에 따라 알몬드(E. A. Almond) 소장이 지휘하는 제10군단과 이들에 대한 해상병력수송, 항공근접지원과 함포사격 및 병참지원을 위해 미 극동해군이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유엔 공군은 9월 16일부터 대구-대전-수원 축선으로 진격하는 미 제8군을 공중지원하고 필요시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공수투하 및 엄호, 기타 공수작전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유엔군의 북한군에 대한 최초 공세는 1950년 9월 15일 알몬드 소장이 지휘하는 미 제10군단이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약 240킬로미터 북방에 위치한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낙동강방어선에 고착되어 있던 국군, 미군, 영국군으로 구성된 제8군이 다음날로 반격을 개시하였다.

이 시기 한국 공군은 유엔군의 반격을 지원하면서 부대확장 및 기지이전을 단행하였다. 공군비행단은 9월 23일 여의도기지로 이동하여 지상군 지원 및 후방차단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0월 24일 미림기지로 전개하여 지상군 진격작전을 지원하였다. 정찰비행전대는 14대의 L형 항공기로 전대본부 및 육군 3개 군단 파견대를 운영하면서 지상군에 대한 정찰과 연락 및 포관측 등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또한 공군본부는 10월 17일 대대적인 부대개편 및 확장을 단행하여 본부에는 병참감실을 신설하여 전시 병참지원을 강화하였고 정찰비행대를 정찰비행전대로 승격시켰으며 기존 항공기지사령부 예하 3개 기지부대를 5개 항공관구로 승격 확대하여 북진 시 확대될 작전 공역에 대한 원활한 통제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유엔 공군의 활동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천상륙작전 개시(9월 15일) 이후 국군 및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기 이전(9월 30일)까지의 시기로 낙동강방어선에 머물러 있던 미 제8군을 지원하여 낙동강방어선에 대치하고 있던 북한군을 격퇴시키며 서울로 북상하여 인천에 상륙한 미 제8군이 제10군단과 연결하고 제10군단이 원산상륙작전으로 임무를 전환하면서 제8군이 임무를 교대하게 되는 시기까지로, 이 시기 미 공군은 미 제8군에 대한 근접지원작전과 후방차단작전에 치중하면서 평양을 위시한 북한의 주요도시에 대한 전략폭격을 실시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맹렬한 북진을 감행하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 유엔 공군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작전과 함께 전선확장에 따라 병참선이 연장됨으로써 급증하게 된 지상군에 필요한 병력 및 물자, 장비의 수송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수작전에 치중하게 되었다.

<상황도 8-1> 1950년 9월 15일~10월 31일 유엔군공세도



김포기지가 탈환되기 이전,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극동공군 소속 전술 및 지원부대가 대구, 수원, 김포, 포항 등의 한국기지로 주둔지를 이동 전개하였다. 9월 17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사용가능한 유일한 전술기지는 대구기지였으며 극동공군은 연료보급과 전술항공기의 경유기지로 활용하였다.

9월 28일 미 제49전투폭격전대가 대구기지로 전개하였고,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시작하여 북한군을 축출하자 공군 시설병력은 포항기지를 시작

으로 비행장 복구를 시작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미 공군 비행부대들이 포항을 포함하여 복구된 서울 근교의 김포와 수원기지로 이동하였다.

또한 아군의 북진에 따라 유엔군은 원산, 신막, 평양, 신안주 비행장을 점령하여 한국 공군과 유엔 공군의 전초기지로 활용하였다.

<표 8-1> 공군 주요부대 및 지휘관(1950. 10. 31 기준)

부 대		주둔기지	주력 기종	지 휘 관
한국	공군본부	서울		총참모장 : 소장 김정열
	공군 기지사령부	서울		사령관 : 준장 최용덕
	공군비행단	평양 미림(K-24)	F-51, T-6	단장 : 대령 장덕창
	공군 정찰비행전대	서울 여의도	L-4, L-5	전대장 : 소령 오점석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도쿄(東京)		중장 George E. Stratemeyer
	제5공군사령부	이다쯔게(板付)		소장 Earl E. Partridge
	제8전폭전대	김포(K-14)	F-80	대령 William T. Samways
	제18전폭전대	수영(K-9)	F-80	대령 Ira L. Wintermute
	제49전폭전대	대구(K-2)	F-51, F-80	대령 John R. Murphy
	제35전투요격전대	포항(K-3)	F-51	대령 Jack D. Dale Jr.
	제51전투요격전대	김포(K-14)	F-80	대령 Oliver G. Cellini
	제3폭격전대	이와쿠니(岩國)	B-26	대령 Henry S. Brady
	제452폭격전대	이다쯔게(板付)	B-26	준장 Luther W. Sweetser
	폭격기사령부	요꼬타(横田)		소장 Emmett O' Donnell
	제19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대령 Payne Jennings. Jr.
	제98폭격전대	요코타(横田)	B-29	대령 Richard H. Carmichael
	제307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대령 John A. Hilger
	전투공수사령부	아시야(蘆屋)		소장 William H. Tunner
	제1병력수송전대	다찌가와(立川)	C-46, C-47	중령 Edward H. Nigro
	제314병력수송전대	아시야(蘆屋)	C-119	대령 Richard W. Henderson
	제374병력수송전대	아시야(蘆屋)	C-46/47/54	대령 Charles W. Howe
	제437병력수송전대	일본 브래디(Brady) 기지	C-46	대령 John R. Roche
호주	제77비행대대	포항	F-51	대대장 R. C. Cresswell

제 2 절 북한공군 능력

남침을 개시할 당시 북한 공군은 병력 2,800여 명에 전투기 84대, 저공습격기(폭격기) 113대, 훈련기를 포함한 기타 항공기 29대 등 총 22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1] 당시 북한 공군 편성은 각각 3개 대대로 편성된 1개씩의 추격기 연대(평양/신막)와 습격기 연대(평강/연포), 1개 교도연대(연포) 및 1개 공병대대(평양)로 구성된 1개 항공사단사령부(평양)가 실질적인 전투부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비행기지는 평양을 비롯하여 신의주, 안주, 청진, 연포, 평강, 신막, 선덕, 함흥, 원산기지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 비행군관학교(평양) 및 기술훈련소가 있었다. 또한 이들 항공기를 운용할 조종사들은 약 80명으로 보유 항공기 대비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2]

남침 첫날인 1950년 6월 25일 10:00시경 공습을 위한 사전 정찰 차 여의도와 김포기지 상공에 나타난 Yak 전투기 2대가 최초 활동 이후 김포, 여의도, 수원 등의 아군 비행기지와 용산역, 서울역 등 수송시설을 공격하여 아군 항공기에 대해 손실을 주었으며 미 공군과의 공중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미 공군이 전투에 참가하기 시작한 6월 27일 이후 북한 공군은 수적, 질적으로 압도하는 미 공군에 대항하지 못하고 미 공군 전투기들이 사라지면 공격을 감행하는 소위 '공중 게릴라 전술'로 작전개념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미 공군의 완전한 공중우세 확보 이후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처음 북한 공군 활동이 목격된 것은 9월 17일 새벽녘에 Yak-3기 2대가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중순양함 로체스터호를 공격한 사건이었다. 북한 YAK기는 로체스터호 주변에 폭탄 몇 개를 투하한 후 1대는 미 해군 함재기의 공격을 피해 달아났으나 나머지 1대는 영국 순양함에 기총소사를 하다가 영국의 자메이카호의 대공포에 격추되었다. 이후 북한 공군의 활동은 간헐적

으로 목격되었는데 개전 시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공격기 197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북한 공군 조종사와 공군기의 손실이 언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북한자료에 의한 확인이 가장 정확한 자료이나 현재 확인된 북한자료가 없으므로 아쉬운 감이 있지만 관련 당사국들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공군역사연구소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 의하면 미 공군 조종사들이 주장한 9월까지의 북한 공군기 파괴(Destroyed)대수는 총 78대이다. 6월과 7월을 합하여 45대, 8월에는 29대, 9월에는 4대를 파괴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손상(Damaged)을 입힌 항공기 대수는 총 34대이다.[3)]

<표 8-2>를 보면 작전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파괴를 포함한 작전장애를 초래한 손상까지 미 공군이 개전 초부터 1950년 10월 말까지 북한 항공기에 대해 입힌 타격은 총 112대로 최초 전력의 약 50%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은 10월에는 전혀 북한 항공기 손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북한 공군의 활동도, 미 공군의 북한 항공기에 대한 지상, 공중의 어떠한 형태의 공격도 없음을 의미한다. 즉 9월 말 이후 북한 공군의 작전능력은 전부 소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 공군 창설의 산파역을 맡았고 전쟁 발발 이후에도 북한 공군 전투력 복원과 재건의 후원자였던 소련이 발행한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 공군의 궤멸에

<표 8-2> 1950년 6~10월간 북한군 항공기 손실 현황(미공군역사연구소 자료)

구 분	파괴(Destroyed)		손상(Damaged)		계
	공대공	공대지	공대공	공대지	
6~7월	29	16	9	7	61
8월	2	27	0	10	39
9월	1	3	0	8	12
10월	0	0	0	0	0
계	32	46	9	25	112

가까운 손실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조사보고는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간의 북한 공군 손실에 대해 비행기 36대가 파괴되었고 이중 26대가 비행장에서 파손되고 공중전에서 10대가 격추되었다[4]고 적고 있다. 그리고 낙동강방어선에서 전선이 고착된 상황인 1950년 8월 26일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조사보고서는 북한 공군의 항공기 및 조종사 손실에 대해 <표 8-3>과 같이 적고 있다.[5]

<표 8-3>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미국 측 자료는 9월 말 기준 파괴 78대를 포함 총 112대의 북한 항공기에 대해 타격을 주었고, 소련측 자료에는 8월 24일 기준 총 109대의 항공기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조종사 손실에 관해서는 소련측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최초 51명으로 출발하여 7월 20일 약 50%인 25명이 손실을 입고 21명이 충원되었고, 8월 24일 기준 24명이 손실을 당해 충원된 인원을 포함 총 72명 중 49명이 손실을 입어 62%의 손실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항공기 손실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북한 공군은 전투력 부문에서 인적, 물적으로 반 이상이 감소된 수준으로 당시 유엔 공군의 전투상대가 되기에는 터무니없는 전력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에 지원 요청을 통해 공군력의 최우선적인 지원과 복구를 간절히 요청하였으며 1950년 10월부터 소련의 지원을 받은 중국 주둔 공군력이 출격하기 전까지 북한 공군은 활동을 중지한 채 전투력 복원을 고대하고 있었다.

<표 8-3> 북한 공군 항공기/조종사 손실현황

구 분		최초 보유	7월 20일 기준		8월 24일 기준	
			손 실	잔 류	손 실	잔 류
항공기	추격기	93	36	57	109	34
	습격기	84	49	35		2
조종사	추격기	26	15	11	16	6
	습격기	25	10	15	8	17

제 3 절 한국공군 작전

1. 부대 편성 및 재배치

인천상륙작전의 성패를 가름할 월미도 점령과 인천해안상륙작전이 약 100여 명의 아군 사상자만을 기록한 가운데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나고 남부에서의 미 제8군과 국군의 총반격이 가시화된 9월 중순, 후방지역인 진해(鎭海)에 위치하고 있던 공군비행단을 전선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총참모장 김정열 준장(1950년 10월 20일 소장 진급)은 한국 공군을 지원하고 있던 미 제6146기지부대[6]장 헤스(Dean E. Hess) 소령과 논의 끝에 당시 한국 내 기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미 제5공군 전방사령관인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준장을 방문하여 한국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서울 근처의 기지를 할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팀버레이크 준장은 김포기지로 공군비행단을 이동하도록 제의하였으나 당시 김포기지는 미 해병항공대 소속 전투기들과 미 공군 소속 수송기들이 배치되어 기지가 매우 혼잡하여 한국 공군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하였다.[7]

이에 김정렬 총참모장은 여의도기지로의 이동을 결심하고 팀버레이크 준장에게 여의도기지로의 이동을 타진하였으며 이에 팀버레이크 준장은 여의도기지로의 이동을 승인하는 대신 미 공군의 어떠한 병참지원도 없을 것임을 공언하였다.[8] 김정열 총참모장은 9월 23일 공군비행단 소속 전비행기를 9월 24일까지 여의도기지로 이동시키고 지원부대는 해군 LST편으로 진해에서 인천으로 이동하여 육로로 여의도기지까지 이동할 것을 지시(공본 작전명령 제51호)했다.[9]

비행단 정지작업은 9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활주로 보수공사를 할 만한 변변한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인력에 의존한 복구공사는 9월

22일 해군의 FS(소형수송선)를 통해 진해항을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여 9월 24일 여의도기지에 도착한 정비사들과[10] 헌병대 등 후속 지원 병력 500여 명이 주축이 되어 비행단장 장덕창(張德昌) 대령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으나 상황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비행단장은 여의도 부근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지 인근 주민들 중 지원자를 모집하였고 주민 1,000여 명이 동원되어 곡괭이, 삽, 낫 등 원시적 장비를 동원하여 민·군이 하나 되어 철야 작업을 진행하여 5,000피트의 활주로를 포함한 비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시설들이 1주일 만에 복구됨으로써 공군비행단의 여의도기지 작전은 본격화 될 수 있었다. 이후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공군비행단은 10월 30일 비행단 주력을 평양근교 미림비행장에 전개시킴으로써 북한지역 전투를 수행하게 된다.

유엔군의 반격작전이 개시될 당시 대구기지에서 작전을 벌이던 정찰비행대(10월 17일 공군본부 편제 개편에 따라 전대로 승격)는 9월 16일 미군이 L-4기 4대를 한국군에 양도하겠다고 통보하자 오점석 대위 이하 3명이 수영비행장에서 이를 인수하여 영천기지로 이동하였으며 본대를 포함한 정찰비행대는 9월 17일부터 영천기지에서 작전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전술정찰대는 L-4 11대를 포함해 총 14대의 항공기(L-5 2대, L-19 1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육군 각 군단별로 파견대를 두어 육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제1군단 파견대는 경주에서 10월 4일에는 강릉으로, 10월 14일에는 원산으로, 10월 23일에는 함흥으로 전진하였다. 제2군단 파견대는 9월 27일까지 안동에 주둔하다가 9월 29일에는 여의도기지로 이동하였다가 10월 11일에는 포천, 10월 15일에는 평강, 10월 17일에는 곡산, 10월 22일에는 성천, 10월 27일에는 개천으로 진출하였다가 11월 1일 순천(평양북방)으로 남하하였다. 전술정찰대 본부는 10월 16일 창설예정인 제3군단 파견대와 함께 10월 3일 영천에서 서울로 전진하였다.

한편 공군본부를 위시한 공군의 지원부대들도 인천상륙작전의 소식이 전해지자 각 제대별로 서울로의 이동을 실시하였다. 대구에 위치하고 있던 공군본부는 9월 24일 인사국장인 한용현 중령을 선견대장으로 병력 20명을 육로로 출발시키

는 한편 잔여 선견대 병력을 해군 단양호 편으로 9월 27일 진해를 출발시켜 이틀 뒤인 9월 29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육로로 영등포로 진출 성남중학교에 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김정렬 총참모장도 이날 도착하여 선발대를 격려하였다. 이틀 뒤인 10월 1일 선견대는 서울 회현동에 위치한 구 공군본부 청사에 진출하였다.[11] 이틀 후인 10월 3일 이길성 대위는 공군본부 병력 147명과 비행단 잔여병력 및 공군병원 주력인원을 이끌고 육로 및 해상으로 서울을 향해 출발하였으며 공군본부 전 병력은 10월 10일부로 서울에 집결 완료하게 되었다.

기타 지원부대 이동 상황으로 부산 동래읍에 위치하고 있던 공군병원은 이전에 설치하였던 대전, 김해, 포항 분원에 더하여 9월 30일 김포분원을 설치하였으며 병원 본대는 강현우 중위가 인솔하는 36명은 해상으로, 김성환 소위가 인솔하는 7명은 차량 4대를 이용하여 육로로 이동하여 10월 13일 충무로 서울가정보육사범학교로 이전하였고, 진해에 위치하고 있던 공군사관학교는 10월 16일 영등포 성남중학교를 임시교사로 정하고 이전 완료하였다. 또한 공군 중 유일하게 여의도기지 탈환 작전 등 지상전투[12]를 치르면서 기지 및 시설보호를 담당하고 있던 공군 헌병대 본부 및 선견대는 공군본부 이동과 함께 서울로 복귀하였다. 또한 공군 헌병대는 북한지역 비행장 확보를 위한 선발대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10월 16일에는 평양에 헌병 10명으로 파견대를 설치하여 비행단 전진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10월 21일에는 미림기지 확보를 위해 공로(空路)로 헌병 15명을 미림기지에 파견하여 10월 31일부터는 미림기지 경비를 담당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유엔군이 점령한 평안남도 신안주에 헌병 11명을 파견하여 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북한에 파견된 이들 헌병파견대들은 이듬해 1월 5일 전원 대구로 철수하기까지 기지 경비 및 시가지 정찰, 포로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13]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이 현실화 되자 공군본부는 10월 17일 당면한 군수지원 문제와 항공구역 관할을 위해 편제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상황에 따른 즉응적인 편성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38°선 이북으로의 북진 통일작전에 수반하여 장차 공중전력 발휘에 기초가 될 편성”[14]을 지향한

<표 8-4> 항공기지사령부 예하 항공관구편성[15]

관 구 명	본부위치	관 구 장	예하 부대(기지)
사령부 본부	서 울	사령관 최용덕 준장	
제1항공관구	서 울	김연기 대위	김포, 수원, 옹진, 춘천, 강릉, 해주
제2항공관구	대 전	이갑록 대위	대전, 평택, 군산, 광주, 제주
제3항공관구	대 구	박원석 소령	대구, 포항, 김해, 수영, 진해, 사천, 울산
제4항공관구	평 양	허영걸 소령	평양동구, 신막, 온정리, 신의주
제5항공관구	원 산	전경남 중위	원산, 평강, 선덕, 연포, 회령, 함흥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으로 공군본부에는 병참감실을 신설하여 병참선 연장에 대비하였으며 활동공역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이전 제주, 포항, 김해 기지부대로 편성되어 있던 항공기지사령부를 <표 8-4>와 같이 5개 항공관구로 확대편성하고 10월 20일 각관구의 부대장과 관할 기지를 임명하였다.

2. 작전활동

1) 공군비행단

9월 15일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될 당시 공군비행단은 진해에 주둔하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개시 이전 공군비행단은 8월 중순 이후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을 정면에서 받고 있던 미 제25사단이 북한군과 마산 근처의 서북산과 전투산, 필봉 쪽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고, 전황이 다급해진 미 제25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은 근접항공지원이 용이한 한국 공군비행단에 하루 최대 6회에 이르는 항공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공군 F-51 비행부대는 미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매일 출격하였고, 주로 낙동강 후방에

있는 적의 기동병력과 보급품집적소를 표적으로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적 6사단과 7사단의 배후에서 차량과 진지를 파괴하고 병력을 사살하였다.[16] 9월 10일 청주지역 대지공격임무를 띠고 이상수 중위와 미 공군 윌슨(Willson) 대위와 편조를 이루어 이륙한 장동출 중위가 활주로를 이탈하여 바다에 추락 전사하는 비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음날 즉시 박희동 대위가 김천지역으로 출격하여 적병 20여 명을 사살하고 보급품집적소 3개소, 차량 3대를 파괴하였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북진하는 아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F-51 전력을 대구기지로 전개하여 출격을 계속하여, 9월 21일 대구기지를 이륙한 F-51 4기 편대는 영천과 의성 간을 비행하던 중 화성동 근처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적 화물열차에 대해 로켓탄과 기총사격을 가하였다.[17]

9월 23일 진해에서 여의도로 이동한 비행단은 이동하자마자 전술임무에 투입되었다. 기지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오직 이착륙만 가능한 시설에서 조종사들은 6·25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전개된 공세작전 지원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기쁨으로 작전에 매진하였다. 당시 공군비행단이 보유한 항공기는 F-51과 T-6항공기였다. F-51항공기는 지난 7월 최초 10대 도입 이후 그동안의 손실[18]과 이후 추가로 제공된 항공기를 포함해 작전 가능한 항공기는 9월 30일 기준 총 10대[19]였으며, T-6항공기는 9월 기준 6대였다. 비행단 정지작업이 완료되자 한국 공군은 6146부대원들과 연합으로 작전 수행을 위한 전투준비에 착수하여 미 제5공군으로부터 연료와 폭탄, CAL-50기관총, 로켓탄 등 보급지원을 받는 한편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신유협 소령, 김두만 중위, 전봉희 중위를 F-51전투기 조종사로 새로이 임명하여 전투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비행단내 F-51 전투조종사로 임명된 이는 모두 8명(신유협 소령, 박희동 대위, 강호륜 대위, 정영진 중위, 이상수 중위, 김성룡 중위, 김두만 중위, 전봉희 중위)이 되었다.[20] 새롭게 F-51 전투조종사로 편입된 이들은 T-6기 조종사로써, 원래 기동전환 훈련에는 60시간정도의 훈련이 필요하였지만, 이들은 개인당 평균 15~20시간씩의 F-51전투기로 기종 전환 훈련을 끝내고 출격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은 급박한 전투상황에 맞추어 F-51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들은 비행훈련을 거듭하면서 차츰 비행기량이 높아짐에 따라 평양을 포함한 북한 북서부지역에 대한 출격을 감행하였다. 작전을 위한 제반조건이 이루어지자 F-51전투기는 3개의 편대로 구성하여 편대별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는데, 제1편대는 지상군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원주, 영월, 횡성, 홍천, 춘천, 양구, 철원, 평강, 회양 등지로 퇴각하는 잔적을 소탕하는 것이었으며, 제2편대는 후방차단작전, 즉 평양, 진남포, 함흥, 사리원, 해주, 이천(伊川), 송림(겸이포), 남시, 강계, 만포진 등 서부전선의 전략요충지와 공장지대, 보급소와 전투지휘소, 주요 간선 도로망에 대해 폭탄과 로켓탄을 사용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남하하는 보급차량을 공격하여 북한군에 대한 보급지원을 차단하는 것이었으며, 제3편대는 계획되지 않은 긴급한 지원요청 발생 시 출동하여 지상군 작전에 협력하는 것이었다.[21]

여의도기지에서 첫 출격임무를 부여 받은 것은 제2편대였다. 9월 23일 오전 3기 편대는 신의주를 공격하여 트럭 3대, 군용건물 5동을 파괴하고, 오후에는 4기 편대로 재차 신의주를 폭격하여 교량 3개소와 차량 3대, 군용건물 10동을 파괴하였다. 한편 제1편대는 9월 24일 첫 출격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동부 및 중부전선의 국군정면에 적을 포착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한편 항공기에서는 통신수단이 빈약하여 수신호와 기체의 요동에 의한 신호등으로 의사를 소통하였고, 또한 지상의 피아간 식별과 고정 목표물에 대한 탐색은 경험으로 실시하였는데 항공기에서 지상이동병력의 피아간 식별 요령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22]

> 첫째, 행군하여 갈 때 아군은 도로를 따라 행군하나, 적은 산비탈을 따라 가거나 도로 밖에서 행군한다.
>
> 둘째, 아군의 복장은 단일하게 통일되어 있으나, 그들의 복장들이 가지각색이다.
>
> 셋째, 아군은 총을 어깨에 메고 가는데 비해, 적은 총을 옆구리에 끼고 간다.
>
> 넷째, 아군은 수송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는데 비해 적은 우마차, 오토바이 등으로 복잡하게 혼용한다.

다섯째, 아군의 군사목표는 위장을 잘하지 않는데 비해 적은 주위환경을 이용하여 교묘히 위장한다.

여섯째, 한국군은 전차가 없는데 비해 적은 전차가 있다(1950년도 말까지 한국군은 전차를 쓰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공군비행단은 전투기 10대로 여의도기지로 전진하는 즉시 미 공군과 협조하여 북한 서북지역에 대한 근접지원 및 후방차단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주로 적의 이동 병력이나 군용건물과 보급품 집적소, 조차장을 비롯하여 기관차와 마차, 트럭 등의 수송행렬은 물론 교량 등 수송로상의 중요 거점을 공격하여 폭파하였다. 9월 23일부터 작전을 개시한 비행단은 미림기지로 전진하기 전인 10월 13일까지 신의주, 용암포, 곽산, 중화, 신안주, 평양, 박천, 겸이포, 남시, 강계, 양포진 등의 각 지구에서 폭탄과 로켓, 기관포탄 등으로 공격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여의도기지에서의 출격상황을 날짜 별로 살펴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23]

9월 23일, 박희동 대위와 김성룡 중위 및 미 공군 1명을 포함한 F-51 3기 편대는 신의주 지역에 대한 공격에서, 125㎏ 폭탄 2개와 로켓탄 18개, 기관포탄 2,500발을 사용하여 적의 트럭 3대와 군용건물 5동을 격파하고 돌아왔다. 이어 이날 오후, 정영진·김성룡 중위는 미 공군 2명과 같이 F-51 4기 편대로써 역시 신의주 상공에서 로켓탄 24개와 기관포탄 3,900발을 적진에 퍼부어 교량 3개소를 파괴하고, 차량 3대와 군용건물 10동을 격파하였다.

9월 24일에는 박희동 대위, 정영진·김성룡 중위와 미 공군 1명이 편대로 구성된 F-51전투기 4기 편대는 이날 14:50분에 여의도를 이륙하여, 용암포 상공에 이르러 로켓탄 24개와 네이팜탄 2개, 기관포탄 3,700발로 교량 3개소를 비롯한 적의 군수품 수송용 마차 1대와 군용건물 2동을 파괴시켰다. 이날 기지로 돌아온 정영진 중위는 다시 미 공군 2명과 더불어 3기 편대로 선천지역으로 출격하여, 로켓탄 18개와 네이팜탄 4개, 기관포탄 2,500발로 적의 차량 6대와 보급품 집적소 2개소를 분쇄하였다.

9월 27일에는 박희동 대위와 정영진 중위, 그리고 미 공군 조종사 2명 등의 F

-51전투기 4기 편대는 곽산 지역 상공에서 적의 차량 1대와 교량 3개소를 폭파하였는데, 125kg 폭탄 4개와 로켓탄 24개, 네이팜탄 1개, 기관포탄 3,400발로 목표를 공격하였다. 이날 이들과 편대를 달리한 강호륜 대위와 김성룡 중위 및 미군 2명의 F-51 4기 편대는 로켓탄 24개와 네이팜탄 4개, 그리고 기관포탄 3,900발로 평양 근교에서 적의 차량 2대와 군용건물 2동을 폭파하였다.

9월 29일에는 김성룡, 그리고 미군 2명으로 편성된 F-51 편대는 로켓탄 24개와 네이팜탄 4개, 기관포탄 3,100발로 중화지역에 출격하여 적의 차량 6대와 기관차 2대, 군용건물 3동을 여지없이 폭파하였다. 한편 이날 박희동 대위와 정영진 중위 및 미군의 또 다른 조종사 2명을 포함한 F-51 4기 편대는 평양 상공에 이르러 로켓탄 24개와 네이팜탄 4개, 그리고 기관포탄 3,800발로 적의 차량 4대와 군용건물 10동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9월 30일에는 강호륜 대위와 정영진·김성룡 중위 등 한국 공군 조종사 3명과 미 공군 조종사 1명으로 편성된 F-51 4기 편대는 이날 신안주에 출격하여 교량 2개를 파괴하였다.

10월 1일에는 박희동 대위와 김성룡 중위, 그리고 2명의 미군 조종사를 포함한 F-51 4기 편대는 진남포에 출격하여 로켓탄 24개, 네이팜탄 4개, 기관포탄 3,900발로 적의 군용건물 15동을 차례로 불태워 버렸다. 이어 이날 정영진·김성룡 중위, 그리고 미군 2명의 4기 편대는 다시 평양 상공에서 작전상 중요한 교량 1개소를 절단하고, 적의 군용 건물 7동을 파괴하는 한편, 조차장 1개소를 폭파하였는데 125kg 폭탄 4개와 로켓탄 4개, 그리고 기관포탄 3,600발을 사용하였다.

10월 2일에는 박희동 대위, 정영진 중위와 미 조종사 2명, 김성룡·이상수 중위와 미 조종사 2명, 전봉희·김두만 중위와 미군 등으로 구성된 F-51 4기 3개 편대는 신의주, 박천, 겸이포 등지에 출격하여, 적의 차량 6대와 군용건물 11동을 격파하고 적병 35명을 사살하였다.

10월 5일에는 강호륜 대위와 김성룡 중위, 그리고 미군 2명으로 편성된 F-51 4기 편대는 남시를 거쳐, 신의주 방면에 출격하여 로켓탄 24개와 네이팜탄 6개,

기관포탄 3,200발로써 남시의 교량 1개소를 폭파하고 신의주에서는 적의 군용건물 6동과 조차장 2개소를 파괴시켰다. 이와 편대를 달리한 정영진·이상수 중위와 미군 2명의 F-51 4기 편대는 이날 강계 상공에서 적의 군수품 수송용 기관차 5대와 군용건물 2동, 교량 1개소를 125kg 폭탄 4개와 로켓탄 24개, 기관포탄 3,800발로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10월 10일에는 강호륜 대위와 정영진·김성룡 중위, 그리고 미군 1명의 F-51 4기 편대는 강계시가 상공에서 125kg 폭탄 2개와 로켓탄 24개, 기관포탄 4,000발로 적의 군용건물 2동과 교량 2개소, 그리고 적의 차량 1대를 공격하여 이를 대파하였다. 10월 13일에는 정영진·김성룡 중위, 그리고 2명의 미군들을 포함한 F-51 4기 편대는 로켓탄 24개와 네이팜탄 4개로써 강계와 만포진 방면에 출격하여 교량 2개소와 차량 5대를 대지공격으로 파괴하고 적병 20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이날 이상수·전봉희 중위, 그리고 미군 2명으로 편성된 F-51 4기 편대는 250kg 폭탄 4개와 로켓탄 4개로 평양 상공에 이르러 작렬하는 대공 포화 속에서도 이를 헤치며 목표물을 향하여 공격을 가하였다. 이들이 인민군총사령부 건물[24]과 인근의 김일성 가옥을 공격하던 중, 이상수 중위가 적의 지상 포화에 피탄 되어 기체와 더불어 24세의 나이로 장렬히 산화하였다.[25]

공군비행단은 10월 14일부터 한국 서북지역의 폭격을 중지하고, 10월 24일을 기하여 평양의 미림기지로 전진하게 되었는데,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비행단이 여의도기지에서 세운 전과는 다음과 같다.

적의 군용건물 파괴 ····· 110동
적의 차량 폭파 ····· 40대
작전상 주요교량 파괴 ····· 18개소
적 보급품집적소 폭파 ····· 2개소
군수품 수송용 우마차 폭파 ····· 1대
군수품 수송용 기관차 ····· 7대
적 조차장 폭파 ····· 3개소
적병 사살 ····· 55명

한편 기간에 비행단 공군 조종사와 미 공군 조종사들이 출격횟수는 약 40회와 34회로써 총 74회에 달하고 있다. 이 시기 미 공군 측은 폭탄과 네이팜탄을 주로 사용하였고 한국 공군은 기관포(Cal 50)과 로켓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미 조종사간 무장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26]

그리고 기간 중 공군 조종사 개인별 출격횟수는 김성룡 중위 12회, 정영진 중위 11회를 비롯하여 박희동 대위 6회, 강호륜 대위 4회, 이상수 중위 3회, 김두만 중위 2회, 전봉희 중위 2회였다.

10월 1일 국군 1군단이 38°선을 돌파하고 10월 10일 원산에 도착한 후 10월 19일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게 되자, 이에 여의도기지에서 출격하여 한국 서북지역의 적진을 강타하고 있던 비행단은 국군과 유엔군 지상병력의 빠른 진격속도에 맞추어, 지상군에 대한 적시적인 근접항공지원을 보장하고 공중 수송로의 단축을 위해 비행단을 북한지역으로 전개해야할 필요성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작전효율성의 문제였다. 공군의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은

<표 8-5> 탄약 소모 현황(1950. 9. 23~10. 13)[27]

일자	탄약 소모(한국 공군)		탄약 소모(미국 공군)			
	기관포탄	로켓탄	기관포탄	로켓탄	폭탄	네이팜탄
9. 23	1,800	24	700	18	2	4
24	5,900	24	4,200	18	6	
27	4,000	24	3,200	24	8	
29	3,600	24	3,300	24		8
30	2,800	18	700	6	2	
10. 1	4,100	24	3,400	24	4	4
2	5,300	36	5,000	36		8
5	3,800	24	3,200	24	4	4
10	3,200	18	800	6	2	
13	3,900	24	3,600	2	4	4
계	39,400	240	28,100	204	26	38

적시적인 지원이 관건이다. 즉 지상군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작전지역)에 적시에 도달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지상군 접적지역의 최근(最近) 후방기지에 항공 전력을 배치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작전지원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평양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지로의 이동은 지상군 작전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로는 여의도기지의 혼잡성 회피의 문제였다. 공군비행단이 9월 23일 처음 여의도기지로 이동할 때만 해도 기지 공간은 여유가 있었으나, 미 제5공군의 전진기지로 지정됨에 따라 일본에서 출격하는 UN 공군 폭격기를 유도하는 대구기지 소속 모스키토(T-6) 정찰기가 여의도기지를 중간 급유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숙천과 순천지역에 공수투하 예정인 미 육군 제187연대전투공정단의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C-119 23대와 C-54 9대가 전개해와 여의도기지는 매우 번잡하였다.[28] 또한 한국 내 공군기지에 대한 기지사용과 기지 내 임무 할당에 대한 권한을 제5공군이 갖고 있음으로 인해 한국 공군비행단의 기지사용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군 총참모장 김정열 장군과 미 제6146기지부대장 헤스 중령[29]은 비행단의 북한 지역으로의 이동 문제를 놓고 사용 가능한 기지를 검토하던 중, 평양 동쪽 약 8마일 떨어져 있는 미림기지(동 평양비행장)를 발견하였다. 미림기지는 일본군이 건설한 기지로 활주로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배수시설이 양호하였으며 기타 비행지원시설이 양호한 편이였다. 당시 미림기지는 미 육군 보병중대가 점령하고 있었으나 헤스 중령의 설득[30]으로 보병중대가 미림기지에서 철수하자 제5공군전방사령관인 팀버레이크 장군에게 공군비행단이 미림기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팀버레이크 장군은 흔쾌히 승낙하며 기지 이동시 수송기를 지원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팀버레이크 장군의 수송기 지원약속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데, 이전까지 제5공군이 직접 한국 공군의 작전을 지원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는 향후 미 제5공군 사령부가 직접 한국 공군비행단의 작전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팀버레이크 장군의 승인을 받은 후 미림기지는 K-24로 명명되었다.

공군이 미림기지 확보를 위해 10월 16일에는 10명의 공군헌병을 미림기지로 파견하였으며, 21일에는 15명의 헌병을 증파하여 미림기지를 확보하였다. 10월 24일에는 비행단 주력의 평양 전진에 앞서 서무갑 소령을 선견대장으로 하여 20명의 대원으로 미림기지에 전진하도록 하여 비행단의 평양 진출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이어 10월 30일에는 김규철 대위 이하 74명의 비행단 주력이 미림기지로 전진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미림기지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였으며 일본이 항공정비창으로 사용하던 공장에는 북한군이 주민들로부터 징발한 양곡들이 가득 차 있었고 각종 항공기를 수리하기 위한 부속품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북한군이 급히 도주한 흔적이 역력하였다. 미림기지에서 한국 공군 조종사들은 야간작전 경험이 없는 관계로 비행훈련에 치중하였고, 미군 조종사들이 주로 전투에 임하였다.

이 기간 중에 건국기 T-6 편대는 비행단에 예속되어 F-51전투기를 위한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활동지역은 여의도기지에서의 출동지역은 진남포-평양-사리원-해주-김천-신계-곡산-원산-평강-이천-고성-통천-화천-양구-인제를 연결하는 지역이며, 미림기지에서의 출동지역은 순천-안주-박천-선천-삭주-희천-강계-맹산-영변-원산-함흥 지역이었다. 비행단의 T-6편대 이외에도 공군본부에 파견되어 있던 T-6 3대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공군 각 부대 간의 연락과 육군본부의 요청에 의한 일선정찰, 작전명령 하달, 지휘관 수송 및 긴급한 연락 임무에 진력하였다.

2) 정찰비행전대

정찰비행대(10월 17일 정찰비행전대로 승격)는 영천에 파견대를 설치하고 대구동명비행장(K-37)에 주둔해 있었는데, 8월 30일에 영천 파견대를 대구기지의 본대와 합류하게 하여 대구기지에서만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9월 17일에 영천으로 이동하였다. 9월 16일에는 정찰비행대의 전기(全機)를 육군 각 군단에 파견하여 지상군 작전에 협력하게 하였는데, 육군 각 군단에 파견된 정찰기 대수와 정찰비행대 본부의 보유대수 <표 8-6>과 같다.

<표 8-6> 정찰전대본부 및 파견대 항공기보유 현황

구 분	항공기 보유		
	L-4	L-5	L-19
공군 정찰비행전대	2	1	1
육군 1군단	3	1	
육군 2군단	2		
육군 3군단	4		

이와 같이 14대의 정찰기를 육군의 각 군단에 파견하여 군단 정면의 정찰, 연락임무와 포병 관측임무에 매진하게 하는 한편, 정찰비행전대 본부에도 배속하여 정찰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군본부의 제반 임무수행과 조종사들에 대한 비행보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들 정찰비행전대의 파견대는 우리 공군에 정찰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적정을 육군본부와 미 제8군, 그리고 제5공군에 통보하였다. 공군의 정찰비행전대 본대와 육군의 각 군단에 파견대의 전진, 이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찰비행전대 본대는 10월 16일에 창설될 예정이었던 육군 제3군단 파견대와 더불어 10월 5일을 기하여 여의도기지로 전진하였으며, 육군 제1군단 파견대는 군단을 따라 경주에 주둔해 있다가 10월 4일에 강릉으로 전진하였으며, 10월 14일에는 원산까지 약진하였고, 10월 23일에는 함흥, 11월 7일에는 흥원을 거쳐, 11월 15일에는 성진까지 전진하여 군단의 작전을 도와 정찰과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육군 제2군단 파견대는 역시 제2군단을 따라 군단의 작전을 도우면서 9월 27일에는 안동에 주둔하고 있다가 9월 29일을 기하여 서울로 전진하기에 이르렀으며, 10월 11일에는 포천을 거쳐 10월 15일에는 평강으로 전개하였다. 뒤이어 10월 17일에는 곡산, 10월 22일에는 성천에까지 전진하였고, 10월 27일에는 개천에까지 진출하였다가 11월 1일에 개천남방 60㎞ 지점인 순천으로 남하하여 전선에서 퇴각하여 오는 적을 격퇴하는 육군 제2군단의 작전을 돕게 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정찰비행전대의 전진기지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대는 영천-서울로, 제1군단 파견대는 경주-강릉-원산-함흥-홍원-성진으로 이동하였으며, 제2군단 파견대의 전진경로는 안동-서울-포천-평강-곡산-성천-개천-순천으로, 제3군단 파견대는 서울-대전으로 이동하였다.

기간 내 작전임무 중 적에 피탄 되어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1950년 10월 1일 박문기 이등상사가 작전연락임무를 띄고 L-4를 조종하여 평창비행장으로 작전연락비행 중 산속에 잠복하고 있던 적 지상군의 대공포화로 평창비행장 남쪽 15㎞ 지점에서 추락, 전사하였다. 또한 10월 7일에는 전구서 이등상사가 전앙명 육군소령을 동승한 가운데 L-4를 조종하여 화천방면의 정찰임무를 수행하다가 13:00시경에 적 지상군 포화에 피격되어 화천저수지 남쪽 10㎞ 지점에 추락하여 전사하였고 동승자는 중상을 입었다.[31]

제 4 절 유엔공군 작전

1. 부대편성 및 재배치

1) 한국 내 비행기지 정비 및 보수 활동

미 제8군이 교착되었던 부산교두보를 돌파하여 공세가 시작되고 북한군이 남한지역에서 패퇴를 거듭하게 되자, 이전 모든 작전을 일본 내 항공기지에서 운용하던 제5공군은 한국으로의 기지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투기 및 전투 병력의 이동에 앞서 비행장과 기지 내 지원시설의 재건이 급선무였다. 9월 15일 이후 남한지역 내에서의 비행안전은 확보되었고 제5공군은 한국 내 원활한 항공작전을 위해서는 최소 6개의 비행기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산악구조인 한국의 지형특성상 평탄하고도 비행시계를 방해하지 않는 넓은 평지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다 새로운 항공기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극동공군에 항공공병 병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5공군은 과거 일본군이 사용하던 비행장을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 내 기지 중 최초로 미군에 의해 확장된 기지는 수영기지였다. 수영기지는 1950년 8월 초 북한군의 공격으로 대구와 포항기지가 위협을 받자 대구와 포항에 전개했던 정비시설 대부분이 이곳으로 이동하였으며, 8월 24일경 하수도시설과 6,000피트의 P.S.P(Pierced Steel Planking)활주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9월 4일 연락기와 같은 경비행기 착륙이 가능해졌으며 9월 12일부터는 C-54수송기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나 3,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완공된 11월 1일에야 완전한 전투비행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며 K-9으로 명명

되었다. 수영기지에는 9월 7일 지원시설이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제18전폭전대가 이동하였으나 기지 내 각종 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이 불비한 이유로 인해 당시 18전폭격전대원들은 수영기지를 '개가 땜질한 공군기지(Dog patch Air Base)'라고 불렀다.[32)]

포항비행장 복구업무는 제802항공공병대대 알파(A)중대가 기지에 도착한 9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포항기지는 북한군에게 함락 당하지는 않았지만 약 5주간의 공백상태가 지속되었으나 북쪽 유도로만이 대보수가 필요할 뿐 별 피해가 없었다. 이 유도로 보수작업은 10월 1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심한 강우로 인해 10월 15일에서야 보수가 완료되었다.

대구비행장 확장을 위해 9월 17일 제822항공공병대대가 대구기지에 도착 후 공사에 착수하여 기존 활주로를 5,700피트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대구비행장의 활주로는 제트기와 수송기가 공동 사용함으로 인해 곧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F-80기의 후기 분사열과 C-54의 하중에 의해 활주로가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문제는 P.S.P판을 철봉으로 받치고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표면을 견고화함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기지지원시설 확장을 위해 건물 100동을 건축하였다.

김포기지는 기존 6,000피트의 아스팔트를 보유한 한국 내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보유한 항공기지로 제10군단은 인천상륙작전 초기 점령목표로 설정하였고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마자 김포기지를 점령하였다. 9월 25일 괌(Guam)으로부터 도착한 제811항공공병대대는 김포비행장 확장과 복구에 착수하여 최상의 비행조건에 부합하도록 활주로 표면을 정리하고 복구하였다. 그러나 김포기지도 대구기지와 마찬가지로 작전이 진행될수록 활주로의 손상은 심해졌다. 제트기가 활주로의 좌우 끝을 파손하고 중량이 무거운 수송기의 이착륙은 활주로 표면을 손상시켰다.

수원기지 복구를 명령받은 811공병대대 소속 알파중대는 10월 1일 만신창이가 된 채 버려진 수원기지에 도착하였다. 당시 수원기지 활주로는 포탄 구멍 및 탱크가 짓이겨 놓아 활주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제811공병대대 알파중대는 포탄 구멍을 메우고 유도로에 PSP판을 까는 등 복구 작업을 진행 중

10월 24일 김포기지 복구를 명령 받고 김포기지로 복귀하였다. 이 시기 미 공군의 한국 내 비행장 복구 및 확장 작업은 차량과 중장비의 사용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작전의 긴급성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2) 미 극동공군 전술 및 지원부대의 한국 전개

한국 내에서 북한군이 퇴각하고 안전이 확보되자 미 제5공군 예하 전투부대들의 한국전개가 시작되었다. 한국주둔 제5공군사령부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수영비행장에서 차량과 항공기편으로 대구에 귀환하였으며, 제6149전술지원비행단은 수영비행장과 일본 이다즈케(板付) 기지에 소개시켰던 병력과 장비를 대구로 복귀시켜 작전을 재개하였다. 또한 일본 이다즈케 기지에서 주둔하고 있던 제49전폭기전대는 9월 28일에 제7대대를 선발대로, 29일에는 제8대대와 전대본부요원을 대구로 이동시켰으며, 30일에는 제9대대가 이동함으로써 예하 3개 대대 모든 전력이 대구기지로 이동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대구비행장은 한국 내 비행장 최초로 제트전투기 전대의 작전이 가능한 기지로 기록되게 되었다.

또한 대구비행장은 9월 26일 새로 잠정 편성된 제543전술지원전대의 기지로 확정되었으며 동 전대는 제8전술정찰대대(RF-80, 주간사진촬영)와 제162전술정찰대대(RB-26, 야간사진촬영) 및 제363정찰기술대대(사진 인화 및 처리)를 예속하였다. 부대 창설 계획에 따라 8전술정찰대대는 10월 2일 오전에 대구에 도착하였으며, 제162전술정찰대대는 10월 8일에, 제363정찰기술대대는 10월 4일 대구기지로부터 8마일에 위치한 경북중학교에 사진 판독실을 설치하고 작전을 개시하였다. 제49전폭전대와 같이 제543전술지원전대는 제6149전술지원비행단에 예속되었다.

한편 포항기지에는 제6150전술지원비행단 이동에 이어, 제35전투요격전대의 선발대가 10월 3일에 포항을 향해 쓰이끼(築城) 기지를 출발하였으며, 제39, 40전투요격대대가 10월 7일 전개를 완료하였다. 10월 12일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77대대가 포항에 전개하여 35전투요격전대와 합류함으로써 포항기지에는 F-51 3개 대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당시 포항기지 상태에 대하여 35전투요격전대 전투

기록관은 “이 오래된 기지의 상태는 1950년 7~8월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뒤덮였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33]

미 제5공군 전투부대가 수원기지로 이동하는 문제는 미 제10군단과의 마찰로 지연되었다. 9월 26일 극동공군은 일본 쓰이끼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6131전술지원비행단과 제8전폭전대를 수원기지로 이동할 것을 극동군사령부에 요청하면서, 작전지역이 겹치는 제10군단과의 작전통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제6131전술지원비행단을 제5공군 통제하에 둘 것과 미 제8군의 전투 상황이 여유가 있어 제5공군의 전력이 10군단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된다면 8전폭전대 전력을 일자별로 제10군단 전술항공통제사령부가 사용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제6131전술지원비행단과 8폭격전대의 수원전개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제10군단에 대한 공수지원이 감소되지 않을 것과 제8폭격전대가 수원에 도착하는 즉시 제10군단의 작전통제 하에 둘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34]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미 공군으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극동공군은 이들 부대의 수원전개를 인천상륙작전의 최종목표지점인 서울점령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은 9월 28일 인천상륙작전의 최종 목표지역인 서울이 수복된 가운데 9월 29일 중앙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서울반환식이 이루어지고 작전지역이 확대되자, 같은 날 맥아더에게 미 제8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5공군이 즉각 김포와 수원기지에 전투부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공군력의 집중의 원칙을 달성하고 공군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상에 주둔하고 있는 항공부대를 일관되게 지휘할 수 있는 공군으로의 단일한 지휘체계 구축을 건의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10월 4일에야 이에 대해 승인하였으며 이날로 해병항공단을 포함한 지상주둔 항공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제5공군사령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극동공군 및 제5공군은 미 제1해병비행단에게 미 제10군단을 지원하는 현재 임무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6131전술지원비행단은 10월 4일 일본 모지(門司)항을

출발하여 10월 6일 인천에 도착 후 김포에 전개하였으며, 미 제8전폭전대본부와 예하 제35전폭대대는 쓰이끼 기지에서 항로와 육로로 10월 7일 수원에 이동하여 활주로 상태를 점검 후 작전이 가능할 때까지 3주를 기다렸으나 작전이 불가능하자 김포로의 재전개를 승인 받아 10월 30일 김포로 전개하였고 수원기지의 협소로 인해 쓰이끼 기지에 남아있던 제36전폭대대도 김포로 합류하였다. 10월 6일 제51전투요격비행단은 김포에 지휘부를 설치하고 지원시설이 완료 되는대로 부대이동을 추진하여 10월 25일 그의 마지막 배속 부대인 미 제80전폭대대가 김포에 전개하였다.

9월 25일 수영기지에서 대구기지로 이동했던 주한 미 제5공군사령부는 미 제8군의 북상과 함께 10월 13일 서울에 지휘소를 설치하였고 합동작전본부(JOC)도 서울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제5공군사령부 주 지휘부가 북쪽으로 옮겨지자 장기간 임무대기 중이던 제502전술통제전대(Tactical Control Group)는 드디어 임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10월 7일 기존 임시편성 되었던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Tactical Air Control Group)가 해체되었고 이들 인원대부분은 제502전술통제전대 예하로 편성된 제6132항공기통제경보대대(6132nd Aircraft Control & Warning Squadron)로 보직되었다. 제502전술통제전대는 한국으로 전개하면서 예하 제606, 607항공기통제경보대대와 제605전술통제대대를 동시에 전개하여 예하에 3개 항공기통제경보대대와 1개 전술통제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제605전술통제대대는 서울에 위치해 있는 전술항공통제본부(Tactical Air Control Center)에 배속되어 미 제8군의 합동작전본부(Joint Operation Center)와 협조하여 미 제8군의 지상 작전을 지원하였으며 3개 항공기통제 및 경보대대는 김포, 대전, 대구에 개설된 전술항공지시본부(Tactical Air Direction Center)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들 전술항공지시본부에서는 레이더 조기경보와 방향 탐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전투기의 공격유도에 대한 책임은 갖지 않았다. 제502전술통제전대가 한국에 도착하고 외연상의 공지합동작전체제가 이루어졌으나 공중과 지상간의 통신상의 문제로 작전에 곤란을 겪었고 이 문제는 같은 시기에 미 본토로부터 도착한 육군 제20통신 중대(공·지 통신)에 의해 해소되었다. 제20통신 중대

가 전개함으로써 미 제8군은 사단 및 군단과 합동작전본부의 전술항공요청통신망을 확보하게 되어 공지합동작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술항공통제부대의 한국 도착으로 한국에서의 공·지 작전 및 항공작전의 기틀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모스키토 항공통제 업무만은 개선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모스키토 통제유도기를 전선에 근접하여 운용하고자 제6147전술통제대대는 10월 5일에는 대구에서 김포로, 10월 18일에는 김포에서 여의도로 이동하였다.

제51전투요격비행단이 기지 지원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김포기지를 제외하고, 제5공군은 한국 내 기지지원을 위한 비행단 창설 계획을 서둘렀다. 대부분의 기지지원부대들은 1950년 여름기간 동안 공군기지부대(Air Base Unit)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잠정적으로 전투비행단(Fighter Wing)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10월 초에는 이들 전투비행단은 전투기(fighter), 폭격기(bomber)와 같은 전투명칭은 미 합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미 공군 지침에 따라 전술지원비행단(Tactical Support Wing)으로 개칭하였다.[35] 이에 따라 6150전술지원비행단은 포항에서, 6002전술지원비행단은 수영기지에서, 6131전술지원비행단은 수원에서, 6149전술지원비행단은 대구에서 기지지원업무를 시작하였다.

전투비행단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원 및 장비의 한국으로의 이동은 수송수단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제한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가동률을 포함한 전투부대 작전효율을 저하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수송수단의 부족에 원인이 있지만, 미 제8군 및 제10군단의 병력 및 장비 수송시기와 중복되고 인천항의 양륙능력의 제한으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즉 인천상륙작전 실시 후 미 제10군단 및 미 제8군의 후속 병력 및 장비의 수송량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특히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작전을 위해 인천에서의 병력 승선 우선권이 주어졌고 해상과 육상수송의 통제와 책임을 미 제8군 및 제10군단, 주일 병참사령부가 갖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던 제5공군이 중대형(重大型) 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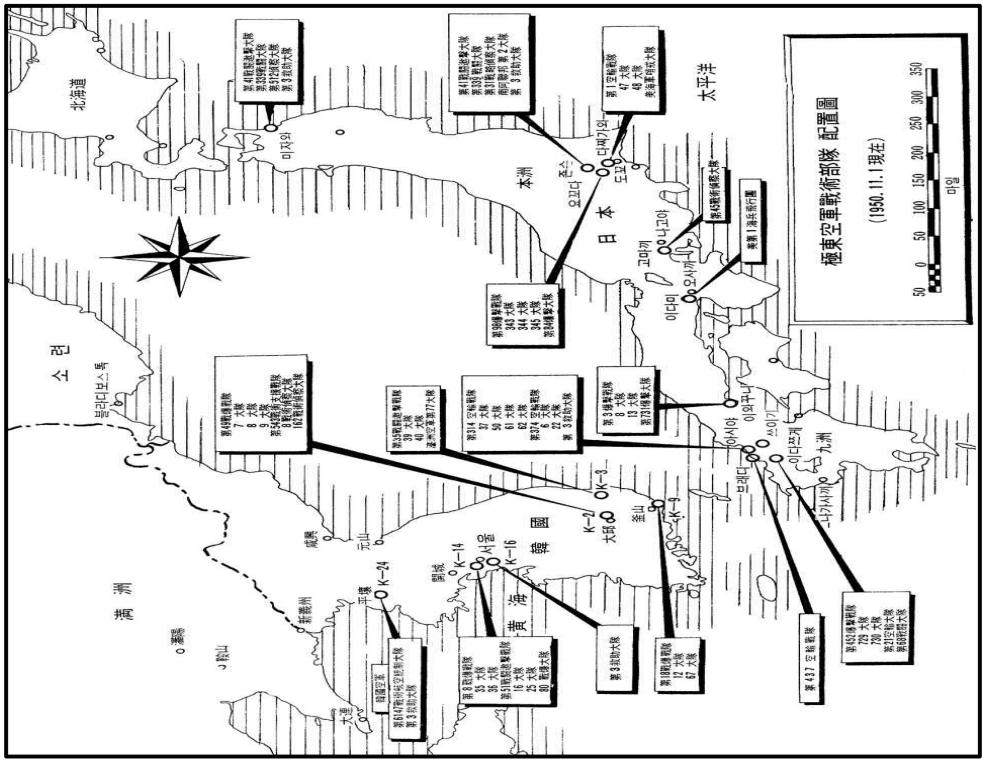
여기에다 인천항의 양륙능력의 제한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간만과 조수의 차가 심한 인천항은 화물하역을 위해서는 만조 시까지 해상에서 수송

선을 대기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수송우선권이 떨어지는 공군의 수송물품은 해상에서 며칠씩 대기해야만 했다. 실례로 제6131전술지원비행단의 화물을 운반하는 2척의 수송선과 1척의 화물선이 10월 10일 인천에 도착하였는데 수송선은 10월 23일에 하역을 시작하였고 화물선은 11월 초까지도 하역을 할 수 없었다. 또한 8전폭전대의 화물일부도 10월에 인천에 도착했으나 하역을 할 수 없어 마침내 부산으로 회항하여 화물을 하역하여 다시 철도와 트럭으로 수원까지 수송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터너(William H. Tunner) 소장은 보급수송의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위해 육·해·공 수송수단을 통합하여 수송량을 할당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구수송조정기구의 설치를 촉구하였으나, 이 제안은 한국전이 종료될 때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장비수송의 지연은 공군작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6131전술지원비행단은 장비가 도착하기 이전까지 35% 이상의 작전가동률을 유지할 수 없었고 이러한 문제는 수원기지뿐만 아니라 전 공군기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었다. 이러한 보급지연은 특히 항공기 연료보급에 차질을 초래하였는데, 당시 한국 내 기지에는 연료저장고(POL)가 건설되기 이전 상황인데다 항만에서 유류를 운반할 유조차량이 도착하지 않아 인천에서 트럭으로 55갤런 드럼통을 직접 수송하여 드럼통에서 수동으로 항공기에 주유하게 되었는데 항공기가 일시에 몰려들면 혼잡을 이루어 연료주유 시간이 늦어져 작전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급지원상의 문제점 외에도 제5공군 전투부대들이 한국으로 전개한 이후 곤란을 겪었던 문제는 작전통신 문제와 열악한 비행시설을 극복하는 문제였다. 먼저 작전통신문제는 합동작전본부와의 신뢰성 있는 통신망이 결여된 때문이었다. 특히 제6002전술지원비행단(수영)은 대구의 합동작전본부와 직통전화 및 텔레타이프로 연결하고 있었으나 합동작전본부가 서울로 이동하자 장거리 통신유지를 위해 중계소를 두어야만 했으며 제6149전술지원비행단(대구)의 경우 11월 합동작전본부와의 통화성공률이 시간 당 80%를 넘지 않았다. 더욱이 서울과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제51전투요격비행단(김포)조차도 합동작전본부(JOC)와

<상황도 8-2> 한국 및 유엔공군 배치도(1950. 11. 1 기준)



통신이 제한되어 정보획득이 지연됨으로써 결국 전술표적을 폭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도 하였다.

숙소, 휴식시설 등 비행장의 열악한 생활조건도 물론 견디기 힘들었지만 작전과 직결된 위에 언급한 항공연료 보급 및 주유문제와 더불어 조종사들을 괴롭힌 건 활주로 상태였다. 이·착륙 시 고도의 집중을 요하게 하는 짧은 활주로 길이와 한두 번의 이착륙에도 타이어를 교체해야할 정도로 거친 PSP 활주로 표면 등 조종사들이 극복해야할 조건은 많았다. 특히 거친 활주로 표면은 많은 사고를 유발시켰다. 10월 중 대구기지 8전폭대대에서는 보조연료탱크가 PSP판에 걸려 출격이 중지되는 사례가 5번이나 있었으며, 10월 10일에는 RB-26정찰기가 착륙 중 타이어가 파열되어 계류장에 주기되어 있던 F-80항공기 4대와 충돌하여 기체

가 전소되고 정찰기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구기지에서 F-80기를 운용하고 있던 제49폭격전대 전투요원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런 경험들을 새로운 비행교훈으로 남겼다. 당시 대구기지 주 활주로는 5,700피트였으며 논을 메워 1,000피트를 연장하였는데 이 연장된 부분은 지반이 매우 연약하여 제7폭격대대 작전장교들은 매일 아침 활주로를 점거하여 취약부문을 찾아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된 PSP판의 양끝이 불규칙하여 제7폭격대대 조종사들은 초기에는 항공기 주 착륙바퀴(main-landing gear)의 타이어 교체를 평균 7~8회 착륙 후 실시하였는데, 이후에는 평균 12~15회, 숙달 후에는 평균 22회까지 착륙하였으며 개인적으로는 최고 43회까지 착륙을 실시한 조종사도 있었다. 또한 활주로 길이가 짧아 조종사들은 이·착륙 시 대단한 우려를 했었는데 조종사들은 물-알코올 혼합분사(Water-Alcohol injection)방식[36]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추력을 급속히 증가시켜 이착륙 거리를 500피트 이상 단축시켰으며 상승률과 가속비율을 증가시켰다. 만약 물-알코올 혼합분사방식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대구에서의 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37]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작전환경에서도 대구 제49폭격전대는 10월중 항공기 가동률을 82.55%까지 유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제7전폭대대는 "F-80항공기는 최소한의 작전 및 정비시설이 주는 중압감을 잘 버티고 있다. 다른 제트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도 의심스러울 것이다"[38]라고 자신들이 수행한 임무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표 8-7> 미 제49전폭전대 항공기 월별 가동률

구 분	항공기 가동률	불가동 원인	
		정비 불능	부품 부족
1950년 7월	73.80	91.10	8.90
8월	79.46	67.69	32.31
9월	85.77	68.32	31.68
10월	82.55	67.85	32.15

이러한 성과는 미 제5공군 전투부대가 한국으로 전개 시에는 수송수단 부족으로부터, 전개 후에는 보급 및 정비지원의 부족 등 최악의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값진 것이다. 이들이 천막생활을 청산하게 된 것은 초가을이 시작되는 10월 말경이었다. 국군도 열악한 장비와 후방지원문제로 작전에 애로를 겪었지만 한국 전개 초기 미 제5공군 전투부대 장병들에게도 이 문제는 예외가 아니었다.

2. 유엔공군 작전

1) 개 요

유엔군의 기간 중 항공작전은 시기별, 전투양상별로 볼 때 두 단계로 나뉜다. 시기별로는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된 9월 15일부터 국군 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써 10월 1일 이전에는 제8군의 낙동강방어선 돌파와 북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접항공지원작전과 북한군의 지원 병력 차단과 낙동강방어선에 집결해있던 북한군을 고립시키기 위한 항공차단작전에 치중하여 실시된 반면, 10월 1일 이후에는 파죽지세로 북진하는 아군을 지원하기 위한 근접항공지원작전 및 병력엄호 작전과 수송임무가 가중되어 실시되었다.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된 유엔군 비행활동은 약 22,500여 소티(Sortie)로 일일평균 약 480소티를 실시하였다.[39] 이중 전술비행[40] 활동은 총 11,383소티로 전체 비행활동의 50% 이상을 상회하였다. 전술활동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접항공지원작전(5,578소티)으로 전체비행활동의 약 25% 수준을 유지하였고 다음은 폭격기사령부 소속 B-29기와 제5공군 소속 B-26 및 F-80기가 수행한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비행이며, 요격임무는 극히 적은 비중(9월 : 116소티, 10월 : 117소티)[41]을 차지하고 있다.

비전술비행(지원비행)은 총 11,164소티로 전체비행활동의 약 49% 수준이며 이

중 수송임무는 약 8,300여 소티로 전체비행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9%이며 비전술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4%로 비전술비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월 한 달간의 비행통계를 보면 수송비행이 급증(6,250소티)한 반면 전투비행활동은 5,864소티로 수송비행 활동이 전술비행을 능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아군의 북진에 따라 전장이 확대되고 수송선이 길어짐에 따라 수송소요가 급증한 반면 표적의 감소와 아 지상군의 급속한 전진속도에 따른 지상지원 소요의 감소가 전투비행활동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9월과 10월의 비행활동 양상을 보면 9월 15일~9월 30일간 실시된 근접항공지원은 3,300여 소티로 일일평균 206소티인 반면 10월 한 달간에는 약 2,400소티를 비행하여 일일평균 77소티로 9월 대비 약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수송비행은 9월 동 기간에 2,057소티를 실시하여 일일평균 128소티를 실시하였고, 10월에는 6,750소티를 실시하여 일일평균 217소티를 실시하여 9월 대비 약 70%의 증가율을 보였다. 단순한 수치를 통하여 본 기간 중 유엔 공군의 비행활동은 9월에는 낙동강전선에 고착되어 있는 미 제8군을 북으로 밀어 올리기 위한 근접항공지원작전에 치중한 반면 10월에는 빠른 속도로 북진하는 아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실시하면서 전선확대에 따른 아군에 대한 전투장비 및 보급물자 수송에 치중하였다.

이 기간 중 미 극동공군은 미 공군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였는데, 9월 24일 728소티의 비행을 실시하여 참전 이후 일일 최다비행기록을 수립하였으며 전투공수사령부는 10월 25일 평양지역(1,398.7톤)을 포함한 서부지역에 비행 317소티에 총 1,766톤을 공수하여 일일 최다 수송비행 기록 및 최다 수송기록을 수립하였다. 또한 항공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록이 수립되었는데 9월 4일 적 후방인 황간동에 추락한 웨인(Robert E. Wayne) 대위를 보엔(Paul W. Van Boven) 중위가 구조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H-5헬기에 의해 추락한 조종사의 구조가 이루어진 사례였으며, 10월 10일에는 제3공중구조대대 H-5 승무원들이 구조된 조종사에게 비행 중에 최초로 혈장을 공급하였는데 승무원들은 이 공로로 은성무공훈장을 받았다.

<표 8-8> 공군 주요 전술기 성능 및 제원

 F-51D (Mustang)	○ 기장/기폭/기고 : 32.9/37/13.8피트 ○ 최고속도 : 437mph ○ 항속거리 : 1,000NM ○ 최대상승고도 : 41,900피트 ○ 무장 : 12.7밀리 기관총×6 5인치로켓×10
 F-80C (Shooting star)	○ 기장/기폭/기고 : 34.6/38/11.4피트 ○ 최고속도 : 580mph ○ 항속거리 : 1,090NM ○ 최대상승고도 : 46,800피트 ○ 무장 : 12.7밀리 기관총×6 5인치로켓×8 폭탄 2,000파운드 적재
 B-29 (Super fortress)	○ 기장/기폭/기고 : 99/141.3/27.9피트 ○ 최고속도 : 357mph ○ 항속거리 : 3,700NM ○ 최대상승고도 : 33,6000피트 ○ 무장 : 12.7밀리 기관총×10 20밀리 기관포×1 폭탄 20,000파운드 적재
 B-26 (Invader)	○ 기장/기폭/기고 : 50/70/18.6피트 ○ 최고속도 : 355mph ○ 항속거리 : 1,800NM ○ 최대상승고도 : 22,100피트 ○ 무장 : 12.7밀리 기관총×12 5인치 로켓×14 폭탄 6,000파운드 적재

2) 주요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1) 근접항공지원작전(Close Air Support)

근접항공지원작전은 공군에 있어서는 고전적인 것이다. 한국 공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공군도 육군에 속해 있다가 1947년 공군으로 발전 독립했다. 이 때문에 공군작전의 고전적 개념은 지상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6·25전쟁 중에도 이러한 개념은 변화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군 내에서도 지상군 지휘관들과 공군 지휘관들과는 공군력 운용에 대해서 가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42]

그러나 6·25전쟁에서 급박한 지상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공군력 운용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었고, 근접항공지원임무는 최우선적이며 가장 비중이 높은 공군 작전이 되었다. 특히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주로 전략폭격작전과 항공차단작전에 운용되던 B-29중폭격기도 근접항공지원에 투입할 정도로 전세는 급박하였다. 이러한 전선 상황은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한 1950년 10월 이전과 이후의 비행활동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1950년 10월 이전 월간 비행활동 누계를 보면 전술비행에서 근접항공지원 비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0월 이후에는 4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지상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아군 지상군에 대한 지원소요가 감소한 결과이다.

<표 8-9> 유엔 공군 비행활동(1950. 6~10)[43]

구 분	'50년 6~7월	'50년 8월	'50년 9월	'50년 10월
총 비행활동	8,499	15,586	15,839	16,635
전술비행(①)	7,080	11,662	10,580	8,573
근접지원(②)	3,942	6,774	6,250	3,340
② / ① (%)	56%	58%	59%	39%

인천상륙작전 이후 실시된 유엔 공군 작전은 낙동강방어선에 고착되어 있는 미 제8군을 밀어 올려 미 제10군단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으며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의 작전개념이었다. 따라서 유엔 공군은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다음 날인 9월 16일부터 낙동강방어선에서 아군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군에 대해 본격적인 공중공격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풍 케지아로 인해 기상이 불순해져 공군작전은 매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다급한 전세는 유엔 공군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만들었다.

9월 16일 하루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에도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비행을 164소티 실시하였고 동일 왜관 서부지역 북한군 집결지역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고자 82대로 구성된 B-29폭격기가 왜관 상공으로 출동하였으나 시계가 불량하고 폭격지역이 아군과 근접되어 있어 임무를 변경하여 2차지역인 평양 보급품집적소와 원산지역 항만지역에 대한 항공차단폭격을 실시하였다.

9월 17일에도 오전 기상은 공군작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나 제5공군 소속 F-51 및 F-80전투기들은 미 제8군의 최남단 방어선인 마산, 창녕부터 동부 종단지역인 포항에 이르는 전 방어선에 대해 근접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이날 하루 총 165소티의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하였고 미 2사단 정면인 영산부근에서 도강하려는 약 2,000여 명의 북한군에 대해 약 110갤론 네이팜탄 260개를 투하하는 공습을 감행하여 약 1,2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9월 18일에는 기상 호전과 더불어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비행도 활발해졌는데 폭격기사령부 예하 제92폭격전대 및 98폭격전대 소속 B-29폭격기 42대가 9월 16일 실시하지 못한 왜관 서부지역의 북한군 집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였는데, 낙동강 철교와 구인도교가 교차되는 지역 양편에 약 500×5,000야드 크기의 두 지역을 분담하여 500파운드 폭탄 1,600발을 투하하였다.

9월 19일에는 357회의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하여 참전 이후 일일 최다 근접지원비행 기록을 수립하였는데 국군 제1사단 접적 적 지역에 163소티, 미 제25사단 정면 적 지역에 76소티, 미 제1기병사단 접적 지역에 75소티, 미 제2사단 접적 지역에 43소티를 실시하였는바,[44] 미 제2사단 정면지역에서 병력 700여 명으

로 추산되는 적에 대해 네이팜 및 기총 공격을 실시하였으며, 왜관 남부 4마일 지점에서 F-80 및 B-26기가 적 1,500여 명에 대해 공격을 가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9월 20일에도 총 317소티의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하여 약 600여 명의 북한군을 사살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총 311소티의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하였는데, 이날 작전성과는 모스키토 항공통제기의 지상군부대 엄호작전이 효과를 발휘하였다. 지상군 전진에 앞서 공중에서 지상군 엄호와 항공통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항공통제관이 미 제24사단 전진로 전방에 매복해 있던 적 탱크부대를 발견하고 F-51기와 F-80기에 지원을 요청하여 공지협동으로 적 탱크 14대를 파괴하였다.

9월 22일이 되자 낙동강방어선에서의 북한군 저항은 거의 사라졌으며 적은 전의를 잃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날 근접지원임무는 전일에 비해 약 30% 감소한 216소티를 실시하였고 1,100여 명 이상의 적군을 사살하였다.[45]

9월 22일 이후 현저히 감소한 북한군이 저항으로 인해 항공지원임무도 감소하게 되었다. 9월 23일 이후 근접지원임무는 감소하게 되는데 일일 최대 비행기록(728소티)을 기록한 9월 24일 267소티의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일일 200소티 이하의 근접지원비행이 실시되었다. 근접지원비행의 감소 양상은 10월 들어서면서 더욱 더 심화되는데 10월 한 달간 실시된 총 근접지원비행이 약 2,480소티, 일일평균 약 80소티 수준으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 근접지원비행 3,300여 소티(일일 평균 206소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0월 들어 유엔 공군의 근접지원비행은 이전에 수행되었던 임무형태와 다소 차이가 나는 양상을 보였다. 언급한 양적 수준의 감소뿐만 아니라 과거 근접지원이 아군과 대치 혹은 접전 중인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적의 인적, 물적 전투력을 말살하는 것이었다면, 10월부터는 전진하는 아 지상군을 적의 공격으로 보호하고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종의 엄호형태로 진행되었다. 공군의 작전형태는 아 지상군의 진격로 상에 존재하는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하기 위

해 아 지상군보다 먼저 출격하여 적의 화력진지나 병력집결지를 아군 병력 도달 이전에 공격하여 무력화 하였으며 모스키토 항공통제관들은 진격하는 아군을 엄호함과 동시에 정찰을 통해 적의 위치를 발견 시 전투기들을 호출하여 적의 기도를 사전에 말살하였다.

10월 12일 근접항공지원은 총 146소티 실시되었는데 이중 81소티는 미 제8군 주력인 미 제1군단에 할당되었고, 나머지 65소티는 국군에 할당되었다. 이날 근접지원의 목표는 북한군 잔존세력의 저항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써 주 표적은 아군을 괴롭히는 적의 포진지였다. 먼저 미 제1군단을 맞아 개성부근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북한군의 포진지를 F-80전폭기가 공격하여 11개의 야포진지를 무력화하였으며, 이천지역을 도모하던 국군 8사단을 괴롭히던 13개 포진지와 원산인근 덕원지역 국군 6사단을 위협하던 6개 포진지도 F-80과 F-51이 출격하여 로켓포와 네이팜탄으로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10월 17일 모스키토기는 기관차 3대에 견인되어 병력을 수송중인 군용열차를 사리원과 미곡사이에서 발견하고 즉시 F-80기를 출동시켜 기관차 및 열차를 파괴하였으며 병력에 타격을 입혔다. 이날 유엔 공군은 근접지원비행을 통해 북한군 약 490여 명을 사살하였다.

김일성이 평양을 탈출하면서 내린 명령에 따라 북한군은 탱크 25대, 자주포 8문, 중박격포 등의 지원을 받는 패잔병들로 평양방어를 시도하였다. 미 극동공군은 10월 19일 F-80전폭기를 동원하여 평양지역 적진지를 파괴하여 아군의 진격을 용이하게 하였고 마침내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은 평양에 입성하게 되었다.

기간 중 유엔 공군은 근접지원작전을 통해 낙동강방어선에서 고착되어 있던 국군과 미 제8군을 북으로 밀어 올려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 병력과 연결하는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0월에는 북상하는 아군의 진격로 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적의 포진지, 병력집결지 등을 사전에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킴은 물론 아군을 엄호함으로써 아군의 진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항공차단(Air Interdiction)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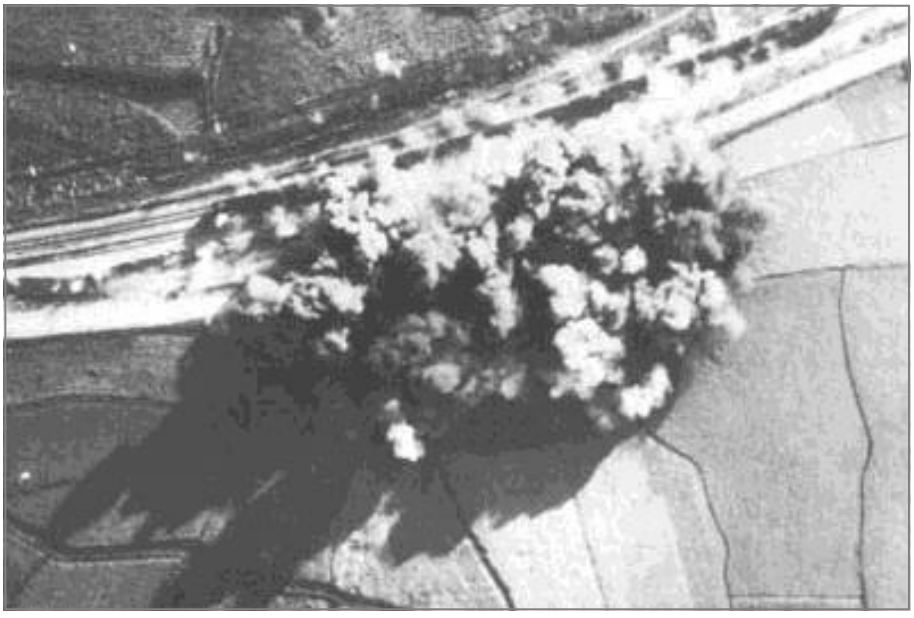
항공차단작전은 지상이나 해상과는 달리 전선이 존재하지 않는 공군력의 특성과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전이다. 대부분의 지상이나 해상작전은 일정한 적과의 접촉선 상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전투행위지만, 항공차단작전은 이러한 접촉선 배후에서 벌어지는 공군력만이 수행 가능한 작전형태다. 기간 중 유엔 공군이 실시한 항공차단 작전은 9월 3,281소티, 10월 4,474소티로 총 7,755소티를 실시하였다(<표 8-10> 참조). 이는 일일평균 165소티를 실시한 것이다.

유엔 공군의 항공차단작전 추이를 보면 6월부터 9월까지는 전술비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내외에 머물고 있지만 10월 들어서는 52%로 상승하였고 이는 10월 이후 근접항공지원작전이 감소한 분량만큼 차단작전으로 전환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쟁양상의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아군의 급속한 북진과 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군의 후방으로부터의 전력보충을 차단하고 향후 북한군의 복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이었다.

기간 동안 실시된 항공차단작전의 목표는 인천상륙작전 후 며칠 동안은 주로 안동, 전주, 대전, 청주, 원주, 제천 등지의 직접적이며 단시간 내 북한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대규모 보급품 집적소, 철도, 다리, 조차장과 같은 보급물자 및 수송체계 차단에 주력하였고, 10월에는 38°선 이북의 원산, 함흥 등 항만시설과 평양지역 인근의 각종 군사양성소 및 군사훈련소 등 향후 북한군의 인적, 물적 공급원 및 철도, 항만 등 수송체계 차단에 주력하였다.

<표 8-10> 유엔 공군의 항공차단 작전현황(1950. 6~10)[46]

구 분	'50년 6~7월	'50년 8월	'50년 9월	'50년 10월
총 비행활동	8,499	15,586	15,839	16,635
전술비행(①)	7,080	11,662	10,580	8,573
항공차단(②)	2,199	3,299	3,282	4,474
② / ① (%)	31%	28%	31%	52%



1950년 9월 20일 신안주와 평양 간 철도 상에서 B-29공격에 화염에 휩싸인 북한 탄약수송열차

이 시기 항공차단작전은 주로 미 극동공군 사령부 예하 폭격기사령부 소속 B-29중폭격기 및 제5공군 소속 B-26경폭격기와 F-80전폭기가 담당하였다. 폭격기사령부는 매일 3개 전대 이상 규모의 항공기를 항공차단작전에 배당하였고 나머지 전력은 근접지원임무에 할당하였다. 9월 20일에는 B-29기 총 60대가 동원되어 42대는 평양과 원산의 군사훈련소 지역에 대한 차단작전에, 8대는 사리원지역의 보급품 저장소 공격에 참가하였다. 나머지 8대는 북한지역에 대한 교량 파괴에, 2대는 신안주-선천과 신안주-평양 간 철도차단작전을 실시하였다. 9월 26일에도 B-29 총 53대가 후방차단작전에 동원되었는데, 20대는 해주에 있는 조선비료공장을 폭격하였고, 20대는 북한전력의 약 10%를 생산하는 부전강 수력발전소를 공격하였으며, 5대는 38°선 이북의 통신시설을, 8대는 중부지역 교량 및 철도를 공격하였다. 9월 28일에도 56대의 B-29기가 항공차단작전을 실시하였는데 24대는 북한지역 주요도시의 보급품 집적소를, 16대는 평양남부의 철도상 교량 12개를 폭격하였고 7대는 서울과 함흥간의 철도에 대한 부장정찰을 실시하였다.

10월 2일에는 B-29 22대가 나남지역 군사훈련소를 폭격하였고, 10월 7일에는 B-29 24대가 평양과 7개 보급품 집적소를 공격하였으며 8대는 38°선 이북의 교량을, 7대는 38° 이북의 통신시설에 대해 폭격을 실시하였다.

이렇듯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도시 및 군사훈련장, 주요산업시설, 교량 및 도로 등의 수송체계에 대한 항공차단작전은 북한군의 재편과 보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북한군의 전투의지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수작전

극동공군 예하에 전투공수사령부(Combat Cargo Command)가 창설된 것은 1950년 9월 10일이었다. 전투공수사령부는 예하에 제1병력수송전대, 제314병력수송전대 및 제374병력수송비행단을 두고 작전 통제하였다. 전투공수사령관은 인도와 중국 간 험프(Hump) 공수경로를 통한 공수작전과 베를린 공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터너(William H. Tunner) 소장이었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베를린 공수작전을 지휘했던 터너는 "어떤 것이든, 어디든, 언제든 공수할 수 있다(We can fly anything, anywhere, anytime)[47]"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전투공수사령부는 한국 전역에서 점증하는 공수 소요를 충족하고 특히 인천상륙작전을 완벽히 지원하기 위해서 창설되었으며, 한국 전역에서의 전반적인 공수작전을 통제하고 새로이 도착하거나 편성되는 수송부대로 하여금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1950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투공수사령부는 총 8,307소티의 비행을 실시하였으며, 화물 공수는 인원을 포함하여 36,653톤을 실시하였다.[48] 이는 일일평균 약 177소티 비행에 780톤의 화물공수를 실시한 것이다. 또한 터너 소장은 유엔군의 공세시기에 부상당한 병력을 일본으로 후송하는 임무도 강조하였는데 9월 15일~10월 31일 간 약 8,400여 명의 부상 병력을 일본으로 공수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인원수송도 같은 기간 중 약 35,200여 명을 공수하였다.

기간 중 전투공수사령부의 주된 임무는 북진하는 미 제8군에 대한 장비와 식량, 보급품 공수임무와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공중강하 임무였다. 미 제10군

단이 인천에 성공적으로 상륙하자 미 제10군단에 대한 보급품 수송이 절실하게 되었는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화물선의 입항이 하루 6시간으로 한정됨에 따라 인천항의 일일 화물 하역능력은 최대 6,000톤으로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항공기에 의한 긴급한 수송 수요가 증대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전투공수사령부는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였고 9월 18부터 9월 24일까지 주로 미 제1해병비행단 지원을 위해 1,445톤의 탄약과 유류를 공수하였다.[49]

또한 미 제8군이 평양비행장(K-23)을 점령한 이후 곧바로 평양비행장은 유엔군의 전진 비행기지가 되었으며, 미 제8군은 평양비행장에 대해 매일 1,000톤의 공수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량이 전투공수사령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혹사시키는 일이었지만 터너 장군은 워커 사령관에게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50] 이러한 약속은 10월 24일 마침내 달성되었는데 이날 전투공수사령부는 총 283소티의 비행을 실시하여 1,620톤의 인원과 화물을 수송하였고 이중 1,181톤이 평양비행장에 하역되었다. 이튿날인 10월 25일에도 총 317소티의 비행을 실시하여 1,766톤을 공수하였고 이중 1,398톤이 평양비행장으로 공수되었다. 10월 27일에는 C-119 10대를 동원하여 운산지역에서 교전중인 국군에게 탄약과 유류 40톤을 공중투하였다.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전선과 근접한 지역 비행장을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26일 미 제8군은 청천강 남부에 위치한 신안주비행장(K-29)을 점령하였다. 육군 공병대는 재빨리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활주로를 보강하고 평탄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5,500피트로 확장하였다. 전투공수사령부는 북한군 저격수와 대공포 화망의 한가운데 착륙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월 30일부터 신안주비행장을 이용하여, 전진하는 미 제8군 소속 부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투공수사령부는 미 제8군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보급품 4,041톤을 공수하였다. 10월 30일부터 31일간의 전방기지에 대한 수송지원은 10월 30일에 평양비행장에 832톤, 원산비행장에 77톤, 신안주비행장에 220톤을 공수하였고, 10월 31일에는 평양비행장에 823톤, 신안주비행장에 280톤이 공수되었다.[51]

김포에서 38°선 이북에 위치한 비행장에 보급품을 왕복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한 제1병력수송전대는 니그로(Edward H. Nigro) 중령이 지휘하고 있었으며 C-46 16대와 조종사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대는 24시간 운영되었고 조종사는 월평균 125시간을 비행하였다. 니그로 중령은 수송비행의 위험성에 대해 "비행장과 북한 지형은 미국 조종사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지형이다. 작전이 모험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52] 전선과 인접된 전방 항공기지는 야간 조명과 항법 및 항로관제 지원이 부족하여 자주 이착륙에 부적합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제1병력공수전대는 작전기간 중에 공중과 지상사고 없이 작전을 수행하였다. 워커 미 제8군사령관은 이러한 공수지원에 대해 "그 시기 전방에 전개된 미 제8군에 대한 유일한 보급지원 방안이었던 공수지원은 지상병력으로 하여금 전선지역에서 그들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가능하게 하였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감사를 표시했다.[53] 이러한 병참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전투공수사령부의 장병이 중요 작전에서 이룬 성과는 한국전에서 공지간의 협조가 대단히 밀접하게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54]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적 배후에 대한 공수투하는 인천상륙작전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한국도착이 지연됨에 따라 작전도 지연되었고 9월 말이 되어서야 전투공수사령부 수송기에 의해 김포로 전개하였다. 김포에 도착한 187공정연대전투단은 서울주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예비 병력으로써 남아있었다. 187공정연대전투단이 김포에 도착한 지 약 2주가 넘은 시점인 10월 10일 극동공군사령부에서 회의를 가진 후에 맥아더 장군은 이 부대를 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강하지역은 평양 북부 35마일 지점인 순천과 숙천 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작전의 목표는 주요도로 연결부를 점령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함과 아울러 북한군에게 억류된 미군포로를 석방하는 것이었다.

작전계획은 먼저 제1, 3대대 병력 1,500여 명이 순천 남동부 지역에 강하하여 순천시를 점령한 이후 평양으로부터 북쪽으로 이어진 고속도로와 철도를 봉쇄하

고, 약 1,300여 명으로 구성된 제2대대와 지원부대가 순천 근처와 숙천 동부 15마일 지역에 강하하여 다른 고속도로와 철도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 제8군의 전진부대들이 평양으로부터 이동할 때까지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자신의 진지를 점령 후 대기하다가, 이틀 내에 두 개 부대가 합류하는 것이었다. 병력수송은 C-119 76대와 C-47 40대가 담당하며, C-119기에는 각기 강하요원 42명과 300파운드 화물낭 15개를 적재하고, 이보다 작은 C-47에는 각기 강하요원 18명과 300파운드 화물낭 3개를 탑재하는 것이었다. 강하요원은 고도 700피트에서 강하하고 지프차 12대, 3/4톤 트럭 4대, 105밀리 박격포 12문을 포함한 중장비는 1,500피트 상공에서 투하하는 계획이었다.

작전 당일인 10월 20일 06:00시에 김포를 이륙하려던 계획은 시정 불량으로 인해 정오까지 연기되었다. 이날 12:00시가 되자 장비와 병력을 탑재한 수송기들이



1950년 10월 20일 숙천-순천지구에 공정요원을 투하하는 C-119

이륙을 시작했고, 고도를 높이면서 밀집된 V자 대형을 형성하였다. 터너 소장은 직접 C-54를 조종하면서 작전을 감독하였고, 맥아더 장군과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 그리고 연합국 사령부인원들은 C-121을 탑승한 채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14:00시에 처음 김포를 출발할 때 76대였던 C-119는 74대만이 강하지역 상공에서 도착하여 71대만이 적재 병력과 화물을 투하하였는데 이중 50대는 병력을 투하하였고, 21대는 장비를 투하하였다. 강하지역 상공에 도착한 C-47 40대는 병력과 장비를 투하하였다. 이날 숙천과 순천에 투하된 병력은 총 2,860명이였으며 이중 1명이 강하 중 사망하였으며 장비 301.2톤이 지상으로 투하되었다. 투하된 장비 중 박격포 3문만이 유실되었으며 나머지 장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였다.

공수 투하 중 수송기들은 경미한 지상화망에 노출되었을 뿐이고, 단지 C-119 한 대가 경미한 손상[55]을 입었는데, 이는 제5공군의 공중엄호 덕분이었다. 이날 제 제5공군 소속 F-51과 F-80전투기들은 병력 및 장비 투하 전과 투하 시간 내내 강하지역 및 인근의 탄약저장소, 탱크, 요새화된 건물, 병력 등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들 공격으로 숙천 지역에서는 1개 포대와 탱크 1대가 파괴되었고 탱크 2대와 차량 10대, 적이 점령한 건물 2동이 손상을 입었으며 약 100여 명의 북한군이 살상되었고, 순천지역에서는 탄약저장소 3곳이 로켓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날 작전에서 F-51 한 대가 대공포에 의해 격추되었고 F-80 한 대가 불상 원인으로 순천지역에서 추락하였다.[56]

맥아더 장군은 작전에 매우 흡족하여 작전이 끝나자 평양비행장에 착륙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계획한 명민한 전술기동이 북한군을 완전히 섬멸할 것임을 조심스럽게 확신하였다.[57] 다음날인 10월 21일에도 공정작전은 계속되었고 이날 10:00시를 기해 C-119 40대가 추가병력 1,093명과 보급품 106.8톤을 작전지역에 투하하였으며,[58] 10월 22~23일까지는 각기 C-119기 22대 및 10대가 동원되어 장비 및 보급품 184톤을 추가로 공수하였다. 이로써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공수작전을 4일간 실시되고 종료되었으며 전투공수사령부는 병력 총 3,995명

과 장비 및 보급품 총 592톤을 공수하였다.

순천과 숙천 지역에 투하된 187공정연대전투단은 사흘간의 전투에서 북한군 약 6,000여 명과 교전하여 약 3,000여 명을 사살하고 2,764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숙천과 순천 시내에서 다량의 탄약과 월동 피복을 노획하였다.[59] 이를 지켜 본 전사기록관인 블레어(Clay Blair)는 "2차 세계대전 최대의 공정작전과 비견될 만한 이번 공수투하는 매우 걸출하였고, 미 육군이 행한 전투 강하 중 최고라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라고 평했다.[60]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아 맥아더 장군의 전술적 승리에 대한 자평이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었다.[61] 대부분의 유엔군 포로를 잡고 있는 북한군 잔류 병력은 유엔군 포로를 살해하고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고[62] 오직 전의를 상실한 북한군 1개 연대만을 곤경에 빠지게 했을 뿐이며,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는 이 작전에 대해 애초 의도한 작전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실제 조건 하에서 실시된 매우 훌륭한 훈련 기동"(a very fine training maneuver under realistic condition)"이라고 다소 회의적인 평가를 하였다.[63]

3) 낙동강방어선 돌파를 위한 항공작전

미 제10군단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고 인천을 성공적으로 점령한 9월 16일부터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과 대치중인 미 제8군은 방어선을 돌파하고 북진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였다. 미 제8군은 반격계획을 세우면서 공군력의 충격효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9월 16일은 기상이 좋지 않아 정밀폭격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조건이었다. 극동공군 폭격기사령부는 9월 16일 예하 5개 전대 소속 B-29중(重)폭격기 82대를 동원하여 돌파구를 형성하기 위해 왜관동부지역으로 출격하였으나 표적지역 상공의 낮고 짙은 운무로 인해 2차 표적인 평양과 원산지역으로 임무를 전환하였다. 이는 짙은 구름으로 인해 당시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폭 시 목표지역에 근접해 있는 아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기상예보는 9월 18일부터 항공작전에 적합한 기상조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제8군은 9월 17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제8군의 작전에

협조해줄 것과 왜관의 2개 지역, 즉 낙동강철교와 구인도교가 교차되는 지역의 양편에 각각 500×5,000야드 크기의 2개 지역을 폭격해 줄 것을 공군에 요청하였다. 이에 폭격기사령부는 짧은 작전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9월 18일 제92폭격전대와 98폭격전대 소속 B-29폭격기 42대를 출격시켜 500파운드 폭탄 1,600발을 요청된 적 거점지역에 투하하였다. 이 공습은 매우 급하게 계획되어 실시되었으나 미 제8군 작전참모부 항공장교는 이 융단폭격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의도된 목표에 정확하게 명중하여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하였으며, 미 제1기병사단장 호바트 게이(Hobart Gay) 소장도 B-29의 왜관 폭격이 매우 훌륭하였다고 격찬하였다.[64]

미 제5공군도 낙동강 전선에서 미 제8군의 돌파구를 개척하기 위한 작전에 전력을 집중하였다. 9월 17일 제5공군 소속 전투기는 미 제1기병사단의 공격을 방해하는 다부동의 적진지에 대해 네이팜탄을 퍼부었으며, 포항지역에 몰려 있는 적진지에도 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전의 성과는 미 제2사단 정면에서 났는데, 미 제2사단은 낙동강으로 전진하면서 북한군을 격파·포위하였다. 이러한 공지합동작전의 성과로 낙동강을 건너 패주하는 적병이 발생하게 되자 제5공군 소속 전투기들은 이에 대해 110갈론 네이팜탄 210개를 투하하여 약 1,200명으로 추산되는 적군을 사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9월 18일 반덴버그 공군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65]

> "제8군의 포위 돌파시도를 지원하기 위해 낙동강을 재포위하려던 적 제2사단 병력 약 1,200여 명을 사살했다고 패트리지 장군이 보고했습니다. 네이팜탄 260발을 탱크에 투하했으며, 악 기상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9월 17일 전투기들은 미군들에게 "장벽의 도시(Walled City)"란 별칭을 가진 영천지역에 대해서도 네이팜탄 공격을 집중적으로 가했다. 9월 18일 날씨가 호전되면서 제5공군의 공격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날 제5공군은 286회의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비행을 실시하였고, 19일에는 361회의 근접항공지원

을 실시하였다.[66] 9월 18일 다부동에서 상주로 진격하는 미 제1기병사단 전방 50야드 참호에서 저항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해 F-51전투기는 네이팜탄과 기총사격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선두기갑대대의 중대장들은 9월 19일 오후 공군의 근접항공지원 덕분에 적의 저항선을 분쇄하고 미 제1기병사단의 진출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감사서한을 극동공군사령부로 보냈다.

9월 19일 미 제24사단도 왜관 남쪽 4마일 지점에서 낙동강을 도강하여 김천으로 전진하고 있었는데 공습이 진행되자 북한군 1,500여 명이 도주하기 시작했는데, 당황한 적은 사단의 포사격과 F-80전투기와 B-26경폭격기의 공격을 받아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9월 20일 미군 제1기병사단장인 게이 소장은 이제부터는 전차전이라고 선언했고, 미 제1군단이 적의 저항선을 돌파하면 기갑부대가 적의 중앙부를 전격적으로



1950년 10월 7일, 수원 부근에서 유엔 공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북한탱크와 교량

돌파하여 적을 양분하며 진격했다. 미 제8군의 작전성과를 토대로 세부 진격지점을 예측한 패트리지 장군은 진격부대 최전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수색대가 특히 항공작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여 사전에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것은 바로 모스키토기로 하여금 전진하는 수색대 상공에서 비행하면서 8월부터 지급된 SCR-300 무전기를 통해 지상군 지휘관과 통화하면서 지상부대의 전방과 양 측방을 엄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스키토기를 이용한 지상부대의 엄호작전은 9월 21일 매우 높은 효과를 발휘하였는데, 전진중인 미 제24사단 전방에 약 30대의 탱크로 구성된 적 전차부대가 있는 것을 발견한 모스키토기가 F-51과 F-80전투기를 요청하여 출동한 이들 전투기가 적 탱크 14대를 파괴하자 나머지 적 기갑부대는 도주하였다. 또한 9월 22일 미 제24사단 소속 연대가 김천으로 이어진 철도에서 북한군과 교전시 항공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잔여 탱크에 대한 항공공격으로 적은 궤멸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같은 날 미 제8군이 종대대형으로 적을 공격하였는데 이는 강력한 근접항공지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공격대형이었으며, 제5공군 전투기들은 적 전차 5대를 완파하고 2대에 손상을 주었으며 자주포 2대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제5공군은 동해안을 따라 진격 중인 한국군 1, 2군단에 대한 공중지원도 실시하였는데 9월 22일 하루 동안 125회 근접지원작전을 수행하여 625명의 적군을 사살하였으며, 9월 23일에는 F-80전투기가 패주하는 적군 430명 이상을 사살하였다.

극동공군의 강력한 항공지원과 함께 이루어진 미 제8군과 국군의 지상반격으로 인해 북한군은 9월 22일 이후 전투력을 사실상 완전히 상실한 채 낙동강방어선에서 급히 퇴각하기 시작했다. 이들 북한군은 이후 사기와 전투의지를 상실한 채 생존을 위한 도주를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더 이상 국군과 유엔군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이들 적 패잔병들은 대낮에도 위장과 엄폐를 하지 않은 채 도로에 노출된 채 북상 도주하기에 바빴으며, 자진 투항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9월 22일 모스키토 조종사인 넬슨(George W. Nelson) 중위가 군산 북동부에서 200여 명의 적군을 발견하고 저공으

로 강하하여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는 맥아더 장군의 항복권유 전단을 살포하였고, 이에 적군이 동의하자 넬슨 중위는 공중을 초계하면서 일정 장소로 적병을 집결시켜 인근 유엔 지상군에게 포로로 인계하였다.[67] 제5공군 전투조종사들은 인천상륙작전 개시 이후 9월 23일까지 자신들이 사살한 적군을 6,500여 명으로, 그중 1,400여 명 이상이 그들의 기총, 폭탄, 로켓에 의한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미 제8군이 9월 22일부터 낙동강방어선을 돌파하고 나오자 극동공군 소속 경폭격기 및 중폭격기 전대는 다른 임무는 취소한 채 후방차단임무에 전력을 집중하였다. 이전 후방차단임무가 낙동강방어선으로의 적의 증원과 보급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후 차단작전의 목적은 낙동강방어선에 집결했던 적군들이 서울로 북상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기 전인 9월 11일 이를 예견하고 폭격기사령부 소속 폭격기와 제5공군 전투기들이 협동으로 야간에 이동하는 표적에 대한 공격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폭격기사령부 소속 B-29기가 M-26 낙하산조명탄을 100발 싣고 주요차단목표인 간선도로상의 표적 상공 약 6,000피트에서 조명탄을 점화 투하하면 B-26과 제5공군 전투기들이 폭탄과 기관포 등으로 이동표적을 파괴하는 작전개념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작전은 9월 22일 야간에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B-29기가 수원과 김천간의 국도와 철도 상으로 이동하는 적의 열차와 자동차를 발견하고 조명탄을 투하하자 B-26폭격기가 대전부근에서 약 50분간 저공으로 비행하며 탄약을 적재한 열차와 자동차를 공격 파괴하였는데, 약 30분 가깝게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하였고, 영동 동쪽에서 또 다른 열차와 병력을 발견하고 공격하여 적병 다수를 사살하였다.

또한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은 38°선 이북지역의 주요 보급로에 대해 야간 차단작전을 수행할 B-26경폭기의 부족으로 인해 고민하다가 폭격기사령부에 B-26의 부족분을 매일 B-29중폭격기 3~4기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폭격사령관 오도넬 소장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수단으로, 첫

번째로 B-29가 야간에 적이 이동시 폭발하여 적의 화물이동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지점에 해질 녘에 지연신관폭탄을 투하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사후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행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폭격기사령부는 B-29기가 조명탄과 폭탄을 동시에 탑재하고 출격하는 것이었는데 이 방안은 B-29 승무원들이 표적을 탐지하여 표적에 대해 조명을 실시한 후 타격하는 공격방법이었으나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승무원과 항공기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써, 승무원들에게는 표적탐색과 조명탄 투하, 표적확인 및 표적 타격이 짧은 시간 내에 일련의 과정으로 오차 없이 진행돼야 하는 부담을 줄뿐 아니라, 항공기에게는 조명탄 투하 및 표적 확인 후 180도 선회하여 표적에 재진입하여 폭탄을 투하해야 하는데 B-29와 같이 덩치가 큰 폭격기로써는 이러한 급격한 선회율을 유지하기에는 항공기 성능 상 매우 곤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두 번째 방안도 효율적이지는 못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안으로 고려된 것이 2기 편대로 구성된 B-29기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 대는 조명탄을 탑재하고 또 다른 한 대는 폭탄이나 소이탄을 무장한 상태로 선도기가 조명탄을 투하하면 후속기가 표적에 대해 폭탄과 소이탄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나, 공격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후속 B-29기 후미에 탑승하고 있는 폭격수가 짧은 조명시간 내에 표적을 공격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과, 미제 M-26 조명탄의 불발율이 65%에 달한 다는 점 때문에 전술로 채택하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오도넬 사령관은 9월 30일 야간에 조명탄 1발이 B-29기 기내 무장실에서 폭발하자 조명탄을 이용한 이러한 형태의 모든 작전을 취소하였다. 다행히 영국제 조명탄 1,950개가 영국으로부터 공수되어 B-29기와 B-26기의 협동공격이 이루어졌으나, 영국제 조명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자 B-29기의 북한지역 야간 무장정찰공격임무를 전면 취소하였다.

같은 시기 오도넬 소장은 B-29기의 무장정찰공격이 적을 단순히 괴롭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적들에 대한 이러한 공격이 적으로 하여금 확실히 공포감을 조성하고 야간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줄 것은 확실하지만, 적들에게 아군이 의도한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파괴를 가할



일본 가데나(嘉手納) 기지에서 출격 대기 중인 B-29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폭격기사령부가 미 제8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B-29가 야간임무만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워커 미 제8군사령관은 유엔 지상군이 진격 중에 있는 예천, 함창, 안동, 단양에 대한 B-29의 도심폭격을 9월 23일과 24일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은 남한 도시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은 정치, 군사적으로 기대하는 성과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신에 9월 24일 전선에서 서울로 이르는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B-29 12대를 출격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폭격기사령부 소속 B-29기는 야간 이동표적 타격뿐 아니라 주요 보급상의 정찰임무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B-29기는 심리전 활동도 수행했는데, B-29 13대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10일 동안 퇴각하는 북한군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전단을 살포하였다. 극동공군사령부 작전장교들은 이러한 B-29의 운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정보장교들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일례로 9월 27일 서울 근교에서 북한군 104명이 투항하였는데 이들은 B-29에서 살포한 안전통행증을 휴대하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한 지 10일이 지난 9월 25일경부터 제5공군 소속 F-51, F-80과 같은 전투기들은 탄약과 기관포탄을 남겨서 기지로 귀환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적 지상군이 점차 소멸됨에 따라 타격목표가 줄어든 이유도 있었지만, 전선의 유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근접항공지원 시 아군과 적군이 인접하여 혼전을 벌일 경우 피아간의 식별이 불명확하여 아군을 공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조종사들이 접적지역 내에서 폭격이나 기총사격을 꺼리는데도 그 원인이 있었다.

실제로 9월 23일 F-51 4대가 왜관 근처 282고지에서 영국군 제27여단을 네이팜탄과 기총으로 오인 공격하여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68] 이에 관련하여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모든 조종사에게 표적을 공격하기 전에 적인지 우군인지를 먼저 식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반덴버그 공군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전문을 보냈다.

> "영국군 여단이 아군 전투기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상자 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제5공군과 제8군에서 이 사건을 신중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군이 강을 건너기 위해 강가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적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강 동쪽에 있던 전술항공통제관들이 전투기를 요청했고, T-6 항공통제사가 전술항공통제사의 지시에 따라 전투기를 유도했으나, 적 후방에 전진해 있던 영국군이 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69]

이러한 제5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오폭사고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은 적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적의 일부 패잔병들이 무사히 이북으로 돌아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남한 내에서의 북한 지상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거의 종식되어가고 있었다. 남부에서는 9월 23일 이후 북한의 6개 사단 잔류 패잔 병력을 소탕하기 위해 미 제2, 24사단과 기타 지원부대로 구성된 미 제9군단이 작전을 시작하였고, 9월 26일 오산 북방에서는 미 제8군의 1기갑사단 선발대대가 제10군단 예하 제7사단 병력과 조우하였고 9월 27일 오후 미 제10군단 예하 해병대 병력이 서울 시청을 탈환함으로써, 미 제8군의

낙동강방어선 돌파와 서울까지의 북진작전은 성공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9월 27일 미 합참은 소위 '9・27 훈령'을 통해 맥아더 장군에게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여 북한군을 격퇴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유엔군 사령부는 중・소 국경지역에서의 전투 활동은 한국군에게만 허가하였으며, 미 합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지역 내 중요시설 파괴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판단 하에 북한지역에 대한 전략폭격을 중지시켰다. 드디어 9월 29일 수도 서울 반환식이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 주력이 섬멸되었다"라고 유엔에 정식 보고하였다.

10월 1일 맥아더 장군은 남한 내에 잔존하는 교통망을 보존하기 위해 당장 북한군 지원에 이용되지 않는 38°선 이남의 철도에 대해서는 파괴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극동공군사령부는 향후 북진에 대비하여 40°선 이남의 비행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파괴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미 제8군의 낙동강방어선 돌파 지원 작전 기간 중 유엔 공군은 항공근접작전 및 차단작전 임무 이외에도 심리전 작전을 수행하였는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약 440만 매의 전단을 살포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투항을 권유하였다.

4) 38°선 돌파 및 북진작전

미 제10군단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서울 수복, 그리고 미 제8군이 낙동강방어선을 돌파, 북진하여 38°선에 근접하자 전쟁을 이끌고 있던 한국과 미국의 정치 및 군사 수뇌부는 38°선 돌파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할 중・소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미국이 유엔군의 38°선 이북으로의 공격을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붙여 허용한 '9・27 훈령'을 맥아더 장군에게 하달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9월 29일 오후 2시 대구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전군수뇌부를 모아 회의를 실시하여, 정일권 육군 총참모장에게 38°선 돌파를 지시하였고 정일권 총참모장은 9월 30일 강릉에 주둔해 있는 국군 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하고 38°선에 도달해 있는 제3사단 23연대의 진지에 나가 전선을 시찰한 뒤 군단장에게 구두로 38°선 돌파를 명령하

였다. 국군 3사단 23연대는 10월 1일 05:00시에 인구리 북쪽 진지에서 38°선 이북 20㎞ 지점인 양양을 목표로 진격하여 14:00시경 양양을 점령함으로써 역사적인 38°선 돌파는 국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극동공군에서는 이전부터 북한 전쟁지도부 및 북한군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벽 03:00시에 B-29중폭격기를 이용하여 평양을 전면 폭격하여 북한군의 항복시기를 앞당기자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은 9월 27일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 작전에 대한 필요성과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설명하였다.[70]

① 북한에 남아있는 중요 군사시설물은 평양에 있는 군 막사, 훈련소, 저장소, 조차장 등이 있습니다. 평양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표적을 확실하게 파괴하기 위해 B-29중폭격기 100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모든 표적은 전술적으로 공격할 가치가 있고, 시각 폭격과 정밀폭격으로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② 이 계획은 의장님의 재가를 받아 합동참모본부나 다른 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③ 만약 대규모 작전에 대한 재가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도 표적 공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공사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이날 18:00시에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을 만난 자리에서 극동공군이 시행하려는 계획을 합참에 보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며, 9월 28일 맥아더 장군은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에게 자신이 본국으로부터 북한에게 항복을 권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일시적으로 공격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런 중에 9월 30일 미 합참의장 콜린스(Lawton J. Collins) 대장은 맥아더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 평양에 대한 대규모 폭격은 지휘부의 승인을 얻은 후 합참에게 통보 후 시행할 것을 완곡히 지시하였다.

"한국의 전황이 좋지 못할 때 평양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논의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맥아더 장군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런 작전계획이 있다면 미묘한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여 지휘부에서 이의가 없도록 동의를 얻으신 후에 저에게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71]

이에 대해 맥아더 장군은 다음과 같이 합참의장에게 아직까지 적 시설을 파괴하는 것 이상의 평양에 대한 대규모 폭격과 같은 공격계획은 구상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평양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시행된다면 이는 아군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때에만 시행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10월 1일의 항복 권유문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응답이 없자 맥아더 장군은 10월 2일 유엔군사령부 명령 제2호를 하달하여 북진을 명령하였다.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2호는 미 제8군이 주공으로 38°선을 돌파, 개성-사리원-평양 축선을 따라 공격하고, 미 제10군단은 미 제8군이 공격을 개시하면 1주일 이내에 원산에 상륙하여 원산-평양 축선을 따라 서북으로 진출하여 미 제8군과 연결 적의 퇴로를 차단 및 포위하고, 유엔군은 정주-군우리-영원-함흥-흥남을 연결하는 선까지만 진격하고, 그 이북지역에 대한 작전은 국군에 전담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월 2일 명령에서 유엔군의 북진한계선인 정주-함흥-흥남을 연결하는 선은 소위 '맥아더 라인'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북위 39도 40분에서 50분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압록강으로부터 90~170㎞ 남쪽에 있었다.[72]

북한 진격작전 중 공군의 임무는 인천상륙작전과 동일하였다. 미 극동공군의 주 임무는 현재의 임무를 계속하고 미 제8군의 북진을 지원하며 명령에 따라 미 제10군단의 상륙작전과 진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극동공군사령부는 예하 비행부대에 임무를 할당하였다. 우선 제5공군은 현재 임무인 미 제8군에 대한 공중지원을 최대화하고 원산상륙지역을 제외한 한국 영공에서의 제공권을 계속 유지하며 원산비행장을 수송기와 전투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할 것과 상륙작전 이후 원산지역의 작전지휘권 인수에 대비하여 평양비행장을 복구하도록 임무를 부여 받았다. 또한 폭격기사령부에 대해서는 주요 수송로 및 군사목

표에 대한 차단 및 전략폭격 이외에 제8군과 제10군단을 지원하면서 지역폭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전투공수사령부에는 공수작전, 공중철수, 평양과 원산에 대한 긴급 공수작전을 책임지도록 지시되었다. 그리고 제5공군과 폭격기사령부 협동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사진정찰, 후방차단작전과 무장정찰을 실시하고 원산 상륙 공격개시 5일 이전에 원산지역을 고립시킬 책임을 부여하였다.

10월 첫 주간 지상 및 공중작전은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10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 하에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한 국군 제3사단은 10월 7일 원산 약 20㎞ 전방까지 압박해 들어갔으며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1기병사단이 평양을 향한 진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 제5공군과 미 해병항공대는 동부전선에 단독으로 북진하고 있는 국군을 지원하였으며 "모스키토" 관제사들도 국군의 작전을 위한 전방정찰을 실시하게 되었다.



유엔 공군의 폭격에 의해 파괴된 원산정유공장

10월 7일 “모스키토”기가 한국군 전면에 적의 대전차포를 발견하고 F-51전투기 2대와 F-80전투기 4대의 출격을 요청하여 적 포대를 격파하였다. 10월 10일 국군은 원산에 돌입 시가전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모스키토” 포리곤(Polygon) 편대는 국군 수도사단을 지원하였고 이들은 각처에서 분산된 적을 발견하여 미 해병항공기와 미 제5공군 항공기를 유도하여 적을 공격하였으며 또한 F-4U전폭기 1개 편대가 국군의 진로를 개척하여 주었다.

이러한 항공력의 지원 아래 수도 사단은 10월 10일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10월 11일 원산비행장을 점령하였으며 10월 14일 원산 북방 30Km 까지 진출하였다. 국군의 진격이 급속히 이루어졌으므로 원산은 미 제10군단의 상륙작전 개시일 이전에 함락되었고, 공격개시 5일전에 이미 ‘맥아더’ 원수의 작전명령에 포함된 원산상륙지역에 방어진을 구축하였다. 패트리지 소장은 10월 11일 원산비행장을 시찰하고 활주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하였으며, 10월 12일 전투공수사령부는 원산에 있는 국군에게 22회에 걸쳐 131톤의 보급품을 수송하였고, 10월 13일 미 제18전폭기전대를 원산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에 따라 제 6002전술지원단 파견대를 원산으로 공수하였다.

그러나 10월 11일 맥아더 원수는 미 제10군단이 원산지역에 도착하는 즉시 원산비행장을 미 제10군단 전술항공사령관 지휘 하에 있는 지상기지 주둔 비행기들이 사용하도록 명령하고 원산지역에서 전투중인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미 제10군단에 이양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웨이랜드(Weyland) 극동공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즉시 10월 11일 극동군사령관의 메시지와 원산 상륙작전명령과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메모에서 “왜 총사령부에서는 원산으로 이동할 해병비행단의 작전 지휘권을 미 극동군에서 분할하려고 하는가? 지상에 기지를 둔 비행부대를 2개의 독립된 지휘통제 하에 두고 작전하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하였다.[73] 웨이랜드 소장의 메모를 받은 총사령부는 약간의 동요가 있었으나 미 제1해병비행단으로 독자적인 항공지원사령부를 설치하여 미 제10군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지상주둔 항공부대의 작전통제 일원화와 관련된 논쟁이 극동군사령부

정책회의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소장과 미 제1해병비행단장 해리스(Field Harris) 소장은 10월 13일 해병비행대의 이동문제를 협의 중에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미 제5공군은 기상과 통신지원을 포함한 기타 지원부대를 원산에 설치하고 지원하며, 해병항공대가 원산으로 이동할 때까지 미 제5공군에서 국군을 계속 지원할 것과, 미 해병항공대는 10월 14일까지 원산으로 수송기로 이동 개시하며, 해병대가 원산에 이동완료하면 국군 제1사단의 작전지원을 미 해병비행단이 인수한다는 점이 합의되었다.

한편 미 제8군은 제5공군의 지원을 받아 북진을 계속하였으나 측면 지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10월 12일 제5공군은 146회의 출격을 하였는데 미 제1군단에 81회, 국군에 65회의 공중지원을 하였을 뿐이다. 미 제1군단이 개성에서 적의 심한 포격을 받아 진격이 저지당하자 F-80전투기가 적을 공격, 야포 11문을 파괴하고 진로를 열었다. 미 제8군의 주력이 10월 17일 사리원을 향하여 우회공격을 하고 있던 중, 모스키토(HAMMER)기가 사리원 부근에서 기관차 3대가 40량의 유개화차에 병력과 보급품을 만재하고 남하하는 것을 발견 F-80전투기 4대를 유도하여 파괴하였다. 또 다른 3개 전투기편대는 신원리에서 북방으로 패주하는 적의 행렬을 발견하여 이를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영연방 제27여단의 증원을 받은 미 제1기병사단은 미 제5공군의 지원 하에 10월 19일 평양에 돌입하였다. 적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국군 제1사단은 평양 남부 및 동쪽에서 평양을 공격 미림비행장을 점령하였다. 10월 19일 미 제5공군 전투기들은 모스키토(MIGRATE)기의 통제 하에 차량 34대와 우마차 5대, 야포 2문, 전차 1대와 기타 다수의 적 장비를 성천과 신창 간의 도로에서 파괴하였다.

평양을 점령한 유엔군은 보다 많은 적을 생포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18일 맥아더 원수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10월 20일 평양전방 약 50㎞ 전방인 숙천과 순천 간 주도로 일대에 투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 제5공군은 낙하지역에 교란공격을 가하고 모스키토 관제사와 협력 지원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0월 20일 모스키토 '나이트메어(NIGHTMARE)' 편대와 F-51폭격기 75

대, F-80전투기 62대, B-26경폭격기 5대가 목표지역에 출격하여 연료 및 탄약 집적소 5개소를 불사르고 적 차량 53대, 우마차 23대, 전차 4대, 야포 1문을 파괴하였고 B-29중폭격기 1대와 B-26경폭격기 6대가 공두보 북서쪽에 있는 적 차량수리소를 공격 파괴하였다.

공정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는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과 협의를 실시하였다. 김포기지에 대기하고 있던 187공정연대전투단 병력은 10월20일 이른 오전에 제314공수전대 소속 C-119수송기에 탑승을 완료하였으나 악천 후로 이륙이 6시간이 지연되어 14:00시에 숙천 상공에 도달하여 최초로 낙하산병이 투하되기 시작하였다. 15:00시에 C-119수송기 71대와 제21공수대대 소속 C-47수송기 40대가 2,860명의 병력과 301톤의 보급품과 장비를 투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단지 2대만이 장비결함으로 전투 장비를 투하하는데 실패하였다.

공정연대전투단의 공수투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불의의 기습을 당한 적은 포와 탄약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며 10월 20일 20:00시에 국군 제6사단과 순천지구에 투하된 공수 병력이 연결되어 평양부근에 잔존하고 있던 적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평양 외곽 포위망 형성에 성공한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공수지원이 실시되었는데 10월 21일 10:00시에 C-119수송기 40대로 병력 1,093명과 보급품 106.8톤이 투하되었으며 10월 22일에는 C-119수송기 22대가 130톤의 보급품을 공수하였고, 23일에는 C-119수송기 9대로 보급품 54톤을 공중투하 함으로써 숙천, 순천지역에 대한 187공정연대전투단의 공수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미 제10군단은 계획된 10월 20일에 원산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없었으며 북한군은 유엔군의 상륙을 예상하고 원산항 내에 많은 기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10월 26일까지 상륙할 수 없었다. 그러자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10월 20일 헬기로 원산에 들어가 원산지역내에서 작전 중이던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해병비행단의 지휘권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4일 전인 10월 16일 맥아더 장군은 미 제10군단의 선견부대인 국군 제1사단이 상륙작전지역을 벗어나 북진을 계속

하는 즉시 항공작전 지휘권을 극동공군에 이양하라고 지시하였다.

알몬드 소장은 미 제10군단의 목표지역을 해제하라는 명령에는 따랐지만 폭격선내의 모든 근접지원작전과 후방에 위치한 합동작전본부와의 통신연락의 불량으로 필요한 경우 공중정찰 및 연락용으로 미 제1해병비행단을 미 제10군단에 배속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맥아더 원수는 한국 내에 기지를 둔 모든 항공기의 지휘권은 미 제5공군에 있으며 제10군단은 합동작전본부의 지시에 따라 항공지원요청을 조정 받아야 한다고 지침을 하달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원산에 주둔한 미 제1해병비행단의 작전지휘권을 극동공군사령부에 이양하였고, 극동공군사령부는 미 제5군에 이를 재차 이양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지리적 여건으로 지상군이 분리된 2개 사령부로 편성되어 제5공군은 이 양개 사령부에서 동시에 항공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 어디에 우선권을 두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곤란하였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극동공군사령부에서는 2개의 전술공군사령부를 설치하려고 검토한 결과 인원과 장비의 부족으로 불가능하여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① 제1해병비행단을 미 제5공군의 작전지휘하에 둔다.
② 미 제10군단의 지원 작전은 미 제1해병비행단이 담당한다.
③ 미 제5공군은 필요한 경우 미 제10군단과 미 제8군을 지원한다.
④ 해군과 폭격기사령부의 항공기는 전선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일반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지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미 제5공군에서는 11월 12일 미 제1해병비행단에게 다음과 같이 임무를 부여하였다.

① 미 제5공군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미 제1해병비행단은 미 제10군단 지역의 제공권을 유지하고 공중방어 작전을 계속하라.
② 미 제5공군에서 발하는 일일작전명령에 따라 미 제10군단과 미 제8군에 대한 지원 작전을 수행하라.

③ 긴급 시에는 제5공군의 승인이 없을지라도 미 제10군단의 근접지원작전을 수행하라.

④ 미 제1해병비행단은 제5공군의 일일작전 명령에 따라 무장정찰, 선정된 목표에 대한 공격, 공·해·지상군의 호위임무를 수행하고 적 지상 및 해상병참선을 차단할 준비를 갖추라.

미 제5공군은 미 제10군단에게 일일 공중지원 요청목록을 합동작전본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미 제1해병비행단에게 제10군단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원산과 서울에 있는 합동작전본부 간에는 통신망이 제한되어 서울에 있는 합동작전본부에서 원산에 있는 미 제1해병비행단을 통제하기 곤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 제10군단에 대한 항공지원체제는 중공군이 개입하고 전황이 급박해짐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미 제5공군은 미 제1해병비행단에게 합동작전본부의 지시 없이 미 제10군단을 근접지원 하라고 명령하고 미 제1해병비행단이 감당할 수 없는 근접지원요청은 즉시 미 제5공군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유엔군의 북한지역으로의 급속한 진출은 항공차단작전 전반을 검토하게 만들었다. 극동공군은 이제까지의 항공차단작전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간단없이 진행된 차단공격에도 불구하고 10월 중 잔존하는 북한 몇 개 사단을 유지하기 위한 일일 최소 필요량인 50톤의 보급품이 각 지역에 있는 보급소에 원활하게 수송·저장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증원을 저지하고자 특정지역에 대한 후방차단작전은 계속 되었다. 미 극동공군의 작전계획관들은 조차장을 파괴하는 것이 적의 철도망을 파괴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며 교량을 공격하는 것이 도로망을 차단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결론지었다.

1950년 10월 6일 미 극동공군은 새로운 후방차단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원산 남방과 평양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그 대신 32개소의 주요 국도와 철교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들 공격지점의 대부분은 신안주에서 북으로 뻗은 3개의 통로였으며, 특히 안둥(安東)에 이르는 통로 상에 집중되었다. 매일 같은 출격으

로 10월 14일 미 극동공군사령부의 표적목록에는 6개의 교량만이 남아 있었으므로 10월 18일 B-26경폭격기들에게 신안주 이남의 작전은 금지되었다.

유엔군이 북진을 계속하는 동안 야간공격도 계속되었다. 10월 2일 오도넬 소장은 우발긴급표적[74]에 대하여 B-29중폭격기의 출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영국제 마아크(Mark)Ⅲ 조명탄을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B-29중폭격기와 B-26경폭격기의 야간 협동작전은 폐기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지연신관폭탄을 이용한 박명시간대 적 통신망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었다.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은 오도넬 소장의 요청을 수락하고 그에게 만주국경 50마일 범위 내의 북한지역 간선도로에 지연신관 폭탄을 투하하라고 지시하였다. 뒤늦게 미국에서 이동한 제162전술정찰대대는 야간정찰을 포함한 한국 서북부 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실시하였다. 정찰기가 목표물을 발견하고 레이더 기지에 연락하면 곧 B-26 야간 폭격기를 목표지점으로 출격시켰다.

항공작전지역이 북한 깊숙이 이동함에 따라 만주국경 침범 금지령은 정치적으로는 필요하였으나 군사작전에는 큰 타격을 주었다. 맥아더 장군은 1948년 6월초 소련위성국 40마일이내 지역에 대한 비행금지령을 하달한 바 있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 국무성과 협의한 다음 미 공군성에서는 미 공군에게 모든 공중근무자들에게 중·소 국경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명령하였다. 또 국경선 부근을 폭격할 경우 레이더 조준폭격에 의존하지 말고 육안폭격을 실시하라고 강조하였다. 9월 2일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은 예하 부대 지휘관에게 소속 승무원들이 국경부근에서 비행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국경지역에서 이탈하도록 철저히 교육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복잡한 산악지형과 이에 익숙하지 않은 유엔군 조종사들은 간혹 착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오폭이 가해진 경우도 발생하였다. 1950년 8월 27일 2대의 전투기가 만주 안동부근의 공산군 비행장에 기총소사를 하였다.[75] 이 사건에 대해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국내외에 표출하였으며, 중국은 향후 중공군의 6·25전쟁 개입에 대한 명분 축적용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1950년 8월 27일 오전 10시 4분, 두 대의 미 B-29

기가 북한과 중국 양국의 경계인 압록강을 건너 중국 동북지역의 지안(輯安) 및 그 부근의 상공을 침입 하여 10분간 선회하다 돌아갔다. 같은 날 10시 5분, F-51기 3대와 모스키토 1대가 중국 강 연안 시내 및 그 부근 다리쯔(大栗子)역을 2분간 소사하고 뒤이어 철로를 2분간 소사하여 기관차 1대를 파괴하였다. 11시 4분, 4대의 미 비행기가 다시 같은 지역에 침입하여 압록강 다리 부근 지역을 11분간 소사하고 객차 1대, 화차 1대를 파괴하고 운전사 1명과 주민 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오후 2시 30분, B-29기 1대가 압록강에 침입하여 중국 안둥(安東)시 상공을 선회하였다. 15시 40분, F-51기 2대가 안둥공항 상공에 침입하여 소사하고 트럭 2대가 파손되고 공항직원 17명이 부상당하고 3명이 사망하였다"[76]라고 기술하고 있다.

사건 당일 저우언라이(周恩來)는 동북군구 가오강(高崗) 사령관과 허진넨(賀晉年) 부사령관에게 동북지역, 특히 북한과의 접경지역과 공군기지는 상공을 철저히 방어하고 유엔 공군기가 중국 국경을 넘는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날짜별 월경횟수와 시간, 항공기 종류와 대수, 기총 소사 및 폭격 유무 등 피해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동북군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상황을 조사 후 이튿날인 8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 명의로 미국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항의전문을 보냈다. 또한 저우언라이는 중국을 대표하여 유엔 안보리 말리크 의장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문을 보내어 미국 공군의 중국 영공침입 행위에 대해 제재를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중국 주권을 침범하고 중국 인민을 학살하고 더 나아가 침략전쟁을 확대하여 평화를 파괴하려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중국인민은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하였다.[77]

9월 22일 야간에도 제98폭격전대의 B-29중폭격기 1대가 안둥(安東) 근처를 폭격하였는데 조종사는 안둥의 지형과 안둥이남 60마일 지점에 있는 신안주의 지형이 유사하여 신안주를 공격한 것으로 착각하였다.[78] 중국은 이에 관해서 "9월 22일 22시 1분, 미군 공군기 1대가 중국 랴오둥(遼東)성 콴뎬(寬甸)현 라구사요(拉古哨) 상공을 침입하여 정찰하던 중 중국 방공부대가 경고하자 남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같은 날 22시 15분 미국 공군 B-29형 폭격기 1대가 안둥시 상공을

침입하여 전안루(鎭安路) 동남부 일대에 12발의 대형폭탄을 투하하여 2명이 부상을 입고, 28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밭 5묘 이상이 파괴되는 등 중국인민의 생명과 재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79]라고 주장했다.

당시 패전을 거듭하여 북으로 패주하던 북한군에게 보급되는 장비와 물자의 대부분은 중국 안둥에서 한·만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이 때문에 북한 북서부 주요 보급상의 폭격이 시급하였으나 조종사들은 국경선 50마일 이내 비행금지령으로 인해 효율적인 작전수행에 극도의 제한을 받았다. 극동공군사령관은 평양-원산선 지역에 대한 작전임무를 받은 조종사들은 반드시 북한 지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을 것이며 자신의 위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공격을 금지하라는 특별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국경지역에 대한 오폭 주의령이 하달된 가운데 10월 8일 F-80전투기가 시베리아에 있는 소련 비행장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10월 9일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에게 보고되는데 당시에는 'P-39 또는 P-63항공기 20대가 주기된 북한 동북쪽 비행장을 F-80전투기로 공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튿날인 10월 10일 패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으로부터 F-80의 북한 비행장폭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반덴버그 총장이 극동공군 사령관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 "청진비행장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F-80전투기 2대가 1950년 10월 8일 소련국경을 침범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낮게 깔린 구름사이로 P-39기로 보이는 항공기 20여 대가 주기된 비행장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여 1대를 파괴하고 그 이상을 파손시켰다고 하는데 조종사 지형설명으로 보아 라신(Рачци) 지방의 비행장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80]

10월 10일 16:17분에 소련정부는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미국 항공기의 소련영공 침범 및 소련 국경으로부터 내륙으로 약 100㎞ 떨어진 수카야 레카(Сухяа Река) 지방의 소련 비행장이 공격당했음을 항의하였다. 10월 12일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은 제49전투폭격전대장 스미스(Stanton T. Smith, Jr)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조종사인 알톤 퀜벡 중위와 알렌 디펜돌프 중위를 군사재판에 회부하게 되었다.

유엔 지상군이 압록강으로 진격함에 따라 미 극동공군사령관은 국경선 50마일 이내에서의 작전금지령을 다소 완화하여, 10월 17일 무장 정찰기에게 시계비행하에서는 국경선 50마일 이내 지역공격을 승인하였으나, 서쪽에서 화탄동-강계-합수-무릉동-화단을 연결하는 선인 '챱-라인'(Chop Line) 이북지역에 대한 공격은 금지시켰다. 그러나 극동공군사령부는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장군에게 예외적으로 긴급 또는 사전보고가 있을 시 '챱-라인' 이북에서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10월 25일 지상군이 '챱-라인'을 넘어서자 전술항공통제반과 모스키토 공중통제관들의 직접 관측 하에 근접지원 공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국경선에 근접해서 작전하도록 승인하였으며 이런 경우 조종사들을 엄격히 선정하고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들이 이들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중공군이 북한지역에 출현하기 시작한 10월 25일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은 국경선 50마일 이내 목표물에 대한 폭격제한을 철회하였으나 국경선 침범은 금지하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상군이 북진을 계속하고 북한 지역을 석권하게 되자 맥아더 장군은 10월 17일 미 제8군과 제10군단에게 지난 10월 2일 선포한 정주-흥남을 연결하는 유엔군 북진한계선인 소위 '맥아더 라인'을 돌파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중공군이 만주로 집결하고 있다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10월 4일 맥아더 장군과 미 육군성은 "유엔군이 38°선을 돌파 북진하면 중공군이 한국전에 공개적으로 관여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81]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중공군의 개입 전 북한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여 통일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믿음과 의지를 갖고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목적으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같은 날 극동공군사령관은 맥아더 장군에게 신의주 폭격을 강력히 건의하는 서한을 발송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격방법으로는 ① 무경고 하 시내 가장 넓은 곳을 선정하여 고성능 폭탄 투하, ② 경고 후 시내 전체에 대해 고성능 폭탄 투하,

③ 시내 군사목표만을 무경고 하 선별 타격, ④ 경고 하 시내 군사표적을 고성능 폭탄으로 타격하는 4가지 방안을 추천하면서 신의주를 공격하는 이유로는 ① 북쪽으로 퇴각한 북한군이 마지막 보루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② 많은 공업시설과 60,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평양에서 퇴각 시 임시수도로 정할 가능성 농후하며, ③ 한반도와 만주의 철도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④ 대규모 폭격으로 중국의 참전의도를 사전에 저지하는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⑤ 도시의 공업시설이 북한군에게 상당한 장비 및 물자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의주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이트메이어 사령관은 10월 18일 미 극동해군사령관 및 제5공군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피력하였다. 그 내용은 극동공군과 극동해군 간의 협조와 연합항공작전을 위해 표적을 재선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음 7가지 사항에 대해 강조하였다.[82)]

① 한국 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제5공군은 유엔지상군을 지원해야 합니다.
② 미 제8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은 제5공군의 주 임무입니다.
③ 미 제10군단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은 원산에 있는 제1해병비행단의 주 임무입니다.
④ 항공모함에 있는 해병항공대 항공기들은 제5공군이 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전을 지원하고 해병비행단 전술항공전대 지휘로 제10군단의 근접항공지원을 수행합니다.
⑤ 제5공군에서는 제10군단에서 필요로 할 경우, 추가로 지원해야 합니다.
⑥ 제5공군사령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군항공기들은 근접지원을 해야 합니다.
⑦ 해군 항공기들은 비행장공격, 철도와 도로차단 등을 폭격이 가능한 지역까지 실시해야 하며 특히 중폭격기를 동원한 극동공군의 차단작전을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극동공군에서는 북쪽에 설정된 폭격선 너머에서 비행장 공격과 철도, 도로차단 등도 실시해야 합니다. 공중의 활동은 극동해군과 극동공군의 협조 정도가 지상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5공군과 해군 간 통신이 조속히 소통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극동공군사령관은 해병항공단과 항공모함에 탑재된 해군항공대 모두가 근접지원작전과 항공차단작전에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극동 해·공군의 작전협조가 향후 전쟁을 종결시키는데 주요한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5) 중공군 개입의 징후

6·25전쟁이 발발하고 유엔군이 참전한 이후 중국의 한국전 개입은 한국과 미국의 지대한 관심사였다. 특히 연합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으로써는 중국의 전쟁개입은 전쟁수행 지도지침의 전면적인 검토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와 한국에서 전쟁을 직접지휘하고 있는 맥아더를 비롯한 군 수뇌부들은 한시도 중공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1950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미 중앙정보국과 극동군 정보부는 중공군의 만주진입을 감시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1950년 7월 8일 116,000명에 불과했던 만주주둔 중국 정규군이 8월 8일에는 217,000명으로 증가되었으며, 8월 30일에는 246,000명으로, 9월 21일에는 중국 남부와 중부에서 이동한 병력이 보강되어 450,000명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83] 이들은 만주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린뱌오(林彪)의 제4야전군 소속이나 그 밖에 하이난도(海南島)와 타이완(臺灣) 공략작전에 참전하고자 남하했던 자들도 적지 않았다.

미 정보기관은 중공군이 한국에 참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은 중국 공군 개입에 대해 중공군이 지상군 개입이전에 공군이 우선적으로 참전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그 이유는 1950년 8월 22일~23일 양일간에 걸쳐 한·만 국경 정찰비행중인 RB-29에 대해 만주지역에서 대공포 공격이 감행되었고,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상황에서 북한지역내 비행장보수와 활주로 건설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극동공군사령부 정보망에 의하면 중국이 항공기를 만주, 안둥(安東)의

2개 비행장에 옮기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8월 27일 F-51 2대의 안둥 부근 비행장 기총소사에 대해 다음날인 8월 28일 중국 외무성의 항의가 있었고 6·25전쟁 발발 이후 미군기가 5차례에 걸쳐 만주영공을 침범하였다고 과장된 주장을 하는 등 6·25전쟁에 개입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9월 26일 극동군사령부 정보부는 소련이 전면개입을 꺼리고 있으므로 중공군도 한국전에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런 가운데 9월 25일 중공군 총참모장 대리가 38°선 문제에 대해 주중 인도 대사 파니카(K. M. Panikkar)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38°선을 돌파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경고가 있었고 10월 3일 중국외상 저우언라이(周恩來) 또한 파니카에게 미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국은 북한의 방위를 위해 중공군을 파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10월 5일 극동군사령부 정보부는 압록강 연변에 중공군 18개 사단이 전개되어 있으며 만주내의 중공군은 38개 사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보다 하루 전인 10월 4일 미 행정부로부터 유엔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공군이 공개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맥아더에게 전달되었다. 10월 10일 저우언라이는 유엔에서 한국 관계 결의안이 통과되자 "중국 인민은 이웃이 침략당하고 있는 것을 묵묵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이러한 중국 당국자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경고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미국 행정부나 맥아더 장군은 중국의 한국전 개입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확률은 높지 않다는 낙관론에 기울고 있었다. 10월 15일 맥아더 장군은 웨이크(Wake)섬에서 트루먼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추수감사절까지 한국에서 군사작전을 끝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다음 "중국이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참전했더라면 결정적인 것이 되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개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은 만주에 병력 300,000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100,000명 내지 125,000명이 압록강 연변에 배치되어 있는데, 압록강을 넘어올 수 있는 인원은 기껏해야 5~60,000명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중공군에게는 공군이 없으나 우리는 한국에 4개의 공군기지를

두고 있고 중공군이 평양까지 남하해 온다면 평양은 최대의 살육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84]

그러나 중국에 공군이 없다는 맥아더의 발언은 중국이 최소한 300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극동공군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제트전투기를 포함한 적기의 계속적인 출현보고를 기초로 스트레이트메이어 사령관은 "제5공군이 관할하는 영공에서의 절대적인 제공권의 유지가 가장 우선적인 임무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장군에게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18일 오후에 제31전략정찰대대 RB-29정찰기가 만주 안둥(安東)비행장에 주기된 약 75~100대의 전투기를 식별하였는데, 다음날 사진정찰을 실시한 결과 1대도 식별할 수 없었으나, 극동공군은 이와 같이 많은 수의 항공기를 안둥비행장에 전개시킨 사실에 대해 주목하면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기에 골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행동들이 중국이 한국전에 군사적 개입이라는 직접적인 단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나 10월 24일 중국이 적어도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리라는 군사적 행동을 노출하였다. 즉 한·만 국경선에서 중국 쪽으로 3~5마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중공군 대공포 진지에서 북한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항공기에 대해 사격을 가하였으며, 다음날인 10월 25일에도 압록강 건너에서 북한상공으로 고사포를 발사하여 신의주 방면 상공에서 임무 중이던 F-51전투기 2대가 피격되었다. 극동공군사령관은 이에 대해 중국의 유엔 항공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하였으나 이후에도 중공군의 유엔항공기에 대한 대공사격은 계속되었다. 이로써 중국의 6·25전쟁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군사적인 개입은 서서히 기정사실화 되고 있었다.

제 5 절 분석 및 평가

기간 중 한국과 유엔 공군은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낙동강 방어선에서 고착된 국군과 미 제8군을 지원하여 북한군을 격퇴하고 북진하는데 전 전력을 투입하였고 북한군 패퇴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38°선 돌파 후에는 아군의 전선 확대에 따라 아 지상군을 엄호하고 적의 증원을 차단하면서 전선으로의 인원, 장비, 보급물자 수송임무를 수행하였다. 지상 전력과의 협조는 매우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 성과 이면에는 급격한 전선확대에 따른 통신 및 후방 지원상의 문제와 원산상륙 전후에는 지상군과의 항공작전 통제에 관한 혼선과 이견이 있었다. 또한 폭격기 사령부는 조명탄과 항공기 특성상의 문제점으로 야간 폭격에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비한 여건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한국공군과 유엔공군의 작전 성과는 매우 지대하였다. 기간 중 한국 공군과 유엔공군은 1일 작전능력을 초과하는 작전 수행을 통해 북한군의 전투의지와 작전능력을 소진시켜 전쟁 상황을 아군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9월 30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2주간의 사태가 6·25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서울지역의 적 중추부가 점령됨으로써 남한 내 적의 병참보급이 고립되고 이로 인해 적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85]고 평가하였다. 당시 많은 국내외 저널리스트와 기자들은 낙동강까지 밀렸던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군의 예봉을 꺾고 반격을 감행하여 서울 이북으로 적군을 몰아내자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고 작전성공에 회의적이던 반대여론을 무마시키며 실행에 옮긴 맥아더 장군의 탁월하고도 기민한 전쟁수행능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적 후방에 상륙하여 전쟁양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전기를 마련했던 제10군단에게도 그 공을 돌렸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양상의 완전한 반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기습적인 공격으로 파상적인 공세를 취하여 준비가 전혀 없었던 국군을 순식간에 남쪽으로 밀어내고 남한의 거의 전부를 석권하며 패배를 모르던 막강한 북한군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1950년 11월 발표되었다. 그것은 이전까지 잡혀온 북한군 포로 약 2,000여 명에 대해 극동군사령부 정보부(G-2) 소속 번역 및 통역반이 실시한 광범위한 심문 결과와 노획된 적문서 및 관련 자료를 근거로 발표된 조사 보고서였다. 이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과연 북한군의 입장에서 북한군의 전투수행 의지와 능력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장애로 작용한 아군의 능력과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 담긴 극동군사령부의 분석은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 지상군에 대한 유엔 전술항공기의 강력하고도 집중적인 항공공격이 한반도 전체를 석권하려는 침략자를 방어하는데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유엔군이 적으로부터 처음으로 전쟁 주도권을 빼앗은 기간과 그 이후에 지속된 전술항공기에 의한 항공지원은 아군의 맹렬하고도 급속한 북진에 대단히 기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군 포로들이 유엔 공군기의 국적, 소속부대, 항공기의 형태 및 종류를 식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어느 특정부대의 성과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체 유엔 공군의 작전효과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관심을 끌만하면서도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북한 공군의 효과적인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군 지상부대를 지원하는 유엔 공군기들은 최고의 능률과 압도적으로 우세한 조건하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적 지상표적과 병력집결지에 대한 무제한적인 주간공격이 북한군의 전술을 와해시키고 파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북한 전투부대는 예외 없이 야음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전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공군 전투기들의 폭격과 기총소사, 그리고 로켓공격은 가장 주요한 요소였다. 북한군 포로가 실토한 여러 가지 사기저하 요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18%가 항공기에 의한 공습을 들었고, 간접적 원인으로 약 35%가 유엔 공군기에 의한 병력손실과 장비손상을 지적했다. 항공기에 의한 북한군의 인명손실은 지상 포화에 의한 손실과 대등한 수준이었으며, 항공기 공격에 의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은 장비는 지상무기에 의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 주보급로, 시설 및 수송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기총소사 및 폭격은 북한군 전방전투부대에서 사용될 보급품을 고갈시켰다. 9월초가 되자 극심한 물자부족은 북한군의 전술운용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 김일성은 미국이 병참지원과 군사고문단을 국군에 제공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하였으나, 미국이 한국방어를 위해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을 하리라는 점을 계산에 넣지 않음으로써 방공에 대한 준비나 강력한 공군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명백했다. 또한 북한 포로들은 자기들이 전쟁 이전에 교육훈련에서 적 항공기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저공비행하는 적 항공기에 대해 소화기(小火器)를 이용하여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언했다. 결국 야전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북한군 전투부대들은 인명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군은 6·25전쟁을 준비하면서 방어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최초 스탈린이 구상한 전쟁전략의 핵심은 "적이 제정신 차릴 틈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전격전"이었다. 전격전은 초기 3일 이내 전차가 주축이 된 기계화 부대로 아군의 제1선을 급속히 돌파하여 후방으로 진격해 아군의 전력 대부분을 궤멸시키는 것으로 화력과 기동력, 파괴력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단기간에 폭발시키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한 입장에서 미국이 세계대전을 우려하여 참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김일성은 비록 미군이 참전한다 해도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남침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 후일 다음과 같은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 "우리의 전략계획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병력이 동원되기 전에 이승만 군대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습한 미군을 단시일 내에 소탕하고 북한군대가 부산, 마산, 목포, 여수, 남해계선까지 진출하여 우리 조국강토를 완전히 해방하며 인민군대를 전 조선 땅에 기동성 있게 배치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86]

이렇듯 북한군은 미군의 전쟁개입 가능성을 낮게 혹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유엔군이 보유한 강력한 공군력에 대한 방어준비와 사전 교육훈련 없이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때문에 전선에서 미군의 항공공격을 받았던 북한군들은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나 대책 없이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유엔군의 공중공격은 북한군의 작전운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북한군 작전을 단순화하였다. 즉 전차를 주력으로 돌파작전을 감행하는 단순한 작전을 강요함으로써 작전의 융통성을 제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작전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 예로써 북한군 5사단의 보병중대장 진술에 의하면 포항비행장 탈취계획이 강력한 공습과 함포사격 때문에 시도도 하지 못한 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지상군 임무수행 시 대공방어에 병력을 할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상전투능력을 반감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군 제5연대장의 '낙동강 도강 야전명령서'에는 대공방어의 중요성과 유엔 공군에 대한 공포감이 드러나 있는데, 이 명령서에는 "대공방어는 각 대대에서 차출된 중기관총 분대로 따로 편성되는 연대대공포대에서 담당한다. 적기가 출현하면 보병화기도 50%를 대공방어에 돌리도록 하라"라고 적고 있다.[87] 적의 전면 지척에서 감행하는 도강작전 중에도 연대장이 보병화기의 절반을 대공방어에 전용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다른 포로들의 진술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유엔 전술항공기가 적에게 큰 손실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거점을 확보했을지라도 요새화

되지 않는 한, 항공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88]

유엔 공군이 북한군의 행동을 야간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은 아군에게 주간 작전 여건을 보장하고 적에게는 작전의 연속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한 작전성과였다. 즉 적은 설혹 야간작전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더라도 일출이 시작되면 유리한 작전 국면을 포기하고 작전을 종결해야 하고, 이는 아군으로 하여금 전력 재편성과 보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북한군 불명사단이 발행한 9월 4일자 작전 명령서에는 야간 전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가 경험한 야간전투는 23시부터 24시 사이에 전투를 개시하여 4~5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공격하는 것이었다. 새벽 날이 샌 다음까지 전투가 계속되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낮 동안에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일몰 후 공격을 개시하라. 야간에 전투행동을 집중하여 적의 진지를 점령하여 심야에 약 100~150미터까지 적에게 근접하라. 그러면 새벽이 되어서도 적 항공기는 피아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대규모의 병력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주 전투에서 얻은 매우 중요한 전투 경험이다"[89]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유엔 공군은 북한 지상군의 전투가 가능한 작전환경을 야간시간대로 제한함으로써 적에게 활동시간을 제약함은 물론 아군에게 작전적인 융통성과 생존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엔 공군이 적에게 미친 큰 영향은 보급체계를 붕괴시킨 점이다. 이러한 보급체계의 붕괴는 유엔 공군의 항공차단작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철도, 도로 등 수송망의 파괴와 함께 차량, 열차, 우마차 등 수송수단 전반에 걸친 파괴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철도, 도로 등과 같은 수송망의 파괴는 보급로의 파괴라는 면도 중요했으나 전차, 야포와 같은 기동 및 화력장비의 이동로 파괴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 북한 보병은 아군 항공공격회피와 파괴된 이동로 극복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던 전차부대의 지원을 받지 못한데다, 포병의 화력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공격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북한군에 대한 보급망의 파괴는 병력보충, 물자 및 장비보급 분야에서 북한군 지휘관과 전투원 모두에게 심리적, 육체적 피로를 강요하게 되었고,

이는 작전의 지연 또는 포기로 이어졌다.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9월 초 북한군 보급상황은 탄약과 기동장비 연료만을 전선에 보급하여 전투를 유지하는 정도로, 약 50%에 달하는 보급품이 수송도중 공중 공격에 의해 손실되었으며 절반만이 전선에 도착하였다. 또한 수송속도는 주간을 피하여 야간에만 이루어져 1일에 약 32~48㎞만을 이동할 수 있었다. 포로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에서 영주까지 기차로 도착하는데 1개월이 소요되었고 사리원에서 풍기까지는 2주가 걸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수송속도 지연의 원인으로 포로들은 주간에 강력한 유엔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터널과 같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장시간의 대피시간을 들고 있다. 또한 차량의 파괴는 물론 차량을 운전하는 인원의 폭사율이 높아지자 운전요원들이 공습 시작 전후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한동안 유엔포로들로 하여금 보급차량을 운전케 하고, 북한군 무장병이 동승하여 감시하게 하였다.[90]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북한군은 우마차 및 민간인 노무대를 동원하여 보급품 수송을 실시하였으나 탄약, 기동장비연료와 같은 전투에 필수적인 물품 수송으로 제한됨으로써 북한군의 보급 상태는 8월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북한군 제8사단 소속 수송 장교는 "작전에 최초 참여한 7월 10일에는 차량 6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8월에는 20여 대에 불과했으며 8월 25일 트럭 20대를 보충 받고 9월 5일 의성에서 트럭 10대를 보급 받았으나 이는 4일간의 손실을 보충하는데 불과하였고, 탄약보급의 경우에도 7월에는 매일 총 75톤을 보급 받았으나 8월에는 매일 25톤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9월 20일에는 사단 내에 차량 3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각 차량 당 7리터의 연료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보충 받을 가망은 없었다. 우리는 계속되는 공습, 보급품 부족, 훈련 미숙, 사상자의 급증으로 인한 극도의 사기저하로 사단장이 부대를 지휘할 수 없을 정도였다"[91]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식량공급에 있어서도 북한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전쟁 초 북한군의 일일급식량은 쌀, 마른생선, 육류, 야채 등 800그램(g)이였으나, 7월 16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는 600그램으로 감소되고 9월에 접어들면서는 400그램으로 감소되었다.

<표 8-11> 북한군 1개 사단 1일 평균 보급량 추이

(단위 : 톤)

보 급 품	기 간		
	6월 25일~7월 15일	7월 16일~8월 15일	8월 16일~9월 20일
제1종(식량)	18	9	2.5
제2종(병참)	10	5	
제3종(유류)	12	7	2
제4종(병기)	165	30	17
계	206	51	21.5

<표 8-11>는 전쟁개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북한군의 보급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8월 중순 이후에는 전쟁초기에 비해 약 1/10 수준으로 보급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공격은 보급로의 파괴와 수송수단의 파괴를 통한 전선에 대한 보급차단과 함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군으로 하여금 야간으로 작전범위를 제한하고 효과적인 방어수단 없이 일방적으로 인적·물적 희생을 강요함은 물론, 북한군을 전차에 의존하는 단순한 작전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군 제13사단 총참모장 이학구 총좌는 8월 21일경에 북한군의 50% 이상이 산악지대에서 전투하고 있었는데 전의를 상실하고 있다고 말하였다.[92] 북한군의 사기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군의관은 "전쟁 초 1개월 동안은 사기가 왕성하였으나 2개월째부터 유엔 공군력이 활동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사기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다. 8월 말부터 북한군은 총살당하는 것이 두려워 진격하였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북한군은 네이팜탄 공격에 방어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 각 전투지구에서는 사상자가 증가되어 사병은 물론 장교들도 네이팜탄 공격에는 당황하였다"라며 유엔군의 항공공격에 대한 북한군의 공포심을 드러냈다. <표 8-12>는 북한군 포로 825명을 심문한 결과로 북한군의 사기저하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표 8-12> 포로 심문 결과 북한군 사기저하 원인

사기저하원인	응답건수	백분율	사기저하원인	응답건수	백분율
식량 부족	176	21.4	공습에 대한 공포	148	17.9
훈련 부족	93	11.3	병기 및 장비 부족	81	9.8
휴식 부족	68	8.2	강제 징집	52	6.3
사상자	51	6.2	전쟁명분 없음	40	4.9
포화	39	4.7	탈주병	28	3.3
충원 부족	12	1.5	장교의 학대	13	1.6
피복 불충분	10	1.2	계	825	100
기타	14	1.7			

<표 8-1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공습에 대한 공포는 식량부족 다음으로 가장 높은(17.9%)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북한군의 사기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식량과 장비를 비롯한 물자부족에 기인된 것이다.

식량부족과 장비부족, 인원충원 부족, 피복 불충분을 합치면 33.9%로 국군과 유엔군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요인, 즉 공습에 대한 공포, 포화, 사상자 발생을 합친 것(28.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군의 사기저하를 초래한 것은 아군의 공격능력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나, 이와 함께 보급체제 마비로 인한 인적, 물적 지원의 원활한 보급지연이 북한군의 전투의지를 급속히 무력화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군의 항공 및 후방차단 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수송수단과 수송망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수송체계를 파괴함으로써 이루어진 작전 성과였다. 두 번째는 아군의 공격요인 중 공군의 공중 공격(17.9%)이 지상군의 포화(4.7%)에 비해 북한군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는 점이다. 공군의 항공공격이 적군에게 준 심리적 공포와 관련하여 적 13사단의 한 장교는 "개전 초 1개월간에 항공기가 저공으로 기관총과 로켓 공격을 가한 후 장교들이 아무리 고함을 치고 위협하여도 숨어있던 장소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93]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네이팜탄과 기총소사

가 실질적인 파괴 및 살상과 함께 적에게 보다 큰 심리적 공포를 안겨주는데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시 북한 공군의 대항이 거의 전무한 상태의 공중우세를 확보한 한국과 유엔 공군의 근접지원작전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유용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군력이 파괴력과 관련한 포로들의 진술도 확보하였는데, 적 제8사단의 포로는 "강릉에서 남하하는 도중 수차에 걸쳐 유엔 공군의 공격을 받아 76밀리 야포 10문, 122밀리 곡사포 3문, 전차 20대, 탄약과 병기를 가득 실은 트럭 50대가 파괴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적 제105전차여단의 한 병사는 "함창을 출발한 다음 2~3킬로미터로 전진할 때마다 항공기의 공격을 받아 전차 4대와 트럭 4대가 파괴되고 150명의 병사가 사살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적 제16전차여단 소속 병사는 "우리 부대 전차 중 실제 전투에 참가한 전차는 반수에 불과하였다. 기타는 전선에 도착하기 전에 공중 공격으로 파괴되었다"[94]라고 진술하였다. <표 8-13>은 포로들의 진술을 토대로 항공기와 지상무기에 의한 적 인원 및 장비 손실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극동군사령부 정보부(통역 및 번역반)에서 북한군 포로의 진술을 종합 평가한 바에 의하면, 한국전 초기에 그렇게도 막강했던 북한군의 공격력은 인천상륙작전 훨씬 이전에 아군의 공군력과 지상군 작전으로 그 전력의 예봉이 둔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공군력에 의한 보급체계 파괴와 장비 및 병력 손실은 적으로 하여금 낙동강선에서 아군의 방어선을 넘지 못한 채 지루하고도

<표 8-13> 아군 무기별 적 병력 및 장비 손실현황

구 분		항공기에 의한 손실		지상화기에 의한 손실	
		손실 수	백분율	손실 수	백분율
병 력		49,527	47%	56,270	53%
장비	전 차	452	75%	146	25%
	트 럭	637	81%	146	19%
	야 포	301	72%	112	28%
	계	1,390	77%	404	23%

무모한 소모를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아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자 전의를 상실한 북한군은 패배하여 도주하기에 바빴다.

극동군사령부의 이러한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는 김일성이 미 공군에 대한 언급과 태도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1950년 7월 7일 김일성 요청에 의해 김일성을 면담했던 북한 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에서 이날 김일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하면서 말미에 "계속해서 김일성은 사방에서 그에게 전화를 해서 미 공군의 폭격과 대규모 파괴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오늘도 미 공군의 폭격에 의해 철도 분기점이 파괴되었으며 함흥지역에서는 철교가 더디게 복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과의 만남에서 본인은 김일성이 몹시 화가 나있으며 매우 허둥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95]라고 언급하여 김일성이 미 공군의 공격에 대해 매우 불편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7월 19일 김일성을 만난 슈티코프는 김일성이 현 전선 상황에 대해 분개하면서 이러한 전선 상황이 자신들에게는 파국적인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은 미 공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음과 슈티코프 자신도 소련 군사 고문관을 통해 입수된 정보에 따라 김일성에게 최근 며칠 동안 북한군대가 미 공군 때문에 전투작전을 사실상 중지했음을 통보했다고 소련내각회의 의장에게 보고하였다.[96]

그리고 김일성은 중국의 마오쩌뚱(毛澤東)과 소련의 스탈린에게 보낸 군사지원 요청문에도 유엔 공군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김일성은 9월 29일 스탈린에게 보낸 군사지원 요청문에 "적들의 천대를 육박하는 신형전투기들은 우리들의 그 어떤 저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전방과 후방에서 24시간 하루 종일 쉴 새 없는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전방에서는 적들의 기계화 부대가 수백 대의 적군 전투기의 공중엄호 아래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진격작전을 펼치고 있어서 우리에게 막대한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 적들의 전투기는 무자비하게 철도, 도로를 폭파하고 전신선, 통신시설 및 다른 목표물에 대한 파괴 작업을 일삼고 있으며, 아군의 병참기지와 보급로를 차단하여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아군

이 적시에 반격을 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총제적인 것이다. <중략> 향후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계속 상존한다면 미국의 침략은 결국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중략>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공군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하생략>"[97]라고 쓰고 있는데, 현재 전황의 가장 심각한 국면은 유엔군의 항공력에 의한 막심한 피해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북한군의 전의 상실로 더 이상 북한군 단독의 전쟁수행이 불가함을 밝히면서 우선적으로 공군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10월 13일 노동당 중앙상무위원 겸 내무상인 박일우가 북경에서 모택동에게 직접 전달한 군사지원 요청문에서는 "전쟁 상황은 우리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적들의 천대에 육박하는 신형전투기들은 우리들의 그 어떤 저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전방과 후방에서 24시간 하루 종일 쉴 새 없는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전방에서는 적들의 기계화 부대가 수백 대의 적군 전투기의 공중엄호 아래 별다를 저항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진격작전을 펼치고 있어서 우리에게 막대한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 적들의 전투기는 무자비하게 철도, 도로를 폭파하고 전신선, 통신시설 및 다른 목표물에 대한 파괴 작업을 일삼고 있으며, 아군의 병참기지와 보급로를 차단하여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아군이 적시에 반격을 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들의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총제적인 것이다. <중략> 향후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계속 상존한다면 미국의 침략은 결국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중략>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공군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98]"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및 북한 전쟁지도부 스스로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고 유엔 공군의 공중우세 확보와 공군의 엄호를 받는 아군 기계화 부대의 진격으로 북한군이 극히 위태로운 국면에 처해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패전의 가장 큰 원인은 전후방에서 계속되는 유엔공군의 무차별 폭격과 이로 인한 북한군의 사기저하를 들고, 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저항이 무력화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공군력의 적절한 확보 없이는 완전한 패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의 최우선순위는 공군력 지원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집필 : 이근석)

주 (註)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제2권-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년, p. 747.
2) 1949년 9월에 기본편성을 완료한 북한 공군은 당시 26명의 조종사가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키예프(Kiev)와 모스크바 근교에서 교육받고 있던 조종사 50여 명이 10월까지 조종 교육을 마칠 예정이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제2권-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년, pp. 746-747).
3)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afhra.maxwell.af.mil/korean_war/korean_war.html).
4) 국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2006년, p. 72,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16, 목록 3139, 문서철 17, 37쪽.
5) 국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2006년, p. 93,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16, 목록 3139, 문서철 17, 126쪽, 원본.
6) 이 부대는 1950년 6월 27일 미 8전폭비행단 제36폭격대대의 1파견대와 한국의 F-51 인수를 위해 일본 이다즈케(板付)기지에 파견된 한국 공군과의 혼성부대로 창설된 바우트-원(Bout-One)부대를 모체로 창설되어 1952년 8월 15일에는 6146 한국 공군 항공고문단(6146th Air Advisory Group ROKAF)으로, 1953년 7월에는 한국 공군 공군고문단(6146th Air Force Advisory Group ROKAF)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7) 이에 대하여 미 제6146부대장인 헤스(Dean E. Hess) 소령은 그의 저서『Battle hymn』, 1959, pp. 140-141)에서 당시 김정열 총참모장과 김포기지를 방문하였을 때 미 공군 대령의 총참모장에 대한 결례와 한국 공군비행단의 수용에 대한 거부감을 기술하고 있으나 이것이 여의도기지 사용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당시 한국 공군비행단을 수용할 수 없는 김포기지의 여건이 여의도기지로의 이동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8) Dean E. Hess,『Battle hymn』, 1959, p. 142.
9) 여의도기지로의 항공기 이동은 여의도기지 최초 작전이 1950년 9월 23일 이루어진 것(공군본부,『항공전사』, 1989, p. 139)으로 보아 최소 9월 23일 이전에 항공기가 도착한 것으로 보이며 최원문 예비역 대령 증언(공군본부,『6·25전쟁 증언록』, 2002, p. 316)에 의하면 일부 F-51D 전폭기가 9월 26일에 여의도로 전개하였다.
10) 공군본부,『6·25전쟁 증언록』, 2002, pp. 315-316.
11) 공군본부 발간『공군사』(1991)에는 공군본부의 서울복귀 일자를 이날 10월 1일자로 적고 있음(부록, p. 517).
12) 공군 헌병대는 공군 내에서 유일하게 6·25전쟁 중 지상전투를 경험한 부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군사관학교 생도와 기간장병으로 구성된 공사부대와 김포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김포지구사령부(비정식편제)가 지상방어를 위한 부대로 편성되었으나 북한군과의 실질적인 전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공군 헌병대는 1950년 6월 28일 김포지구에 돌입하여 김포에 있는 공군 헌병대 본부를 재확보한 사건이 있었고, 동년 7월 2일 헌병중위 정영환이 이끄는 헌병대(29명)가 여의도기지에 돌입하여 주둔 중이던 적 1개 중대를 격퇴하였으나 아 전사자 2명, 부상자 5명이 발생하였으며 헌병대위 김상룡은 동년 7월 25일에는 헌병대 14명을 이끌고 대구 팔공산에 잠입한 공비를, 8월 14일에는 부하 17명과 함께 포항방면 공비를 토벌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헌병대는 북진 시에는 기지 확보를 위한 선견대 및 정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군의 지상전투요원으로 활동

하였다.

13)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340.
14) 공군본부, 『공군사』, 1991, p. 330.
15) 공군본부, 『항공작전』, 1989, p. 145.
16) 한국 공군은 1950년 8월 17부터 8월 19일까지 하동, 광양, 함양, 순천, 통영, 장성 등 북한군 6사단과 7사단 후방에서 차량 5대, 야포진지 5개소를 파괴하고 적병 70명을 사살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으며, 이후에도 영동, 김천, 옥천, 상주 등의 경북 산간지역 및 왜관, 김천, 선산, 청송, 안동 등 국군 제2군단 전투지역으로 출격하여 적의 이동차량과 보급품집적소 등을 파괴하였다(공군본부, 『항공전사-한국전쟁-』, 1989. p. 123).
17) 공군본부, 『항공전사-한국전쟁-』, 1989, p. 125.
18) 한국 공군보유 F-51항공기는 1950년 7월 2일 최초 10대 도입 이후 7월에 7대가 전투 중 손실되었다(공군본부, 『항공전사』, 1989, p. 235).
19) 당시 F-51항공기의 한국군 지원은 F-51 손실 시 즉시 추가로 지원되는 체제(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326)로 최대 10대를 유지하도록 한·미 공군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의도기지 전개 후 기지 정비기간 중에 18번기(헤스 소령의 "신념의 조인")가 도입되었고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장군은 여의도기지를 방문하여 F-51 10대와 C-54수송기 1대의 추가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9월 기준 F-51 보유대수가 6대로 기술된 자료(공군본부, 『항공전사-한국전쟁-』, 1989, p. 232)도 있다.
20) 한국 조종사로서 최초 F-51(Mustang) 조종사가 된 사람은 1950년 6월 26일 일본 아타즈케 기지에 도착한 이근석 대령, 김영환 중령, 장성환 중령, 김신 중령, 강호륜 대위, 박희동 대위, 김성룡 중위, 정영진 중위, 이상수 중위, 장동출 중위였다. 이중 이근석 대령('50.7.3), 장동출 중위('50.9.10)는 임무 중 사망하였다. 여의도기지 전개 이후 당시에는 김영환 중령은 공군본부에, 장성환 중령은 비행단 본부에, 김신 중령은 전투비행 전대장에 보직된 상태였다. 따라서 최초 조종교육을 받은 5명과 추가 교육을 받은 3명을 합쳐 총 8명이 비행단 F-51 전투조종사로 보직된 상태였다.
21) 국방부 정훈국, 『한국동란 1년지』, 1951, p. 171.
22)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4권』, 1971, pp. 176-177.
23) 공군본부, 『전투요보』, 2002.
24) 당시 북한 인민군총사령부는 김일성대학을 본부로 사용하고 있었고 국군 제7사단은 10월 19일 17:00시경 김일성 대학을 점령하였음(국방부, 『한국전쟁사 제4권』, 1971, p. 460).
25) 이상수 전사에 대하여 공군본부 발간 『공군사 제1집 증보판』(1991년, pp. 148-149)에는 인민군총사령부를 공격하다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공군본부 발간 『6·25전쟁 증언록』(2002년)을 보면 강호륜 준장은 이상수 중위가 김일성 가옥을 공격했음을 증언하고 있다(p. 323). 또한 김두만 대장은 김일성 대학 근처에서 이상수 중위의 가매장 장소를 확인한 것으로 증언(p. 314)하고 있다.
26) 공군본부, 『항공전사-한국전쟁-』, 1989, p. 140.
27)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4권』, 1971, p. 182.
28)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p. 6.
29) 헤스 중령의 자서전 『Battle Hymn』, p. 150에는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월 여의도기지에 B-17로 도착한 팀버레이크 소장이 소령계급장을 떼고 중령계급장을 달아주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고, 최원문 대령도 이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2002, p. 316).
30) 헤스 중령은 보병중대장에게 항공지원을 최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여 설득함과 아울러 보병중대장이 필요로 하는 커피를 제공함으로써 보병중대가 미림비행장에서 철수하였다고

그의 자서선에 기술하고 있다(Dean E. Hess, 『Battle Hymn』, 1956, p. 158).

31) 공군본부, 『항공전사-한국전쟁-』, 1989, p. 144.

32) 공군본부, 『유엔공군사 상(上)』, 1975, p. 109.

3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78.

34) 공군본부 譯,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 201.

35) 공군본부, 『유엔공군사 상(上)』, 1975, p. 110.

36) 물-알코올 혼합분사(water-alcohol injection) 방식은 항공기 터보제트(turbo-jet) 엔진의 공기압축기 인입구에 냉매제로써 물과 알코올 혼합액을 분사하여 공기압축기로 진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낮추어 공기의 유입량을 증가시키고 공기압축기의 압력을 높여 추력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1947년 9월 29일 작성된 NACA(미 항공자문위원회) 연구보고서(NACA RM No. E7G29)에는, 해면고도 0피트에서 물과 알코올 혼합액(알코올 20%)을 분사(1.30pound/sec)하였을 경우 이륙거리를 약 15%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됨.

37)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82.

38) Robert F. Futrell, 위의 책, p. 182.

39) 이는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Director of Intelligence, Deputy Director for Estimate Topical Intelligence Division, Current Intelligence Branch korean Daily Reports, Apr. 1951-July 1953)에 수록된 임무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미 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에 수록된 월별 통계기록(9월 : 15,504소티, 10월 : 16,128소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일자별 구체적 작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자료에 근거하였다.

40) 전술(전투)비행은 전투와 직접 관련된 비행활동으로 근접항공지원(CAS), 항공차단(AI), 요격(OCA, DCA) 작전 등이 포함되며, 비전술비행(혹은 지원비행)은 수송, 구조, 정찰, 항공통제, 정비점검비행 등이 포함된다.

41)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afhra.maxwell.af.mil/korean_war/korean_war.html).

42) 이와 관련하여 극동공군사령관인 스트레이트메이어는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과의 불편한 관계를 알몬드 소장을 평가하면서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제6131전술지원비행단과 8전폭기전대를 수원기지로 이동하는 문제도 결국 알몬드 소장과의 입장차이로 이동이 지연되게 된다. 또한 알몬드 소장이 클라크 장군과 다른 이들에게 공군을 믿지 못하겠으며, 해군항공대가 지상사령관 지휘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는 편지를 썼다는 얘기를 패트리지 장군으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공군본부,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p. 201, 210-211, 227).

43)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afhra.maxwell.af.mil/korean_war/korean_war_chronology/kwc_feaf_combat_claims.html)

44)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20 September 1950).

45)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23 September 1950).

46)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http://afhra.maxwell.af.mil/korean_war/korean_war.html) 한국전 통계자료.

47)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p. 4.

48)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Director of Intelligence, Deputy Director for Estimate Topical Intelligence Division, Current Intelligence Branch korean Daily Reports, Apr. 1951-July 1953)와 극동군사령부 G-3 일일작전보고서를 종합한 내용임.

49)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p. 6.
50)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p. 7.
51)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Director of Intelligence, Deputy Director for Estimate Topical Intelligence Division, Current Intelligence Branch korean Daily Reports, Apr. 1951-July 1953).
52)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p. 10.
53)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p. 10.
54)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p. 11.
55)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p. 9.
56)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Director of Intelligence, Deputy Director for Estimate Topical Intelligence Division, Current Intelligence Branch korean Daily Reports, Apr. 1951-July 1953).
57)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p. 9.
58) R.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앞의 책, 1982, p. 194.
59) R.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앞의 책, 1982, p. 194.
60) William M. Leary 著, 앞의 책, 2000, p. 9.
61) William M. Leary 著, 앞의 책, 2000, p. 9.
62)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이 강하한 10월 20일 평양에서 북으로 이송되고 있는 미군 포로를 구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색대가 명구참 근방 터널 속에 포로이송열차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북한 경비병들이 이들 중 75명을 이미 살해해 버린 뒤였다. 그 가운데 부상자 15명을 구출하여 다음날 평양비행장에서 수송기편으로 일본 아시야 기지로 이송하였다(R.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앞의 책, 1982, p. 194).
63) William M. Leary 著, 앞의 책, 2000, p. 9.
64) R.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앞의 책, 1982, p. 156.
65) 공군본부,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일기』, 2005, p. 188.
66) R.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앞의 책, 1982, p. 156.
67) R.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앞의 책, 1982, p. 157.
68) 오폭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미 제1군단 사령부, 1950년 9월 24일자 G-3보고서에서 인용하였으며, 이에 관해 극동공군 사령관인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은 그의 일기에서 전사 20명, 부상 21명으로 기록하고 있다(공군본부,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일기』, 2005, p. 195).
69) 공군본부, 앞의 책, p. 194.
70) 공군본부, 앞의 책, pp. 198-199.
71) 공군본부, 앞의 책, p. 203.
7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p. 498.
73) 공군본부, 『유엔 공군사 1950. 6~1952. 6』, 1975, p. 118.
74) 우발긴급표적(target of opportunity)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 중 발견된 대규모의 이동병력, 수송차량, 탱크 등의 표적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부분 무장정찰임무 항공기가 우발긴급표적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였다.
75) 동 사건이 발생 후 이틀이 지난 8월 30일에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은 제5공군

사령관 '패트리지' 장군에게 동 사건에 대해 1급 비밀 수준에서 (1) 그 지역 기상조건, (2) 강과 가장 가까운 도시나 비행장과 같은 부근의 지형에 대한 내용, (3) 활주로 종류, (4) 항공기에 관한 사항, (5) 대공 포화, (6) 8월 27~29일까지의 출격한 항공기 대수, (7) 다른 비행편대로부터의 추가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긴급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같은 날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은 '반덴버그' 공군총장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패트리지 장군이 보낸 보고서를 제67전투폭격비행단 F-51전투기가 1950년 8월 27일 북한국경을 넘어 만주사람들을 폭격했을 확률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약 10~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종사들은 공격한 비행장의 위치를 안주 근처(북위 39°36′, 동경 125°40′)라고 했으나, 뒤 이어 출격한 항공기들은 이 부근에서 비행장을 찾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공군본부,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 148).

76) 중공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著,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譯,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002, pp. 128-129.

77) 중공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著,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譯,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 2002, p. 129.

78)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은 폭격기사령관 오도넬 소장과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장군에게 9월 27일 보낸 편지에서 "만주 국경을 침범한 B-29폭격기 오폭 사건을 다루는 과정을 보고 공군의 일원으로써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했고, 이는 공군 전체의 이미지를 깎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주 국경을 오폭했다는 소식을 지휘부에 정식으로 보고하려는 움직임은 없었고, 관련된 소문만 무성할 뿐이며 내 휘하 간부들도 이 사안을 모스크바와 런던의 기자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라고 보고 및 사건처리과정에서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공군본부,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 196), "극동공군 항공기들이 실수로 제27영국여단을 기관총으로 공격했고, 만주에 오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연합군들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공군본부,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p. 199-200).

79) 중공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著,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譯,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 2002, pp. 130-131.

80) 공군본부, 앞의 책, p. 213.

81) 공군본부, 『유엔 공군사 1950. 6~1952. 6』, 1975, p. 123.

82) 공군본부,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pp. 221-222.

83) R.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한국전에서의 미 공군전략』, 1982, p. 186.

84) 공군본부, 『유엔 공군사 1950. 6~1952. 6』, 1975, p. 143.

85) R.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앞의 책, p. 160.

86) 『조선전사』 제25권, p. 85.

87) R.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한국전에서의 미 공군전략』, 1982, p. 162.

88) R.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한국전에서의 미 공군전략』, 1982, p. 163.

89) R.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앞의 책, 1982, p. 163에서 재인용.

90) 공군본부, 『유엔 공군사 1950. 6~1952. 6』, 1975, p. 86.

91) 공군본부, 『유엔 공군사 1950. 6~1952. 6』, 1975, p. 85.

92) 공군본부, 『유엔 공군사 1950. 6~1952. 6』, 1975, p. 85.

93) 공군본부, 『유엔 공군사 1950. 6~1952. 6』, 1975, p. 87.

94) 공군본부, 『유엔 공군사 1950. 6~1952. 6』, 1975, p. 87.

95) 국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2006, p. 78,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

서보관소 문서군 5, 목록 918795, 문서철 122, 193-194쪽, 사본.

96) 국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2006, pp. 87-88,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5, 목록 918795, 문서철 122, 352-355쪽, 사본.

97)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권』, pp. 219-224.

98)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권』, pp. 219-224.



제 9 장 총 평

제 1 절 전쟁지도 측면

제 2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제 1 절 전쟁지도 측면

1.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6·25전쟁기간동안 한국정부의 입장은 북한군을 격멸하고, 전 한반도를 통일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한국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작전주도권을 장악한 국군과 유엔군이 38선 돌파를 감행할 시점에서 유엔군사령부는 9월 29일 모든 전투부대에 대하여 일단 진격을 멈추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유엔군사령부의 진격 중단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유엔군이 어떻게 결정하든 한국군은 진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특히 그는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반대한다면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하였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져오겠다고 하였으며, 그날로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에게 38선 돌파를 지시하였다.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군 지휘체계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과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는 워커에게 동해안 전선에서 국군부대의 전술적 상황을 고려한 38선 돌파의 필요성을 제의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기사문리 부근의 감제고지를 점령한다는 명분으로 38선을 돌파하였다.

38선 돌파이후 북진작전이 진행되면서 북한지역 통치권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북한지역이 대한민국 영토(領土)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한국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엔의 한국통일 결의에 따른 유엔 입법조치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10월 10일 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점령한 것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유엔 결의에 따

라 이 조치는 정상적인 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엔군사령관과 한국정부가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유엔군이 군정요원(軍政要員)을 임용할 때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그 후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를 보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남한 점령지역에서 북한군의 퇴각 시 우익인사들에 대한 집단학살, 전쟁 초기 한강을 건넌 도강파(渡江派), 피난하지 못한 비도강파(非渡江派)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국회는 9월 17일 '부역행위 특별심사법안'과 함께 '사형금지법안'을 서둘러 상정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북진 시 북한 주민들의 질서안정을 강조하고, 평양시민대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통일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는 국제 한국통일 및 부흥위원단과 적극 협력하여 선거(選擧)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 인사법 등 제도 보완을 위해 국군 임시계급에 관한 건, 비상향토방위령 중 개정법률 등의 다양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국회는 후방 잔적 소탕을 위해 국군증설 및 무기강화에 관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공비토벌을 위해 사단증설, 향토방위대와 의용경찰, 대한청년단 등을 무장시켜 투입할 것을 정부와 유엔군사령관에게 건의하는 등 전세 변화에 따른 정부의 다양한 대응 노력이 지속되었다.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시기의 후방지원체제(後方支援體制)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체제를 갖추어 갔다. 특히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부대 증·개편(增·改編)에 소요되는 병력충당 및 피난민 구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반격작전간 남한지역의 수복과 더불어 제2국민역 등록을 실시하여 병력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해 주었고, 카투사의 국군 복귀로 전투와 복무 유경험자가 국군에 보충되어 창설부대의 기간요원이 됨으로써 전투력 증강에 큰 보탬이 되었다. 다만 체계적인 교육의 미흡과 단기간 급박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었다.

또한 전투부대의 책임지역이 북한으로 확대되자 군수지원부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병참선의 급격한 신장에 따라 보급로의 보수 및 유지, 통신망

의 확장, 수송수단의 확보 등이 시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각 기술병과(技術兵科)들은 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도 보다 능률적,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을 터득하면서 발전하였다. 공병부대, 병기와 병참부대, 의무부대 등은 전선부근의 전투부대 지원에 온갖 힘을 다하면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갔다.

한편 민사지원(民事支援)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지원으로 크게 구분되어 남한주민 지원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고, 북한주민 지원은 자유체제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정부의 조치나 군 작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아울러 사상적 정신적 무장이 강조되면서 정훈업무가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다.

2.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의 전쟁지도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에서 38선 돌파와 북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50년 7월 중순 무렵이었다. 낙동강 전선의 전황(戰況)이 점차 유리하게 전개되고, 인천상륙작전계획이 수립되어 전세 역전의 전망이 보이게 되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띄게 되었다.

1950년 8월 17일 유엔 미국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포석(事前布石)으로 북한군의 침략을 물리친 다음에는 북한주민들도 유엔의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는 9월 1일 각 부처의 전쟁지도에 관한 견해를 종합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유엔군의 작전목표를 최초 참전목표인 전쟁이전 상태의

원상회복(原狀回復)이 아닌 유엔군의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의 6월 27일 및 7월 7일의 결의가 곧 유엔군의 38선 돌파를 허용한 법적 명분이 된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아울러 미국은 소련이나 중공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공군이 참전할 경우에는 정황(情況)이 허락하는 한 전쟁을 계속하며, 소련이 개입 시에는 수세로 전환하면서 세계대전에 대비한다는 조건부의 북진정책을 세우고, 미 합동참모본부를 통하여 9월 27일 이에 대한 훈령(訓令)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이 훈령속에 북한 점령지역에 대한 한국의 주권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유엔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규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유엔군이 북한 점령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 길을 터놓았다.

유엔군사령부는 부대를 군단 지휘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미 합참의 9·27 훈령에 따라 9월 29일 북진작전계획을 수립하여 10월 2일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명령은 유엔군의 작전지역을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동서로 양분(兩分)하고 동부지역에 투입될 미 제10군단을 미 제8군에 배속하지 않고 유엔군사령부가 직접통제하며 미 제10군단으로 하여금 원산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북진작전을 조기에 매듭지으려 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중공외상 주은래가 9월 30일 공식적으로 중공인민은 절대적으로 외국에 의한 침략행위를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등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은 이러한 중공의 움직임이 중공군의 개입이라는 심각한 사태까지 발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중공의 경고는 북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유엔군사령부의 정보당국자들은 중공이 북한을 지원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유념할 점이다. 즉, 10월 5일 시점까지 최소한 중공군 9개~18개 사단이 만주에서 북한으로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미 일부 병력은 북한으로 진입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북진작전을 멈추도록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첩보수집 및 정보의 취약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중공군이 얼마나 은밀히 움직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10월 15일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한국전쟁의 최종적인 처리와 전후 한국의 재건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태평양상의 웨이크(Wake) 도에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와 만나 회담하였다. 이때 유엔군사령관은 유엔군의 작전계획을 설명하고 11월내에 북한군을 격멸할 수 있을 것이며, 크리스마스까지는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도 중공은 이미 효과적으로 개입할 시기를 놓쳤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다.

웨이크회담 후 유엔군사령관은 10월 17일 미 제8군이 평양부근까지 진격하였을 때 유엔군의 진출한계선을 한·만 국경선에서 남쪽으로 48㎞~64㎞ 떨어진 지점을 연결하는 선천-평원-성진(일명 신맥아더 라인)선으로 변경하였으며 10월 24일에는 이 선마저 철폐하여 모든 지상군 부대들이 가용한 최대한의 전투력을 동원하여 국경선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3. 전력증강

인천상륙작전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국군이 낙동강 전선에 2개 군단, 6개 사단, 인천상륙작전에 국군 제17연대와 해병 제1연대 등이 참가하고 있었고, 유엔군은 미 제8군과 제10군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있었다. 국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하여 규모 및 전투력면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8월말~9월초에 육군은 제7사단을 재편성한데 이어 제11사단을 창설하였으며, 10월 중 제5사단을 재창설하고, 제9사단을 창설한데 이어 제3군단도 창설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쟁이전 8개 사단을 복원한 것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단으로 증강되었으며, 병력도 223,950명으로 증가되었다.

해군은 서해의 제1정대를 모체로 제1함대를 창설한데 이어 10월 23일에는 제1함대 예하의 제1소해정대를 창설하는 한편 PC함 3척으로 서해전대를 창설하였

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의 4개 정대를 전대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0월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함정들로 제1함대를 증강하였다. 해병대는 9월 1일 제1 및 제2대대를 기간으로 제1연대를 창설한데 이어 독립 5대대를 통합 증편하였다.

공군은 전쟁초기 미 극동군사령부로부터 F-51전투기 10대를 인수하여 비행단을 발족한데 이어 10월 17일에는 정찰비행대를 정찰비행전대로 개칭하고 L-4 11대, L-5 2대, L-10 1대 등으로 증편하였다.

한편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은 미 제8군의 반격준비 일환으로 8월 하순부터 미군 4개 보병사단과 지원부대의 재편성에 착수하여 9월 초순에는 이들 부대의 전투력을 대폭 증강시켰다. 미 육군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에 증파(增派)하게 될 유엔 지상군의 작전지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개 군단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미 제1군단사령부는 9월 6일 한국에 도착하여 미 제8군에 배속되었으며, 미 제10군단사령부는 인천상륙부대를 통합지휘하였다. 그리고 미 제9군단은 9월 23일부터 반격작전에 참가하였다.

기간 중 유엔 회원국들의 참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9월 19일 필리핀군의 제10대대 전투단, 9월 27일에 오스트레일리아군 연대 제3대대, 10월 7일에 태국군 대대 주력, 10월 17일 터키여단 주력, 10월 23일 네덜란드 대대 등이 파병되어 북진작전에 참가하였다. 따라서 이 시점의 유엔참전군의 지상부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네덜란드 등 9개국이고, 해군부대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7개국이며, 공군부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에 이르고 있었다.

제 2 절 작전 및 전술적 측면

1. 지상작전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는 급전되었다. 낙동강전선으로부터의 추격과 인천-서울 지역에서의 포위를 벗어나 북으로 도주할 수 있었던 북한군은 25,000~30,000여 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맥아더 장군의 전략이 거둔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수치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전반적인 성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북한군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된 인천상륙작전은 직접적으로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을 급속히 와해시켰다. 둘째로,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북한군의 전 병참선이 차단되었으며, 여타 부대들의 공격을 수반함으로써 북한군의 참패가 동시에 초래되었다. 셋째로, 성공적으로 완수된 작전에 의해 인천의 항만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시설이 북진작전을 위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천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동안 한국군과 유엔군의 총손실은 약 4,0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아군의 전과는 적 살상 14,000여 명, 포로 7,000여 명, 적 전차 파괴 50여 대 등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적정판단(敵情判斷)에 있어 인천상륙작전 이전에는 서울지역에 있는 북한군 병력을 약 5,000명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인천-수원-서울 일원에서 전투에 가담한 적의 수는 30,0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상륙 이후 낙동강선에서 반격하여 38선에 이르기까지 양측 피해상황은 적측 손실이 병력살상 52,198명, 포로 13,000여 명, 장비와 각종 포 노획 및 파괴 1,569문, 전차 131대, 기타 중장비 158대이며, 아군의 손실은 병력살상 8,479명, 장비손실 및 파괴된 각종 포 17문, 전차 2대 등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인천상륙작전으로 거둔 최대의 성과는 낙동강방어선에서 단순히 총반격하여 올라왔을 때와 비교해 볼 때 불과 10여 일간의 전투로 서울탈환에 성공하여 전체 전투일수는 3분의 1로 단축되었고, 아군병력 14만 명, 국민 200여만 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인천상륙작전에서의 성공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맥아더 사령관이 그의 깊은 전략적 식견(識見)과 풍부한 경험에 의거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를 결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6개월여의 준비가 필요한 상륙작전을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준비하여 성공시킨 것은 최고사령관의 확고한 의지와 각 지휘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진 것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구축함들을 지휘하며 월미도와 인천을 맹폭하여 북한군을 제압한 히긴스 소장과 알렌 대령, 강력하고 정확한 공중공격을 하여 인천의 북한군 방어부대를 약화시키고, 인천시가의 방어를 보강하려는 북한군을 완전히 교란시킨 어윈 소장과 루블 소장 및 미 해병대의 스미스 소장, 그리고 공격부대를 강력히 지원한 영국해군의 앤드류스 소장, 핸더슨 소장, 오스틴 대령, 미 제10군단을 지휘하여 서울탈환을 성공시킨 알몬드 소장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낙동강선 반격작전은 9월 16일부터 시작된 2주간의 전격적인 작전으로 이 작전결과 북한군은 포위되고 돌파를 당하여 붕괴되었으며, 이때 북한군이 입은 피해는 개전초기 북한군의 기습에 의해 국군이 입은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여 북한정권은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 같은 대승(大勝)의 요인은 전쟁지휘부의 완벽한 상황판단,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절대적으로 우세한 제공권과 제해권 장악, 미군의 우수한 기동력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것이었다.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은 열악한 상황하에서도 드높은 사기를 유지한 가운데 눈부신 활약을 한 국군의 역할이다. 당시 국군의 작전지역은 태백산맥의 준령과 그 지맥으로 인하여 기동로가 극히 제한되고, 기동장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밤낮 없는 추격, 신속한 전진으로 기습달성, 적의 퇴로 차단으로 포위망 형성 등의 작전을 전개하여 기동장비를 보유한 유엔군보다 먼저 38도선을 확보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낙동강선 반격작전은 신속한 기동력을 이용한 과감한 공세작전과 기습의 원칙 등을 최대한 적용하여 전쟁발발 이전 상태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다. 다만 추격과정에서 도주하는 북한군을 모두 섬멸하지 않음으로써 북한군 부대에게 제2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차후 국군과 유엔군의 부대운용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38선 돌파작전은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동해안에서 38선을 돌파한 이후부터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으로 공격한 부대가 10월 20일 평양을 완전히 탈환할 때까지의 공격작전이다.

국군 제1군단은 국군 제3사단이 10월 8일 통천-회양 선에서 군단공격의 동쪽지역을 담당하고, 수도사단이 화천-도남리-안변-원산과 회양-신고산-원산선으로 군단공격의 서쪽지역을 담당하여 10월 10일 원산시가지를 점령하였다. 국군 제1군단의 원산지역 점령은 39도선상의 교통요지 점령으로 북한군의 이동 및 보급수송 저지, 평원철도와 원산-평양 간선도로의 분기점 확보로 중부와 서부지역 북한군에 대한 보급지원 감소, 미 제8군의 북진작전 용이성 제공, 동해에서의 제해권 및 북한 상공의 제공권 장악 공고화, 소련과 북한의 해상 병참선 차단 등의 전략적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국군 제3사단의 방호하에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때의 군단장 김백일 장군 휘하 국군 제1군단이 1일 평균 26㎞의 속도로 진격한 것은 경이적인 것이었다. 또한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의 원산탈환 선두 다툼은 동시점령으로 조치되었다.

평양탈환작전은 10월 18일부터 미 제1군단 소속 미 제1기병사단이 남쪽에서, 국군 제1사단이 동남쪽과 동북쪽에서, 국군 제2군단 소속 제7사단 제8연대가 동북쪽에서 평양을 공격하여 10월 20일 평양을 완전 장악한 작전이다. 이때의 북한군은 제17사단과 제32사단을 주축으로 편성된 8,000여 명의 혼성부대였다. 작전 중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 사살 3,695명, 포로 2,048명 등의 전과를 올렸지만 국군의 손실은 전사 28명, 전상 70명에 불과하였다.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중서부전선의 기동로에서 빈약한 기동장비와 보급품에도 불구하고 미군으로부터 지원 받은 전차, 포병, 공병, 항공을 일체로 하는 패튼전법의 구사로 평양

으로 신속한 진격을 하였으며, 평양으로 진입하기 직전에는 백선엽 장군의 고향이 평양이라 지세에 밝은 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한국군의 평양 선두 입성에 뛰어난 전공을 남겼다. 또한 장병들의 전의(戰意)와 용맹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평양의 탈환은 '맥아더 라인'의 미군 전진한계선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을 한·만 국경선에서 궤멸시키고 통일을 눈앞에 둔 것처럼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38선 돌파작전 이후의 북진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 외에 아쉬움이 남는 요소도 있다.

첫째로, 작전지도(作戰指導)에 관한 것으로 당시 북한군은 이미 주력이 격파되어 격멸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군을 전선에 고착시키고 포위부대가 신속히 기동하여 북한군을 포위 격멸해야 했음에도 정면 공격부대가 신속한 진격만을 우선 시 함으로써 북한군을 놓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다. 즉, 원산상륙부대인 미 제10군단은 상륙작전에 의한 포위보다 육로(陸路)를 이용한 신속 과감한 추격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고, 이로 인한 미 제10군단의 유휴병력화, 원산상륙부대의 상륙작전준비로 병력이 승선한 인천항과 물자를 탑재한 부산항의 번잡에 따라 미 제8군의 보급지원 차질 등으로 빚어진 작전의 차질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한다.

둘째로,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시기의 문제로 10월 1일 국군 제1군단이 동해안에서 38도선을 돌파하였으나 주력군의 돌파는 10월 9일을 전후한 시기에 각 군단단위로 이루어짐으로써 북한군에게 재편(再編)의 기회를 주었고 중공군이 개입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의 주력이 9월말 현재로 완전히 궤멸되어 북한 전역이 사실상 힘의 공백지대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에서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 점, 또 하나는 북한군의 배후에 있는 중공이나 소련이 한국전에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본 점이다.

넷째로, 북한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대운용 문제이다. 북한지역은 북쪽으로 이동할수록 공격정면이 확대된다는 점을 소홀히 한 것이다. 즉,

청천강을 연하는 선에서 약 270㎞인 전선이 국경선 부근에서는 765㎞로서 무려 3배정도의 정면이 신장된다. 따라서 당시 미 제8군의 전력으로는 청천강선 이북 공격 시 전투력의 분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미 제8군이 미 제10군단과 함께 서부지역 석권 후 동부지역을 공격하는 단계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이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군의 능력을 궤멸상태로 보고 낙관적인 견해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본다. 차후 진격에서도 미 제10군단과 미 제8군의 동서 연결작전이 백지화되고 서부와 동부 각각 국경을 향한 진격으로 인하여 장진호로부터 희천간 약 80㎞의 간격이 형성되어 중공군의 침투를 허용하게 됨으로써 중공군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 해·공군 작전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작전인 인천상륙작전의 결과는 즉각적이고 결정적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배후(背後)를 강타한 인천상륙작전은 북한군의 모든 기도를 무산시켰고, 불과 2주만에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을 패주시켰다. 인천상륙작전은 많은 반대와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이 구상하여 실행에 옮긴 대담한 도박이었으며, 역사상 상륙작전의 효율성을 가장 뚜렷이 입증한 작전이었다.

상륙장소로서의 인천은 전략적으로 유리하였으나, 전술적으로는 세계 2위의 조수간만의 차, 좁고 굴곡이 심한 접근수로와 강한 조류, 상륙작전에 부적절한 해안, 북한군이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는 월미도를 비롯한 해안, 기뢰의 위협 등 상륙작전을 수행하는데 수로적·지리적 조건이 극히 불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시간과 최소한의 손실로 인천상륙작전이 계획되고 실행되어 성공적인 작전결과를 낳게 된 것은 지휘부와 지휘관들의 치밀한 계획과 유기적인 협조 및 유능함,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의 기술, 훈련, 전비태세

그리고 용감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겠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전을 실시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은폐방책을 강구하였는데 그중 1950년 9월 15일 실시된 장사동상륙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한 기만작전이었다. 정일권 총참모장은 동부전선의 포항지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상륙기습을 통한 양동작전을 지시하였으며, 이명흠을 부대장으로 독립 제1유격대대가 편성되어 해운공사 소속 LST(문산호) 1척으로 장사동 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부대는 상륙경험, 장비, 무장, 상륙교리에 따른 기본적인 준비가 거의 되지 못한 상태로서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였다. 따라서 돌격단계에서 부적합한 상륙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냈으며, 지원 세력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감행됨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은 북한군의 작전배비(作戰配備)를 교란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포항·경주 방면으로 진출하는 북한군 2개 연대와 전차 4대를 영덕 방면으로 유인함으로써 전선의 압박을 제한적으로 완화시키는데 성공한 작전으로 평가된다.

원산상륙작전은 서울을 수복한 맥아더 장군이 미 제10군단을 미 제8군과 교대시킨 후 원산항을 미 제10군단의 군수지원항으로 사용하고, 미 제8군이 평양을 공격할 때 미 제10군단을 포위세력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로 실행한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원산을 10월 10일 국군 제1군단이 탈환하고, 소해작전의 지연으로 인해 10월 26일에야 상륙을 하게 됨으로써 주요 전투력의 유휴화를 초래한 작전이 되고 말았다. 또한 미 제10군단의 상륙을 위한 역행군과 재탑재로 인해 인천항과 부산항의 부하가 과중되어 미 제8군의 군수지원을 비롯하여 타 부대의 작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작전에서 얻은 것은 미 해군의 기뢰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소해작전을 통한 경험을 축적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한국 해군은 지상군의 반격작전에 맞추어 함정과 육전대로 잔적을 소탕하면서 해안지대와 인근도서의 치안을 확보하고, 각 해역의 해군기지를 수복하였다. 또한 지상군의 진격과 함께 북한 해역으로 진출하여 북한의 항구에 전진기지를 설치하였으며, 육군에게 필요한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해

안경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한국 해군과 유엔 해군은 북한의 주요항구인 원산, 흥남, 성진, 해주, 진남포에서 소해작전을 실시하여 군수지원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항구의 개방은 군수지원 뿐만 아니라 위급 시 지상군의 철수작전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되었다.

한편 공군은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낙동강방어선에서 반격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공군의 전 전력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였다. 38도선 돌파 이후의 작전에서도 아군의 전선확대에 따른 지상군 엄호, 적의 증원 차단, 전선으로의 인원, 장비, 보급물자 수송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지상전력과의 협조는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수행되어 성공적인 작전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급격한 전선의 이동은 한국 공군 및 유엔 공군의 항공기지 이전을 필요로 하게 되어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 후방에서 북한지역 전선 인근지역으로 비행장을 이동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형 특성, 통신 및 후방지원의 제한사항 등에 따른 어려움을 수없이 극복하면서 지원하였다. 특히 통신장애와 이로 인한 전술통제의 문제에 있어 9월 25일 수영기지에서 대구로 이동했던 주한 미 제5공군사령부는 미 제8군의 북상과 함께 서울에 지휘소를 설치하였고 합동작전본부(JOC)도 서울지역으로 이동하였으나 전술지원비행단(수영, 대구)과의 거리 문제로 전술통제부대와 합동작전본부간의 통신망이 결여되어 정보획득이 지연됨으로써 전술표적 공격에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전투 및 폭격비행부대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원 및 장비의 한국 이동 시 수송수단의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장병들의 신속한 대처와 인내로 이를 극복하였으며, 전선으로 급증하는 수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송기와 조종사의 일일 한계를 초과하는 작전운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전쟁의 중요 고비에서 유엔군은 항공력의 지휘통제와 관련된 일시적 이견과 혼선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에 근거하여 신속한 조정과 절차를 수립하여 문제를 극복하고 승세를 유지하는데 항공세력의 기여도를 극대화시켰다.

(집필 : 민항기)

부 록

1. 특수 용어 및 약어 해설
2. 국군 작전명령
3. 연 표

1. 특수 용어 및 약어 해설

(1) 특수 용어(약어) 해설

ADCOM —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전방 사령부
AGC — Amphibious Force Flagship	상륙전 기함
AKA — Attack Cargo Ship	공격 화물 수송함
AMS — Motor Minesweeper(YMS의 신형)	소해정
ANGLICO — Air and Naval Gunfire Liaison Company	항공·함포 연락 중대
APA — Attack Transport	공격 인원 수송함
APD — High Speed Transport	고속수송함
ASCOM — Army Service Command	육군 기지창
ATF — Fleet Tug	예인함
BB — Battleship	전함
BLT — Battalion Landing Team	대대 상륙단
CA — Heavy Cruiser	중(重) 순양함
CP — Command Post	지휘소
CL — Light Cruiser	경(輕) 순양함
CV — Aircraft Carrier	항공모함
CVE — Escort Aircraft Carrier	호위 항공모함
CVL — Light Aircraft Carrier	경항공모함
DD — Destroyer	구축함
DUKW — Amphibious Truck(Dual Utility Cargo Waterborne)	수륙양용트럭
FBHL — Force Beach Head Line	해안두보선
FMF — Fleet Marine Force	함대해병대
GQ — General Quarters	전투 배치
SPOG — 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	합동전략 계획단
JTF — Joint Task Force	합동기동부대
KLO — Korean Liaison Office	한국연락사무소
LCM — Landing Craft, Medium	중형 상륙정
LCVP — Landing Craft, Vehicle and Personnel	상륙 주정
LD — Line of Departure	공격개시선

LF — Landing Force	상륙군
LSD — Landing Ship, Dock	상륙 선거함
LSMR — Landing Ship, Medium-Rocket	로케트 포함
LST — Landing Ship, Tank	전차 양륙함
LSU — Landing Ship, Utility	대형 상륙정
LVT — Landing Vehicle, Tracked	수륙 양용차
LVT(A) — Landing Vehicle, Tracked(Armored)	장갑 수륙 양용차
MAG — Marine Air Group	해병 비행 전대
MAW — Marine Air Wing	해병 항공 사단
MTT — Mobile Training Team	이동 교육반
OP — Observation Post	관측소
PC — Submarine Chaser	구잠함
PF — Frigate	호위함
RCT — Regimental Combat Team	연대전투단
RLT — Regimental Landing Team	연대상륙단
SFCP — Shore Fire Control Party	해안 사격 통제반
TAC — Tactical Air Command	전술 항공 본부
TF — Task Force	기동부대, 특수임무부대
TG — Task Group	기동전대
TTU — Troop Training Unit	부대훈련대
USAFIK — U. S. Army Forces in Korea	주한 미 지상군
VMF — Marine Fighter Squadron	해병 전투기 대대
VMF(N) — Marine Night(All-weather) Fighter Squadron	해병 전천후 전투기 대대
YAK — Russian Fighter Aircraft	소련제 전투기
YMS — Motor Minesweeper(AMS의 구형)	소해정

(2) 함선명(艦船名)

Athabaskan(DD, HMCS*)	아타바스칸
Belfast(CV, HMS*)	벨파스트
Bexer(APA, USS*)	벡사
Cavalier(APA, HMS)	캐벌리어
Charity(DD, USS)	채리티
Collett(DD, USS)	콜레트
Endicott(DD, USS)	엔디코트
Helena(CA, USS)	헬레나

Henderson(DD, USS)	헨더슨
Henrico(APA, USS)	헨리코
Jamaica(CL, HMS)	자메이카
Kenya(CL, HMS)	케냐
Mansfield(DD, USS)	맨스필드
Missouri(BB, USS)	미주리
Montague(AKA, USS)	몬터규
Mount McKinley(AGC, USS)	마운트 맥킨리
Pickaway(APA, USS)	피카웨이
Rochester(CA, USS)	로체스터
Sicily(CVE, USS)	시실리
Toledo(CA, USS)	톨레도
Triumph(CVL, HMS)	트라이엄프

* HMCS : 캐나다 해군 함선
  HMS : 영국 해군 함선
  USS : 미 해군 함선

(3) 기 타

ANGLICO	앵글리코(부대)
ASCOM	애스콤(부대)
Bataan	바탄(항공기)
Bluehearts	블루하트(작전)
Chromite	크로마이트(작전)
Corsair	코르세어(전투기)
DUKW	더크(차량)
Grace	그레이스(태풍)
Jane	제인(태풍)
Kezia	케지아(태풍)
Mustang	무스탕(전투기)
New York Herald Tribune	뉴욕 헤럴드 트리뷴(신문)
Pershing	퍼싱(전차)
Shooting Star	슈팅스타(전투기)
YAK	야크(전투기)

2. 국군 작전명령

육본작명 제179호 1950. 9.14. 12.00
慶南 釜山

육 군 본 부

一. 적은 우익전선의 패세를 만회하기 위한 반격의 지원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사, 12사 주력으로써 浦項 安康정면에서 견고한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음.

二. 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함

三. (1) 제1군단장은 예하 제17연대를 9월 14일~15일에 걸친 야간을 이용하여 釜山으로 이동 집결시키라.

(2) 제17연대는 9월 15일 13.00부로 제1군단 首都사단으로 부터 예속을 해제하고 육군본부 직할로 한다.

(3) 제17연대장은 釜山도착후의 행동에 관하여 도착 즉시로 당 본부의 지시를 받으라.

四. (1) 수송

가. 자동차 차량은 육로로 釜山까지 운행하라.

나. 소요 철도수송을 慶州철도수송관에게 신청하라.

(2) 건물에 관하여는 군수국장의 지시에 의하라.

五. (1) 제1군단장은 예하 제17연대로 하여금 통신장비기재를 휴대케 하라.

(2) 제17연대장은 釜山도착 즉시 육군통신감실에 출두하여 통신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받으라.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1950. 9. 13 12. 00

육본작명 제180호 慶南 釜山

군대구분 참조 육 군 본 부

一. a. 적정 부록 제 2 참조

b. UN 제 1 군단은 UN 제10군단의 D－1 일부터, 수륙양면 상륙작전에 따라 D일 H시부터 西方 西北方 및 北方으로 향하여 호응 공격을 개시한다. (UN 제10군단 상륙지점은 후달함)

c. UN 공군은 공세이전 작전기간을 통하여 전략 및 전술적 공중지원을 계속 분담하라.

d. UN 해군은 해안선에 공세작전을 하는 부대에 함포지원을 분담한다.

二. a. 대한민국 육군은

(1) 현 위치를 0일까지 안정화하며 동시에 敵 全力과의 적극적이며 강력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지구 내에서의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며, 현재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敵을 배제하여 主 작전방향의 東翼을 방어하라.

(2) 전 부대는 强固한 전술상의 지위를 확보하며 0일 실행될 일제 공세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라.

(3) 제 1 차 진출예정선인 A—1 선상의 목표 제 1 淸河(12301480), 제 2 西井里(12091479), 제 3 上玉里(12181486), 제 4 大前洞(12021497), 제 5 印支洞(11951493), 제 6 九山洞(11861489), 제 7 義城(11661497), 제 8 桃源洞(11551490)을 확보하기 위하여 北方 및 西北方에 대하여 0일 H시를 기하여 일제 공격을 개시하며 제 1 차 진출예정선에 진출 후는 즉시 제 2 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A"盈德(12321506), "B"道路交叉點(12141415), "C"德川洞(12011508), "D"泉旨洞(11861510), "E"安東(11691523), "F"醴泉(11421534), "G"咸昌(11151522)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하라.

b. 0일 공격개시선—각부대 當日線.

c. 전투지경 부록 제 3 투명도 참조.

三. a. 제 1 군단

제 8 군 사령관에 의하여 "짹슨" 전투부대 지휘하로 부터 해제된 후는 즉시 각부대를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상황이 허용하는 한 배당된 지경 내의 정위치에 각사단을 이동하라.

(1) 수도사단

(a) 현 위치를 안정화하고, 적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 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 침투를 기도하는 敵을 배제하라.

(b)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0일 일제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c) 사단 右翼 인접부대인 제 3 사단과 사단 左익 인접부대인 제 2 군단 제 8 사단과 협조하여 0일 H시 사단 담당 정면을 北方 및 西北方으로 공격을 개시하라.

(d) 담당 전투지경 내 제 1 차 진출 예정선인 A—1 선상의 목표 제 4 大前洞(120221497), 제 5 印支洞(11951493) 및 도로 교차점을 공격 확보하라.

(e) A—1 선 공격 후는 제 2 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C" 德川洞(12011508) "D" 泉旨洞(11861510)을 공격, 확보하기 위하여 만단 준비를 하라.

(f)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사단 右翼 인접부대인 제 3 사단 및 사단 左익 인접부대인 제 2 군단(제 8 사단)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라.

(2) 제 3 사단

(a). 현 위치를 안정화하고 敵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敵을 배제하라.

(b)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0일 일제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c) 左翼 인접부대인 수도사단과 협조하여 0일 H시 담당 정면을 北方으로 공격 개시하라.

(d) 담당 전투지경내 제 1 차 진출예정선인 A—1 선상의 목표 제 1 清河(12301480), 제 2 西井里(11291479), 제 3 上玉里(12181486) 및 도로 교차점을 공격, 확보하라.

(e) A—1 선 확보 후는 즉시 제 2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A" 盈德(12321506), "B" 도로교차점(12141515)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

(f) 각종 통신수당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左翼 인접사단인 수도사단과 접촉을 계속하라.

(3) 제 3 연대

a. 육본명령이 유할 시 차량으로 慶州(12191438)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慶州 도착 후 제 3 연대의 지휘권은 제 1 군단장에서 제 7 사단장으로 이양하라. (군예비사단)

b. 제 2 군단

즉시 각부대를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상황이 허용하는 한 배당된 지경내 정위치에 각 사단은 이동하라.

(1) 제 6 사단

(a) 현 위치를 안정화하고 敵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 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敵을 배제하라.

(b)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0일에 실시하는 일제반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c) 사단 인접부대인 제 8 사단과 협조 아래, 담당 정면에서 0일 H시를 기하여 北方 및 西北方에 공격개시하라.

(d) 담당 전투지경 내 제 1 차 진출 예정선인 A—1 선상의 목표 제 8 桃源洞(11551490)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라.

(e) A—1선 확보후는 제 2 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F" 醴泉(11421534), "G" 咸昌(1115 1523)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기 위하여 만단 준비를 하라.

(f)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사단 右翼 인접부대인 제 8 사단과 左익인접부대인 UN軍 제 1 군단 (韓國軍 제 1 사단)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라.

(2) 제 8 사단

(a) 현 위치를 안정화하고 敵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敵을 배제하라.

(b)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0일 실시될 일제 반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c) 左 인접부대인 제 6 사단과 右 인접부대인 제 1 군단(수도사단)과 협조하여 0일 H시 담당정면을 北方 및 西北方을 공격개시하라.

(d) 담당 전투지경내 제 1 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제 6 九山洞(11861489), 제 7 義城(1168 1497)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라.

(e) A—1선 확보 후는 제 2 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E" 安東(11691523)을 공격, 확보하기 위하여 만단 준비를 하라.

(f)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右 인접부대인 제 1 군단(수도사단) 및 左인접부대인 제 6 사단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라.

(3) 제 5 연대

육본명령이 유할 시 차량으로 慶州(12191438)에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慶州 도착 후 제 5 연대 지휘권은 제 2 군단장으로 부터 제 7 사단에 이양하라. (군예비사단)

(4) 제 8 연대

육본명령이 유할 시 차량으로 慶州(12191438)에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c. 포병

(1) 제 1 군단

(a) 제10야포대대——수도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b) 제11야포대대——제 3 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2) 제 2 군단

(a) 제16야포대대——제 6 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b) 제50야포대대——제 8 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3) 제18야포대대

제 7 사단(군예비사단)이 일선에 배치될 때까지 主로 제 1 군단을 지원하되 제 7 사단이 일선 배치된 후는 제 7 사단을 직접지원하라.

d. 공병——부록 제 4 공병부록 참조.

e. 군 정찰비행반

(1) 기능한 자재 및 인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天氣가 허락하면 매일 晝間 각 사단에 연락기 1대식을 기준으로 각 사단 공중관측용으로 배치하라.

(2) 연락기는 SCR 300으로 사단사령부 연대본부 및 사단 야포대대본부와의 통신을 유지하라.

(3) 작전상 항공기지

(a) 제 1 군단

慶州, 浦項, 九山洞, 盈德

(b) 제 2 군단

慶州, 永川, 義城

f. 제 7 사단(군예비사단)

제 1 안——제 1, 혹은 제 2 군단진격간격을 참투한 敵 저항권의 말살을 위한 사단 혹은 연대 분할 사용을 준비하라.

제 2 안——제 1 혹은 제 2 군단 지구 내의 주요한 돌파구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대 혹은 사단 단위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1) 敵 진지선내에서 돌파구의 확대에 全力을 다하라. 主力으로부터 분리하여 침투 고립된 "포켓" 내 敵을 포착, 격파하라.

(2) 각 부대는 각 지휘관이 자기 기동계획을 촉진할 수 있도록 敵의 위치 및 병력을 적극적으로 정찰할 것을 강조한다.

(3) 각 부대 지휘관은 각종 기회를 이용하여 敵 意表에 나을 것이다. 실시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대장악이 확실히 되었을 때는 항시 未明 및 야간공격등을 감행하라.

(4) 제 8 군사령관이 발령하는 명령 및 지시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밀을 보지하기 위하여 顧問계 통을 통하여 英文으로 하달되는 명령 및 지시에 육군 총참모장의 확인이 있을 시엔 수령자는 동명령 및 지시에 복종하라.

(5) 본 명령에 의거한 군단장 계획은 0— 1일 24.00까지 육군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라. 계획은 사용할 부대 배치 목표 진출선 제한점 중간목표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0일 H시는 別命한다.

(7) 0일 H시(대략 D加 3일)은 別命한다.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육해공군총사령관 육군소장 丁 一 權

(註 : 以下 陸軍本部 作戰命令은「총사령관 丁一權」이므로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직책과 이름을 생략한다.)

1950. 10. 8. 11. 00
서 울

육본작명 제211호 육 군 본 부

一. a. 情報 : 현재로 봐서 傀儡軍사단이 北韓에 위치하고 있지 않음. 傀儡軍 제11, 제14, 제24사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나, 현재 그 병력급 위치는 알려지고 있지 않음.

2개 연대 즉 제76 및 제96연대로 구성된 傀儡軍 제42사단은 명백한 존재를 가지고 있음.

차 사단은 최근에 元山에서 편성되어 금일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것은 알려지고 있지 않음.

南韓에서 전투에 참가하고 지리멸렬상태가되어 北韓으로 퇴각한 괴뢰군 2개군단중 불과 23,000명밖에 존재치 않는 것으로 가정되며, 火器로 말하면 약 四분지一밖에 남아 있지 않음. 이런 사실로 미루워보아 傀儡軍 제1군단에서도 불과 11,000명밖에 傀儡軍병력 참가에 성공치 않았을 것임. 또 重火器도 약 15% 밖에 없음.

傀儡軍의 경비대대는 실지로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이 6,500명가량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차병력도 빈약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적당한 장구도 부족하고 지휘관도 열등하여 士氣도 저하되어 있음.

현재 傀儡軍이 하처에서 방어선을 설치할런지는 명백치 않음.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傀儡軍은 元山 및 平壤에 我軍접근을 방어하려는 것 같으나 그 능력이 과연 있는지? 없는가? 의심할 바임.

傀儡軍 유격대활동이 국내방어에 있어서 그 전법이 빨치산전술로 변하리라고 생각됨, 현재로는 中共軍 또는 蘇聯軍이 괴뢰군을 내원할 것 같은 표적은 없음. 연이나 차 군대들이 가능한 간섭을 하기위하여 즉시로 이용된다는 사실은 역시 계속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다.

2. 가. 美 제1군단은 平壤을 탈취 확보하기 위하여 開城一沙里院軸에 主力을 경주, 공격을 계속하고 있음.

나. UN 空軍은 공격작전 기간 중 계속적으로 전략적, 전술적 공중지원을 함.

다. UN 海軍은 海岸부대의 공격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함.

二. 軍은 지구 내의 敵을 소탕하고 적의 北方 및 南方이동을 저지하여 美 제1단군단과 결합하기 위하여 平壤을 향하여 西方으로 동시에 興南급 咸興을 탈취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을 실시하려 함.

攻擊개시선 급 전투지경선 별지 제3호 작전투명도 참조

三. 1. 제1군단

가. 제1군단은 元山(1041—1837) 점령 후 교대할 때까지 적당한 경비병력을 잔류시키라.

나. 육군본부명령을 수령하면 즉시 재공격으로 東陽(990~1837), 長林里(939~1855), 江東(914—1836), 軸 西方에 공격을 가하여 美 제1군단과 결합하라.

다. 道路 교차점 급 기타 전진축의 西方道路를 확보한 후에는 충분한 병력으로 차지점에 잔류시켜 敵의 北급 南方으로의 이동을 저지하라.

2. 제 2 군단

가. 제 2 군단은 元山에서 제 1 군단과 교대하여 美 제10군단 또는 차본부의 명령에 의하여 교대받을 때까지 元山을 경비하라.

나. 차 본부의 명령이 유하는대로 文川(1027—1852), 永興(1022—1885), 定平(1034—1914), 南興(1050—1929), 급 파추장(1059—1897), 興南(1056—1918)軸에 대하여 공격 全敵을 격멸하고 咸興과 興南을 확보하라.

3. 제 7 사단(軍예비대)

가. 제 7 사단은 軍.예비대로서 平康(1028—1746) 부근으로 이동하라.

나. 此 본부의 명령이 있는대로 주동(965—1779), 谷山(978—1792), 東陽(990—1837), 급 무남리(942—1778), 봉암(1003—1792), 馬轉里(1013—1831)軸으로 전진하여 殘敵의 저항을 소탕하라.

다. 제 1 군단 혹은 제 2 군단지구 공격을 지원하라.

4. 我 戰線을 돌파하기 위하여 全 노력을 다하라.

5. 我 주력이 통과한 통로상의 고립된 작전은 소탕될 것이다.

6. 제 8 군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하여 또는 완전한 경비를 하기 위하여 고문단 경유, 英文으로 발송되는 본관이 인정한 명령 급 지시는 복종하라.

7. 차명령에 의한 군단장의 실시계획안을 차명령 수령 후 72시간이내로 차본부에 제출하라.

8. 제 1 군단 급 美 제 1 군단간의 직접통신은 승인되었음.

9. 제 1 군단, 제 2 군단 및 제 7 사단간의 직접통신은 필요한 협조를 하기 위하여 승인한다.

四. 행정사항 현행명령 참조.

五. 통신사항 후달함.

작명 제212호 訓令 제 1 호

육본작명 제212호(1950. 10. 8. 20.00부)

제三항을 하기와 여히 수정함.

三. a. 제 1 군단은

1. 元山으로부터 北方 및 西方으로 계속 전진하여, 敵의 地上 및 砲활동에 대비, 元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단점을 설치하라.
2. 육군본부 명령이 유하면 즉시 文川—永興—定平—咸興—孃春場—興南軸線을 따라 공격을 실시하고 敵을 완전 섬멸하라.

b. 제 2 군단은

1. 가능한 신속히 元山으로 계속 전진하라.
2. 육군본부 명령이 있을 시엔 담당지구 내 陽德—長林里—江東軸線을 따라 西方으로 공격을 실시하되 全敵을 섬멸하고 美 제 1 군단과 합세하라.
3. 초기에는 前進軸線上 도로 교차점 및 기타 南北間 道路를 확보한 다음, 기타점에 敵의 南進 및 北進行動을 저지함에 충분한 병력을 잔류시켜라.

작명 제212호 訓令 제 1 호

육본작명 제212호(1950. 10. 10. 20.00)

제 3 항을 여좌히 수정한다.

三. a. 제 1 군단은

美 제10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元山港을 확보하기 위하여 安邊, 龍浦里(CU 3735), 龍灘里(CU 4456) 및 龍灘江 입구를 주저항선으로 하고 永興을 확보함으로써 敵의 보급로를 차단 文川, 永興, 定平, 咸興 및 孃春場(CU 6409) 興南軸線을 따라 진격, 敵을 섬멸하라.

b. 제 2 군단은

가능한한 신속히 元山으로 계속 전진, 元山 경유, 美 제 1 군단과 합세하기 위하여 담당지구 내 陽德—長林里—江東里線을 따라 平壤을 향하여 공격, 전진하되, 敵을 분쇄하고 그 지구에서 南方 및 北方으로 移動하는 敵을 차단 섬멸하라.

c. 제 2 군단은 필요에 따라 제 1 군단지구를 통과할 수 있다.

작명 제212호 訓令 제 2 호

작명 제212호(1950. 10. 10 12.00부) 修正

一. 제 1 군단은 美 제10군단이 도착할 시까지 元山港을 확보하기 위하여 安邊—龍浦里—龍灘里 및 龍灘江入口를 주저항선으로 하고

二. 제 2 군단은 즉시로 美 제 1 군단과 합세하기 위하여 平壤을 향하여 西部를 공격하며 제 1 군단이 확보한 지역 西部의 敵을 분쇄하고 기타 區에 있어서 南方 및 北方으로 이동하는 敵을 차단하라.

三. 제 2 군단은 필요에 따라 제 1 군단지구를 통과할 수 있다.

육본작명 제221호

1950. 10. 20. 13.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a. 정보사항 부록 제 2 호 참조

b. 1. 美 제10군단은 元山 지구 집결 완료 즉시로 배속된 韓國軍 제 1 군단과 합세하여 담당지구 내에서 北進하여 德實里 CA4712(北緯 40°44′ 一東經 127°12′)—豊山 DA2818(北緯 40°48′ 一東經 128°10′)—城津 EA1602(北緯 40°40′ 一東經 129°12′)을 연하는 線을 점령, 확보할 것임.

2. 美 제 3 보병사단은 총사령부 예비대로서 元山에 집결할 것임.

3. 美 제187공수전투연대는 肅川 YD2565—順川지구를 점령, 방어하기 위하여 1950년 10월 20일 낙하산으로 낙하하여 UN軍 총사령관 직접 지휘하에 작전함.

4. 美 제 1 군단은 담당지구 내에서 모든 敵을 섬멸하며 진출하여 담당지구내 목표선 A를 점령, 확보하고 海州—平壤線 以西지구 敵을 소탕할 것임.

5. 美 제 9 군단은 水原—大田—大邱—釜山間 보급로를 확보하고 大韓民國 경찰과 합력하여 南韓 담당지구 내 殘敵을 섬멸하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함.

c. 극동방면 공군은 국제연합군 지상군을 지원하는 작전임무를 계속 수행함.

d. 극동방면 해군은 국제연합군 지상군을 지원하는 작전임무를 계속 수행함.

二. a. 軍은 담당지구 내에서 北進하여(北緯 40°17′—東經 125°47′)—檜木洞(北緯 40°22′—東經 126°2′ 北緯 40°28′—東經 126°50′)—德實里(北緯 40°44′—東經 127°12′)를 연하는 線을 점령, 확보하고, 담당지구 내 殘敵을 섬멸하려 함.

b. 공격개시선 각부대 현재 위치

c. 전투지경 부록 제 2 호 작전투명도 참조

三. a. 제 1 군단은 1950년 10월 20일 12.00부 韓國軍의 지휘 하로 부터 해제되어 美 제10군단에 배속한다. 차후 작전에 있어서는 美 제10군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b. 제 2 군단은

1. 제 7 사단을 즉시 三登 BU 5619(北緯 39°—東經 126°13′)으로 집결시키고 三登 집결 완료와 동시에 제 2 군단 지휘하로부터 해제, 육군본부 지휘 하에 入하게 하라. (軍예비)
2. 담당지구 내에서 敵을 섬멸하며 전진하여 담당지구 내 목표선 A를 점령, 확보하라.
3. 北方에 대한 차후 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c. 제 3 군단은 경찰과 협력하여 담당지구내 잔적을 섬멸하는 현임무를 계속 실시하라.

d. 軍 예비 제 7 사단은

1. 제 2 군단 담당지구 , 에서 작전을 심시할 준비를 갖추라.
2. 軍 담당지구내의 고립된 敵에 대하여 섬멸작전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라.

x. 1. 定州—軍隅里—寧遠—咸興선 이북에서의 韓國軍 이외의 국제연합군 지상군 사용에 관하여 육군작명 제218호로 규정한 제한은 해소되었음. 그러나 韓國軍 이외의 국제연합군은 목표선 A 이북에서 작전하지 않는다. 韓國軍은 韓國 군사고문단이 지명하는 인원 급 고문 요원과 더불어 목표선 A이북에서 작전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라.

2. 제 2 군단은 美 제 1 단 담당지구를 통과할 필요가 있을 때엔 진로 급 통로에 관하여 美 제 1 군단과 협의하라.
3. 부록 1, 2는 後送함.

四. 행정사항 현 행정명령을 보라.

五. 통신사항 후달함.

육본작명 제221호 부록 제 2 호(정보사항)

1950. 10. 20. 12.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적정대략

a. 敵 위치(정보개요 참조)

b. 韓 제 2 군단지역에 존재하는 적병력

(1) 접전 중 혹은 在戰線대기 敵 부대

제18소총사단 2,300명
제31소총사단 2,000명
제25소총여단 1,000명

제249소총여단 600명
제92소총연대 500명
합계 6,400명

(2) 前進지역에 있는 적 병력보고
제17기계화사단 5,000명
제15소총사단 5,000명
제105장갑사단 5,000명
합계 15,000명

(3) 추산한 예비대병력(차 부대는 아직 확인하지도 못하였으나 대개는 존재를 추측한 것이다.)
제11소총사단 11,000명
제14소총사단 11,000명
제25소총사단 11,000명
합계 33,000명

(4) 상기 부대는 다방면 다각도로 그 존재를 확인한 것이며, 그 병력은 추산하는 것을 유의하라. 또 당연히 이외에도 그 존재와 위치가 확인되지 못한 新造부대가 있을 것이다.

(參考사항) 최근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敵은 정부와 주요 방위력을 滿浦鎭을 中心으로 하는 주변에 집중시키고 강력한 방어진지를 熙川과 武坪里에 구축하고 있다 한다. 차 지역에는 韓國內에서 가장 양호한 道路가 시설되고 동시에 최고 산악이 병립하여 유격대활동에 대하여 좋은 차폐물과 은폐물을 제공할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까지 日帝침략시에도 차 지역은 對日軍유격戰場지역으로 유명하였다는 것을 명기하라. 이들 유격대는 어느 1명의 金日成이라 칭하는자에 의하여 지휘되었던 것이다.

차 지역은 石炭, 金등 귀금속광(우라늄도 있을 것이다.) 및 水力電氣, 木材와 滿洲를 통하는 鐵道 보급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中共이나 蘇聯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방위에 유리한 지형과 방위에 필요한 중요 自然資源과 北傀政權의 최후 決戰을 위하여 滿浦鎭 이동을 종합하여 북때 敵은 차 지역에서 악독히 我軍 진격에 대하여 대항할 것이 예상된다. 敵은 主力을 熙川—武坪里—滿浦鎭에 이루는 鐵路와 도로에 집승할 것이 명백하며 또 현재 中共軍에 가입하고 있는 韓國人이 차 지역방위를 담당할 것도 가능한 일이다. 금일까지 中共, 蘇聯의 개입할 기색은 보이지 않으나, 北傀軍에 대하여 하시라도 즉시 中共, 소련이 援兵을 보 낼수 있다는 것은 역시 염려가 되는 바이다.

二. 중요보고사항

a. 敵 병력, 배치위치, 부대확인, 목표지, 방위진지와 상황

b. 敵은 목표지에서 증원하느냐? 만약 한다면 언제, 어데서, 여하한 부대를 가지고 하였느냐? 中共軍 사용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라.

c. 敵은 我軍 보급로를 방해하지 않을까? 球場洞으로부터 武坪里에 이르는 道路 철도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라.

d. 敵을 공격할까? 만약 한다면

e. 敵은 방어할까? 만약 한다면 병력은 여하 또 어디서 지연 혹은 방위작전을 하는 것일까?

f. 敵은 후퇴할까? 만약 한다면 언제 어디로 어떤 병력이?

g. 韓 제2군단지역 내 敵의 전투능력 건강상태 훈련정도 사기는 여하?

h. 敵 지역내 장애물 축성 또는 지뢰부설지는 어디 있는가?

i. 北韓人民들의 태도는 여하?

三. 정찰임무

a. 예하부대에 대한 명령——일반적으로 軍團長 및 부대장은 상기 제二항 중 요보고 사항에 대하여 정보수집 기본적 지시로 하여 유의하라. 부가된 특별명령은

(1) 정보입수 즉시 熙川으로 北方 武坪里에 이르는 道路에 대하여 보고하라. 특히 熙川北方 약8KM 지점에 있는 鐵道터널과 武坪里南方 16KM에 있는 鐵道터널에 대하여 주의하기를 요망한다.

(2) 작전지역 내의 여하한 金鑛, 炭鑛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즉시 보고하라.

(3) 敵 장갑 혹은 보병부대 등의 편성한 形跡 증거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특별히 傀儡軍 제17기계화사단 제105장갑사단, 제15보병사단 행동에 유의하라.

b. 上級, 인접 관계부대에 대한 요구

(1) 美 제1, 제10군단

(a) 韓 제2군단 지역 내에 영향될 敵 부대위치, 병력배치에 대한 정보는 입수 즉시 보고하라.

(2) 제5항공단

(a) 하기 要點을 결정하기 위하여 球場洞부터 北方 滿浦鎭에 이르는 주요도로 및 철도에 대한 可視정찰에 주의하라.

(1) 부대집결위치, 병력배치, 자동차 및 도보부대종대 될 수 있으면 이동 방향.

(2) 철도위치, 밀도, 배치 및 방향.

四. 포로취급, 노획서류, 물자에 대한 요망 종전과 여함.

五. 地圖, 寫眞

a. 지도 동상배급계통

b. 사진 차 본부에 空中사진을 송부하라.

六. 防諜

a. 엄중한 방첩태세를 지휘소에 수립하라. 하처에서라도 특별히 敵에 이용될 지도, 서류취급, 전화회화, 失話, 추측에 대하여 주의하라.

七. 報告, 위치보고를 가급적 신속한 방법으로 제출하라.

3. 연 표

연 도	구분	사 건 내 용
9월 15일	군사	• 제17연대, 인천상륙작전을 위하여 부산으로 이동 • 인천상륙작전 성공 상륙군 인천시가에서 잔적 섬멸 • UN군 군산상륙 • 미 제25사단 고성으로 진격
9월 16일	군사	• 상륙군 부평점령 • 국군 및 UN군, 낙동강전선에서 09:00시를 기하여 총반격 시작 • B-29 80대, 원산항 폭격 • 서울-인천지구에서 북한군 만재트럭 280대 중 230대 격파 • 미 국무차관보 러스크, 북한에 외국개입 경고방송
9월 17일	군사	• 미 제25사단, 경남 고성 탈환 • 미 전투기, 미 제2사단지역에서 북한군 1,500명 살상 • 미 해병 제1사단 제5연대, 20:00시에 김포비행장 완전 점령
9월 18일	군사	• 수도 사단, 안강탈환 • 제1사단, 다부동-군위, 북한군 퇴로 차단 • 해병대 박촌리와 연희리에서 잔적을 섬멸 • 제3사단, 형산강 도하 • 미 제2사단, 낙동강을 도하하여 합천향발 • 소련은 UN군 4만 이상이 인천에 상륙하였다고 방송
9월 19일	군사	• 해병대 김포반도에서 제2단계 섬멸전 전개, 미 해병 5연대와 한국 해병 제1, 제2대대, 정곡에서 한강 도하 준비 중 미 해병 제1연대, 소사를 점령하고 영등포로 진격 중 • 미 제5연대전투단, 왜관탈환 •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 부산 상륙
	정치·경제	• 이승만 대통령 한국통일 방해는 있을 수 없으며, 국군은 한·만국경까지 진격을 언명
9월 20일	군사	• 해군 인천 경비부 복귀 • 공군 F-51비행부대, 진해기지에서 대구기지로 이동 • 한국 해병대와 미 해병 제5연대, 행주 나루터에서 한강을 도하 수색으로 계속 진격 • 제3사단, 포항 탈환

연 도	구분	사 건 내 용
9월 20일	정치·경제	• 마샬 국방장관, 중공군일부 월경입한설을 언명
9월 21일	군사	• 국군 제8사단 영천북방 구산동 점령 • 미 해병사단 제1연대 영등포에서 시가전 전개, 해병 제1대대 104고지 점령 • 미 제1기병사단 및 제1사단 북한군 포위하여 다부동 탈환 • 제6사단, 의흥 탈환 • 수도사단, 기계 탈환
9월 22일	군사	• 미 해병 제1연대, 영등포 점령 미 해병 제5연대와 한국해병대, 서울 서측방에서 공격개시 미 제7사단 제31연대, 수원 비행장 탈환 • 육군본부 대구로 전진 • 미 제1기병사단의 777특수임무부대, 다부동 서쪽에서 추격을 시작 • 제3사단, 흥해 탈환 • 제8사단, 구산동 탈환 • 제6사단, 군위 탈환 • 공군본부, 대구로 전진
9월 23일	군사	• 한국 해병대와 미 해병 5연대, 서울 서측방에서 격전 • 미 제1기병사단, 상주돌입 • 제7사단, 오산 돌입 • 수도사단, 도평동 탈환 • 김일성, 북한군에 후퇴명령
9월 23일	정치·경제	• 스위스 야전병원 부산에서 업무개시 • UN 총회, 침략저지를 위해 UN군을 조직하려는 미국측안을 가결
9월 24일	군사	• 한국 해병대와 미 해병 제5연대, 서울에 돌입 미 해병 제1연대 마포에서 한강을 도하 • 공군 F-51비행부대, 대구기지에서 여의도로 이동 • 미 제1기병사단, 보은 돌입 • 제8사단, 의성 탈환 • 미 제2사단, 합천돌입 • 미 제25사단, 진주 탈환
9월 25일	군사	• 미 제7사단 제32연대와 제17연대, 한강을 도하하여 서빙고로 진출 • 수도사단, 청송 탈환 • 제6사단, 함창 돌입 • 제1사단, 선산 진출 • 미 제24사단, 김천 탈환

연 도	구분	사 건 내 용
9월 26일	군사	• 한국 해병대, 남대문과 서대문일대에서 시가전 전개 • 미 제1기병사단 777특수임무부대 선두, 22:26분에 오산북방에서 경인지방으로부터 남진한 미 제7사단 제31연대와 연결 • 제8사단, 안동 돌입 • 미 제24사단, 영동 탈환 • 제1사단, 상주 진출 • 미 제2사단, 거창, 안의 탈환 • 미 잠수함 Bursh호, 동해의 성진 근해에서 북한군의 기뢰에 접촉되어 13명 전사, 34명이 부상
9월 27일	군사	• 한국 해병대 제2대대,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 해병대 남해도 점령 • 미 제1기병사단 777부대 주력, 오산북방도달, 추격완료 • 제3사단, 울진 탈환 • 수도사단, 춘양 탈환 • 제6사단, 문경 탈환 • 미 제24사단, 옥천 탈환 • 제1사단, 보은 진출 • 한국 해군, 삼천포 탈환
9월 28일	군사	• 서울 완전 탈환 • 미 제24사단, 대전돌입 • 수도사단, 영월 점령 • 제8사단, 영주 탈환 • 제6사단, 충주 탈환 • 미 제2사단, 전주 탈환 • 미 제25사단, 남원 탈환 • 호주군(1개대대), 부산에 도착하여 대구로 이동 • 한국해군 YMS 509정, 동해에서 북한군의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
9월 29일	군사	• 공군본부 영등포 대방동 성남중학에 설치 • 제3사단, 삼척 탈환 • 수도사단, 38°선 남쪽 2km의 서림리에 집결 • 제8사단, 단양 탈환 • 제1사단, 보은, 미원 일대에서 소백산맥을 이용하여 북상 후퇴하려는 패잔병 격멸작전을 시작 • 미 제25사단, 강경 탈환 • 한국해군, 여수 탈환
	정치·경제	• 정부, 서울로 환도 • 서울 수복식을 중앙청에서 거행

연 도	구분	사 건 내 용
9월 30일	군사	• 김포반도로 미제187공수부대 이동 • 맥아더 장군 김일성에게 항복 권유 • 제3사단, 강릉 탈환하고자 38°선 2km 남방 인구리에 진출 • 워커 중장, 38°선 돌파명령 • 제6사단, 원주 탈환 • 미 제2사단, 강경-금강 진출 • 미 제23사단, 군산 탈환
10월 1일	군사	• 제3사단·수도사단, 38°선 돌파 • 제6사단, 홍천 탈환 • 제8사단, 양평진출
10월 2일	군사	• 수도사단·제3사단, 양양 탈환 • 제6사단, 춘천 탈환 • 제1사단, 청주 진출 • 한국해군, 목포탈환
10월 3일	군사	• 제3사단, 간성 탈환 • 제2군단, 서울 입성
10월 4일	군사	• 제3사단, 고성탈환 • 미 제3사단, 미국 서해안에서 한국으로 향발
10월 5일	군사	• 제3사단, 장전 탈환 • 수도사단, 원통 탈환 • 호주군대대, 김포로 공수
10월 6일	군사	• 제3사단, 통천 탈환 • 수도사단, 양구 탈환 • 제6사단, 구만리발전소 점령 • 제8사단, 동두천 진출 • 제7사단, 서울 입성
10월 7일	군사	• 제3사단, 고저탈환 • 미 제1기병사단, 개성 진출 • 제1사단, 안성진출 • 미 제25사단, 영동 부근에서 북한군과 교전하여 약 1,400명을 사살 및 포로
	정치·경제	• UN총회, 38°선 돌파를 묵인한 3개국 제안을 47:5(기권7)로 가결
10월 8일	군사	• 제3사단, 원산남방 12km 쌍음리 진출 • 수도사단, 회양 진출 • 제6사단, 화천 진출 • 미 제1기병사단, 개성진출 완료

연 도	구분	사 건 내 용
10월 9일	군사	• 제3사단, 남대천을 도하하여 원산 남단 돌입 • 수도사단, 신고산 탈환 • 제6사단, 김화 탈환 • 제8사단, 연천 탈환 • 미 제1기병사단, 38°선 돌파
	정치·경제	• 맥아더 사령관, 김일성에게 최후 항복권고문 통고
10월 10일	군사	• 수도사단, 제3사단, 원산 탈환 • 제8사단, 철원 탈환 • 제1사단, 고랑포 진출 • 미 제1기병사단, 백천 탈환 • 한국 해군 목포경비부 복귀
	정치·경제	• 국무회의에서 10월 7일 UN총회의 한국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 • 38°선 이북 전역에 계엄령
10월 11일	군사	• 수도사단, 덕원 탈환 • 미군, 원산 비행장 사용시작 • 제8사단, 평강 진출 • 제1사단, 38°선 돌파 • 김일성, 항복을 거부하고 최후항전을 북한군에 명령
10월 12일	군사	• 제1사단, 삭령 탈환 • 미 제1기병사단, 간포리 돌입
	정치·경제	• 이 대통령, 원산에서 제1군단에 대한 표창식 거행 • 조병옥 내무장관, 북한시정방침 언명
10월 13일	군사	• 수도사단, 마전리 탈환 • 제3사단, 문천 탈환 • 제1사단, 시변리 탈환 • 제6사단, 신고산 탈환 • 제8사단, 이천 탈환 • 한국 해병 제3, 제5대대, 선박편으로 인천에서 원산향발
10월 14일	군사	• 미 제1기병사단, 금천 탈환 • 제1사단, 신계탈환 • 제3사단, 영흥탈환 • 수도사단, 고원탈환 • 제6사단, 덕원진출

연 도	구분	사 건 내 용
10월 15일	군사	• 미 제1기병사단, 남천점 탈환 • 제6사단, 마전리 진출 • 제8사단, 곡산진출 • 수도사단, 영흥진출 • 미 제5공군사령부, 서울로 이동
	정치·경제	• 정부, 38°선 이남에서의 계엄령특별조치법 공포
10월 16일	군사	• 제1사단, 수안진출 • 미 제1기병사단, 신막-서흥 진출 • 미 제24사단, 연안탈환 • 제 6사단, 마전리 진출 • 수도사단, 정평탈환 • 한국해군 YMS 516정, 동해 영흥만에서 소해작업 중 북한군의 기뢰에 접촉되어 침몰
10월 17일	군사	• 제1사단, 율리-상원 탈환하여 평양 돌입을 목전에 둠 • 미 제1기병사단, 황주탈환 • 영 제27여단, 사리원 탈환 • 제6사단, 동양리 탈환 • 수도사단, 함흥, 흥남 탈환 • 미 제24사단, 해주, 재령 탈환 • 터키 여단, 부산 도착
10월 18일	군사	• 제1사단 대동리, 미 제1기병사단 흑교리, 제7사단 율리에서 평양 동북방으로 각각 진격 • 제8사단, 강동 진출 • 제6사단, 양덕 진출 • 한국 해병 제1, 제2대대, 인천에서 선박편으로 묵호 및 목포로 향발 • 미 제24사단, 진남포를 향하여 진격
10월 19일	군사	• 제1사단, 11:00시 평양돌입, 제7사단은 평양 동북방 돌입, 미 제1기병사단도 남단으로 돌입함으로써 평양을 탈환 • 수도사단, 홍원탈환 • 제6사단, 성천진출 • 맥아더 장군, 맥아더 라인을 정주-영원-함흥선으로부터 선천 고인동-평원-풍산-성진선으로 북상시킴

연 도	구분	사 건 내 용
10월 20일	군사	• 평양을 탈환한 각사단, 협동으로 잔적 소탕 작전 실시 • 미 제187공수연대, 숙천-순천간에 투하하여 북한군 퇴로차단 • 맥아더 장군, 워커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을 조속히 국경에 도달시킬 것을 명령 • 알몬드 소장, 한국군 제1군단에 국경까지의 진격을 명령
10월 21일	군사	• 수도사단, 40°선 돌파 • 미 제187공수연대, 숙천에 투하 • 제8사단, 성천 진출
10월 22일	군사	• 수도사단, 북청, 신흥 탈환 • 제8사단, 가창 진출 • 제1사단, 순천 군우리 진출
10월 23일	군사	• 제 6사단, 희천탈환 • 제8사단, 북창 탈환 • 제1사단, 영 제27여단, 안주 부근에서 청천강 도하 • 한국 해병 제1대대, 묵호상륙 • 진해에 해군 제1소해정대 설치
10월 24일	군사	• 제8사단, 덕천 진출 • 제6사단, 희천탈환 • 제1사단, 영변, 용산동 탈환 • 평양 미림기지에 한국 공군 전진
10월 25일	군사	• 제1사단, 운산 북방에서 중공군 1명 최초로 포로 • 제6사단, 고양진입 • 제8사단, 구장동 진입 • 미 제1군단 대변인실, 국경 64km 이내의 진격제한 취소하고 필요에 따라 국경까지 진격하다.
10월 26일	군사	•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17:50분 초산에 진출, 압록강에 수색대를 파견 • 국군 제6사단, 약 5,000명의 중공군과 충돌 • 국군 제2군단 정면에 중공군 40,000명 출현, 접전 중 • 한국 해병 제1대대, 묵호 출항, 원산으로 향발 • 미 제10군단 제1해병사단, 원산에 상륙

참고문헌

1. 公刊資料 및 1차 史料

1) 國文 1次 資料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關聯 證言資料.
國防部特命綴, 1949～1950.
국사편찬위원회,『북한관계사료집』제16권, 1989.
『조선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
陸軍本部 作戰命令, 1949～1950.
陸本一般命令, 1948～1950.
陸本特別命令, 1948～1950.
將校 任官序列名簿.
將校 自歷表.

2) 國文 公刊資料

강원도,『江原道史 : 역사편』, 강원일보사, 1995.
경찰청,『경찰50년사』,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공군본부 정보국,『북괴 공군』, 1951.
공군본부,「스트레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2005.
공군본부,「전투요보(1950-1951)」, 2002.

空軍本部,『空軍25年史 1948～1972』.
空軍本部,『空軍發展略史』 第1卷, 1954.
空軍本部,『空軍史 1945～1953』 第1輯, 1991.
空軍本部,『航空戰史 : 韓國戰爭』, 공군본부군사연구실, 1989.
공군본부,『UN공군사』, 1975.
공군분부,『6·25전쟁 증언록』, 1989.
國防軍史硏究所,『한국전쟁』(상),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작전』 2, 20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3, 2006.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建軍史』, 2002.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태극무공훈장에 빛나는 6·25전쟁 영웅』, 2003.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2001.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200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국방사』 제1집, 국방부, 198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국방사』 제2권, 국방부, 198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 : 北傀의 南侵과 緖戰期』 제1권, 19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인천상륙작전』, 동원, 1983.
국방부 정훈국,『한국전란 1년지』, 1951.
國防部,『國防關係法令 및 例規集』, 1950.
國防部,『國防部史』 第1輯, 1954.
國防部,『韓國戰爭史』 第3卷 및 第4卷,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70～1971.
전사편찬위원회,『대비정규전사』, 서라벌인쇄, 1988.
국토통일원,『북괴 인물』, 1971.
내무부 치안국,『한국경찰사』 Ⅱ, 1977.
內務部 治安局,『한국경찰사』, 1973.
대한민국 외무부,『한국외교의 20년 부록』, 외교연구원, 1966.
陸軍本部,『陸軍發展史』(上), 1969.
陸軍本部,『북괴군 특수부대』, 1989.
陸軍士官學校,『陸軍士官學校 30年史』, 1978.

법무부, 『한국교정사』, 1987.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병무청, 1985.
보병 제6사단, 『청성역사(1948. 6. 14～1977. 12. 31)』, 1978.
보병 제7사단사령부, 『칠성약사(1949. 6. 10～1969. 12. 31)』, 1970.
보병제3사단, 『백골사단역사』, 1980.
북한연구소, 『최신 북한인명사전』, 1996.
육군교육사령부, 『전장기능별 운용개념(개념530)』, 2005(미발행).
육군대학, 『북괴군 공격전술』, 1979.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1연대 전투상보」(42), 1986.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육군본부, 『병과별부대역사』, 1959,
陸軍本部, 『北傀의 6·25 南侵分析』, 1970.
육군본부, 『한국전쟁 사료 : 전투상보(제1군단·제2군단·수도사단)』 제41권, 육본 군사연구실, 19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수도사단 전투상보』(41), 19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수도사단 포병, 제1사단, 제11연대 전투상보』(43), 19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1군단 전투상보』(41), 19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53), 198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8사단 전투상보』(55), 1987.
육군본부, 『군수변천사』, 1995.
육군포병학교, 『포병학교 발자취』, 1963.
전병규, 『6·25와 천안』, 인문당, 1988.
제7사단, 『평양탈환전투 재조명』, 2001.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교학사, 1984.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존안자료 함적부』.
해군본부 작전참모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1950.
해군본부,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海軍本部, 『海軍30年史 1945～1975』, 1978.

해군본부,『해군작전사 개설, 1950. 6～1951. 6』 제1집, 2002.
해군본부,『해군편제사』 제1권, 1970.
해군본부,『해병약사』, 1985.
해군본부,『대한민국해군사 : 행정편』 제2집, 1958.
해병대사령부,『해병발전사』 제1권, 1961.
海兵隊司令部作戰教育局,『海兵史』 제3집, 1958.

3) 國文 證言 및 回顧錄

6·25 참전 증언록,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미발간).
강기천,『강기천 회고록, 나의 인생 여로』, 계몽사, 1995.
具範模 譯,『맥아더 회고록』, 한림출판사, 19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 참전자 증언록』①, 2003.
김상덕·김완식,『7일간의 한강방어』, 국방군사연구소, 1998.
김성칠,『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1993.
류형석 편저,『6·25참전소년병 참전수기』, 6·25참전소년병전우회, 2005.
박경석,『오성장군 김홍일』, 서문당, 1984.
박경석,『육사생도 2기』, 홍익출판사, 2000.
백선엽,『6·25한국전쟁 회고록 : 軍과 나』, 대륙연구소출판부, 1989.
신현준,『노해병의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1989.
유성칠,「나의 증언」,『한국일보』, 1990.
유재흥,『격동의 세월 : 전 국방부장관 유재흥 회고록』, 을유문화사, 1994.
유현종,『백마고지 : 김종오 장군 일대기』, 을지출판공사, 1985.
육군본부,『의장 안병범』, 1989.
육군본부,『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대회전』, 1995.
李應俊,『自敍傳 回顧 90年 1890-1981』, 汕耘紀念事業會, 1982.
李亨根,『軍番 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1993.
임부택,『낙동강에서 초산까지』, 그루터기, 1996.
임부택,『압록강아 말해다오』, 인물연구소, 1974.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6.
조갑제, 『이용문 장군 평전 : 젊은 거인의 초상』, 샘터, 1988.
한 신, 『신념의 삶 속에서』, 명성출판사, 1994.

4) 北韓 1次 史料 및 公刊資料

『인민군 전투일지』(1950. 6. 26～7. 27).
김일성, 『김일성 선집』 제1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제24권～제27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북한해군 원산작전기지, 「작전직일관 아침보고서」(1950. 5. 1～9. 28).
조선중앙통신사편, 『해방후 10년일지』, 1955(미간행).
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1-52년편, 1953.
허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5) 國外 資料

「A Day by Day History of Far East Air Forces Operation」, FEAF AG No. 20459, 25 June Through 1950 October 31.
DOCUM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KOREA Ⅰ(1948-1950), 國防軍史硏究所 韓國戰爭資料叢書 1, 1996.
FEC ATIS Research Supplement Interrogation Reports, North Korean Forces Issue No.3, *North Korean Guerrilla Operation to 30 September 1950*(1950. 11. 15), SN.1582.
FEC,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1952(Unpublished).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50,* vol.7, *Korea,* 1976.
U. S. 25th Infantry Division, *The Tropic Lighting in Korea-25th Infantry Division*(Atranta, Georgia: Albert Love Enterprises), 19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1989.
國防部 軍史編纂硏究所,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제1·2권, 200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역,『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 1990.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 자료총서』 제16집, 1997.
大韓民國 外務部,『韓國戰爭 關聯 蘇聯 極秘外交文書』(1-4권), 1994.
徐東九 譯,『美國務省 外交文書가 벗긴 6·25秘錄 : 韓半島의 긴장과 美國』, 대한공론사, 1977.
소련군 총참모부,『조선에서의 전투일보, 1950. 6. 25～1951. 12. 31』.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한국전쟁』 제2권, 명성출판사, 1987.
Staff Section Report. G-1, GHQ, FEC, 1 January-31 October 1950.
The New York Times.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SGPO : 1988), p. 31.
U.S. House,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Background Information on Korea*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0).
USA Army, Military History Office, *The Handling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San Francisco, California : 1960).

2. 2次 資料 및 單行本

1) 國內資料

김광수,「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 연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김남식,『남로당연구』, 돌베게, 1984
김중생,『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1.
김창순,『북한15년사』, 지문각, 1961.
김학준,『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남상선·김민규,『6·25와 학도병』, 혜선문화사, 1974.
남정옥,『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2002.

박갑동,『한국전쟁과 김일성』, 바람과 물결, 1990.
박홍규,『UN』(서울: 형성사, 1991).
볼코고노프 저, 韓國戰略問題硏究所 역,『스탈린』세경사, 1993.
서경석,『전장감각』, 샘터, 1999.
안 천,『남침유도설 해부』, 교육과학사, 1993.
예프게니 바자노프·나딸리아 바자노프 저, 김광린 역,『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7.
오규열(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제1권, 군사편찬연구소, 2002.
온창일,『한민족전쟁사』, 집문당, 2001.
유관종,『한국경찰사』, 현대경찰문고, 1982.
육철식,『강동정치학원』, 행림출판사, 1998.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30년사』, 1981.
이호재,『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법문사, 1988.
임 은,『북한 김일성 왕조비사 : 김일성 정전』, 한국양서, 1982.
장준익,『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戰爭記念事業會,『韓國戰爭史』1-6, 1991～1993.
주영복,『내가 겪은 조선전쟁』, 고려원, 1990.
중앙일보사,『민족의 증언』, 을유문화사, 1973.
韓國弘報協會,『韓國動亂』, 1973.
韓豹頊,『韓美外交 요람기』, 중앙일보사, 1984.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戰火 속의 대사관』, 한섬사, 1980.
허남성·이종판,『韓國戰爭의 眞實』, 國防大學院, 2002.

2) 國外 資料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 MacMillan, 1960)
Appleman, Roy E., *U. S. Army in the Korean Army : South to the Naktong to the Yalu,* Washington, D. C. : GPO, 1961.

BG. G. B. Barth, *TROPIC LIGHTNING AND TARO LEAF IN KOREA*, Vol.6, Library Armed Forces Staff College, 1955.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Anchor Press Books, Doubleday, 1989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 (New York : McGraw-Hill, 1966).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1961.

George M. McCune, *Korea Toda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 June 24-30*,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Harold J. Noble, *Embassy at War,*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Garden City, NY: Doubleday, 1956.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Navy, 1962.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1.

James A. Huston, *THE SINEWS OF WAR,* Washington, D.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1966.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Vol. Ⅲ, USGPO, 1978.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USGPO.

Kathryn Weatersby,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New Documentary Evidenc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2, No.4 (Spring 1995).

Oliver P. Smith, *Aide-Memoire* (Notes by Lieutenant General O. P. Smith on the Operation of the 1st Marine Division during the first nine month of the Korean War), 1952(Unpublished).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apolis :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57)

Marguerite Higgins, *War in Korea* (New York : Doubleday, 1951).

Robert D. Heinl, Jr., *Victory at High Tide* (Philadelphia L.B. Lippincott, 1968).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 C. :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Roy K. Flint, *T. F. Smith and 24th Division, (Ed.)Charles E. Heller and William A. Stoff, America's First Battle(1776-1965)* (Univ. Press of Kansas: 1988).

Susan Matura Translation, *Khrushchev Remembers*, 1970.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TEST OF WAR: History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Washington, D.C.: U.S. G.P.O., 1988.

Truman, Harry S., *Memoirs* : *Year of Decisions*, Garden City, N. Y. : Doubleday & Co., 1955.

W. G. Robertson, *Counterattack on the Naktong 1950,* Combat Studies Institute Leavenworth Papers, 1985.

Walter Kraig, Malcom W. Cagle aqnd Frank A.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New York: Rinehart and Co., Inc., 1952.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軍事科學院,『中國人民志願軍 韓國戰爭史』1(北京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2000).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朝鮮戰爭』2;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한국전쟁』제2권, 명성출판사, 1986.

朱榮福,『朝鮮人民軍の南侵と敗退』, ユリア評論社, 1979.

찾아보기

ㄱ

가산 214, 221
간성 360, 369, 373
갈마리 367
갑산 528, 529
강건 29
강동 379, 420, 434, 500
강릉 322, 352, 361
강문봉 353
강선리 362
강성희 336
개마고원 471
개성 356, 386, 410
개천 494
개천역 503
거매동 218
거진리 363
건령산 229
게이(Hobart R. Gay) 33, 227, 237, 288, 291, 388, 393, 410, 420, 434
경제협조처(ECA) 44
계림화학 70
계인주 113
고근홍 264, 267, 313, 383
고길훈 119
고랑포 299, 397
고성 363, 373
고원 527, 550, 553
고장 511, 514
곡산 383
공군기지부대 682
공군비행단 657
공군사관학교 59, 665
괴산 296, 308
괴화리 367
구룡강 489
구산동 258, 267, 312
구영숙 52
구장동 497
구화리 394, 397
국민총동원령 53
군사원호법 72
군산 303, 306
군수국 64
군위 220, 221, 308
군정 49, 50
그린(Charles H. Green) 415, 485
극성령 513
금무봉 226, 229, 239
금산동 218
금천 372, 385, 387, 394, 410
금호강 245
기계 276, 280, 318, 321, 324
기룡산 265, 266
길안 277
길주 530
김갑태 361
김광협 30
김기용 215, 416
김동빈 215, 296, 299, 397, 415
김동수 546
김무정 30, 32, 313
김묵 265
김백일 34, 268, 281, 353, 369, 405, 532
김봉상 270, 372
김상균 269, 321
김석원 34
김석진 361
김성 259, 506
김세락 269, 321
김소 215, 296
김영석 215
김용배(金龍培) 259, 262, 264
김용배(金容培) 265, 299, 310, 377, 517
김용주 280, 434, 435

김우영 269, 275, 335
김욱전 259, 378
김웅 29
김윤근 119
김응조 269, 270, 361, 368
김익렬 259, 308
김일성 22, 28, 32
김일성대학 430, 432, 438
김점곤 215, 299, 397, 400, 415, 416
김종갑 369
김종기 119
김종수 259, 310, 378, 407
김종순 270, 360, 368
김종오 34, 258, 259, 264, 379, 383, 479
김진위 215, 297, 428
김창덕 30
김창봉 241
김책 22, 29, 355
김천 209, 227, 245, 292, 293
김태모 96
김판산 274
김포비행장 149, 185, 476
김홍일 34
김황목 270

ㄴ

나남 537
낙동강 226, 245
낙동리 216, 226, 238, 287, 295
낙산리 239
남면천 497
남산 173, 177, 183
남천점 410
낭림산맥 524
네덜란드 19
노고령 266
노고산 165
노르웨이 19
논산 253, 300
니스트(Cecil Nist) 227, 234

ㄷ

다부동 220, 223, 232, 238, 287
단양 307, 312, 315, 352
단천 528, 548
대구 214, 285
대구방위사령부 57
대동리 424
대성산 431
대암봉 513
대율동 216
대전 238, 291, 345
대한전신전화공업주식회사 70
대화 328, 352
덕산령 540
덕순산 275
덕원 381, 410, 527, 557
덕적도 92
덕천 501, 521
데니스(Dennes) 485
도덕산 281
도원동 258, 263
도일 89, 101, 102, 105, 605
도평동 269, 277, 325
돌빈(Welborn G. Dolvin) 305
동두천 317
동평양 422, 425
두무동 547
두일령 523
디 초우(George H. De Chow) 254

ㄹ

라이트(Edwin K. Wright) 39, 100, 121, 481
러프너 41, 103
레이퍼(Raymond N. Reifer) 306
로물로 20
로버트(Paul F. Roberts) 254
로저스(Glenn F. Rogers) 227
로체스터 121, 146
론달(John E. Londahl) 246
리(Robert L. Rhea) 228
린치(James H. Lynch) 227, 237, 287

ㅁ

마달리 363
마리훈련소 528
마시동 223
마식령 550
마운트 맥킨리(USS Mount Mckinley) 102, 121, 146, 604
마이켈리스(John H. Michaelis) 254
마전리 397, 527, 550, 555
마천령 529
마현 379
만포선 507
만포진 481, 511

말리크(Yakov A. Malik) 19, 348
말휘리 372, 374
망우리 173, 184
매곡동 218
매튜스(Charles M. Matthews) 305
맥그레일(Thomas M. McGrail) 228
맥메인(D. M. McMains) 246
맥아더 라인 454, 720
맥아더(Douglas MacArthur) 21, 25, 45, 87, 99, 103, 185, 349, 356, 368, 439, 453
맨스필드 129
맨실(Edward C. Mancil) 291
맹산 521
머레이 149, 176
머치(Gordon E. Murch) 254
면목동 184
명봉산 228
명부대 124
명우참 488
모란봉 430, 433, 436
모진교 311, 377
묘향산 523
무릉산 276, 277, 280
무어(Ned D. Moore) 228
무촌리 255
묵호 323
문막 310
문산호 577
문성리 543
문정식 259, 308, 377
문평리 553, 556
미림비행장 430, 433, 671
미림리 425
미아리고개 174, 175
미원 295
미주리(Missourie)함 556, 558, 627
민기식 34
밀번(Frank W. Milburn) 240, 292, 410, 457

ㅂ

바동 스트레이트호 112
바르 103, 163
바스(George B. Barth) 228
바아(David G. Barr) 89
바탄 99
박계주 505
박관영 435
박도경 270
박성철 30
박영근 553
박영식 215
박익균 376
박정모 182
박종병 269, 275, 360, 445
박진석 447, 492
박철 259, 378
박치옥 265
박헌영 467
박효삼 30
반룡산 534
방호산 29, 255
배화여자중학교 408
백남권 270, 325, 369, 407, 546
백선엽 34, 215, 298, 397, 415, 434, 469
백암산 529, 542
백인엽 34, 89, 171
백천 410
번춘장 531
번튼(George E. Vonton) 250
베빈 20
베이커(Robert W. Baker) 117, 289, 290
벽라교 436
병사구사령부 55, 58
보성중학교 312
보웬(Frank S. Bowen Jr.) 473
보은 238, 288, 295
보현산 265, 266, 312
복로동 223
복서 122
부곡리 249
부동리 544
부민동 539
부산 285, 358
부산역 185
부역행위특별심사법안 24
부전령 529, 542
부전호 472, 528
부평동 514
북악산 179, 181
북우 392, 394, 401
북창 521
북청 529, 541
불동 220
뷰챔프(Charles Beauchamp) 228
브라질 19
블레어(Melvin R. Blair) 254
블루하트 39, 100, 101
비상향토방위령 24
비운령 367

비진스키(A. Y. Vishinsky) 19, 349
비학산 276

ㅅ

사곡산 246
사리원 356, 410, 415, 478
사방거리 379
사세호 116
삭령 397
산청 305
삼등 425, 501
삼산동 334, 430, 431
삼산리 436
삼척 322
삼학동 235
삼화평 533
상림동 223
상사고리 368
상원 418
상장동 223, 225
상주 225, 235, 238, 288, 295
상통리 559
생지교 273
서림 324, 327, 369
서북산 253, 303
서울역 179, 181
서울지구방위사령부 87
서정철 361
서평양역 437
서해안 방어사령부 96
서흥 412
석순천 259, 308, 377
석우동 218, 220
석종섭 425
석주암(石柱岩) 215
선교리 423, 429
성문동 228
성원동 228
성주 244, 292
성진 528, 529, 530
성천 381, 420, 499, 501
세검정 179
세브란스약품회사 70
셔먼 104, 107, 108, 597
셰라드(R. G. Sherrard) 246
셰퍼드 104, 121, 149
소궁진 147
소동리 276
소두류산 527
소월미도 112, 124, 128
소쾌산 525
손원일 89, 139
송당리 539
송대후 259, 308, 377, 381
송요찬 34, 270, 282, 325, 369, 407, 527
송전반도 527, 550
송찬호 368
송평동 522
송효순 187
수달리 553, 555
수도전기통신기계제작소 70
수산동 217
수상리 529
수안 415, 435
수영기지 677
수원비행장 99, 163, 164, 189
수풍댐 489
수하리 543
숙천 473
순천 473
스록모튼(John L. Throckmorton) 241
스미스(Charles B. Smith) 89, 102, 105, 142, 155, 170, 176, 228
스완슨 125
스캘던(James H. Skeldon) 246, 249
스테판(Richard W. Stephens) 228, 240, 412
스튜어트(Everett Stewart) 246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89, 102, 105, 121, 159, 574, 680
스포퍼드(R. T. Spofford) 618
시변리 397
시실리 138
시실리호 112
신계 410, 415
신고산 369, 374, 377
신녕 258, 308
신도장 517
신림 315, 317
신반리 250, 253, 300
신북청 529
신상철 280, 419, 438
신성모 52, 281, 409
신안주 488
신언국 270
신주막 218
신포 529
신풍리 557
신현준 89, 119, 184
심프슨 138

아이리스(Harold B. Ayres) 228
안강 268, 276
안동 258, 264, 307, 312
안민일 270
안변 364, 367, 369, 374, 550
안병건 215, 297, 428
안의 301
안전보장이사회 19
안태봉 277
알렌(Frank A. Allen Jr.) 483
알렌(Leven C. Allen) 249
알몬드(Edward M. Almond) 39, 89, 100, 103, 152, 159, 170, 464, 556
애치슨(Dean G. Acheson) 20, 349
애플리(Gerald G. Eply) 249
앤드류스 89
양각도 423
양강동 511
양구 371, 372
양덕 379, 381, 434, 532
양문리 377
양병수 182
양양 324, 360, 370
양인석 435
양평 310, 314, 316
어운리 555
언진산맥 524
에드워드(James W. Edwards) 246
에이블 117
엘리 123
여왕산 367, 405, 408, 527
연세대학 166
연천 314, 383
연포비행장 550
연희고지 166, 168, 171, 178
영덕 269, 319
영등포 162, 163, 164, 177
영변 489
영산 246
영월 326
영유리 482
영주 264, 307, 312
영천 258, 264, 312
영흥 527, 550, 556
영흥도 92
오드웨이(Godwin L. Ordway) 227
오류리 428
오백룡 30, 263, 307
오스트레일리아 19
오스틴(Warren R. Austin) 89, 346
온정리 513
와우산 165
왕십리 183, 184
왜관 226, 239, 245, 292
용담리 553, 557
용덕동 273
용산동 489
용원리 505
운산 488
울노우(James K. Woolnough) 421
울진 318, 321
울포크(Robert L. Woolfolk) 254
워커(Walton H. Walker) 33, 35, 104, 249, 352, 354, 357, 361, 411, 457, 468
원산 356, 361, 367, 378, 404
원산비행장 367, 404, 553
원일한 157
원주 308, 314
원평장 539
원풍리 543
원흥리 535
월미도 96, 112, 124, 126, 136, 597
웨벨(James E. Webel) 388
위더스푼(William O. Wither Spoon) 227
윌슨(David Wilson) 413
윌슨(Richard G. Wilson) 484
윌슨(Vennard Wilson) 254
윌킨스(John L. Wilkins) 254
윗트니 121
유경수 30, 292
유문호 215, 221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42, 51
유의준 264, 316, 383
유재성 215, 296, 397, 425
유재흥 34, 259, 264, 265, 307, 316, 377, 385, 438, 457, 469
유중참 508
유한양행 70
육군종합학교 57
육군중앙훈련소 57
율리 410, 415
은석표 269, 275, 321
응봉산 139, 140
응추동 218
의령 257, 304
의령터널 165, 167
의성 258, 263, 264, 308, 312

의정부 314
의흥 308
이권무 29
이대용 517
이대철 436
이명흠 573
이무중 215, 296
이상근 326
이상수 671
이성가 34, 264, 265, 299, 313, 316, 521
이성봉 270
이성훈 381
이승만 24, 43, 48, 49, 50, 78, 184, 325, 348, 351, 353, 409, 419, 439
이영호 29, 227, 241
이원 537
이원익 265
이익선 227
이익성 30, 255
이존일 215, 493
이종찬 34, 269, 270, 319, 360, 552
이주일 383
이준식 34
이창률 265
이천 384, 410, 435
이치업 269, 361, 368, 407
이학구 235, 334
이한림 34, 317
이현상 28
인구리 318
인사국 56
인성관 259, 310, 378, 502
인제 373
인흥리 557
임관묵 270, 376
임부택 259, 308, 377, 517
임원진 322
임충식 270, 325, 336, 368, 375, 527

ㅈ

자메이카 125, 146
자산리 367
작오산 243
장기동 218
장단 391
장면 51, 346
장사동 124, 321
장전 364
장진호 472
장춘권 270, 328, 372
장충동 183
장흥동 273
장흥리 539, 544
잭슨 113
적색해안 94, 131
적유령산맥 471
전곡 378
전시동원령 22
전주 303
전탄강 527
전투산 253
정세진 270, 376, 407
정순기 265
정순민 269, 321, 323
정승화 270
정영홍 215
정인완 265
정일권 34, 78, 353, 360, 419
제1형무소 56
제1훈련소 60
제2국민병 55
제2조병창 69
제2훈련소 60
제천 308, 315
젠센(Carl C. Jensen) 228
조림산 259, 262
조병옥 24, 49, 52, 53, 534
조성래 215, 416
조시(Claude K. Josey) 482
조이(C. Turner Joy) 555, 575
조재미 215, 297, 299, 397, 430
조준영 34
조치원 295
존(Valdor John) 483
존슨(Harold D. Johnson) 109, 227
죠이 104, 105, 108
주문진 323
주영복 236
주은래 17, 18, 348
죽령 314
죽변 322
중대동 223
중리 217
중암리 255, 257, 304
중앙긴급구호위원회 47, 72
중흥리 539
증평 296
지경리 364, 367, 369, 533
진남포 415

진보 321
진주 254, 257, 303
진천 296
진포비행장 536

ㅊ

차갑준 215, 418
창녕 246
창도리 364
창성 518
창촌리 370
창평 328
창평동 217
채명신 265, 266
챱-라인(Chop Line) 720
처치(John H. Church) 33, 99, 228, 240
천생산 223
천안삼거리 290
철령 374
철석산 558
철원 299, 363
청노동 258
청산장시 490
청색해안 94, 131, 134
청석두리 412, 415
청송 263, 269, 277, 321, 322, 325
청주 238, 297
청진 530, 548
청하 269, 319
체코슬로바키아 20
체크(Gilbert J. Check) 254
초계 251, 253, 300
초산 469, 511
초성리 377
최경록 353
최광 214
최덕신 34
최병순 215, 221
최상준 269, 275
최영희 215, 296, 297, 494
최용건 355
최용진 30, 236
최인 30, 276, 420
최정식 269, 275
최정택 326
최춘국 30
최현 29, 301, 468
춘양 324, 326
춘천 310, 311, 377
충주 263, 308, 314, 352
췌리티 114
칠곡 227, 232

ㅋ

카슨(Eugene J. Carson) 254
카이저(Lawrence B. Keiser) 33, 246
카투사 58, 80, 106
케난(George F. Kennan) 345
케냐 125
케인(Robert W. Kane) 227
케지아(Kejia) 573
코드(Basil A. Coad) 228, 413, 483
코울(George R. Cole) 254
콜렛트 125
콜리(John T. Corley) 254
콜린스(Lawton J. Collins) 107, 709
쿠바 19
쿨터(John B. Coulter) 35, 256, 303
크로마이트 40, 87, 102, 155
크롬베즈(Marcel B. Crombez) 227, 401, 422
클라크(Eugene Clark) 114, 126, 596
클레이노스(Peter D. Clainos) 227, 234, 414
킨(William B. Kean) 33, 254, 257, 305

ㅌ

타크래이 137
탁고개 523
태국군 38
태천 514
태플리트 127
터너(William H. Tunner) 683
터키여단 38
테터(Bernard G. Teeter) 254
톨레도 125
통천 360, 363
통천구 518
트루먼(Harry S. Truman) 187, 345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663

ㅍ

파니카(K. M. Panikkar) 348
파발령 518
파버샤인 189
파키스탄 19
판하동 511
팔머(Charles D. Palmer) 227

팔머(Raymond D. Palmer) 227
팔미도 92
패천리 367
패트리지(Earl E. Partridge) 372, 409, 481
페레즈(Gines Perez) 228
페플로(George B. Peploe) 246, 249
펜들턴 100, 105
평강 384, 435
평덕선 507
평양 356, 404, 420, 428, 434
평양비행장 430, 433
평양시민대회 26
평창 324, 327
평해 319
평화선언 19
포로수용소 62
포트베닝 106
포항 268
폭스 117, 121
폴란드 20
표양문 143
풍기 314
풍산 528, 529
풍장 514
프리먼(Paul L. Freeman) 246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24
피셔(Henry G. Fisher) 254, 257
피카웨이 119
필드(Eugene J. Field) 227
필리핀 19
필리핀군 38, 486

ㅎ

하동 306
하병래 265
하산동 240
하지동 232
하행동 508
학성동 548
한강인도교 162, 174
한순화 215, 221, 401
한신 270, 326, 336
한치한 152
한포리 411
함경산맥 472
함관령 534
함병선 259, 308
함양 305
함창 258, 263, 308
합동전략기획단 87, 107
합천 250, 253, 300, 301
해군사관학교 59
해리스(William A. Harris) 89, 234, 288, 394
해리슨(Fred L. Harrison) 246
해주 410
핸넘 164
핸더슨 89, 125
허용우 259, 310, 378
허친(Claire E. Hutchin) 246
허프(Gilmon A. Huff) 389
헤닉(William C. Hennig) 400
헤스(Dean E. Hess) 663
헤이니스(Loyal M. Haynes) 246
현풍 246
형산강 268, 274
형산교 273
혜산진 529
호만호리 541, 545
호명리 276
호톤 157, 158
혼(Kluck Hohn) 113
홍군 제1발전소 544
홍도진 314
홍원 528, 540
홍천 310
화령장 295
화이트(Horton V. White) 254
화천 364, 371, 374, 377
화평동 508
화평참 507
환도식 185, 186
황계치 397, 402
황수원 529
황주 385, 410
황헌친 353
회양 364, 373, 381
횡성 308
효령 220
효자동 275
후치령 529, 544
휘트니(Whitney) 481
흑교리 421
흡곡 367
홍남 404
홍상리 535
홍해 318
히긴스 125
힉키(Doyle O. Hickey) 249
힐(John G. Hill) 246